

밤도리 PSAT

PSAT 상황판단

2011 ~ 2025

유형별 기출모음집

무단 전재 및 재배포, 재판매를 엄금합니다.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밤도리 PSAT>

티스토리 블로그 <PSAT 푸는 밤도리>

2011년 이후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 5급, 7급, 민경채 PSAT 상황판단영역 1,075문항을 모아 유형별로 분류한 자료입니다.

학원 강의 수강생은 수업 중 설명한 모음집 활용 가이드를 따라 주세요. 혹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수업 중 안내한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수리퀴즈 및 논리퀴즈의 세부 유형 이름은 의도적으로 생략했습니다. 같은 세부 유형으로 분류된 문항들은 연달아 배치되어 있으므로, 독학 중인 수험생은 문제의 외형이나 풀이 원리에서 공통점이나 유사성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차례

[문제지]

법	무상황	유제목	...	1쪽
법	무상황	무제목	...	62쪽
법	유상황	유제목	...	125쪽
법	유상황	무제목	...	146쪽
텍스트	법·규정	무상황	...	165쪽
텍스트	법·규정	유상황	...	185쪽
법	계산		...	207쪽
텍스트	법·규정	계산	...	231쪽
규정	해석		...	235쪽
규정	적용		...	244쪽
규정	요건검토		...	315쪽
규정	점수비교		...	343쪽
규정	계산		...	397쪽
규정	추론		...	490쪽
텍스트	추론		...	519쪽
퀴즈	논리		...	546쪽
퀴즈	수리		...	636쪽
텍스트	일반		...	881쪽
세트			...	1000쪽

[정답지]

※ 해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유형 안에서의 배열 순서는 시험분류(민경채→7급→5급) 및 연도 오름차순입니다. 배치 순서와 개별 문항의 난이도는 관련이 없습니다.

2011 민경채 (인) 5번

문 5.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각 회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제00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

제00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00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보 기> —

ㄱ. 부도위기에 직면한 甲회사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않고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정리해고한 경우, 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이다.

ㄴ. 乙회사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그 사실을 구두로 통지한 경우, 그 해고는 효력이 있는 해고이다.

ㄷ. 丙회사가 고의는 없었으나 부주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근로자를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ㄹ. 丁회사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해고는 효력이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011 민경채 (인) 14번

문 14.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제00조(감사)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는 감사업무를 총괄하며, 감사결과를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00조(감사의 보조기구) ① 감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인과 직원으로 구성된 보조기구를 둔다.
② 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4급 이상으로 그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된 자로서, 계약심사·IT·회계·인사분야 업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공인회계사(CPA), 공인내부감사사(CIA) 또는 정보시스템 감사사(CISA)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
1.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④ 감사가 당해 감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보 기> —————

ㄱ. 계약심사 업무를 4년 간 담당한 5급 직원 甲은 원칙적으로 감사인으로 임명될 수 있다.

ㄴ. 정보시스템감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규정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력 2년의 5급 직원 乙은 감사인으로 임명될 수 있다.

ㄷ. 2년 전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공인내부감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 丙은 감사인으로 임명될 수 있다.

ㄹ. 감사는 인사부서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업무를 2년 간 담당하고 현재 인사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5급 직원 丁으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012 민경채 (인) 13번

문 13. 다음 <약관>의 규정에 근거할 때, 신용카드사용이 일시정지 또는 해지될 수 없는 경우는?

— <약 관> —

제00조(회원의 종류) ① 회원은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합니다.

② 본인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당해 신용카드 회사(이하 '카드사'로 약칭함)에 신용카드(이하 '카드'로 약칭함)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③ 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이 지정하고 대금의 지급 및 기타 카드사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분으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제00조(카드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해지) ①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그로 인한 카드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카드사와 회원 사이의 카드이용계약(이하 '계약'으로 약칭함)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입회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카드사용 대금을 3회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3. 이민, 구속,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원은 카드사에 언제든지 카드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③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의 카드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일시정지 또는 해지는 상대방에게 통보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00조(카드사의 의무 등) ① 회원이 최종 사용일로부터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 회원의 계약 해지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해 회원이 전화, 서면, 전자우편, 단문메시지 서비스, 자동응답시스템 등으로 해지의사를 밝히면 그 시점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 ① 본인회원인 A가 가족회원인 딸 B의 동의 없이 B의 카드사용 해지를 카드사에 통보한 경우
- ② 가족회원인 C가 자신의 카드사용의 일시정지를 카드사에 통보한 경우
- ③ 카드사가 최근 1년 간 카드사용 실적이 없는 회원 D에게 전화로 계약 해지의사를 묻자, D가 해지의사를 밝힌 경우
- ④ 카드사가 회원 E에게 2회의 카드사용 대금 연체 사실을 통보한 경우
- ⑤ 입회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회원 F에게 카드사가 그 사실과 카드사용의 일시정지를 통보한 경우

2012 민경채 (인) 14번

문 14. 다음 A국의 법률을 근거로 할 때, ○○장관의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출국의 금지)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 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②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3개월 이내
2.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영장 유효기간 이내

- ① 사기사건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甲에 대하여 5개월 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 ② 추징금 2천 5백만 원을 내지 않은 乙에 대하여 3개월 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 ③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강도사건 피의자 丙에 대하여 2개월 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 ④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丁에 대하여 3개월 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 ⑤ 정당한 사유 없이 2천만 원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戊에 대하여 4개월 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2013 민경채 (인) 5번

문 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법 제00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시행령 제00조(재외국민의 정의) ① 법 제00조 제1호에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라 함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00조 제1호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00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00조 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①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동포가 될 수 없다.
- ② 재외국민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은 거주국의 영주권 취득이다.
- ③ 할아버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적자는 재외국민이다.
- ④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회사업무를 위해 중국출장 중인 사람은 외국국적동포이다.
- ⑤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현재 브라질 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국적동포이다.

2013 민경채 (인) 15번

문 1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법 제00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시행령 제00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00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 <보 기> —

- ㄱ.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연골무형성증의 질환이 있는 임신 20주일 임신부와 그 남편이 동의한 경우
- ㄴ. 풍진을 앓고 있는 임신 28주일 임신부가 동의한 경우
- ㄷ. 남편이 실종 중인 상황에서 임신중독증으로 생명이 위험한 임신 20주일 임신부가 동의한 경우
- ㄹ. 남편이 실업자가 되어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한 임신 16주일 임신부와 그 남편이 동의한 경우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14 민경채 (A) 9번

문 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국민공천배심원단) ① 공정하고 투명한 국회의원 후보자 선발을 위하여 국민공천배심원단을 둔다.
② 국민공천배심원단은 국회의원 후보자 중 비전략지역 후보자를 제외한 전략지역 및 비례대표 후보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제00조(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확정) 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 공천위원회는 후보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단수 후보자를 최고위원회에 추천하거나 복수의 후보자를 선정한다.
③ 공천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복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결정된 단수 후보자를 최고위원회에 추천한다.
④ 국민공천배심원단은 공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략지역 후보자에 대해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최고위원회에 재의요구를 권고할 수 있다.
제00조(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확정)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천위원회에서 지역 및 직역별로 공모를 실시한 후 후보자와 그 순위를 정하고,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 ① 국민공천배심원단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 ②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전략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③ 국민공천배심원단은 공천위원회가 추천한 비전략지역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최고위원회는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비전략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를 의결로 확정한다.
- ⑤ 전략지역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하여 최고위원회에 재의요구를 권고할 수 있는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의결정족수는 재적 3분의 1 이상이다.

2016 민경채 (5) 5번

문 5. 동산 X를 甲, 乙, 丙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다음 A국의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00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00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00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00조(지분포기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보 기> ———
ㄱ. 甲, 乙, 丙은 X에 대해 각자 1/3씩 지분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ㄴ. 甲은 단독으로 X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ㄷ. 甲이 X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乙과 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ㄹ. 甲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X에 대한 甲의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2017 민경채 (나) 5번

문 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규정을 위반한 행위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00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3.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보 기> —

ㄱ. 공무원 甲은 그 소속 상관에게 직무상 관계 없이 고가의 도자기를 증여하였다.
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乙은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합 업무에 전임하고 있다.
ㄷ. 공무원 丙은 동료 공무원 丁에게 선거에서 A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요구하였다.
ㄹ. 공무원 戊는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B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해당 지역구 지인들을 대상으로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2017 민경채 (나) 15번

문 1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이하 ‘음주측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보 기> —

ㄱ.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의 상태에서 운전하여 1회 적발된 행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보다 불법의 정도가 크다.

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혈중알콜농도 또는 적발된 횟수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ㄷ.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으로 2회 적발된 자가 다시 혈중알콜농도 0.15퍼센트 상태의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017 민경채 (나) 16번

문 1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제00조(성년후견)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 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 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제00조(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 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00조(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① 성년후견인의 수는 1인으로 제한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 구할 수 있다.

③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행한 일용품 구입행위를 그 대가의 정도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없다.

④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절차에서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없다.

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피성년 후견인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병원에 격리할 수 있다.

2023 7급 (인) 1번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천문업무”란 우주에 대한 관측업무와 그에 따른 부대업무를 말한다.
- 2. “천문역법”이란 천체운행의 계산을 통하여 산출되는 날짜와 천체의 출몰시각 등을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 3. “윤초”란 지구자전속도의 불규칙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계시와 세계협정시의 차이가 1초 이내로 되도록 보정하여주는 것을 말한다.
- 4. “그레고리력”이란 1년의 길이를 365.2425일로 정하는 역법체계로서 윤년을 포함하는 양력을 말한다.
- 5. “윤년”이란 그레고리력에서 여분의 하루인 2월 29일을 추가하여 1년 동안 날짜의 수가 366일이 되는 해를 말한다.
- 6. “월력요항”이란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제00조(천문역법) ① 천문역법을 통하여 계산되는 날짜는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하되, 음력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천문역법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윤초의 결정을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결정·통보한 윤초를 언론매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① 그레고리력은 윤년을 제외하는 양력을 말한다.
- ②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인 월력요항에는 24절기가 표기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세계시와 세계협정시를 고려하여 윤초를 결정한다.
- ④ 천문역법을 통해 계산되는 날짜는 음력을 사용할 수 없고,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6월 말까지 그해의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2023 7급 (인) 2번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제00조(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00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衡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종결된 법률관계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 ② 무효인 처분의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 ③ 행정청은 부당한 처분의 일부는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전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는 없다.
- ④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⑤ 당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부여되는 처분을 받아 행정청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2023 7급 (인) 3번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조직 등) ① 자율방범대에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을 둔다.

②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이 추천한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이 법을 위반하여 파출소장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해야 한다.

제00조(자율방범활동 등) ①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2.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

②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때에는 자율방범활동 증임을 표시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③ 자율방범대원은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제00조(금지의무)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파출소장은 자율방범대장이 추천한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원이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을 하는 경우,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③ 자율방범대원이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율방범대원이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는 경우, 자율방범활동 증임을 표시하는 복장을 착용하면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

⑤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이를 이유로 파출소장이 그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경찰서장은 해당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해야 한다.

2023 7급 (인) 11번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제○○조(해수욕장의 구역) 관리청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 이용이나 운영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해수욕장협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나 해수욕장의 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또는 개장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 등을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받은 자는 위탁받은 관리·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에 따른 수탁자로 지정받은 자
 2. 제△△조 제4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관리·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을 운영함에 있어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더라도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을 구분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③ 관리청이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공익법인을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나 지역공동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는 없다.
- ④ 관리청으로부터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공익법인이 이를 타 기관에 재위탁한 경우, 관리청은 그 공익법인에 대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⑤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함에 있어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필요는 없다.

2023 7급 (인) 12번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119구조견교육대의 설치·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체계적인 구조견 양성·교육훈련 및 보급 등을 위하여 119구조견 교육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119구조견교육대는 중앙119구조본부의 단위조직으로 한다.

③ 119구조견교육대가 관리하는 견(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견: 구조견 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훈련 중인 개
2. 종모견: 훈련견 번식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개

제□□조(훈련견 교육 및 평가 등) ① 119구조견교육대는 관리하는 견에 대하여 입문 교육, 정기 교육, 훈련견 교육 등을 실시한다.

② 훈련견 평가는 다음 각 호의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각 평가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본다.

1. 기초평가: 훈련견에 대한 기본평가
 - 가. 생후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일 것
 - 나. 기초평가 기준에 따라 총점 70점 이상을 득점하고, 수의검진 결과 적합판정을 받을 것
2. 중간평가: 양성 중인 훈련견의 건강, 성품 변화, 발전 가능성 및 임무 분석 등의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
 - 가. 훈련 시작 12개월 이상일 것
 - 나. 중간평가 기준에 따라 총점 70점 이상을 득점하고, 수의진료소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을 것
 - 다. 공격성 보유, 능력 상실 등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③ 훈련견 평가 중 어느 하나라도 불합격한 훈련견은 유관 기관 등 외부기관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다.

제△△조(종모견 도입) 훈련견이 종모견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제□□조 제2항에 따른 훈련견 평가에 모두 합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순수한 혈통일 것
2. 생후 20개월 이상일 것
3. 원친(遠親) 번식에 의한 견일 것

- ① 중앙119구조본부의 장은 구조견 양성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119구조견교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원친 번식에 의한 생후 20개월인 순수한 혈통의 훈련견은 훈련견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종모견으로 도입될 수 있다.
- ③ 기초평가 기준에 따라 총점 80점을 득점하고, 수의검진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훈련견은 생후 15개월에 종모견으로 도입될 수 있다.
- ④ 생후 12개월에 훈련을 시작해 반년이 지난 훈련견이 결격사유 없이 중간평가 기준에 따라 총점 75점을 득점하고, 수의진료소견 결과 적합판정을 받는다면 중간평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⑤ 기초평가에서 합격했다라도 결격사유가 있어 중간평가에 불합격한 훈련견은 유관기관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다.

2023 7급 (인) 25번

2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2. “모(母)” 또는 “부(父)”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자
라. 미혼자
3.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제□□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조(복지 급여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복지 급여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②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① 5세인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자가 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혼자여야 한다.

② 배우자와 사별한 자가 18개월간 병역의무를 이행한 22세의 대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③ 부모의 생사가 불분명한 6세인 손자를 양육하는 조모에게는 복지 급여 신청이 없어도 생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30세인 미혼모가 5세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없다.

⑤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5 7급 (인) 1번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기상산업의 실태조사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자료수집을 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실태조사와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행정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기상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기상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00조(기상정보의 제공)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상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그 기상정보의 제공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00조(기상정보의 출처 명시 등) ① 기상사업자는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지 않고 기상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기상청장은 실태조사와 자료수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기상사업자에게는 요청할 수 없다.
- ③ 기상사업자는 기상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④ 기상청장이 기상사업자에게 기상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⑤ 기상청장은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자료수집을 한 경우, 그 결과를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2025 7급 (인) 2번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기구 분담금’이란 정부가 국제 기구에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비 또는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량적으로 납부하는 경비를 말한다. 다만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에 납입하는 출자금 또는 출연금은 제외한다.

제00조(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 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2. 중앙행정기관별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

제00조(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등) ①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의 전년도 납부실적 및 납부목적 부합 여부에 대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의 전년도 납부실적,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납부실적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송부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송부받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존중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 ①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별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을 심의·조정한다.
- ②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납부하는 국제기구 분담금의 납부목적 부합 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가 녹색기후기금에 출연금을 납입하였다면 환경부장관은 해당 납입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외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납부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⑤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민단체가 스스로 국제 기구에 납부하는 경비는 국제기구 분담금에 해당한다.

2025 7급 (인) 3번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특허심판원) ①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이하 ‘심판사건’이라 한다)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을 둔다.
② 특허심판원에 특허심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심판관을 둔다.
제□□조(심판관 등의 지정) ① 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원장 스스로 심판장이 될 수 있다.
④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조(심판의 합의체, 심리 등)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④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심판의 합의체는 심판장 1명과 심판관 1명으로 구성될 수 있다.
- ② 원장이 심판장으로서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경우가 있다.
- ③ 합의체의 합의는 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한다.
- ④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로 심판할 수 없다.
- ⑤ 서면심리로 심판하는 경우 그 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2025 7급 (인) 4번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00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2.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②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비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비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 ①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의료배상공제조합에는 가입하여야 한다.
- ③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등록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도 그 등록의 갱신 없이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
- ④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비의료기관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기 위해서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은 비의료기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2025 7급 (인) 11번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행위제한) ①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이하 ‘특정도서’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증축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3. 도로의 신설
4.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버리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항해·조난구호 행위
2. 재해의 발생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3. 국가가 시행하는 해양자원개발 행위

③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조(허가)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특정도서
대하여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산로, 산책로, 공중화장실, 정자
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자연생태계의 연구·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 ① 특정도서에서의 도로 신설이 군사 행위인 경우 그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
- ② 특정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은 재해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특정도서에서의 공작물 신축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에서 건축물의 증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민간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특정도서에 산책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⑤ 특정도서에서 자연생태계의 연구·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얻으면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2025 7급 (인) 12번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조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조(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조(특수건강진단기관) ① 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분석능력을 확인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 (제2항에 따른 진단·분석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①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② 근로자대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사업주가 특수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특수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분석능력 확인 결과를 포함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다면 개별 근로자의 특수건강 진단 결과를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다.

2025 7급 (인) 13번

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소방활동 종사명령, 소방활동 비용지급) ① 소방대장은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물·차량·선박·산림·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이하 ‘소방대상물’이라고 한다)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사람
3. 화재 또는 구조·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제□□조(강제처분 등) ①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에 대한 일시적 사용·사용제한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③ 소방대장은 제2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조(손실보상)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조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2. 제□□조 제2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①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자가 소방대장의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라 해당 건물에서 사람을 구출하는 일을 한 경우, 그는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 ②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사람이 소방대장의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라 불을 끄는 일을 하던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그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 ③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토지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④ 소방대장이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자동차의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을 이동시키던 중 그 차량이 파손된 경우, 해당 차량을 주차한 소유자는 손실보상을 받는다.
- ⑤ 소방청장은 소방대장의 요청에 따라 견인차량을 지원한 자에게 견인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5 7급 추가 (핵) 1번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내국인 구인 노력)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송출국가(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능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외국인
근로자 선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조 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
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용자에게
제□□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우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려면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구직자 선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을 무료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구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여야
한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을 적격자로
추천하는 경우, 추천된 적격자에게 지체 없이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25 7급 추가 (핵) 2번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 말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자체평가 계획의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 등의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 말까지 정부업무평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 하여야 한다.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 등의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 말까지 정부업무평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체 평가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총 9명인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계획을 격년으로 수립할 수 있다.

2025 7급 추가 (핵) 3번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적법한 행위를 한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의약품 조제) ①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②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3.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제00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보 기>

ㄱ. 약국개설자 甲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환자에게 판매한 경우

ㄴ. 약사 乙이 의료 사회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약국 조제실에서 조제한 경우

ㄷ. 약국개설자 丙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011 5급 (선) 25번

문 25. 다음 규정을 근거로 옳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헌법 제00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00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00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을 제정·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00조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00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감사원법 제00조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②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

- ※ 지방자치단체에는 ①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②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 등이 있다.
- ※ 감사원의 감사권에는 회계검사권과 직무감찰권이 있다.

————— <보 기> —————

ㄱ. 법률을 개정하여 현행 지방행정체계를 변경할 수 있다.

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할 수 있다.

ㄷ.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는 법률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할 수 있다.

ㄹ. 지방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원이 중복하여 감사할 수 있다.

ㅁ.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률로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ㄱ, ㄴ, ㄷ, ㅁ
- ④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2012 5급 (인) 25번

문 25. 다음 규정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목적) 이 법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2.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3.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4.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합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제00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 ① 통합방위사태는 갑종사태,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로 구분하여 선포한다.

② 제1항의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1.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국방부장관

2.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때에는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때에는 시·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 ① 국무회의에서는 병종사태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없고 갑종과 을종사태에 대해서 심의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든 유형의 통합방위사태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 ③ 갑종사태 또는 을종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방위본부장이 통합방위작전을 지휘한다.
- ④ A광역시와 B광역시에 걸쳐서 통합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 ⑤ C광역시 D구와 E구에 대하여 적이 도발을 기도하는 것으로 정보당국에 의해 포착되었다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2013 외교 (인) 27번

문 2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제1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외에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傳授)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1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보 기>———
ㄱ. 중요무형문화재 가운데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드물면 국보가 될 수 있다.
ㄴ. 중요무형문화재가 발생한 지역의 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ㄷ.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때에도 일정한 연령이 되면 명예보유자가 되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다.
ㄹ. 문화재청장은 해당 중요무형문화재를 최고의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종목당 한 사람 또는 한 단체만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2014 5급 (A) 7번

문 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00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①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제00조(보증기간 등) ①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②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보증계약은 채무자(乙)가 채권자(甲)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丙)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을 말하며, 이때 乙을 주채무자라 한다.

- ① 보증인 丙이 주채무자 乙의 甲에 대한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채권자 甲과 보증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 ② 보증인 丙이 주채무자 乙의 甲에 대한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채권자 甲과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3년이다.
- ③ 주채무자 乙이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2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채권자 甲은 지체없이 보증인 丙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④ 보증인 丙의 청구가 있는데도 채권자 甲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丙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丙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하게 된다.
- ⑤ 보증인 丙이 주채무자 乙의 甲에 대한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채권자 甲과 기간을 2년으로 약정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2년이다.

2014 5급 (A) 24번

문 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00조(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조(비공개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보 기> —————

ㄱ.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는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ㄴ. 헌법재판소규칙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할 수 있다.

- ① ㄱ

② ㄷ
- ③ ㄱ, ㄴ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014 5급 (A) 27번

문 27.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위반행위가 아닌 것은?

— <규 정> —

제00조(용역발주의 방식) 연구비 총액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은 경쟁입찰 방식을 따르되, 그 외의 연구용역은 담당자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한다.

제00조(용역방침결정서) 용역 발주 전에 담당자는 용역방침 결정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00조(책임연구원의 자격) 연구용역의 연구원 중에 책임 연구원은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이어야 한다.

제00조(계약실시요청 공문작성) 연구자가 결정된 경우, 담당자는 연구용역 계약실시를 위해 용역수행계획서와 예산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00조(보안성 검토) 담당자는 연구용역에 참가하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총액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제00조(계약실시요청) 담당자는 용역방침결정서, 용역수행 계획서, 예산계획서, 보안성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연구용역 계약실시요청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제00조(계약의 실시) 운영지원과는 연구용역 계약실시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없이 계약업무를 개시하여야 하며, 계약과정에서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계획서 상의 예산을 10 %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 ※ 수의계약: 경매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방을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
- ① 甲부처는 연구비 총액 6,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된 연구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하였다.
 - ② 박사학위 소지자 乙을 책임연구원으로 하고, 2인의 석사 과정생을 연구원으로 하는 연구팀이 연구자로 선정되었다.
 - ③ 계약체결과정에서 10 %의 예산감액이 예상되어 丙사무관은 연구비 총액 5,500만 원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하였다.
 - ④ 丙사무관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감사원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지 않았다.
 - ⑤ 丙사무관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역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용역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예산계획서 등 총 3건을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았다.

2015 5급 (인) 5번

문 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관광상륙허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巡廻)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3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총톤수 2만 톤 이상일 것
2.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3개국 이상의 국가를 기항할 것
3. 순항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일 것
4. 크루즈업을 등록한 선박일 것

제00조(관광상륙허가의 기준) ①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행하는 여객운송선박의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외국인승객이 아래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관광상륙을 허가한다.

1. 본인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대한민국에 관광 목적으로 하선(下船)하여 자신이 하선한 기항지에서 자신이 하선한 선박으로 돌아와 출국할 예정인지 여부
3. 외국인승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증면제협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사람

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려는 사람

- ※ 기항(寄港) : 배가 항구에 들름
- ※ 사증(査證) : 외국인의 입국허가증명, 즉 비자
- ① 관광 목적의 여객운송선박에 탑승한 외국인승객이더라도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 ②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객은 하선 후 상륙허가기간 내에 하선한 기항지의 하선한 선박으로 돌아가야 한다.
 - ③ 대한민국 사증이 없으면 입국할 수 없는 사람은 관광상륙허가를 받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할 수 없다.
 - ④ 관광 목적으로 부산에 하선한 후 인천에서 승선하여 출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승객은 관광상륙허가를 받을 수 없다.
 - ⑤ 국제총톤수 10만 톤으로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크루즈업을 등록한 선박 A가 관광 목적으로 중국-한국-일본에 기항하는 경우, 그 선박의 장은 승객의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015 5급 (인) 8번

문 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제00조(군위탁생의 임명) ① 군위탁생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전형과 해당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관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② 군위탁생은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 교육기관을 옮기거나 전과(轉科)할 수 없다.

제00조(경비의 지급) ① 군위탁생에 대하여는 수학기간 중 입학금·등록금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 국외위탁생에 대하여는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급하며, 6개월 이상 수학하는 국외위탁생에 대하여는 배우자 및 자녀의 왕복항공료,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및 귀국 이전비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

제00조(성적이 우수한 자의 진학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위탁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자 중 지원자에 대하여는 소속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당 전공분야 또는 관련 학문분야의 상급과정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위탁생으로서 박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자 중 지원자에 대하여는 소속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당 전공분야 또는 관련분야의 실무연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① 해군 장교가 군위탁생으로 추천받기 위해서는 해군에서 시행하는 전형과 해당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육군 부사관인 군위탁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석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군위탁생은 소속군 참모총장의 추천이 없어도 관련 학문분야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할 수 있다.

④ 군위탁생의 경우 국내위탁과 국외위탁의 구별 없이 동일한 경비가 지급된다.

⑤ 3개월의 국외위탁교육을 받는 군위탁생은 체재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2015 5급 (인) 25번

문 2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기능) 대외경제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외경제동향의 종합점검과 주요 대외경제정책의 방향 설정 등 대외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양자·다자·지역간 또는 국제경제기구와의 대외경제 협력·대외개방 및 통상교섭과 관련된 주요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각 부처의 대외경제 분야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
4. 국내경제정책이 대외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제00조(회의의 구성 등) ①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수석비서관과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그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회의 의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다.

③ 회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 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제00조(의견청취) 회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보 기> —————

ㄱ. 회의 안건이 보건복지와 관련이 있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은 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ㄴ. 회의 당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협력 국제컨퍼런스에 참석 중이라면, 해양수산부차관이 회의에 대신 출석할 수 있다.

ㄷ. 환경부의 A안건이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회의에 상정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회의를 주재한다.

ㄹ. 회의에 민간전문가 3명을 포함해 13명이 참석하였을 때 의결을 위해서는 최소 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016 5급 (4) 5번

문 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한다.
③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 외에 별도의 점자형 선거공보(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1종을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면수 제약 하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제작시 점자형 선거공보를 함께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을 게재하여야 하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한다.

1.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각 재산총액
2. 병역사항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야·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
3. 전과기록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

- ①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A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12면까지 가득 채워서 작성할 수 있다.
-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B는 자신의 선거운동전략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 제작시 점자형 선거공보는 제작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C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할 경우, 자신의 가족 중 15세인 친손녀의 재산총액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 ④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D가 제작한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D 본인과 자신의 가족 중 아버지, 아들, 손자의 병역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E는 자신에게 전과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 선거운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016 5급 (4) 6번

문 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허용될 수 없는 행위는? (단,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가 조회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제00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 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 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 하는 경우
5.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6.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7.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8.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 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회보 : 신청인의 요구에 대하여 조회 후 알려주는 것

- ① 외국인 A의 귀화 허가를 위하여 A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행위
- ② 회사원 B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하여 B에 대한 수사경력을 조회하는 행위
- ③ 퇴직공무원 C의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를 확인하기 위 해 C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행위
- ④ 취업준비생 D의 채용에 참고하기 위하여 해당 사기업의 요 청을 받아 D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행위
- ⑤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 E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확인 하기 위하여 E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행위

2016 5급 (4) 25번

문 2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이하 ‘예비이전후보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제00조(이전후보지의 선정) 국방부장관은 한 곳 이상의 예비이전후보지 중에서 군 공항 이전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①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의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2.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4.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③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2. 종전부지 활용방안 및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제00조(이전부지의 선정) ①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 ※ 종전부지 :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
- ※ 이전부지 :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
- ① 종전부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은 이전부지 선정 심의에 참여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다.
- ③ 선정위원회는 군 공항이 이전되고 난 후에 종전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도 심의한다.
- ④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으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할 수 없다.
- ⑤ 예비이전후보지가 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이전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다.

2016 5급 (4) 26번

문 2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중재합의의 방식)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의 형식으로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1.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2. 편지, 전보, 전신, 팩스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간에 교환된 문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00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①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抗辯)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 중재 : 당사자간 합의로 선출된 중재인의 판정에 따른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절차

※ 각하: 적법하지 않은 소가 제기된 경우 이를 배척하는 것

- ① 甲과 乙이 계약을 말로 체결하면서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한 경우,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甲과 乙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재합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 ③ 甲과 乙 사이에 교환된 문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甲이 주장하고 乙이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 ④ 甲과 乙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재합의를 하였지만 중재합의의 대상인 계약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 ⑤ 甲과 乙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재합의를 하였으나 중재합의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당 계약에 관한 소가 제기되어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면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2017 5급 (가) 4번

문 4. 다음 <A국 사업타당성조사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A국 사업타당성조사 규정> —————

제〇〇조(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규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제△△조(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과 실시) ① 제〇〇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국가 예산의 지원을 받아 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사업
2.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② 제1항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사업

————— <보 기> —————

ㄱ. 국가의 재정지원 비율이 50 %인 총사업비 550억 원 규모의 신규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된다.

ㄴ.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될 수 있다.

ㄷ. 지자체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으로서 사업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며 전액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총사업비 460억 원 규모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10 % 증가한 경우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ㄹ. 총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인 모든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019 5급 (가) 1번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제00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00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을 수록할 수 있고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④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⑤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① 문서에 ‘2018년 7월 18일 오후 11시 30분’을 표기해야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18. 7. 18. 23:30’으로 표기한다.
- ② 2018년 9월 7일 공고된 문서에 효력발생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문서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 ③ 전자문서의 경우 해당 수신자가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에 도달한 문서를 확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④ 문서 작성 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⑤ 연계된 바코드는 문서에 함께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 파일로 처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2019 5급 (가) 2번

문 2. 다음 <○○도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도 지방보조금 관리규정>

제00조(보조대상사업) 도는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수행할 수 없는 사업(지방보조사업)인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00조(용도의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수익성 악화 등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미한 경비배분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수익성 악화 등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과 도비보조율) 도지사는 시·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도비보조율 및 금액을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단, 지방보조금의 예산반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도비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범위 내에서 정한다.

1. 보건·사회: 총사업비의 30 % 이상 70 % 이하
2. 상하수·치수: 총사업비의 30 % 이상 50 % 이하
3. 문화·체육: 총사업비의 30 % 이상 60 % 이하

제00조(시·군비 부담의무) 시장·군수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시·군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보 기>

ㄱ. ○○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모든 경비배분이나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 ○○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ㄴ. ○○도 지방보조사업자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자신이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ㄷ. ○○도 A시 시장은 도비보조사업과 무관한 자신의 공약사업 예산을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보다 우선적으로 해당연도 A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ㄹ. ○○도 도지사는 지방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인 ‘상하수도 정비사업(총사업비 40억 원)’에 대하여 최대 20억 원을 지방보조금 예산으로 정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019 5급 (가) 21번

문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연구실적평가) ①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연구사(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연구실적의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적 심사평가를 3번 이상 통과한 연구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구실적의 심사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단위 또는 소속 기관 단위로 직렬별, 직류별 또는 직류 내 같은 업무분야별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2명의 위원은 소속기관 내부 연구관 중에서, 위원 2명은 대학교수나 외부 연구기관·단체의 연구관 중에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임용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대학교수인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임용권자나 위원장이 매년 1월 중에 소집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⑤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대학교수와 연구관은 겸직할 수 없음

- ① 개별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최대 3명의 대학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소속기관 내부 연구관이 아닌 대학교수가 맡을 수 있다.
- ③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 4명의 위원이 출석한 경우와 5명의 위원이 출석한 경우의 의결정족수는 같다.
- ④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재위촉하는 경우 별도의 위촉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⑤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지 않은 모든 연구사는 연구직으로 임용된 이후 5년이 지나면 석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사와 동일하게 연구실적 결과물 제출을 면제받는다.

2019 5급 (가) 22번

문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사무의 관장)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00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국민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② 미성년자인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① 민원인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민원인은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자인 민원인이 제2항에 따라 이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부동산거래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A동 주민 甲(30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동장을 방문하여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재외국민 乙(26세)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하였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바 있는 丙(17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 ④ 토지매매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⑤ 서울특별시 종로구 B동 주민 丁(25세)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을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23 5급 (가) 1번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A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A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고, 이때 소요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A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항 제3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A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보호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을 학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A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④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받아 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다.
- ⑤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3 5급 (가) 2번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제00조(소하천의 점용 등) ① 소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소하천을 지정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유수(流水)의 점용
 - 토지의 점용
 - 토석·모래·자갈,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② 관리청은 소하천에 대하여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A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조(원상회복 의무) ①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가 실효(失效)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소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② 관리청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고, 이때 그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귀속된다.

제00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관리청은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의 감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공용 사업, 그 밖의 공익 목적 비영리사업인 경우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관리청은 소하천에서의 토석 채취를 허가한 경우, 그 내용을 A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관리청이 소하천에서의 인공구조물 신축 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경우, 해당 인공구조물은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귀속된다.
 -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 등과 수수료의 각 감면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에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청은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공공용 사업을 위해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한 경우, 관리청은 변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2023 5급 (가) 3번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물체(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우주발사체”란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을 우주공간에 진입시키는 인공우주물체를 말한다.

제00조(인공우주물체의 국내 등록) ① 인공우주물체(우주발사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발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사 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외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구조물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3.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이용하여 국외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공우주물체의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
2. 인공우주물체의 소유권자 또는 이용권자에 관한 사항
3. 인공우주물체의 기본적 궤도에 관한 사항
4. 우주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한 자는 그 인공우주물체가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공우주물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 협약에 따라 발사국 정부와 합의하여 외국에 등록한 인공우주물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대한민국 국민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발사체를 예비등록하여야 한다.
-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우주발사체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는 경우, 그 위성을 예비등록할 필요가 없다.
- ③ 우주선을 발사하려는 자는 그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발사 예정일부터 9개월 전까지 예비등록하여야 한다.
- ④ 국제 협약에 따라 발사국 정부와 합의하여 외국에 등록한 인공위성의 경우,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했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위성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 ⑤ 인공위성을 예비등록한 자가 그 위성을 발사한 경우, 발사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공위성을 등록하여야 한다.

2023 5급 (가) 21번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제00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해당 간행물의 표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을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정가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2.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⑥ 제4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
 2. 할인권
 3. 상품권
- ① 출판사가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할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정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②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서지정보에 정가가 명기되어 있다면, 판매사이트에는 할인된 가격만 표시해도 된다.

③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저작권자에게 간행물을 정가의 20퍼센트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간행물을 할인하여 판매할 경우, 가격 할인은 정가의 15퍼센트로 한다.

⑤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을 위하여 정가 20,000원인 간행물을 19,000원에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2023 5급 (가) 22번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3. “관할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을 말한다.
가.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교육부장관
나. 공·사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육감
다.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각종학교: 교육부장관

제00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실시 후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00조(등교 중지) ① 감염병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등교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것을 학교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을 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다.

- ① 건강검사와 관련하여 국·공립 중학교의 관할청은 교육부장관이다.
- ②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필요한 때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이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이 사립대학 교직원의 등교 중지를 명하는 경우, 관할 교육감을 경유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건강검사를 다음 학년도로 연기하거나 생략하여야 한다.
- ⑤ 감염병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학교의 장에게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등교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023 5급 (가) 23번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기관의 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제00조(직위군 구분) ① 지방전문경력관직위의 군(이하 ‘직위군’이라 한다)은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제1항의 직위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00조(시험실시기관) 지방전문경력관의 임용시험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로 해당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00조(임용시험 공고) 시·도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시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외국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00조(임용시험의 방법) 임용권자는 지방전문경력관을 임용할 때에는 응시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도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제00조(시보임용) 지방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지방전문경력관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 ① 甲도지사가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가군, 나군, 다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해야 한다.
- ② 乙교육감은 해당 기관 내 장기 재직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丙이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신규임용될 경우, 시보임용 기간은 해당 직위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④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에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면 임용권자는 면접시험을 통한 검정 없이 지방전문경력관을 임용할 수 있다.
- ⑤ 외국인을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용시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4 5급 (나) 1번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①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0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기반조성,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전략위원회와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전략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제공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④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따른 포상 대상은 공무원에 한한다.

2024 5급 (나) 2번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①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량
2. 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개발과 판매시설 설치
3. 지역특성을 반영한 축제·행사·문화공연 개최
4. 시장·상점가와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 및 문화·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홍보
5. 문화관광형시장의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한 교육

제□□조(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해제) ① 시·도지사는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조 제2항에 따라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2.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조 제2항의 육성계획이 추진되지 아니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시·도지사는 개별 상인의 신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시·도지사가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
- ③ 시·도지사는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 해제를 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산품의 개발과 판매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지만, 기념품 개발과 판매시설 설치에 지원할 수 없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024 5급 (나) 3번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의 정보를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제00조(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① 기상청장은 지진관측 즉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즉시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으로서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

제00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 ① 기상청장 외의 자는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공지진에 대한 관측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를 학문연구를 위하여 발표하는 경우

② 기상청장 외의 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발표를 하려는 때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지진에 대한 관측 결과를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진조기경보는 지진의 발생이 예상되는 즉시 발령되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를 학문연구를 위해 발표할 수 없다.

④ 핵실험으로 인해 발생한 인공지진에 대한 관측 결과를 기상청장 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기상청장의 승인은 필요 없다.

⑤ 국외에서 규모 6.0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발생하였으나 그 지진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상청장은 즉시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지 않아도 된다.

2024 5급 (나) 4번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헌혈증서 제출자에게 수혈을 하였을 때에는 제□□조 제2항에 따른 헌혈환급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제□□조(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헌혈환급예치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환급예치금으로 헌혈환급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조성·관리한다.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조 제3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
- 헌혈의 장려
- 혈액관리와 관련된 연구

제△△조(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① 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
-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채혈부작용이 헌혈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채혈부작용이라고 결정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또는 소송제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① 헌혈증서를 제출함으로써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는 사람은 헌혈자에 한한다.

② 혈액원은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에 대하여 헌혈환급적립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으로부터 적립받은 헌혈환급적립금으로 헌혈환급예치금을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특정수혈부작용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혈액원의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의료기관이 헌혈증서를 제출한 헌혈자에게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2024 5급 (나) 21번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연소자”란 18세 미만의 사람(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조(유해 공연물 관람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 연소자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
- 각종 폭력 행위 또는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제△△조(공연장 설치·운영 등)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이하 ‘공연장 운영자’라 한다)는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연장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할 시장 등은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피난안내도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조(벌칙) ① 제□□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의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한 자(이하 ‘암표상’이라 한다)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① 甲이 A도 B군에서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A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공연장 등록을 한 乙이 영업을 폐지한 경우 관할 시장 등에게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시장 등은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 ③ 丙이 18세인 고등학생에게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는 내용의 공연물을 관람시킨 경우, 丙은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④ 丁이 암표상으로부터 공연장 입장권을 구매한 경우, 丁은 1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⑤ 戊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500명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024 5급 (나) 22번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참전유공자 등) ① 이 법에서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 또는 퇴직한 군인 및 경찰공무원
-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② 참전유공자로서 제□□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제□□조(참전유공자 등록 등)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조 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제△△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 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이 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은 참전 유공자가 된다.
- 참전명예수당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으로 지급한다.
-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이 전역 후에 범죄행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참전유공자에서 제외된다.
- 참전유공자가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참전명예수당은 그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2024 5급 (나) 23번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제○○조(등록대상 선박)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2.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商事) 법인이 소유한 선박

제□□조(등록절차) ①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전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여 그 선박을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박이 제○○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이 되는 선박인지를 확인한 후, 등록대상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제선박 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국제선박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소유자, 구조변경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은 국내항과 외국항 간 또는 외국항 간에만 운항하여야 한다.
- ①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 甲은 그 국제선박을 부산항과 인천항 간에 운항할 수 있다.
 - ②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상사 법인 乙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다.
 - ③ 대한민국 국민 丙은 자신의 선박을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여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④ 대한민국 국민 丁이 자신의 선박을 국제선박으로 등록신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선박을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丁에게 국제선박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⑤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 戊가 구조변경을 하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戊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2025 5급 (가) 21번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제00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폐기물이 수입국에서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필요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출하려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국 및 경유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국내의 같은 세관 및 수입국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① 환경부장관은 수입국의 동의가 없어도 경유국의 동의를 받아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할 수 있다.
 - ②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 ③ 환경부장관이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할 경우, 같은 자에게 수출하더라도 수입국의 세관이 동일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없다.
 - ④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게 할 수 있다.
 - ⑤ 국내에서 특정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폐기물이 수입국에서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은 수출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2025 5급 (가) 22번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의 중요문서, 그 밖의 시설 또는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徽章)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나라문장(紋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조(사용·도안 등) ① 나라문장은 휘장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② 나라문장은 가운데에 원으로 된 태극을 그리고 이를 무궁화 꽃잎 5개가 감싸도록 하며, 꽃잎 아래쪽에 한글로 ‘대한민국’을 표기한다.

③ 제2항의 태극의 윗부분은 빨간색, 아랫부분은 파란색으로 하며, 무궁화 꽃잎은 금색으로 한다. 다만 나라문장을 철인으로 하여 사용할 때는 색을 넣지 않는다.

제00조(사용) 나라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외국·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2. 1급 이상 상당 공무원의 임명장
3. 훈장과 훈장증 및 대통령 표창장
4. 국가공무원 신분증
5. 국공립 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6. 재외공관 건물
7. 정부 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8. 화폐

제00조(위치) 문서에 휘장이나 철인을 사용할 때에는 해당 문서의 중앙상단부에 오도록 한다.

- ① 1급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국무총리 표창장의 경우, 나라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나라문장을 철인으로 하여 사용할 경우, 무궁화 꽃잎은 금색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국제연합(UN)의 산하 전문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가 대한민국 정부에 발신하는 공문서의 경우, 나라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
- ④ 미국에 소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건물에 사용하는 나라문장에는 대한민국을 무궁화 꽃잎 아래쪽에 영어로 표기한다.
- ⑤ 대한민국 정부가 주한 영국대사관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나라문장을 사용하는 경우, 나라문장은 해당 문서의 중앙상단부에 위치한다.

2025 5급 (가) 23번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00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에 따라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00조(국제표준자료번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 납본: 도서관자료를 발행·제작하는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

① 온라인 자료에 대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 납본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은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온라인 자료를 발행한 경우, 디지털파일 형태의 납본의무가 있다.

③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가 국가라면,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자료의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도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

④ 납본한 도서가 모두 판매되어 해당 도서를 내용 변경 없이 일정 부수를 추가 인쇄한 경우, 추가 인쇄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수집·보존의무가 없다.

2011 민경채 (인) 3번

문 3.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차’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제00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

나. 건설기계

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라. 자전거

마.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2. ‘자동차’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전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를 말한다.

3.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 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 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 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 <보 기> —————

ㄱ. 경운기

ㄴ. 자전거

ㄷ. 유모차

ㄹ. 기차

ㅁ. 50 cc 스쿠터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ㅁ
- ⑤ ㄴ, ㄹ, ㅁ

2011 민경채 (인) 4번

문 4.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의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의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의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00조 의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可否同數)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00조 의회에 제출된 법률안 및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회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 <보 기> —

ㄱ. 甲의원이 임시회의 기간과 이유를 명시하여 집회요구를 하는 경우 임시회가 소집된다.
ㄴ. 정기회와 임시회 회기의 상한일수는 상이하나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일하다.
ㄷ. 乙의원이 제출한 의안이 계속해서 의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乙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 의안은 폐기된다.
ㄹ. 임시회에서 丙의원이 제출한 의안이 표결에서 가부동수인 경우, 丙의원은 동일 회기 중에 그 의안을 다시 발의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11 민경채 (인) 15번

문 15.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가부동수(可否同數)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1.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
2.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재판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3.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4. 헌법개정안
5. 의회의원 제명
6.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

②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 제6호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보 기> —

ㄱ. 탄핵소추의 대상에 따라 탄핵소추를 의결하는데 필요한 정족수가 다르다.

ㄴ. 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더라도 의회는 직접 국무위원을 해임시킬 수 없다.

ㄷ. 의회의 의결정족수 중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을 의회가 재의결하는 데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가장 크다.

ㄹ. 헌법개정안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014 민경채 (A) 18번

문 1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개발부담금 징수권)와 개발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환급 청구권)는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납부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으로 재설정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④ 제1항에 따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 행사로 중단된다.

- ※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 <보 기> ———

ㄱ. 개발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중단된다.

ㄴ. 국가가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개발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ㄷ. 국가가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하면, 개발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ㄹ.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을 기준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때로부터 환급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2016 민경채 (5) 15번

문 15. 다음 A국의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제00조 ①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제00조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① 행정청은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 전문에 대한 복사 요청을 받은 경우 복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만 한다.
 - ③ 행정청은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해 그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여야만 한다.
 - ④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그 법령안의 입법예고를 직접 할 수 없다.
 - ⑤ 행정청은 법령을 폐지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다.

2018 민경채 (가) 2번

문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〇〇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고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

제□□조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② 공공하수도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관리청이 되는 자는 제〇〇조 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를 한 시·도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 ※ 공공하수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
- ① A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고 인가를 받았는데, 그 공공하수도가 B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설치하려는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은 B 자치구의 구청장이다.
 - ② 시·도지사가 국가의 보조를 받아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하여 인가받은 사항을 폐지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④ 시·도지사가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해 고시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18 민경채 (가) 5번

문 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를 신청인이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피신청인이라고 한다.
제00조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1. 피신청인의 주소지,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피신청인의 근무지
2.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손해 발생지
②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한다.
제00조 ①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신청인은 이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
②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③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조정 성립으로 사건을 종결시킨다.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0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1.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2.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 <보 기> ———
ㄱ.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ㄴ.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조정담당판사가 한 경우, 신청인은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
ㄷ.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ㄹ.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사건이 종결된 때를 민사소송이 제기된 시점으로 본다.
ㅁ.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ㄱ, ㄷ, ㅁ
- ⑤ ㄴ, ㄹ, ㅁ

2018 민경채 (가) 12번

문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조 ①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2. 기만적인 표시·광고
-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사업자가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제□□조 ① 사업자가 제△△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보 기>

- ㄱ.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정보 고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상품 등이나 거래 분야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 ㄴ. 사업자 A가 다른 사업자 B로 하여금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하게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A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 ㄷ. 사업자가 표시·광고 행위를 하면서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ㄹ.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함께 그 표시·광고의 방법도 고시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018 민경채 (가) 15번

문 1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제○○조 ①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하 ‘무죄재판 사건’이라 한다)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재판서’라 한다)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의 소속 지방검찰청에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제1항의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상속인 모두가 그 청구에 동의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가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그 청구를 할 수 없다.

제□□조 ① 제○○조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무죄재판서의 일부를 삭제하여 게재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무죄재판서 중 일부 내용의 삭제를 원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2. 무죄재판서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무죄재판서의 게재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①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 甲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 乙이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취소한 후 사망한 경우, 乙의 상속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 丙이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없이 사망한 경우, 丙의 상속인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 丁이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하면 그의 무죄재판서는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게재된다.
- ⑤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 戊의 청구로 무죄재판서가 공개되면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무죄재판서의 일부를 삭제하여 게재할 수 있다.

2019 민경채 (나) 1번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00조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제00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한다.

— <보 기> —

ㄱ. A시의 장은 A시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B기업에게 사용 허가를 했더라도 국가가 그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게 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ㄴ. C시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C시의 장이 천재지변으로 주택을 잃은 지역주민에게 임시 거처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경우, C시의 장은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ㄷ. D시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E기업이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 되었다면, D시의 장은 E기업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ㄹ. 2014년 3월 1일에 5년 기한으로 F시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수익허가를 받은 G가 허가 갱신을 받으려면, 2019년 2월 28일까지 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2019 민경채 (나) 13번

문 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재산명시절차의 관할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 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00조 ① 누구든지 재산조회 결과의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채무자 甲이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 부족한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의 관할법원은 직권으로 금융기관에 甲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다.
- ② 재산명시절차의 관할법원으로부터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채무자 乙의 재산조회 결과를 획득한 채권자 丙은 해당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 ④ 재산명시절차의 관할법원으로부터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 하였다면,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채권자 丁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신청할 경우, 조회에 드는 비용은 재산조회가 종료된 후 납부하면 된다.

2020 민경채 (가) 1번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제00조 ① 광역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그 밖에 광역교통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00조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광역교통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해 지명하는 사람
 - 교통·도시계획·재정·행정·환경 등 광역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50명 이내의 사람
- 실무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성별은 고려하지 않는다.
 - 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원은 실무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위촉 없이도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될 수 있으나,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될 수 없다.
 -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선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2020 민경채 (가) 2번

문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아’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한다.
2. ‘잔여배아’란 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를 말한다.

제△△조 ① 누구든지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배아를 생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2. 사망한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3. 미성년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하여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조 ① 배아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난자 또는 정자의 기증자가 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존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기증자가 항암치료를 받는 경우 그 기증자는 보존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끝난 배아 중 제◇◇조에 따른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배아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조 제□□조에 따른 배아의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 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原始線)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체외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2.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 원시선: 중배엽 형성 초기에 세포의 이동에 의해서 형성되는 배반(胚盤)의 꼬리쪽 끝에서 볼 수 있는 얇은 선

-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불임부부를 위해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의 제공을 알선할 수 있다.
- ② 난자 또는 정자의 기증자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배아의 보존기간을 6년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배아생성의료기관은 혼인한 미성년자의 정자를 임신 외의 목적으로 수정하여 배아를 생성할 수 있다.
- ④ 보존기간이 남은 잔여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이라면 체내에서 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⑤ 생성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잔여배아도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 체외에서 피임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2020 민경채 (가) 3번

문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업소를 포함한다)는 해당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내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우수수입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우수수입업소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2.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의 시설기준을 위배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수입식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를 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업소는 그 취소가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00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의 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2.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출하는 수입식품

- ① 업소 甲이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 자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업소 乙이 2020년 2월 20일에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되었다면, 그 등록은 2024년 2월 20일까지 유효하다.
- ③ 업소 丙이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④ 우수수입업소 丁이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의 시설기준을 위배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그 때로부터 3년 동안 丁은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 戊가 수입신고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전부 생략할 수 있다.

2020 민경채 (가) 4번

문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허용되는 행위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의 내용·형식을 변환하거나 그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방송·전송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00조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②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또는 점자도서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녹음하여 복제하거나 디지털음성정보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제00조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② 청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또는 한국어수어통역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 어문저작물: 소설·시·논문·각본 등 문자로 이루어진 저작물

——<보 기>——

ㄱ. 학교도서관이 공표된 소설을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어로 변환하고 이 한국수어를 복제·공중송신하는 행위

ㄴ. 한국어수어통역센터가 영리를 목적으로 청각장애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영화에 포함된 음성을 자막으로 변환하여 배포하는 행위

ㄷ. 점자도서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피아니스트의 연주 음악을 녹음하여 복제·전송하는 행위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020 민경채 (가) 11번

문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조 이 규칙에서 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제00조 ① I 급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② II 급 및 III 급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I 급비밀 취급 인가권자
2.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3.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제00조 ①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 대하여 해당 등급의 비밀 취급을 인가한다.

② 비밀 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보안 사고를 범한 때
2. 비밀 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④ 비밀 취급의 인가 및 해제와 인가 등급의 변경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00조 ①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자에 한하여 비밀 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②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소속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비밀 취급의 인가 및 해제사유와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새로 신원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비밀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I 급비밀 취급을 인가하는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① 비밀 취급 인가의 해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 ② 법원행정처장은 I 급비밀, II 급비밀, III 급비밀 모두에 대해 취급 인가권을 가진다.
- ③ 비밀 취급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가능한 한 제한 없이 충분한 인원에게 하여야 한다.
- ④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중대한 보안 사고를 범한 경우 고의가 없었다면 그 취급의 인가를 해제할 수 없다.
- ⑤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해 새로 신원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I 급비밀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2020 민경채 (가) 12번

문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국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1. 제△△조에 의한 매각제한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조에 의한 총괄청의 매각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② 국유재산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없다.

1.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 승인한 경우
2.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고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해당 국유재산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행정재산의 용도로 사용하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행정재산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행정재산을 당해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조 ① 국유일반재산인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를, 그 밖의 시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
3. 법원의 확정판결·결정 등에 따른 소유권의 변경

- ①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으로 사용 승인한 국유재산인 건물은 총괄청의 매각승인을 받아야 매각될 수 있다.
- ② 총괄청의 매각승인 대상인 국유일반재산이더라도 그 매각방법이 지명경쟁인 경우에는 총괄청의 승인없이 매각할 수 있다.
- ③ 법원의 확정판결로 국유일반재산의 소유권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광역시에 소재하는 국유일반재산인 1,50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행정재산의 용도로 사용하던 소유자 없는 50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를 공고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후 이를 당해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취득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매각할 수 있다.

2021 민경채 (나) 1번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3. ○○부 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① 조부모와 부모를 함께 모시고 사는 근로자가 조부모의 질병을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구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③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시기를 근로자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④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8일 사용한 경우, 사업주는 이와 별도로 그에게 가족돌봄휴직을 연간 90일까지 허용해야 한다.
- ⑤ 감염병의 확산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5일 연장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간 2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2021 민경채 (나) 2번

문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제00조 ①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단편영화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로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안 된다.

④ 누구든지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
- ① 예고편영화는 12세 이상 관람가 상영등급을 받을 수 있다.
 - ②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경우, 청소년은 부모와 함께 영화관에 입장하여 관람할 수 있다.
 - ③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의 경우, 영화업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한 △△영화제에서 상영할 수 없다.
 - ④ 영화업자는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를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의 상영 직전에 상영할 수 있다.
 - ⑤ 영화업자는 초청한 노인을 대상으로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않은 단편영화를 무료로 상영할 수 있다.

2021 7급 (나) 2번

문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필요하면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제00조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물품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조 물품은 국가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국가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이나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제00조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없으면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제00조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 중인 물품 중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에 의하여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그 밖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수선이나 개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명령이 없으면 자신의 재량으로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 ② A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경우, B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는 위임할 수 없다.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국가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그 사용이나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물품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 ④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해진 물품 이외의 물품이 필요한 경우, 물품관리관은 필요할 때마다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 ⑤ 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 중인 물품 중 수선이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수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2021 7급 (나) 3번

문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제〇〇조 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항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③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조 제〇〇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知得) 또는 채록(採錄)된 전기통신의 내용,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甲이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乙의 우편물은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甲이 乙과 정책용역을 수행하면서 乙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甲이 乙과 丙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여 공개한 경우,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이동통신사업자 甲이 乙의 단말기를 개통하기 위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받은 경우, 1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 甲이 乙과 丙 사이의 우편물을 불법으로 검열한 경우, 2년의 징역과 3년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2021 7급 (나) 18번

문 1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내부 위원: 위원장 1인(○○실장)과 각 부서의 정보공개 담당관 중 지명된 3인
2. 외부 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위촉

② 위원은 특정 성별이 다른 성별의 2분의 1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① 외부 위원의 최대 임기는 6년이다.
- ② 정보공개심의회는 최소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③ 정보공개심의회 내부 위원이 모두 여성일 경우, 정보공개 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 ④ 정보공개심의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면, 위원 3명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가 있다.
- 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이 직접 출석하여 이들 모두 안전에 찬성하고, 위원 2명이 부득이한 이유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제출된 서면 의견에 상관없이 해당 안전은 찬성으로 의결된다.

2022 7급 (가) 1번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재해경감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경감활동으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제00조 ①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A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A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재난관리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매년 1회 이상 종사자에게 재난관리 교육을 실시할 것
3. 재해경감활동 비용으로 총 예산의 5% 이상 할애할 것
4. 방재관련 인력을 총 인원의 2% 이상 갖출 것

③ 제2항 각 호의 충족 여부는 매년 1월 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 우수기업으로 인증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최초 평가에 한하여 해당 기준을 3개월 내에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정하는 평가 및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제00조 A부 장관은 인증받은 우수기업을 6개월마다 재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양도·양수·합병 등에 의하여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

- ① 처음 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甲기업이 총 예산의 4%를 재해경감활동 비용으로 할애하였다면, 다른 모든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을 여지가 없다.
- ② A부 장관이 乙기업을 평가하여 2022. 2. 25.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경우, A부 장관은 2022. 6. 25.까지 재평가를 해야 한다.
- ③ 丙기업이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A부 장관이 부담한다.
- ④ 丁기업이 재난관리 전담조직을 갖춘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라도, A부 장관은 인증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우수기업인 戊기업이 己기업을 흡수합병하면서 재평가 당시 일시적으로 방재관련 인력이 총 인원의 1.5%가 되었더라도, A부 장관은 戊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2022 7급 (가) 3번

문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제00조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을 말한다.

제00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00조 시장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제00조 ①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 등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시장 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00조 ① 정비구역의 지정은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① 甲특별자치시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② A도 乙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A도지사에게 준공인가신청을 해야 한다.

③ 丙시장이 사업시행자 B의 정비사업에 관해 준공인가를 하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은 해산된다.

④ 丁시장이 사업시행자 C의 정비사업에 관해 공사완료를 고시하면, 정비구역의 지정은 고시한 날 해제된다.

⑤ 戊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戊시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2022 7급 (가) 4번

문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과 수면 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3. 부선: 자력(自力) 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②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

제00조 ① 매매계약에 의한 선박 소유권의 이전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양도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다만 소형선박 소유권의 이전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양도합의와 선박의 등록으로 효력이 생긴다.

② 선박의 소유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선박의 매수인)는 선박을 취득(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매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톤수 20톤 이상인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인 부선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이를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조 선박의 등기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 ① 총톤수 80톤인 부선의 매수인 甲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양도합의를 하고 선박을 등록해야 한다.
- ② 총톤수 100톤인 기선의 소유자 乙이 선박의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③ 총톤수 60톤인 기선의 소유자 丙은 선박을 매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④ 총톤수 200톤인 부선의 소유자 丁이 선적항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선박의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소는 丁에게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⑤ 총톤수 20톤 미만인 범선의 매수인 戊가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면, 관할 법원은 이를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戊에게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2024 7급 (사) 1번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A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에 관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산업 현황과 통계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A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제공자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A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A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업 현황 및 시장 규모
-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보급 현황
-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인력 현황 및 인력 수요 전망
-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

⑤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00조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연구기관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감면을 할 수 있다.

- 실태조사는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세감면을 할 수는 없다.
- A부장관은 실태조사의 내용에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인력 현황을 포함해야 하지만, 인력 수요에 대한 전망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 A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A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기관에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한 경우,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024 7급 (사) 2번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2. “예찰”이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 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3. “방제”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00조 ① 산림소유자는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종사자, 수목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산림병해충이 있는 수목이나 가지 또는 뿌리 등의 제거

2.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

3.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종묘·토양의 소독

④ 시·도지사 등은 제3항 제2호에 따라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등은 제3항 각 호의 조치이행에 따라 발생한 농약대금, 인건비 등의 방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①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활동은 방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목의 판매자는 예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산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조치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는 시·도지사 등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 ④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종묘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소독을 명한 경우, 그 내용을 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여 관할 지방산림청장이 해당 수목의 소유자에게 수목 제거를 명령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024 7급 (사) 3번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정보통신·역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A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00조 ①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A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00조 ① 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② 감사는 A부장관이 임명하며, 상임으로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① 감사와 위원의 임기는 다르다.
- ② 위원장과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A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④ 위원회는 감사를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A부장관의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할 수 있다.

2024 7급 (사) 11번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A부장관은 김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조기술 및 김치와 어울리는 식문화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A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③ A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A부장관은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00조 ① 국가는 김치종주국의 위상제고, 김치의 연구·전시·체험 등을 위하여 세계 김치연구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 김치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산업의 육성, 김치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A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국가 간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김치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A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A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국가 간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김치의 국제규격화는 지양하여야 한다.

③ A부장관은 적절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대학이라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해당 대학을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종주국의 위상제고를 위해 세계 김치연구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김치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함에 있어서 개인은 그 지원대상이 아니다.

2025 7급 추가 (핵) 11번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국가유산수리 등의 계획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학에서 국가유산수리 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가유산수리 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이 아닌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간사와 서기를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회의의 일시·장소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명의 출석이 있으면 열리고 3명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⑤ 국가유산수리 관련 업무에 12년 종사한 후 현재 대학에서 국가유산수리 관련 학과의 조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가유산청장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2025 7급 추가 (핵) 12번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수업료 등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③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 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제3항에 따라 수업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액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 총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⑤ 휴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⑥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

- ① 학교의 장은 신입생 전부에 대해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
- ②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결석한 날만큼 수업료를 감액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장학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학생의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 ⑤ 학교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경우, 그 감면액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 총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1 5급 (선) 5번

문 5.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등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등

제00조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00조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조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① 공무원 A가 직무관련자인 친족으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경조사 관련 금품을 주거나 받는 것은 규정에 위배된다.
- ② 공무원 B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 공무원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규정상 언제나 허용된다.
- ③ 공무원 C가 K시청의 강연 요청을 받고 소속 기관장에게 외부 강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규정상 허용된다.
- ④ 공무원 D가 정책·사업 등의 집행으로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단체에게 본인의 결혼식을 알리는 것은 규정상 허용된다.
- ⑤ 공무원 E가 자연림 보호구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직원에게 소속 근무기관과 공무원 신분임을 밝히고, 친구들과 함께 산행하는 행위는 규정상 허용된다.

2011 5급 (선) 7번

문 7.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허위표시나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식품에 대한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2. 각종 감사장·상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는 제외한다.
3.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나,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광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않는다.

1. 일반음식점과 제과점에서 조리·제조·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2.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시·광고
3.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하여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 <보 기> —

- ㄱ. (○○삼계탕 식당 광고) “고단백 식품인 닭고기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는 인삼을 넣은 삼계탕은 인삼, 찹쌀, 밤, 대추 등의 유효성분이 어우러져 영양의 균형을 이룬 아주 훌륭한 보양식입니다.”
- ㄴ. (○○라면의 표시·광고) “우리 회사의 라면은 폐식용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ㄷ. (○○두부의 표시·광고) “건강유지 및 영양보급에 만점인 단백질을 많이 함유한 ○○두부”
- ㄹ. (○○녹차의 표시·광고) “변비와 당뇨병 예방에 탁월한 ○○녹차”
- ㅁ. (○○소시지의 표시·광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업소에서 만든 식품의약품안전청 인증 ○○소시지”

- ① ㄱ, ㅁ
- ② ㄷ, ㅁ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ㅁ
- ⑤ ㄴ, ㄷ, ㄹ

2011 5급 (선) 8번

문 8.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제00조 평온¹⁾·공연²⁾하게 동산을 양수³⁾한 자가 선의⁴⁾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00조 전조(前條)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盜品)이나 유실물(遺失物)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조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00조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 1) 평온(平穩): 평상시의 상태
2) 공연(公然):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3) 양수(讓受): 권리·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서 넘겨 받음 ↔ 양도(讓渡)
4) 선의(善意): 당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

——<보 기>——
ㄱ. A가 밤늦게 길을 가다가 MP3기기를 주웠는데 MP3기기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습득자인 A가 공고 없이 MP3기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 A가 한 달 전에 잃어버린 자전거를 B가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중고 자전거판매점에서 구입하여 타고 다니는 것을 알았을 경우, A는 B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자전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A가 3년 전에 도난당한 시계를 B가 정육점 주인 C로부터 선의취득한 경우, A는 B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시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ㄹ. A가 B소유의 카메라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C로부터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카메라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A는 카메라의 소유자가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1 5급 (선) 26번

문 26.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②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00조 ①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체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00조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① 살인죄로 인하여 사형선고를 받은 조직폭력배 A는 그 판결이 헌법상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임산부에게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 B는 낙태 정당화 사유를 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 규정의 위헌여부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속·수감 중인 C는 다른 법률의 구체절차가 없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헌법상의 권리인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간통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회사원 D는 관련 법률 규정이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 후 90일 이내에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회사 간부로부터 회사의 세부비리를 폭로하지 못하도록 강요 받은 그 회사의 고문변호사 E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상의 권리인 양심 및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011 5급 (선) 29번

문 29.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아래의 모든 사업장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제00조 ①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제00조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보 기> —————

ㄱ. 甲회사가 수습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1년 6개월간 A를 고용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ㄴ. 乙회사는 근로자 E의 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2년간 B를 계약직으로 고용하였는데, E의 복직 후에도 B가 계속해서 현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ㄷ. 丙국책연구소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C를 계약직(기간제) 연구원으로 고용하여 C가 현재 丙국책 연구소에서 3년간 근무하고 있는 경우

ㄹ. 국가로부터 도급받은 3년간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丁건설회사가 D를 그 기간 동안 고용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2012 5급 (인) 24번

문 24. 다음 규정에 근거할 때,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제00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 기관이 접수·교부하여야 할 민원사항을 다른 행정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

제00조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 기관 소관의 민원사무를 접수·교부할 수 있다.

제00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처리한 결과(다른 행정 기관 소관의 민원사항을 포함한다)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00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민원사무심사관을 지정 하여야 한다.

제00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안내 및 민원인 과의 상담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조 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사항의 경우에 한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보 기> —

- ㄱ. A시 시장은 B시 소관의 민원사항에 관해서는 무인 민원발급창구를 통해 그 처리결과를 교부할 수 없다.
- ㄴ. C시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D시 소관의 민원 사무를 접수·교부할 수 있다.
- ㄷ. 민원인은 소액의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고 신속히 처리할 사안에 대하여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ㄹ. E시 시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시에만 소재하는 유명 서점을 지정하여 소관 민원사항을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
- ㅁ. F시 시장은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이외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ㄴ, ㄹ, ㅁ

2013 5급 (인) 5번

문 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법 제00조 ①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광극장유흥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등의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에 관한 일부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00조 ① ○○법 제0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이란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 유원시설업을 말한다.

② ○○법 제00조 제4항에서 “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이란 기타 유원시설업을 말한다.

③ ○○법 제00조 제6항의 “관광 편의시설업”이란 관광 식당업·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을 말한다.
- ① 청주시에서 관광극장유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역별 관광 협회인 충청북도 관광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한옥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서울 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위탁한 자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부산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군산시에서 종합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군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3 외교 (인) 4번

문 4. 다음 글과 <법률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변제의 장소, 대금지급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한다)

물건을 인도하여야 할 채무는 인도할 물건이 특정되어 있는가 여부에 따라 특정물인도 채무와 불특정물인도 채무로 나뉜다. 특정물인도 채무는 특정된 물건을 인도하여야 하는 채무이다. 예컨대 골동품 가게에서 골동품X를 매수한 경우, 골동품 가게 주인은 매도인으로서 그 골동품X를 인도할 채무를 부담한다.

불특정물인도 채무는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에서 일정량을 인도하여야 하는 채무이다. 예컨대 체육대회 도중 동네 가게에 전화하여 맥주 1상자를 주문한 경우, 가게 주인은 여러 맥주 상자 중 1상자를 인도할 채무를 부담한다.

한편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일종의 불특정물인도 채무이다.

——— <법률규정> ———

제00조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변제 장소가 정해지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인도 채무의 변제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00조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보 기> ———

ㄱ. 甲이 쌀 1가마니를 전화로 乙에게 주문한 경우, 乙이 쌀 1가마니를 인도하여야 할 변제장소는 甲의 현주소이다.

ㄴ. 甲이 자기 집에 주차되어 있는 중고 자동차X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한 경우, 甲이 중고 자동차X를 인도하여야 할 변제장소는 乙의 현주소이다.

ㄷ. 甲이 乙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甲의 매매대금 지급장소는 乙의 현주소이다.

ㄹ. 甲이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는 중고 자전거Y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은 중고 자전거Y를 인도할 때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乙의 매매대금 지급장소는 甲의 집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14 5급 (A) 25번

문 2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경주시, 부여군, 공주시, 익산시를 고도(古都)로 지정하고 이를 보존·육성하기 위해 고도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법 제00조 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 변경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樹木)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土石類)의 채취·적치(積置)
4.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보존육성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 및 이축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조 ① 법 제00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토지 및 수면의 매립·절토(切土)·성토(盛土)·굴착·천공(穿孔)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2. 수로·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② 법 제0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2. 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형질 변경
3. 고사(枯死)한 수목의 벌채

- ① 경주시의 특별보존지구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는 甲이 과수를 새로 심기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익산시의 보존육성지구에 토지를 소유한 乙은 시장의 허가 없이 60제곱미터의 토지 형질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공주시의 특별보존지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丙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없이 수로를 변경할 수 있다.
- ④ 공주시의 보존육성지구에서 채석장을 운영하고 있는 丁이 일정 기간 채석장에 토석류를 적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부여군의 보존육성지구에 건조물을 가지고 있는 戊가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않는 내부시설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4 5급 (A) 33번

문 33. 다음 글과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지방행정을 처리하지만, 지방행정도 중앙행정과 마찬가지로 국가행정의 일부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국가의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차원의 감독, 통제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국회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을 직접 결정해야 하므로, 지방자치에 관한 입법권한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의 형식적 효력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중앙행정기관이 제정한 명령보다 하위에 있으며, 조례와 규칙은 법률과 명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규 정> —————

헌법 제00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00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00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00조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법령이란 법률과 명령을 의미함.

————— <보 기> —————

ㄱ. 주민의 복리에 관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ㄴ.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법률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ㄷ. 지방의회는 공석이 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조례로만 정해야 한다.

ㄹ.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조직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2015 5급 (인) 27번

문 2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이 법에서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나.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 다. 임원(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의 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제00조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내에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00조 외국인은 상속·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00조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甲이 전남 무안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라남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충북 보은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乙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면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보은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사원 50명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30명인 丙법인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서울 금천구에 있는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경우, 경매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서울 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丁법인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의 토지(강원 양양군 소재)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 전에 양양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⑤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戊법인의 임원 8명 중 5명이 2012. 12. 12.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 戊법인이 2013. 3. 3. 경기 군포시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戊법인은 2013. 9. 3.까지 군포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8 5급 (나) 3번

문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제00조 이 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제00조 ①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년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 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기본계획을 세워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개황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의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
 4.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
 6. 폐기물 처리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재원의 확보계획

제00조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전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세워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① 재원의 확보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 ② A도 도지사가 제출한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국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B군 군수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워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이 경과하였다면, 환경부장관은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2018 5급 (나) 4번

문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19세 이상으로서 300명 이상의 국민

2. 상시 구성원 수가 300인 이상으로 등록된 공익 추구의 시민단체. 다만 정치적 성향을 띠거나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3. 감사대상기관의 장. 다만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중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자체감사기구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지방의회.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한한다.

제00조 ① 감사청구의 대상은 공공기관에서 처리한 사무처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예산낭비에 관한 사항

2. 기관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정책·사업 등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항

3. 국가 행정 및 시책, 제도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 중이거나 재판(헌법재판소 심판을 포함한다), 행정심판,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수사 또는 재판, 행정심판 등과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예산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수사 결과, 판결, 재결, 결정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형 집행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을 의미한다.

- ① A시 지방의회는 A시가 주요 사업으로 시행하는 노후수도설 비교체사업 중 발생한 예산낭비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B정당의 사무총장은 C시청 별관신축공사 입찰시 담당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단독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D정부투자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직원과 특정 기업 간 유착 관계에 대하여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더라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E시 지방의회는 E시 시장의 위법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민간 유통업체 F마트 사장은 농산물의 납품대가로 과도한 향응을 받은 담당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2018 5급 (나) 5번

문 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소장이 귀휴를 허가할 수 없는 경우는? (단, 수형자 甲~戊의 교정성적은 모두 우수하고,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일수는 남아있다)

제00조 ①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회갑일이나 고회일인 때
-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
- 직계비속이 입대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된 때
- 각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귀휴를 특별히 허가할 수 있다.

-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 귀휴: 교도소 등에 복역 중인 죄수가 출소하기 전에 일정한 사유에 따라 휴가를 얻어 일시적으로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 징역 1년을 선고받고 4개월 동안 복역 중인 甲의 아버지의 회갑일인 경우
-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0개월 동안 복역 중인 乙의 친형의 혼례가 있는 경우
-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4년 동안 복역 중인 丙의 자녀가 입대하는 경우
-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8년 동안 복역 중인 丁의 부친이 위독한 경우
-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5년 동안 복역 중인 戊의 배우자의 모친이 사망한 경우

2018 5급 (나) 22번

문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이 법은 법령의 공포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조 ① 법률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한다.

② 확정된 법률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00조 조약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한다.

제00조 대통령령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한다.

제00조 ① 총리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국무총리가 서명한 후 총리인을 찍는다.

② 부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해당 부의 장관이 서명한 후 그 장관인을 찍는다.

제00조 ① 법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관보의 내용 및 적용 시기 등은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며,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을 가진다.

- ※ 법령 :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의미한다.
- ① 모든 법률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회의장인이 찍혀 있다.
 - ② 핵무기비확산조약의 공포문 전문에는 총리인이 찍혀 있다.
 - ③ 지역문화발전기본법의 공포문 전문에는 대법원장인이 찍혀 있다.
 - ④ 대통령인이 찍혀 있는 법령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무총리의 서명이 들어 있다.
 - ⑤ 종이관보에 기재된 법인세법의 세율과 전자관보에 기재된 그 세율이 다른 경우 전자관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8 5급 (나) 24번

문 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제00조 ①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산림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00만 m^2 이상인 경우 : 산림청장
 -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0만 m^2 이상 200만 m^2 미만인 경우
 -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 산림청장
 -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 시·도지사
 -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0만 m^2 미만인 경우
 -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 산림청장
 -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

② 산림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않고 심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1부(해당자에 한한다)
 -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 산림조사서 1부. 다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5만 m^2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사유림인 산지 180만 m^2 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甲은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공유림인 산지 250만 m^2 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乙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丙은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산림청장 소관의 국유림 50만 m^2 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丁은 산림조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戊가 해당 산지에 대하여 허가신청일 1년 전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산림청장 등’은 현지조사를 않고 심사할 수 있다.

2020 5급 (나) 1번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 의결 요구가 된 경우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변호인 선임비용 지원결정(이하 ‘지원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위원회의 지원결정에 따라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조 ① 위원회는 지원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결정을 받은 경우
2. 제○○조 제2항의 고소·고발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제○○조 제3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은 해당 공무원이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 의결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의 지원결정에 따라 500만 원의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지원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이미 변호인을 선임하였더라도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 ③ 지원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당한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지원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 ④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라도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이 지원받은 변호인 선임비용에 대한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⑤ 지원결정에 따라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받고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 지원결정이 취소되더라도 그가 그 비용을 반환하는 경우는 없다.

2020 5급 (나) 3번

문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청원경찰이란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이하 ‘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②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기관의 장 등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청원경찰 배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기관의 장 등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조 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사업장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청원경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00조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00조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① 청원경찰의 임용승인과 직무감독의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있다.
- ② 청원경찰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요청뿐만 아니라 배치받으려는 기관의 장 등의 신청에 의해서도 배치될 수 있다.
-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및 임용방법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며, 청원경찰의 결격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⑤ 청원경찰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직접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2020 5급 (나) 4번

문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투자관리전문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은 그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제00조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농식품투자조합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
3.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으로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00조 ① 농식품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3.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어지거나 그 밖의 사유가 생겨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와 조합원 총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농식품투자조합이 해산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의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 ① 농식품투자조합이 해산한 경우, 조합의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다.
-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그 조합의 재산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농식품투자조합 해산 당시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 ⑤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농식품투자조합은 해산한다.

2020 5급 (나) 22번

문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등’이라 한다)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2.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그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등은 제3항에 따라 철거할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등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등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비를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1.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할 금액을 법원에 맡기면 채무(의무)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 ① A자치구 구청장은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더라도 붕괴 우려가 없는 빈집에 대해서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른 철거를 명할 수 없다.
- ② B군 군수가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60일 내에 직권으로 철거해야 한다.
- ③ C특별자치시 시장은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한 경우, 그 소유자에게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지 않고 보상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 ④ D군 군수가 빈집을 철거한 경우, 그 소유자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면 그와 동시에 보상비 지급의무는 소멸한다.
- ⑤ E시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른 빈집 철거를 명한 후 그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이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없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2020 5급 (나) 23번

문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스키장업, 골프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빙상장업, 썰매장업, 수영장업, 체력 단련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당구장업, 무도 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②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아래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시설기준>

필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같은 부지 또는 복합건물 내에 다른 시설물과 함께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자동차 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시설	○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다. ○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체육시설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무도장을 운영할 때 목욕시설과 매점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 기준에 위반된다.
② 수영장을 운영할 때 수용인원에 적합한 세면실과 급수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체력단련장을 운영할 때 이를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상체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골프연습장을 운영할 때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 없다면,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⑤ 수영장을 운영할 때 구급약품을 충분히 갖추어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에 지장이 없다면, 응급실을 갖추지 않아도 시설기준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1 5급 (가) 1번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지정·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⑤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00조 ① 아이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아이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아이돌보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00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① 아이돌보미가 아닌 보육 관련 종사자도 아이돌보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적성·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④ 서울특별시의 A기관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⑤ 인천광역시의 B기관이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후 교육과정을 1년간 운영하지 않은 경우, 인천광역시장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21 5급 (가) 3번

문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제00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매한 농산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림협중앙회’라 한다)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쌀과 보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에서 구매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농림협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물거래(先物去來)를 할 수 있다.
- 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가격안정을 위해 구매한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할 수 없다.

② 채소류의 가격안정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매할 경우, 농림협중앙회는 소매시장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③ 농림협중앙회는 보리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보리 생산자에게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별 생산자로부터 비축용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축용 농산물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선물 거래를 할 수 없다.

2021 5급 (가) 22번

문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재산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 3. 금융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 4.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⑥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위촉한다.
-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4년을 초과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 ④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간접적인 접근 가능성은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 ⑤ 금융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2021 5급 (가) 25번

문 2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4. ‘연명의료중단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제00조 ① 말기환자 등은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보관 하여야 한다.

제00조 ①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1.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2.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한다)이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2. 환자가족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19세 이상인 사람에 한정하며, 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가. 배우자

나. 1촌 이내의 직계 존속·비속

<보 기>

- ㄱ. 17세 환자가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전자문서를 직접 작성하였다면, 그 문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해당된다.
- ㄴ. 말기환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의사가 의료기관에서 문서로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가 등록·보관되어 있는 경우,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 ㄷ. 21세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가 1년 전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다면 담당의사의 확인이 없더라도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 ㄹ.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배우자, 자녀, 손자녀가 있는 경우, 그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결정에는 이들 모두의 합의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ㄷ, ㄹ

2022 5급 (나) 1번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구조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행위는 제외한다.

1.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2.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3.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4.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②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③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00조 ① 국가는 의사자·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서훈(敍勳)을 수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지급한다.
2. 의사자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 서훈: 공적의 등급에 따라 훈장을 내림

- ① 의사자 甲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보상금은 전액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의상자 乙에게 서훈을 수여하거나 동상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③ 소방관 丙이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던 중 부상을 입은 경우, 丙은 의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
- ④ 물놀이를 하던 丁이 물에 빠진 애완동물을 구조하던 중 부상을 입은 경우, 丁은 의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
- ⑤ 운전자 戊가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구조하던 중 다른 차량에 치여 부상당한 경우, 戊는 의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

2022 5급 (나) 2번

문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 등’이라 한다)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 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2.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 ① A의 직계혈족인 B가 A의 기본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때에는 A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 ② 본인의 입양관계증명서 교부를 청구한 C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무상 필요에 따라 구두로 지역주민 D의 가족관계증명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E의 자녀 F는 E의 혼인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미성년자 G는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2022 5급 (나) 24번

문 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입찰공고 기간을 준수한 것은?

- 제00조 ① 입찰공고(이하 ‘공고’라 한다)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7일 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를 입찰하는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에 관한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를 입찰하는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입찰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7일
 2. 입찰가격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입찰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협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입찰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① A부서는 건물 청소 용역업체 교체를 위해 제출마감일을 2021. 4. 1.로 정하고 2021. 3. 26. 공고를 하였다.
- ② B부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고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신청사 건설공사 입찰가격을 30억 원에 진행하고자, 현장설명일을 2021. 4. 1.로 정하고 2021. 3. 15. 공고를 하였다.
- ③ C부서는 협상에 의해 헬기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는데,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자 제출마감일을 2021. 4. 1.로 정하고 2021. 3. 19. 공고를 하였다.
- ④ D부서는 협상에 의해 다른 국가사업과 관계없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마감일을 2021. 4. 1.로 정하고 2021. 3. 26. 공고를 하였다.
- ⑤ E부서는 현장설명 없이 5억 원에 주차장 공사를 입찰하고자 2021. 4. 1.을 제출마감일로 하여 공고하였으나, 입찰자가 1개 회사밖에 없어 제출마감일을 2021. 4. 9.로 다시 정하고 2021. 4. 5. 재공고하였다.

2025 5급 (가) 1번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제00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비용을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4.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이 확정된 때에는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① 기본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시·도지사는 그 의견에 따라 기본계획의 변경이 확정되었을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가교통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국가교통위원회가 이를 심의·확정한다.

⑤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비용을 20 % 증가시키는 내용의 변경만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25 5급 (가) 2번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시설 등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경우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 교도소에서는 수형자가 이용하는 목욕실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범죄수사를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그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있다.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는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장소가 국가보안시설이라 하더라도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등이 명시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025 5급 (가) 3번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이 법에서 ‘외국인성명 문서’란 행정기관이 외국인과 관련된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 등을 등록·등재 하거나 확인·증명 등을 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성명을 포함하여 작성 또는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② 외국인성명 문서에 외국인의 성명을 표기할 때는 로마자로 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을 표기하고 괄호 안에 한글로 된 성명(이하 ‘한글성명’이라 한다)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조 ① 로마자성명은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로마자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되어 있는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한다.

③ 외국인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소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국적을 둔 정부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기재된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로마자성명은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Surname)과 이름(Given name)의 순서로 표기한다. 이 경우, 성과 이름은 띄어쓰기를 하며 이름 사이에도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

제◇◇조 ① 한글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및 그 밖에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적 서류·증명서에 기재된 한글성명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글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에 따른 외국인의 로마자성명을 기준으로 원래 성명의 원지음(原地音)을 따라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한글성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쓴다.

① 성이 ‘湯’이고 이름이 ‘鉦’인 외국인은 외국인성명 문서에 성명을 ‘湯 鉦’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로마자로 이름이 ‘Koko Katherine’이며 성이 ‘Brown’인 외국인의 외국인성명 문서에 표기된 로마자성명에는 띄어쓰기를 2번 할 수 있다.

③ 외국인의 한글성명이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외국인 성명 문서에는 로마자성명을 기준으로 원래 성명의 원지음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달리 표기할 수 있다.

④ 로마자로 성이 ‘White’이며 이름이 ‘John’, 한글로 성이 ‘화이트’이며 이름이 ‘존’인 외국인은 외국인성명 문서에 ‘White John(화이트 존)’으로 표기된다.

⑤ 여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외국인의 외국인성명 문서에는 한글성명만 표기하여야 한다.

2025 5급 (가) 4번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이 법에서 ‘우주손해’란 우주물체의 발사·운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의 사망·부상 및 건강의 손상과 같은 인적 손해와 재산의 파괴·훼손·망실과 같은 물적 손해를 말한다.

제□□조 ①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우주물체 발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우주공간에서 발생한 우주손해의 경우와 국가 간의 무력충돌, 적대행위로 인한 우주 손해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한다.

②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는 2천억 원으로 한다.

제◇◇조 ① 우주물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금액은 제□□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우주물체의 특성, 기술의 난이도, 발사장 주변 여건 및 국내외 보험시장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정부는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제2항의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① 우주물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험금액 2천억 원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우주공간에서 제3자에게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우주물체 발사자가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물체 발사자가 우주손해 발생 시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를 2천억 원 이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우주물체 발사자는 우주물체의 발사·운용 등으로 인하여 건강 손상에 따른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⑤ 우주물체의 발사로 2022. 1. 2. 물적 손해를 입은 제3자가 그 손해를 2025. 2. 15. 알게 된 경우 그 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

2011 민경채 (인) 10번

문 10.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제00조(성립) ①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등록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정당은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2. 시·도당은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제00조(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한다.

제00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의 결성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00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각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제00조(등록신청)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정당성립의 등록에 필요한 시·도당 수 및 시·도당의 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 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의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 <보 기> ———

ㄱ. 2010년 2월 1일, 정치인 甲은 5개 시·도에서 600명의 발기인으로 구성된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신고한 뒤, 이들 시·도에서 총 4,000명의 당원을 모집하였고, 같은 해 7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 정당으로 성립되었다.

ㄴ. 2010년 3월 15일, 정치인 乙은 중앙당 300명, 5개 시·도에서 각각 150명의 발기인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신고한 뒤, 이들 시·도에서 각 2,000명씩 총 10,000명의 당원을 모집한 후, 같은 해 9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 정당으로 성립되었다.

ㄷ.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활동해오던 정당 丙은 의회의원 총선거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2개 도의 당원수가 각각 2,000명에서 절반으로 줄어 선거 1개월 후에 등록이 취소되었다.

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활동해오던 정당 丁은 최근에 실시되었던 의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하여 한 명의 후보도 당선시키지 못하였으나, 유효투표총수인 1,000만 표 중 25만 표를 획득함으로써 등록이 유지되었다.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ㄴ, ㄹ

2015 민경채 (인) 6번

문 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국회의 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00조(국회의 임시회) ①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②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째에 집회한다.

제00조(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등) ①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는 매 회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상 황>

○ 국회의원 총선거는 4년마다 실시하며, 그 임기는 4년이다.

○ 제△△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금년 4월 20일(수)에 실시되며 5월 30일부터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다.
- ① 제△△대 국회의 첫 번째 임시회는 4월 27일에 집회한다.

② 올해 국회의 정기회는 9월 1일에 집회하여 12월 31일에 폐회한다.

③ 내년도 국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연간 1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내년 4월 30일에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임시회 집회공고 없이 5월 1일에 임시회가 집회된다.

⑤ 제△△대 국회의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도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정해야 한다.

2015 민정채 (인) 16번

문 1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표>의 ㉠~㉡에 들어갈 기호로 모두 옳은 것은?

법 제○○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시·도의 교육감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법 제△△조(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 ① 누구든지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2.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폐기물수집장소
4.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5. 만화가게(유치원 및 대학교의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6. 노래연습장(유치원 및 대학교의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7. 당구장(유치원 및 대학교의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8. 호텔, 여관, 여인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1항의 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시설 중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허용될 수 있다.

대통령령 제□□조(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법 제○○조에 따른 상대정화구역(법 제△△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정화구역 전체)을 말한다.

<표>

구역 \ 시설	초·중·고등학교		유치원·대학교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폐기물처리시설	×	×	×	×
폐기물수집장소	×	△	×	△
당구장	㉠		㉡	
만화가게		㉢		
호텔				㉣

×: 금지되는 시설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는 시설
 ○: 허용되는 시설

- ㉠

㉢

㉡

㉣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2017 민경채 (나) 7번

문 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우수현상광고)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數人)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報酬)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에서 정한 자가 한다. 광고에서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에서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응모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⑤ 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 현상광고: 어떤 목적으로 조건을 붙여 보수(상금, 상품 등)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 광고

<상 황>

A청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우수논문공모를 위한 우수 현상광고를 하였고, 대학생 甲, 乙, 丙 등이 응모하였다.

우수논문공모

- 논문주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
- 참여대상: 대학생
- 응모기간: 2017년 4월 3일 ~ 4월 28일
- 제 출 처: A청
- 수 상 자: 1명(아래 상금 전액 지급)
- 상 금: 금 1,000만 원정
- 특이사항
 - 논문의 작성 및 응모는 단독으로 하여야 한다.
 - 기준을 충족한 논문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 우수 논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보 기>

ㄱ. 우수논문의 판정은 A청이 한다.
ㄴ. 우수논문이 없다는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ㄷ. 甲, 乙, 丙 등은 우수의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ㄹ. 심사결과 甲과 乙의 논문이 동등한 최고점수로 판정 되었다면, 甲과 乙은 500만 원씩 상금을 나누어 받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2017 민경채 (나) 17번

문 1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경계를 정하기 위한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제00조(경계선 부근의 건축)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00조(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遮面)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00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貯置)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지하실공사를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 차면(遮面)시설 : 서로 안 보이도록 가리는 시설
- ※ 저치(貯置) : 저축하거나 저장하여 둠

<상 황>

○ 甲과 乙은 1,000 m²의 토지를 공동으로 구매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A토지와 B토지로 나누어 A토지는 甲이, B토지는 乙이 소유하게 되었다.

A토지 (면적 600 m ²)	B토지 (면적 400 m ²)

○ 甲은 A토지와 B토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하고, A토지 위에 C건물을 짓고자 한다. 乙은 B토지를 주차장으로만 사용한다.

- ① 토지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 측량을 하는 데 비용이 100만 원이 든다면 甲과 乙이 각각 50만 원씩 부담한다.
- ②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비용이 100만 원이라면 甲이 60만 원, 乙이 40만 원을 부담한다.
- ③ 甲이 B토지와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C건물을 완성한 경우, 乙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C건물을 B토지와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 축조한다면, 甲은 C건물에 B토지를 향한 창을 설치할 수 없다.
- ⑤ 甲이 C건물에 지하 깊이 2미터의 지하실공사를 하는 경우, B토지와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018 민경채 (가) 16번

문 1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제00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00조(유치권자의 선관 의무) 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조(경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제00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 유치: 물건 등을 일정한 지배 아래 둠

————— <상 황> —————

甲은 아버지의 양복을 면접시험에서 입으려고 乙에게 수선을 맡겼다. 수선비는 다음 날까지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고 옷은 일주일 후 찾기로 하였다. 甲은 수선비를 송금하지 않은 채 일주일 후 옷을 찾으러 갔고, 옷 수선을 마친 乙은 수선비를 받을 때까지 수선한 옷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 <보 기> —————

ㄱ. 甲이 수선비의 일부라도 지급한다면 乙은 수선한 옷을 돌려주어야 한다.

ㄴ. 甲이 수선한 옷을 돌려받지 못한 채 면접시험을 치렀고 이후 필요가 없어 옷을 찾으러 가지 않겠다고 한 경우, 乙은 수선비의 변제를 받기 위해 그 옷을 경매할 수 있다.

ㄷ. 甲이 수선을 맡긴 옷을 乙이 도둑맞아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乙의 유치권은 소멸한다.

ㄹ. 甲이 수선비를 지급할 때까지, 乙은 수선한 옷을 甲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ㄴ, ㄷ, ㄹ

2023 7급 (인) 4번

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허가신청) ①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 물질을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허가제한) 환경부장관은 제○○조 제1항에 따른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조(허가취소 등) ①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자

제◇◇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2. 제△△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상 황>

甲~戊는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려 한다.

- ① 甲이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없다.
- ② 乙이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7년의 징역과 2억 원의 벌금에 처한다.
- ③ 丙이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설치·운영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④ 丁이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설치로 인해 지역 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환경부장관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⑤ 戊가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2012 5급 (인) 5번

문 5. 다음 규정과 <상황>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환경오염 및 예방 대책의 추진)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국가산업단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오염 및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조(환경기초조사의 방법·시기 등) 전조(前條)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의 방법과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기초조사의 범위는 지하수 및 지표수의 수질, 대기, 토양 등에 대한 계획·조사 및 치유대책을 포함한다.

2. 환경기초조사는 당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1단계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이 2단계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1단계 조사결과에 의하여 정상지역으로 판정된 때는 2단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3. 제2호에 따른 1단계 조사는 그 조사 실시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실시하고, 2단계 조사는 1단계 조사 판정일 이후 1월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상 황>

甲시에는 A, B, C 세 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甲시 시장은 아래와 같이 세 개 단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1단계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년 1월 1일 현재, 기록되어 있는 실시일, 판정일 및 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조사 실시일	1단계 조사 판정일	판정 결과
A단지 주변지역	2011. 7. 1.	2011. 11. 30.	오염지역
B단지 주변지역	2009. 3. 1.	2009. 9. 1.	오염지역
C단지 주변지역	2010. 10. 1.	2011. 7. 1.	정상지역

- ① A단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2012년에 환경부장관은 2단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② B단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2012년에 甲시 시장은 1단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③ B단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甲시 시장은 2단계 조사를 실시하였다.
- ④ C단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2011년 7월 중에 2단계 조사를 실시하였다.
- ⑤ C단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甲시 시장은 2012년에 1단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012 5급 (인) 28번

문 28. 다음 규정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제00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그 외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그 외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시장형 공기업: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100분의 85 이상인 공기업
2.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공공기관 현황>

공공기관	직원 정원	자산규모	자체수입비율
A	80명	3조 원	85 %
B	40명	1.5조 원	60 %
C	60명	1조 원	45 %
D	55명	2.5조 원	40 %

※ 자체수입비율 : 총 수입액 대비 자체수입액 비율

<보 기>

ㄱ. 기관 A는 시장형 공기업이다.
ㄴ. 기관 B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ㄷ. 기관 C는 기타공공기관이다.
ㄹ. 기관 D는 준정부기관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4 5급 (A) 28번

문 2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특허침해죄) ①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제00조(위증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00조(사위행위의 죄)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의 등록이나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받은 자 또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특허침해죄, 사위행위의 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침해죄의 경우: 3억 원 이하의 벌금
2. 사위행위죄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위(詐僞): 거짓을 꾸미어 속임.

————— <상 황> —————
개인 발명자 甲은 전자제품인 발명품 A에 대해서 특허권을 부여받았다. 한편 乙은 A에 대해 특허권이 부여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甲을 상대로 A에 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당해 심판에서 선서한 감정인 丙은 甲의 발명품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감정을 하였다. 그 후 당해 감정이 허위임이 밝혀지고 달리 특허무효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특허심판원은 甲에 대한 특허권의 부여는 유효라고 심결하였고 이 심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전자제품 생산회사인 丁회사의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戊는 그 공장에서 A를 무단으로 생산한 후 丁회사의 이름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 ① 甲의 고소가 있어야 丙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
- ② 丙이 위증죄로 처벌되는 경우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③ 丙이 위증죄로 처벌되는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乙에게 6천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 ④ 戊가 특허침해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형의 상한은 3억 원이다.
- ⑤ 戊에 대해서 특허침해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관리 책임을 이유로 丁회사에게 3억 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2015 5급 (인) 7번

문 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그 신고를 통하여 징수한 금액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수금액	지급률
2,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000만 원 + 2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제00조(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에는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즉시 해당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00조(출국금지 요청 등)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상 황>

- 甲은 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
- 甲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 1억 원을 1회 체납하여 법령에 따라 2012. 12. 12. 체납액이 징수되었음
- 甲은 국세인 소득세(납부기한: 2013. 5. 31.) 2억 원을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2. 7.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음
- 甲은 체납국세와 관련하여 불복청구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가 아니며, 징수유예나 체납처분유예를 받은 사실이 없음

- ① 국세청장은 甲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 ② 세무서장은 법무부장관에게 甲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국세청장은 甲에 대하여 허가의 갱신을 하지 아니할 것을 해당 주무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④ 2014. 12. 12. 乙이 甲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국세청장이 甲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할 경우, 乙은 포상금으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⑤ 세무서장이 甲에 대한 사업허가의 취소를 해당 주무관서에 요구하면 그 주무관서는 요구에 따라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즉시 해당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2015 5급 (인) 28번

문 2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00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제00조(의결정족수) ① 의결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결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00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 지방의회의원 중 사망한 자, 제명된 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는 재적의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상 황> —————
○ A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최초 재적의원은 111명이다.
그 중 2명은 사망하였고, 3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2명은 의회에서 제명되어 현재 총 104명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 A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안이 상정되었다.
○ A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53명이 출석하여 개의하였다.

- ① 의결할 수 없다.
- ②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26명 찬성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④ 27명 찬성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⑤ 28명 찬성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2017 5급 (가) 13번

문 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은?

제00조(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의 지정)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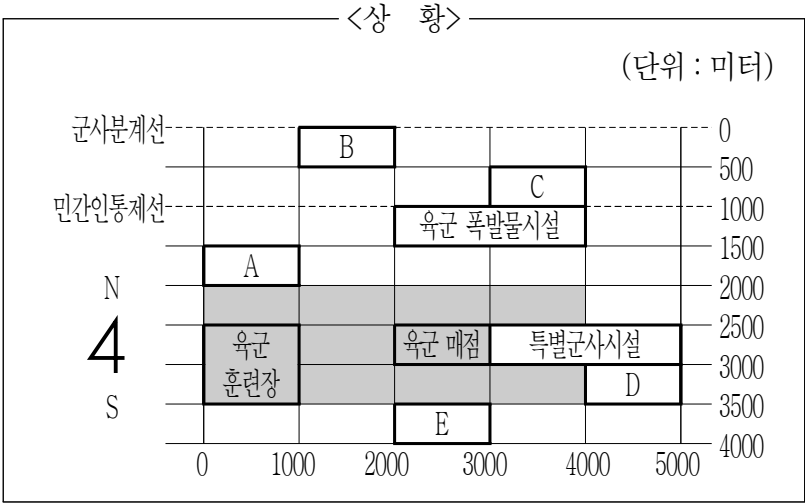
1.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

2. 제1호 외의 지역에 위치한 특별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통제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1. 특별군사시설이 아닌 군사시설로서 군폭발물시설·군방공기지·군사격장·군훈련장의 경우, 당해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특별군사시설이 아닌 군사시설로서 취락지역에 위치하는 제1호 이외의 군사시설의 경우, 당해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취락지역이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2017 5급 (가) 25번

문 2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단, 기간을 일(日)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〇〇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

제△△조(안전의 신속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전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전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전 지정요구 동의(이하 “신속처리안전지정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안전의 소관 위원회 소속 의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전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전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전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전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신속처리안전지정동의가 가결된 때에는 해당 안전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전(이하 “신속처리대상안전”)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전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전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조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속처리대상안전의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전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제□□조(체계·자구의 심사)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상 황> —

○ 국회 재적의원은 300명이고, 지식경제위원회 재적위원은 25명이다.

○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전 X가 3월 2일 신속처리대상안전으로 지정되었다.

- ① 안전 X는 국회 재적의원 중 최소 150명 또는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중 최소 13명의 찬성으로 신속처리대상안전으로 지정되었다.
- ② 지식경제위원회는 안전 X에 대해 당해년도 10월 1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 ③ 지식경제위원회가 안전 X에 대해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면, 90일을 연장하여 재심사 할 수 있다.
- ④ 지식경제위원회가 안전 X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당해년도 7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면, 법제사법위원회는 당해년도 9월 29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 ⑤ 안전 X가 당해년도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가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면, 다음 해 1월 28일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2019 5급 (가) 5번

문 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丙 중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임금피크제 지원금)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재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 한다)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만을 줄이는 경우

3. 사업주가 제2호에 따라 재고용하면서 주당 소정의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②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피크임금(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과 지원금 신청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낮아진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

2. 제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20

3. 제1항제3호의 경우: 100분의 30

<상 황>

甲~丙은 올해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 甲(56세)은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320명)에 고용되어 3년간 계속 근무하고 있다. 甲의 피크임금은 4,000만 원이었고, 올해 임금은 3,500만 원이다.

○ 乙(56세)은 사업주가 정년을 55세로 정한 사업장(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200명)에서 1년간 계속 근무하다 작년 12월 31일 정년에 이르렀다. 乙은 올해 1월 1일 근무기간 10개월, 주당 근로시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고용되었다. 乙의 피크임금은 3,000만 원이었고, 올해 임금은 2,500만 원이다.

○ 丙(56세)은 사업주가 정년을 55세로 정한 사업장(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400명)에서 2년간 계속 근무하다 작년 12월 31일 정년에 이르렀다. 丙은 올해 1월 1일 근무기간 1년,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하는 조건으로 재고용되었다. 丙의 피크임금은 2,000만 원이었고, 올해 임금은 1,200만 원이다.

- ① 甲
- ② 乙
- ③ 甲, 丙
- ④ 乙, 丙
- ⑤ 甲, 乙, 丙

2023 5급 (가) 4번

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신고) 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조(준수사항) ① 식품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 하거나 이를 판매하지 말 것
2.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지 않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② 관할 시장 등은 식품판매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관할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 7만 원
2.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营业을 계속하는 행위: 20만 원

제◇◇조(제품교환 등) 식품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1. 소비자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구입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2. 소비자가 제1호의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신체에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일소득 배상

제△△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판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조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조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 <상 황> —————

식품판매업자 甲은 A도 B군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 乙은 甲의 영업소에 진열되어 있는 C식품을 구입하였는데, 집에서 확인해보니 구매 당시 이미 소비기한이 지나 있었고 이 사실을 친구 丙에게 알려 주었다.

- ① A도지사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한 甲에 대해 1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② 甲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여부에 관계없이 甲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 ③ 乙이 C식품에 대해 제품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제품교환과 함께 구입가 환불을 해 주어야 한다.
- ④ 丙이 甲의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 사실을 신고한 경우, 乙과 丙은 각각 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 ⑤ 乙이 C식품의 일부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는데 먹다 남은 C식품을 丙이 폐기함으로써 식중독 원인규명이 방해된 경우, 丙은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3 5급 (가) 5번

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A가 가맹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조(가맹금의 반환)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요구하면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상 황> ———

甲, 乙, 丙은 가맹본부 A에게 지급했던 가맹금의 반환을 2023. 2. 27. 서면으로 A에게 요구하였다.

——— <보 기> ———

ㄱ. 2023. 1. 18. A가 甲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2023. 1. 30.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ㄴ. 2022. 9. 27. 가맹계약을 체결한 乙이 건강상의 이유로 2023. 1. 3. 가맹점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ㄷ. 2023. 3. 7. 가맹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가맹희망자 丙에게 A가 2023. 2. 10. 제공하였던 정보공개서상 정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2023 5급 (가) 24번

2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입주민대표회의 구성) ① 입주민대표회는 공동주택의 각 동별로 선출된 입주민대표자(이하 ‘동대표자’라 한다)들로 구성된다.

② 동대표자는 동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 중에서 선출한다.

③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대표자가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
3.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확정되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동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나 제3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 <상 황> —————

K공동주택은 A, B, C, D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甲은 A동, 乙은 B동, 丙은 C동, 丁은 D동의 입주민이다.

- ① K공동주택의 입주민대표회는 A, B, C, D동의 동별 구분 없이 선출된 입주민대표자들로 구성된다.
- ② 서류 제출 마감일이 2023. 3. 2.이고 선출일이 2023. 3. 31.인 A동대표자 선출에서, 2023. 3. 20.에 성년이 되는 甲은 A동 대표자가 될 수 있다.
- ③ 서류 제출 마감일이 2023. 1. 2.인 B동대표자의 선출에서, B동에 2022. 7. 29. 주민등록을 마쳤고 계속 거주하여 온 乙은 B동 대표자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
- ④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받고 2020. 1. 1.에 그 집행이 종료된 丙이 C동대표자 선출을 위한 서류 제출 마감일인 2023. 1. 2. 현재 파산자인 경우, C동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 ⑤ 임기가 2023. 12. 31.까지인 D동대표자 丁에 대하여 2023. 3. 7.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선고가 확정된다면, 丁은 D동대표자의 직에서 당연히 퇴임한다.

2024 5급 (나) 24번

2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특허표시 및 특허출원표시)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특허표시를 할 수 있다.

1. 물건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물건에 “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

②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있다.

1. 물건의 특허출원의 경우: 그 물건에 “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출원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없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있다.

제□□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조(허위표시의 죄) ① 제□□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6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 <상 황> —

○ 물건의 특허발명에 해당하는 잠금장치를 발명한 甲은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 부여받은 후, 乙을 고용하여 해당 잠금장치를 생산하고 있다.

○ 황금색 도자기를 생산하는 방법을 발명한 丙은 그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 중이며, 그 방법에 따라 황금색 도자기를 생산하고 있다. 丁은 丙의 황금색 도자기를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종이 박스를 생산하고 있다.

① 甲이 잠금장치에 “방법특허”라는 문자와 특허번호를 표시한 경우,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丙이 황금색 도자기의 밑부분에 “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甲이 잠금장치에 특허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허위표시의 죄로 처벌된다.

④ 甲의 지시에 따라 乙이 잠금장치에 허위의 특허표시를 한 경우, 乙은 허위표시의 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⑤ 丁이 丙의 황금색 도자기를 포장하는 종이박스에 허위의 특허출원 표시를 한 경우, 丁은 허위표시의 죄로 처벌된다.

2025 5급 (가) 5번

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① 검정고시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검정고시’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시행하기 2개월 이전에 시험의 일시·장소, 원서접수, 그 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조(응시자격) ① 검정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 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

2. 고등학교에서 퇴학(자퇴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으로서 퇴학일부터 제○○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한 사람은 제외한다.

— <상 황> —

검정고시위원회는 2024년도에 6. 15.(1회차) 및 12. 14. (2회차) 두 차례 검정고시를 시행하기로 하였고, 해당 검정고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2024. 4. 12. 및 10. 11. 각각 공고하였다.

— <보 기> —

ㄱ.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2024. 9. 24. 기준 18세 이상인 甲은 2024년도 2회차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ㄴ.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던 중 해외유학을 목적으로 2023. 11. 23. 자퇴한 乙은 2024년도 1회차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ㄷ. 보호소년으로서 소년원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이고 생년월일이 2006. 7. 15.인 丙은 2024년도 2회차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ㄹ.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 신체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2024. 6. 10. 자퇴한 丁은 2024년도 2회차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025 5급 (가) 24번

2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2024년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甲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과세 기준 및 대상) 사업자는 그 소유 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사업자가 소유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제00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무상으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 및 묘지
2.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일로부터 1년 미만의 것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 구성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 <상 황> —————

사업자 甲은 2024. 12. 1. W건축물, X토지, Y임시건축물, Z선박을 소유하고 있다.

————— <보 기> —————

ㄱ. 甲이 사용하고 있던 W건축물이 2025. 1. 1.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는 경우

ㄴ. A광역시가 X토지를 2023. 1. 1.부터 2024. 12. 31.까지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경우

ㄷ. 2024. 4. 19. 건축된 Y임시건축물을 甲이 2025. 8. 1.까지 사용하는 경우

ㄹ. 정부가 Z선박을 2024. 3. 1.부터 2024. 12. 31.까지 비상재해구조용 선박으로 무상 사용하는 경우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13 민경채 (인) 23번

문 23.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국 A정당 회계책임자가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한 총 횟수는?

법 제00조 정당 회계책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에 정한 대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는 다음 연도 2월 15일에 한다.

2.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

가. 매년 1월 1일부터 선거일 후 20일까지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는 당해 선거일 후 30일 (대통령선거는 40일)에 한다.

나. 당해 선거일 후 2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는 다음 연도 2월 15일에 한다.

<상 황>

○ 甲국의 A정당은 위 법에 따라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했다.

○ 甲국에서는 2010년에 공직선거가 없었고, 따라서 A정당은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 甲국에서는 2011년 12월 5일에 대통령선거를, 2012년 3월 15일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였고, 그 밖의 공직선거는 없었다.

○ 甲국의 A정당은 2011년 대통령선거에 후보를 공천해 참여하였고,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에도 후보를 공천해 참여하였다.

- ① 3회
- ② 4회
- ③ 5회
- ④ 6회
- ⑤ 7회

2019 민경채 (나) 2번

문 2.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改葬)’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00조 ①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② 누구든지 허가를 받은 공설묘지, 공설자연장지, 사설묘지 및 사설자연장지 외의 구역에 매장하여서는 안 된다.

제00조 ① 매장(단, 자연장 제외)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改葬地)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 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자연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제00조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이 아닌 자는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등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상 황> —————

甲은 90세의 나이로 2019년 7월 10일 아침 7시 A지에서 사망하였다. 이에 甲의 자녀는 이미 사망한 甲의 배우자 乙의 묘지(B시 소재 공설묘지)에서 유골을 옮겨 가족묘지를 만드는 것을 포함하여 장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① 甲을 2019년 7월 10일 매장할 수 있다.
- ② 甲을 C시 소재 화장시설에서 화장하려는 경우, 그 시설을 관할하는 C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甲의 자녀가 가족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경우, 그 소재지의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甲의 유골의 골분을 자연장한 경우, 자연장지 소재지의 관할 시장에게 2019년 8월 10일까지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乙의 유골을 甲과 함께 D시 소재 공설묘지에 합장하려는 경우, B시의 장과 D시의 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2019 민경채 (나) 11번

문 11.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국제금융기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미합중국통화 또는 그 밖의 자유교환성 통화나 금(金) 또는 내국통화로 그 출자금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내국통화로 출자하는 경우에 그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제00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조(前條) 제2항에 따라 출자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각 국제금융기구가 지급을 청구하면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지급할 재원(財源)이 부족하여 그 청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해당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상 황>

기획재정부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A국제금융기구에 일정액을 출자한다.

<보 기>

ㄱ. 기획재정부장관은 출자금을 자유교환성 통화로 납입할 수 있다.

ㄴ. 기획재정부장관은 출자금을 내국통화로 분할하여 납입할 수 없다.

ㄷ. 출자금 전부를 내국통화로 출자하는 경우, 그 중 일부액을 미합중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ㄹ. 만약 출자금을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한다면, A국제금융기구가 그 지급을 청구할 경우에 한국은행장은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ㄷ, ㄹ

⑤ ㄴ, ㄷ, ㄹ

2021 민경채 (나) 3번

문 3.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분양자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게 제2항 각 호의 하자에 대하여 과실이 없더라도 담보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력벽, 주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2.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組積)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5년

3.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3년

③ 제2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1.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사용승인일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滅失)된 경우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멸실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⑤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 ※ 구분소유자: 집합건물(예: 아파트, 공동주택 등) 각 호실의 소유자
- ※ 담보책임: 집합건물의 하자로 인해 분양자,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지는 손해배상, 하자보수 등의 책임

————— <상 황> —————

甲은 乙이 분양하는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乙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丙건설사는 乙과의 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시공하였고, 준공검사 후 아파트는 2020. 5. 1. 사용승인을 받았다. 甲은 아파트를 2020. 7. 1. 인도받고 등기를 완료하였다.

- ① 丙은 창호공사의 하자에 대해 2025. 7. 1.까지 담보책임을 진다.
- ② 丙은 철골공사의 하자에 과실이 없으면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乙은 甲의 전유부분인 거실에 물이 새는 방수공사의 하자에 대해 2025. 5. 1.까지 담보책임을 진다.
- ④ 대지조성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2023. 10. 1. 공용부분인 주차장 건물이 멸실된다면 丙은 2024. 7. 1. 이후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乙이 甲과의 분양계약에서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경우라도, 2027. 10. 1. 그 하자가 발생한다면 담보책임을 진다.

2020 7급 모의평가 5번

문 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제2항에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출”이라 한다)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주택금융
공사가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금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2.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과, 주택소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단,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을 지급받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
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나.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상 황>———
A주택의 소유자 甲(61세)은 A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해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고자
한다. 甲의 A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액은
3억 원이다.

———<보 기>———
ㄱ. 甲은 A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1억 원을 지급받고,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ㄴ. 甲의 배우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을 통해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ㄷ. 甲은 A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고, 향후 10년간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021 7급 (나) 1번

문 1.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유출된 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유출된 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유출된 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의 신청 또는 제5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부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라 한다)에 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

③ 주민등록지의 시장 등은 변경위원회로부터 번호변경 인용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번호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번호의 앞 6자리(생년월일) 및 뒤 7자리 중 첫째 자리는 변경할 수 없음
2. 제1호 이외의 나머지 6자리는 임의의 숫자로 변경함

④ 제3항의 번호변경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에 기재된 번호의 변경을 위해서는 그 번호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⑤ 주민등록지의 시장 등은 변경위원회로부터 번호변경 기각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시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상 황>

甲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하였다. 甲의 주민등록지는 A광역시 B구이고, 주민등록번호는 980101-23456□□이다.

- ① A광역시장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甲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
- ②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번호변경 인용결정을 하면서 甲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할 수 있다.
- ③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번호변경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 甲의 주민등록번호는 980101-45678□□으로 변경될 수 있다.
- ④ 甲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甲이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 ⑤ 甲은 번호변경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21 7급 (나) 17번

문 1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조 ① ○○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 황>

甲은 20층의 연면적 합계 5만 제곱미터인 건축물을, 乙은 연면적 합계 15만 제곱미터인 건축물을 각각 A광역시 B구에 신축하려고 한다.

① 甲은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甲의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B구청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은 乙의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④ 乙이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A광역시장은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이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부 장관은 건축허가를 받은 乙의 건축물에 대해 최대 3년간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2022 7급 (가) 2번

문 2.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김가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제○○조 ①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제□□조 출생을 사유로 처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기준지를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한다.

————— <상 황> —————

경기도 과천시 ☆☆로 1-11에 거주하는 김여름(金海 김씨)과 박겨울(密陽 박씨) 부부 사이에 2021년 10월 1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병원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이 부부는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김가을로 하고 과천시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였다. 김여름의 등록기준지는 부산광역시 남구 ◇◇로 2-22이며, 박겨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 3-33이다.

-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 3-33
- ② 부산광역시 남구 ◇◇로 2-22
- ③ 2021년 10월 10일
- ④ 金海
- ⑤ 남

2022 7급 (가) 25번

문 2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에는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은 공관장에게, 공관장은 장관에게 각각 신고하고 일시귀국할 수 있다.

③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재외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2. 재외공무원 또는 그 동반가족의 치료를 위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재외공무원이 연 1회 또는 20일을 초과하여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

2. 재외공무원이 일시귀국 후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상 황>

A국 소재 대사관에는 공관장 甲을 포함하여 총 3명의 재외공무원(甲~丙)이 근무하고 있다. 아래는 올해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甲~丙의 일시귀국 현황이다.

○ 甲: 공무상 회의 참석을 위해 총 2회(총 25일)

○ 乙: 동반자녀의 관절 치료를 위해 총 1회(치료가 더 필요하여 국내 체류기간 1회 연장, 총 17일)

○ 丙: 직계존속의 회갑으로 총 1회(총 3일)

- ① 甲은 일시귀국 시 장관에게 신고하였을 것이다.
- ② 甲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하여 올해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乙이 직계존속의 회갑으로 인해 올해 3일간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乙이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귀국하였더라도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 ⑤ 丙이 자신의 혼인으로 인해 올해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8 5급 (나) 2번

문 2. 다음 글과 <甲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단, 오늘은 2018년 3월 10일이다)

제00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1.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된다.

2. 4명의 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 2명,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국장, 기획관리실장(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2항 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2항 제2호의 4명 중에서 선임

제00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전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그 자리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甲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황>

성명	직위	최초 위촉일자
A	甲지방의회 의원	2016. 9. 1.
B	시민연대 회원	2016. 9. 1.
C	甲지방자치단체 소속 기획관리실장	2016. 9. 1.
D	지방법원 판사	2017. 3. 1.
E	대학교 교수	2016. 9. 1.
F	고등학교 교사	2014. 9. 1.
G	중학교 교사	2016. 9. 1.
H	甲지방의회 의원	2016. 9. 1.
I	甲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국장	2016. 9. 1.

※ 모든 위원은 최초 위촉 이후 계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① B가 사망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甲지방의회 의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C가 오늘자로 명예퇴직하더라도 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③ E가 오늘자로 사임한 경우 당일 그 자리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다.

④ F는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

⑤ I는 부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

155

155 쪽

2018 5급 (나) 23번

문 23.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⑤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⑥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제00조 ① 증인은 따로따로 신문하여야 한다.
② 신문하지 않은 증인이 법정 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법정 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제00조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서로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제00조 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이 허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당사자: 원고, 피고를 가리킨다.

<상 황>

원고 甲은 피고 乙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절차에서 甲은 丙을, 乙은 丁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며 해당 재판부(재판장 A, 합의부원 B와 C)는 丙과 丁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 ① 丙을 신문할 때 A는 乙보다 먼저 신문할 수 없다.
② 甲의 丙에 대한 신문이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A는 甲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③ A가 丁에 대한 신문을 乙보다 甲이 먼저 하게 하려면, B와 C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丙과 丁을 따로따로 신문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B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丙과 丁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⑤ 丙이 질병으로 인해 서류에 의해 진술하려는 경우 A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2020 5급 (나) 2번

문 2.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주택 등에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기르는 경우, 그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는 제1항의 개를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소유자의 전화번호, 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그 개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제□□조 ① 맹견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할 것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조 ① 제□□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 황> —

甲과 乙은 맹견을 각자 자신의 주택에서 기르고 있다. 甲은 월령 1개월인 맹견 A의 소유자이고, 乙은 월령 3개월인 맹견 B의 소유자이다.

- ① 甲이 A를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A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한다.
- ② 甲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③ 甲이 A와 함께 타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 A에게 甲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 ④ B가 제3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구청장이 B를 격리조치하기 위해서는 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乙이 B에게 목줄을 하지 않아 제3자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乙을 3년의 징역에 처한다.

2020 5급 (나) 21번

문 21.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20년 5월 16일 현재 공무원 신분인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의 과실로 인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무원 신분은 발생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00조 ①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제00조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상 황>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다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중인 甲

○ 결격사유 없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금고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乙

○ 결격사유 없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아 정직 중에 있는 丙

○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국가의 과실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중인 丁

○ 결격사유 없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년 3월 31일 정년에 이른 戊

- ① 甲, 丁
- ② 乙, 丁
- ③ 甲, 丙, 戊
- ④ 乙, 丙, 戊
- ⑤ 甲, 乙, 丁, 戊

2020 5급 (나) 25번

문 2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00조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1.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2. 변호사 보수의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제00조 ①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②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제00조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 소송구조: 소송수행상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를 위하여 비용을 미리 납입하지 않고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 소송승계인: 소송 중 소송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

————— <상 황> —————

甲은 乙이 운행하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① 甲의 소송구조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구조를 하는 경우, 甲의 재판비용 납입을 면제할 수 있다.
- ② 甲이 소송구조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던 중 증여를 받아 자금능력이 있게 되었다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취소할 수 없다.
- ③ 甲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소송구조를 한 경우, 甲뿐만 아니라 乙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乙은 법원으로부터 변호사 보수의 지급유예를 받을 수 있다.
- ④ 甲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함을 소명하여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甲이 패소할 것이 분명하더라도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 ⑤ 甲이 소송구조를 받아 소송이 진행되던 중 丙이 甲의 소송승계인이 된 경우, 법원은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유예한 재판비용을 丙에게 납입하도록 명할 수 있다.

2021 5급 (가) 2번

문 2.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문화재청장은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1. 고도(古都)지역
2. 수중문화재 분포지역
3. 폐사지(廢寺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의 내용을 발굴 착수일 2주일 전까지 해당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유자 등은 그 발굴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발굴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토유물 현황 등 발굴의 결과를 소유자 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발굴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굴 현장에 발굴의 목적, 조사기관, 소요 기간 등의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상 황>

문화재청장 甲은 고도(古都)에 해당하는 A지역에 대한 학술조사를 위해 2021년 3월 15일부터 A지역의 발굴에 착수하고자 한다. 乙은 자기 소유의 A지역을 丙에게 임대하여 현재 임차인 丙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 ① 甲은 A지역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丙에게 2021년 3월 29일까지 알려주어야 한다.
- ② A지역의 발굴에 대한 통보를 받은 丙은 甲에게 그 발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乙은 발굴 현장에 발굴의 목적 등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A지역의 발굴로 인해 乙에게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乙은 그 발굴을 거부할 수 있다.
- ⑤ A지역과 인접한 토지 소유자인 丁이 A지역의 발굴로 인해 손실을 받은 경우, 丁은 보상금에 대해 甲과 협의하지 않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021 5급 (가) 21번

문 21.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급식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국립·공립·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아수 50명 미만의 사립 유치원은 급식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식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명칭과 주소를 매년 1월말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제00조 ①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을 실시할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명을 둔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원아수 각 200명 미만인 유치원은 2개 이내의 유치원에 순회 또는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 중 원아수 100명 미만의 유치원에 대하여 영양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는 유치원에는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본다.

————— <상 황> —————

○ 현재 유치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	분류	원아수	관할 교육지원청
A	공립	223	甲
B	사립	152	乙
C	사립	123	乙
D	사립	74	丙
E	공립	46	丙

————— <보 기> —————

ㄱ. A유치원은 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한다.

ㄴ. B유치원과 C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다.

ㄷ. 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D유치원이 丙교육지원청의 전담직원을 통하여 영양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업무를 지원받고 있다면, D유치원은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본다.

ㄹ. E유치원은 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으로 그 명칭과 주소가 매년 1월말까지 공시되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022 5급 (나) 3번

문 3.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1.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

제□□조 ①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2.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조사하고 있는 경우

②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조 한국소비자원장은 제○○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상 황> —————

소비자 甲은 사업자 乙이 생산한 물품을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었다. 이에 甲은 乙에게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① 乙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甲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乙은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甲과 乙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기로 합의한 경우, 乙은 30일 이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한국소비자원이 甲의 피해구제 처리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는 甲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한국소비자원장이 권고한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甲과 乙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장은 30일 이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乙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조사하고 있는 경우라도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2022 5급 (나) 4번

문 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박물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5명 이내,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조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④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조 ① 박물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고 관장이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00조 ① 박물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 황> —————
○○박물관에는 임원으로 이사인 관장 A, 상임이사 B, 비상임이사 C, D, E, F와 감사 G가 있다.

- ① A가 2년간 재직하다가 퇴직한 경우, 새로 임명된 관장의 임기는 1년이다.
- ② 이사회에 A, B, C, D, E가 출석한 경우, 그 중 2명이 반대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 ③ A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G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B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1년의 징역과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⑤ ○○박물관 정관에 “관장은 이사, 감사를 임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A는 G의 임기가 만료되면 H를 상임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2022 5급 (나) 22번

문 22.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급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가공·처리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적·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해당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제□□조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제○○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2. 제○○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급한 경우
3. 제○○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재하도급한 경우

제◇◇조 제□□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급(都給): 공사 등을 타인(수급인)에게 맡기는 일

————— <상 황> —————

장신구 제조업체 甲(도급인)은 도급작업을 위해 도급 전문업체 乙(수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① 도급작업이 일시적인 경우, 甲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 乙의 근로자를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도급작업이 상시적인 경우, 甲이 乙의 근로자를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도록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乙은 자신의 기술이 甲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 ④ 乙의 근로자가 甲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할 의무는 乙이 진다.
- ⑤ 甲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乙의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1 민경채 (인) 8번

문 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A.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職)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 여기서 직무란 공무원의 직무인 이상 그 종류 및 성질을 가리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의 직무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 B. 위계(僞計)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공무집행방해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의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지만, 그 행위수단이 ‘위계’라는 점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그 행위수단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와 구별된다. 여기에서 위계라 함은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이나 유혹 등 널리 사람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술책을 말한다. 위계의 상대방에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외에 제3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제3자를 기망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당해 죄를 구성한다.

—— <보 기> ——

- ㄱ.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국가시험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타인을 대리하여 응시한 경우
- 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이 조합관련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해양경찰서 경찰공무원에게 전화로 폭언하며 협박한 경우
- ㄷ. 출입국관리공무원이 甲회사의 사업장 관리자를 기망하여 그 사업장에 진입한 후,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실시한 경우
- ㄹ. 타인의 소변을 자신의 소변인 것으로 속여 수사기관에 건네주어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오게 한 경우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ㄷ, ㄹ

2011 민경채 (인) 19번

문 1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된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라 한다)는 4대 중대범죄인 대량학살, 인도주의(人道主義)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묻고자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하 ‘로마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2002년 7월 1일 설립되었다. 로마규정에 의하면 ICC는 위의 4대 중대범죄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ICC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범죄가 발생한 국가가 범죄발생 당시 ICC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던 국가이거나, 범죄가해자의 현재 국적국이 ICC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국가이어야 한다.

— <보 기> —

- ㄱ. ICC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은 A국 정부는 자국 국민 甲이 ICC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던 B국에서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망쳐 오자 그를 체포했지만, 범죄인 인도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甲의 인도를 요구하는 B국의 요청을 거부했다.
- ㄴ. ICC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C국의 국민인 乙은 ICC 재판관할권을 현재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는 D국에 주둔 중인 E국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위 전쟁범죄 발생 당시 E국은 ICC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 ㄷ. ICC 재판관할권을 인정해오던 F국은 최근 자국에서 발생한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민병대 지도자 丙을 국제사회의 압력에 밀려 체포했지만,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丙에 대한 기소와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 ㄹ. 현재까지 ICC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G국의 대통령 丁은 자국에서 소수민족을 대량학살하였다. 그 후 丁이 학살당한 소수민족의 모국인 H국을 방문하던 중 ICC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H국 정부는 丁을 체포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ㄹ
- ⑤ ㄷ, ㄹ

2012 민경채 (인) 1번

문 1. 甲, 乙, 丙, 丁은 A국의 건강보험 가입자이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A국의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건강보험의 급여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눌 수 있다. 현물급여는 지정된 요양기관(병·의원)을 통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이 있다. 요양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지정된 요양기관의 진찰,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재활, 입원, 간호 등을 말한다. 또한 공단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2년마다 1회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현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요양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와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공단이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요양을 제공받은 자는 요양기관이 발행한 요양비용명세서나 요양내역을 기재한 영수증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본인부담액보상금도 현금급여에 해당한다. 이는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수준별로 하위 50%는 연간 200만 원, 중위 30%는 연간 300만 원, 상위 20%는 연간 400만 원의 진료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 <보 기> —
- ㄱ. 甲의 피부양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공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으로부터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ㄴ. 乙이 갑작스러운 진통으로 인해 자기 집에서 출산한 경우, 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 ㄷ. 丙이 혼자 섬으로 낚시를 갔다가 다리를 다쳐 낚시터에서 그 마을 주민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경우, 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 ㄹ. 상위 10% 수준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丁이 진료비로 연간 4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진료비의 일부를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2012 민경채 (인) 11번

문 11. A국은 B국을 WTO협정 위반을 이유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였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상대 회원국의 조치가 WTO협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회원국은 먼저 상대 회원국과 ‘외교적 교섭’을 하고, 그래도 해결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한다. WTO 회원국 간의 분쟁은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처리되는데, 분쟁해결절차는 크게 ‘협의’, ‘패널’, ‘상소’로 이루어진다. WTO에 제소한 이후에도 양국은 우호적인 해결을 위하여 비공개로 60일 간의 협의를 가진다. 그 협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WTO에 제소한 국가가 패널설치를 요구하면 분쟁해결기구는 이를 설치한다.

분쟁해결기구는 충분한 자질을 갖춘 정부인사 또는 비정부 인사를 패널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분쟁당사국 국민은 분쟁당사국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패널위원이 될 수 없다. 패널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3인으로 구성된다. 패널은 분쟁사실, 관련 규정 적용가능성과 분쟁해결에 대한 제안을 수록한 패널보고서를 분쟁해결기구에 제출하고, 분쟁당사국이 분쟁해결기구에 상소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패널보고서는 회원국 전체에 회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된다.

상소기구는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와 패널이 내린 법률해석만을 대상으로 심의한다. 상소기구보고서는 분쟁당사국의 참여 없이 작성되는데, 패널에서의 법률적 조사결과나 결론을 확정,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다.

- ① 협의는 A국, B국 및 제3자가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 ② 패널위원은 원칙적으로 A국과 B국의 국민을 포함한 3인이다.
- ③ 패널보고서와 상소기구보고서는 분쟁당사국과 합의하여 작성된다.
- ④ A국은 협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해결기구에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B국이 패널보고서를 회람한 후 60일 이내에 상소의사를 통보하더라도 분쟁해결기구는 패널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한다.

2012 민경채 (인) 16번

문 1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증인신문기일에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증인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지정된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인이 질병·관혼상제·교통기관의 두절·천재지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그 증인에 대해서는 아래의 일정한 제재가 뒤따른다.

첫째,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법원은 과태료결정을 한 이후 증인의 증언이나 이의 등에 따라 그 결정 자체를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감할 수 있다.

둘째, 증인이 과태료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감치결정이 있으면, 법원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이 증인을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留置)함으로써 이를 집행한다.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여야 한다.

셋째,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구인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 증인을 구인하면 법원에 그를 인치(引致)하며, 인치한 때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인치한 증인을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데, 그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 감치(監置) :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증인을 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것
- 유치(留置) : 사람이나 물건을 어떤 사람이나 기관의 지배 하에 두는 것
- 구인(拘引) : 사람을 강제로 잡아 끌고 가는 것
- 인치(引致) : 사람을 강제로 끌어 가거나 끌어 오는 것
- ① 증인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
 - ② 과태료결정을 받은 증인 乙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한 경우, 법원은 과태료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증인 丙을 구인한 경우, 법원은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하더라도 인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그를 석방하여야 한다.
 - ④ 7일의 감치결정을 받고 교도소에 유치 중인 증인 丁이 그 유치 후 3일이 지난 때에 증언을 했다면, 법원은 그를 석방하여야 한다.
 - ⑤ 감치결정을 받은 증인 戊에 대하여, 법원공무원은 그를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없다.

2012 민경채 (인) 21번

문 21. A회사의 월차 및 월차수당에 관한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어느 월(月)에 12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며, 이를 ‘월차’라 한다. 월차는 발생 다음 월부터 같은 해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연도의 월차는 그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다.

○ 해당 연도 마지막 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월차는 그 해 마지막 월의 급여 지급일에 월차 1일당 1일분의 급여로 지급하는데, 이를 ‘월차수당’이라 한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월차는 퇴직일에 월급여와 함께 월차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매년 12월 또는 퇴직한 월의 근무로 인해 발생한 월차는 유급휴일로 사용할 수 없고, 월차수당으로만 지급한다.

※ ‘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월급여’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 ① 甲이 7월 20일에 퇴직한다면 7월 말일에 월급여와 월차수당을 함께 지급받는다.
- ② 乙이 6월 9일에 퇴직한다면 6월의 근무로 발생한 6월분의 월차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 ③ 丙이 3월 12일 입사하여 같은 해 7월 20일에 퇴직할 때까지 결근 없이 근무하였다면 최대 4일의 월차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1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결근 없이 근무한 근로자 丁은 최대 11일의 월차를 사용할 수 있다.
- ⑤ 9월 20일에 입사하여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매월 발생된 월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결근 없이 근무한 戊는 최대 3일분의 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3 민경채 (인) 4번

문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첨단산업·지적소유권·건축공사·국제금융·파생상품 등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민사소송사건에서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증거조사·화해 등 소송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으로, 법원이 당해 사건의 관계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재판절차에 참여시키고 그로부터 전문적 지식에 관해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전문심리위원이 재판에 참여하면 당사자의 허위 진술을 방지할 수 있으며, 그의 전문지식을 통해 사안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할 때 소요되는 값비싼 감정료를 절감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한다. 전문심리위원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재판절차에 참여한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은 증인이나 감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설명이나 의견은 증거자료가 아니다. 한편 전문심리위원이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한 전문심리위원은 재판부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판결 내용을 정하기 위한 판결의 합의나 판결문 작성에는 참여할 수 없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전문심리위원의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로 그 지정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한편 전문심리위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심리위원이 당사자의 배우자가 되거나 친족이 된 경우 또는 그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그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그는 당연히 이후의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 ① 소송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문심리위원은 당사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 ② 전문심리위원은 판결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진행되는 판결의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전문심리위원이 변론에서 행한 설명 또는 의견은 증거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은 그의 설명 또는 의견에 의거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 ④ 소송당사자가 합의하여 전문심리위원 지정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일지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지정결정을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
- ⑤ 전문심리위원이 당해 사건에서 증언을 하였다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지정결정 취소가 없더라도 그는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이후의 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2013 민경채 (인) 12번

문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Smart Entry Service)’는 대한민국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의 명칭으로, 사전에 여권정보와 바이오정보(지문, 안면)를 등록한 후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게이트에서 이를 활용하여 출입국심사를 진행하는 첨단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 이용자는 출입국심사관의 대면심사를 대신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해 약 12초 이내에 출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다.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 및 국내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은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단, 복수국적자인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여권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 미국인의 경우 한·미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상호이용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이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가입 희망자는 자동판독이 가능한 전자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바이오정보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문정보 취득 및 얼굴사진 촬영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지문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은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가입을 위한 수수료가 면제되고,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상호 이용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에 가입하려는 미국인은 1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가입 후,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이용 중에 여권 또는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센터를 방문하여 변경 사항을 수정하여야 하며, 심사대에서 지문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센터를 방문하여 지문을 재등록 하여야 한다.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은 출입국시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게이트 또는 일반심사대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게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심사인 날인이 생략된다.

- ① 복수국적자인 대한민국 국민은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다.
- ② 외국인의 경우 국내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외에는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가입이 불가능하다.
- ③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에 가입한 자는 출입국시 항상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게이트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④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상호이용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에 가입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100달러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 ⑤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가입 후 여권을 재발급 받아 여권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록센터를 방문하여 여권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2016 민경채 (5) 16번

문 1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한다. 계약(예: 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양수인(예: 매수인,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반면에 상속·공용 징수(강제수용)·판결·경매나 그 밖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한편 계약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양도인(예: 매도인, 증여자)이 양수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 ① 甲이 자신의 부동산 X를 乙에게 1억 원에 팔기로 한 경우, 乙이 甲에게 1억 원을 지급할 때 부동산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甲의 부동산 X를 경매를 통해 취득한 乙이 그 부동산을 丙에게 증여하고 인도하면, 丙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부동산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 甲이 점유하고 있는 자신의 동산 X를 乙에게 증여하기로 한 경우, 甲이 乙에게 동산 X를 인도하지 않더라도 乙은 동산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甲의 상속인으로 乙과 丙이 있는 경우, 乙과 丙이 상속으로 甲의 부동산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乙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 ⑤ 甲과의 부동산 X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乙 명의로 부동산 X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017 민경채 (나) 11번

문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주민투표제도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직접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2004년 1월 주민투표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주민투표법에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발의제도는 1998년 8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주민발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주민발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려면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 외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로, 2006년 5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주민소환 실시의 청구를 위해서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장을 소환하고자 할 때는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이상, 지방의회 지역구의원에게는 100분의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 <보 기> —

- ㄱ.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만이 가지고 있다.
- ㄴ. 인구 70만 명인 甲시에서 주민발의 청구를 위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서명을 받아야 한다.
- ㄷ. 주민발의제도에 근거할 때 주민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에 대해 직접 청구할 수 없다.
- ㄹ. 기초자치단체인 乙시의 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실시의 청구를 위해서는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의 100분의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2018 민경채 (가) 11번

문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시행 중이다.

먼저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던 ‘모성보호시간’을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하여 임신부터 출산시까지 근무시간을 1일에 2시간씩 단축할 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자녀로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1주일에 2일에 한해 1일에 1시간씩 단축근무를 허용하던 ‘육아시간’을,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1주일에 2일에 한해 1일에 2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부 공동육아 실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기존 5일)로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와 공식적인 상담에만 허용되었던 ‘자녀돌봄휴가’(공무원 1인당 연간 최대 2일)를 자녀의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에도 쓸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1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변경된 현행 제도에서는 변경 전에 비해 ‘육아시간’의 적용 대상 및 시간이 확대되었다.
- ② 변경된 현행 제도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 3명을 둔 공무원은 연간 3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변경된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임신 5개월인 여성 공무원은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위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 ④ 변경 전 제도에서 공무원은 초등학교 1학년인 자녀의 병원진료를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 ⑤ 변경된 현행 제도에 따르면, 만 2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육아시간’을 사용하여 근무시간을 1주일에 총 4시간 단축할 수 있다.

2012 5급 (인) 22번

문 22.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연구재단은 지난 2000년부터 인문사회연구역량의 세부사업으로 12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학제간 융합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제간 융합연구사업은 연구와 교육을 연계한 융합연구의 전문인력 양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인문사회분야와 이공계분야 간의 학제간 융합연구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지원 신청 자격은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6인 이상의 연구팀이나 사업단(센터)에 부여되며, 그 연구팀이나 사업단에는 동일 연구분야의 전공자 비율이 70%를 넘지 않아야 하는 동시에 2개 이상 연구분야의 전공자가 참여하는 것이 기본요건이다.

이와 같은 학제간 융합연구 지원사업은 씨앗형 사업과 새싹형 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연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씨앗형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씨앗형 사업과 새싹형 사업은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창의성을 장려한다는 목적으로 지원자들이 자유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상향식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새싹형 사업은 국가차원의 전략적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정과제 공모식의 하향식 연구지원방식도 포함하고 있다.

연구지원기간은 씨앗형 사업의 경우 1년으로 완료되며, 사업완료 후 평가를 거쳐 새싹형 사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싹형 사업은 최대 5년(기본 3년 + 추가 2년)간 연구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2009년까지는 기본 3년의 연구수행결과에 대한 1단계 평가를 통해 강제탈락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2010년부터는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새싹형 사업의 연구지원 방식은 씨앗형 사업완료 후 평가를 거쳐 새싹형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과 씨앗형 사업을 거치지 않고 새싹형 사업을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학제간 융합연구사업의 선정평가는 씨앗형 사업과 새싹형 사업 모두 1단계 요건심사, 2단계 전공심사, 3단계 종합심사의 동일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보 기> —

- ㄱ. 철학 전공자 2명과 물리학 전공자 4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학제간 융합연구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 ㄴ. 국가차원의 전략적 과제로서 생명공학의 사회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지정과제 연구는 씨앗형 사업에 해당된다.
- ㄷ. 2008년에 실시된 1단계 평가에서 탈락한 새싹형 사업 과제의 연구지원기간은 최소 5년이다.
- ㄹ. 2011년에 실시된 연차평가에서 탈락한 새싹형 사업 과제의 연구지원기간은 1년일 수 있다.
- ㅁ. 씨앗형 사업과 새싹형 사업의 선정평가는 모두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ㄱ, ㄹ, ㅁ
- ⑤ ㄴ, ㄷ, ㅁ

2013 외교 (인) 3번

문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디자인은 쉽게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디자인을 창작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디자인보호법을 두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이란 물품이나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아름답다든가 멋있다는 등의 느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없다.

한편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특허권적 방법과 저작권적 방법이 있다. 특허권적 보호방법이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디자인만을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디자인을 독자적으로 창작한 사람이라도 그 디자인에 대해서 타인이 이미 등록을 하였다면, 그는 특허청에 등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을 사용하더라도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와 달리 저작권적 보호방법이란 등록과 같은 방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타인이 이미 창작한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을 고안한 사람이라도 타인의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은 경우라면, 자신이 고안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은 특허권적 보호방법을 취하며, 일본·미국 등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독점·배타적인 디자인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디자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 <보 기> —

- ㄱ. A가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을 일본에서 독점·배타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본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 ㄴ. B가 아름다운 노래를 창작한 경우, 그 노래는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 ㄷ. C가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D의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을 독자적으로 창작하였더라도, 이를 미국에서 사용하면 D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 ㄹ. 독일인 E가 고안한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이미 등록되어 있더라도, E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13 외교 (인) 24번

문 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동산질권(動産質權)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유치(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A가 500만 원을 B에게 빌려주고 그 담보로 B소유의 보석을 받으면, B가 500만 원을 변제할 때까지 A는 그 보석을 보유한 채 되돌려 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 여기서 A처럼 질권을 취득한 채권자를 질권자라 하고, B처럼 채권담보로 동산을 제공한 채무자 또는 제3자를 질권설정자라 한다. 동산질권은 채무를 전부 변제한 때, 질권자가 담보 목적물을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한 때 소멸한다.

한편 법인이나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이 채권자에게 채권의 담보로 동산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인 등이 제공한 동산에 대해 담보목적으로 등기된 채권자의 권리를 동산담보권(動産擔保權)이라 한다. 동산담보권의 취득이나 소멸은 동산질권과 달리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따른다. 그밖에 동산담보권자는 동산질권자와 마찬가지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동산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① 甲이 乙소유의 동산에 대해 동산질권을 취득한 후, 그 동산을 乙에게 반환하면 甲의 동산질권은 소멸한다.
- ② 경찰관 乙이 채권자 甲에게 자신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더라도 甲은 동산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③ 상호등기를 한 乙이 채권자 甲에게 자신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甲이 그 동산을 담보등기부에 등기하면 甲은 동산담보권을 취득한다.
- ④ 乙법인이 제공한 동산을 담보등기부에 등기하여 甲이 동산담보권을 취득한 후, 丙이 그 동산에 대해 동산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甲의 동산담보권이 丙의 동산담보권보다 우선한다.
- ⑤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법인의 동산을 담보등기부에 등기하여 동산담보권을 취득한 후, 乙이 甲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변제액에 비례하여 甲은 동산의 일부에 대해 동산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5 5급 (인) 24번

문 24. 다음 글을 뒷받침할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확정할 때, 과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편차, 각 분야의 개발불균형 등을 근거로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전국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평균인구 기준 상하 50%로 제시한 바 있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 기준은 가장 큰 선거구와 가장 작은 선거구가 인구비례 2:1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입장을 변경하였다.

- (1) 종래의 인구편차의 허용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하여 세 배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투표가치의 지나친 불평등이다.
- (2)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특히 현재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있으므로,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헌법상 원칙인 투표가치의 평등을 현저히 완화할 필요성이 예전에 비해 크지 않다.
- (3)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완화하면 할수록 과대대표되는 지역과 과소대표되는 지역이 생길 가능성 또한 높아 지는데, 이는 지역정당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농어촌 지역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은 농어촌 지역의 합리적인 변화를 저해할 수 있으며,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외국의 판례와 입법추세임을 고려할 때, 우리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인구’는 ‘선거권자’를 의미함

— <보 기> —

- ㄱ.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 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확정할 때, 인구가 ‘최대인 선거구의 인구’를 ‘최소인 선거구의 인구’로 나눈 숫자가 2 이상이 되지 않는 것이 외국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 ㄷ. 지역정당구조의 완화와 농어촌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확정은 평균인구 기준 상하 66.6%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ㄹ. 선거구별 인구의 차이가 커질수록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투표가치는 인구가 적은 선거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투표가치보다 줄어든다.

- ① ㄱ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ㄱ, ㄴ, ㄷ

2017 5급 (가) 22번

문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甲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다. 甲국 상원은 주(州) 당 2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총 60명으로 구성되며, 甲국 부통령이 의장이 된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총 정원의 1/3씩 의원을 새로 선출한다.

甲국 상원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대해 각종 동의와 승인의 권한을 갖는다. 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세금과 경제정책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반면, 상원은 각 주를 대표한다. 군대의 파병이나 관료의 임명에 대한 동의, 외국과의 조약에 대한 승인 등의 권한은 모두 상원에만 있다. 또한 상원은 하원에 대한 견제 역할을 담당하여 하원이 만든 법안을 수정하고 다시 하원에 되돌려 보내는 권한을 가지며, 급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마련한 법안을 먼저 제출하여 처리하기도 한다.

甲국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선거 때마다 전원을 새로 선출한다. 하원의원의 수는 총 400명으로서 인구비례에 따라 각 주에 배분된다. 예를 들어 A주, B주, C주의 선출 정원이 각 1명으로 가장 적고, D주의 정원이 53명으로 가장 많다.

하원의원 선거는 2년마다 상원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되며, 4년마다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해에 치러지는 경우가 있다. 대통령 선거와 일치하지 않는 해에 실시되는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 선거를 통칭하여 ‘중간선거’라고 부르는데, 이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하여 유권자의 지지도를 평가하는 성격을 갖는다.

- ① 甲국 의회에 속한 D주 의원의 정원 총합은 55명이다.
- ② 甲국 의회의 상원은 스스로 법안을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③ 甲국에는 상원의원의 정원이 하원의원의 정원보다 많은 주가 있다.
- ④ 甲국의 대통령 선거가 2016년에 실시되었다면, 그 이후 가장 빠른 ‘중간선거’는 2018년에 실시된다.
- ⑤ 같은 해에 실시되는 선거에 의해 甲국 상원과 하원의 모든 의석이 새로 선출된 의원으로 교체되는 경우도 있다.

2018 5급 (나) 21번

문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상훈법은 훈장과 포장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훈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훈장의 종류는 무궁화대훈장·건국훈장·국민훈장·무공훈장·근정훈장·보국훈장·수교훈장·산업훈장·새마을훈장·문화훈장·체육훈장·과학기술훈장 등 12종이 있다. 무궁화대훈장(무등급)을 제외하고는 각 훈장은 모두 5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등급에 따라 다른 명칭이 붙여져 있다. 포장은 건국포장·국민포장·무공포장·근정포장·보국포장·예비군포장·수교포장·산업포장·새마을포장·문화포장·체육포장·과학기술포장 등 12종이 있고, 훈장과는 달리 등급이 없다.

훈장의 수여 여부는 서훈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지위 및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며,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 서훈의 추천은 원·부·처·청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행하되, 청의 장은 소속 장관을 거쳐야 한다. 이상의 추천권자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하고, 서훈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훈장은 대통령이 직접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제3자를 통해 수여할 수 있고, 훈장과 부상(금품)을 함께 줄 수 있다. 훈장은 본인에 한하여 종신 패용할 수 있고, 사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패용하지는 못한다. 훈장을 받은 자가 훈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한 때에는 유상으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훈장을 받은 자의 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훈장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고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과 이에 관련하여 수여한 금품을 환수한다.

- ① 훈장의 명칭은 60개로 구분된다.
- ② 훈장과 포장은 등급별로 구분되어 있다.
- ③ 훈장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훈장은 패용될 수 없다.
- ④ 서훈대상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 ⑤ 훈장을 받은 자의 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되어 서훈이 취소된 경우, 훈장과 함께 수여한 금품은 그의 소유로 남는다.

2020 5급 (나) 6번

문 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은 정무직 공무원을 ①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②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③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에는 대통령, 감사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이 있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을 ①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②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③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무직 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가 있으며 병역사항 신고의무도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인사에 관한 사항은 관보에 게재된다.

행정기관 소속 정무직 공무원으로는 정부부처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특별시의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 등이 있다. 이들은 정책결정자 역할과 함께 최고관리자 역할도 수행한다. 여기에는 일과 인력을 조직화하고 소속 직원의 동기를 부여하며 업무 수행을 통제하는 역할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들은 정책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의 법적 책임도 진다. 행정기관 소속 정무직 공무원은 좁은 의미의 공무원을 지칭하는 정부관료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 ① 감사원장은 국가공무원 총정원에 포함된다.
- ② 조례로 정무직 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③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의 임명에는 모두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다.
- ④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은 재산등록의무가 있으나 병역사항 신고의무는 없다.
- ⑤ 정부부처의 차관은 정부관료집단의 일원이지만 정책집행의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

2021 5급 (가) 4번

문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A협회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다음해 협회장을 선출한다. 협회장의 선출은 ①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이루어지고, ②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다.

‘찬반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투표일 현재까지 A협회의 정회원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A협회의 정회원은 A협회의 준회원으로 만 1년 이상을 활동한 후 정회원 가입 신청을 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기준에 따라 정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그 날부터 정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정회원은 정회원 자격을 획득한 다음해부터 매해 1월 30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그 자격이 유지된다. 기한 내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은 그 자격이 유보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정회원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해 연회비 납부일까지 연회비의 3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2년 연속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A협회의 회원 자격이 영구히 박탈된다.

한편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정회원 자격을 얻은 후 만 1년을 경과한 정회원으로 한정한다. 연회비 미납부로 정회원 자격이 유보된 사람도 정회원 자격을 회복한 후 만 1년을 경과하여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 ① 2019년 10월 A협회 정회원 자격을 얻은 甲은 ‘2020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 ② 2018년 10월 A협회 정회원 자격을 얻은 乙은 2019년 연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2019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찬반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 ③ 2017년 10월 A협회 정회원 자격을 얻은 丙이 연회비 미납부로 자격이 유보되었다가 2019년에 정회원 자격을 회복하였더라도 ‘2020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 ④ 2017년 10월 A협회 준회원 활동을 시작한 丁이 최소 요구 연한 경과 직후에 정회원 자격을 획득하였다면 ‘2019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찬반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 ⑤ 2016년 10월 처음으로 A협회 정회원 자격을 얻은 戊가 2017년부터 연회비를 계속 납부하지 않았다면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 한 번도 참여할 수 없었다.

2021 5급 (가) 24번

문 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상속에는 혈족상속과 배우자상속이 있다. 혈족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과의 관계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2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3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4순위)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같은 순위의 혈족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법정상속분은 균분(均分)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언제나 상속인이 된다. 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만 있고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한다.

한편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유증)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를 무제한 허용한다면 상속재산의 전부가 타인에게 넘어가 상속인의 생활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법률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다. 유류분이란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비율을 의미한다.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자기가 침해당한 유류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반드시 소에 의한 방법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피상속인의 사망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 ①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재산을 모두 사회단체에 기부한 경우, 그의 자녀는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없다.
- ② 피상속인의 자녀에게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의 유류분이 인정되며, 유류분 산정액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그것과 같다.
- ③ 피상속인의 부모는 피상속인의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 ④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소에 의한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 ⑤ 피상속인에게 3촌인 방계혈족만 있는 경우, 그 방계혈족은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유류분 권리자는 될 수 없다.

2015 민경채 (인) 7번

문 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하 ‘형벌조항’이라고 함)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할 때, 효력이 상실된 형벌조항에 따라 유죄의 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위헌인 형벌조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해당 조항의 제정 시점까지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기존에 어느 형벌조항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하였지만 그 후 시대 상황이나 국민의 법감정 등 사정변경으로 위헌결정을 한 경우, 해당 조항의 제정 시점까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조항에 대해서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결정이 선고된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소급효를 제한한다. 이러한 소급효 제한의 취지로 인해 동일한 형벌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합헌결정을 한 때에는 최후에 합헌결정을 선고한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그 형벌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형벌조항에 근거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죄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재심청구가 인정된다. 또한 그 유죄판결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던 사람은 구금일수에 따른 형사보상금 청구가 인정되며,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를 납부한 사람도 형사보상금 청구가 인정된다.

※ 소급효 : 법률이나 판결 등의 효력이 과거 일정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는 것

————— <상 황> —————

1953. 9. 18.에 제정된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1990. 9. 10., 1993. 3. 31., 2001. 10. 25., 2008. 10. 30.에 합헌결정을 하였지만, 2015. 2. 26.에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던 甲, 乙, 丙은 재심청구와 형사보상금 청구를 하였다.

甲 : 2007. 10. 1. 간통죄로 1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어 1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다.

乙 : 2010. 6. 1. 간통죄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바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었다.

丙 : 2013. 8. 1. 간통죄로 1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어 1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다.

※ 집행유예 :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내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여 실형을 과하지 않는 제도

- ① 甲의 재심청구는 인정되나 형사보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② 乙의 재심청구와 형사보상금 청구는 모두 인정된다.
- ③ 乙의 재심청구는 인정되나 형사보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④ 丙의 재심청구와 형사보상금 청구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 ⑤ 丙의 재심청구는 인정되나 형사보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2015 민경채 (인) 14번

문 1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에게 가장 적절한 유연 근무제는?

유연근무제는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꾀하고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간제근무,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로 나눌 수 있다.

시간제근무는 다른 유연근무제와 달리 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다.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수 및 연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탄력근무제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시차출퇴근형’은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07:00~10:00에 30분 단위로 출근시간을 스스로 조정하여 8시간 근무 후 퇴근한다. ‘근무시간 선택형’은 주 5일 근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1일 8시간을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무가능 시간대는 06:00~24:00이며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이다. ‘집약근무형’은 1일 8시간 근무체제에 구애받지 않으며, 주 3.5~4일만을 근무한다. 근무가능 시간대는 06:00~24:00이며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이다. 이 경우 정액급식비 등 출퇴근을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은 출근하는 일수만큼만 지급한다. ‘재량근무형’은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의 근무를 인정하는 형태이며 기관과 개인이 협의하여 수시로 신청한다.

원격근무제에는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근무형’이 있는데, 실시 1주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재택근무형은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이며, 초과근무는 불인정된다. 스마트워크근무형은 자택 인근의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초과근무를 위해서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 <상 황> —

A부서의 공무원 甲은 유연근무제를 신청하고자 한다. 甲은 원격근무보다는 A부서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하는 것을 원하며,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은 지킬 예정이다. 이들은 아침 7시에 출근하여 12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사흘은 5~6시간의 근무를 하고 일찍 퇴근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 ① 근무시간선택형
 ② 시차출퇴근형
 ③ 시간제근무
 ④ 집약근무형
 ⑤ 재택근무형

2016 민경채 (5) 7번

문 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K국의 현행법상 상속인으로는 혈족상속인과 배우자상속인이 있다. 제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사산되어 출생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현행 상속분 규정은 상속재산을 배우자에게 직계존속·직계비속보다 50%를 더 주도록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X)와 2명의 자녀(Y, Z)라면, '1.5(X) : 1(Y) : 1(Z)'의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K국에서는 부부의 공동재산 기여분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속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현행 규정대로 배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재산의 50%를 그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다시 현행법상의 비율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상 황>

甲은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甲의 유족으로는 어머니 A, 배우자 B, 아들 C, 딸 D가 있고, B는 현재 태아 E를 임신 중이다. 甲은 9억 원의 상속재산을 남겼다.

- ① 현행법에 의하면, E가 출생한 경우 B는 30% 이하의 상속분을 갖게 된다.
- ② 개정안에 의하면, E가 출생한 경우 B는 6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
- ③ 현행법에 의하면, E가 사산된 경우 B는 3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
- ④ 개정안에 의하면, E가 사산된 경우 B는 4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
- ⑤ 개정안에 의하면, E의 사산여부에 관계없이 B가 상속받게 되는 금액은 현행법에 의할 때보다 50% 증가한다.

2017 민경채 (나) 6번

문 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진술보조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데, 이를 ‘진술보조인제도’라 한다. 이 제도는 말이 어눌하거나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당사자가 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와 의사소통이 잘되는 사람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사자를 보조하게 하는 것이다.

진술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가족, 그 밖에 동거인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충분한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당사자는 1심, 2심, 3심의 각 법원마다 서면으로 진술보조인에 대한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허가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진술보조인은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과 동석하여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법원과 상대방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이때 당사자 본인은 진술보조인의 중개 또는 설명을 즉시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진술보조인에 의한 중개 또는 설명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술보조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 질문은 법원만이 한다. 진술보조인은 변론에서 당사자의 진술을 조력하는 사람일 뿐이다. 따라서 진술보조인은 당사자를 대신해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상소의 제기와 같이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도 할 수 없다.

— <상 황> —

甲은 乙을 피고로 하여 A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乙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재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에 1심 법원은 乙로부터 진술보조인에 대한 허가신청을 받아 乙의 배우자 丙을 진술보조인으로 허가하였다. 1심 변론기일에 乙과 丙은 함께 출석하였다.

- ① 변론기일에 丙이 한 설명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甲은 재판에서 직접 丙에게 질문할 수 있다.
- ② 변론기일에 丙이 한 설명은 乙을 위한 것이므로, 乙은 즉시라 할지라도 그 설명을 취소할 수 없다.
- ③ 1심 법원은 丙을 진술보조인으로 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 ④ 1심 법원이 乙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 판결에 대해 丙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⑤ 2심이 진행되는 경우, 2심 법원에 진술보조인에 대한 허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丙의 진술보조인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2019 민경채 (나) 12번

문 12.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매도인이 하자를 알았는지 여부나 그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다. 매매목적물의 하자는 통상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물건이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성질·견고성·성분 등을 갖추지 못해서 계약의 적합성을 갖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가령 진품인 줄 알고 매수한 그림이 위작인 경우가 그렇다. 매수인은 이러한 계약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을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한편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착오는 계약을 맺을 때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알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사실로 잘못 생각하듯이, 계약당사자(의사표시자)의 인식과 그 실제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를 가리킨다. 가령 위작을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경우가 그렇다. 이러한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착오자(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사람)가 착오 상태에서 벗어난 날(예: 진품이 위작임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착오로 인한 취소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다른 제도이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상 황> —

2018년 3월 10일 매수인 甲은 매도인 乙 소유의 ‘나루터 그림’을 과실 없이 진품으로 믿고 1,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 그림을 넘겨받았다. 그 후 2018년 6월 20일 甲은 나루터그림이 위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① 2018년 6월 20일 乙은 하자를 이유로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2019년 6월 20일 甲은 乙에게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2019년 6월 20일 甲은 착오를 이유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④ 乙이 매매계약 당시 위작이라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2019년 6월 20일 甲은 하자를 이유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乙이 위작임을 알았더라도 2019년 6월 20일 甲은 하자를 이유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지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2019 민경채 (나) 25번

문 2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소송절차의 ‘정지’란 소송이 개시된 뒤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소송절차가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에는 ‘중단’과 ‘중지’가 있다.

소송절차의 중단은 소송진행 중 당사자에게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운 소송수행자가 나타나 소송에 관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 진행이 정지되는 것이다. 예컨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절차진행이 정지되며, 이후 상속인의 수계신청 또는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해 중단이 해소되고 절차는 다시 진행된다. 다만 사망한 당사자에게 이미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을 때는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사망도 중단사유가 아니다. 당사자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절차의 중지는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법률상 당연히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절차가 정지되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소송수행자로 교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단과 다르다. 소송절차의 중지에는 당연중지와 재판중지가 있다. 당연중지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법원의 재판 없이 당연히 절차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원의 직무수행불능 상태가 소멸함과 동시에 중지도 해소되고 절차는 진행된다. 재판중지는 법원이 직무수행을 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컨대 전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교통이 두절되어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의해 절차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는 법원의 취소재판에 의하여 중지가 해소되고 절차는 진행된다.

※ 수계신청: 법원에 대해 중단된 절차의 속행을 구하는 신청

—<상 황>—

원고 甲과 피고 乙 사이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A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甲은 변호사 丙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지만, 乙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보 기>—

ㄱ. 소송진행 중 甲이 사망하였다면, 절차진행은 중단되며 甲의 상속인의 수계신청에 의해 중단이 해소되고 절차가 진행된다.

ㄴ. 소송진행 중 丙이 사망하였다면, 절차진행은 중단되며 甲이 새로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중단은 해소되고 절차가 진행된다.

ㄷ. 소송진행 중 A법원의 건물이 화재로 전소(全燒)되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면, 절차진행은 중단되며 이후 A법원의 속행명령이 있으면 절차가 진행된다.

ㄹ. 소송진행 중 乙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만 발생한 지진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乙이 A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A법원의 재판에 의해 절차진행이 중지되며 이후 A법원의 취소재판에 의해 중지는 해소되고 절차가 진행된다.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ㄷ, ㄹ

2020 7급 모의평가 3번

문 3.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민사소송의 1심을 담당하는 법원으로는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이하 “그 지원”이라 한다)이 있다.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하는 관할구역은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한다. 다만 금전지급청구소송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도 재판할 수 있다.

한편,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재판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관할구역 안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시·군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하는 사건 중에서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전담하여 재판한다. 즉, 이러한 소송의 경우 원고 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법원이 있으면 지방법원과 그 지원은 재판할 수 없고 시·군법원만이 재판한다.

※ 소송물가액: 원고가 승소하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화폐 단위로 평가한 것

— <상 황> —

○ 甲은 乙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물가액 3,000만 원의 금전지급청구의 소(이하 “A청구”라 한다)와 乙에게서 구입한 소송물가액 1억 원의 고려청자 인도 청구의 소(이하 “B청구”라 한다)를 각각 1심 법원에 제기하려고 한다.

○ 甲의 주소지는 김포시이고 乙의 주소지는 양산시이다. 이들 주소지와 관련된 법원명과 그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법원명	관할구역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천시, 김포시
김포시법원	김포시
울산지방법원	울산광역시, 양산시
양산시법원	양산시

- 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A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 ② 인천지방법원은 A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 ③ 양산시법원은 B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 ④ 김포시법원은 B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 ⑤ 울산지방법원은 B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2020 7급 모의평가 4번

문 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발명에 대해 특허권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발명은 지금까지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 즉 신규성이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발명에 대해서 독점권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이때 발명이 신규인지 여부는 특허청에의 특허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신규의 발명이라도 그에 대한 특허출원 전에 발명 내용이 널리 알려진 경우라든지,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에는 특허출원 시점에는 신규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나 발명자가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신규성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하고 그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 이를 ‘신규성의 간주’라고 하는데, 신규성을 상실시킨 행위를 한 발명자가 특허출원한 경우에만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 여러 명의 발명자가 독자적인 연구를 하던 중 우연히 동일한 발명을 완성하였다면, 발명의 완성 시기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특허청에 특허출원한 발명자에게만 특허권이 부여된다. 이처럼 가장 먼저 출원한 발명자에게만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을 ‘선출원주의’라고 한다. 따라서 특허청에 선출원된 어떤 발명이 신규성 상실로 특허권이 부여되지 못한 경우, 동일한 발명에 대한 후출원은 선출원주의로 인해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 <상 황> —

- 발명자 甲, 乙, 丙은 각각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동일한 A발명을 완성하였다.
- 甲은 2020. 3. 1. A발명을 완성하였지만 그 발명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다가 2020. 9. 2. 특허출원을 하였다.
- 乙은 2020. 4. 1. A발명을 완성하자 2020. 6. 1. 간행되어 반포된 학술지에 그 발명 내용을 논문으로 게재한 후, 2020. 8. 1. 특허출원을 하였다.
- 丙은 2020. 7. 1. A발명을 완성하자마자 바로 당일에 특허출원을 하였다.

- ① 甲이 특허권을 부여받는다.
- ② 乙이 특허권을 부여받는다.
- ③ 丙이 특허권을 부여받는다.
- ④ 甲, 乙, 丙이 모두 특허권을 부여받는다.
- ⑤ 甲, 乙, 丙 중 어느 누구도 특허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2024 7급 (사) 4번

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제사주재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사망한 사람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하 ‘제사주재자’라 한다)은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 간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누구를 제사주재자로 결정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하였다. 이 판례에 대해, 사망한 사람에게 아들, 손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 상속인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사주재자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반영해서 최근 대법원은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제사주재자가 결정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즉,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가운데 남녀를 불문하고 최근친(最近親) 중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하였다.

——— <상 황> ———

甲과 乙은 혼인하여 자녀 A(딸), B(아들), C(아들)를 두었다. B는 혼인하여 자녀 D(아들)가 있고, A와 C는 자녀가 없다. B는 2023. 5. 1. 43세로 사망하였고, 甲은 2024. 5. 1. 사망하였다. 2024. 6. 1. 현재 甲의 공동상속인인 乙(73세), A(50세), C(40세), D(20세)는 각자 자신이 甲의 제사주재자가 되겠다고 다투고 있다. 이들에게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종전 대법원 판례	최근 대법원 판례
①	A	C
②	C	A
③	C	乙
④	D	A
⑤	D	乙

2013 외교 (인) 8번

문 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소취하: 소송진행 중 원고는 자신이 제기한 소(訴)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소송에서 변론을 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소취하를 할 수 있다. 소취하를 하면 소가 제기된 때로 소급하여 소송이 소멸된다. 원고는 판결이 선고되었어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소취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1심 소송진행 중에 소취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 소송진행 중에도 소취하를 할 수 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하면 1심의 소를 제기한 때로 소급하여 소송이 소멸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이 종료될 뿐만 아니라 1심 소송결과 자체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항소의 대상이 되었던 1심 판결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 결과 소송당사자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해결되지 아니한 채 소송만 종료된다.
- 항소취하: 1심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抗訴)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자를 ‘항소인’이라고 하고 항소의 상대방 당사자를 ‘피항소인’이라고 한다. 항소인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항소취하를 할 수 있다. 피항소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항소취하를 하면 항소가 제기된 때로 소급하여 항소가 소멸되고 항소심은 종료된다. 항소취하는 항소 제기시점으로 소급하여 항소만 소멸되기 때문에, 항소의 대상이 되었던 1심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며 그 판결 내용대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해결된다.

— <상 황> —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乙이 갚지 않고 있다. 그래서 甲이 원고가 되어 乙을 피고로 하여 1억 원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甲의 주장을 인정하여 甲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乙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①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乙은 항소취하를 할 수 없다.
- ②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甲은 乙의 동의 없이 항소취하를 할 수 있다.
- ③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야 소취하를 할 수 있다.
- ④ 항소취하가 유효하면 항소심이 종료되고, 甲의 乙에 대한 1심 승소판결의 효력은 소멸된다.
- ⑤ 소취하가 항소심에서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甲과 乙 사이의 대여금에 관한 분쟁에서 甲이 승소한 것으로 분쟁이 해결된다.

2014 5급 (A) 5번

문 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국가에 게만 소송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의 본국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투자자의 권리가 구제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이하 ‘1965년 협약’)에 따라 투자유치국의 법원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중재기관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가 설립되었다. ICSID는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사이의 투자분쟁 중재절차 진행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중재절차 규칙을 두고 있다. ICSID의 소재지는 미국의 워싱턴 D.C.이다.

한편 투자유치국이 ‘1965년 협약’에 가입했다고 해서 투자자가 곧바로 그 국가를 상대로 ICSID 중재를 신청할 수는 없다.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이 ICSID 중재를 통해 투자분쟁을 해결한다고 합의를 했을 때 ICSID 중재가 개시될 수 있다. 이처럼 분쟁당사자들이 ICSID에서 중재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은 자국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들이 ICSID 중재나 법원에의 제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의한 때에는 당사자는 후자를 선택하여 자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그리고 ICSID 중재에 관해 일단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당사자들은 해당 동의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투자유치국이 자국법률을 통해 사전에 체결한 중재합의를 철회하는 것은 무효이다.

ICSID 중재판정부는 단독 또는 홀수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그 수는 당사자들이 합의한다.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수에 관해 합의하지 않으면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지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ICSID 소재지에서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중재판정부가 내린 중재판정은 당사자들에 대해서 구속력과 집행력을 가지며, 이로써 당사자들 사이의 투자분쟁은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상 황>

A국과 B국은 ‘1965년 협약’의 당사국이다. A국 국민인 甲은 B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 특정지역에 관한 30년간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그곳에 관광리조트를 건설하였다. 얼마 후 B국의 법률이 변경되어 甲이 개발한 관광리조트 부지가 B국에 의해 강제수용되었다. B국이 강제수용에 따라 甲에게 지급하려는 보상금이 시가에 미치지 못하여 甲과 B국 사이에 보상금을 둘러싼 투자분쟁이 발생하였다.

- ① 甲은 소송의 당사자로서 B국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보상금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그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 ② 甲과 B국 사이에 ICSID에서 중재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甲은 투자분쟁을 B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③ 甲과 B국 사이에 ICSID 중재합의를 할 때, 중재지에 관해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워싱턴 D.C.에서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 ④ 甲과 B국은 ICSID 중재판정부를 4인의 중재인으로 구성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 ⑤ 甲과 B국 사이에 ICSID 중재절차를 진행하던 중 B국이 ICSID 중재합의를 일방적으로 철회하면 그 중재절차는 종료되고, 이후 B국 법원이 甲의 보상금청구를 심리하게 된다.

2015 5급 (인) 4번

문 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A국 의회 의원은 10인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이하 ‘발의의원’이라 한다)은 찬성의원 명단과 함께 법률안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법률명(法律名)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만약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이면 발의의원 중 대표발의의원 1인을 정하여 그 1인의 성명만을 기재해야 한다.

의장은 법률안이 발의되었을 때 이를 의원에게 배포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법률안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인지 명백하지 않을 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관상임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7일 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가 없을 때는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

발의의원은 찬성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이 발의한 법률안을 철회할 수 있다. 단, 본회의 또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그 법률안이 의제로 된 때에는 발의의원은 본회의 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본회의에서 번안동의(翻案動議)는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법률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同意)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상정된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번안동의 : 법률안 내용을 변경하고자 안건을 상정하는 행위

————— <상 황> —————

○ A국 의회 의원 甲은 △△법률안을 의원 10인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다.

○ A국 의회의 재적의원은 200인이다.

- ① △△법률안 법률명의 부제로 의원 甲의 성명을 기재한다.
- ② △△법률안이 어느 상임위원회 소관인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 ③ 의원 甲은 △△법률안이 소관상임위원회의 의제가 되기 전이면, 단독으로 그 법률안을 철회할 수 있다.
- ④ △△법률안이 번안동의로 본회의에 상정되면 의원 60인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⑤ 소관상임위원회가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더라도, △△법률안의 찬성의원 10인의 요구만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2015 5급 (인) 6번

문 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불법 주·정차 등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관할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할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그 처분을 다투기 위하여 관할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관할행정청이 당사자의 이의제기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면, 그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을 개시한다. 과태료 재판을 담당하는 관할법원은 당사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다.

법원은 정식재판절차 또는 약식재판절차 중 어느 하나의 절차를 선택하여 과태료 재판을 진행한다. 정식재판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진술을 듣고 검사 의견을 구한 다음에 과태료 재판을 한다. 약식재판절차에 의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진술을 듣지 않고 검사 의견만을 구하여 재판을 한다.

정식절차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불복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검사는 그 재판의 결과(이하 ‘결정문’이라 한다)를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상급심 법원에 즉시항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불복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검사는 결정문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과태료 재판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정식재판절차에 의해 다시 과태료 재판을 하며, 그 재판에 대해 당사자 또는 검사는 상급심 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상 황> —

청주시에 주소를 둔 甲은 자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에 놀러갔다. 며칠 후 관할행정청(이하 ‘乙’이라 한다)은 불법 주차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통지를 甲에게 하였다.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 甲은 乙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乙은 甲의 주소지 법원인 청주지방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하였다.

- ① 甲은 乙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직접 청주지방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甲이 乙에게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은 유효하기 때문에 검사의 명령에 의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청주지방법원이 정식재판절차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한 경우, 乙이 그 재판에 불복하려면 결정문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상급심 법원에 즉시항고하여야 한다.
- ④ 청주지방법원이 甲의 진술을 듣고 검사 의견을 구한 다음 과태료 재판을 한 경우, 검사가 이 재판에 불복하려면 결정문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청주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⑤ 청주지방법원이 약식재판절차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한 경우, 甲이 그 재판에 불복하려면 결정문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청주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5 5급 (인) 26번

문 2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형사소송절차에서 화해는 형사사건의 심리 도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한 경우, 신청에 의하여 그 합의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면 민사소송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사기범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그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민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절차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형사소송절차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한다면 범죄 피해자는 신속하고 간편하게 범죄로 인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형사소송절차상 화해제도의 취지이다.

합의의 대상은 형사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해당 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민사상 다툼으로 한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그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1심 또는 2심 법원의 변론종결 전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합의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합의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외의 자(이하 '보증인'이라 한다)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이때에는 위 신청과 함께 보증인은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민사소송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피해자는 그 공판조서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공판조서 :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기일에 진행된 소송절차의 경과를 기재한 조서

— <상 황> —

甲은 친구 乙이 丙에게 빌려준 5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신 받아주려고 丙을 만났는데, 丙이 격분하여 甲을 폭행하였다. 그로 인해 甲은 병원치료비 200만 원을 지출하게 되었다. 이후 甲은 丙을 폭행죄로 고소하여 현재 丙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다.

- ① 甲과 丙이 피해배상을 합의하면 그 합의는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상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② 형사소송 2심 법원의 변론종결 후에 甲과 丙이 피해배상에 대해 합의하면, 그 합의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丙이 乙에게 변제할 500만 원과 甲의 치료비 200만 원을 丙이 지급한다는 합의내용을 알게 된 법원은 신청이 없어도 이를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
- ④ 공판조서에 기재된 합의금에 대해 甲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상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
- ⑤ 丙이 甲에게 지급할 금액을 丁이 보증한다는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된 경우, 甲은 그 공판조서에 근거하여 丁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2017 5급 (가) 5번

문 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 등”이라 한다)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전시권은 저작자인 화가, 건축물설계자, 사진작가에게 인정되므로, 타인이 미술저작물 등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전시는 일반인에 대한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가정 내에서 진열하는 때에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 또한 저작자는 복제권도 가지기 때문에 타인이 미술저작물 등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저작자가 미술저작물 등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소유권을 넘긴 경우에는 저작자의 전시권·복제권과 소유자의 소유권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복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해결하고 있다.

첫째,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허락을 얻은 자는 자유로이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을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등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둘째,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제3자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미술저작물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셋째, 화가 또는 사진작가가 고객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완성한 초상화 또는 사진저작물의 경우, 화가 또는 사진작가는 위탁자의 허락이 있어야 이를 전시·복제할 수 있다.

————— <상 황> —————

○ 화가 甲은 자신이 그린 「군마」라는 이름의 회화를 乙에게 판매하였다.

○ 화가 丙은 丁의 위탁을 받아 丁을 모델로 한 초상화를 그려 이를 丁에게 인도하였다.

- ① 乙이 「군마」를 건축물의 외벽에 잠시 전시하고자 할 때라도 甲의 허락을 얻어야만 한다.
- ② 乙이 감상하기 위해서 「군마」를 자신의 거실 벽에 걸어 놓을 때는 甲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 ③ A가 공원에 향시 전시되어 있는 「군마」를 회화로 복제하고자 할 때는 乙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 ④ 丙이 丁의 초상화를 복제하여 전시하고자 할 때는 丁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 ⑤ B가 공원에 향시 전시되어 있는 丁의 초상화를 판매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때는 丙의 허락을 얻을 필요가 없다.

2017 5급 (가) 24번

문 2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민사소송에서 판결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되며,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당사자는 더 이상 상급심 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첫째,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판결은 선고 시에 확정된다. 그리고 하급심 판결이라도 선고 전에 당사자들이 상소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 합의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 판결은 선고 시에 확정된다.

둘째, 상소기간이 만료된 때에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상소는 패소한 당사자가 제기하는 것으로, 상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상소할 수 없게 되므로, 판결은 상소기간 만료 시에 확정된다. 또한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였다더라도 그 후 상소를 취하하면 상소기간 만료 시에 판결은 확정된다.

셋째, 상소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패소한 당사자가 법원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하면, 제출 시에 판결은 확정된다.

——— <상 황> ———

원고 甲은 피고 乙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매매대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방법원은 甲에게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6년 11월 1일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문은 甲에게는 2016년 11월 10일 송달되었고, 乙에게는 2016년 11월 14일 송달되었다.

- ① 乙은 2016년 11월 28일까지 상소할 수 있다.
- ② 甲이 2016년 11월 28일까지 상소하지 않으면, 같은 날 판결은 확정된다.
- ③ 甲이 2016년 11월 11일 상소한 후 2016년 12월 1일 상소를 취하하였다면, 취하한 때 판결은 확정된다.
- ④ 甲과 乙이 상소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2016년 10월 25일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판결은 2016년 11월 1일 확정된다.
- ⑤ 甲이 2016년 11월 21일 법원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하면, 판결은 2016년 11월 1일 확정된 것으로 본다.

2017 5급 (가) 26번

문 2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의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법원이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법원이 정한 해당 부동산의 ‘최저가매각가격’ 이상의 금액을 매수가격으로 하여 매수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인은 최저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법원은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가격을 신고한 사람(최고가매수신고인)을 매수인으로 결정하며, 매수인은 신고한 매수가격(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그 대금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자신이 신고한 매수가격대로 매수를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차순위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차순위매수신고는 매수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어야 할 수 있다.

——<상 황>——

甲과 乙은 법원이 최저가매각가격을 2억 원으로 정한 A주택의 경매에 입찰자로 참가하였다. 甲은 매수가격을 2억 5천만 원으로 신고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다. 甲이 지정된 기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乙이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乙의 매수신고액이 최소한 (㉠)을 넘어야 한다.

- ① 2천만 원
- ② 2억 원
- ③ 2억 2천만 원
- ④ 2억 2천 5백만 원
- ⑤ 2억 3천만 원

2020 5급 (나) 24번

문 2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결의내용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이하 '결의취소의 소'라 한다)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회사의 주주, 이사 또는 감사이다. 이들 이외의 사람이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주주·이사·감사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변론종결 전에 원고인 주주가 주식을 전부 양도하거나 이사·감사가 임기만료나 해임·사임·사망 등으로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소가 부적법 각하되면 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 없이 소송은 그대로 종료하게 된다.

결의취소의 소는 해당 회사를 피고로 해야 하며, 회사 아닌 사람을 공동피고로 한 경우 그 사람에 대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고, 회사에 대한 소송만 진행된다. 한편 회사가 피고가 된 소송에서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한다. 그렇지만 이사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사와 대표이사의 공모를 막기 위해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한다. 이와 달리 이사 이외의 자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대표이사가 소송을 수행하며, 그 대표이사가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된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상 황> —

A회사의 주주총회는 대표이사 甲을 해임하고 새로이 乙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여 乙이 즉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그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는 법령에 위반된 것이었다. A회사의 주주는 丙과 丁 등이 있고, 이사는 戊, 감사는 己이다. 甲과 乙은 주주가 아니며, 甲은 대표이사 해임결의로 이사의 지위도 상실하였다.

- ① 甲이 A회사를 피고로 하여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결의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관해 판단해야 한다.
- ② 丙이 A회사를 피고로 하여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乙이 A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한다.
- ③ 丁이 A회사와 乙을 공동피고로 하여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A회사와 乙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 각하된다.
- ④ 戊가 A회사를 피고로 하여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甲이 A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한다.
- ⑤ 己가 A회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결의취소의 소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 己의 임기가 만료된다면, 그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

2021 5급 (가) 5번

문 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공소제기는 법원에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검사의 소송행위이다. 그러나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시효는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컨대 감금죄의 경우 범죄행위의 종료는 감금된 날이 아니라 감금에서 벗어나는 날이 기준이므로 그날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한다. 또한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라도 기간에 산입한다. 연 또는 월 단위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기간을 계산한다. 예컨대 절도행위가 2021년 1월 5일에 종료된 경우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1월 5일을 1일로 계산하므로 2028년 1월 4일 24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한편 공소시효는 일정한 사유로 정지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가 그 사유가 없어지면 그날부터 나머지 공소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예컨대 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1년간 국외에 있다가 귀국하였다면 공소시효의 계산에서 1년을 제외한다. 다만 공범이 있는 경우 국외로 출국하지 않은 공범은 그 기간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또한 공소가 제기되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이는 공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범 1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그날부터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정지되었다가 공범이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날부터 다른 공범에 대한 나머지 공소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그러나 공소가 먼저 제기된 사람이 범죄혐의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

— <상 황> —

- 甲은 2015년 5월 1일 피해자를 불법으로 감금하였는데, 피해자는 2016년 5월 2일에 구조되어 감금에서 풀려났다. 甲은 피해자를 감금 후 수사망이 좁혀오자 2개월간 국외로 도피하였다가 2016년 5월 1일에 귀국하였다.
- 乙, 丙, 丁이 공동으로 행한 A죄의 범죄행위가 2015년 2월 1일 종료되었다. 그 후 乙은 국내에서 도피 중 2016년 1월 1일 공소제기 되어 2016년 6월 30일 범죄혐의 없음을 이유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丙은 범죄행위 종료 후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1년간 국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뒤 2020년 1월 1일 공소가 제기되어 2020년 12월 31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丁은 범죄행위 종료 후 계속 국내에서 도피 중이다.

※ 감금죄의 공소시효는 7년, A죄의 공소시효는 5년임

- ① 甲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기 전 정지된 공소시효 기간은 2개월이다.
- ② 2023년 5월 1일 甲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다면 위법한 공소 제기이다.
- ③ 丙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기 전 정지된 공소시효 기간은 1년이다.
- ④ 丙의 국외 도피기간 중 丁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⑤ 2022년 1월 31일 丁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다면 적법한 공소 제기이다.

2022 5급 (나) 5번

문 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9세 이상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청구인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날을 포함하여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은 열람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열람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해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이의 신청에 대해 그 결정이 끝난 경우 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청구를 각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의결 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상 황> —

- □□도 A시의 인구는 30만 명이며, 19세 이상 주민은 총 20만 명이다.
- A시 주민 甲은 청구인 대표자로 2022. 1. 3. ○○조례에 대한 개정을 청구했고, 이에 A시 시장 B는 같은 해 1. 5. 이를 공표하였다.
- A시 의회 재적의원은 12명이다.

- ① A시에서 주민이 조례 개정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6,00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
- ② A시 주민이 甲의 조례 개정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2022. 1. 14.까지이다.
- ③ A시 주민 乙이 2022. 1. 6.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면, B는 같은 해 1. 31.까지 그에 대한 심사·결정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甲의 조례 개정 청구가 2022. 2. 1. 수리되었다면, B는 같은 해 4. 2.까지 ○○조례 개정안을 A시 의회에 부의해야 한다.
- ⑤ A시 의회는 의원 3명의 참석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개의할 수 있다.

2022 5급 (나) 23번

문 23.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판결을 해야 하고, 그 상한을 넘는 금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임대인(원고)이 임차인(피고)을 상대로 밀린 월세를 이유로 2천 4백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 결과 임차인의 밀린 월세를 2천만 원으로 판단하면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하지만, 3천만 원으로 판단하더라도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는 없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 도중 청구금액을 3천만 원으로 변경하면 비로소 법원은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 있다.

그런데 교통사고 등으로 신체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인 원고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위자료 등 3가지 손해항목으로 금액을 나누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교통사고 피해자가 적극적 손해 3백만 원, 소극적 손해 4백만 원, 위자료 2백만 원으로 손해항목을 나누고 그 총액인 9백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원이 손해항목별 상한을 넘는 금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위 사례에서 법원이 심리 결과 적극적 손해 2백만 원, 소극적 손해 5백만 원, 위자료 2백만 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9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3가지 견해가 있다. A견해는 각 손해항목별로 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한다. B견해는 손해배상 총액의 상한만 넘지 않으면 손해항목별 상한 금액을 넘더라도 무방하다고 한다. C견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는 동일한 '재산상 손해'이지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그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중시하여,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합산한 '재산상 손해' 그리고 '위자료' 두 개의 손해항목으로 나누고 그 항목별 상한 금액을 넘지 않으면 된다고 한다.

※ 일실수익: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액의 상실분

— <상 황> —

甲은 乙 소유의 주택에 화재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乙은 주택 소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주택의 임차인 丙이 화상을 입었다. 이에 乙은 재산상 손해 6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丙은 치료비 1천만 원, 일실수익 1억 원, 위자료 5천만 원, 합계 1억 6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甲을 상대로 각각 제기하였다.

법원은 심리 결과 乙의 재산상 손해는 5천만 원이고, 丙의 손해는 치료비 5백만 원, 일실수익 1억 2천만 원, 위자료 3천 5백만 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① 법원은 甲이 乙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 ② 소송 도중 乙이 청구금액을 8천만 원으로 변경한 경우, 법원은 심리 결과 손해액을 5천만 원으로 판단하더라도 甲이 乙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 ③ A견해에 따르면, 법원은 甲이 丙에게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 ④ B견해에 따르면, 법원은 甲이 丙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 ⑤ C견해에 따르면, 법원은 甲이 丙에게 1억 4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2022 5급 (나) 25번

문 2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의 ㉠ ~ ㉣을 옳게 짝지은 것은?

1957년 제정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1987년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하도록 개정하여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였다. 다만 1987년 저작권법이 시행된 1987. 7. 1. 이전에 1957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이 이미 경과한 저작물은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2011년 개정 저작권법은 보호기간을 저작자 생존기간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으로 개정하였으며, 다만 2011년 저작권법이 시행된 2013. 7. 1. 이전에 1987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이 이미 경과한 저작물은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보호기간을 산정할 때는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의 1월 1일을 기산일(起算日)로 한다. 예컨대 ‘저작물 X’를 창작한 저작자 甲이 1957. 4. 1. 사망하였다면 저작물 X의 보호기간은 1958. 1. 1.부터 기산하여 1987년 저작권법에 의해 2007. 12. 31.까지 연장되지만, 2011년 저작권법에 따르면 보호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이다.

—————<상 황>—————

‘저작물 Y’를 창작한 저작자 乙은 1963. 1. 1. 사망하였다. 저작물 Y의 보호기간은 1957년 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고, 1987년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며, 2011년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다.

	㉠	㉡	㉢
①	1992. 1. 1.까지	2012. 1. 1.까지	이미 만료된 상태
②	1992. 12. 31.까지	2012. 12. 31.까지	이미 만료된 상태
③	1992. 12. 31.까지	2012. 12. 31.까지	2032. 12. 31.까지
④	1993. 12. 31.까지	2013. 12. 31.까지	이미 만료된 상태
⑤	1993. 12. 31.까지	2013. 12. 31.까지	2033. 12. 31.까지

2011 민경채 (인) 23번

문 23. 다음 규정과 서울에서 대전으로 출장을 다녀온 <甲의 지출내역>에 근거하였을 때, 甲이 정산 받는 여비의 총액은?

제00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숙박비·식비·일비 등으로 구분한다.

1. 운임: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2. 숙박비: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3. 식비: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4. 일비: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제00조(운임의 지급) ①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으로 구분한다.

②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제00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숙박비·식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③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액은 출장기간 전체의 총액 한도 내 실비로 계산한다.

④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1]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원)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40,000)	20,000

<甲의 지출내역>
(단위: 원)

항 목	1일차	2일차	3일차
KTX 운임(일반실)	20,000		20,000
대전 시내 버스요금	5,000	10,000	2,000
대전 시내 택시요금			10,000
식비	10,000	30,000	10,000
숙박비	45,000	30,000	

- ① 182,000원
- ② 187,000원
- ③ 192,000원
- ④ 230,000원
- ⑤ 235,000원

2018 민경채 (가) 6번

문 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조 이 법에서 ‘폐교’란 학생 수 감소,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제△△조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한다.

제□□조 ① 제△△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교재산의 연간 임대료를 감액하여 임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 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또는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 폐교가 소재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② 전항에 따라 폐교재산의 임대료를 감액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의 감액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1.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제△△조 제2항에 따른 연간 임대료의 1천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제△△조 제2항에 따른 연간 임대료의 1천분의 300

— <보 기> —

ㄱ. 시·도 교육감은, 폐교가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폐교재산을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그 폐교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ㄴ. 폐교재산평정가격이 5억 원인 폐교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연간 임대료의 최저액은 250만 원이다.

ㄷ. 폐교가 소재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단독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연간 임대료로 지불해야 할 최저액은 폐교재산평정가격의 0.7 %이다.

ㄹ. 폐교재산을 활용하려는 자가 폐교 소재 지역주민이 아니어도 그 폐교재산을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임대료 감액은 받을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20 7급 모의평가 1번

문 1.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공동주관 포함)가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1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00조(정의) “국제행사”라 함은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하고, 총 참여자 중 외국인 비율이 5 % 이상(총 참여자 200만 명 이상은 3 % 이상)인 국제회의·체육행사·박람회·전시회·문화행사·관광행사 등을 말한다.

제00조(국고지원의 제외) 국제행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국고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제외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 이후 최초 개최되는 행사의 해당 연도부터로 한다.

1.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로서 국고지원을 7회 받은 경우
2. 그 밖의 주기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로서 국고지원을 3회 받은 경우

제00조(타당성조사, 전문위원회 검토의 대상 등) ① 국고지원의 타당성조사 대상은 국제행사의 개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국제행사로 한다.

② 국고지원의 전문위원회 검토 대상은 국제행사의 개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50억 원 미만인 국제행사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 비율이 총 사업비의 20 % 이내인 경우 타당성조사를 전문위원회 검토로 대체할 수 있다.

<상 황>

甲광역자치단체는 2021년에 제6회 A박람회를 국고지원을 받아 개최할 예정이다. A박람회는 매년 1회 총 250만 명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20여 개국에서 8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참여해 왔다. 2021년에도 동일한 규모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20년에 5번째로 국고지원을 받은 A박람회의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었으며, 이 중 국고지원 비율은 25 %였다.

- ① 2021년에 총 250만 명의 참여자 중 외국인 참여자가 감소하여 6만 명이 되더라도 A박람회는 국제행사에 해당된다.
- ② 2021년에 A박람회가 예정대로 개최된다면, A박람회는 2022년에 국고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③ 2021년 총 사업비가 52억 원으로 증가하고 국고지원은 8억 원을 요청한다면, A박람회는 타당성조사 대상이다.
- ④ 2021년 총 사업비가 60억 원으로 증가하고 국고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금액을 요청한다면, A박람회는 전문위원회 검토를 받을 수 있다.
- ⑤ 2021년 甲광역자치단체와 乙기초자치단체가 공동주관하여 전년과 동일한 총 사업비로 A박람회를 개최한다면, A박람회는 타당성조사 대상이다.

2020 7급 모의평가 2번

문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진흥기금의 징수) ① 영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의 진흥기금을 징수한다. 다만, 직전 연도에 제△△조 제1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흥기금을 매월 말일까지 징수하여 해당 금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진흥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진흥기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진흥기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위원회는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1. 애니메이션영화·단편영화·예술영화·독립영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관람가영화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영화

- ① 영화상영관 A에서 직전 연도에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청소년관람가 애니메이션영화를 상영한 경우 진흥기금을 징수한다.
-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 B가 8월분 진흥기금 60만 원을 같은 해 9월 18일에 납부하는 경우,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61만 8천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관람객 C가 입장권 가액과 그 진흥기금을 합하여 영화상영관에 지불하는 금액이 12,000원이라고 할 때, 지불 금액 중 진흥기금은 600원이다.
- ④ 연간 상영일수가 매년 200일인 영화상영관 D에서 직전 연도에 단편영화를 40일, 독립영화를 60일 상영했다면 진흥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 ⑤ 영화상영관 경영자 E가 7월분 진흥기금과 그 가산금을 합한 금액인 103만 원을 같은 해 8월 30일에 납부한 경우, 위원회는 E에게 최대 3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2020 7급 모의평가 6번

문 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지역개발 신청 동의 등) ① 지역개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총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및 지역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지역개발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동의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토지는 지적도 상 1필의 토지를 1개의 토지로 한다.
2. 1개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소유자들을 대표하는 대표 공동소유자 1인만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본다.
3. 1인이 여러 개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하는 토지의 수와 무관하게 1인으로 본다.
4. 지역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국유지가 있는 경우 국유지도 포함하여 토지면적을 산정하고, 그 토지의 재산관리청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 <상 황> —————

○ X지역은 100개의 토지로 이루어져 있고, 토지면적 합계가 총 6 km²이다.

○ 동의자 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X지역 토지의 소유자는 모두 82인(이하 “동의대상자”라 한다)이고, 이 중에는 국유지 재산관리청 2인이 포함되어 있다.

○ 甲은 X지역에 토지 2개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면적 합계는 X지역 총 토지면적의 4분의 1이다.

○ 乙은 X지역에 토지 10개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면적 합계는 총 2 km²이다.

○ 丙, 丁, 戊, 己는 X지역에 토지 1개를 공동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면적은 1 km²이다.

- ① 乙이 동의대상자 31인의 동의를 얻으면 지역개발 신청을 위한 X지역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조건은 갖추게 된다.
- ② X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신청에 甲 ~ 己 모두 동의한 경우, 나머지 동의대상자 중 38인의 동의를 얻으면 신청할 수 있다.
- ③ X지역에 토지 2개 이상을 소유하는 자는 甲, 乙뿐이다.
- ④ X지역의 1필의 토지면적은 0.06 km²로 모두 동일하다.
- ⑤ X지역 안에 있는 국유지의 면적은 1.5 km²이다.

2025 7급 추가 (핵) 4번

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25년에 甲과 乙이 받을 소음 피해 보상금의 합은?

제00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은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해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로 실제 거주기간 동안 지급하는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구역: 월 6만 원

2. 제2종 구역: 월 4만 5천 원

3. 제3종 구역: 월 3만 원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한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감액한다.

1. 198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전입한 경우: 30퍼센트 감액

2.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전입한 경우: 50퍼센트 감액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용비행장을 설치하기 전에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한 경우는 감액하지 않는다.

<상 황>

2025년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자(甲, 乙)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甲과 乙은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전입일부터 2025년 현재까지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다.

구분	소음대책지역	군용비행장 설치일	전입일	2024년 실제 거주기간
甲	제2종 구역	2010. 3. 29.	2015. 1. 7.	1. 1. ~ 12. 31.
乙	제1종 구역	2010. 3. 29.	2009. 1. 7.	1. 1. ~ 8. 31.

- ① 75만 원
- ② 78만 원
- ③ 80만 원
- ④ 85만 원
- ⑤ 90만 원

2025 7급 추가 (핵) 13번

13.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수령한 모범공무원 수당 총액은?

제00조(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월 5만 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더 이상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② 휴직한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가.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나. 천재지변,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 <상 황> ———

주무관 甲은 2022. 1. 5.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어 근무하다가, 18개월의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해 2022. 8. 1.부터 2024. 1. 31.까지 휴직하였고 2024. 2. 1. 복직하였다. 이후 甲은 같은 해 7. 10. 퇴직하였다.

- ① 45만 원
- ② 50만 원
- ③ 55만 원
- ④ 60만 원
- ⑤ 65만 원

2011 5급 (선) 9번

문 9.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모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이하 ‘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정수는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40 ~ 100분의 50

2. 교원위원 : 100분의 30 ~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100분의 10 ~ 100분의 30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계고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역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 100분의 50

제00조 ① 학교의 장은 항상 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00조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모두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보 기>

ㄱ. 전교생이 549명인 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위원의 정수가 10명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 이 학교의 지역위원은 1명일 수 있다.

ㄴ. 학생수가 1,500명인 전문계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위원의 정수가 15명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인 지역위원은 최소 2명에서 최대 7명이다.

ㄷ.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연임허용 여부가 이 법에 규정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를 찾아보아야 한다.

ㄹ.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11 5급 (전) 27번

문 27. 甲국은 곧 실시될 2011년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다음 규정과 <상황>에 근거하여 세 정당(A, B, C)에게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각 정당이 지급받을 금액으로 옳은 것은?

제00조 ① 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이하 ‘국회의원선거’라 한다)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여성추천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직전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여성추천보조금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여성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국회의원선거의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이하 ‘총액’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1.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총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원석수의 비율만큼, 총액의 100분의 50은 직전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만큼 배분·지급한다.

2.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

가.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추천한 정당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나.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추천한 정당

총액의 100분의 3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원석수의 비율만큼, 총액의 100분의 30은 직전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만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가목’에 의하여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 황>

1. 직전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는 4,000만 명이다.

2. 2011년 현재 전국지역구총수는 200개이다.

3. 2011년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A정당은 50명, B정당은 30명, C정당은 20명을 추천했다.

4.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의 비율은 A정당 50%, B정당 40%, C정당 10%이다.

5. 직전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은 A정당 40%, B정당 40%, C정당 20%였다.

<u>A</u>	<u>B</u>	<u>C</u>
① 4억 5천만 원	4억 원	9천만 원
② 5억 4천만 원	4억 4천만 원	1억 6천 8백만 원
③ 5억 4천만 원	4억 4천만 원	1억 8천만 원
④ 9억 원	8억 원	1억 6천 8백만 원
⑤ 9억 원	8억 원	1억 8천만 원

2011 5급 (선) 36번

문 36. 甲, 乙, 丙은 서울특별시(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 해당) ○○동 소재 3층 주택 소유자와 각 층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이다. 이들의 보증금은 각각 5,8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이다. 위 주택 전체가 경매절차에서 주택 가액 8,000만 원에 매각되었고, 甲, 乙, 丙 모두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 乙과 丙이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합은? (단, 확정일자나 경매비용은 무시한다)

제00조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2,000만 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 : 1,700만 원
3. 그 밖의 지역 : 1,400만 원

③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제00조 전조(前條)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6,000만 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 : 5,000만 원
3. 그 밖의 지역 : 4,000만 원

- ① 2,200만 원
- ② 2,300만 원
- ③ 2,400만 원
- ④ 2,500만 원
- ⑤ 2,600만 원

2012 5급 (인) 9번

문 9. 다음 규정에 근거할 때, 수수료 총액이 가장 많은 것은?

- 제00조 특허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출원료

가.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5만 8천 원
(단,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
원을 가산한다)

나.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만 8천 원

2. 출원인변경신고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6천 5백 원

나. 법인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6천 5백 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 6천 5백 원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매건 1만 3천 원

제00조 특허권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권의 실시권 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가. 전용실시권: 매건 7만 2천 원

나. 통상실시권: 매건 4만 3천 원

2. 특허권의 이전등록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만 4천 원

나. 법인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1만 4천 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 1만 4천 원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매건 5만 3천 원

3. 등록사항의 경정·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및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취소·말소 또는 회복등록료: 매건 5천 원
- ① 특허출원 5건을 신청한 A가 사망한 후, A의 단독 상속인
B가 출원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출원인변경신고료

② C가 자기 소유의 특허권 9건을 말소하는 경우의 등록료

③ D가 특허출원 1건에 대한 40면 분량의 특허출원서를 전자
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의 특허출원료

④ E소유의 특허권 1건의 통상실시권에 대한 보존등록료

⑤ F주식회사가 G주식회사를 합병하면서 획득한 G주식회사
소유의 특허권 4건에 대한 이전등록료

2013 5급 (인) 17번

문 17. 다음 글과 <법조문>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乙에게 2,000만 원을 1년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800만 원을 공제하고 1,200만 원만을 준 경우, 乙이 갚기로 한 날짜에 甲에게 전부 변제하여야 할 금액은?

돈이나 물품 등을 빌려 쓴 사람이 돈이나 같은 종류의 물품을 같은 양만큼 갚기로 하는 계약을 소비대차라 한다. 소비대차는 이자를 지불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그 이자는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런 이자는 돈을 빌려 주면서 먼저 공제할 수도 있는데, 이를 선이자라 한다. 한편 약정 이자의 상한에는 법률상의 제한이 있다.

—————<법조문>—————
제00조 ①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한다.
②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③ 약정금액(당초 빌려주기로 한 금액)에서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약정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 ① 760만 원
- ② 1,000만 원
- ③ 1,560만 원
- ④ 1,640만 원
- ⑤ 1,800만 원

2013 5급 (인) 35번

문 3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할 때, 각 기업들이 납부해야 할 과징금이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A국은 기업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기업들이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아래 법조항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해 준다. 한편 기업들 사이의 가격에 관한 담합행위는 법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제00조 ①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과징금의 면제 또는 감경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규제 당국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나. 경쟁규제 당국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 신고하였을 것

다.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2. 경쟁규제 당국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나. 제1호 다목에 해당할 것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또는 두 번째의 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거제공의 순서는 자진신고한 시점에 의해 판단한다.

③ 자진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일부의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감경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신고자가 이전 신고자의 신고 순서를 승계한다.

<상 황>

A국에서 甲, 乙, 丙, 丁, 戊 5개 기업은 X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하였다. 甲은 경쟁규제 당국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2013년 1월 3일에 경쟁규제 당국에 자진신고를 했다. 乙 역시 경쟁규제 당국의 동태가 심상치 않아서 2013년 1월 4일에 자진신고를 했고, 丙은 2013년 1월 7일에 자진신고하였다. 丁은 뒤늦게 경쟁 기업들의 자진신고 사실을 알고 2013년 1월 9일에 자진신고를 하였다. 한편 甲으로부터 담합행위에 참여할 것을 강요당한 戊는 자신이 면책될 것으로 믿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 甲~丁은 경쟁규제 당국이 담합행위 적발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각 자진신고 및 담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였다. 丙과 戊를 제외하고는 담합행위를 중단하였다.

<각 기업 매출액 현황>
(단위 : 억 원)

기업	甲	乙	丙	丁	戊
매출액	2,000	3,000	700	1,500	900

- ① 甲 > 戊 > 丙 > 丁 > 乙
- ② 甲 > 戊 > 丁 > 丙 > 乙
- ③ 甲 > 丁 > 戊 > 丙 > 乙
- ④ 丁 > 乙 > 戊 > 丙 > 甲
- ⑤ 丁 > 戊 > 丙 > 乙 > 甲

2014 5급 (A) 29번

문 29. 다음 글과 <사례>를 근거로 판단할 때, 반납해야 할 경비가 가장 많은 사람부터 가장 적은 사람 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제00조 ① 임명권자는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 군위탁생 중 군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일시중지하거나 군위탁생 임명을 해임하여 원대 복귀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한 경비(이하 ‘지급경비’)를 아래 <표>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자

2. 수학 중 해임된 자(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 또는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표> 반납액 산정기준

구분	반납액
1. 제2항 제1호 해당자	지급경비 전액
2. 제2항 제2호 해당자	지급경비 전액 (다만 질병이나 기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수학을 계속할 수 없어 해임된 경우에는 지급경비의 2분의 1)
3. 제2항 제3호 해당자	$\text{지급경비} \times \frac{\text{의무복무월수} - \text{복무월수}}{\text{의무복무월수}}$

<사 례>

A. 수학 중 성적불량으로 군위탁생 임명이 해임된 부사관
(지급경비 1,500만 원)

B. 군위탁생으로 박사과정을 마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장교(지급경비 2,500만 원)

C. 위탁교육을 마친 후 의무복무년수 6년 중 3년을 마치고 전역하는 장교(지급경비 3,500만 원)

D. 심신장애로 인하여 계속하여 수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수학 중 군위탁생 임명이 해임된 부사관(지급경비 2,000만 원)

E. 국방부장관이 국가비상시에 군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위탁생 임명을 해임하여 원대복귀시킨 장교
(지급경비 3,000만 원)

- ① B－C－A－D－E

② B－C－D－A－E

③ C－B－E－A－D

④ C－E－B－D－A

⑤ E－C－B－A－D

2016 5급 (4) 27번

문 2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16년 정당에 지급할 국고보조금의 총액은?

제00조(국고보조금의 계상) ① 국가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선거(동시지방선거는 하나의 선거로 본다)마다 보조금 계상단가를 추가한 금액을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계상단가는 전년도 보조금 계상단가에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경상보조금’이라 한다)은 매년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정당에 지급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선거보조금’이라 한다)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 <상 황> ———

○ 2014년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는 3천만 명이었고,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다.

○ 2015년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보조금 계상단가는 1,000원이었다.

○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조금 계상단가는 전년 대비 매년 30원씩 증가한다.

○ 2016년에는 5월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8월에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가 있다. 각 선거의 한 달 전에 후보자등록을 마감한다.

○ 2017년에는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동시지방선거가 없다.

- ① 309억 원
- ② 600억 원
- ③ 618억 원
- ④ 900억 원
- ⑤ 927억 원

2019 5급 (가) 6번

문 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과세대상) 주권(株券)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제00조(납세의무자) 주권을 양도하는 자는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조(과세표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그 주권의 양도가액(주당 양도금액에 양도 주권수를 곱한 금액)이다.

제00조(세율) 주권의 양도에 대한 세율은 양도가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00조(탄력세율) X 또는 Y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하여는 제00조(세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율에 의한다.

1. X증권시장: 양도가액의 1천분의 1.5
2. Y증권시장: 양도가액의 1천분의 3

— <상 황> —

투자자 甲은 금융투자업자 乙을 통해 다음 3건의 주권을 양도하였다.

- A회사의 주권 100주를 주당 15,000원에 양수하였다가 이를 주당 30,000원에 X증권시장에서 전량 양도하였다.
- B회사의 주권 200주를 주당 10,000원에 Y증권시장에서 양도하였다.
- C회사의 주권 200주를 X 및 Y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주당 50,000원에 양도하였다.

- ① 증권거래세는 甲이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납부되어야 할 증권거래세액의 총합은 6만 원 이하다.
- ③ 甲의 3건의 주권 양도는 모두 탄력세율을 적용받는다.
- ④ 甲의 A회사 주권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150만 원이다.
- ⑤ 甲이 乙을 통해 Y증권시장에서 C회사의 주권 200주 전량을 주당 50,000원에 양도할 수 있다면 증권거래세액은 2만 원 감소한다.

2019 5급 (가) 25번

문 2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A대학을 졸업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최소 취득학점은?

△△법 제◇◇조(학점의 인정 등) ①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다른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정되는 학점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한 학점의 전부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年) 12학점 이내

제□□조(편입학 등)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편입학 전형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

1.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사학위과정의 제2학년을 수료한 자

— <상 황> —

- A대학은 학칙을 통해 학점인정의 범위를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 졸업에 필요한 최소 취득학점은 A대학 120학점, B전문대학 63학점이다.
- 甲은 B전문대학에서 졸업에 필요한 최소 취득학점만으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甲은 B전문대학 졸업 후 A대학 3학년에 편입하였고 군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에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총 6학점을 취득하였다.
- 甲은 A대학에 복학한 이후 총 30학점을 취득하였고, 1년 동안 미국의 C대학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총 12학점을 취득하였다.

- ① 9학점
- ② 12학점
- ③ 15학점
- ④ 22학점
- ⑤ 24학점

2019 5급 (가) 26번

문 2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乙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합은?

A국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이 그 실제 거래가격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00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하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 가.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50만 원
- 나.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100만 원

2. 해태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

- 가.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100만 원
- 나.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200만 원

②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과태료 산정에 있어서의 취득세는 매수인을 기준으로 한다.

1.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 미만인 경우
 - 실제 거래가격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2배
 - 실제 거래가격이 5억 원 초과인 경우: 취득세의 1배
-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 이상인 경우
 - 실제 거래가격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3배
 - 실제 거래가격이 5억 원 초과인 경우: 취득세의 2배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 미만인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2
-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 이상인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4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 해당 과태료는 병과한다.

<상 황>

- 매수인의 취득세는 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1이다.
- 甲은 X토지를 2018. 1. 15. 丙에게 5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2018. 4. 2. 거래가격을 3억 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 乙은 공사 중인 Y아파트를 취득할 권리인 입주권을 2018. 2. 1. 丁에게 2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2018. 2. 5. 거래가격을 1억 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 ① 1,400만 원 ② 2,000만 원
- ③ 2,300만 원 ④ 2,400만 원
- ⑤ 2,500만 원

2020 5급 (나) 5번

문 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민원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2. 제도·절차 등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4일
②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해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지조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00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한다.
④ 공휴일과 토요일은 민원의 처리기간과 실지조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업무시간은 09:00 ~ 18:00이다.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 3근무시간: 업무시간 내 3시간
- ※ 광복절(8월 15일, 화요일)과 일요일은 공휴일이고, 그 이외에 공휴일은 없다고 가정한다.

————— <보 기> —————
ㄱ. A부처는 8.7(월) 16시에 건의민원을 접수하고, 8.21(월) 14시에 처리하였다.
ㄴ. B부처는 8.14(월) 13시에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10일간 실지조사를 하여 9.7(목) 10시에 처리하였다.
ㄷ. C부처는 8.16(수) 17시에 기타민원을 접수하고, 8.17(목) 10시에 처리하였다.
ㄹ. D부처는 8.17(목) 11시에 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을 접수하고, 8.22(화) 14시에 처리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21 5급 (가) 23번

문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은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하고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해 운송계약을 여객과 체결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30년 이내에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하거나 플랫폼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플랫폼운송사업자는 매출액, 허가대수 또는 운행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1. 기여금은 월 단위로 산정하여 해당 월의 차차 월(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2. 기여금은 매출액의 5%, 운행횟수당 800원, 허가대수당 40만 원 중 사업자가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허가대수가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는 아래 표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

허가대수 \ 기여금 산정방식	200대 미만	200대 이상 300대 미만
매출액 대비 정률	1.25 %	2.5 %
운행횟수당 정액	200원	400원
허가대수당 정액	10만 원	20만 원

— <보 기> —

-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운송사업을 하려는 甲에게 사업 기간을 15년으로 하여 허가할 수 있다.
- ㄴ. 플랫폼운송사업허가를 받아 2020년 12월 15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乙은 첫 기여금을 2021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ㄷ. 100대의 차량으로 플랫폼운송사업허가를 받은 丙이 1개월 동안 20,000회 운행하여 매출 3억 원을 올렸다면, 丙이 납부해야 할 해당 월의 기여금은 400만 원 미만이 될 수 있다.
- ㄹ. 300대의 차량으로 플랫폼운송사업허가를 받은 丁은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허가대수당 800원 중에서 선택하여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2022 5급 (나) 21번

문 21.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시장이 잘못 부과한 과태료 초과분의 합은?

제00조 ①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기간 내에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의무자가 부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시·도지사는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이하 ‘사실조사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고,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제3항의 촉구를 받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기준 금액의 2배를 부과한다.

1. 신고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1만 원

2. 신고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3만 원

3. 신고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5만 원

제00조 시·도지사는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경감하여 부과한다.

단,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경감비율만을 한 차례 적용한다.

1.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신고한 자: 2분의 1 경감

2.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10분의 2 경감

<상 황>

A시장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甲, 乙, 丙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 신고를 한 丙을 제외한 모든 자에게 신고를 촉구하였다. 촉구를 받은 甲은 사실대로 신고하였지만 乙은 부실하게 신고하였다. 그 후 A시장은 甲, 乙, 丙에게 아래의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였다.

<과태료 부과현황>

대상자	신고기간 후 경과일수	특이사항	부과액
甲	200일	국가유공자	10만 원
乙	71일		6만 원
丙	9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1만 5천 원

- ① 57,000원
- ② 60,000원
- ③ 72,000원
- ④ 85,000원
- ⑤ 90,000원

2024 5급 (나) 5번

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 업무시설

④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제3항 제1호의 공동주택: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 제3항 제1호 이외의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백분의 1

제□□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조 제4항에 따른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제○○조 제4항에 따른 금액의 1백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의 설계변경으로 건축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제○○조 제4항에 따른 금액이 종전에 제○○조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친 금액보다 커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미술작품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 A지방자치단체가 건축비용 30억 원으로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의 공연장을 건립하려는 경우, 미술작품 설치에 1천 5백만 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 B지방자치단체가 건축비용 25억 원으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에 1,750만 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여도 된다.
- C회사가 건축비용 10억 원으로 기존 연면적 7천 제곱미터의 업무시설을 전체 연면적 1만 2천 제곱미터의 업무시설로 증축하려는 경우, 미술작품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 D대학교가 건축비용 20억 원으로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의 기숙사를 건립하려는 경우, 미술작품의 설치에 200만 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 E회사가 건축비용 40억 원으로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의 집회장을 건립하면서 2천만 원의 미술작품을 설치하기로 한 후, 설계변경으로 건축비용이 45억 원으로 늘어났다면 2천만 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2024 5급 (나) 25번

2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어장청소 등) ①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그 양식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해야 하고,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정해진 주기에 따라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어장청소 주기는 다음의 표와 같다. 단, 같은 면허 내에서 서로 다른 양식방법을 혼합하거나 두 종류 이상의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경우, 어장청소 주기는 그중 단기로 한다.

면허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품종	주기
해조류 양식업	수하식 (지주망식)	김, 매생이 등	5년
	수하식 (연승식)	미역, 다시마, 톳, 모자반 등	4년
어류 등 양식업	가두리식	조피볼락, 돔류, 농어, 방어, 고등어, 민어 등	3년
	수하식 (연승식)	우렁챙이, 미더덕, 오만둥이 등	4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가 해당 어장에서 기존 면허와 동일한 신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제2항의 주기에 따라 어장청소를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장 청소를 명하되,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제□□조(이행강제금) ① 시장 등은 제○○조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어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 등은 제○○조 제4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면허면적 0.1 ha당 5만 원이며, 1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2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① 유효기간이 10년인 해조류 양식업면허를 처음으로 받은 甲이 수하식 (지주망식)으로 매생이를 양식하는 경우, 유효기간 동안 어장청소를 두 번은 해야 한다.

② 어류 등 양식업면허를 받은 乙이 가두리식으로 방어와 수하식(연승식)으로 우렁챙이를 양식하는 경우, 어장청소 주기는 4년이다.

③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어장에서 기존 면허와 동일한 신규 면허를 받은 丙은 신규 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④ 6 ha 면적의 어류 등 양식업면허를 받은 丁이 지속적으로 어장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1회 3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⑤ 2020. 12. 11. 어류 등 양식업면허를 받아 수하식(연승식)으로 미더덕을 양식하는 戊가 2024. 3. 11.까지 어장청소를 한 번밖에 하지 않는다면, 2024. 3. 12.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2025 5급 (가) 25번

2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이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 해당하는 것은?

제00조 ① 이 법은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시: 9억 원

2. B시: 6억 8천만 원

3. C시: 5억 5천만 원

4. 그 밖의 지역: 4억 원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은,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월(月) 단위 차임액(차임액을 연 단위로 정한 때에는 이를 12로 나눈 금액)에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 차임: 물건을 빌려 쓰고 치르는 값

- ① A시에 있는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증금 8억 원의 임대차
- ② B시에 있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 5억 원, 월 차임액 100만 원의 임대차
- ③ B시에 있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 7억 원의 임대차
- ④ C시에 있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 4억 원, 월 차임액 200만 원의 임대차
- ⑤ D시에 있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 3억 원, 연 차임액 1,200만 원의 임대차

2013 외교 (인) 6번

문 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부는 미술품 및 문화재를 소장한 자가 이를 판매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소정세율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으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000만 원 이상인 것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거래 및 양도도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이란 (i)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ii)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의 원본, (iii)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을 6,000만 원 이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양도차액의 80 ~ 90 %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인 20 ~ 10 %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징수하게 된다. 작품의 보유 기간이 10년 미만일 때는 양도차액의 80 %가, 10년 이상일 때는 양도차액의 90 %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기타소득세의 세율은 작품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20 %이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그림을 구입하여 10년 후 6,000만 원에 파는 사람은 양도차액 5,000만 원 가운데 90 %(4,500만 원)를 필요경비로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 500만 원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결정 세액은 100만 원이다.

※ 양도가액이란 판매가격을 의미하며, 양도차액은 구매가격과 판매 가격과의 차이를 말한다.

- <보 기> —
- ㄱ. A가 석판화의 복제품을 12년 전 1,000만 원에 구입하여 올해 5,000만 원에 판매한 경우,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 1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ㄴ. B가 보물로 지정된 고려시대의 골동품 1점을 5년 전 1억 원에 구입하여 올해 1억 5,000만 원에 판매한 경우,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 2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ㄷ. C가 현재 생존하고 있는 국내 화가의 회화 1점을 15년 전 100만 원에 구입하여 올해 1억 원에 판매한 경우,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ㄹ. D가 작년에 세상을 떠난 국내 화가의 회화 1점을 15년 전 1,000만 원에 구입하여 올해 3,000만 원에 판매한 경우,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 4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2016 5급 (4) 7번

문 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와 B의 값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국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의 여부 또는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의 정도를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데 이를 ‘과실상계(過失相計)’라고 한다. 예컨대 택시의 과속운행으로 승객이 부상당하여 승객에게 치료비 등 총 손해가 100만 원이 발생하였지만, 사실은 승객이 빨리 달리라고 요구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하자. 이 경우 승객의 과실이 40 %이면 손해액에서 40만 원을 빼고 60만 원만 배상액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는 자기 과실로 인한 손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제도이다.

한편 손해가 발생하였어도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손해를 본 것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이익도 보았을 때, 손해에서 그 이익을 공제하는 것을 ‘손익상계(損益相計)’라고 한다. 예컨대 타인에 의해 자동차가 완전 파손되어 자동차 가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만약 해당 자동차를 고철로 팔아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공제하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국가배상에 의한 손해배상금에서 유족보상금을 공제하는 것과 같이 손해를 일으킨 원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이어야 손익상계가 인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책임 원인과 무관한 이익, 예컨대 사망했을 경우 별도로 가입한 보험계약에 의해 받은 생명보험금이나 조문객들의 부의금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실상계를 할 사유와 손익상계를 할 사유가 모두 있으면 과실상계를 먼저 한 후에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

——<상 황>——

○○국 공무원 甲은 공무수행 중 사망하였다. 법원이 인정한 바에 따르면 국가와 甲 모두에게 과실이 있고, 손익상계와 과실상계를 하기 전 甲의 사망에 의한 손해액은 6억 원이었다. 甲의 유일한 상속인 乙은 甲의 사망으로 유족보상금 3억 원과 甲이 개인적으로 가입했던 보험계약에 의해 생명보험금 6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 밖에 다른 사정은 없었다. 법원은 甲의 과실을 [A] %, 국가의 과실을 [B] %로 판단하여 국가가 甲의 상속인 乙에게 배상할 손해배상금을 1억 8천만 원으로 정하였다.

	A	B
①	20	80
②	25	75
③	30	70
④	40	60
⑤	70	30

2017 5급 (가) 9번

문 9. 다음 글과 <선거 결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국 의회의원은 총 8명이며, 4개의 선거구에서 한 선거구당 2명씩 선출된다. 선거제도는 다음과 같이 운용된다.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두 명의 후보 이름이 적힌 명부를 작성한다. 유권자는 해당 선거구에서 모든 정당의 후보 중 한 명에게만 1표를 행사하며, 이를 통해 개별 후보자의 득표율이 집계된다.

특정 선거구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은 그 정당의 해당 선거구 후보자 2명의 득표율의 합이다. 예를 들어 한 정당의 명부에 있는 두 후보가 각각 30%, 20% 득표를 했다면 해당 선거구에서 그 정당의 득표율은 50%가 된다. 그리고 각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 소속 정당 명부에서의 순위(1번, 2번)가 결정된다.

다음으로 선거구별 2개의 의석은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먼저 해당 선거구에서 득표율 1위 정당의 1번 후보에게 1석이 배분된다. 그리고 만약 1위 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2위 정당의 정당 득표율의 2배 이상이라면, 정당 득표율 1위 정당의 2번 후보에게 나머지 1석이 돌아간다. 그러나 1위 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2위 정당의 정당 득표율의 2배 미만이라면 정당 득표율 2위 정당의 1번 후보에게 나머지 1석을 배분한다.

<선거 결과>

○○국의 의회의원선거 제1~4선거구의 선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치는 선거구별 득표율(%)이다.

	제1선거구	제2선거구	제3선거구	제4선거구
A정당	41	50	16	39
1번 후보	30	30	12	20
2번 후보	11	20	4	19
B정당	39	30	57	28
1번 후보	22	18	40	26
2번 후보	17	12	17	2
C정당	20	20	27	33
1번 후보	11	11	20	18
2번 후보	9	9	7	15

- ① A정당은 모든 선거구에서 최소 1석을 차지했다.
- ② B정당은 모든 선거구에서 최소 1석을 차지했다.
- ③ C정당 후보가 당선된 곳은 제3선거구이다.
- ④ 각 선거구마다 최다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되었다.
- ⑤ 가장 많은 당선자를 낸 정당은 B정당이다.

2023 5급 (가) 6번

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재정지원의 한 종류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일정 금액의 교부금을 지급하면 이는 지방정부의 예산이 그만큼 증가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교부금 지급이 해당 지역의 공공서비스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정부의 자체예산이 교부금과 동일한 금액만큼 증가한 경우의 영향과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지방재정에 관한 실증연구 결과를 보면 이러한 예상은 잘 들어맞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교부금 형태로 발생한 추가적 재원 중 공공서비스의 추가적 공급에 사용되는 비중이 지방정부의 자체예산 증가분 중 공공서비스의 추가적 공급에 사용되는 비중보다 높다. 자체예산을 공공서비스와 기타사업에 항상 절반씩 투입하는 甲국 A시에서는 자체예산 증가분의 경우, 그 50%를 공공서비스의 추가적 공급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기타사업에 투입한다. 그런데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중 80%를 공공서비스의 추가적 공급에 투입하고 나머지를 기타사업에 투입한다.

——— <상 황> ———

甲국 A시의 올해 예산은 100억 원이었으며, 모두 자체예산이었다. 중앙정부는 내년에 20억 원의 교부금을 A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A시의 내년도 자체예산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100억 원이다.

- ① A시가 내년에 기타사업에 지출하는 총 금액은 60억 원일 것이다.
- ② A시는 내년에 기타사업에 지출하는 총 금액을 올해보다 4억 원 증가시킬 것이다.
- ③ A시는 내년에 공공서비스 공급에 지출하는 총 금액을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할 것이다.
- ④ A시는 내년에 공공서비스 공급에 지출하는 총 금액을 올해보다 50% 증가시킬 것이다.
- ⑤ A시는 내년에 공공서비스 공급에 지출하는 총 금액을 올해보다 10억 원 증가시킬 것이다.

2014 민경채 (A) 15번

문 15. 다음 <사업설명서>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사업설명서>

총지원금		2013년	14,000백만 원	2014년	13,000백만 원	
지원 인원		2013년	3,000명	2014년	2,000명	
사업 개요	시작년도	1998년				
	추진경위	IMF 대량실업사태 극복을 위해 출발				
	사업목적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 및 사회 안전망 제공				
	모집시기	연간 2회(5월, 12월)				
근로 조건	근무조건	월 소정 근로시간	112시간 이하	주당 근로일수	5일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장여부	○	○	○	○	
참여자	주된 참여자	청년 (35세 미만)	중장년 (50~64세)	노인 (65세 이상)	여성	장애인
			○			
	기타	우대 요건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 우대			취업 취약계층 목표비율

<보 기>

- ㄱ. 2014년에는 2013년보다 총지원금은 줄었지만 지원 인원 1인당 평균 지원금은 더 많아졌다.
- ㄴ.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여성가장이 아니라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ㄷ. 이 사업 참여자들은 4대 사회보험을 보장받지 못한다.
- ㄹ. 이 사업은 청년층이 주된 참여자이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ㄷ, ㄹ

2017 민경채 (나) 4번

문 4. 다음 <연구용역 계약사항>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연구용역 계약사항>

☐ 과업수행 전체회의 및 보고

○ 참석대상: 발주기관 과업 담당자, 연구진 전원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중간보고: 계약기간 중 2회

- 과업 진척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 향후 연구계획 및 내용 협의

○ 최종보고: 계약완료 7일 전까지

○ 수시보고: 연구 수행상황 보고 요청 시, 긴급을 요하거나 특이사항 발생 시 등

○ 전체회의: 착수보고 전, 각 중간보고 전, 최종보고 전

☐ 과업 산출물

○ 중간보고서 20부, 최종보고서 50부, 연구 데이터 및 관련 자료 CD 1매

☐ 연구진 구성 및 관리

○ 연구진 구성: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 연구진 관리

- 연구 수행기간 중 연구진은 구성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단,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될 구성원의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음

☐ 과업의 일반조건

○ 연구진은 연구과제의 시작부터 종료(최종보고서 제출)까지 과업과 관련된 제반 비용의 지출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과업을 진행해야 함

○ 연구진은 용역완료(납품) 후에라도 발주기관이 연구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보 기>

ㄱ. 발주기관은 연구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연구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ㄴ. 과업수행을 위한 전체회의 및 보고 횟수는 최소 8회이다.

ㄷ. 연구진은 연구 수행기간 중 책임연구원과 공동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지만 연구보조원의 경우 임의로 교체할 수 있다.

ㄹ. 중간보고서의 경우 그 출력과 제본 비용의 지출행위에 대해 발주기관이 책임을 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236

236

2018 민경채 (가) 4번

문 4. 다음 <A 도서관 자료 폐기 지침>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A 도서관 자료 폐기 지침> —

가. 자료 선정

도서관 직원은 누구든지 수시로 서가를 살펴보고, 이용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는 발견 즉시 회수하여 사무실로 옮겨야 한다.

나. 목록 작성

사무실에 회수된 자료는 사서들이 일차적으로 갱신 대상을 추려내어 갱신하고, 폐기 대상 자료로 판단되는 것은 폐기심의대상 목록으로 작성하여 폐기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다. 폐기심의위원회 운영

폐기심의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회의는 폐기심의대상 목록과 자료의 실물을 비치한 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위원들은 실물과 목록을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심의위원회는 폐기 여부만을 판정하며 폐기 방법의 결정은 사서에게 위임한다. 폐기 대상 판정시 위원들 사이에 이견(異見)이 있는 자료는 당해 연도의 폐기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음 연도의 회의에서 재결정한다.

라. 폐기 방법

- (1) 기증: 상태가 양호하여 다른 도서관에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기증 의사를 공고하고 다른 도서관 등 희망하는 기관에 기증한다.
- (2) 이관: 상태가 양호하고 나름의 가치가 있는 자료는 자체 기록보존소, 지역 및 국가의 보존전문도서관 등에 이관한다.
- (3) 매각과 소각: 폐지로 재활용 가능한 자료는 매각하고, 폐지로도 매각할 수 없는 자료는 최종적으로 소각 처리한다.

마. 기록 보존 및 목록 최신화

연도별로 폐기한 자료의 목록과 폐기 경위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되, 폐기한 자료에 대한 내용을 도서관의 각종 현행자료 목록에서 삭제하여 목록을 최신화한다.

※ 갱신: 손상된 자료의 외형을 수선하거나 복사본을 만들

- ① 사서는 폐기심의대상 목록만을 작성하고, 자료의 폐기 방법은 폐기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 ② 폐기 대상 판정시 폐기심의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는 자료의 경우, 바로 다음 회의에서 그 자료의 폐기 여부가 논의되지 않을 수 있다.
- ③ 폐기심의위원회는 자료의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폐기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 ④ 매각 또는 소각한 자료는 현행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폐기 경위에 관한 기록도 제거하여야 한다.
- ⑤ 사서가 아닌 도서관 직원은, 이용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발견하면 갱신하거나 폐기심의대상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013 5급 (인) 7번

문 7. 다음 글과 <설문 결과>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A부는 민간고용서비스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 중이다. 교육내용을 선택하기 위해 민간고용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리치(Borich) 계수를 도출하였다. 보리치 계수가 높을수록 교육 우선순위는 높아진다.

$$\text{보리치 계수} = \frac{\{\sum(\text{RCL} - \text{PCL}) \times \overline{\text{RCL}}\}}{N}$$

- ※ RCL(Required Competence Level) : 필요한 역량수준
- ※ PCL(Present Competence Level) : 현재의 역량수준
- ※ $\overline{\text{RCL}}$: 필요한 역량수준의 평균값
- ※ N : 응답자 수

<설문 결과>

교육내용	$\sum(\text{RCL} - \text{PCL})$	$\overline{\text{RCL}}$	보리치 계수
교육 · 훈련상담	221	3.43	1.52
직업적응상담	205	3.45	1.41
직업진로선택상담	192	3.41	1.31
직업검사 실시 및 해석	241	3.25	1.57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301	3.32	2.00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	300	3.30	1.98
채용행사 개최	236	2.93	1.38

- ※ N = 500
- ① 교육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이다.
 - ② 민간고용서비스 종사자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역량수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직업적응상담’이다.
 - ③ ‘채용행사 개최’는 필요한 역량수준과 현재의 역량수준의 차이가 ‘교육 · 훈련상담’보다 크므로 교육 우선순위도 ‘교육 · 훈련상담’보다 높다.
 - ④ 민간고용서비스 종사자들은 평균적으로 ‘직업검사 실시 및 해석’보다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역량수준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
 - ⑤ 민간고용서비스 종사자들은 평균적으로 ‘직업진로선택상담’에 필요한 역량수준이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보다 높다고 생각하지만, 교육 우선순위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이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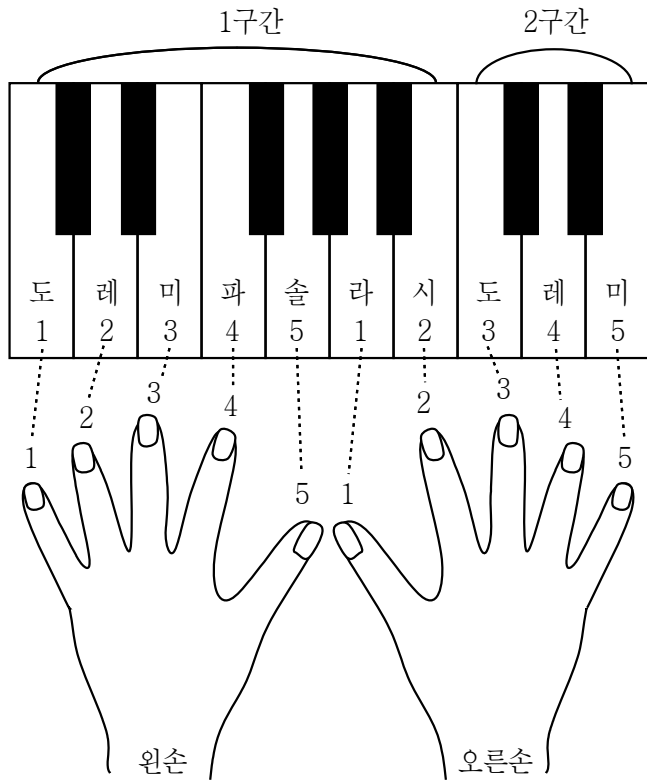
2013 5급 (인) 19번

문 19. 다음 <연주 규칙>에 근거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연주 규칙>

1 ~ 2구간의 흰 건반 10개만을 사용하여 ‘비행기’와 ‘학교종’ 두 곡을 연주한다. 왼손과 오른손을 나란히 놓고,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 다섯 종류의 손가락을 사용한다. 손가락 번호와 일치하는 건반 한 개만 칠 수 있으며, 각 노래에 사용되는 음은 아래와 같다.

- 비행기: 한 구간 내의 ‘도, 레, 미’ 음만 사용
- 학교종: 한 구간 내의 ‘도, 레, 미, 솔, 라’ 음만 사용



- ① ‘비행기’는 어느 구간에서 연주하든 같은 종류의 손가락을 사용한다.
- ② ‘비행기’는 어느 구간에서 연주하든 같은 번호의 손가락을 사용한다.
- ③ ‘학교종’을 연주할 때는 검지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④ ‘비행기’는 한 손만으로도 연주할 수 있다.
- ⑤ ‘학교종’은 한 손만으로도 연주할 수 없다.

2013 5급 (인) 26번

문 26. 다음 <표>에 근거하여 추론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작물별 살포농약의 특성 및 잔류허용기준

작물	농약	살포 직후의 잔류량(mg/kg)	반감기 (일)	잔류허용기준 (mg/kg)
상추	A	54.19	2.8	5.0
	B	6.63	2.0	5.0
사과	C	0.11	2.9	0.1
	D	0.97	8.4	0.5
포도	E	0.41	27.2	1.0
	F	1.48	7.5	5.0
	G	0.45	7.1	2.0

- ※ 농약살포량과 그 외 조건은 일정하며,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작물만 수확한다.
- ※ 반감기는 농약 잔류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1일 = 24시간)

<보 기>

- ㄱ. 상추에 살포되는 농약들은 사과나 포도에 살포되는 농약들보다 초기 잔류량은 많지만, 농약 잔류량이 절반이 되기까지의 시간은 짧다.
- ㄴ. 상추에 B를 살포하고 2일 후에 한 번 더 B를 살포한 경우, 그로부터 2일이 지났다면 수확할 수 있다.
- ㄷ. 상추에는 A를, 사과에는 D를 동시에 살포했다면, 사과보다 상추를 더 일찍 수확할 수 있다.
- ㄹ. 포도는 농약 살포 직후에 수확하더라도 농약 잔류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은 없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2017 5급 (가) 7번

문 7. 다음 <복약설명서>에 따라 甲이 두 약을 복용할 때 옳은 것은?

<복약설명서>	
1. 약품명 : 가나다정 2. 복용법 및 주의사항 - 식전 15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식전 30분부터 식사 직전까지 복용이 가능합니다. - 식사를 거르게 될 경우에 복용을 거릅니다. -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계속하고, 정기적으로 혈당(혈액 속에 섞여 있는 당분)을 측정해야 합니다. - 야뇨(夜尿)를 피하기 위해 최종 복용시간은 오후 6시까지로 합니다. -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 사탕 등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1. 약품명 : ABC정 2. 복용법 및 주의사항 - 매 식사 도중 또는 식사 직후에 복용합니다. - 복용을 잊은 경우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생각이 났다면 즉시 약을 복용하도록 합니다. 식사 후 1시간이 초과되었다면 다음 식사에 다음 번 분량만을 복용합니다. - 씹지 말고 그대로 삼켜서 복용합니다. -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통해서 혈중 칼슘, 인의 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① 식사를 거르게 될 경우 가나다정만 복용한다.
- ② 두 약을 복용하는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
- ③ 저녁식사 전 가나다정을 복용하려면 저녁식사는 늦어도 오후 6시 30분에는 시작해야 한다.
- ④ ABC정은 식사 중에 다른 음식과 함께 씹어 복용할 수 있다.
- ⑤ 식사를 30분 동안 한다고 할 때, 두 약의 복용시간은 최대 1시간 30분 차이가 날 수 있다.

2019 5급 (가) 3번

문 3. 다음 <국내 대학(원) 재학생 학자금 대출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甲 ~ 丙은 국내 대학(원)의 재학생이다)

<국내 대학(원) 재학생 학자금 대출 조건>

구분		X학자금 대출	Y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	신청 연령	· 35세 이하	· 55세 이하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 C학점 이상 (단,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이수학점 기준 면제)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 C학점 이상 (단, 대학원생,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이수학점 기준 면제)
	가구소득 기준	· 소득 1 ~ 8분위	· 소득 9, 10분위
	신용 요건	· 제한 없음	·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대출 불가
대출 한도	등록금	· 학기당 소요액 전액	· 학기당 소요액 전액
	생활비	· 학기당 150만 원	· 학기당 100만 원
상환 사항	상환 방식 (졸업 후)	·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 이전: 유예 ·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 이후: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원천 징수 ※ 기준소득: 연 □천만 원	· 졸업 직후 매월 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보 기> —

- ㄱ. 34세로 소득 7분위인 대학생 甲이 직전 학기에 14학점을 이수하여 평균 B학점을 받았을 경우 X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ㄴ. X학자금 대출 대상이 된 乙의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 원일 때, 한 학기당 총 45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 ㄷ. 50세로 소득 9분위인 대학원생 丙(장애인)은 신용 요건에 관계없이 Y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ㄹ. 대출금액이 동일하고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X학자금 대출과 Y학자금 대출의 매월 상환금액은 같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2011 민경채 (인) 13번

문 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연결이 서로 잘못된 것은? (단, 음식에서 언급되지 않은 재료는 고려하지 않는다)

채식주의자 중에는 육류와 함께 계란, 유제품(치즈, 버터, 생크림 등) 및 생선조차 먹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때로 육식을 하는 채식주의자도 있다. 또한 채식이라고 하면 채소와 과일 등을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말하는 채식에는 곡물도 포함된다.

아래 표는 채식주의자의 유형별 특성을 분류한 것이다.

채식주의자의 유형	특 성
과식(果食)주의자	모든 식물의 잎이나 뿌리는 섭취하지 않고, 오직 견과류나 과일 등 열매 부분만을 먹는다.
순수 채식주의자	동물로부터 얻은 모든 것을 먹지 않고, 식물로부터 나온 것만을 먹는다.
우유 채식주의자	순수 채식주의자가 먹는 음식에 더하여, 유제품은 먹되 계란은 먹지 않는다.
난류(卵類) 채식주의자	순수 채식주의자가 먹는 음식에 더하여, 계란은 먹되 유제품은 먹지 않는다.
유란(乳卵) 채식주의자	순수 채식주의자가 먹는 음식에 더하여, 유제품과 계란도 먹으며, 우유도 먹는다.
생선 채식주의자	유란 채식주의자가 먹는 음식에 더하여, 생선도 먹는다.
준(準) 채식주의자	생선 채식주의자가 먹는 음식에 더하여, 육류도 그 양을 줄여가며 먹는다.

채식주의자의 유형	음식
① 과식주의자	호두를 으깨어 얹은 모든 생과일
② 우유 채식주의자	단호박 치즈오븐구이
③ 난류 채식주의자	치즈계란토스트
④ 유란 채식주의자	생크림을 곁들인 삶은 계란
⑤ 생선 채식주의자 및 준 채식주의자	연어훈제구이

2012 민경채 (인) 3번

문 3. 다음 글에 근거할 때, <보기>의 甲, 乙 각각의 부양가족 수가 다르게 연결된 것은? (단, 위 각 세대 모든 구성원은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등재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부양의무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부양의무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나.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다.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보 기>

ㄱ. 부양의무자 甲은 배우자, 75세 아버지, 15세 자녀 1명, 20세 자녀 1명, 장애 6급을 가진 39세 처제 1명과 함께 살고 있다.

ㄴ. 부양의무자 乙은 배우자, 58세 장인과 56세 장모, 16세 조카 1명, 18세 동생 1명과 함께 살고 있다.

	甲	乙
①	4명	2명
②	4명	3명
③	5명	2명
④	5명	3명
⑤	5명	4명

2012 민경채 (인) 4번

문 4. 다음 <표>를 근거로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원산지 표시방법

구분	표시방법
(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육류의 원산지 등은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항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1) 국내산의 경우 괄호 안에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거나,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축산물명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국내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 훈제오리 국내산(오리, 일본산)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독일산) 3) 원산지가 다른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를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한다. [예시] 닭갈비(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나)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되는 닭고기	1) 조리한 닭고기를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그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닭고기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2) 1)에 따른 원산지 표시는 위 (가)의 기준에 따른다. [예시] 찜닭(국내산), 양념치킨(브라질산)

※ 수입국가명은 우리나라에 축산물을 수출한 국가명을 말한다.

<보 기>

- ㄱ. 국내산 돼지고기와 프랑스산 돼지고기를 섞은 돼지 갈비를 유통할 때, ‘돼지갈비(국내산과 프랑스산을 섞음)’로 표시한다.
- ㄴ. 덴마크산 돼지를 수입하여 1개월 간 사육한 후 그 삼겹살을 유통할 때, ‘삼겹살 국내산(돼지, 덴마크산)’으로 표시한다.
- ㄷ. 중국산 훈제오리를 수입하여 2개월 후 유통할 때, ‘훈제 오리 국내산(오리, 중국산)’으로 표시한다.
- ㄹ. 국내산 닭을 이용하여 양념치킨으로 조리한 후 배달 판매할 때, ‘양념치킨(국내산)’으로 표시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13 민경채 (인) 7번

문 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의 甲~丁이 권장 시기에 맞춰 정기검진을 받는다면 첫 정기검진까지의 기간이 가장 적게 남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甲~丁은 지금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

암 검진은 암을 조기 발견하여 생존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정기검진의 시작 시기와 주기는 위암은 만 40세부터 2년 주기, 대장암은 만 50세부터 1년 주기, 유방암은 만 40세부터 2년 주기 등이다. 폐암은 흡연자인 경우 만 40세부터 1년 주기로, 비흡연 여성도 만 60세부터 검진을 받아야 한다. 간경변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거나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는 만 30세부터 6개월 간격으로 간암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많은 암환자들이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암 사망 원인 1위인 폐암은 부모나 형제자매 가운데 해당 질병을 앓은 사람이 있으면 발병 확률이 일반인의 1.95배나 된다. 대장암 환자의 30%도 가족력이 있다. 부모나 형제자매 중에 한 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으면 발병 확률은 일반인의 2~3배가 되고, 두 명이 있으면 그 확률은 4~6배로 높아진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유방암도 가족력이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족력이 있으면 대장암은 검진 시기를 10년 앞당겨야 하며, 유방암도 검진 시기를 15년 앞당기고 검사 주기도 1년으로 줄여야 한다.

———<보 기>———

ㄱ. 매운 음식을 자주 먹는 만 38세 남성 甲의 위암 검진
ㄴ.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만 33세 남성 乙의 대장암 검진
ㄷ.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만 25세 여성 丙의 유방암 검진
ㄹ. 흡연자인 만 36세 여성 丁의 폐암 검진

- ① 甲, 乙, 丙, 丁
- ② 甲, 丙, 丁, 乙
- ③ 丙, 甲, 丁, 乙
- ④ 丙, 丁, 乙, 甲
- ⑤ 丁, 乙, 丙, 甲

2013 민경채 (인) 14번

문 1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E 중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은?

甲국의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을 위해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입물품(이하 “지정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유통단계별 물품 거래내역(이하 “유통이력”이라 한다)을 추적·관리하는 제도이다. 유통이력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은 수입자와 유통업자이며, 이들이 지정물품을 양도(판매, 재판매 등)한 경우 유통이력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정물품의 유통이력 신고 의무는 아래 <표>의 시행일자부터 발생한다.

- 수입자: 지정물품을 수입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자
- 유통업자: 수입자로부터 지정물품을 양도받아 소매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양도하는 자(도매상 등)
- 소매업자: 지정물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 최종소비자: 지정물품의 형태를 변형해서 사용하는 자를 포함하는 최종단계 소비자(개인, 식당, 제조공장 등)

<표>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시행일자	지정물품
2009.8.1.	공업용 천일염, 냉동복어, 안경테
2010.2.1.	황기,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 선글라스
2010.8.1.	구기자, 당귀, 꽃감, 냉동송어, 냉동조기
2011.3.1.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 천궁, 설탕
2012.5.1.	산수유, 오미자
2013.2.1.	냉동옥돔, 작약, 황금

※ 위의 <표>에서 제시되지 않은 물품은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수입한 선글라스를 2009년 10월 안경전문점에 판매한 안경테 도매상 A
- 당귀를 수입하여 2010년 5월 동네 한약방에 판매한 한약재 전문 수입자 B
- 구기자를 수입하여 2012년 2월 건강음료 제조공장에 판매한 식품 수입자 C
- 도매상으로부터 수입 냉동복어를 구입하여 만든 매운탕을 2011년 1월 소비자에게 판매한 음식점 주인 D
- 수입자로부터 냉동옥돔을 구입하여 2012년 8월 음식점에 양도한 도매상 E

2013 민경채 (인) 17번

문 1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맥아음료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한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는 것을 맥주라고 한다. 수입 맥아음료에 대한 관세율 및 주세율은 다음과 같다.

○ 관세의 부과기준 및 관세율

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아음료(알코올 함유량 100분의 0.5 이하 포함): 8%

나. 맥주(알코올 함유량 100분의 0.5 초과): 30 %

○ 주세의 부과기준 및 주세율

알코올 함유량이 100분의 1 이상인 맥주: 72%

〈보기〉

7. 알코올 함유량이 1 %인 수입 맥아음료는 30 %의 관세와 72 %의 주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ㄴ. 주세 납부 대상이지만 관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수입
맥아음료가 있다.

ㄷ. 알코올 함유량이 0.8 %인 수입 맥아음료는 8 %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 ① $\neg$
- ② $\perp$
- ③ $\neg, \perp$
- ④ $\perp, \perp$
- ⑤ $\neg, \perp, \perp$

2014 민경채 (A) 5번

문 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사업대상

○ 0세 ~ 만 12세 취약계층 아동

※ 0세는 출생 이전의 태아와 임산부를 포함

※ 초등학교 재학생이라면 만 13세 이상도 포함

☐ 운영계획

1. 지역별 인력구성

○ 전담공무원 : 3명

○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 4명 이상

※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대상 아동 수에 따라 최대 7명까지 배치 가능

2. 사업예산

○ 시·군·구별 최대 3억 원(국비 100%) 한도에서 사업 환경을 반영하여 차등지원

※ 단, 사업예산의 최대 금액은 기존사업지역 3억 원, 신규 사업지역 1억 5천만 원으로 제한

<보 기>

ㄱ. 임신 6개월째인 취약계층 임산부는 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ㄴ. 내년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만 14세 취약계층 학생은 사업대상에 해당한다.

ㄷ. 대상 아동 수가 많은 지역이더라도 해당 사업의 전담 공무원과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합한 인원은 10명을 넘을 수 없다.

ㄹ. 해당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는 사업 예산을 최대 3억 원까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4 민경채 (A) 7번

문 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은 다음과 같다.

1. 종교시설(사찰·제실·사당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6,000\text{ m}^2$ 이상인 것
 -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text{ m}^2$ 이상인 것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m^2 이상인 것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m^2 이상인 것
 4.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text{ m}^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갹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의 수용거실
 - 경찰서 유치장
- ① 경찰서 민원실
 - ② 수용인원이 500명인 사찰의 모든 층
 - ③ 연면적 $15,000\text{ m}^2$ 인 5층 복합건축물의 모든 층
 - ④ 2층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text{ m}^2$ 인 물류터미널의 모든 층
 - ⑤ 외부에서 입주한 편의점의 바닥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 합계가 500 m^2 인 정신의료기관의 모든 층

2014 민경채 (A) 8번

문 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이며 부과대상은 무엇입니까?
-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 또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수증자가 국내거주자이면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재산’, 수증자가 국외거주자이면 증여받은 ‘국내소재 재산, 국외 예금과 국외 적금’이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 ☐ 증여자가 예외적으로 수증자와 함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수증자가 국외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 또한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보 기> —

- ㄱ. 甲이 국내거주자 장남에게 자신의 강릉 소재 빌딩 (시가 10억 원 상당)을 증여한 경우, 甲은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ㄴ. 乙이 평생 모은 재산 10억 원을 국내소재 사회복지법인 丙(비영리법인)에게 기부한 경우, 丙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ㄷ. 丁이 자신의 국외 예금(10억 원 상당)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丁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 ㄹ. 戊로부터 10억 원을 증여받은 국내거주자 己가 현재 파산상태로 인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己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014 민경채 (A) 16번

문 1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례>의 甲과 乙 사업이 각각 받아야 하는 평가의 수는?

○ A 평가

평가의 대상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 중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국비)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국가연구개발 사업,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이다.

단,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공공청사 신·증축사업, 도로·상수도 등 기존 시설의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법령: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의미한다.

○ B 평가

신규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것이다. 평가 대상은 도시개발사업, 도로 건설사업, 철도건설사업(도시철도 포함), 공항건설사업이다.

○ C 평가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신규사업을 시행할 경우, 미리 주변지역의 교통체계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평가이다. 평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종 류	기 준
도시개발사업	부지면적 10만 m ² 이상
철도건설사업	정거장 1개소 이상, 총길이 5 km 이상

————— <사 례> —————

甲 사업: ○○광역시가 시행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부지면적 12만 5천 m²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신규 도시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520억 원 중 100억 원을 국비로, 420억 원을 시비로 조달함

乙 사업: 최근 국회에서 제정한 ‘△△광역시 철도건설특별 법률’에 따라 △△광역시에 정거장 7개소, 총길이 18 km의 철도를 건설하는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4,300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음

	甲 사업	乙 사업
①	2	2
②	2	3
③	3	1
④	3	2
⑤	3	3

253

253

2014 민경채 (A) 17번

문 1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례>의 甲 ~ 丁 중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자이어야 한다.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법인 포함)을 말한다.

○ 계속성·반복성을 가져야 한다.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공급이란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사업의 독립성이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가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종속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사 례>

○ 용돈이 필요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200만 원 가치의 카메라 1대를 인터넷 중고매매 카페에 매물로 1회 등록한 甲

○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영업사원 乙

○ 결식 어린이 돕기 성금 모금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을 8년째 판매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丙

○ 자신이 개발한 발명품을 10년 동안 직접 판매하면서 생활비 정도를 벌고 있는 丁

- ① 甲, 乙
- ② 甲, 丙
- ③ 乙, 丙
- ④ 乙, 丁
- ⑤ 丙, 丁

2014 민경채 (A) 24번

문 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양한 무게의 짐 12개를 아래의 방법에 따라 최소 개수의 상자에 넣으려고 한다. 각각의 짐 무게는 아래와 같고, 좌측부터 순서대로 도착했다. 하나의 짐을 분리하여 여러 상자에 나누어 넣을 수 없으며, 포장된 상자에는 짐을 추가로 넣을 수 없다.

6, 5, 5, 4, 2, 3, 6, 5, 4, 5, 7, 8 (단위 : kg)

방법 1. 도착한 순서대로 짐을 상자에 넣는다. 짐을 상자에 넣어 10kg이 넘을 경우, 그 짐을 넣지 않고 상자를 포장한다. 그 후 짐을 다음 상자에 넣는다.

방법 2. 모든 짐을 무게 순으로 재배열한 후 무거운 짐부터 순서대로 상자에 넣는다. 짐을 상자에 넣어 10kg이 넘을 경우, 그 짐을 넣지 않고 상자를 포장한다. 그 후 짐을 다음 상자에 넣는다.

—————<보 기>—————

ㄱ. 방법 1과 방법 2의 경우, 필요한 상자의 개수가 다르다.

ㄴ. 방법 1의 경우, 10 kg까지 채워지지 않은 상자들에 들어간 짐의 무게의 합은 50 kg이다.

ㄷ. 방법 2의 경우, 10 kg이 채워진 상자의 수는 2개이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2015 민경채 (인) 4번

문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재산등록 의무자(A~E)의 재산등록 대상으로 옳은 것은?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주기적으로 등록·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 및 변동사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부정이 개입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직 사회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 재산등록 의무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의 일반직·지방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등
- 등록대상 친족의 범위: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 등록대상 재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 지분,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예금·증권·채권·채무, 품목당 5백만 원 이상의 보석류,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 까지 직계로 이어 내려온 혈족

※ 직계비속: 자녀, 손자, 증손 등 자기로부터 아래로 직계로 이어 내려가는 혈족
- ① 시청에 근무하는 4급 공무원 A의 동생이 소유한 아파트
 - ② 시장 B의 결혼한 딸이 소유한 1,500만 원의 정기예금
 - ③ 도지사 C의 아버지가 소유한 연간 6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④ 정부부처 4급 공무원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D의 아들이 소유한 승용차
 - ⑤ 정부부처 4급 공무원 E의 이혼한 전처가 소유한 1,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2015 민경채 (인) 10번

문 10. ○○시의 <버스정류소 명칭 관리 및 운영계획>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단, 모든 정류소는 ○○시 내에 있다)

<버스정류소 명칭 관리 및 운영계획>

정류소 명칭 부여기준

글자 수 : 15자 이내로 제한

명칭 수 : 2개 이내로 제한

정류소 명칭은 지역대표성 명칭을 우선으로 부여

2개를 병기할 경우 우선순위대로 하되, · 으로 구분

우선순위	지역대표성 명칭			특정법인(개인) 명칭	
	1	2	3	4	5
명칭	고유지명	공공기관, 공공시설	관광지	시장, 아파트, 상가, 빌딩	기타 (회사, 상점 등)

정류소 명칭 변경 절차

자치구에서 명칭 부여기준에 맞게 홀수달 1일에 신청

홀수달 1일에 하지 않은 신청은 그 다음 홀수달 1일 신청으로 간주

부여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시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

관련기관은 정류소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를 수행

관련기관은 정비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명칭 변경 신청 (자치구)

홀수달 1일 신청

명칭 변경 승인 (시장)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 (관련기관)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

정비결과 보고 (관련기관)

정비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

※ 단, 주말 및 공휴일도 일수(日數)에 산입하며, 당일(신청일, 승인일, 정비완료일)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자치구가 7월 2일에 정류소 명칭 변경을 신청한 경우, ○○시의 시장은 늦어도 7월 7일까지는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자치구가 8월 16일에 신청한 정류소 명칭 변경이 승인될 경우, 늦어도 9월 16일까지는 정비결과가 시장에게 보고된다.

③ ‘가나시영3단지’라는 정류소 명칭을 ‘가나서점·가나3단지 아파트’로 변경하는 것은 명칭 부여기준에 적합하다.

④ ‘다라중학교·다라동1차아파트’라는 정류소 명칭은 글자 수가 많아 명칭 부여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⑤ 명칭을 변경하는 정류소에 ‘마바구도서관·마바시장·마바물산’이라는 명칭이 부여될 수 있다.

257

257

2015 민경채 (인) 21번

문 21. 다음 <정렬 방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정렬 대상>에서 두 번째로 위치를 교환해야 하는 두 수로 옳은 것은?

<정렬 방법>

아래는 정렬되지 않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수를 작은 것에서 큰 것 순으로 정렬하는 방법이다.

(1) 가로로 나열된 수 중 가장 오른쪽의 수를 피벗(pivot)이라 하며, 나열된 수에서 제외시킨다.

예) 나열된 수가 5, 3, 7, 1, 2, 6, 4라고 할 때, 4가 피벗이고 남은 수는 5, 3, 7, 1, 2, 6이다.

(2) 피벗보다 큰 수 중 가장 왼쪽의 수를 찾는다.

예) 5, 3, 7, 1, 2, 6에서는 5이다.

(3) 피벗보다 작은 수 중 가장 오른쪽의 수를 찾는다.

예) 5, 3, 7, 1, 2, 6에서는 2이다.

(4) (2)와 (3)에서 찾은 두 수의 위치를 교환한다.

예) 5와 2를 교환하여(첫 번째 위치 교환) 2, 3, 7, 1, 5, 6이 된다.

(5) 피벗보다 작은 모든 수가 피벗보다 큰 모든 수보다 왼쪽에 위치할 때까지 (2)~(4)의 과정을 반복한다.

예) 2, 3, 7, 1, 5, 6에서 7은 피벗 4보다 큰 수 중 가장 왼쪽의 수이며, 1은 피벗 4보다 작은 수 중 가장 오른쪽의 수이다. 이 두 수를 교환하면(두 번째 위치 교환) 2, 3, 1, 7, 5, 6이 되어, 피벗 4보다 작은 모든 수는 피벗 4보다 큰 모든 수보다 왼쪽에 있다.

⋮

(후략)

<정렬 대상>

15, 22, 13, 27, 12, 10, 25, 20

- ① 15와 10
- ② 20과 13
- ③ 22와 10
- ④ 25와 20
- ⑤ 27과 12

2016 민경채 (5) 4번

문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례>의 ‘공공누리 마크’ 이용조건에 부합하는 甲의 행위는?

K국 정부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공누리’라는 표시기준을 정하였고,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 이용조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마크’를 만들었다. 그 의미는 아래와 같다.

공공누리 마크	이용조건 의미
	공공저작물을 일정한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하는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예컨대 “본 저작물은 ○○공공기관에서 △△년 작성하여 개방한 □□저작물을 이용하였음”과 같이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은 금지되고 비상업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 이 마크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용자는 해당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및 비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된다. 예컨대 공공저작물의 번역·편곡·변형·각색 등이 금지된다. - 이 마크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용자는 해당 공공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을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사 례> ———

甲은 환경관련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A공공기관이 발간한 「환경백서」에 수록되어 있는 사진(이하 ‘사진저작물’)과 그 설명문을 근거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환경백서」에는 다음과 같은 공공누리 마크가 표시되어 있다.



-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사진저작물과 그 설명문을 그대로 보고서에 수록하는 행위
- 사진저작물의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변형하여 이를 보고서에 수록하는 행위
- 상업적인 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출처를 표시하고 사진저작물과 그 설명문을 그대로 수록하는 행위
-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진저작물을 다른 사진과 합성하여 수록하는 행위
- 출처를 표시하고 사진저작물의 설명문을 영어로 번역하여 그 사진저작물과 번역문을 보고서에 수록하는 행위

2016 민경채 (5) 8번

문 8. 다음 <설명>을 근거로 <수식>을 계산한 값은?

<설 명>

연산자 A, B, C, D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좌우에 있는 두 수를 더한다. 단, 더한 값이 10 미만이면
좌우에 있는 두 수를 곱한다. (예: 2 A 3 = 6)
B: 좌우에 있는 두 수 가운데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단, 두 수가 같거나 뺀 값이 10 미만이면 두 수를 곱한다.
C: 좌우에 있는 두 수를 곱한다. 단, 곱한 값이 10 미만이면
좌우에 있는 두 수를 더한다.
D: 좌우에 있는 두 수 가운데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눈다.
단, 두 수가 같거나 나눈 값이 10 미만이면 두 수를
곱한다.

※ 연산은 ‘()’, ‘{ }’의 순으로 한다.

<수 식>

{(1 A 5) B (3 C 4)} D 6

- ① 10
- ② 12
- ③ 90
- ④ 210
- ⑤ 360

2018 민경채 (가) 8번

문 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소아기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포함된 백신(A ~ C)은 지속적인 항체 반응을 위해서 2회 이상 접종이 필요하다.

최소 접종연령(첫 접종의 최소연령) 및 최소 접종간격을 지켰을 때 적절한 예방력이 생기며, 이러한 예방접종을 유효하다고 한다. 다만 최소 접종연령 및 최소 접종간격에서 4일 이내로 앞당겨서 일찍 접종을 한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만약 5일 이상 앞당겨서 일찍 접종했다면 무효로 간주하고 최소 접종연령 및 최소 접종간격에 맞춰 다시 접종하여야 한다.

다음은 각 백신의 최소 접종연령 및 최소 접종간격을 나타낸 표이다.

종류	최소 접종연령	최소 접종간격			
		1, 2차 사이	2, 3차 사이	3, 4차 사이	4, 5차 사이
백신 A	12개월	12개월	—	—	—
백신 B	6주	4주	4주	6개월	—
백신 C	6주	4주	4주	6개월	6개월

다만 백신 B의 경우 만 4세 이후에 3차 접종을 유효하게 했다면, 4차 접종은 생략한다.

————— <보 기> —————

ㄱ. 만 2세가 되기 전에 백신 A의 예방접종을 2회 모두 유효하게 실시할 수 있다.

ㄴ. 생후 45개월에 백신 B를 1차 접종했다면, 4차 접종은 반드시 생략한다.

ㄷ. 생후 40일에 백신 C를 1차 접종했다면, 생후 60일에 한 2차 접종은 유효하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ㄷ

2018 민경채 (가) 25번

문 25. 다음 <상황>과 <목차>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상 황>

○ 책 A는 <목차>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 비어 있는 쪽은 없다.

○ 책 A의 각 쪽은 모두 제1절부터 제14절까지 14개의 절 중 하나의 절에 포함된다.

○ 甲은 3월 1일부터 책 A를 읽기 시작해서, 1쪽부터 마지막 쪽인 133쪽까지 순서대로 읽는다.

○ 甲은 한번 읽기 시작한 절은 그날 모두 읽되, 하루에 최대 40쪽을 읽을 수 있다.

○ 甲은 절 제목에 ‘과학’ 또는 ‘정책’이 들어간 절을 하루에 한 개 이상 읽는다.

<목 차>

○ 시민참여

제1절 시민참여의 등장 배경과 개념적 특성 1

제2절 과학기술정책의 특성과 시민참여 4

제3절 결 론 21

○ 거버넌스 구조

제4절 서 론 31

제5절 제3세대 과학기술혁신 정책이론과 거버넌스 ... 34

제6절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 구조분석 모형 49

제7절 결 론 62

○ 연구기관 평가지표

제8절 서 론 65

제9절 지적자본의 개념과 성과평가로의 활용가능성 68

제10절 평가지표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 89

제11절 결 론 92

○ 기초연구의 경제적 편익

제12절 과학기술연구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 104

제13절 공적으로 투자된 기초연구의 경제적 편익 ... 107

제14절 맺음말: 정책적 시사점 130

<보 기>

ㄱ. 3월 1일에 甲은 책 A를 20쪽 이상 읽는다.

ㄴ. 3월 3일에 甲이 제6절까지 읽었다면, 甲은 3월 5일까지 책 A를 다 읽을 수 있다.

ㄷ. 甲이 책 A를 다 읽으려면 최소 5일 걸린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2019 민경채 (나) 9번

문 9.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K국에서는 모든 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다.

구분	세액(원)
○ 자본금액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
○ 자본금액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법인으로서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
○ 자본금액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 ○ 자본금액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법인으로서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
○ 자본금액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법인으로서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 ○ 자본금액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법인으로서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
○ 그 밖의 법인	50,000

<상 황>

법인	자본금액(억 원)	종업원 수(명)
甲	200	?
乙	20	?
丙	?	200

<보 기>

- ㄱ. 甲이 납부해야 할 주민세 최소 금액은 20만 원이다.

ㄴ. 乙의 종업원이 50명인 경우 10만 원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ㄷ. 丙이 납부해야 할 주민세 최소 금액은 10만 원이다.

ㄹ. 甲, 乙, 丙이 납부해야 할 주민세 금액의 합계는 최대 110만 원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2019 민경채 (나) 19번

문 1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K국의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최소 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연령	보육교사 대 영유아비율
(1) 만 1세 미만	1 : 3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	1 : 5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	1 : 7

위와 같이 각 연령별로 반을 편성하고 각 반마다 보육교사를 배치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다.

혼합반 편성	보육교사 대 영유아비율
(1)과 (2)	1 : 3
(2)와 (3)	1 : 5
(1)과 (3)	편성 불가능

————— <보 기> —————

ㄱ. 만 1세 미만 영유아 4명,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 영유아 5명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를 최소 3명 배치해야 한다.

ㄴ.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 영유아 6명,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 영유아 12명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를 최소 3명 배치해야 한다.

ㄷ. 만 1세 미만 영유아 1명,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 영유아 2명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를 최소 1명 배치해야 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ㄷ

2019 민경채 (나) 20번

문 20.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K대학교 교과목 성적 평정(학점)은 총점을 기준으로 상위 점수부터 하위 점수까지 A⁺, A⁰, B⁺ ~ F 순으로 한다. 각 등급별 비율은 아래 <성적 평정 기준표>를 따르되, 상위 등급의 비율을 최대 기준보다 낮게 배정할 경우에는 잔여 비율을 하위 등급 비율에 가산하여 배정할 수 있다. 예컨대 A등급 배정 비율은 10 ~ 30 %이나, 만일 25 %로 배정한 경우에는 잔여 비율인 5 %를 하위 등급 하나에 배정하거나 여러 하위 등급에 나누어 배정할 수 있다. 한편 A, B, C, D 각 등급 내에서 +와 0의 비율은 교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성적 평정 기준표>

등급	A		B		C		D		F
학점	A ⁺	A ⁰	B ⁺	B ⁰	C ⁺	C ⁰	D ⁺	D ⁰	
비율 (%)	10 ~ 30		20 ~ 35		20 ~ 40		0 ~ 40		0 ~ 40

※ 평정대상 총원 중 해당 등급 인원 비율

<상 황>

<△△교과목 성적산출 자료>

성명	총점	순위	성명	총점	순위
양다경	99	1	양대원	74	11
이지후	97	2	권치원	72	12
이태연	93	3	김도윤	68	13
남소연	89	4	권세연	66	14
김운채	86	5	남원중	65	15
엄선민	84	6	권수진	64	16
이태근	79	7	양호정	61	17
김경민	78	8	정호채	59	18
이연후	77	9	이신영	57	19
엄주용	75	10	전희연	57	19

※ 평정대상은 총 20명임

<보 기>

ㄱ. 평정대상 전원에게 C⁺ 이상의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ㄴ. 79점을 받은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학점은 B⁰이다.
ㄷ. 5명에게 A등급을 부여하면, 최대 8명의 학생에게 B⁺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ㄹ. 59점을 받은 학생에게 부여할 수 있는 학점은 C⁺, C⁰, D⁺, D⁰, F 중 하나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19 민경채 (나) 23번

문 23.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시는 A정류장을 출발지로 하는 40인승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승객은 정류장에서만 시내버스에 승·하차할 수 있다. 또한 시내버스는 좌석제로 운영되어 버스에 빈 좌석이 없는 경우 승객은 더 이상 승차할 수 없으며, 탑승객 1인은 1개의 좌석을 차지한다.

한편 ○○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내버스의 구간별 혼잡도 정보를 제공한다. 탑승객이 0~5명일 때는 ‘매우쾌적’, 6~15명일 때는 ‘쾌적’, 16~25명일 때는 ‘보통’, 26~35명일 때는 ‘혼잡’, 36~40명일 때는 ‘매우혼잡’으로 표시된다.

구간별 혼잡도는 시내버스의 한 정류장에서 다음 정류장까지 탑승객의 수를 측정하여 표시한다. 예를 들어 ‘A - B’ 구간의 혼잡도는 A정류장에서 출발한 후 B정류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탑승객의 수에 따라 표시된다.

※ 버스기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상 황>

A정류장에서 07:00에 출발한 시내버스의 <승·하차내역>과 <구간별 혼잡도 정보>는 다음과 같다.

<승·하차내역>

정류장	승차(명)	하차(명)
A	20	0
B	(㉠)	10
C	5	()
D	()	10
E	15	()
F	0	()

※ 승·하차는 동시에 이루어진다.

<구간별 혼잡도 정보>

구간	표시
A - B	(㉡)
B - C	매우혼잡
C - D	매우혼잡
D - E	(㉢)
E - F	보통

- ① C정류장에서 하차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 ② E정류장에서 하차한 사람은 10명 이하이다.
- ③ ㉠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솟값과 최댓값의 합은 55이다.
- ④ ㉡은 혼잡이다.
- ⑤ ㉢은 혼잡 또는 매우혼잡이다.

2020 민경채 (가) 13번

문 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A국은 다음 5가지 사항을 반영하여 특허법을 제정하였다.

- (1) 새로운 기술에 의한 발명을 한 사람에게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주는 제도와 정부가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보상제도 중, A국은 전자를 선택하였다.
- (2) 특허권을 별도의 특허심사절차 없이 부여하는 방식과 신청에 의한 특허심사절차를 통해 부여하는 방식 중, A국은 후자를 선택하였다.
- (3) 새로운 기술에 의한 발명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세계에서의 새로운 기술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국내에서의 새로운 기술을 기준으로 하는 것 중, A국은 후자를 선택하였다.
- (4) 특허권의 효력발생범위를 A국 영토 내로 한정하는 것과 A국 영토 밖으로 확대하는 것 중, A국은 전자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특허권이 부여된 발명을 A국 영토 내에서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다.
- (5) 특허권의 보호기간을 한정하는 방법과 한정하지 않는 방법 중, A국은 전자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 보호기간은 특허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10년으로 한정하였다.

- ① A국에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로 알코올램프를 발명한 자는 그 기술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라도 A국에서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 ② A국에서 특허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11년이 지난 손전등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발명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 ③ A국에서 새로운 기술로 석유램프를 발명한 자는 A국 정부로부터 그 발명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④ A국에서 새로운 기술로 필기구를 발명한 자는 특허심사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A국 내에서 다른 사람이 그 필기구를 무단으로 제조·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 ⑤ A국에서 망원경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받은 자는 다른 나라에서 그 망원경을 무단으로 제조 및 판매한 자로부터 A국 특허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2020 민경채 (가) 20번

문 2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다음과 같이 9개의 도시(A ~ I)가 위치하고 있다.

A	B	C
D	E	F
G	H	I

○ A ~ I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월부터 차량 운행 제한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제한 차량의 도시 진입 및 도시 내 운행이 금지된다.

○ 모든 차량은 4개의 숫자로 된 차량번호를 부여받으며 각 도시의 제한 요건은 아래와 같다.

도시	제한 차량	
A, E, F, I	홀수일	차량번호가 홀수로 끝나는 차량
	짝수일	차량번호가 짝수로 끝나는 차량
B, G, H	홀수일	차량번호가 짝수로 끝나는 차량
	짝수일	차량번호가 홀수로 끝나는 차량
C, D	월요일	차량번호가 1 또는 6으로 끝나는 차량
	화요일	차량번호가 2 또는 7로 끝나는 차량
	수요일	차량번호가 3 또는 8로 끝나는 차량
	목요일	차량번호가 4 또는 9로 끝나는 차량
	금요일	차량번호가 0 또는 5로 끝나는 차량
	토·일요일	없음

※ 단, 0은 짝수로 간주한다.

○ 도시 간 이동 시에는 도시 경계선이 서로 맞닿아 있지 않은 도시로 바로 이동할 수 없다. 예컨대 A시에서 E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B시나 D시를 거쳐야 한다.

—————<보 기>—————

ㄱ. 甲은 5월 1일(토)에 E시에서 차량번호가 1234인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ㄴ. 乙은 5월 6일(목)에 차량번호가 5639인 차량으로 A시에서 D시로 이동할 수 있다.

ㄷ. 丙은 5월 중 어느 하루에 동일한 차량으로 A시에서 H시로 이동할 수 있다.

ㄹ. 丁은 5월 15일(토)에 차량번호가 9790인 차량으로 D시에서 F시로 이동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2020 민경채 (가) 25번

문 2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돌이가 할 수 없는 행위는?

‘AD카드’란 올림픽 및 패럴림픽에서 정해진 구역을 출입하거나 차량을 탑승하기 위한 권한을 증명하는 일종의 신분증이다. 모든 관계자들은 반드시 AD카드를 패용해야 해당 구역에 출입하거나 차량을 탑승할 수 있다. 아래는 AD카드에 담긴 정보에 대한 설명이다.

< AD카드 예시 >

대회구분	
성명 / Name	
탐승권한 코드	
시설입장권한 코드	
특수구역 접근권한 코드	

대회구분	○ 올림픽 AD카드에는 다섯 개의 원이 겹쳐진 ‘오륜기’가, 패럴림픽 AD카드에는 세 개의 반달이 나열된 ‘아지토스’가 부착된다. ○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올림픽 AD카드만이, 패럴림픽 기간 동안에는 패럴림픽 AD카드만이 유효하다. ○ 두 대회의 기간은 겹치지 않는다.												
탐승권한	○ AD카드 소지자가 탑승 가능한 교통서비스를 나타낸다. 탑승권한 코드는 복수로 부여될 수 있다. <table border="1" data-bbox="351 1575 811 1761"> <thead> <tr> <th>코드</th><th>탐승 가능 교통서비스</th></tr> </thead> <tbody> <tr> <td>T1</td><td>VIP용 지정차량</td></tr> <tr> <td>TA</td><td>선수단 셔틀버스</td></tr> <tr> <td>TM</td><td>미디어 셔틀버스</td></tr> </tbody> </table>	코드	탐승 가능 교통서비스	T1	VIP용 지정차량	TA	선수단 셔틀버스	TM	미디어 셔틀버스				
코드	탐승 가능 교통서비스												
T1	VIP용 지정차량												
TA	선수단 셔틀버스												
TM	미디어 셔틀버스												
시설입장 권한	○ AD카드 소지자가 입장 가능한 시설을 나타낸다. 시설입장권한 코드는 복수로 부여될 수 있다. <table border="1" data-bbox="351 1841 811 2077"> <thead> <tr> <th>코드</th><th>입장 가능 시설</th></tr> </thead> <tbody> <tr> <td>IBC</td><td>국제 방송센터</td></tr> <tr> <td>HAL</td><td>알파인 경기장</td></tr> <tr> <td>HCC</td><td>컬링센터</td></tr> <tr> <td>OFH</td><td>올림픽 패밀리 호텔</td></tr> <tr> <td>ALL</td><td>모든 시설</td></tr> </tbody> </table>	코드	입장 가능 시설	IBC	국제 방송센터	HAL	알파인 경기장	HCC	컬링센터	OFH	올림픽 패밀리 호텔	ALL	모든 시설
코드	입장 가능 시설												
IBC	국제 방송센터												
HAL	알파인 경기장												
HCC	컬링센터												
OFH	올림픽 패밀리 호텔												
ALL	모든 시설												
특수구역 접근권한	○ AD카드 소지자가 시설 내부에서 접근 가능한 특수구역을 나타낸다. 특수구역 접근권한 코드는 복수로 부여될 수 있다. <table border="1" data-bbox="351 2077 811 2233"> <thead> <tr> <th>코드</th><th>접근 가능 구역</th></tr> </thead> <tbody> <tr> <td>2</td><td>선수준비 구역</td></tr> <tr> <td>4</td><td>프레스 구역</td></tr> <tr> <td>6</td><td>VIP 구역</td></tr> </tbody> </table>	코드	접근 가능 구역	2	선수준비 구역	4	프레스 구역	6	VIP 구역				
코드	접근 가능 구역												
2	선수준비 구역												
4	프레스 구역												
6	VIP 구역												

- <상 황>

갑돌이는 올림픽 및 패럴림픽 관계자이다. 다음은
갑돌이가 패용한 AD카드이다.

- ① 패럴림픽 기간 동안 알파인 경기장에 들어간다.
- ② 패럴림픽 기간 동안 VIP용 지정차량에 탑승한다.
- ③ 올림픽 기간 동안 올림픽 패밀리 호텔에 들어간다.
- ④ 올림픽 기간 동안 컬링센터 내부에 있는 선수준비 구역에 들어간다.
- ⑤ 올림픽 기간 동안 미디어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한 후 국제 방송센터에 들어간다.

2021 민경채 (나) 7번

문 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지역에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다. 남자는 4개의 부족인 ‘잇파이·굼보·물으리·굿피’로 나뉘어 있고, 여자도 4개의 부족인 ‘잇파타·뿌타·마타·카포타’로 나뉘어 있다. 아래 <표>는 결혼을 할 수 있는 부족과 그 사이에서 출생하는 자녀가 어떤 부족이 되는지를 나타낸다. 예컨대 ‘잇파이’ 남자는 ‘카포타’ 여자와만 결혼할 수 있고, 그 사이에 낳은 아이가 남아면 ‘물으리’, 여아면 ‘마타’로 분류된다. 모든 부족에게는 결혼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부족이 1:1로 대응하여 존재한다.

<표>

결혼할 수 있는 부족		자녀의 부족	
남자	여자	남아	여아
잇파이	카포타	물으리	마타
굼보	마타	굿피	카포타
물으리	뿌타	잇파이	잇파타
굿피	잇파타	굼보	뿌타

——<보 기>——

ㄱ. 물으리와 뿌타의 친손자는 뿌타와 결혼할 수 있다.
ㄴ. 잇파이와 카포타의 친손자는 굿피이다.
ㄷ. 굼보와 마타의 외손녀는 카포타이다.
ㄹ. 굿피와 잇파타의 친손녀는 물으리와 결혼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ㄷ, ㄴ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021 민경채 (나) 10번

문 10.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부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 사전평가는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진행한다.

- 신청기한: 1월 31일(상반기), 7월 31일(하반기)

- 평가기간: 2월 1일 ~ 4월 30일(상반기)

8월 1일 ~ 10월 31일(하반기)
- 사전평가 결과는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에 대해 3회 연속으로 사전평가를 신청하여 모두 ‘부적정’으로 판정받았다면, 그 박물관·미술관 설립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사전평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 사전평가 결과 ‘적정’으로 판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립비의 최대 40 %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상 황>

아래의 <표>는 지방자치단체 A ~ C가 설립하려는 공립 박물관·미술관과 건립비를 나타낸 것이다.

<표>

지방자치단체	설립 예정 공립 박물관·미술관	건립비(원)	
		부지매입비	건물건축비
A	甲미술관	30억	70억
B	乙박물관	40억	40억
C	丙박물관	10억	80억

<보 기>

- ㄱ. 甲미술관을 국비 지원 없이 설립하기로 했다면, A는 사전평가를 거치지 않고도 甲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 ㄴ. 乙박물관이 사전평가에서 ‘적정’으로 판정될 경우, B는 최대 32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ㄷ. 丙박물관이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사전평가에서 모두 ‘부적정’으로 판정된 경우, C는 丙박물관에 대한 2021년 상반기 사전평가를 신청할 수 없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021 7급 (나) 16번

문 1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민원의 종류
법정민원(인가·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사실·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질의민원(법령·제도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건의민원(행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기타민원(그 외 상담·설명 요구, 불편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구분함
- 민원의 신청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음)로 해야 하나,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함
- 민원의 접수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함(단, 기타민원, 우편 및 전자문서로 신청한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음)
- 민원의 이송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함
- 처리결과와 통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단,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음)
-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면 그 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바로 종결 처리할 수 있음

- <상 황> —
- 甲은 인근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불편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A시에 제기하려고 한다.
 - 乙은 자신의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을 A시에 제기하려고 한다.

- ① 甲은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을 신청할 수 없다.
- ② 乙은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할 수 없다.
- ③ 甲이 신청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 사항인 경우라도, A시는 해당 민원을 이송 없이 처리할 수 있다.
- ④ A시는 甲이 신청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 ⑤ 乙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이미 2번 제출하여 처리결과를 통지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청한 경우, A시는 해당 민원을 바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2021 7급 (나) 20번

문 20.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업 공모 지침 수정안>의 밑줄 친 ㉠~㉣ 중 ‘관계부처 협의 결과’에 부합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대학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담당하는 A주무관은 신청 조건과 평가지표 및 배점을 포함한 <사업 공모 지침 수정안>을 작성하였다. 평가지표는 I~IV의 지표와 그 하위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 공모 지침 수정안>

㉠ □ 신청 조건

최소 1만㎡ 이상의 사업부지 확보. 단, 사업부지에는 건축물이 없어야 함

□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지표	배점	
	현행	수정
㉡ I. 개발 타당성	20	25
- 개발계획의 합리성	10	10
- 관련 정부사업과의 연계가능성	5	10
- 학습여건 보호 가능성	5	5
㉢ II. 대학의 사업 추진 역량과 의지	10	15
- 혁신파크 입주기업 지원 방안	5	5
- 사업 전담조직 및 지원체계	5	5
- 대학 내 주체 간 합의 정도	-	5
㉣ III. 기업 유치 가능성	10	10
- 기업의 참여 가능성	7	3
- 참여 기업의 재무건전성	3	7
㉤ IV. 시범사업 조기 활성화 가능성	10	삭제
- 대학 내 주체 간 합의 정도	5	이동
- 부지 조기 확보 가능성	5	삭제
합계	50	50

<상 황>

A주무관은 <사업 공모 지침 수정안>을 작성한 후 뒤늦게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전달받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학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신청 사업 부지 안에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어도 신청 허용

○ 도시재생뉴딜사업, 창업선도대학 등 ‘관련 정부사업과의 연계가능성’ 평가비중 확대

○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시범사업 조기 활성화와 관련된 평가지표를 삭제하되 ‘대학 내 주체 간 합의 정도’는 타 지표로 이동하여 계속 평가

○ 논의된 내용 이외의 하위 지표의 항목과 배점은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현행 유지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2022 7급 (가) 11번

문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네 번째로 보고되는 개정안은?

△△처에서 소관 법규 개정안 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보고회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 법규 체계 순위에 따라 법 - 시행령 - 시행규칙의 순서로 보고한다. 법규 체계 순위가 같은 개정안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소관 부서명의 가나다순으로 보고한다.
- 한 부서에서 보고해야 하는 개정안이 여럿인 경우, 해당 부서의 첫 번째 보고 이후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의 나머지 소관 개정안을 법규 체계 순위에 따라 연달아 보고한다.
- 이상의 모든 기준과 무관하게 보고자가 국장인 경우 가장 먼저 보고한다.

보고 예정인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명	소관 부서	보고자
A법 개정안	예산담당관	甲사무관
B법 개정안	기획담당관	乙과장
C법 시행령 개정안	기획담당관	乙과장
D법 시행령 개정안	국제화담당관	丙국장
E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산담당관	甲사무관

- ① A법 개정안
- ② B법 개정안
- ③ C법 시행령 개정안
- ④ D법 시행령 개정안
- ⑤ E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5 7급 (인) 7번

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16 ~ 20번 문항의 정답으로 가능한 것은?

甲은 5지선다형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시험을 출제한다.
각 문항의 선택지는 A, B, C, D, E이며, 정답별 문항 개수 및
정답 배열에 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가 정답인 문항은 2개 이상 6개 이하여야 한다. B ~ E도
마찬가지이다.

☐ 동일한 정답이 연속해서 3회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甲은 현재 15번 문항까지 출제하였다. 14번과 15번 문항의
정답은 모두 A이며, 15번까지 정답별 문항 개수는 다음과 같다.

정답	A	B	C	D	E
문항 개수	2	0	3	5	5

	<u>16번</u>	<u>17번</u>	<u>18번</u>	<u>19번</u>	<u>20번</u>
①	A	B	B	C	B
②	B	A	B	B	C
③	B	A	D	B	D
④	C	B	B	B	D
⑤	D	B	E	C	A

2011 5급 (선) 4번

문 4. 다음을 근거로 판단할 때 A국 사람들이 나눈 대화 중 옳은 것은?
(단, 여권은 모두 유효하며, 아래 대화의 시점은 2011년 2월 26일 이다)

〈A국의 비자면제협정 체결 현황〉
(2009. 4. 기준)

대상여권	국가(체류기간)
외교관	우크라이나(90일), 우즈베키스탄(60일)
외교관 · 관용	이집트(90일), 일본(3개월), 에콰도르(외교관 : 업무 수행기간, 관용 : 3개월), 캄보디아(60일)
외교관 · 관용 · 일반	포르투갈(60일), 베네수엘라(외교관·관용 : 30일, 일반 : 90일), 영국(90일), 터키(90일), 이탈리아(90일), 파키스탄(3개월, 2008.10.1부터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면제협정 일시정지)

- ※ 2009년 4월 이후 변동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 상대국에 파견하는 행정원의 경우에는 관용 여권을 발급한다.
 - ※ 면제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 ※ 상기 협정들은 상호적인 규정이다.
- ① 희선 : 포르투갈인이 일반 여권을 가지고 2010년 2월 2일부터 같은 해 4월 6일까지 A국을 방문했을 때 비자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었겠군.
- ② 현웅 : A국이 작년에 4개월 동안 우즈베키스탄에 행정원을 파견한 경우 비자를 취득해야 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에콰도르에 행정원을 파견한 경우 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없었겠군.
- ③ 유리 : 나는 일반 여권으로 2009년 5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이탈리아에 비자 없이 체류했었고, 2010년 1월 2일부터 같은 해 3월 31일까지 영국에도 체류했었어.
- ④ 용훈 :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같은 기간을 A국에서 체류하더라도 이집트 외교관은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파키스탄 외교관은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겠군.
- ⑤ 예리 : 관용 여권을 가지고 2010년 5월 5일부터 같은 해 5월 10일까지 파키스탄을 방문했던 A국 국회의원은 비자를 취득해야 했었겠군.

2011 5급 (선) 10번

문 10. 다음 <규정>을 읽고 공무원 A의 음주운전사건을 처리할 때 옳은 것은?

<규 정>

- 관련 지침
 -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되었을 때에는, 통보될 당시 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해야 한다.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승진임용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강등 24개월,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리 기준

유 형	처리 기준
① 단순음주운전(3회 이상)	중징계 의결
② 면허취소(2회 이상)	
③ 면허취소 1회와 면허정지 2회 이상	
④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⑥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	
① 음주측정 불응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	경징계 의결
② 혈중알콜농도 0.05 % 이상으로 확인된 자	
③ 면허취소 1회	

- ※ 경징계: 견책, 감봉
- ※ 중징계: 정직, 강등, 해임, 파면
- ※ 단순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 이상인 상태에서 인적·물적 사고 없이 운전한 것)으로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 0.05 % 이상 ~ 0.10 % 미만의 경우는 면허정지 처벌을 받고, 0.10 %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사 례>

2011년 현재 甲세무서에서 근무 중인 A의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되었다. A는 乙세무서 근무 당시인 2010년 11월 30일 새벽 3시 20분 경 본인의 승용차로 약 8 km를 음주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다. 검사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93 %로 밝혀졌다. 당시 그는 공무원 신분임을 속이고 무직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었다.

- ① 乙세무서장이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② A는 면허가 취소되어 정직을 받게 될 것이다.
- ③ A는 징계처리 이후 최소한 18개월간 승진임용대상이 되지 못한다.
- ④ A는 단순음주운전에 해당하지만, 공무원 신분임을 속였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된다.
- ⑤ A가 향후 단순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중징계 의결 대상이 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1 5급 (선) 17번

문 17. 문화재청에 근무하는 甲사무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조선의 5대 궁(宮)들을 답사하고자 한다. 다음을 근거로 판단할 때 답사 순서로서 옳은 것은?

<조선의 5대 궁(宮)>

경복궁	조선 건국과 함께 지어진 최초의 궁궐로서 개국 3년 만인 1395년 완공됐으며, 임진왜란(1592)으로 전소될 때까지 조선 최고(最古)의 법궁(法宮)이었다. 임진왜란 후 방치됐던 것을 1872년 흥선 대원군이 복원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근정전 앞에 조선총독부가 세워지는 등 다시 심하게 훼손됐다.
창덕궁	1405년 태종이 지은 조선 왕조의 두 번째 궁궐로 임진왜란 때 전소되었다. 1609년 중건된 후 흥선 대원군이 경복궁을 복원할 때까지 조선 왕조의 법궁 역할을 했다.
창경궁	창덕궁과 인접해 하나의 궁궐처럼 사용되었다. 임진왜란 때 불탔고 광해군이 재건했다. 일제 강점기에는 식물원과 동물원이 만들어지면서 유원지로 변했고 창경원이라 불렸다.
덕수궁	고종 때 지은 서양식 건물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래는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개인 저택이었으나 임진왜란 때 피난에서 돌아온 선조가 머물면서 정릉동행궁이라 불렸다. 선조에 이어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정릉동행궁을 경운궁이라 칭했고 광해군에 이어 인조도 짧은 기간 궁으로 사용했다. 고종은 일제에 의해 왕위에서 물러나 숨을 거둘 때까지 경운궁에 머물렀다. 순종은 고종이 거쳐했던 당시 경운궁에 덕수라는 시호를 내렸고, 그 후로 덕수궁이라 불렸다.
경희궁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이 살던 집이었는데, 광해군은 그 자리에 왕기가 서려 있다 해서 정원군을 몰아내고 1620년 궁궐을 세웠다. 경희궁이라는 지금의 이름은 영조 36년(1760)에 지은 것이다. 1910년 일제는 경희궁 안에 통감부 중 학교를 세우면서 기존 건물들을 대부분 철거하였다.

<답사 조건>

- ㄱ. 원래 개인 저택이었던 곳을 궁궐로 바꾼 궁들을 연이어 방문하되 현재의 궁 이름이 늦게 지어진 궁부터 방문한다.

ㄴ. 기존의 건물과 다른 양식의 건물이 세워졌거나, 외세에 의해 거주목적 외의 새로운 시설이 세워졌던 궁궐들은 연이어 방문한다.

ㄷ. 경복궁과 창덕궁은 연이어 방문하되 오랜 기간 법궁 역할을 한 순서대로 방문한다.

※ 법궁(法宮): 왕이 공식으로 활동하며 생활하는 궁궐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궁

- ①
창덕궁
경복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②
창덕궁
경복궁
경희궁
덕수궁
창경궁

③
창덕궁
경복궁
덕수궁
경희궁
창경궁

④
덕수궁
경희궁
창경궁
창덕궁
경복궁

⑤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경희궁
창경궁

2011 5급 (선) 28번

문 28. 甲은 2010.10.10. 인근 농업진흥지역 내의 A농지 2,000 m²를 주말 영농을 하기 위하여 구입하였고, 2010.11.11. B농지 15,000 m²를 상속받았다. 다음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조 건> —

- 농업인이란 1,000 m²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 예외적으로 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000 m²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②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0,000 m²까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 및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지만,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00 m²까지 소유할 수 있다.
- 농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농지소유자는 그 때부터 1년 이내에 초과된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 ※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함
- ※ 주말·체험영농이란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말함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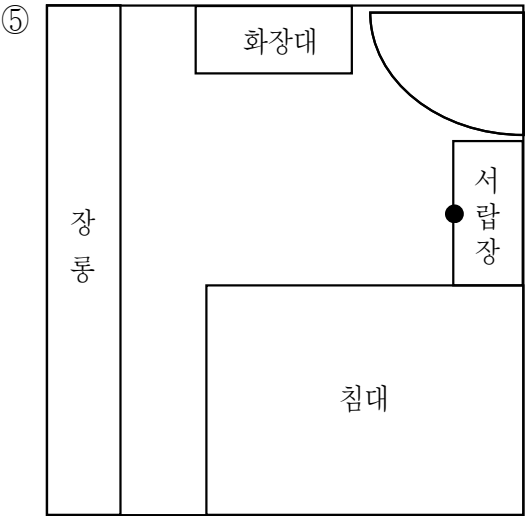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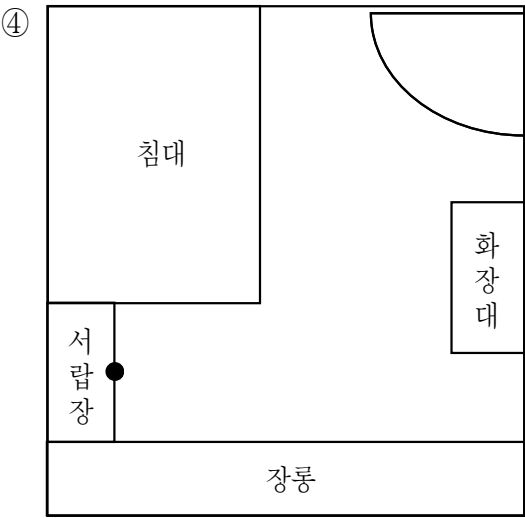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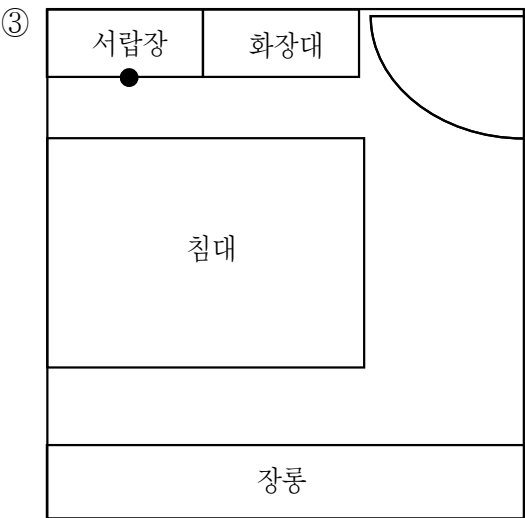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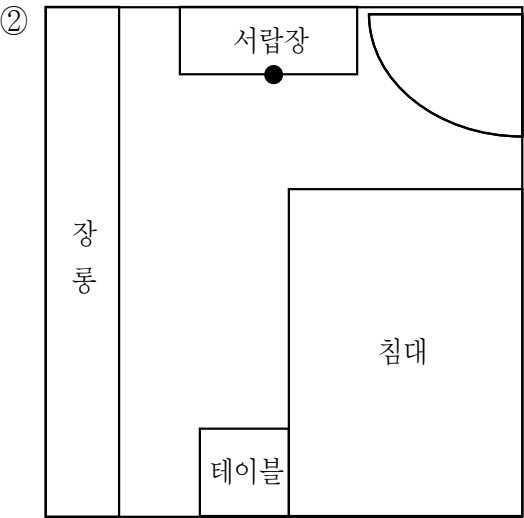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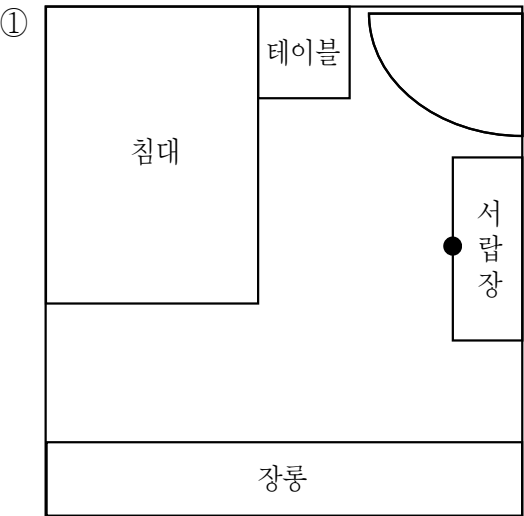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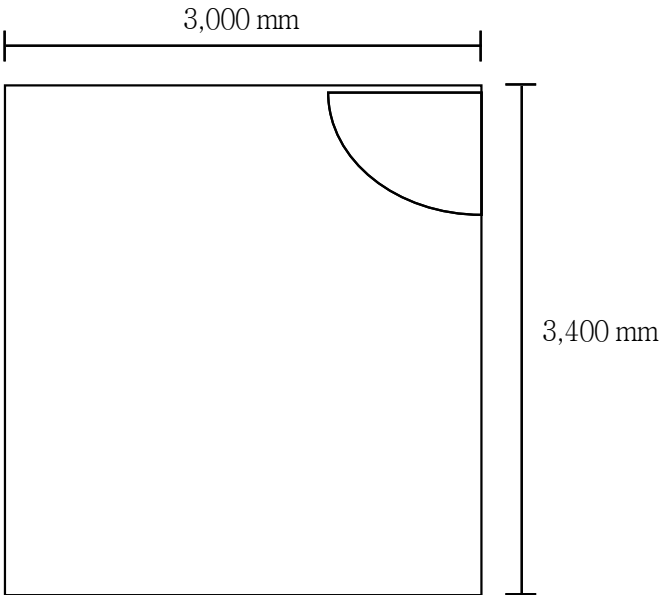
- ㄱ. 甲이 직장을 다니면서 A농지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경우, 농업인으로 볼 수 있다.
- ㄴ.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A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그 때부터 1년 이내에 A농지 전부를 처분하여야 한다.
- ㄷ. 甲이 농업인 乙에게 B농지를 임대한 경우, B농지 전부를 처분하여야 한다.
- ㄹ. 직장을 그만두고 귀농한 甲이 A농지에 농작물을 스스로 경작하고 B농지는 한국농촌공사에 임대한 경우, A·B 농지 모두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 ① ㄷ
- ② ㄹ
- ③ ㄱ, ㄴ
- ④ ㄷ, ㄹ
- ⑤ ㄱ, ㄴ, ㄹ

2011 5급 (전) 38번

문 38. 가로 3,000 mm, 세로 3,400 mm인 직사각형 방에 가구를 배치하려고 한다. 다음 중 가능한 가구 배치는?

- 방문을 여닫는데 1,000 mm의 간격이 필요함
- 서랍장의 서랍(●로 표시하며 가로면 전체에 위치)을 열려면 400 mm의 간격이 필요(침대, 테이블, 화장대는 서랍 없음)하며 반드시 여닫을 수 있어야 함
- 붙박이 장롱 문을 열려면 앞면 전체에 550 mm의 간격이 필요하며 반드시 여닫을 수 있어야 함
- 가구들은 쌓을 수 없음
- 각각의 가구는 방에 넣을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함
 - 침대 (가로)1,500 mm × (세로)2,110 mm
 - 테이블 (가로)450 mm × (세로)450 mm
 - 서랍장 (가로)1,100 mm × (세로)500 mm
 - 화장대 (가로)1,000 mm × (세로)300 mm
 - 붙박이 장롱은 벽 한 면 전체를 남김없이 차지한다. 깊이 650 mm



2012 5급 (인) 4번

문 4.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보기>에 제시된 업종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이다)

- 사업자는 30만 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도 포함)으로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물론 30만 원 미만의 거래금액도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50 %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현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미발급금액에 대한 과태료의 20 %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코드로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인정한다.

— <보 기> —

- ㄱ. 법무서비스를 받은 A는 대금 30만 원에 대해 20만 원은 신용카드로, 10만 원은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현금 10만 원에 대해서는 A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 ㄴ.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2011년 4월 1일 집을 산 B는 중개료 70만 원에 대해 30만 원은 신용카드로, 40만 원은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나 부동산중개인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B는 같은 해 4월 29일 부동산중개인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며 신고하였다. 부동산중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B는 포상금으로 8만 원을 받았다.
- ㄷ. C는 2011년 6월 5일 장례비용 대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업주는 국세청의 지정코드로 자진 발급하였다. 마음이 변한 C는 업주가 현금영수증 당연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며 2011년 6월 12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했지만 신고 포상금 10만 원은 받을 수 없었다.
- ㄹ. D는 2011년 7월 12일 사업자에게 전답 측량 대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불하였고, 이에 대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D는 같은 해 8월 19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고 신고하여 사업자에게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되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012 5급 (인) 8번

문 8. 김갑돌 2등서기관은 다음과 같이 기안문을 작성하였다. 담당과장이을순이 이 기안문에 대해 언급한 내용 중 <공문서 작성 및 처리지침>에 어긋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외교통상부

수신 주○○국 대사

경유

제목 초청장 발송 협조

기획재정부가 「경제개발 경험공유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2월 1일 - 2012년 2월 4일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초청하여 특별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알려오면서 협조를 요청한 바, 첨부된 초청서한 및 참가신청서(원본 외교행낭 편 송부)를 ○○국 재무부에 전달 바랍니다.

첨부: 상기 초청서한 및 참가신청서 각 1부.

기안 전결

2등서기관 김갑돌

- <공문서 작성 및 처리지침>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한다.

○ 본문이 끝나면 1자(2타)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단, 첨부물이 있는 경우, 첨부 표시문 끝에 1자(2타)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 기안문 및 시행문에는 행정기관의 로고·상징·마크 또는 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문서 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온점: 가로쓰기에 쓰는 마침표

- <보 기>
- ㄱ. ‘끝.’ 표시도 중요합니다. 본문 뒤에 ‘끝.’을 붙이세요.

ㄴ. 공문서에서 날짜 표기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2012년 2월 1일 - 2012년 2월 4일’을 ‘2012. 2. 1. - 2012. 2. 4.’로 고치세요.

ㄷ. 오류를 수정하여 기안문을 출력해 오면 그 문서에 서명하여 결재하겠습니다.

ㄹ. 어! 로고가 빠졌네. 우리 부의 로고를 넣어주세요.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12 5급 (인) 20번

문 20. 다음 글은 문화상품권 뒷면에 기재된 이용 안내이다. 2012년 2월 1일 현재, A가 가지고 있는 문화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 옳은 것은?

- 본 상품권은 문화상품권 오프라인 가맹점 및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상품권은 현금교환이 불가능하다. 단, 권면금액의 80 % 이상을 사용하신 경우 그 잔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 가맹점과 온라인 가맹점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상품권이 훼손되어 식별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앞면 금액란의 은박으로 가려진 부분을 긁으면 노출되는 PIN번호를 입력하여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PIN번호가 노출되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A가 가지고 있는 문화상품권>

금액	발행일	현재 PIN번호 노출 여부
10,000원	2007년 3월 1일	노출 안 됨
10,000원	2009년 5월 10일	노출됨
5,000원	2006년 9월 20일	노출 안 됨
5,000원	2010년 12월 15일	노출됨
5,000원	2011년 9월 10일	노출 안 됨

- ① 오프라인 가맹점인 서점에서 10,000원이 적힌 문화상품권을 사용하여 9,000원짜리 책을 사면 1,000원은 돌려받지 못한다.

② 현재 갖고 있는 문화상품권만으로는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최대 20,000원 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현재 갖고 있는 문화상품권만으로는 온라인 가맹점에서 최대 15,000원 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④ 현재 갖고 있는 문화상품권 가운데 2015년 12월 16일에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은 없다.

⑤ 현재 갖고 있는 문화상품권 2매로 온라인 가맹점에서 가격이 15,500원인 공연티켓을 사면 잔액을 돌려받지 못한다.

2012 5급 (인) 29번

문 29. 다음 <화장품의 사용가능기한>과 <화장품의 제조번호 표기 방식>에 근거할 때, 사용가능기한이 지난 화장품은? (단, 2012년 2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화장품의 사용가능기한>

제품 유형	사용가능기한	
	개봉 전 (제조일로부터)	개봉 후 (개봉일로부터)
스킨	3년	6개월
에센스	3년	6개월
로션	3년	1년
아이크림	3년	1년
클렌저	3년	1년
립스틱	5년	1년

※ 두 가지 사용가능기한 중 어느 한 기한이 만료되면 사용가능기한이 지난 것으로 본다.

<화장품의 제조번호 표기방식>

M0703520이라는 표기에서 07은 2007년을 뜻하고, 035는 2007년의 35번째 날, 즉 2월 4일 제조된 것을 뜻한다. 맨 마지막의 20은 생산라인 번호를 나타낸다.

- ① M1103530이라고 쓰여 있고 개봉된 립스틱
- ② M0903530이라고 쓰여 있고 개봉되지 않은 클렌저
- ③ M0902140이라고 쓰여 있고 개봉된 날짜를 알 수 없는 아이크림
- ④ M0904030이라고 쓰여 있고 2011년 100번째 되는 날 개봉된 로션
- ⑤ M0930750이라고 쓰여 있고 2011년의 325번째 되는 날 개봉된 스킨

2013 5급 (인) 3번

문 3. 다음 글과 <○○시의 도로명 현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시에서 발견될 수 있는 도로명은?

도로명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지는데 앞부분을 전부요소, 뒷부분을 후부요소라고 한다.

전부요소는 대상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름붙인 것이며 다른 곳과 구분하기 위해 명명된 부분이다. 즉, 명명의 배경이 반영되어 성립된 요소로 다양한 어휘가 사용된다. 후부요소로는 ‘로, 길, 골목’이 많이 쓰인다.

그런데 도로명은 전부요소와 후부요소만 결합한 기본형이 있고, 후부요소에 다른 요소가 첨가된 확장형이 있다. 확장형은 후부요소에 ‘1, 2, 3, 4…’ 등이 첨가된 일련번호형과 ‘동, 서, 남, 북, 좌, 우, 윗, 아래, 앞, 뒷, 사이, 안, 중앙’ 등의 어휘들이 첨가된 방위형이 있다.

————— <○○시의 도로명 현황> —————

○○시의 도로명을 모두 분류한 결과, 도로명의 전부요소로는 한글고유어보다 한자어가 더 많이 발견되었고, 기본형보다 확장형이 많이 발견되었다. 확장형의 후부요소로는 일련번호형이 많이 발견되었고, 일련번호는 ‘로’와만 결합되었다. 그리고 방위형은 ‘골목’과만 결합되었으며 사용된 어휘는 ‘동, 서, 남, 북’으로만 한정되었다.

- ① 행복1가
 - ② 대학2로
 - ③ 국민3길
 - ④ 덕수궁뒷길
 - ⑤ 꽃동네중앙골목

2013 5급 (인) 6번

문 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국내 이민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적취득, 체류허가 등에 있어서 편의를 주는 제도이다. 프로그램의 참여대상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일반이민자(동포,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난민 등)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한국어과정’과 ‘한국사회이해과정’으로 구성된다. 신청자는 우선 한국어능력에 대한 사전평가를 받고, 그 평가점수에 따라 한국어과정 또는 한국사회이해과정에 배정된다.

일반이민자로서 참여를 신청한 자는 사전평가 점수에 의해 배정된 단계로부터 6단계까지 순차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한편 결혼이민자로서 참여를 신청한 자는 4~5단계를 면제받는다. 예를 들어 한국어과정 2단계를 배정받은 결혼이민자는 3단계까지 완료한 후 바로 6단계로 진입한다. 다만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 강화를 위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신청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한국어과정 면제제도를 폐지하여 일반이민자와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과정 및 이수시간>
(2012년 12월 현재)

구분 \ 단계		1	2	3	4	5	6
과 정		한 국 어					한국사회 이해
		기초	초급 1	초급 2	중급 1	중급 2	
이수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50시간
사전 평가 점수	일반 이민자	0점 ~ 10점	11점 ~ 29점	30점 ~ 49점	50점 ~ 69점	70점 ~ 89점	90점 ~ 100점
	결혼 이민자	0점 ~ 10점	11점 ~ 29점	30점 ~ 49점	면 제		50점 ~ 100점

- ①

2012년 12월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한 결혼이민자 A는 한국어과정을 최소 200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②

2013년 1월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사전평가에서 95점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B는 한국어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난민 인정을 받은 후 2012년 11월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한 C는 한국어과정과 한국사회이해과정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다.

④

2013년 2월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결혼이민자 D는 한국어과정 3단계를 완료한 직후 한국사회이해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⑤

2012년 12월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사전평가에서 77점을 받은 유학생 E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총 150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2013 5급 (인) 24번

문 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상호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폐지하여야 한다. 영업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호를 양도할 수 있다.
- 영업주(상점주인)가 자신을 대신하여 물건을 판매할 지배인을 고용한 경우, 지배인은 물건을 판매하면서 영업주를 위하여 판매한다고 고객에게 표시하지 않아도 그 판매행위는 영업주가 한 행위와 같은 것으로 본다.
- 타인의 부탁을 받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은, 그 물건을 매수한 사람에 대하여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를 직접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 고객의 물건을 창고에 보관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 그 보관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고객은 물건이 출고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회사의 종류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다).

- ① 甲주식회사와 乙유한회사는 합병을 통해 두 회사를 모두 소멸시키고 새로운 丙합명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진국설렁탕’이라는 명칭으로 식당을 운영해 온 甲은 자신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진국설렁탕’이라는 명칭을 乙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③ ‘안전창고’라는 명칭으로 물건보관의 영업을 해 온 甲은 乙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관리직원의 실수로 그 물건을 훼손했는데, 乙은 그 물건을 찾아갔다. 乙은 2년 뒤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명품가구대리점’ 주인인 甲을 대신하여 가구를 판매하기 위해 고용된 지배인 乙은 甲이 주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고객 丙과 침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계약금을 가지고 잠적하였다. 丙은 甲에게 잔금을 지급하면서 침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甲은 乙에게 자신의 물건을 乙의 이름으로 팔아줄 것을 부탁하면서 물건 값의 5%를 수고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乙은 친구 丙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도 받기 전에 먼저 甲의 물건을 넘겨주었다. 丙에게 물건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甲이다.

2013 5급 (인) 27번

문 2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납부번호 구성

납부번호는 4자리의 분류기호, 3자리의 기관코드, 4자리의 납부연월(납부기한 포함), 1자리의 결정구분코드, 2자리의 세목으로 구성된다. 납부연월은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하는 연도와 달을, 납부기한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연도와 달을 의미한다.

예시) 0000 - 000 - 0000 - 0 - 00

분류기호

기관코드

납부연월

결정구분코드

세목

○ 결정구분코드

항목	코드	내용
확정분 자진납부	1	확정신고, 전기신고 등 정기기간(예정, 중간예납기간 제외)이 있는 모든 세목으로서 정상적인 자진신고납부분(수정신고분 제외)의 본세 및 그 부가가치세(코드 4의 원천분 자진납부 제외)
수시분 자진납부	2	코드 1의 확정분 자진납부, 코드 3의 예정 신고 자진납부 및 코드 4의 원천분 자진납부 이외 모든 자진납부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3	예정신고 또는 중간예납 기간이 있는 모든 세목으로서 정상적인 자진신고납부분(수정 신고분 제외)의 본세 및 그 부가가치세
원천분 자진납부	4	모든 원천세 자진납부분
정기분 고지	5	양도소득세 정기결정고지, 코드 1의 확정분 자진납부에 대한 무(과소)납부고지
수시분 고지	6	코드 5의 정기분 고지, 코드 7의 중간예납 및 예정고지를 제외한 모든 고지
중간예납 및 예정고지	7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부가 가치세 예정고지, 코드 3의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에 대한 무(과소)납부고지

※ 신고는 납세의무자가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알리는 것

※ 고지는 세무서장이 세액, 세목,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을 납세의무자에게 알리는 것

○ 세목코드

세목	코드	세목	코드
종합소득세	10	양도소득세	22
사업소득세	13	법인세	31
근로소득세(갑종)	14	부가가치세	41
근로소득세(을종)	15	특별소비세	42
퇴직소득세	21	개별소비세	47

- ① 수정신고 자진납부분은 결정구분코드 2에 해당한다.
- ② 2011년 3월확정분 개별소비세를 4월에 자진신고 납부한 경우, 납부번호는 ××××-×××-1104-1-47이다.
- ③ 2010년 제1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를 당해 9월에 무납부 고지한 경우, 납부번호는 ××××-×××-1009-6-41이다.
- ④ 2012년 10월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자진납부하는 경우, 납부번호의 마지막 7자리는 1210-3-22이다.
- ⑤ 2010년 2월에 2009년 갑종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원천 징수한 부분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번호의 마지막 7자리는 1002-4-14이다.

2013 5급 (인) 30번
문 30. 다음 글과 <상황>에 근거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공공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도서관 자료의 구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공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 구비 기준>

봉사대상 인구(명)	시설		도서관 자료	
	건물면적 (㎡)	열람석 (석)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	⋮	⋮	⋮	⋮
10만 이상 ~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 ~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1.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의 인구를 말한다. 연간증서(年間增書)는 설립 다음 해부터 매년 추가로 늘려야 하는 장서로서 기본장서에 포함된다.

2. 전체 열람석의 10 % 이상을 노인과 장애인 열람석으로 할당하여야 한다.

3. 공공도서관은 기본장서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가.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나.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

<상 황>

○○부는 신도시인 A시에 2014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공공도서관 건설을 추진 중이다. A시의 예상 인구 추계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12년	2015년	2020년	2030년
예상 인구(명)	13만	15만	30만	50만

- ※ A시 도서관은 예정대로 개관한다.
- ※ 2012년 인구는 실제 인구이며, 인구는 해마다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보 기>

ㄱ. A시 도서관 개관 시 확보해야 할 최소 기본장서는 30,000권이다.

ㄴ. A시의 예상 인구 추계자료와 같이 인구가 증가한다면, 2015년에는 노인 및 장애인 열람석을 2014년에 비해 35석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한다.

ㄷ. A시의 예상 인구 추계자료와 같이 인구가 증가하고, 2015년 ~ 2020년에 매년 같은 수로 인구가 늘어난다면, 2018년에는 최소 240종 이상의 연속간행물과 2,40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보유해야 한다.

ㄹ. 2020년 실제 인구가 예상 인구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면, 개관 이후 2020년 말까지 추가로 보유해야 하는 총 연간증서는 최소 18,000권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3 5급 (인) 34번

문 34. 7명의 여행자(A ~ G)가 5인승 승용차 3대에 나눠 타고 여행을 떠난다. 다음 <여행자 특성>과 <원칙>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여행자 특성>

	나이	성별	면허보유기간	운전기간	키
A	33	남	4년	4년	큼
B	32	남	7년	7년	큼
C	30	남	5년	0년	작음
D	28	남	3년	3년	작음
E	26	여	5년	2년	큼
F	31	여	8년	3년	큼
G	25	남	1년	1년	작음

<원칙>

- ㄱ. 운전자는 운전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으로 선택한다.
ㄴ. 모든 차량의 앞쪽 좌석에는 키 큰 사람이 1명 이상 승차한다.
ㄷ. 다른 성별끼리 같은 차량에 타지 않는다.
ㄹ.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이 1대 이상이 되도록 한다.
ㅁ. 운전자는 면허보유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으로 선택한다.
ㅂ. 운전자만 승차하는 차량이 존재한다.
ㅅ. 여성이 탄 차량에는 반드시 남성 두 명이 타도록 한다.
ㅇ. 앞쪽 좌석에는 운전자만 승차한다.

- ① ㄱ→ㄹ→ㄷ→ㅂ의 순서로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C, D, G는 같은 차량에 승차한다.
② ㄱ→ㄷ의 순서로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F가 운전하게 된다.
③ ㄹ→ㅅ→ㅂ의 순서로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남성 운전자 혼자 타는 차량이 존재한다.
④ ㄷ 원칙을 우선 적용하면, ㄱ과 ㅁ 중 어떤 원칙이 적용되어도 F가 운전하는 차량이 존재한다.
⑤ ㅁ→ㅇ→ㄴ→ㅅ의 순서로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F의 차량에는 4명이 승차한다.

2013 외교 (인) 25번

문 2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계통색명이 올바르게 표현된 것은?

색명은 관용색명과 계통색명으로 구분한다. 이 중 관용색명은 동식물, 광물 등으로부터 연상에 의해 떠올리는 색 표현 방법으로 병아리색, 황토색, 살구색, 장미색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계통색명은 유채색의 계통색명과 무채색의 계통색명으로 나뉜다. 계통색명은 기본색명 앞에 명도·채도에 관한 수식어와 색상에 관한 수식어를 붙여서 표현하는데, 다음과 같은 순서로 표기한다. 이때 사용되는 수식어는 필요에 따라 하나 혹은 둘을 기본색명 앞에 붙여 표기할 수 있고 그 순서는 바꿀 수 없다.

○ 유채색의 계통색명 표기법

명도·채도에 관한 수식어

색상에 관한 수식어

기본색명

○ 무채색의 계통색명 표기법

명도에 관한 수식어

색상에 관한 수식어

기본색명

○ 기본색명

유채색	무채색
빨강, 주황, 노랑, 연두, 녹색,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흰색, 회색, 검정

○ 유채색의 명도·채도에 관한 수식어, 무채색의 명도에 관한 수식어

수식어	구분
선명한	유채색
흐린	유채색
탁한	유채색
밝은	유채색, 무채색
(아주) 어두운	유채색, 무채색
진한	유채색
(아주) 연한	유채색

○ 색상에 관한 수식어

수식어	적용하는 기본색명
빨강 띠	보라, 노랑, 흰색, 회색, 검정
노랑 띠	빨강, 녹색, 흰색, 회색, 검정
녹색 띠	노랑, 파랑, 흰색, 회색, 검정
파랑 띠	녹색, 보라, 흰색, 회색, 검정
보라 띠	파랑, 빨강, 흰색, 회색, 검정

※ 색상에 관한 수식어는 쓰임에 따라 예를 들어 ‘빨강 띠’, ‘빨강 기미의’, ‘빨강 끼의’ 등으로 바꾸어 표현하거나 ‘빨강빛’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① 진한 회색
- ② 보라빛 노랑
- ③ 선명한 파랑 띠 노랑
- ④ 빨강 기미의 밝은 보라
- ⑤ 아주 연한 노랑 끼의 녹색

2013 외교 (인) 26번

문 2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모두 고르면? (단, 모든 금융거래는 1거래일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금융기관은 현금(외국통화는 제외)이나 어음·수표와 같이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이하 ‘현금 등’이라 한다)으로 1거래일 동안 같은 사람 명의로 이루어진 금융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총액이 2,000만 원 이상 또는 영수(領收)한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러한 고액현금 거래 사실을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사이 또는 금융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현금 등의 지급 또는 영수는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에는 금융기관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현금거래뿐만 아니라 현금자동입출금기상에서의 현금입출금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등 회계상의 가치이전만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는 보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 기> ———
- A는 甲은행의 자기 명의 계좌에 100,000달러를 입금하고, 3,000만 원을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다.
 - B는 乙은행의 자기 명의 계좌에서 세종시 세무서에서 부과된 소득세 3,000만 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였다.
 - C는 丙은행의 자기 명의 계좌에서 현금 1,500만 원을, 丙은행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 D는 丁은행의 자기 명의 a, b계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 E는 戊은행의 자기 명의 계좌에 현금 1,900만 원을 입금하고, 戊은행의 F 명의 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 ① A, B
- ② A, D
- ③ A, B, D
- ④ B, C, E
- ⑤ C, D, E

2013 외교 (인) 31번

문 3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 ~ G에게 기내식을 제공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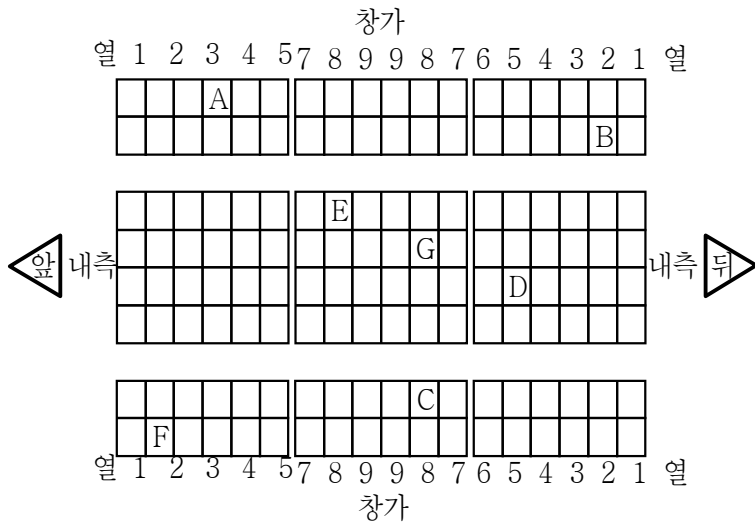
○ 기내식 종류별 제공 순서

1. 어린이식사를 가장 먼저 제공한다.
※ 어린이식사는 미리 주문한 사람에 한하여 제공하며, 어린이와 동승한 자의 식사도 함께 제공한다.
2. 특별식을 두 번째로 제공한다.
※ 특별식에는 채식, 저칼로리식, 저탄수화물식, 저염식이 있으며, 미리 주문한 사람에 한하여 제공한다.
3. 일반식을 마지막으로 제공한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기체의 가장 앞쪽과 가장 뒤쪽부터 중간쪽 방향으로 제공한다. 단, 같은 열에서는 창가에서 내측 방향으로 제공한다.

○ 탑승자 정보

- A: 어린이와 동승했으며 어린이식사를 미리 주문하였다.
B: 특별식을 주문하지 않았으며, 동승한 친구는 자신이 먹을 채식을 미리 주문하였다.
C: 혼자 탑승하였으며 특별식을 주문하지 않았다.
D: 어린이와 동승하였으나 어린이식사를 주문하지 않았다.
E: 혼자 탑승하였으며 저칼로리식을 미리 주문하였다.
F: 성인인 친구와 동승하였으며 특별식을 주문하지 않았다.
G: 혼자 탑승하였으며 특별식을 주문하지 않았다.

○ 탑승자의 좌석 배치도



- ① A - B - E - F - D - C - G
- ② A - E - B - F - D - G - C
- ③ A - E - F - B - D - C - G
- ④ B - F - A - D - G - C - E
- ⑤ B - F - A - D - E - G - C

2014 5급 (A) 6번

문 6. 다음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을 준수한 것은?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

- 배출 시간: 수거 전날 저녁 7시 ~ 수거 당일 새벽 3시
까지(월요일 ~ 토요일에만 수거함)
- 배출 장소: 내 집 앞, 내 점포 앞
- 쓰레기별 분리배출 방법
 - 일반 쓰레기: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음식물 쓰레기: 단독주택의 경우 수분 제거 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
전용용기에 담아서 배출
 - 재활용 쓰레기: 종류별로 분리하여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묶어서 배출
 - ① 1종(병류)
 - ② 2종(캔, 플라스틱, 페트병 등)
 - ③ 3종(폐비닐류, 과자 봉지, 1회용 봉투 등)
- ※ 1종과 2종의 경우 뚜껑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 종이류 / 박스 / 스티로폼은 각각 별도로 묶어서 배출.
- 폐가전·폐가구: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 종량제 봉투 및 폐기물 스티커 구입: 봉투판매소

- ① 甲은 토요일 저녁 8시에 일반 쓰레기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자신의 집 앞에 배출하였다.
- ② 공동주택에 사는 乙은 먹다 남은 찌개를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주택 앞에 배출하였다.
- ③ 丙은 투명 비닐봉투에 캔과 스티로폼을 함께 담아 자신의 집 앞에 배출하였다.
- ④ 丁은 사이다가 남아 있는 페트병을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서 집 앞에 배출하였다.
- ⑤ 戊는 집에서 쓰던 냉장고를 버리기 위해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 후 부착하여 월요일 저녁 9시에 자신의 집 앞에 배출하였다.

2014 5급 (A) 8번

문 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 그 중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였던 자 또는 10년 이상 가입 중인 자에게만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자(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사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분할연금이라 한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는 데 부부가 힘을 합쳤으니 이혼 후에도 연금을 나누는 것이 공평하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기간(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인 자로서,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③ 만 60세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생존하는 동안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망 등의 사유로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분할연금은 재혼을 해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액은 무조건 노령연금액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분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분할연금액은 전 배우자에게 원상복구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하게 된다. 한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에서는 연금 가입자와 이혼한 사람에게 분할연금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8년체인 A와 혼인한 B가 3년 만에 이혼한 경우, B는 A가 받는 노령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 ② C와 이혼한 D가 C의 노령연금에서 30만 원의 분할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중 D가 사망한 경우, 이후 분할연금액 30만 원은 C가 수령하게 된다.
- ③ E와 이혼한 F가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E가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때로부터 F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 ④ 공무원 G와 민간인 H가 이혼한 경우, G는 H가 받는 노령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H는 G가 받는 공무원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 ⑤ I의 노령연금에서 분할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J가 K와 결혼한 경우, J가 생존하는 동안 계속하여 I의 노령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4 5급 (A) 26번

문 26. 다음 <민간위탁 교육훈련사업 계약>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계약 위반행위만을 모두 고르면?

———— <민간위탁 교육훈련사업 계약> ————

(가) 계약금액(사업비)은 7,000만 원이고, 계약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나) 甲은 乙에게 사업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 (6개월)별로 지급하며, 乙이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 乙은 하반기 사업비 청구시 상반기 사업추진실적과 상반기 사업비 사용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甲은 이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라) 乙은 사업비를 위탁받은 교육훈련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마) 乙은 상·하반기 사업비와는 별도로 매 분기(3개월)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甲에게 훈련참여자의 취업실적에 따른 성과인센티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바) 甲은 (마)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인정된 취업실적에 대한 성과인센티브를 취업자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 <보 기> ————

ㄱ. 乙은 9월 10일 교육훈련과 관련없는 甲의 등산대회에 사업비에서 100만 원을 협찬하였다.

ㄴ. 乙은 1월 25일에 상반기 사업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甲은 2월 10일에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ㄷ. 乙은 8월 8일에 하반기 사업비 지급을 청구하면서 상반기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ㄹ. 乙은 10월 9일에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성과 인센티브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甲은 증빙서류의 확인을 거부하고 지급하지 않았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14 5급 (A) 36번

문 36. 다음 <상황>과 <대화>를 근거로 판단할 때, 丁의 성적으로 가능한 것은?

<상 황>

○ 가영, 나리, 다해, 라라, 마철은 올해 활약이 뛰어났던 4명의 투수(甲 ~ 丁) 중에서 최우수 투수를 선정하였다.

○ 가영, 나리, 다해, 라라, 마철은 투수 중에서 1명씩 선택하여 투표하였고, ‘丁’만 2명의 선택을 받아서 최우수 투수로 선정되었다.

○ 甲 ~ 丁의 올해 시즌 성적은 아래와 같다.

항목 선수	평균 자책점	승리한 경기 수	패배한 경기 수	탈삼진 수	완투한 경기 수
甲	1.70	15	10	205	10
乙	1.95	21	8	150	5
丙	2.20	15	8	170	13
丁	2.10	?	?	?	?

<대 화>

○ 가영 : 평균 자책점이 가장 낮은 선수를 뽑았어.

○ 나리 : 승리한 경기 수가 가장 많은 선수를 뽑았어.

○ 다해 : 완투한 경기 수가 가장 많은 선수를 뽑았어.

○ 라라 : 탈삼진 수가 가장 많은 선수를 뽑았어.

○ 마철 : 승률이 가장 높은 선수를 뽑았어.

※ 승률 = $\frac{\text{승리한 경기 수}}{\text{승리한 경기 수} + \text{패배한 경기 수}}$

	승리한 경기 수	패배한 경기 수	탈삼진 수	완투한 경기 수
①	23	3	210	14
②	20	10	220	12
③	20	5	210	10
④	20	5	200	8
⑤	23	3	210	6

2016 5급 (4) 8번

문 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인증이 가능한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국 친환경농산물의 종류는 3가지로,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재배방법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유기농산물의 경우 일정 기간(다년생 작물 3년, 그 외 작물 2년) 이상을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다. 2) 무농약농산물의 경우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2분의 1 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다. 3) 저농약농산물의 경우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2분의 1 이하로 사용하고, 농약은 살포 시기를 지켜 살포 최대횟수의 2분의 1 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다.

<농산물별 관련 기준>

종류	재배기간 내 화학비료 권장량 (kg/ha)	재배기간 내 농약살포 최대횟수	농약 살포시기
사과	100	4	수확 30일 전까지
감귤	80	3	수확 30일 전까지
감	120	4	수확 14일 전까지
복숭아	50	5	수확 14일 전까지

※ 1 ha = 10,000 m², 1 t = 1,000 kg

— <보 기> —

ㄱ. 甲은 5 km²의 면적에서 재배기간 동안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20 t의 화학비료를 사용하여 사과를 재배하였으며, 이 사과를 수확하여 무농약농산물 인증 신청을 하였다.

ㄴ. 乙은 3 ha의 면적에서 재배기간 동안 농약을 1회 살포 하고 50 kg의 화학비료를 사용하여 복숭아를 재배하였다. 하지만 수확시기가 다가오면서 병충해 피해가 나타나자 농약을 추가로 1회 살포하였고, 열흘 뒤 수확하여 저농약 농산물 인증신청을 하였다.

ㄷ. 丙은 지름이 1 km인 원 모양의 농장에서 작년부터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감귤을 재배하였다. 작년에는 5 t의 화학비료를 사용하였으나, 올해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감귤을 수확하여 유기농산물 인증신청을 하였다.

ㄹ. 丁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0 m, 500 m인 과수원에서 감을 재배하였다. 재배기간 동안 총 2회(올해 4월 말과 8월 초) 화학비료 100 kg씩을 뿌리면서 병충해 방지를 위해 농약도 함께 살포하였다. 丁은 추석을 맞아 9월 말에 감을 수확하여 저농약농산물 인증신청을 하였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16 5급 (4) 13번

문 13. 재적의원이 210명인 ○○국 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안건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규 칙>

○ 안건이 상정된 회의에서 기권표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
이면 안건은 부결된다.

○ 기권표를 제외하고,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던진 표
 중에서 찬성표가 50 %를 초과해야 안건이 가결된다.

※ 재적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1인 1표를 행사하였고, 무효표는 없다.

<보 기>

ㄱ. 70명이 기권하여도 71명이 찬성하면 안건이 가결된다.

ㄴ. 104명이 반대하면 기권표에 관계없이 안건이 부결된다.

ㄷ. 141명이 찬성하면 기권표에 관계없이 안건이 가결된다.

ㄹ. 안건이 가결될 수 있는 최소 찬성표는 71표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6 5급 (4) 31번

문 31. 다음 글과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여행을 다녀온 시기로 가능한 것은?

- 甲은 선박으로 ‘포항 → 울릉도 → 독도 → 울릉도 → 포항’ 순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 ‘포항 → 울릉도’ 선박은 매일 오전 10시, ‘울릉도 → 포항’ 선박은 매일 오후 3시에 출발하며, 편도 운항에 3시간이 소요된다.

○ 울릉도에서 출발해 독도를 돌아보는 선박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8시에 출발하여 당일 오전 11시에 돌아온다.

○ 최대 파고가 3 m 이상인 날은 모든 노선의 선박이 운항되지 않는다.

○ 甲은 매주 금요일에 술을 마시는데, 술을 마신 다음날은 멀미가 심해 선박을 탈 수 없다.

○ 이번 여행 중 甲은 울릉도에서 호박엿 만들기 체험을 했는데, 호박엿 만들기 체험은 매주 월·금요일 오후 6시에만 할 수 있다.
- <자 료>
- ①: 최대 파고(단위 : m)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① 1.0 | ① 1.4 | ① 3.2 | ① 2.7 | ① 2.8 | ① 3.7 | ① 2.0 |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① 0.7 | ① 3.3 | ① 2.8 | ① 2.7 | ① 0.5 | ① 3.7 | ① 3.3 |
- ① 16일(일) ~ 19일(수)

② 19일(수) ~ 22일(토)

③ 20일(목) ~ 23일(일)

④ 23일(일) ~ 26일(수)

⑤ 25일(화) ~ 28일(금)
- 300
- 300

2017 5급 (가) 31번

문 31. 다음 <조건>과 <표>를 근거로 판단할 때, 화령이가 만들 수 있는 도시락으로 옳은 것은?

- <조 건>

○ 화령이는 아래 <표>의 3종류(탄수화물, 단백질, 채소)를 모두 넣어서 도시락을 만들려고 한다.

○ 열량은 500 kcal 이하, 재료비는 3,000원 이하로 한다.
(단, 양념은 집에 있는 것을 사용하여 추가 재료비가 들지 않는다)

○ 도시락 반찬은 다음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다.

－ 두부구이 : 두부 100 g, 올리브유 10 ml, 간장 10 ml

－ 닭불고기 : 닭가슴살 100 g, 양파 1개, 올리브유 10 ml, 고추장 15 g, 설탕 5 g

－ 돼지불고기 : 돼지고기 100 g, 양파 1개, 올리브유 10 ml, 간장 15 ml, 설탕 10 g

○ 도시락 반찬의 열량은 재료 열량의 합이다.

<표>

종류	품목	양	가격(원)	열량(kcal)
탄수화물	현미밥	100 g	600	150
	통밀빵	100 g	850	100
	고구마	1개	500	128
단백질	돼지고기	100 g	800	223
	닭가슴살	100 g	1,500	109
	두부	100 g	1,600	100
	우유	100 ml	450	50
채소	어린잎	100 g	2,000	25
	상추	100 g	700	11
	토마토	1개	700	14
	양파	1개	500	20
양념	올리브유	10 ml	－	80
	고추장	15 g	－	30
	간장	30 ml	－	15
	설탕	5 g	－	20

- ① 현미밥 200 g, 닭불고기

② 돼지불고기, 상추 100 g

③ 현미밥 300 g, 두부구이

④ 통밀빵 100 g, 돼지불고기

⑤ 고구마 2개, 우유 200 ml, 토마토 2개

2018 5급 (나) 25번

문 2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국의 공무원연금공단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망조위금은 최우선 순위의 수급권자 1인에게만 지급한다.

<사망조위금 지급기준>

사망자	수급권자 순위	
공무원의 배우자·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자녀	해당 공무원이 1인인 경우	해당 공무원
	해당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1.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공무원 2. 사망한 자를 부양하던 직계비속인 공무원 3.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최연장자 4.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최연장자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공무원 본인	1.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 2. 사망한 공무원의 직계비속 중 공무원 3.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 중 아래의 순위 가.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 나.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최연장자 다.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 중 최연장자	

——— <보 기> ———

ㄱ. A와 B는 비(非)공무원 부부이며 공무원 C(37세)와 공무원 D(32세)를 자녀로 두고 있다. 공무원 D가 부모님을 부양하던 상황에서 A가 사망하였다면, 사망조위금 최우선 순위 수급권자는 D이다.

ㄴ. A와 B는 공무원 부부로 비공무원 C를 아들로 두고 있으며, 공무원 D는 C의 아내이다. 만약 C가 사망하였다면, 사망조위금 최우선 순위 수급권자는 A이다.

ㄷ. 공무원 A와 비공무원 B는 부부이며 비공무원 C(37세)와 비공무원 D(32세)를 자녀로 두고 있다. A가 사망하고 C와 D가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경우, 사망조위금 최우선 순위 수급권자는 C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2019 5급 (가) 4번

문 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월별	1인 가구: 81,000원
지원	2인 가구: 102,000원
금액	3인 이상 가구: 114,000원
지원 형태	신청서 제출 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선택 · 실물카드: 에너지원(등유, 연탄, LPG, 전기, 도시가스)을 다양하게 구매 가능함. 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가 통합고지서로 발부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음 · 가상카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일. 매월 요금이 자동 차감됨. 단, 사용기간(발급일로부터 1개월) 만료 시 잔액이 발생하면 전기요금 차감
신청 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가구의 가구원 1. 1954. 12. 31. 이전 출생자 2. 2002. 1. 1. 이후 출생자 3. 등록된 장애인(1 ~ 6급)
신청 방법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 담당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신청 서류	1.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2.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통합고지서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4. 대리 신청일 경우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상 황＞

甲 ~ 丙은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하고자 한다.

- 甲: 3급 장애인, 실업급여 수급자, 1인 가구, 아파트 거주자
- 乙: 2005. 1. 1. 출생, 의료급여 수급자, 4인 가구, 단독주택 거주자
- 丙: 1949. 3. 22. 출생, 생계급여 수급자, 2인 가구, 아파트 거주자

- <보 기>

- ㄱ. 甲은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관리비 통합고지서, 본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81,000원의 에너지이용권을 요금 자동 차감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ㄴ. 담당공무원인 丁이 乙을 대리하여 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乙은 114,000원의 에너지이용권을 실물카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 ㄷ. 丙은 도시가스를 선택하여 102,000원의 에너지이용권을 가상카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용권 사용기간 만료 시 잔액이 발생한다면 전기요금이 차감될 것이다.

- ① $\neg$
② $\perp$
③ $\top$
④ $\neg, \top$
⑤ $\perp, \top$

2019 5급 (가) 8번

문 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구매해야 할 재료와 그 양으로 옳은 것은?

甲은 아내, 아들과 함께 찜뽕을 만들어 먹기로 했다. 찜뽕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사기 위해 근처 전통시장에 들른 甲은 아래 <조건>을 만족하도록 재료를 모두 구매한다. 다만 찜뽕요리에 필요한 각 재료의 절반 이상이 냉장고에 있으면 그 재료는 구매하지 않는다.

<조건>

○ 甲과 아내는 각각 성인 1인분, 아들은 성인 0.5인분을 먹는다.

○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아내를 고려하여 ‘고추’라는 단어가 들어간 재료는 모두 절반만 넣는다.

○ 아들은 성인 1인분의 새우를 먹는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

면 200 g, 오징어 240 g, 돼지고기 100 g, 양파 100 g, 청양고추 15 g, 고추기름 100 ml, 대파 10 cm, 간장 80 ml, 마늘 5 g

<찜뽕요리 재료(성인 1인분 기준)>

면 200 g, 해삼 40 g, 소라 30 g, 오징어 60 g, 돼지고기 90 g, 새우 40 g, 양파 60 g, 양송이버섯 50 g, 죽순 40 g, 고추기름 20 ml, 건고추 8 g, 청양고추 10 g, 대파 10 cm, 마늘 10 g, 청주 15 ml

- ① 면 200 g
- ② 양파 50 g
- ③ 새우 100 g
- ④ 건고추 7 g
- ⑤ 돼지고기 125 g

2019 5급 (가) 24번

문 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가뭄 예·경보는 농업용수 분야와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 예·경보 발령은 ‘주의’, ‘심함’, ‘매우심함’ 3단계로 구분하며, ‘매우심함’이 가장 심각한 단계이다.

○ 가뭄 예·경보는 다음에서 정한 날에 발령한다.

- 주의: 해당 기준에 도달한 때 월 10일
- 심함: 해당 기준에 도달한 때 주 금요일
- 매우심함: 해당 기준에 도달한 때 일마다 수시

<가뭄 예·경보 발령 기준>

주의	농업용수	영농기(4 ~ 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70 %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60 %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생활 및 공업용수	하천여유수량을 감량 공급하는 상황에서 현재 하천유지유량이 고갈되거나, 장래 1 ~ 3개월 후 하천 및 댐 등에서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심함	농업용수	영농기(4 ~ 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40 %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생활 및 공업용수	하천유지유량을 감량 공급하는 상황에서 현재 하천 및 댐 등에서 농업용수 공급이 부족하거나, 장래 1 ~ 3개월 후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매우심함	농업용수	영농기(4 ~ 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 %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30 %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생활 및 공업용수	현재 하천 및 댐 등에서 농업용수,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이 부족하고, 장래 1 ~ 3개월 후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단, 상황이 여러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더 심각한 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 ① 영농기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 %라면 농업용수 가뭄 예·경보 기준의 심함에 해당한다.
 - ② 영농기에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70 %일 경우 농업용수 가뭄 예·경보를 그 달 10일에 발령한다.
 - ③ 하천유지유량을 감량 공급하는 상황에서 현재 하천 및 댐 등에서 농업용수 공급이 부족한 경우, 농업용수 가뭄 예·경보 기준의 심함에 해당한다.
 - ④ 12월 23일 금요일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 이하이거나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40 % 이하이면 농업용수 가뭄 예·경보가 발령될 것이다.
 - ⑤ 5월 19일 목요일에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예·경보가 발령 되었다면, 현재 하천 및 댐 등에서 농업용수,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이 부족하고, 장래 1 ~ 3개월 후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일 것이다.

2021 5급 (가) 17번

문 1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관할구역 소방서에 배치되어야 하는 소방자동차의 최소 대수는?

<소방서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

가. 소방사다리차

1) 관할구역에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가 20동 이상 있거나 11층 이상 건축물(아파트 제외)이 20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고가사다리차를 1대 이상 배치한다.
2) 관할구역에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가 50동 이상 있거나 5층 이상 백화점, 복합상영관 등 대형 화재의 우려가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굴절사다리차를 1대 이상 배치한다.
3) 고가사다리차 또는 굴절사다리차가 배치되어 있는 119안전센터와의 거리가 20 km 이내인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화학차(내폭화학차 또는 고성능화학차):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및 일반취급소(이하 ‘제조소 등’이라 한다)의 수에 따라 화학차를 설치한다. 관할구역 내 제조소 등이 50개소 이상 500개소 미만인 경우는 1대를 배치한다. 500개소 이상인 경우는 2대를 배치하며, 1,000개소 이상인 경우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올림)된 수만큼 추가 배치한다.

화학차 대수 = (제조소 등의 수 - 1,000) ÷ 1,000

다. 지휘차 및 순찰차: 각각 1대 이상 배치한다.
라. 그 밖의 차량: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연차, 조명차, 화재조사차, 중장비, 견인차, 진단차, 행정업무용 차량 등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상 황>

甲관할구역 내에는 소방서 한 곳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소방서와 가장 가까운 119안전센터(乙관할구역)는 소방서로부터 25 km 떨어져 있다. 甲관할구역 내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가 30동 있고, 3층 백화점 건물이 하나 있으며,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 등이 1,200개소 있다.

- ① 3

② 4

③ 5

④ 6

⑤ 7

2021 5급 (가) 36번

문 3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규칙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드론 비행 안전 규칙>

드론을 비행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구 분		기체 검사	비행 승인	사업 등록	구 분		장치 신고	조종 자격
이륙 중량 25kg 초과	사업자	○	○	○	자체 중량 12kg 초과	사업자	○	○
	비사업자	○	○	×		비사업자	○	×
이륙 중량 25kg 이하	사업자	×	△	○	자체 중량 12kg 이하	사업자	○	×
	비사업자	×	△	×		비사업자	×	×

※ ○: 필요, ×: 불필요

△: 공항 또는 비행장 중심 반경 5 km 이내에서는 필요

- ① 비사업자인 甲은 이륙중량 20 kg, 자체중량 10 kg인 드론을
공항 중심으로부터 10 km 떨어진 지역에서 비행승인 없이
비행하였다.
- ② 비사업자인 乙은 이륙중량 30 kg, 자체중량 10 kg인 드론을
기체검사, 비행승인을 받아 비행하였다.
- ③ 사업자인 丙은 이륙중량 25 kg, 자체중량 12 kg인 드론을
사업등록, 장치신고를 하고 비행승인 없이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4 km 떨어진 지역에서 비행하였다.
- ④ 사업자인 丁은 이륙중량 30 kg, 자체중량 20 kg인 드론을
기체검사, 사업등록, 장치신고, 조종자격을 갖추고 비행승인을
받아 비행하였다.
- ⑤ 사업자인 戊는 이륙중량 20 kg, 자체중량 13 kg인 드론을
사업등록, 장치신고, 조종자격을 갖추고 비행승인 없이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20 km 떨어진 지역에서 비행하였다.

2022 5급 (나) 18번

문 1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22년에 건강검진을 받을
직원이 가장 많은 검진항목은?

A기관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은 각 검진항목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기에 맞춰 반드시 검진을 받는다. 다만 검진주기가 2년인 검진항목은 최초 검진대상이 되는 해 또는 그다음 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2021년에 45세가 된 직원은 2021년 또는 2022년 중 한 번 심장 검진을 받고, 이후 2년마다 심장 검진을 받아야 한다.

<A기관 건강검진 프로그램>

검진항목	대상	주기
위	40세 이상	2년
대장	50세 이상	1년
심장	45세 이상	2년
자궁경부	30세 이상 45세 미만 여성	2년
간	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	1년

————— <상 황> —————

A기관 직원 甲~戊의 2020년 건강검진 기록은 다음과 같다. 2020년 검진 이후 A기관 직원 현황과 간암 발생 고위험군 직원은 변동이 없다.

<2020년 A기관 직원 건강검진 기록>

이름	나이(세)	성별	검진항목
甲	28	여	없음
乙	45	남	위
丙	40	여	간
丁	48	남	심장
戊	54	여	대장

- ① 위

② 대장

③ 심장

④ 자궁경부

⑤ 간

2023 5급 (가) 9번

9.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방식 1>과 <방식 2>에 따른 결승점을 옳게 짝지은 것은?

신설된 어느 스포츠 종목은 두 팀이 대결하는 경기로, 1점씩 득점하며 경기 종료 시 더 많은 득점을 한 팀이 승리한다. 이 종목의 ‘결승점’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다음 두 가지가 있다.

<방식 1>

상대 팀의 점수보다 1점 많아지는 득점을 한 후, 경기 종료 시까지 동점이나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승리할 때, 그 득점을 결승점으로 정의한다.

<방식 2>

승리한 팀의 득점 중 자기 팀의 점수가 상대 팀의 최종 점수보다 1점 많아질 때의 득점을 결승점으로 정의한다.

<상 황>

두 팀 A, B가 맞붙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득점을 하고 경기가 종료되었다. (A, B는 득점한 팀을 나타낸다)

A - A - B - B - B - A - B - A - A - A - B

방식 1	방식 2
① A의 세 번째 득점	A의 두 번째 득점
② A의 다섯 번째 득점	A의 다섯 번째 득점
③ A의 다섯 번째 득점	A의 여섯 번째 득점
④ A의 여섯 번째 득점	A의 다섯 번째 득점
⑤ A의 여섯 번째 득점	A의 여섯 번째 득점

2023 5급 (가) 13번

13. 다음 글과 <A부처 스크랩 후보>를 근거로 판단할 때, 스크랩의
앞에서부터 5번째에 배치되는 기사 제목은?

- A부처는 당일 조간신문 및 전일 석간신문 기사(사설과
논평 포함)를 선별하여 스크랩하고 있다.

○ 다음 조건들을 ‘조건 1’부터 순서대로 적용하여 기사를
선별·배치한다. 조건을 적용할 때 먼저 적용한 조건을
위배할 수 없다.

조건 1: 제목에 ‘정책’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는 다른
기사보다 앞에 배치(단, ‘△△정책’이 제목에 포함된
기사는 스크랩에서 제외)

조건 2: 사설과 논평은 일반기사보다 뒤에 배치

조건 3: 제목에 ‘규제’나 ‘혁신’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는
다른 기사보다 앞에 배치

조건 4: 조간신문 기사는 석간신문 기사보다 앞에 배치

<A부처 스크랩 후보>

구분	종류	기사 제목
조간	논평	규제 샌드박스, 적극 확대되어야
석간	사설	★★정책 추진결과, “양호”
조간	논평	플랫폼경제의 명암
석간	일반기사	△△정책 추진계획 발표
석간	일반기사	□□산업 혁신 성장 포럼 성황리 개최
석간	사설	○○생태계는 진화 중
석간	사설	네거티브 규제, 현실성 고려해야
조간	논평	◇◇정책 도입의 효과, 어디까지?
조간	일반기사	▼▼수요 증가로 기업들 화색
조간	일반기사	정부 혁신 중간평가 성적표 공개

- ① 규제 샌드박스, 적극 확대되어야
- ② △△정책 추진계획 발표
- ③ □□산업 혁신 성장 포럼 성황리 개최
- ④ ○○생태계는 진화 중
- ⑤ ▼▼수요 증가로 기업들 화색

2023 5급 (가) 25번

2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특허무효심판

가.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권자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나. 특허심판원은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하면 인용심결을, 특허가 유효라고 판단하면 기각심결을 선고하여 심판을 종료한다. 특허의 유·무효에 관한 심결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여 심결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 심결취소의 소

가. 특허법원은 특허의 유·무효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각판결을,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용판결을 선고하여 소송을 종료한다. 예컨대 특허심판원의 인용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역시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심결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판결을 한다. 특허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여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판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해야 한다.

나.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각판결을,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용판결을 선고하여 상고심을 종료한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 <상 황> —

특허청에 등록된 甲의 특허에 대해서 이해관계인 乙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였다.

- ① 특허심판원은 甲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한 경우, 기각심결을 선고하여 심판을 종료한다.
- ② 특허심판원의 인용심결이 선고된 경우, 乙은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 ③ 특허심판원의 인용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에서 특허법원이 甲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경우, 인용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 ④ 특허심판원의 기각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에서 특허법원이 기각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각판결이 선고된 경우, 대법원은 甲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 ⑤ 특허심판원의 기각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에서 특허법원이 기각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각판결이 선고된 경우, 乙은 상고심 판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2023 5급 (가) 37번

3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건축물 점검기관은 점검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임자와 점검자를 각각 따로 두어야 한다.

연면적 인력	3천 m ² 미만	3천 m ² 이상 1만 m ² 미만	1만 m ² 이상
책임자(명)	1	1	1
점검자(명)	2	3	4

※ 연면적: 한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책임자와 점검자는 다음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교육의 종류 및 시간

가. 기본교육: 7시간(단, 책임자는 35시간)

나. 보수교육: 7시간

2. 교육 이수 주기

가. 기본교육: 매년 이수

나. 보수교육: 3년마다 이수

<보 기>

ㄱ. 연면적 2천 m²인 건축물을 점검하는 점검기관의 책임자와 점검자가 이수해야 할 연간 교육시간의 총합은 49시간 이상이다.

ㄴ. 책임자 1명, 점검자 3명으로 구성된 점검기관은 각층 바닥면적이 5천 m²인 2층 건축물을 점검할 수 있다.

ㄷ. 연면적 2만 m²인 건축물을 점검하는 점검기관의 책임자와 점검자는 총 35시간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024 5급 (나) 6번

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문화예술위원회는 매년 문학적 역량이 뛰어난 작가의 집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집필이 완료된 작품의 작품집을 발간하려는 작가이며, 선정된 작가에게는 작품집의 발간을 위해 창작지원금(원고료 및 출판 비용 등) 1,000만 원이 지급된다. 2024년 지원사업의 신청 마감일은 2024년 6월 30일이고, 창작 지원금은 2025년 1월 중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활동 중인 시, 시조, 소설, 수필, 평론, 희곡 분야의 작가이다.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 분야의 최초 창작활동 시작 후 3년 이상 경과한 작가에게 자격요건이 있으며, 창작활동 경력은 신청 분야와 활동 분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신청 분야의 창작활동 시작 시점은 ① 신청 분야 신춘문에 당선일, ② 신청 분야 단행본 출간일, ③ 신청 분야 신인문학상 수상일, ④ 신청 분야 문예매체 작품 발표일, ⑤ 최초 공연일(희곡 분야에 한함)로 한다.

선정된 작가는 창작지원금을 지급받은 해의 12월 말일까지 작품집을 발간해야 한다. 지정된 날짜까지 작품집 발간 실적이 없는 경우, 창작지원금이 반환처리될 수 있다.

- <보 기>

- ㄱ. 지원사업은 한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작가만을 대상으로 한다.
 - ㄴ. 2015년 4월 16일 소설 분야 신춘문에 당선된 이후 한국에서 활동 중인 작가는 2024년 지원사업의 소설 분야 신청 자격이 있다.
 - ㄷ. 2020년 6월 28일 최초 공연된 작품으로 3개월 뒤 희곡 분야 신인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한국에서 활동 중인 작가는 희곡 분야 2024년 지원사업 신청 자격이 없다.
 - ㄹ. 2024년 지원사업에 선정된 작가가 2025년 12월 말일까지 작품집을 발간하지 않는 경우, 창작지원금이 반환처리될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ㄱ, ㄴ, ㄷ

2025 5급 (가) 18번

1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사무관이 세 번째로 정산할 사업은?

○ 甲사무관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증액요청을 한 사업을 대상으로 올해 지출 내역을 정산하고자 한다.

○ 甲사무관이 담당하고 있는 올해 사업(A ~ E)의 사업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 원)

사업	총사업비	보조금 총액	보조금 집행액	증액요청 여부
A	250,000	200,000	200,000	○
B	30,000	27,000	27,000	○
C	125,000	120,000	120,000	×
D	90,000	81,000	81,000	○
E	82,000	65,600	64,600	○

○ 정산 순서에 대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 총사업비 대비 보조금 총액 비율이 높은 사업부터 정산한다.
- 총사업비 대비 보조금 총액 비율이 동일한 경우, 보조금 총액이 큰 사업부터 정산한다.

○ 위 규칙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미집행액이 있는 사업을 우선하여 정산한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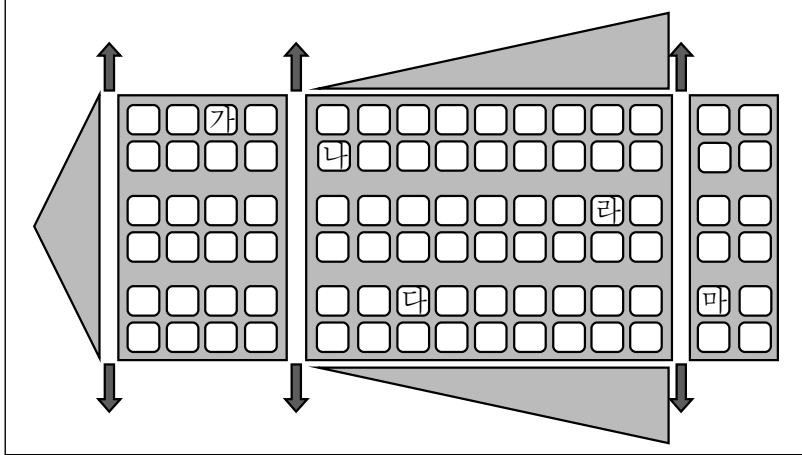
2011 민경채 (인) 16번

문 1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비행기 좌석표>의 주어진 5개 좌석 중 생존가능성이 가장 높은 좌석은?

A국 항공담당 부처는 비행기 화재사고 시 좌석에 따른 생존가능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좌석의 조건에 따라 생존가능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 각 비상구에서 앞뒤로 두 번째 열 이내에 앉은 승객은 그렇지 않은 승객에 비해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 복도(통로)측 좌석 승객이 창측 승객보다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 기내의 가운데 열을 기준으로 앞쪽과 뒤쪽으로 나누어 볼 때 앞쪽 승객이 뒤쪽 승객보다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비행기 좌석표>



※ 화살표는 비상구를 나타내며, 그림의 왼쪽이 비행기의 앞쪽 방향이다. 또한 비행기 좌석은 총 15열이다.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 ⑤ 마

2011 민경채 (인) 18번

문 18.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의 제한요건에 관한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11년 8월 현재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가)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마)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단, 고발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1회로 간주)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① 금고 1년 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2009년 10월 출소한 자
- ② 2011년 8월 현재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③ 2010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3회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 ④ 2010년 1월, 교통사고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5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⑤ 2009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2회 받은 기업

2012 민경채 (인) 5번

문 5. 다음의 <커피의 종류>, <은희의 취향> 및 <오늘 아침의 상황>으로 판단할 때, 오늘 아침에 은희가 주문할 커피는?

<커피의 종류>

에스프레소  • 에스프레소	카페 아메리카노  • 에스프레소 • 따뜻한 물
카페 라떼  • 에스프레소 • 데운 우유	카푸치노  • 에스프레소 • 데운 우유 • 우유거품
카페 비엔나  • 에스프레소 • 따뜻한 물 • 휘핑크림	카페 모카  • 에스프레소 • 초코시럽 • 데운 우유 • 휘핑크림

<은희의 취향>

- ☐ 배가 고플 때에는 데운 우유가 들어간 커피를 마신다.
- ☐ 다른 음식과 함께 커피를 마실 때에는 데운 우유를 넣지 않는다.
- ☐ 스트레스를 받으면 휘핑크림이나 우유거품을 추가한다.
- ☐ 피곤하면 휘핑크림이 들어간 경우에 한하여 초코시럽을 추가한다.

<오늘 아침의 상황>

출근을 하기 위해 지하철을 탄 은희는 짹 들어찬 사람들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한 은희는 커피를 마시며 기분을 달래기 위해 커피전문점에 들렀다. 아침식사를 하지 못해 배가 고프고 고된 출근길에 피곤하지만, 시간 여유가 없어 오늘 아침은 커피만 마실 생각이다. 그런데 은희는 요즘 체중이 늘어 휘핑크림은 넣지 않기로 하였다.

- ① 카페 라떼
- ② 카페 아메리카노
- ③ 카푸치노
- ④ 카페 모카
- ⑤ 카페 비엔나

2014 민경채 (A) 20번

문 20. 다음 <기준>과 <현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지방자치단체 A~D 중 중점관리대상만을 모두 고르면?

<기 준>

○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지표

(단위 : %)

경보 구분\지표	통합재정 수지적자 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채무 상환비 비율	지방세 징수액 비율	금고잔액 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주의	25 초과 50 이하	25 초과 50 이하	12 초과 25 이하	25 이상 50 미만	10 이상 20 미만	400 초과 600 이하
심각	50 초과	50 초과	25 초과	25 미만	10 미만	600 초과

○ 중점관리대상 지방자치단체 지정기준

- 6개의 사전경보지표 중 ‘심각’이 2개 이상이면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

- ‘주의’ 2개는 ‘심각’ 1개로 간주

<현 황>

(단위 : %)

지방 자치단체\지표	통합재정 수지적자 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채무 상환비 비율	지방세 징수액 비율	금고잔액 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A	30	20	15	60	30	250
B	40	30	10	40	15	350
C	15	20	6	45	17	650
D	60	30	30	55	25	150

- ① A, C
- ② A, D
- ③ B, C
- ④ B, D
- ⑤ B, C, D

2017 민경채 (나) 10번

문 10. 다음 글과 <A여행사 해외여행 상품>을 근거로 판단할 때, 세훈이 선택할 여행지는?

인희 : 다음 달 셋째 주에 연휴던데, 그때 여행갈 계획 있어?

세훈 : 응, 이번에는 꼭 가야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 공휴일이잖아.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화요일과 목요일에만 연가를 쓰면 앞뒤 주말 포함해서 최대 9일 연휴가 되더라고. 그런데 난 연가가 하루밖에 남지 않아서 그렇게 길게는 안 돼. 그래도 이번엔 꼭 해외여행을 갈 거야.

인희 : 어디로 갈 생각이야?

세훈 : 나는 어디로 가든 상관없는데 여행지에 도착할 때까지 비행기를 오래 타면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편도 총비행시간이 8시간 이내면서 직항 노선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인희 : 여행기간은 어느 정도로 할 거야?

세훈 : 남은 연가를 잘 활용해서 주어진 기간 내에서 최대한 길게 다녀오려고 해. A여행사 해외여행 상품 중에 하나를 정해서 다녀올 거야.

<A여행사 해외여행 상품>

여행지	여행기간 (한국시각 기준)	총비행시간 (편도)	비행기 환승 여부
두바이	4박 5일	8시간	직항
모스크바	6박 8일	8시간	직항
방콕	4박 5일	7시간	1회 환승
홍콩	3박 4일	5시간	직항
뉴욕	4박 5일	14시간	직항

- ① 두바이
- ② 모스크바
- ③ 방콕
- ④ 홍콩
- ⑤ 뉴욕

2017 민경채 (나) 20번

문 20. 다음 글과 <필요 물품 목록>을 근거로 판단할 때, ○○부 아동
방과후교육 사업에서 허용되는 사업비 지출품목만을 모두 고르면?

○○부는 아동방과후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원칙적
으로 사업비는 사용목적이 ‘사업 운영’인 경우에만 지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첫째, 품목당 단가가 10만 원 이하로 사용목적이
‘서비스 제공’인 경우에 지출할 수 있다. 둘째, 사용연한이
1년 이내인 경우에 지출할 수 있다.

<필요 물품 목록>

품목	단가(원)	사용목적	사용연한
인형탈	120,000	사업 운영	2년
프로그램 대여	300,000	보고서 작성	6개월
의자	110,000	서비스 제공	5년
컴퓨터	950,000	서비스 제공	3년
클리어파일	500	상담일지 보관	2년
블라인드	99,000	서비스 제공	5년

- ① 프로그램 대여, 의자
- ② 컴퓨터, 클리어파일
- ③ 클리어파일, 블라인드
- ④ 인형탈, 프로그램 대여, 블라인드
- ⑤ 인형탈, 의자, 컴퓨터

2020 민경채 (가) 6번

문 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A서비스는 공항에서 출국하는 승객이 공항 외의 지정된 곳에서 수하물을 보내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찾아가는 신개념 수하물 위탁서비스이다.

A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호텔에 마련된 체크인 카운터에서 본인 확인과 보안 절차를 거친 후 탑승권을 발급받고 수하물을 위탁하면 된다. ○○호텔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호텔에 마련된 체크인 카운터는 매일 08:00~16:00에 운영된다. 인천공항에서 13:00~24:00에 출발하는 국제선 이용 승객을 대상으로 A서비스가 제공된다. 단, 미주노선(괌/사이판 포함)은 제외된다.

	숙박 호텔	항공기 출발 시각	출발지	목적지
①	○○호텔	15:30	김포공항	제주
②	◇◇호텔	14:00	김포공항	베이징
③	○○호텔	15:30	인천공항	사이판
④	◇◇호텔	21:00	인천공항	홍콩
⑤	○○호텔	10:00	인천공항	베이징

2020 민경채 (가) 16번

문 16. 다음 글과 <국내이전비 신청현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국내이전비를 지급받는 공무원만을 모두 고르면?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아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은 다음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 국내이전비를 지급받는다.

첫째,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이사화물도 옮겨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둘째, 거주지와 이사화물은 발령을 받은 후에 이전하여야 한다.

<국내이전비 신청현황>

공무원	전임지	신임지	발령 일자	이전 일자	이전여부	
					거주지	이사 화물
甲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북구	'20.2.13.	'20.2.20.	○	○
乙	경기도 고양시	세종특별 자치시	'19.12.3.	'19.12.5.	○	×
丙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19.6.1.	'19.6.15.	×	○
丁	제주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20.1.2.	'20.1.13.	○	○
戊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청주시	'19.9.3.	'19.9.8.	○	○
己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20.4.25.	'20.4.1.	○	○

- ① 甲, 乙

② 乙, 丁

③ 丙, 己

④ 丁, 戊

⑤ 戊, 己

2020 7급 모의평가 7번

문 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丁 가운데 근무계획이 승인될 수 있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유연근무제>

☐ 개념

☐ 주 40시간을 근무하되,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하여 1주일에 5일 이하로 근무하는 제도

☐ 복무관리

☐ 점심 및 저녁시간 운영

-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각에 관계없이 점심시간은 12:00 ~ 13:00, 저녁시간은 18:00 ~ 19:00의 각 1시간으로 하고 근무시간으로는 산정하지 않음

☐ 근무시간 제약

- 근무일의 경우,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하고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함

- 하루 중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시간대는 06:00 ~ 24:00로 한정함

<상 황>

다음은 甲~丁이 제출한 근무계획을 정리한 것이며 위의 <유연근무제>에 부합하는 근무계획만 승인된다.

요일 직원	월	화	수	목	금
甲	08:00 ~ 18:00	08:00 ~ 18:00	09:00 ~ 13:00	08:00 ~ 18:00	08:00 ~ 18:00
乙	08:00 ~ 22:00	08:00 ~ 22:00	-	08:00 ~ 22:00	08:00 ~ 12:00
丙	08:00 ~ 24:00	08:00 ~ 24:00	-	08:00 ~ 22:00	-
丁	06:00 ~ 16:00	08:00 ~ 22:00	-	09:00 ~ 21:00	09:00 ~ 18:00

① 乙

② 甲, 丙

③ 甲, 丁

④ 乙, 丙

⑤ 乙, 丁

323

323

2020 7급 모의평가 15번

문 1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 甲은 인사교류를 통해 ○○기관에서 타 기관으로
전출하고자 한다. 인사교류란 동일 직급간 신청자끼리
1:1로 교류하는 제도로서, 각 신청자가 속한 두 기관의
교류 승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기관별로 교류를 승인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기관: 신청자간 현직급임용년월은 3년 이상 차이나지
않고, 연령은 7세 이상 차이나지 않는 경우
□□기관: 신청자간 최초임용년월은 5년 이상 차이나지
않고, 연령은 3세 이상 차이나지 않는 경우
△△기관: 신청자간 최초임용년월은 2년 이상 차이나지
않고, 연령은 5세 이상 차이나지 않는 경우
- 甲(32세)의 최초임용년월과 현직급임용년월은 2015년
9월로 동일하다.
- 甲과 동일 직급인 인사교류 신청자(A ~ E)의 인사
정보는 다음과 같다.

신청자	연령 (세)	현 소속 기관	최초임용년월	현직급임용년월
A	30	□□	2016년 5월	2019년 5월
B	37	□□	2009년 12월	2017년 3월
C	32	□□	2015년 12월	2015년 12월
D	31	△△	2014년 1월	2014년 1월
E	35	△△	2017년 10월	2017년 10월

- ① A, B
- ② B, E
- ③ C, D
- ④ A, B, D
- ⑤ C, D, E

2020 7급 모의평가 17번

문 1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21년 포획·채취 금지 고시의 대상이 되는 수산자원은?

매년 A ~ H 지역에서 포획·채취 금지가 고시되는 수산자원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기 준>

수산자원	금지기간	금지지역
대구	5월 1일 ~ 7월 31일	A, B
전어	9월 1일 ~ 12월 31일	E, F, G
꽃게	6월 1일 ~ 7월 31일	A, B, C
소라	3월 1일 ~ 5월 31일	E, F
	5월 1일 ~ 6월 30일	D, G
새조개	3월 1일 ~ 3월 31일	H

<상 황>

정부는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2021년에 한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에 따른 포획·채취 금지 고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소비장려 수산자원: 전어

○ 소비촉진 기간: 4월 1일 ~ 7월 31일

○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C, D, E, F

- ① 대구

② 전어

③ 꽃게

④ 소라

⑤ 새조개

2021 7급 (나) 15번

문 1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수질검사빈도와 수질기준을 둘 다 충족한 검사지점만을 모두 고르면?

□□법 제00조(수질검사빈도와 수질기준) ① 기초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상수도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수장에서의 검사

가. 냄새, 맛, 색도, 탁도(濁度),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일 1회 이상

나.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매주 1회 이상

단, 일반세균, 대장균을 제외한 항목 중 지난 1년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2. 수도꼭지에서의 검사

가. 일반세균, 대장균,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월 1회 이상

나.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월 1회 이상

3. 수도물 급수과정별 시설(배수지 등)에서의 검사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동, 수소이온 농도, 아연, 철,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 분기 1회 이상

② 수질기준은 아래와 같다.

항목	기준	항목	기준
대장균	불검출/100 mL	일반세균	100 CFU/mL 이하
잔류염소	4 mg/L 이하	질산성 질소	10 mg/L 이하

<상 황>

甲시장은 □□법 제00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甲시 관할의 검사지점(A~E)은 이전 검사에서 매번 수질 기준을 충족하였고, 이번 수질검사에서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검사지점	검사대상	검사결과	검사빈도
정수장 A	잔류염소	2 mg/L	매일 1회
정수장 B	질산성 질소	11 mg/L	매일 1회
정수장 C	일반세균	70 CFU/mL	매월 1회
수도꼭지 D	대장균	불검출/100 mL	매주 1회
배수지 E	잔류염소	2 mg/L	매주 1회

※ 제시된 검사대상 외의 수질검사빈도와 수질기준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본다.

- ① A, D

② B, D

③ A, D, E

④ A, B, C, E

⑤ A, C, D, E

2022 7급 (가) 8번

문 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戊 중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2023년 휴가지원사업 모집 공고>

□ 사업 목적

○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 여행 활성화

□ 참여 대상

○ 중소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
근로자. 단, 아래 근로자는 참여 제외

－ 병·의원 소속 의사

－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 소속 회계사·세무사·노무사

－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변리사

○ 대표 및 임원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나, 아래의 경우는 참여 가능

－ 중소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원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및 임원

<상 황>

甲~戊의 재직정보는 아래와 같다.

구분	직장명	직장 유형	비고
간호사 甲	A병원	의료법인	근로자
노무사 乙	B회계법인	중소기업	근로자
사회복지사 丙	C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	대표
회사원 丁	D물산	대기업	근로자
의사 戊	E재단	비영리민간단체	임원

- ① 甲, 丙

② 甲, 戊

③ 乙, 丁

④ 甲, 丙, 戊

⑤ 乙, 丙, 丁

2023 7급 (인) 8번

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23년 현재 甲~戊 중 청년자산형성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A국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청년자산형성적금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자산형성적금은 가입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이 5,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단, 직전과세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이 모두 없는 사람과 직전 2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청년은 19~34세인 사람을 의미한다. 단, 군복무기간은 나이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3년간 군복무를 한 36세인 사람은 군복무기간 3년을 제외하면 33세이므로 청년에 해당한다.

<상 황>

이름	나이	직전과세년도 소득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년도	군복무 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甲	20세	0원	0원	없음	없음
乙	36세	0원	5,000만 원	없음	없음
丙	29세	3,500만 원	1,000만 원	2022년	2년
丁	35세	4,500만 원	0원	2020년	2년
戊	27세	4,000만 원	1,500만 원	2021년	없음

- ① 甲
- ② 乙
- ③ 丙
- ④ 丁
- ⑤ 戊

2025 7급 (인) 8번

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세미나 장소 A ~ E 중 甲이 선정할 곳은?

- △△부서 주무관 甲은 다음 조건에 따라 정책 세미나 개최를 위한 장소를 선정하고자 한다.

 - 세미나 시간은 14 : 00 ~ 16 : 00이며, 43명이 참석한다.
 - 세미나 시간 동안 해당 장소에 타 부서의 예약이 없어야 하며, 프로젝터 사용이 가능한 장소여야 한다.
 -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그중 다과 제공이 가능한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를 선정한다.

○ 다음은 세미나 장소 A ~ E에 관한 정보이다.

장소	세미나 당일 타 부서 예약 현황	프로젝터 사용 가능 여부	최대 수용 가능 인원	다과 제공 가능 여부
A	13 : 00 ~ 15 : 00	○	65명	○
B	없음	○	40명	○
C	11 : 00 ~ 12 : 30	○	50명	×
D	없음	×	80명	×
E	없음	○	45명	○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2025 7급 (인) 18번

1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아파트 매물 A~E 중 甲이 선택할 곳은?

- ☐ 甲은 다음 기준에 따라 아파트 매물 중 한 곳을 선택하고자 한다.

- 10층 이상이고, 2025년 7월 내 입주 가능

- 담보 대출 없음

- 전세 보증금 2.3억 원 이하(단, 불박이장이 있는 경우 2.5억 원 이하)

☐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매물이 2개 이상인 경우, 그중 대한동 매물이 있다면 그 매물을 선택한다.

<상 황>

다음은 2025년 7월 1일 현재 아파트 매물의 정보이다.

매물	지역	동·호수	입주 가능 시기	전세 보증금 (억 원)	담보 대출	불박이장
A	대한동	1011동 1601호	즉시	2.5	없음	있음
B	대한동	503동 1704호	즉시	2.3	있음	없음
C	민국동	301동 1504호	즉시	2.0	없음	없음
D	대한동	308동 1306호	2025. 8. 1. 이후	2.0	없음	있음
E	민국동	616동 806호	즉시	2.3	없음	없음

※ 호수가 네 자리 수인 경우 앞 두 자리의 수, 호수가 세 자리 수인 경우 앞 한 자리의 수는 층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601호는 16층이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2014 5급 (A) 9번

문 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표>에서 도시재생사업이 가장 먼저 실시되는 지역은?

제00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을 말한다.

제00조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인구가 20 % 이상 감소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

2.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10년간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사업체 수가 5 % 이상 감소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체 수가 감소

3.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된 건축물이 차지 하는 비율이 50 % 이상인 지역

제00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가능한 곳이 복수일 경우, 전 조 제1항 제1호의 인구기준을 우선시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다만 인구기준의 하위 두 항목은 동등하게 고려하며, 최근 30년간 최다 인구 대비 현재 인구 비율이 낮을수록, 최근 5년간 인구의 연속 감소 기간이 길수록 그 지역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표> 도시재생활성화 후보지역

구분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	E지역
인구	최근 30년간 최다 인구 대비 현재 인구 비율	68 %	82 %	87 %	92 %	77 %
	최근 5년간 인구의 연속 감소 기간	5년	4년	2년	4년	2년
사업체	최근 10년간 최다 사업체 수 대비 현재 사업체 수 비율	92 %	89 %	96 %	97 %	96 %
	최근 5년간 사업체 수의 연속 감소 기간	3년	5년	2년	2년	2년
전체 건축물 수 대비 20년 이상된 건축물 비율		62 %	55 %	46 %	58 %	32 %

- ① A지역
- ② B지역
- ③ C지역
- ④ D지역
- ⑤ E지역

2015 5급 (인) 29번

문 29.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국 각 지역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풍력발전기 모델명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풍력발전기는 회전축의 방향에 따라 수평축 풍력발전기와 수직축 풍력발전기로 구분된다. 수평축 풍력발전기는 구조가 간단하고 설치가 용이하며 에너지 변환효율이 우수하다. 하지만 바람의 방향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일정한 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수직축 풍력발전기는 바람의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아 바람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사막이나 평원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부품이 비싸고 수평축 풍력발전기에 비해 에너지 변환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甲사는 현재 4가지 모델의 풍력발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각 풍력발전기는 정격 풍속에서 최대 발전량에 도달하며, 가동이 시작되면 최소 발전량 이상의 전기를 생산한다. 각 풍력발전기의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모 델 명	U-50	U-57	U-88	U-93
시간당 최대 발전량(kW)	100	100	750	2,000
시간당 최소 발전량(kW)	20	20	150	400
발전기 높이(m)	50	68	80	84.7
회전축 방향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상 황>

A국은 甲사의 풍력발전기를 X, Y, Z지역에 각 1기씩 설치할 계획이다. X지역은 산악지대로 바람의 방향이 일정하며, 최소 150 kW 이상의 시간당 발전량이 필요하다. Y지역은 평원지대로 바람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으며, 철새 보호를 위해 발전기 높이는 70 m 이하가 되어야 한다. Z 지역은 사막지대로 바람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으며, 주민 편의를 위해 정격 풍속에서 600 kW 이상의 시간당 발전량이 필요하다. 복수의 모델이 각 지역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에너지 변환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평축 모델을 설치하기로 한다.

	X지역	Y지역	Z지역
①	U-88	U-50	U-88
②	U-88	U-57	U-88
③	U-93	U-50	U-88
④	U-93	U-50	U-93
⑤	U-93	U-57	U-93

2017 5급 (가) 36번

문 3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17년 3월 인사 파견에서 선발될 직원만을 모두 고르면?

- △△도청에서는 소속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례적으로 인사 파견을 실시하고 있다.

○ 인사 파견은 지원자 중 3명을 선발하여 1년 간 이루어지고 파견 기간은 변경되지 않는다.

○ 선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과장을 선발하는 경우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1명 이상 함께 선발한다.

-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2명 이상의 팀장을 선발할 수 없다.

- 과학기술과 직원을 1명 이상 선발한다.

- 근무 평정이 70점 이상인 직원만을 선발한다.

- 어학 능력이 ‘하’인 직원을 선발한다면 어학 능력이 ‘상’인 직원도 선발한다.

- 직전 인사 파견 기간이 종료된 이후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직원을 선발할 수 없다.

○ 2017년 3월 인사 파견의 지원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직원	직위	근무 부서	근무 평정	어학 능력	직전 인사 파견 시작 시점
A	과장	과학기술과	65	중	2013년 1월
B	과장	자치행정과	75	하	2014년 1월
C	팀장	과학기술과	90	중	2014년 7월
D	팀장	문화정책과	70	상	2013년 7월
E	팀장	문화정책과	75	중	2014년 1월
F	－	과학기술과	75	중	2014년 1월
G	－	자치행정과	80	하	2013년 7월

- ① A, D, F
- ② B, D, G
- ③ B, E, F
- ④ C, D, G
- ⑤ D, F, G

2018 5급 (나) 28번

문 2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甲부서에서는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2017년에 시행되었던 정책(A ~ F)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정책 평가 결과>

(단위 : 점)

정책	계획의 충실성	계획 대비 실적	성과지표 달성도
A	96	95	76
B	93	83	81
C	94	96	82
D	98	82	75
E	95	92	79
F	95	90	85

○ 정책 평가 영역과 각 영역별 기준 점수는 다음과 같다.

- 계획의 충실성 : 기준 점수 90점

- 계획 대비 실적 : 기준 점수 85점

- 성과지표 달성도 : 기준 점수 80점

○ 평가 점수가 해당 영역의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 ‘통과’로 판단하고 기준 점수 미만인 경우 ‘미통과’로 판단한다.

○ 모든 영역이 통과로 판단된 정책에는 전년과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며, 2개 영역이 통과로 판단된 정책에는 전년 대비 10 % 감액, 1개 영역만 통과로 판단된 정책에는 15 % 감액하여 편성한다. 다만 ‘계획 대비 실적’ 영역이 미통과인 경우 위 기준과 상관없이 15 % 감액하여 편성한다.

○ 2017년도 甲부서의 A ~ F 정책 예산은 각각 20억 원으로 총 120억 원이었다.

- ① 전년과 동일한 금액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정책은 총 2개이다.
- ② 甲부서의 2018년도 A ~ F 정책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 ③ ‘성과지표 달성도’ 영역에서 ‘통과’로 판단된 경우에도 예산을 감액해야 하는 정책이 있다.
- ④ 예산을 전년 대비 15 % 감액하여 편성하는 정책들은 모두 ‘계획 대비 실적’ 영역이 ‘미통과’로 판단되었을 것이다.
- ⑤ 2개 영역이 ‘미통과’로 판단된 정책에 대해서만 전년 대비 2018년도 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 1개의 정책만 감액해야 한다.

2019 5급 (가) 31번

문 31.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출장을 함께 갈 수 있는 직원들의 조합으로 가능한 것은?

A은행 B지점에서는 3월 11일 회계감사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본점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 08시 정각 출발이 확정되어 있으며, 출발 후 B지점에 복귀하기까지 총 8시간이 소요된다. 단, 비가 오는 경우 1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 출장인원 중 한 명이 직접 운전하여야 하며,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다.

○ 출장시간에 사내 업무가 겹치는 경우에는 출장을 갈 수 없다.

○ 출장인원 중 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서류 박스 운반 지연으로 인해 30분이 추가로 소요된다.

○ 차장은 책임자로서 출장인원에 적어도 한 명 포함되어야 한다.

○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 <상 황> —————

○ 3월 11일은 하루 종일 비가 온다.

○ 3월 11일 당직 근무는 17시 10분에 시작한다.

직원	직급	운전면허	건강상태	출장 당일 사내 업무
甲	차장	1종 보통	부상	없음
乙	차장	2종 보통	건강	17시 15분 계약업체 면담
丙	과장	없음	건강	17시 35분 고객 상담
丁	과장	1종 보통	건강	당직 근무
戊	대리	2종 보통	건강	없음

- ① 甲, 乙, 丙
- ② 甲, 丙, 丁
- ③ 乙, 丙, 戊
- ④ 乙, 丁, 戊
- ⑤ 丙, 丁, 戊

2021 5급 (가) 37번

문 37. 다음 글과 <대화>를 근거로 판단할 때, 인영이가 현장답사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은?

○ 인영은 기업 현장답사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 현장답사 할 기업을 먼저 선정해야 하는데, 기업 후보를 5개 받았으며 이 가운데에서 한 기업을 골라야 한다.

현장답사 후보 기업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기업	업종	직원수	실내/실외 여부	근접역 유무 및 역과의 거리
A	제조	80명	실외	있음, 20 km
B	서비스	500명	실내	있음, 10 km
C	서비스	70명	실외	있음, 12 km
D	서비스	100명	실내	없음
E	제조	200명	실내	있음, 8 km

○ 인영은 서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다음 <대화>를 바탕으로 현장답사 대상 기업을 선정하였다.

<대 화>

인영: 서연아, 예전에 기업 현장답사 계획한 적 있었지?

나도 이번에 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 현장답사 기업을 선정할 때 어떤 업종이 좋을까?

서연: 응, 했었지. 얼마 전 있었던 현장답사 기업이 제조기업이었으니, 이번에는 서비스기업에 가는 것이 좋겠어.

인영: 그렇구나, 기업의 위치는 어떤 곳이 좋을까?

서연: 아무래도 일정이 바쁜 사람이 많을 테니 근접역과의 거리가 15 km 이내면 좋겠어. 그리고 기업의 규모도 중요할텐데, 관련한 조건은 없었어?

인영: 그리고 보니 이번에는 직원수가 100명 이하인 곳이어야 해. 그런데 근접역이 없으면 아예 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야?

서연: 아니야. 근접역이 없을 때는 차량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답사 대상으로 선정 가능해.

인영: 그렇구나, 또 고려해야 할 것은 없어?

서연: 답사 예정 날짜를 보니 비 예보가 있네. 그러면 실외는 안 되겠다.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2022 5급 (나) 16번

문 1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청년미래공제에 참여 가능한 기업을 모두 고르면?

<2022년 청년미래공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 목적

-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

○ 참여 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청년기업은 참여 가능

※ 청년기업: 14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이 현재 대표이면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참여 제한

- 청년수당 가입유지율이 30 % 미만인 기업은 참여 불가. 단, 청년수당 가입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는 참여 가능

※ $\frac{\text{청년수당 6개월 이상 가입 유지 인원(㉠)}}{\text{청년수당 가입 인원(㉡)}} \times 100$

<상 황>

2022년 현재 중소기업(A ~ E)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표자 나이	사업 개시 경과연수	(㉠)	(㉡)
A	45	39	8	25	7
B	30	40	8	25	23
C	4	40	6	2	2
D	2	39	6	2	0
E	2	38	8	2	2

- ① A, C

② A, D

③ B, D

④ B, E

⑤ C, E

2022 5급 (나) 36번

문 3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일반하역사업 등록이 가능한 사업자만을 모두 고르면?

<일반하역사업의 최소 등록기준>

구분	1급지 (부산항, 인천항, 포항항, 광양항)	2급지 (여수항, 마산항, 동해·목호항)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총시설 평가액	10억 원	5억 원	1억 원
자본금	3억 원	1억 원	5천만 원

○ 사업자의 시설 중 본인 소유 시설평가액 총액이 등록기준에서 정한 급지별 ‘총시설평가액’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사업자의 하역시설 평가액 총액은 해당 사업자의 시설 평가액 총액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3급지 항에 대해서는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면 등록기준에서 정한 급지별 ‘총시설평가액’을 2분의 1로 완화한다.

———<상 황>———

○ 시설 A~F 중 하역시설은 A, B, C이다.

○ 사업자 甲~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	항만	자본금	시설	시설 평가액	본인 소유여부
甲	부산항	2억 원	B	4억 원	○
			C	2억 원	○
			D	1억 원	×
			E	3억 원	×
乙	광양항	3억 원	C	8억 원	○
			E	1억 원	×
			F	2억 원	×
丙	동해·목호항	4억 원	A	1억 원	○
			C	4억 원	○
			D	3억 원	×
丁	대산항	1억 원	A	6천만 원	○
			B	1천만 원	×
			C	1천만 원	×
			D	1천만 원	○

- ① 甲, 乙
- ② 甲, 丙
- ③ 乙, 丙
- ④ 乙, 丁
- ⑤ 丙, 丁

2022 5급 (나) 37번

문 3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소방서에서 폐기대상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교체대상이 될 장비는?

○ <소방장비 내용연수 기준>에 따라 소방장비 구비목록의 소방장비를 교체해야 한다. 사용연수가 내용연수 기준을 초과한 소방장비는 폐기하고, 초과하지 않은 소방장비는 내용연수가 적게 남은 것부터 교체해야 한다.

<소방장비 내용연수 기준>

구분		내용연수
소방자동차		10
소방용로봇		7
구조장비	산악용 들것	5
	구조용 안전벨트	3
방호복	특수방호복	5
	폭발물방호복	10

※ 내용연수: 소방장비의 내구성을 고려할 때, 최대 사용연수로 적절한 기준 연수

○ 내용연수 기준을 초과한 소방장비의 기한을 연장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해 연장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용연수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소방자동차: 1년(단, 특수정비를 받은 경우에는 3년까지 가능)

- 그 밖의 소방장비: 1년

○ 위의 내용연수 기준과 연장 사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 소방자동차의 운행거리가 12만 km를 초과한 경우

- 실사용량이 경제적 사용량을 초과한 경우

<상 황>

○ 甲소방서의 현재 소방장비 구비목록은 다음과 같다.

구분	사용연수	연장사용 여부	비고
소방자동차1	12	2년 연장	운행거리 15만 km 특수정비 받음
소방자동차2	9	없음	운행거리 8만 km 특수정비 불가
소방용로봇	4	없음	
구조용 안전벨트	5	1년 연장	경제적 사용량 1,000회 실사용량 500회
폭발물방호복	9	없음	경제적 사용량 500회 실사용량 600회

- ① 소방자동차1

② 소방자동차2

③ 소방용로봇

④ 구조용 안전벨트

⑤ 폭발물방호복

2023 5급 (가) 18번

1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사무관이 선택할 경로는?

- 甲사무관은 차를 운전하여 A부처에서 B연구소로 출장을 가려고 한다.
- 甲사무관은 회의 시작 시각까지 회의 장소에 도착하려고 한다.
- 출발 시각은 오전 11시이며, 회의 시작 시각은 당일 오후 1시 30분이다.
- 甲사무관은 A부처에서 B연구소 주차장까지 갈 경로를 다음 5가지 중에서 선택하려고 한다.

경로	주행 거리	소요시간	통행요금	피로도
최적경로	128 km	1시간 34분	2,600원	4
최소시간경로	127 km	1시간 6분	7,200원	2
최단거리경로	116 km	2시간 6분	0원	2
무료도로경로	132 km	1시간 31분	0원	5
초보자경로	129 km	1시간 40분	4,600원	1

※ 피로도 수치가 작을수록 피로가 덜한 것을 의미함

- 甲사무관은 통행요금이 5,000원을 넘으면 해당 경로를 이용하지 않으며, 통행요금이 5,000원을 넘지 않으면 피로가 가장 덜한 경로를 선택한다.
- 甲사무관은 B연구소 주차장에 도착한 후, 도보 10분 거리의 음식점으로 걸어가 점심식사(30분 소요)를 마치고 다시 주차장까지 걸어온 뒤, 주차장에서 5분 걸려 회의 장소에 도착할 예정이다.

- ① 최적경로
- ② 최소시간경로
- ③ 최단거리경로
- ④ 무료도로경로
- ⑤ 초보자경로

2024 5급 (나) 18번

1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될 수 있는 지원자는?

<2023년 청년후계농 선발 공고문>

☐ 목적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영농 정착과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도모

☐ 지원자격

☐ 만 19세 ~ 만 40세(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 및 독립경영 예정자

- 독립경영: ① 본인명의로 농지를 임차하거나 구입하고,

② 경영주로 등록한 후, ③ 본인이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위의 독립경영 요건 중 ①과 ②를 충족하였으나 ③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독립경영 예정자로 봄

☐ 2023. 1. 1. 현재 위의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함

<상 황>

지원자(甲 ~ 戊)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지원자	甲	乙	丙	丁	戊
생년월일	1980. 5. 4.	2000. 2. 27.	1994. 7. 5.	1989. 10. 20.	1992. 8. 8.
병역이행 기간	6개월	×	30개월	24개월	×
농지	2021. 12. 31. 본인명의 구입	2022. 10. 31. 본인명의 임차	2018. 1. 31. 본인명의 구입	2020. 5. 10. 본인명의 임차	2022. 4. 10. 본인명의 구입
경영주 등록	2022. 1. 10.	2023. 1. 3.	2018. 2. 3.	2020. 12. 3.	×
직접영농 개시	2022. 1. 10.	×	2018. 2. 3.	2021. 1. 5.	×

- ① 甲
- ② 乙
- ③ 丙
- ④ 丁
- ⑤ 戊

2025 5급 (가) 16번

1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민서가 결제할 금액은?

다음은 인영과 민서가 아래 <표>를 보면서 나눈 <대화>이다.

<대 화>

인영: 이번에 좋은 공연이 많던데, 나는 뮤지컬 공연을 보고 싶어.

민서: 나는 지난달에 바이올린 협주 공연을 보고 와서 이번엔 다른 공연에 가려고 해.

인영: 그런데 티켓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아? 너는 학생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조금 더 저렴하게 공연을 볼 수 있겠다.

민서: 맞아. 그래서 결제할 금액이 제일 저렴한 공연을 볼 생각이야.

인영: 그렇구나. 시험이 10월 11일이라 그 전에는 가기 어렵겠어.

민서: 아니야. 시험일정이 10월 9일로 바뀌어서 그 전만 아니면 괜찮을 거야. 그보다 B시는 우리집에서 너무 멀어서 안 가려고.

<표>

구분	뮤지컬	바이올린 협주	피아노 협주	오페라	오케스트라
티켓 가격	77,000원	90,000원	120,000원	100,000원	110,000원
공연 날짜	10월 6일	10월 15일	10월 11일	10월 17일	10월 10일
공연 장소	A시 아트센터	C시 문화회관	A시 아트센터	C시 문화회관	B시 콘서트홀
학생할인 (20%) 여부	×	×	○	×	○

- ① 77,000원
- ② 88,000원
- ③ 90,000원
- ④ 96,000원
- ⑤ 100,000원

2011 민경채 (인) 24번

문 24. A, B, C, D 네 팀이 참여하여 체육대회를 하고 있다. 다음 <순위 결정 기준>과 각 팀의 현재까지 <득점 현황>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항상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순위 결정 기준〉

- 각 종목의 1위에게는 4점, 2위에게는 3점, 3위에게는 2점, 4위에게는 1점을 준다.
- 각 종목에서 획득한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종합 순위를 결정한다.
- 총점에서 동점이 나올 경우에는 1위를 한 종목이 많은 팀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 만약 1위 종목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2위 종목이 많은 팀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 만약 1위 종목의 수가 같고, 2위 종목의 수도 같은 경우에는 공동 순위로 결정한다.

〈특점 현황〉

팀명 종목명	A	B	C	D
가	4	3	2	1
나	2	1	3	4
다	3	1	2	4
라	2	4	1	3
마	?	?	?	?
합계	?	?	?	?

※ 종목별 순위는 반드시 결정되고, 동순위는 나오지 않는다.

〈보 기〉

- ㄱ. A팀이 종목 마에서 1위를 한다면 종합 순위 1위가 확정된다.
- ㄴ. B팀이 종목 마에서 C팀에게 순위에서 뒤지면 종합 순위에서도 C팀에게 뒤지게 된다.
- ㄷ. C팀은 종목 마의 결과와 관계없이 종합 순위에서 최하위가 확정되었다.
- ㄹ. D팀이 종목 마에서 2위를 한다면 종합 순위 1위가 확정된다.

- ① $\neg$
- ② $\sqsubset$
- ③ $\neg, \sqsubset$
- ④ $\sqsubset, \sqsupset$
- ⑤ $\sqsupset, \sqsubset$

2012 민경채 (인) 17번

문 17. 甲이 다음의 <조건>과 <기준>에 근거할 때 구입할 컴퓨터는?

<조 건>

컴퓨터 \ 항목	램 메모리 용량 (Giga Bytes)	하드 디스크 용량 (Tera Bytes)	가격 (천 원)
A	4	2	500
B	16	1	1,500
C	4	3	2,500
D	16	2	2,500
E	8	1	1,500

<기 준>

- 컴퓨터를 구입할 때, 램 메모리 용량, 하드 디스크 용량, 가격을 모두 고려한다.

○ 램 메모리와 하드 디스크 용량이 크면 클수록, 가격은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선호한다.

○ 각 항목별로 가장 선호하는 경우 100점,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경우 0점, 그 외의 경우 50점을 각각 부여한다. 단, 가격은 다른 항목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2배의 점수를 부여한다.

○ 각 항목별 점수의 합이 가장 큰 컴퓨터를 구입한다.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2013 민경채 (인) 8번

문 8. 다음 글과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2순위와 4순위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심야에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굉음을 내고 도로를 질주하여 주민들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민원이 경찰청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안전그물 설치, 전담반 편성, CCTV 설치, 처벌 강화, 시민자율방범의 5가지 대안을 마련하였고, 그 대안별 우선순위를 알고자 한다.

<조 건>

대안 평가기준	(ㄱ) 안전그물 설치	(ㄴ) 전담반 편성	(ㄷ) CCTV 설치	(ㄹ) 처벌 강화	(ㅁ) 시민자율 방범
효과성	8	5	5	9	4
기술적 실행가능성	7	2	1	6	3
경제적 실행가능성	6	1	3	8	1
행정적 실행가능성	6	6	5	5	5
법적 실행가능성	6	5	5	5	5

○ 우선순위는 각 대안별 평가기준 점수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정한다.

○ 합계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법적 실행가능성 점수가 높은 대안이 우선순위가 높고, 법적 실행가능성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효과성 점수, 효과성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 실행가능성 점수, 행정적 실행가능성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실행가능성 점수가 높은 대안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2순위	4순위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ㄹ	ㄷ
④ ㄷ	ㅁ
⑤ ㅁ	

2015 민경채 (인) 20번

문 2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용자 아이디 KDHong의 패스워드로 가장 안전한 것은?

- 패스워드를 구성하는 문자의 종류는 4가지로, 알파벳 대문자, 알파벳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이다.
- 세 가지 종류 이상의 문자로 구성된 경우, 8자 이상의 패스워드는 10점, 7자 이하의 패스워드는 8점을 부여한다.
- 두 가지 종류 이하의 문자로 구성된 경우, 10자 이상의 패스워드는 10점, 9자 이하의 패스워드는 8점을 부여한다.
- 동일한 문자가 연속되어 나타나는 패스워드는 2점을 감점한다.
- 아래 <키보드> 가로열 상에서 인접한 키에 있는 문자가 연속되어 나타나는 패스워드는 2점을 감점한다.
예)

^	6

과

&	7

은 인접한 키로, 6과 7뿐만 아니라 ^와 7도 인접한 키에 있는 문자이다.
- 사용자 아이디 전체가 그대로 포함된 패스워드는 3점을 감점한다.
- 점수가 높을수록 더 안전한 패스워드이다.

※ 특수문자는 !, @, #, \$, %, ^, &, *, (,) 뿐이라고 가정한다.

— <키보드> —

가로열1	!	@	#	\$	%	^	&	*	(	)	0
가로열2	Q	W	E	R	T	Y	U	I	O	P	
가로열3	A	S	D	F	G	H	J	K	L		
가로열4	Z	X	C	V	B	N	M				

- ① 10H&20Mzw
- ② KDHong!
- ③ asjpeblove
- ④ SeCuRiT*_y
- ⑤ 1249dhqtgml

2016 민경채 (5) 19번

문 19. 다음 글과 <평가 결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X국에서는 현재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복지시설 (A ~ D)을 대상으로 다섯 가지 항목(환경개선, 복지관리, 복지지원, 복지성과,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점수의 총점은 각 평가항목에 대해 해당 시설이 받은 점수와 해당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곱한 것을 합산하여 구하고, 총점 90점 이상은 1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2등급, 70점 이상 80점 미만은 3등급, 70점 미만은 4등급으로 한다.

평가 결과, 1등급 시설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2등급 시설은 관리 정원의 5 %를, 3등급 이하 시설은 관리 정원의 10 %를 감축해야 하고, 4등급을 받으면 정부의 재정지원도 받을 수 없다.

<평가 결과>

평가항목 (가중치)	A시설	B시설	C시설	D시설
환경개선 (0.2)	90	90	80	90
복지관리 (0.2)	95	70	65	70
복지지원 (0.2)	95	70	55	80
복지성과 (0.2)	95	70	60	60
중장기 발전계획 (0.2)	90	95	50	65

<보 기>

ㄱ. A시설은 관리 정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된다.

ㄴ. B시설은 관리 정원을 감축해야 하나 정부의 재정지원은 받을 수 있다.

ㄷ. 만약 평가항목에서 환경개선의 가중치를 0.3으로, 복지 성과의 가중치를 0.1로 바꾼다면 C시설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ㄹ. D시설은 관리 정원을 감축해야 하고 정부의 재정지원도 받을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2017 민경채 (나) 19번

문 1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17학년도 A대학교 ○○학과 입학 전형 합격자는?

○ A대학교 ○○학과 입학 전형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국어, 수학, 영어 3개 과목을 반영하여 지원자 중 1명을 선발한다.
- 3개 과목 평균등급이 2등급(3개 과목 등급의 합이 6) 이내인 자를 선발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지원자가 여러 명일 경우, 3개 과목 원점수의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선발한다.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별 등급-원점수 커트라인

(단위 : 점)

등급\과목	1	2	3	4	5	6	7	8
국어	96	93	88	79	67	51	40	26
수학	89	80	71	54	42	33	22	14
영어	94	89	85	77	69	54	41	28

※ 예를 들어, 국어 1등급은 100~96점, 국어 2등급은 95~93점

○ 2017학년도 A대학교 ○○학과 지원자 원점수 성적

(단위 : 점)

지원자	국어	수학	영어
甲	90	96	88
乙	89	89	89
丙	93	84	89
丁	79	93	92
戊	98	60	100

- ① 甲
- ② 乙
- ③ 丙
- ④ 丁
- ⑤ 戊

2019 민경채 (나) 6번

문 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국제행사의 개최도시로 선정될 곳은?

甲사무관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의 개최도시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후보도시 평가표>를 만들었다. <후보도시 평가표>에 따른 점수와 <국제해양기구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도시를 개최도시로 선정하고자 한다.

<후보도시 평가표>

구분	서울	인천	대전	부산	제주
1) 회의 시설 1,500명 이상 수용가능한 대회의장 보유 등	A	A	C	B	C
2) 숙박 시설 도보거리에 특급 호텔 보유 등	A	B	A	A	C
3) 교통 공항접근성 등	B	A	C	B	B
4) 개최 역량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경험 등	A	C	C	A	B

※ A: 10점, B: 7점, C: 3점

<국제해양기구의 의견>

○ 외국인 참석자의 편의를 위해 ‘교통’에서 A를 받은 도시의 경우 추가로 5점을 부여해 줄 것

○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의 경우 추가로 5점을 부여해 줄 것

○ 예상 참석자가 2,000명 이상이므로 ‘회의 시설’에서 C를 받은 도시는 제외할 것

- ① 서울

② 인천

③ 대전

④ 부산

⑤ 제주

2020 민경채 (가) 8번

문 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부처는 직원 교육에 사용할 교재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제작하려 한다. 업체가 제출한 시안을 5개의 항목으로 평가하고, 평가 점수의 총합이 가장 높은 시안을 채택한다. 평가 점수의 총합이 동점일 경우, 평가 항목 중 학습내용 점수가 가장 높은 시안을 채택한다. 5개의 업체가 제출한 시안(A ~ E)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점)

시안 평가 항목(배점)	A	B	C	D	E
학습내용(30)	25	30	20	25	20
학습체계(30)	25	(⊖)	30	25	20
교수법(20)	20	17	(⊙)	20	15
학습평가(10)	10	10	10	5	10
학습매체(10)	10	10	10	10	10

- <보 기>

- ㄱ. D와 E는 채택되지 않는다.
 ㄴ. ㉔의 점수와 상관없이 C는 채택되지 않는다.
 ㄷ. ㉑이 23점이라면 B가 채택된다.

- ① $\neg$
- ② $\sqsubset$
- ③ $\neg, \sqcup$
- ④ $\sqcup, \sqsubset$
- ⑤ $\neg, \sqcup, \sqsubset$

2020 민경채 (가) 10번

문 10. 다음 <지정 기준>과 <신청 현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신청병원 (甲~戊)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은?

· <지정 기준>

- 신청병원 중 인력 점수, 경력 점수, 행정처분 점수, 지역별 분포 점수의 총합이 가장 높은 병원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 전문의 수가 2명 이하이거나, 가장 가까이 있는 기존 산재보험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1 km 미만인 병원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각각의 점수는 아래의 항목별 배점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항목	배점 기준
인력 점수	전문의 수 7명 이상은 10점
	전문의 수 4명 이상 6명 이하는 8점
	전문의 수 3명 이하는 3점
경력 점수	전문의 평균 임상경력 1년당 2점(단, 평균 임상경력이 10년 이상이면 20점)
행정처분 점수	2명 이하의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10점
	3명 이상의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2점
지역별 분포 점수	가장 가까이 있는 기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8 k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인력 점수와 경력 점수 합 의 20%에 해당하는 점수
	가장 가까이 있는 기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3 km 이상 8 km 미만 떨어져 있을 경우, 인력 점수와 경력 점수 합 의 10%에 해당하는 점수
	가장 가까이 있는 기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3 km 미만 떨어져 있을 경우, 인력 점수와 경력 점수 합 의 20%에 해당하는 점수 감점

〈신청 현황〉

신청 병원	전문의 수	전문의 평균 임상경력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의사 수	가장 가까이 있는 기존 산재보험 의료기관까지의 거리
甲	6명	7년	4명	10 km
乙	2명	17년	1명	8 km
丙	8명	5년	0명	1 km
丁	4명	11년	3명	2 km
戊	3명	12년	2명	500 m

- ① 甲
- ② 乙
- ③ 丙
- ④ 丁
- ⑤ 戊

2020 7급 모의평가 19번

문 1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부가 2021년에 국가인증 농가로 선정할 곳만을 모두 고르면?

- △△부에서는 2021년 고품질·안전 농식품 생산을 선도하는 국가인증 농가를 3곳 선정하려고 한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30점, 전통식품인증을 받으면 40점을 부여한다. 단, 두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 전통식품인증 점수만을 인정한다.

- (나)와 (다) 지역 농가에는 친환경인증 또는 전통식품인증 유무에 의한 점수와 도농교류 활성화 점수 합이 10 %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 친환경인증 또는 전통식품인증 유무에 의한 점수, 도농교류 활성화 점수, 가산점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 도농교류 활성화 점수가 50점 미만인 농가는 선정하지 않는다.

- 동일 지역의 농가를 2곳 이상 선정할 수 없다.

○ 2021년 선정후보 농가(A~F) 현황은 다음과 같다.

농가	친환경 인증 유무	전통식품 인증 유무	도농교류 활성화 점수	지역
A	○	○	80	(가)
B	×	○	60	(가)
C	×	○	55	(나)
D	○	○	40	(다)
E	○	×	75	(라)
F	○	○	70	(라)

- ① A, C, F
- ② A, D, E
- ③ A, E, F
- ④ B, C, E
- ⑤ B, D, F

2020 7급 모의평가 20번

문 2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甲주무관은 A법률 개정안으로 (가), (나), (다) 총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

○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입법부의 수용가능성 및 국정과제 관련도의 4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평가점수 총합이 가장 높은 개정안을 채택한다. 단,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평가점수 총합이 동일한 경우, 국정과제 관련도 점수가 가장 높은 개정안을 채택한다.
 - 개정안의 개별 평가항목 점수 중 어느 하나라도 2점 미만인 경우, 해당 개정안은 채택하지 않는다.

○ 수용가능성 평가점수를 높일 수 있는 추가 절차는 아래와 같다. 단, 각 절차는 개정안마다 최대 2회 진행할 수 있다.

 - 이해관계자 수용가능성: 관계자간담회 1회당 1점 추가
 - 관계부처 수용가능성: 부처간회의 1회당 2점 추가
 - 입법부 수용가능성: 국회설명회 1회당 0.5점 추가

○ 수용가능성 평가항목별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별 평가점수는 아래와 같다.

<A법률 개정안 평가점수>

개정안	수용가능성			국정과제 관련도	총합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입법부		
(가)	5	3	1	4	13
(나)	3	4	3	3	13
(다)	4	3	3	2	12

——<보 기>——

- ㄱ.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나)가 채택된다.

ㄴ. 3개 개정안 모두를 대상으로 입법부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절차를 최대한 진행하는 경우, (가)가 채택된다.

ㄷ. (나)에 대한 부처간회의를 1회 진행하고 (다)에 대한 관계자간담회를 2회 진행하는 경우, (다)가 채택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0 7급 모의평가 21번

문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부는 적극행정 UCC 공모전에 참가한 甲 ~ 戊의 영상을 심사한다.

○ 총 점수는 UCC 조회수 등급에 따른 점수와 심사위원 평가점수의 합이고, 총 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3위까지 수상한다.

○ UCC 조회수 등급에 따른 점수는 조회수에 따라 5등급 (A, B, C, D, E)으로 나누어 부여된다. 최상위 A를 10점으로 하며 인접 등급 간의 점수 차이는 0.3점이다.

○ 심사위원 평가점수는 심사위원 (가) ~ (마)가 각각 부여한 점수(1 ~ 10의 자연수)에서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3개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이때 최고점이 복수인 경우에는 그 중 한 점수만 제외하여 계산한다. 최저점이 복수인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가자	조회수 등급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가)	(나)	(다)	(라)	(마)
甲	B	9	(㉠)	7	8	7
乙	B	9	8	7	7	7
丙	A	8	7	(㉡)	10	5
丁	B	5	6	7	7	7
戊	C	6	10	10	7	7

—— <보 기> ——

- ㄱ. ㉠이 5점이라면 乙의 총 점수가 甲의 총 점수보다 높다.

ㄴ. 丁은 ㉠과 ㉡에 상관없이 수상하지 못한다.

ㄷ. 戊는 조회수 등급을 D로 받았더라도 수상한다.

ㄹ. ㉠ > ㉡이면 甲의 총 점수가 丙의 총 점수보다 높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21 7급 (나) 14번

문 1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부서는 매년 △△사업에 대해 사업자 자격 요건 재허가 심사를 실시한다.

○ 기본심사 점수에서 감점 점수를 뺀 최종심사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재허가’, 60점 이상 70점 미만이면 ‘허가 정지’, 60점 미만이면 ‘허가 취소’로 판정한다.

- 기본심사 점수: 100점 만점으로, ㉠~㉤의 4가지 항목(각 25점 만점) 점수의 합으로 한다. 단, 점수는 자연수이다.

- 감점 점수: 과태료 부과 시 1회당 2점, 제재 조치의 경우 경고 1회당 3점, 주의 1회당 1.5점, 권고 1회당 0.5점으로 한다.

<상 황>

2020년 사업자 A~C의 기본심사 점수 및 감점 사항은 아래와 같다.

사업자	기본심사 항목별 점수			
	㉠	㉡	㉢	㉣
A	20	23	17	?
B	18	21	18	?
C	23	18	21	16

사업자	과태료 부과 횟수	제재 조치 횟수		
		경고	주의	권고
A	3	—	—	6
B	5	—	3	2
C	4	1	2	—

<보 기>

ㄱ. A의 ㉣ 항목 점수가 15점이라면 A는 재허가를 받을 수 있다.

ㄴ. B의 허가가 취소되지 않으려면 B의 ㉣ 항목 점수가 19점 이상이어야 한다.

ㄷ. C가 2020년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없다면 판정 결과가 달라진다.

ㄹ. 기본심사 점수와 최종심사 점수 간의 차이가 가장 큰 사업자는 C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ㄷ, ㄹ

2023 7급 (인) 18번

1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戊 중 사업자로 선정되는 업체는?

△△부처는 □□사업에 대하여 용역 입찰공고를 하고, 각 입찰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 한다.

○ 제안서 평가점수는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 만점)와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만점)로 이루어진다.

○ 입찰가격 평가점수는 각 입찰업체가 제시한 가격에 따라 산정한다.

○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 5명의 평가위원이 평가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이때 최고 점수가 복수인 경우 하나를 제외하며, 최저점수가 복수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기술능력 평가점수에서 만점의 85 % 미만의 점수를 받은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이때 동점이 발생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 <상 황> —————

○ □□사업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甲~戊이다.

○ 각 업체의 입찰가격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단위: 점)

구분	甲	乙	丙	丁	戊
평가점수	13	20	15	14	17

○ 각 업체의 기술능력에 대한 평가위원 5명의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점)

구분	甲	乙	丙	丁	戊
A위원	68	65	73	75	65
B위원	68	73	69	70	60
C위원	68	62	69	65	60
D위원	68	65	65	65	70
E위원	72	65	69	75	75

① 甲

② 乙

③ 丙

④ 丁

⑤ 戊

356

356

2024 7급 (사) 8번

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사가 투자할 작품만을 모두 고르면?

○ A사는 투자할 작품을 결정하려고 한다. 작품별 기본점수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현황 작품	기본 점수 (점)	스태프 인원 (명)	장르	감독의 최근 2개 작품 흥행 여부 (개봉연도)	
성묘	70	55	판타지	성공 (2009)	실패 (2015)
서울의 겨울	85	45	액션	실패 (2018)	실패 (2020)
만날 결심	75	50	추리	실패 (2020)	성공 (2022)
빅 포레스트	65	65	멜로	성공 (2011)	성공 (2018)

○ 최종점수는 작품별 기본점수에 아래 기준에 따른 점수를 가감해 산출한다.

기준	가감 점수
스태프 인원이 50명 미만	감점 10점
장르가 판타지	가점 10점
감독의 최근 2개 작품이 모두 흥행 성공	가점 10점
감독의 직전 작품이 흥행 실패	감점 10점

○ 최종점수가 75점 이상인 작품에 투자한다.

- ① 성묘, 만날 결심
- ② 성묘, 빅 포레스트
- ③ 서울의 겨울, 만날 결심
- ④ 만날 결심, 빅 포레스트
- ⑤ 서울의 겨울, 빅 포레스트

2025 7급 (인) 20번

20.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 ~ E 중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정될 기업만을 모두 고르면?

甲부처는 2025년 7월 1일 현재,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지정하려고 한다. 아래 기준에 따라 기업 A ~ E의 점수를 매기고, 그 합산 점수가 7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 지정한다. 단, 최근 1년 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제외한다.

○ 전년도 매출액

- 500억 원 미만: 1점
 - 5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 3점
 - 5,000억 원 이상: 5점

 ○ 최근 1년간 탈세 의심 민원 건수

- 1건당 0.5점

 ○ 전년도 부실 거래 건수

- 1건당 0.3점

 ○ 최근 5년 내 성실 납세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1점 감해 줌

<상 황>

2025년 7월 1일 현재, 기업 A ~ E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기업	전년도 매출액 (억 원)	최근 1년간 탈세 의심 민원(건)	전년도 부실 거래 (건)	성실 납세 기업 선정 연도	최근 1년 내 세무조사 여부
A	1,700	5	7	2021년	×
B	480	10	4	2017년	×
C	6,250	6	2	2022년	○
D	3,000	7	5	2023년	×
E	5,000	3	3	2010년	×

- ① A, D
 ② B, D
 ③ B, E
 ④ A, C, E
 ⑤ B, D, E

2025 7급 추가 (핵) 18번

1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 ~ 戊 중 2025년 ○○예술상 수상자로 선정될 사람은?

○○예술재단은 매년 우수 예술인을 선정하여 ○○예술상을 수여한다.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 점수의 합에, 해당하는 가점항목의 점수를 더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하고, 최종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단, 최종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그중 월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평가항목	세부 내용	점수
월 소득	80만 원 미만	12
	80만 원 이상 140만 원 미만	9
	14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6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
	300만 원 이상	0
최근 3년간 예술활동 수행실적	0건	0
	1건	2
	2건	4
	3건 이상	6

가점항목	점수
70세 이상	1
농어촌지역 거주	1

<상 황>

다음은 2025년 ○○예술상 후보자(甲 ~ 戊) 현황이다.

구분	甲	乙	丙	丁	戊
연령	40세	25세	75세	45세	71세
월 소득(만 원)	300	80	100	70	150
최근 3년간 예술활동 수행실적	1건	2건	2건	1건	3건
농어촌지역 거주 여부	거주	비거주	비거주	비거주	거주

- ① 甲
- ② 乙
- ③ 丙
- ④ 丁
- ⑤ 戊

2025 7급 추가 (핵) 20번

20.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 ~ E 중 혜진이가 구매할 자동차는?

혜진이는 아래 기준에 따라 점수 합계가 가장 높은 자동차를 구매할 예정이다. 단, 점수 합계가 가장 높은 차량이 두 대 이상일 경우, 그중 제조사 점수가 가장 높은 차량을 구매한다. 제조사 점수도 같은 차량이 두 대 이상이라면, 그중 가격 점수가 가장 높은 차량을 구매한다.

제조사	甲	乙	丙	丁
점수	10	8	8	7

크기	대형	중형	준중형	소형
점수	7	8	9	6

색상	흰색	검은색	회색	파란색
점수	10	10	7	9

가격	1,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미만	2,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4,000만 원 이상
점수	9	8	7

<상 황>

혜진이가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자동차(A ~ E)의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제조사	크기	색상	가격(만 원)
A	乙	중형	회색	2,400
B	丁	대형	검은색	3,000
C	甲	소형	회색	4,500
D	丙	대형	흰색	5,000
E	丁	준중형	파란색	4,700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2011 5급 (선) 13번

문 13. 甲사무관은 청사이전 공사를 위해 조달청 입찰시스템에 등록하고자 하는 A~E업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을 맺으려 한다. 다음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조 건>

- 甲사무관은 조달청 입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는 계약할 수 없다.
- 甲사무관은 조달청 입찰시스템에 등록하려는 각 업체의 정보(<표 1>)는 알 수 있지만 각 업체별 사전평가점수(<표 2>)는 모른다.
- 甲사무관은 순편익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택하며, 이 때 순편익은 청사이전 편익에서 공사비용을 뺀 값이다.
- 조달청은 사전평가점수 총점이 60점 이상인 업체만을 입찰시스템에 등록시키고, 평가항목 중 하나에서라도 분류배점의 40 % 미만이 나올 경우에는 등록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 공사 착공일은 3월 1일이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같은 해 7월 10일까지 공사가 완공되어야 한다.

<표 1> 업체의 정보

구분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공사소요 기간(일)	120	100	140	125	130
공사비용 (억원)	16	10	18	13	11
청사이전 편익(억원)	18	12	25	17	16
안전성	上	中	上	中	下

<표 2> 입찰시스템에 등록하려는 업체별 사전평가점수

평가 항목	분류 배점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가격	30	18	26	17	18	25
품질	20	17	16	15	13	12
수요기관 만족도	20	14	7	15	13	11
서비스	30	22	27	18	15	27
총점	100	71	76	65	59	75

<보 기>

- ㄱ. 甲사무관은 E업체와 계약을 맺을 것이다.
- ㄴ. 만약 D업체가 친환경인증으로 품질부문에서 가산점 2점을 얻는다면 甲사무관은 D업체와 계약을 맺을 것이다.
- ㄷ. 만약 甲사무관이 순편익은 고려하지 않고 공사완공이 빨리 되는 것만 고려한다면 B업체와 계약을 맺을 것이다.
- ㄹ. 만약 안전성이 下인 업체를 제외시킨다면 甲사무관은 A업체와 계약을 맺을 것이다.
- ㅁ. 안전성이 上일 경우 2억 원의 청사이전 편익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甲사무관은 A업체와 계약을 맺을 것이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2012 5급 (인) 18번

문 18. 김 사무관은 소프트웨어(이하 S/W라 표기한다) ‘수출 중점대상 국가’를 선정하고자 한다. 다음 <국가별 현황>과 <평가기준>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국가별 현황>

국가명	시장매력도			정보화수준	접근가능성
	S/W시장규모 (백만불)	S/W성장률 (%)	인구규모 (백만명)	전자정부순위	S/W수출액 (백만원)
A국	550	13.6	232	106	9,103
B국	333	8.7	3	82	2,459
C국	315	8.7	87	91	2,597
D국	1,706	8.2	27	95	2,777
E국	1,068	7.2	64	64	2,158

<평가기준>

- 국가별 종합점수는 시장매력도(30점 만점), 정보화수준(30점 만점), 접근가능성(40점 만점)의 합계(100점 만점)로 구하며, 종합점수가 높을수록 종합순위도 높다.
- 시장매력도 점수는 시장매력도가 가장 높은 국가에 30점, 가장 낮은 국가에 0점, 그 밖의 모든 국가에 15점을 부여한다. S/W시장규모가 클수록, S/W성장률이 높을수록, 인구규모가 클수록 시장매력도가 높다.
- 정보화수준 점수는 전자정부순위가 가장 높은 국가에 30점, 가장 낮은 국가에 0점, 그 밖의 모든 국가에 15점을 부여한다.
- 접근가능성 점수는 접근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에 40점, 가장 낮은 국가에 0점, 그 밖의 모든 국가에 20점을 부여한다. S/W수출액이 클수록 접근가능성이 높다.

<보 기>

- ㄱ. 정보화수준 점수는 E국이 30점, A국이 0점이고, 다른 국가들은 모두 15점이다.
- ㄴ. 접근가능성 점수는 A국이 30점, E국이 0점이고, 다른 국가들은 모두 15점이다.
- ㄷ. 시장매력도 점수를 S/W시장규모만을 고려하여 결정할 경우, A국과 D국의 종합점수는 동일하다.
- ㄹ. S/W시장규모가 10억 불 이상이면서 동시에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국가가 가장 매력적 시장이라는 결론이 났을 경우, E국이 선정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2012 5급 (인) 30번

문 30. ○○대학교 양궁 대표 선발전에 관한 기록이 일부 누락되어 있다.
다음 글과 <기록지>에 근거할 때, 최종 선발된 2인 및 그들의
승점의 합을 옳게 묶은 것은?

양궁 경기는 총 5세트로 진행되며 한 세트당 3발(1 ~ 3차시)씩 쏜다. 각 세트별 승점은 3차시까지의 점수의 합을 기준으로 하며, 각 세트에서 이기면 2점, 비기면 1점, 지면 0점의 승점이 주어진다.

대표 선발전은 위 규칙에 따라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세트별 승점의 합산점수에 따라 결선 2개조에서 각 한 명의 승자를 뽑아 2명을 선발한다. 결선에는 A ~ D 네 명이 진출하였다.

경기를 펼치는 두 선수는 동시에 화살을 쏜다. 각 선수의 3차시 점수는 해당 세트별로 2차시까지의 점수 결과에 영향을 받고,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A선수는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8점,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9점,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10점을 맞힌다.

○ B선수는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10점,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9점,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8점을 맞힌다.

○ C선수는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8점,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10점,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9점을 맞힌다.

○ D선수는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9점,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8점,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10점을 맞힌다.

<기록지>

조	선수	차시	점수				
			1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	5세트
결선 1조	A	1차시	9	10	8	9	9
		2차시	9	8	7	10	10
		3차시					
	B	1차시	9	9	10	10	9
		2차시	9	8	8	9	9
		3차시					
결선 2조	C	1차시	10	10	10	9	9
		2차시	8	9	8	9	10
		3차시					
	D	1차시	8	9	10	8	9
		2차시	9	10	10	6	9
		3차시					

결선 1조

결선 2조

- ① (A, 6)

(C, 7)
- ② (A, 5)

(D, 6)
- ③ (A, 6)

(D, 6)
- ④ (B, 7)

(C, 6)
- ⑤ (B, 6)

(D, 6)

2012 5급 (인) 33번

문 33. 4명의 참가자(A~D)가 음악경연을 한다. 다음 <조건>에 근거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조
건>

○
탈락자는 <심사위원
점수>와 <국민참여
문자투표
득표수>를 반영하여 선정된다.

○
심사위원 점수의 합산점수와 국민참여 문자투표의 점유율 (%)의 수치를 점수로 간주한 값(환산점수)을 더하여 참가자들 각각의 총점을 산출한다.

○
총점이 가장 낮은 참가자가 탈락되며, 이 때 그 수가 2인 이상인 경우 그들 모두를 탈락자로 한다.

○
甲, 乙, 丙 총 3명의 <심사위원
점수>와 10만 명이 문자 투표한 <국민참여
문자투표
득표수>는 아래와 같다.

<심사위원
점수>

(100점 만점)

참가자	A	B	C	D
심사위원				
甲	90점	85점	88점	89점
乙	88점	85점	88점	86점
丙	85점	?	90점	90점

<국민참여
문자투표
득표수>

구분	A	B	C	D
득표수	25,000표	?	17,500표	?
환산점수	25점	?	17.5점	?

- ①
A는 탈락하지 않을 것이다.

②
D가 C보다 국민참여 문자투표를 1,500표 더 받았다면 탈락하지 않는다.

③
D가 국민참여 문자투표에서 42,500표를 받았다면 B가 탈락했을 것이다.

④
B와 D의 국민참여 문자투표 득표수가 같다면 B와 C 중에서 탈락자가 결정된다.

⑤
공동 탈락자가 생길 수 있다.

2012 5급 (인) 38번

문 38. A대학 B학과에 5명(甲 ~ 戊)이 지원하였다. B학과는 <수능최저 학력기준>을 통과한 지원자 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전학년 평균 등급 최상위자 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이다. 다음 <자료>에 근거할 때, B학과에 합격할 수 있는 지원자는?

$$\text{전학년 평균등급} = \frac{\sum[\text{교과별 평균등급} \times \text{교과별 보정계수}]}{\text{반영교과의 수}}$$

※ 보정계수 : 해당 교과의 과목을 많이 이수하면 유리하도록 교과별 평균등급에 곱하는 계수

<보정계수 산출방법>

$$\text{반영교과의 보정계수} = 1.2 - (0.6 \times \frac{N_{\text{교과}}}{60})$$

(단, $N_{\text{교과}} \geq 60$ 이면 보정계수는 0.6)

※ $N_{\text{교과}}$ = 해당 교과의 이수단위 합

<수능최저학력기준>

언어, 외국어, 수리, 사회탐구 중 상위 3개 영역 수능등급의 평균이 2등급 이내

<자 료>										
구분	학교생활기록부						수능등급			
	국어		영어		수학		언어	외국어	수리	사회 탐구
	평균 등급	이수 단위 합	평균 등급	이수 단위 합	평균 등급	이수 단위 합				
甲	1	30	2	40	2	40	1	4	2	5
乙	1.2	40	1	60	2	30	3	1	1	4
丙	2	30	1.5	20	1	50	1	2	4	4
丁	2	30	1.5	40	1.2	60	1	1	1	3
戊	2	80	1	50	1.5	20	1	2	3	4

- ① 甲

② 乙

③ 丙

④ 丁

⑤ 戊

2013 5급 (인) 13번

문 13. 甲, 乙, 丙, 丁이 공을 막대기로 쳐서 구멍에 넣는 경기를 하였다.
다음 <규칙>과 <경기결과>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규 칙>

○ 경기 참가자는 시작점에 있는 공을 막대기로 쳐서 구멍 안에 넣어야 한다. 참가자에게는 최대 3회의 기회가 주어지며, 공을 넣거나 3회의 기회를 다 사용하면 한 라운드가 종료된다.

○ 첫 번째 시도에서 공을 넣으면 5점, 두 번째 시도에서 공을 넣으면 2점, 세 번째 시도에서 공을 넣으면 0점을 얻게 되며, 세 번째 시도에서도 공을 넣지 못하면 -3점을 얻게 된다.

○ 총 2라운드를 진행하여 각 라운드에서 획득한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한 참가자 순서대로 우승, 준우승, 3등, 4등으로 결정한다.

○ 만일 경기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 1라운드 고득점 순으로 동점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경기결과>

아래는 네 명이 각 라운드에서 공을 넣기 위해 시도한 횟수를 표시하고 있다.

구분	1라운드	2라운드
甲	3회	3회
乙	2회	3회
丙	2회	2회
丁	1회	3회

<보 기>

ㄱ. 甲은 다른 선수의 경기결과에 따라 3등을 할 수 있다.

ㄴ. 乙은 다른 선수의 경기결과에 따라 준우승을 할 수 있다.

ㄷ. 丙이 우승했다면 1라운드와 2라운드 합쳐서 네 명이 구멍 안에 넣은 공은 최소 5개 이상이다.

ㄹ. 丁이 우승했다면 획득한 점수는 5점이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ㄱ,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2013 5급 (인) 32번

문 32. K부서는 승진후보자 3인을 대상으로 한 승진시험의 채점 방식에 대해 고민 중이다. 다음 <자료>와 <채점 방식>에 근거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료>

- K부서에는 甲, 乙, 丙 세 명의 승진후보자가 있으며 상식은 20문제, 영어는 10문제가 출제되었다.
- 채점 방식에 따라 점수를 계산한 후 상식과 영어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전체 등수를 결정한다.
- 각 후보자들이 정답을 맞힌 문항의 개수는 다음과 같고, 그 이외의 문항은 모두 틀린 것이다.

	상식	영어
甲	14	7
乙	10	9
丙	18	4

<채점 방식>

- A 방식: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되 상식은 정답을 맞힌 개수 당 5점씩을, 영어는 정답을 맞힌 개수 당 10점씩을 부여함
- B 방식: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되 상식은 정답을 맞힌 개수 당 5점씩, 틀린 개수 당 -3점씩을 부여하고, 영어의 경우 정답을 맞힌 개수 당 10점씩, 틀린 개수 당 -5점씩을 부여함
- C 방식: 모든 과목에 정답을 맞힌 개수 당 10점씩을 부여함

- ① A 방식으로 채점하면, 甲과 乙은 동점이 된다.
- ② B 방식으로 채점하면, 乙이 1등을 하게 된다.
- ③ C 방식으로 채점하면, 丙이 1등을 하게 된다.
- ④ C 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 상식 과목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 ⑤ B 방식에서 상식의 틀린 개수당 점수를 -5, 영어의 틀린 개수당 점수를 -10으로 한다면, 甲과 乙의 등수는 A 방식으로 계산한 것과 동일할 것이다.

2013 외교 (인) 34번

문 34. 다음 낚시대회의 <경기규칙>과 <경기결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단체전 대어상 수상 부처 (가)와 개인전 대어상 수상자가 속한 부처 (나)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경기규칙>

○ 단체전은 각 부처별 참가자 중 1, 2, 3번의 번호표를 받은 사람이 잡은 물고기만을 계측하며, 참가자가 3명 미만인 부처는 단체전에 참가하지 못한다. 개인전은 모든 참가자가 잡은 물고기를 계측한다.

○ 다음 계측 방법에 따른 물고기의 길이가 가장 긴 부처와 개인에게 각각 대어상을 수여한다.

- 단체전의 경우, 어종별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분이 가장 긴 2개 값만 합산한다.

※ 기준치 : 붕어 10 cm, 잉어 20 cm, 메기 23 cm

- 개인전의 경우, 기준치에 관계없이 물고기 길이만을 비교한다.

※ 계측치가 같을 때에는 붕어, 잉어, 메기의 순으로 대어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경기결과>

참가자 부처명	1번	2번	3번	4번
A	붕어 15 cm	잉어 18 cm	메기 26 cm	붕어 20 cm
B	붕어 15 cm	잉어 20 cm	메기 30 cm	메기 25 cm
C	메기 25 cm	잉어 23 cm	잉어 32 cm	참가자 없음
D	메기 30 cm	붕어 8 cm	붕어 20 cm	메기 15 cm
E	붕어 32 cm	붕어 12 cm	참가자 없음	참가자 없음

- (가)

(나)
- ① A C

② C B

③ C E

④ D E

⑤ D C

2013 외교 (인) 35번

문 35. 다음 <표>와 <선호기준>에 따를 때, 민주, 호성, 유진이 선택할 제품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丑〉

항목 제품	가격 (원/개)	용량 (mL/개)	발림성	보습력	향
반짝이	63,000	75	★★★	★★★★★	★★★
섬섬옥수	40,000	85	★★	★★★★	★★
수분톡톡	8,900	80	★★★	★★★★★	★★★
보드란	6,900	30	★★	★★★★	★
숨구름	30,000	120	★★★	★★	★★★

※ 제품의 크기는 용량에 비례하고, ★이 많을수록 해당 항목이 우수하다.

- <선호기준>

- 민주: 난 손이 워낙 건조해서 무엇보다 보습력이 뛰어난 제품이 필요해. 그 다음으로는 산뜻하게 잘 발리는 제품이 좋아! 나머지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 호성: 난 발림성, 보습력, 향 모두 우수할수록 좋아. 그 다음으로는 제품가격이 낮으면 좋겠지!
- 유진: 무조건 향이 좋아야지! 손을 움직일 때마다 풍기는 향이 사람의 기분을 얼마나 좋게 만드는지 알아? 향이 좋은 것 중에서는 부드럽게 잘 발리는 게 좋아! 그 다음으로는 가방에 넣어 다니려면 제품 크기가 작은 게 좋겠어.

민주

호성

유진

① 수분톡톡	보드란	수분톡톡
② 수분톡톡	숨구름	반짝이
③ 수분톡톡	수분톡톡	반짝이
④ 반짝이	수분톡톡	보드란
⑤ 반짝이	보드란	수분톡톡

2014 5급 (A) 34번

문 34. 다음 글과 <입찰가격 평가방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사무관은 국제회의 행사대행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입찰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의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된다.
- 현재 A, B, C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가 끝나고, 입찰가격 평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 발주기관이 당해 입찰에서 예상하는 추정가격은 4억 원이다.

평가 항목		배점	업체		
			A	B	C
기술 능력 평가	제안서 평가	60	55	52	49
	서면평가	20	14	18	15
입찰가격 평가		20	?	?	?
계		100	?	?	?

<입찰가격 평가방법>

- 당해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text{평점} = 20 \times \left(\frac{\text{최저 입찰가격}}{\text{당해 입찰가격}} \right)$$
 - ※ 최저 입찰가격: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
 - ※ 당해 입찰가격: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당해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text{평점} = 20 \times \left(\frac{\text{최저 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 80\%}} \right) +$$

$$\left[2 \times \left(\frac{\text{추정가격의 80\%} - \text{당해 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 80\%} - \text{추정가격의 60\%}} \right) \right]$$
 - ※ 최저 입찰가격: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
 - ※ 당해 입찰가격: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보 기>

- ㄱ. B업체가 세 업체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을 입찰하면, B업체는 어떤 경우에도 우선협상 대상자가 된다.
- ㄴ. 입찰업체가 낮은 가격으로 입찰할수록 해당 업체의 입찰가격 평가점수는 항상 높아진다.
- ㄷ. A업체에서 추정가격의 60% 미만으로 입찰하고, B업체가 3억 2천만 원으로 입찰하면, C업체의 입찰가격과 관계 없이 B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015 5급 (인) 30번

문 30. 다음 글과 <A기관 별점 산정 기초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때, 두 번째로 높은 별점을 받게 될 사람은?

A기관은 업무처리시 오류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15년 1월부터 별점을 부과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려 한다. 이를 위해 매달 직원별로 오류 건수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별점 산정 방식>에 따라 별점을 부과한다. 2015년 1월 한 달 동안 직원들의 업무처리 건수는 1인당 100건으로 동일하다.

<별점 산정 방식>

- 일반 오류는 1건당 10점, 중대 오류는 1건당 20점씩 오류 점수를 부과하여 이를 합산한다.
- 전월 우수사원으로 선정된 경우, 합산한 오류 점수에서 80점을 차감하여 월별 최종 오류 점수를 계산한다.
- 별점 부과 대상은 월별 최종 오류 점수가 400점 이상인 동시에 월별 오류 발생 비율이 30 % 이상인 직원이다.
- 월별 최종 오류 점수 1점당 별점 10점을 부과한다.

※ 오류 발생 비율(%) = $\frac{\text{오류 건수}}{\text{업무처리 건수}} \times 100$

<A기관 별점 산정 기초자료>
(2015. 1. 1. ~ 2015. 1. 31.)

직원	오류 건수(건)		전월 우수사원 선정 여부
	일반 오류	중대 오류	
甲	5	20	미선정
乙	10	20	미선정
丙	15	15	선정
丁	20	10	미선정
戊	30	10	선정

- ① 甲
- ② 乙
- ③ 丙
- ④ 丁
- ⑤ 戊

2015 5급 (인) 31번

문 31. 다음 <귀농인 주택시설 개선사업 개요>와 <심사 기초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때, 지원대상 가구만을 모두 고르면?

<귀농인 주택시설 개선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귀농가구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

□ 신청자격 : △△군에 소재하는 귀농가구 중 거주기간이 신청마감일(2014. 4. 30.) 현재 전입일부터 6개월 이상이고, 가구주의 연령이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가구

□ 심사기준 및 점수 산정방식

○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심사기준별 점수를 합산한다.

○ 심사기준별 점수

(1) 거주기간 : 10점(3년 이상), 8점(2년 이상 3년 미만), 6점(1년 이상 2년 미만), 4점(6개월 이상 1년 미만)

※ 거주기간은 전입일부터 기산한다.

(2) 가족 수 : 10점(4명 이상), 8점(3명), 6점(2명), 4점(1명)

※ 가족 수에는 가구주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영농규모 : 10점(1.0ha 이상), 8점(0.5ha 이상 1.0ha 미만), 6점(0.3ha 이상 0.5ha 미만), 4점(0.3ha 미만)

(4) 주택노후도 : 10점(20년 이상), 8점(15년 이상 20년 미만), 6점(10년 이상 15년 미만), 4점(5년 이상 10년 미만)

(5) 사업시급성 : 10점(매우 시급), 7점(시급), 4점(보통)

□ 지원내용

○ 예산액 : 5,000,000원

○ 지원액 : 가구당 2,500,000원

○ 지원대상 : 심사기준별 점수의 총점이 높은 순으로 2가구. 총점이 동점일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높은 가구를 지원. 단, 하나의 읍·면당 1가구만 지원 가능

<심사 기초 자료>
(2014. 4. 30. 현재)

귀농 가구	가구주 연령 (세)	주소지 (△△군 소재 읍·면)	전입일	가족 수 (명)	영농 규모 (ha)	주택 노후도 (년)	사업 시급성
甲	49	A	2010. 12. 30.	1	0.2	17	매우 시급
乙	48	B	2013. 5. 30.	3	1.0	13	매우 시급
丙	56	B	2012. 7. 30.	2	0.6	23	매우 시급
丁	60	C	2013. 12. 30.	4	0.4	13	시급
戊	33	D	2011. 9. 30.	2	1.2	19	보통

① 甲, 乙

② 甲, 丙

③ 乙, 丙

④ 乙, 丁

⑤ 丙, 戊

373

373

2015 5급 (인) 33번

문 33.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춘향이와 몽룡이는 첫 만남을 가졌다.
 - 첫 만남 이후 헤어질 당시, 춘향이가 몽룡이에 대해 느끼는 호감도는 70, 몽룡이가 춘향이에 대해 느끼는 호감도는 60이다.
 - 헤어진 후 시간이 지날수록 만남의 여운이 열어져, 헤어진 지 10분 이후부터는 1분이 지날 때마다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1씩 하락한다.
 - 헤어진 지 10분 안에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면, 참을성이 없어 보여 문자메시지를 먼저 보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10 하락한다.
 -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먼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20 상승한다.
 - 문자메시지 내용이 다음 만남을 제안하는 내용이거나, 하트 기호(♡)를 포함할 경우 호감도가 두 사람 모두 10 상승한다.
 - 최종 호감도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위의 각 조건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중복 적용된다.

<상 황>

A: 헤어지고 15분 뒤, “다음 주말에 우리 함께 영화 볼래요?”라는 몽룡이의 문자메시지를 춘향이가 받음

B: 헤어지고 5분 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라는 춘향이의 문자메시지를 몽룡이가 받음

C: 헤어지고 20분 뒤, “몽룡씨는 저와 참 잘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라는 춘향이의 문자메시지를 몽룡이가 받음

- ① 몽룡이가 춘향이에게 느끼는 최종 호감도는 상황 C가 가장 높다.
- ② 춘향이가 몽룡이에게 느끼는 최종 호감도는 상황 B가 가장 높다.
- ③ 몽룡이가 춘향이에게 느끼는 최종 호감도는 상황 B가 상황 C보다 15 높다.
- ④ 몽룡이가 춘향이에게 느끼는 최종 호감도는 상황 C가 상황 A보다 5 높다.
- ⑤ 상황 B의 경우 몽룡이가 춘향이에게 느끼는 최종 호감도가 춘향이가 몽룡이에게 느끼는 최종 호감도보다 높다.

2016 5급 (4) 18번

문 18. 다음 <맛집 정보>와 <평가 기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총점이 가장 높은 음식점은?

<맛집 정보>

평가 항목 음식점	음식 종류	이동 거리	가격 (1인 기준)	맛평점 (★ 5개 만점)	방 예약 가능 여부
자금성	중식	150m	7,500원	★★☆	○
상젤리제	양식	170m	8,000원	★★★★	○
경복궁	한식	80m	10,000원	★★★★★	×
도쿄타워	일식	350m	9,000원	★★★★☆	×
광화문	한식	300m	12,000원	★★★★★	×

※ ☆은 ★의 반 개이다.

<평가 기준>

- 평가 항목 중 이동거리, 가격, 맛평점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5, 4, 3, 2, 1점을 각각의 음식점에 하나씩 부여한다.
- 이동거리가 짧은 음식점일수록 높은 점수를 준다.
- 가격이 낮은 음식점일수록 높은 점수를 준다.
- 맛평점이 높은 음식점일수록 높은 점수를 준다.
- 평가 항목 중 음식종류에 대하여 일식 5점, 한식 4점, 양식 3점, 중식 2점을 부여한다.
- 방 예약이 가능한 경우 가점 1점을 부여한다.
- 총점은 음식종류, 이동거리, 가격, 맛평점의 4가지 평가 항목에서 부여 받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 ① 자금성
- ② 상젤리제
- ③ 경복궁
- ④ 도쿄타워
- ⑤ 광화문

2016 5급 (4) 38번

문 3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시가 ‘창의 테마파크’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은?

A시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창의 테마파크’를 운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후보로 정했다.

분야	프로그램명	전문가 점수	학생 점수
미술	내 손으로 만드는 동물	26	32
인문	세상을 바꾼 생각들	31	18
무용	스스로 창작	37	25
인문	역사랑 놀자	36	28
음악	연주하는 교실	34	34
연극	연출노트	32	30
미술	창의 예술학교	40	25
진로	항공체험 캠프	30	35

○ 전문가와 학생은 후보로 선정된 프로그램을 각각 40점 만점제로 우선 평가하였다.

○ 전문가 점수와 학생 점수의 반영 비율을 3:2로 적용하여 합산한 후, 하나밖에 없는 분야에 속한 프로그램에는 취득점수의 30%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 A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프로그램을 최종 선정하여 운영한다.

- ① 연주하는 교실

② 항공체험 캠프

③ 스스로 창작

④ 연출노트

⑤ 창의 예술학교

2017 5급 (가) 35번

문 35. 다음 글과 <반 편성 기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학생 6명(A ~ F)의 외국어반 편성을 위해 쓰기, 읽기, 듣기, 말하기 등 4개 영역에 대해 시험을 실시한다.

○ 영역별 점수는 시험 결과에 따라 1점 이상 10점 이하로 부여한다.

○ 다음 <반 편성 기준>에 따라 등수를 매겨 상위 3명은 심화반에, 하위 3명은 기초반에 편성한다.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듣기 점수가 더 높은 학생을 상위 등수로 간주하고, 듣기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 점수, 말하기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읽기 점수, 읽기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쓰기 점수가 더 높은 학생을 상위 등수로 간주한다.

○ A ~ F의 영역별 점수는 다음과 같고, F의 쓰기와 말하기 영역은 채점 중이다.

(단위 : 점)

학생	쓰기	읽기	듣기	말하기
A	10	10	6	3
B	7	8	7	8
C	5	4	4	3
D	5	4	4	6
E	8	7	6	5
F	?	6	5	?

————— <반 편성 기준> —————

-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채택하여 반을 편성한다.
- (기준1) 종합적 외국어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4개 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 (기준2) 수업 중 원어민 교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듣기와 말하기 점수의 합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 <보 기> —————

- ㄱ. B와 D는 어떤 경우에도 같은 반이 될 수 없다.
- ㄴ. 채점 결과 F의 말하기 점수가 5점 이하라면, 어떤 기준에 따라 반을 편성하더라도 F는 기초반에 편성된다.
- ㄷ. 채점 결과 F의 말하기 점수가 6점 이상이라면, 어떤 기준에 따라 반을 편성하더라도 C와 D는 같은 반에 편성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2018 5급 (나) 8번

문 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평가대상기관(A ~ D) 중 최종순위 최상위기관과 최하위기관을 고르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실적 평가기준>

○ 평가요소 및 점수부여

- 내진성능평가지수 = $\frac{\text{내진성능평가실적건수}}{\text{내진보강대상건수}} \times 100$
- 내진보강공사지수 = $\frac{\text{내진보강공사실적건수}}{\text{내진보강대상건수}} \times 100$
- 산출된 지수 값에 따른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이 부여한다.

구 분	지수 값 최상위 1개 기관	지수 값 중위 2개 기관	지수 값 최하위 1개 기관
내진성능평가점수	5점	3점	1점
내진보강공사점수	5점	3점	1점

○ 최종순위 결정

- 내진성능평가점수와 내진보강공사점수의 합이 큰 기관에 높은 순위를 부여한다.
- 합산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내진보강대상건수가 많은 기관을 높은 순위로 한다.

<평가대상기관의 실적> (단위 : 건)

구분	A	B	C	D
내진성능평가실적	82	72	72	83
내진보강공사실적	91	76	81	96
내진보강대상	100	80	90	100

- 최상위기관

최하위기관
- ① A B

② B C

③ B D

④ C D

⑤ D C

2018 5급 (나) 9번

문 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평가대상기관은 甲, 乙, 丙, 丁 4개 기관이다.

○ 평가요소는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성과, 홍보실적 총 4개이다. 평가요소별로 100점을 4개 평가대상기관에 배분하며, 평가대상기관이 받는 평가요소별 최소점수는 3점이다.

○ 4개 평가요소의 점수를 기관별로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서로 평가순위를 매긴다. 평가결과 2위 기관까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4개 기관의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

(단위 : 점)

평가요소 기관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성과	홍보실적
甲	30	40	A	25
乙	20	B	30	25
丙	10	C	40	20
丁	40	30	D	30
합계	100	100	100	100

※ 특정 평가요소에 가중치를 n배 줄 경우 해당 평가요소점수는 n배가 된다.

- <보 기>
- ㄱ. 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 ㄴ. B가 27이고 D가 25이상이면 乙이 2위가 된다.
- ㄷ. 국정과제에 가중치를 2배 준다면 丁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 ㄹ. 국정과제에 가중치를 3배 준다면 丁은 1위가 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ㄴ, ㄷ, ㄹ

2018 5급 (나) 29번

문 2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구매하게 될 차량은?

甲은 아내 그리고 자녀 둘과 함께 총 4명이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도록 배터리 완전충전시 주행거리가 200 km 이상인 전기자동차 1대를 구매하려고 한다. 구매와 동시에 집 주차장에 배터리 충전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배터리 충전시간(완속 기준)이 6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완속 충전기를, 6시간을 초과하면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려고 한다.

한편 정부는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구매와 동시에 지원하고 있는데, 승용차는 2,000만 원, 승합차는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승용차 중 경차는 1,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배터리 충전기에 대해서는 완속 충전기에 한하여 구매 및 설치 비용을 구매와 동시에 전액 지원하며, 2,000만 원이 소요되는 급속 충전기의 구매 및 설치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甲은 차량 A ~ E 중에서 실구매 비용(충전기 구매 및 설치 비용 포함)이 가장 저렴한 차량을 선택하려고 한다. 단, 실구매 비용이 동일할 경우에는 아래의 ‘점수 계산 방식’에 따라 점수가 가장 높은 차량을 구매하려고 한다.

차량	A	B	C	D	E
최고속도 (km/h)	130	100	120	140	120
완전충전시 주행거리 (km)	250	200	250	300	300
충전시간 (완속 기준)	7시간	5시간	8시간	4시간	5시간
승차 정원	6명	8명	2명	4명	5명
차종	승용	승합	승용 (경차)	승용	승용
가격(만 원)	5,000	6,000	4,000	8,000	8,000

○ 점수 계산 방식

- 최고속도가 120 km/h 미만일 경우에는 120 km/h를 기준으로 10 km/h가 줄어들 때마다 2점씩 감점
- 승차 정원이 4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인원 1명당 1점씩 가점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2019 5급 (가) 12번

문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전문가 6명(A ~ F)의 <회의 참여 가능 시간>과 <회의 장소 선호도>를 반영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회의를 월 ~ 금요일 중 개최하려 한다.

<회의 참여 가능 시간>

요일 전문가	월	화	수	목	금
A	13:00~16:20	15:00~17:30	13:00~16:20	15:00~17:30	16:00~18:30
B	13:00~16:10	-	13:00~16:10	-	16:00~18:30
C	16:00~19:20	14:00~16:20	-	14:00~16:20	16:00~19:20
D	17:00~19:30	-	17:00~19:30	-	17:00~19:30
E	-	15:00~17:10	-	15:00~17:10	-
F	16:00~19:20	-	16:00~19:20	-	16:00~19:20

※ -: 참여 불가

<회의 장소 선호도>

(단위: 점)

전문가 장소	A	B	C	D	E	F
가	5	4	5	6	7	5
나	6	6	8	6	8	8
다	7	8	5	6	3	4

<조 건>

○ 전문가 A~F 중 3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어야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

○ 회의는 1시간 동안 진행되며, 회의 참여자는 회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

○ 회의 시간이 정해지면, 해당 일정에 참여 가능한 전문가들의 선호도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곳을 회의 장소로 정한다.

- ① 월요일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

② 금요일 16시에 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 장소는 ‘가’이다.

③ 금요일 18시에 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 장소는 ‘다’이다.

④ A가 반드시 참여해야 할 경우 목요일 16시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C, D를 포함하여 4명 이상이 참여해야 할 경우 금요일 17시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019 5급 (가) 15번

문 1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학과는 지망자 5명(A~E) 중 한 명을 교환학생으로 추천하기 위하여 각각 5회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바탕을 둔 추첨을 하기로 했다. 평가 및 추첨 방식과 현재까지 진행된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매 회 100점 만점으로 10점 단위의 점수를 매기며, 100점을 얻은 지망자에게는 5장의 카드, 90점을 얻은 지망자에게는 2장의 카드, 80점을 얻은 지망자에게는 1장의 카드를 부여한다. 70점 이하를 얻은 지망자에게는 카드를 부여하지 않는다.

○ 5회차 평가 이후 각 지망자는 자신이 받은 모든 카드에 본인의 이름을 적고, 추첨함에 넣는다. 다만 5번의 평가의 총점이 400점 미만인 지망자는 본인의 카드를 추첨함에 넣지 못한다.

○ □□학과장은 추첨함에서 한 장의 카드를 무작위로 뽑아 카드에 이름이 적힌 지망자를 □□학과의 교환학생으로 추천한다.

<평가 결과>

(단위: 점)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A	90	90	90	90	
B	80	80	70	70	
C	90	70	90	70	
D	70	70	70	70	
E	80	80	90	80	

① A가 5회차 평가에서 80점을 얻더라도 다른 지망자의 점수에 관계없이 추천될 확률이 가장 높다.

② B가 5회차 평가에서 90점을 얻는다면 적어도 D보다는 추천될 확률이 높다.

③ C가 5회차 평가에서 카드를 받지 못하더라도 B보다는 추천될 확률이 높다.

④ D가 5회차 평가에서 100점을 받고 다른 지망자가 모두 80점을 받는다면 D가 추천될 확률은 세 번째로 높다.

⑤ E가 5회차 평가에서 카드를 받지 못하더라도 E는 추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382

382

2020 5급 (나) 16번

문 1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A청은 업무능력 평가를 통해 3개 부서(甲 ~ 丙) 중 평가항목별 최종점수의 합계가 높은 2개 부서를 포상한다.

○ 4명의 평가위원(가 ~ 라)은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 전략으로 구성된 평가항목을 5개 등급(최상, 상, 중, 하, 최하)으로 각각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각 평가항목의 등급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최상	상	중	하	최하
문제인식	30	24	18	12	6
실현가능성	30	24	18	12	6
성장전략	40	32	24	16	8

○ 평가항목별 최종점수는 아래의 식에 따라 산출한다.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복수인 경우 각각 하나씩만 차감한다.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 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평가위원 수 - 2

○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평가위원	점수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甲	가	30	24	24
	나	24	30	24
	다	30	18	40
	라	㉠	12	32
乙	가	6	24	32
	나	12	24	㉡
	다	24	18	16
	라	24	18	32
丙	가	12	30	㉢
	나	24	24	24
	다	18	12	40
	라	30	6	24

——— <보 기> ———

ㄱ. ㉠값에 관계없이 문제인식 평가항목의 최종점수는 甲이 제일 높다.

ㄴ. ㉡ = ㉢ > 16이라면, 성장전략 평가항목의 최종점수는 乙이 丙보다 낮지 않다.

ㄷ. ㉠ = 18, ㉡ = 24, ㉢ = 24일 때, 포상을 받게 되는 부서는 甲과 丙이다.

-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2020 5급 (나) 31번

문 31.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 ~ 戊로 구성된 A팀은 회식을 하고자 한다. 회식메뉴는 다음의 <메뉴 선호 순위>와 <메뉴 결정 기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메뉴 선호 순위>

팀원 \ 메뉴	탕수육	양고기	바닷가재	방어회	삼겹살
甲	3	2	1	4	5
乙	4	3	1	5	2
丙	3	1	5	4	2
丁	2	1	5	3	4
戊	3	5	1	4	2

<메뉴 결정 기준>

○ 기준1: 1순위가 가장 많은 메뉴로 정한다.

○ 기준2: 5순위가 가장 적은 메뉴로 정한다.

○ 기준3: 1순위에 5점, 2순위에 4점, 3순위에 3점, 4순위에 2점, 5순위에 1점을 부여하여 각각 합산한 뒤, 점수가 가장 높은 메뉴로 정한다.

○ 기준4: 기준3에 따른 합산 점수의 상위 2개 메뉴 중, 1순위가 더 많은 메뉴로 정한다.

○ 기준5: 5순위가 가장 많은 메뉴를 제외하고 남은 메뉴 중, 1순위가 가장 많은 메뉴로 정한다.

<상 황>

○ 丁은 바닷가재가 메뉴로 정해지면 회식에 불참한다.

○ 丁이 회식에 불참하면 丙도 불참한다.

○ 戊는 양고기가 메뉴로 정해지면 회식에 불참한다.

<보 기>

ㄱ. 기준1과 기준4 중 어느 것에 따르더라도 같은 메뉴가 정해진다.

ㄴ. 기준2에 따르면 탕수육으로 메뉴가 정해진다.

ㄷ. 기준3에 따르면 모든 팀원이 회식에 참석한다.

ㄹ. 기준5에 따르면 戊는 회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020 5급 (나) 36번

문 3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甲국은 국가혁신클러스터 지구를 선정하고자 한다. 산업 단지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육성 의지가 있는 곳 중 합산점수가 높은 4곳의 산업단지를 국가혁신클러스터 지구로 선정한다.

<평가 기준>

○ 산업단지 내 기업 집적 정도

산업단지 내 기업 수	30개 이상	10 ~ 29개	9개 이하
점수	40점	30점	20점

○ 산업단지의 산업클러스터 연관성

업종	연관 업종	유사 업종	기타
점수	40점	20점	0점

※ 연관 업종: 자동차, 철강, 운송, 화학, IT
유사 업종: 소재, 전기전자

○ 신규투자기업 입주공간 확보 가능 여부

입주공간 확보	가능	불가
점수	20점	0점

○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한다.

- 1) 산업클러스터 연관성 점수가 높은 산업단지
- 2) 기업 집적 정도 점수가 높은 산업단지
- 3) 신규투자기업의 입주공간 확보 가능 여부 점수가 높은 산업단지

— <상 황> —

산업단지(A ~ G)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산업 단지	산업단지 내 기업 수	업종	입주공간 확보	지자체 육성 의지
A	58개	자동차	가능	있음
B	9개	자동차	가능	있음
C	14개	철강	가능	있음
D	10개	운송	가능	없음
E	44개	바이오	가능	있음
F	27개	화학	불가	있음
G	35개	전기전자	가능	있음

- ① B는 선정된다.
- ② A가 ‘소재’산업단지인 경우 F가 선정된다.
- ③ 3곳을 선정할 경우 G는 선정되지 않는다.
- ④ F는 산업단지 내에 기업이 3개 더 있다면 선정된다.
- ⑤ D가 소재한 지역의 지자체가 육성 의지가 있을 경우 D는 선정된다.

2021 5급 (가) 6번

문 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수강할 과목만을 모두 고르면?

- 甲이 소속된 기관에서는 상시학습 과목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 甲은 2021년 1월 15일 하루 동안 상시학습 과목을 수강하여 ‘학습점수’를 최대화하고자 한다.
- 甲이 하루에 수강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8시간이다.
- 2021년 1월 15일 기준, 권장 수강주기가 지난 상시학습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시간 만큼 학습점수로 인정한다.
- 2021년 1월 15일 기준, 권장 수강주기 이내에 상시학습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시간의 두 배를 학습점수로 인정한다.
- 과목별 수강시간을 다 채운 경우에 한하여 학습점수를 인정한다.

<상시학습 과목 정보>

과목명	수강시간	권장 수강주기	甲의 직전 수강일자
통일교육	2	12개월	2020년 2월 20일
청렴교육	2	9개월	2020년 4월 11일
장애인식교육	3	6개월	2020년 6월 7일
보안교육	3	3개월	2020년 9월 3일
폭력예방교육	5	6개월	2020년 8월 20일

- ① 통일교육, 폭력예방교육
- ② 통일교육, 장애인식교육, 보안교육
- ③ 통일교육, 청렴교육, 보안교육
- ④ 청렴교육, 장애인식교육, 폭력예방교육
- ⑤ 보안교육, 폭력예방교육

2022 5급 (나) 29번

문 2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진로의 순위를 옳게 짝지은 것은?

○ 甲은 A, B, C 3가지 진로에 대해 비용편익분석(편익 - 비용)을 통하여 최종 결과값이 큰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려고 한다.

○ 각 진로별 예상되는 편익은 다음과 같다.

- 편익 = 근속연수 × 평균연봉
- 연금이 있는 경우 편익에 1.2를 곱한다.

구분	A	B	C
근속연수	25	35	30
평균연봉	1억 원	7천만 원	5천만 원
연금 여부	없음	없음	있음

○ 각 진로별 예상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 비용 = 준비연수 × 연간 준비비용 × 준비난이도 계수
- 준비난이도 계수는 상 2.0, 중 1.5, 하 1.0으로 한다.
- 연고지가 아닌 경우 비용에 2억 원을 더한다.

구분	A	B	C
준비연수	3	1	4
연간 준비비용	6천만 원	1천만 원	3천만 원
준비난이도	중	하	상
연고지 여부	연고지	비연고지	비연고지

○ 평판도가 1위인 경우, 비용편익분석 결과값에 2를 곱한다.

구분	A	B	C
평판도	2위	3위	1위

	1순위	2순위	3순위
①	A	B	C
②	B	A	C
③	B	C	A
④	C	A	B
⑤	C	B	A

2022 5급 (나) 38번

문 3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乙이 선택할 스포츠 종목은?

○ 甲과 乙은 함께 스포츠 데이트를 하려 한다. 이들이 고려하고 있는 종목은 등산, 스키, 암벽등반, 수영, 볼링이다.

○ 甲과 乙은 비용, 만족도, 위험도, 활동량을 기준으로 종목별 점수를 부여하고, 종목별로 두 사람의 점수를 더하여 합이 가장 높은 종목을 선택한다. 단, 동점일 때는 乙이 부여한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종목을 선택한다.

○ 甲과 乙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 － 甲과 乙은 비용이 적게 드는 종목부터, 만족도가 높은 종목부터 순서대로 5점에서 1점까지 1점씩 차이를 두고 부여한다.
- － 甲은 위험도가 높은 종목부터, 활동량이 많은 종목부터 순서대로 5점에서 1점까지 1점씩 차이를 두고 부여하며, 乙은 그 반대로 점수를 부여한다.

구분	등산	스키	암벽등반	수영	볼링
비용(원)	8,000	60,000	32,000	20,000	18,000
만족도	30	80	100	20	70
위험도	40	100	80	50	60
활동량	50	100	70	90	30

- ① 등산
- ② 스키
- ③ 암벽등반
- ④ 수영
- ⑤ 볼링

2023 5급 (가) 17번

1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연구지원센터가 지급할 연구비 총액은?

- 연구지원센터는 최대 3개의 연구팀을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한다. 선정 및 연구비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 평가 항목은 연구실적 건수, 피인용 횟수, 연구계획서 평가결과, 특허출원 건수이며, 항목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 연구실적 건수: 1건당 15점
 - 피인용 횟수: 5회마다 1점
 - 연구계획서 평가결과: ‘우수’ 25점, ‘보통’ 20점, ‘미흡’ 15점
 - 특허출원 건수: 1건당 3점
 - 합계 점수 상위 3개 팀을 고르되, 합계 점수가 80점 미만인 팀은 3위 안에 들더라도 선정에서 제외한다.
 - 선정된 연구팀에게 지급할 연구비는 다음과 같다.
 - 1위: 10억 원, 2위: 7억 원, 3위: 4억 원
 - 단, 선정된 연구팀 가운데 연구계획서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연구팀은 1억 원을 증액 지급하고, 특허출원이 3건 미만인 연구팀은 1억 원을 감액 지급한다.

<상
황>

다음은 연구팀 A ~ E에 대한 평가 자료이다.

구분	연구실적 건수	피인용 횟수	연구계획서 평가결과	특허출원 건수
A	2	45	보통	3
B	3	62	우수	4
C	2	88	미흡	5
D	4	37	보통	2
E	1	165	우수	2

- ① 17억 원
- ② 18억 원
- ③ 19억 원
- ④ 21억 원
- ⑤ 22억 원

2023 5급 (가) 36번

3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대회 개최지로 선정될 곳은?

甲위원회는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후보지 5곳(A ~ E)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절차를 거쳐 최종 점수가 높은 상위 2곳을 개최지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 1단계: 인프라, 안전성, 홍보효과 항목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 2단계: 안전성 점수에는 2배의 가중치를, 홍보효과 점수에는 1.5배의 가중치를 부여한 후,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

○ 3단계: △△대회를 2회 이상 개최한 적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합산 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상 황>

○ 1단계에서 부여된 각 평가 항목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A	B	C	D	E
인프라	13	12	18	23	12
안전성	18	20	17	14	19
홍보효과	16	17	13	20	19

○ △△대회를 2회 이상 개최한 적이 있는 곳은 C, D이다.

- ① A, B
- ② A, C
- ③ A, E
- ④ B, D
- ⑤ B, E

2024 5급 (나) 9번

9.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乙이 각각 선택할 은행과 그 은행에서 적용받을 최종금리를 옳게 짝지은 것은?

A, B, C은행은 고객의 계좌를 개설할 때, 다음과 같이 최종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최종금리(%) = 기본금리 + 특별금리 + 우대금리

은행	기본금리	특별금리
A	4.2 %	0.5 %
B	4.0 %	0.5 %
C	3.8 %	0.5 %

※ 특별금리 조건: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은행	우대금리 조건	최대가산 우대금리
A	- 주택청약 보유 0.5 % - 공과금 자동이체 0.5 % - K카드 실적 월 30만 원 이상 0.5 %	1.0 %
B	- 최초 신규고객 1.0 % - 공과금 자동이체 0.5 %	1.5 %
C	- 급여이체 0.7 % - 최초 신규고객 0.6 % - K카드 실적 월 60만 원 이상 0.4 %	1.7 %

<상 황>

甲과 乙은 A, B, C은행 중 적용받을 최종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을 각각 선택하여 계좌를 개설하려 한다. 이들은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甲: 나는 여태 A은행만 이용해 왔고, 주택청약도 보유하고 있어. 공과금 자동이체 계좌는 다른 은행으로 바꿀 수 있지만, 급여이체 계좌는 바꿀 수 없어. 나는 한 달에 K카드를 40만 원 사용해. 나는 연소득 2,200만 원이야.

乙: 나는 B은행만 이용해 왔어. 급여이체와 공과금 자동이체를 어떤 은행에서 하더라도 괜찮아. 나는 한 달에 K카드를 70만 원 사용해. 나는 연소득 3,600만 원이야.

- 甲

乙
- ① A은행, 5.7 %

A은행, 5.2 %

② A은행, 6.2 %

C은행, 5.5 %

③ B은행, 6.0 %

A은행, 5.7 %

④ B은행, 6.0 %

C은행, 5.5 %

⑤ C은행, 6.0 %

A은행, 5.7 %

2024 5급 (나) 17번

17. 다음 글과 <신청 사업자 현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용역사업자로 선정될 사업자는?

□□부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한다. 평가 항목별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자를 선정하되,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자가 복수인 경우 실적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자를 선정한다. 단, 초급 기술을 가진 사업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음은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평가항목 및 배점>이다.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기술 등급

기술 등급	특급	고급	중급
점수	4	3	2

(나) 경력 기간

경력 기간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점수	8	7	6	5	4

(다) 실적 건수

실적 건수	14건 이상	14건 미만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점수	5	4	3	2	1

(라) 실적 금액

실적 금액	7억 원 이상	7억 원 미만 6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점수	5	4	3	2	1

<신청 사업자 현황>

사업자	기술 등급	경력 기간	실적 건수	실적 금액
甲	중급	9.5년	13건	8억 원
乙	고급	9년	12건	6억 원
丙	특급	8.5년	9건	8.5억 원
丁	특급	8년	10건	7.5억 원
戊	초급	13년	14건	5.5억 원

- ① 甲
- ② 乙
- ③ 丙
- ④ 丁
- ⑤ 戊

2024 5급 (나) 37번

3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설치업체로 선정될 곳은?

甲시는 전기차충전기 설치업체를 선정하려고 한다. 다음과 같은 <평가표>를 바탕으로 후보업체 5곳(A ~ E) 중 최종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을 선정한다.

<평가표>

평가항목	등급	점수
품질	상	5
	중	3
	하	1
가격	8억 원 미만	7
	8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5
	9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
	10억 원 이상	1
안전성	상	5
	중	3
	하	1

○ 품질 점수에 대해서는 3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안전성 점수에 대해서는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한 후, 항목별로 산출한 점수를 합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한다. 단, 설치업체로 2회 이상 선정된 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2.5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상 황>

○ 각 업체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A	B	C	D	E
품질	중	하	상	중	상
가격(천 원)	735,000	784,200	900,000	850,000	1,120,000
안전성	하	중	중	상	중

※ E는 설치업체로 2회 선정된 적이 있다.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2025 5급 (가) 17번

1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되는 사람은?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선정 기준>

○ 민원처리 점수에 가점 또는 감점을 하여 점수의 총합이 가장 높은 사람을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한다. 민원처리 점수의 산정 방식과 가점 및 감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민원처리 점수 = (민원만족도 × 0.8) + (민원처리 건수 × 0.2)

- 우수답변 선정 민원 1건당 1점 가점
- 미결재 민원 1건당 1점 감점
- 처리기간 초과 민원 1건당 1점 감점

○ 민원만족도가 80점 미만이거나 민원처리 건수가 월 40건 미만인 사람은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상 황>

○ A부처는 8월의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려고 한다.
A부처 공무원(甲 ~ 戊)의 8월 민원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민원 만족도	민원처리 건수	우수답변 선정 건수	미결재 건수	처리기간 초과 건수
甲	85점	50건	0건	1건	3건
乙	80점	40건	3건	0건	0건
丙	85점	40건	1건	0건	1건
丁	90점	35건	0건	2건	2건
戊	75점	55건	4건	1건	1건

- ① 甲
- ② 乙
- ③ 丙
- ④ 丁
- ⑤ 戊

2025 5급 (가) 36번

3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산악회가 선택할 산은?

△△산악회가 이번 주말에 등반할 산을 선택하려고 한다.

○ 다음은 등산 후보지(A ~ E)의 항목별 별점을 나타낸 것이다.

★은 1점, ☆은 0.5점을 의미한다. ‘체력소모도’와 ‘위험도’는 별점이 높을수록 선호도가 낮음을 뜻하며, ‘경관’과 ‘접근성’은 별점이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음을 뜻한다.

구분	A	B	C	D	E
체력소모도	★★★★☆	★★★★☆	★★	★★★★☆	★★
경관	★★★★	★★★★★	★☆	★★☆	★★★★
위험도	★★★★	★★★★☆	★★★★	★★	★★★★★
접근성	★★★★★	★★★★☆	★★	★★★★★	★★★★

○ △△산악회가 산을 선택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최종점수가 가장 높은 산을 선택하며, 최종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단, 체력소모도 점수와 위험도 점수의 합이 7을 초과하면 선택하지 않는다.

최종점수 = 2×(경관 점수 + 접근성 점수) – (체력소모도 점수 + 위험도 점수)

－ 최종점수가 동점일 경우, 접근성, 경관, 위험도의 순서대로 해당 항목의 점수를 비교하여 선호도가 높은 산을 선택한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2025 5급 (가) 38번

3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채용후보자(A ~ E) 중 최종 합격자는?

△△부처는 하루 동안 실무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채용후보자 (A ~ E) 중 1명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고자 한다.

○ 실무평가: 먼저 심사위원(甲 ~ 丙) 3인의 실무평가 점수 중 하나라도 60점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머지 후보자 중, 후보자별로 가장 낮은 평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 2인의 점수의 합이 높은 3명을 뽑는다.

○ 면접평가: 후보자별로 심사위원(丁 ~ 己)의 면접평가 점수를 합산한다.

○ 최종 합격자 선발: 실무평가에서 뽑은 3명을 대상으로, 후보자별로 심사위원 3인(甲 ~ 丙)의 실무평가 점수 합계와 심사위원 3인(丁 ~ 己)의 면접평가 점수 합계를 모두 합산한 최종 점수가 가장 높은 1명을 선발한다. 다만 최종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면접평가 점수 합계가 높은 후보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한다.

<상 황>

○ 채용후보자(A ~ E)의 실무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甲	乙	丙
A	75	70	80
B	75	65	75
C	85	55	90
D	65	85	80
E	80	75	90

○ 채용후보자(A ~ E)의 면접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丁	戊	己
A	70	90	85
B	75	80	80
C	80	90	75
D	80	75	85
E	70	75	75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2011 민경채 (인) 20번

문 20. A국에서는 부동산을 매매·상속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글을 근거로 할 때, 자경농민인 甲이 공시지가 3억 5천만 원의 농지를 상속받아 주변농지의 시가 5억 원으로 신고한 경우, 甲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액은? (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 <부동산 취득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산출방법> —

-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당시 가액에 2%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는 결정된 취득세액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등록세는 부동산 취득 당시 가액에 0.8%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때 등록세의 세율은 상속의 경우 취득가액의 0.3%, 매매의 경우 1%이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결정된 등록세액에 20%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부동산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공시지가(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① 75만 원
- ② 126만 원
- ③ 180만 원
- ④ 280만 원
- ⑤ 1,280만 원

2011 민경채 (인) 25번

문 25. 다음 <관세 관련 규정>에 따를 때, 甲이 전자기기의 구입으로 지출한 총 금액은?

<관세 관련 규정>

○ 물품을 수입할 경우 과세표준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관세로 납부해야 한다. 단, 과세표준이 15만 원 미만이고,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 과세표준은 판매자에게 지급한 물품가격, 미국에 납부한 세금, 미국 내 운송료, 미국에서 한국까지의 운송료를 합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미국에서 한국까지의 운송료는 실제 지불한 운송료가 아닌 다음의 <국제선편요금>을 적용한다.

<국제선편요금>

중량	0.5 kg ~ 1 kg미만	1 kg ~ 1.5 kg미만
금액(원)	10,000	15,000

○ 과세표준 환산 시 환율은 관세청장이 정한 ‘고시환율’에 따른다. (현재 고시환율 : ₩ 1,100 / \$)

<甲의 구매 내역>

한국에서 甲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미국 소재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가격과 운송료를 지불하고 전자기기를 구입했다.

· 전자기기 가격 : \$ 120

· 미국에서 한국까지의 운송료 : \$ 30

· 지불시 적용된 환율 : ₩ 1,200 / \$

· 전자기기 중량 : 0.9 kg

· 전자기기에 적용되는 관세율 : 10 %

· 미국 내 세금 및 미국 내 운송료는 없다.

- ① 142,000원

② 156,200원

③ 180,000원

④ 181,500원

⑤ 198,000원

2012 민경채 (인) 20번

문 20. 甲은 ○○주차장에 4시간 45분 간 주차했던 차량의 주차 요금을 정산하려고 한다. 이 주차장에서는 총 주차 시간 중 최초 1시간의 주차 요금을 면제하고, 다음의 <주차 요금 기준>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 甲이 지불해야 할 금액은?

<주차 요금 기준>

구분	총 주차 시간	
	1시간 초과 ~ 3시간인 경우	3시간 초과인 경우
요금	○ 30분마다 500원	○ 1시간 초과 ~ 3시간 : 30분마다 500원 ○ 3시간 초과 : 30분마다 2,000원

※ 주차 요금은 30분 단위로 부과되고, 잔여시간이 30분 미만일 경우 30분으로 간주한다.

- ① 5,000원
- ② 9,000원
- ③ 10,000원
- ④ 11,000원
- ⑤ 20,000원

2012 민경채 (인) 23번

문 23. 다음 글과 <사례>에 근거할 때, <보기>의 금액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 총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사용될 수 있다.

○ A방식 : 감세안이 시행된 해부터 매년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발생하는 감소분을 누적적으로 합계하는 방식

○ B방식 : 감세안이 시행된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기준년도와 비교했을 때, 매년 발생하는 감소분을 누적적으로 합계하는 방식

— <사 례> —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감세안을 만들어 2013년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감세 효과 파악을 위해 2015년까지 감세안에 따른 세수 변화 규모를 추산했다.

 <연도별 세수 총액>

연도	세수 총액(단위 : 원)
2012	42조 5,000억
2013	41조 8,000억
2014	41조 4,000억
2015	41조 3,000억

— <보 기> —

ㄱ. A방식에 따라 계산한 2013년의 세수 감소액은?

ㄴ. B방식에 따라 계산한 2014년까지의 세수 감소 총액은?

ㄷ. A방식, B방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2015년까지의 세수 감소 총액의 차이는?

- ㄱ

ㄴ

ㄷ
- ① 3,000억 원

1조 1,000억 원

1조 2,000억 원

② 3,000억 원

1조 8,000억 원

1조 8,000억 원

③ 7,000억 원

1조 1,000억 원

1조 2,000억 원

④ 7,000억 원

1조 8,000억 원

1조 2,000억 원

⑤ 7,000억 원

1조 8,000억 원

1조 8,000억 원

2013 민경채 (인) 10번

문 10. 다음 <규칙>을 근거로 판단할 때, ‘도토리’와 ‘하트’를 각각 가장 많이 획득할 수 있는 꽃은?

<규칙>

○ 게임 시작과 동시에 주어지는 12개의 물방울을 가지고 1시간 동안 한 종류만의 꽃을 선택하여 재배·수확을 반복한다.

○ 12개의 물방울은 재배·수확이 끝나면 자동 충전된다.

○ 꽃을 1회 재배·수확하기 위해서는 꽃 종류별로 각각 일정한 ‘재배·수확시간’과 ‘물방울’이 필요하다.

○ 재배·수확된 꽃은 ‘도토리’나 ‘하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교환할 수 있다.

○ 이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구분	재배·수확 시간(회 당)	물방울 (송이 당)	도토리 (송이 당)	하트 (송이 당)
나팔꽃	3분	2개	2개	1개
무궁화	5분	4개	3개	5개
수선화	10분	2개	5개	10개
장미	12분	6개	10개	15개
해바라기	20분	4개	25개	20개

예) 나팔꽃 1송이를 재배·수확하는데 필요한 물방울은 2개이므로 12개의 물방울로 3분 동안 6송이의 나팔꽃을 재배·수확하여 도토리 12개 또는 하트 6개로 교환할 수 있다.

- 도토리

① 해바라기

② 해바라기

③ 무궁화

④ 나팔꽃

⑤ 나팔꽃

하트

수선화

해바라기

장미

해바라기

수선화

2014 민경채 (A) 19번

문 1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례>의 甲국과 乙국의 한 선거구에서 당선에 필요한 최소 득표율은?

○ 민주주의 국가는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선거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중 ‘제한 투표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서 유권자는 해당 선거구의 의석수보다 적은 수의 표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선거구에서 4명의 대표를 선출한다면, 유권자에게 4표보다 적은 2표 혹은 3표를 부여하여 투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학자 A는 이 같은 선거제도에서 당선에 필요한 최소 득표율을 다음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text{최소 득표율}(\%) = \frac{\text{유권자 1인당 투표수}}{\text{유권자 1인당 투표수} + \text{선거구당 의석수}} \times 100$$

————— <사 례> —————

○ 甲국 : 한 선거구에서 3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유권자는 2표를 행사한다.

○ 乙국 : 한 선거구에서 5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유권자는 3표를 행사한다.

	甲국	乙국
①	20 %	32.5 %
②	20 %	37.5 %
③	40 %	27.5 %
④	40 %	32.5 %
⑤	40 %	37.5 %

2014 민경채 (A) 21번

문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신장 180 cm, 체중 85 kg인 甲의 비만 정도를 옳게 짚은 것은?

과다한 영양소 섭취와 적은 체내 에너지 소비로 인한 에너지 대사의 불균형으로 지방이 체내에 지나치게 축적되어 체중이 과다해지는 것을 비만이라 한다.

비만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Broca 보정식과 체질량 지수를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Broca 보정식은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비만 정도를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하면 신장(cm)에서 100을 뺀 수치에 0.9를 곱한 수치가 ‘표준체중(kg)’이며, 표준체중의 110 % 이상 120 % 미만의 체중을 ‘체중과잉’, 120 % 이상의 체중을 ‘비만’이라고 한다.

한편 체질량 지수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체질량 지수에 따른 비만 정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체질량 지수	비만 정도
18.5 미만	저체중
18.5 이상 ~ 23.0 미만	정상
23.0 이상 ~ 25.0 미만	과체중
25.0 이상 ~ 30.0 미만	경도비만
30.0 이상 ~ 35.0 미만	중등도비만
35.0 이상	고도비만

Broca 보정식	체질량 지수
① 체중과잉	경도비만
② 표준체중	정상
③ 비만	과체중
④ 체중과잉	정상
⑤ 비만	경도비만

2014 민경채 (A) 22번

문 22. 다음 글과 <표>를 근거로 판단할 때, 여섯 사람이 서울을 출발하여 대전에 도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예정시각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아래 여섯 사람은 서울 출장을 마치고 같은 고속버스를 타고 함께 대전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고속버스터미널에는 은행, 편의점, 화장실, 패스트푸드점, 서점 등이 있다.
다음은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해서 나눈 대화내용이다.

가은 : 버스표를 사야하니 저쪽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올게.
나중 : 그럼 그 사이에 난 잠깐 저쪽 편의점에서 간단히 먹을 김밥이라도 사올게.

다동 : 그럼 난 잠깐 화장실에 다녀올게. 그리고 저기 보이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라도 사와야겠어. 너무 배고프네.

라민 : 나는 버스에서 읽을 책을 서점에서 사야지. 그리고 화장실도 들러야겠어.

마란 : 그럼 난 여기서 바숨이랑 기다리고 있을게.

바숨 : 지금이 오전 11시 50분이니까 다들 각자 볼일 마치고 빨리 돌아와.

각 시설별 이용 소요시간은 은행 30분, 편의점 10분, 화장실 20분, 패스트푸드점 25분, 서점 20분이다.

<표>

서울 출발 시각	대전 도착 예정시각	잔여좌석 수
12 : 00	14 : 00	7
12 : 15	14 : 15	12
12 : 30	14 : 30	9
12 : 45	14 : 45	5
13 : 00	15 : 00	10
13 : 20	15 : 20	15
13 : 40	15 : 40	6
14 : 00	16 : 00	8
14 : 15	16 : 15	21

- ① 14 : 15
- ② 14 : 45
- ③ 15 : 00
- ④ 15 : 20
- ⑤ 16 : 15

2015 민경채 (인) 9번

문 9.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乙의 최대 배상 금액으로 모두 옳은 것은?

A국의 층간소음 배상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층간소음 수인(受忍)한도

- 주간 최고소음도 : 55 dB(A)
- 야간 최고소음도 : 50 dB(A)
- 주간 등가소음도 : 40 dB(A)
- 야간 등가소음도 : 35 dB(A)

○ 층간소음 배상 기준금액 : 수인한도 중 하나라도 초과 시

피해기간	피해자 1인당 배상 기준금액
6개월 이내	500,000원
6개월 초과 ~ 1년 이내	650,000원
1년 초과 ~ 2년 이내	800,000원

○ 배상금액 가산기준

(1) 주간 혹은 야간에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가 모두 수인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30 % 이내에서 가산

(2) 최고소음도 혹은 등가소음도가 주간과 야간에 모두 수인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30 % 이내에서 가산

(3) 피해자가 환자, 1세 미만 유아, 수험생인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 개인에게 20 % 이내에서 가산

○ 둘 이상의 가산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가산금액을 산출한 후 합산

예) 피해기간은 3개월이고, 주간의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모두 초과하였고, 피해자가 1인이며 환자인 경우 최대 배상금액 : 500,000원 + (500,000원 × 0.3) + (500,000원 × 0.2)

※ 등가소음도 : 변동하는 소음의 평균치

<상 황>

○ 아파트 위층에 사는 甲이 10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자, 아래층 부부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과 야간 모두 최고소음도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주간 등가소음도는 45 dB(A)였으며, 야간 등가소음도는 38 dB(A)였다. 아래층 피해자 부부는 모두 가산기준 (3)에 해당되지 않는다.

○ 아파트 위층에 사는 乙이 1년 6개월 전부터 야간에만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자, 아래층에 사는 가족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야간에 소음을 측정한 결과 등가소음도는 42 dB(A)였으며, 최고소음도는 52 dB(A)이었다. 아래층 피해자 가족은 4명이며, 그 중 수험생 1명만 가산기준 (3)에 해당된다.

甲	乙
① 1,690,000원	4,320,000원
② 1,690,000원	4,160,000원
③ 1,690,000원	3,840,000원
④ 1,300,000원	4,320,000원
⑤ 1,300,000원	4,160,000원

2015 민경채 (인) 18번

문 1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주택(A ~ E) 중 관리대상주택의 수는?

○○나라는 주택에 도달하는 빛의 조도를 다음과 같이 예측한다.

: 조명시설, : 주택

A36BCE24D48E

1. 각 조명시설에서 방출되는 광량은 그림에 표시된 값이다.

2. 위 그림에서 1칸의 거리는 2이며, 빛의 조도는 조명시설에서 방출되는 광량을 거리로 나눈 값이다.

3. 여러 조명시설로부터 동시에 빛이 도달할 경우, 각 조명시설로부터 주택에 도달한 빛의 조도를 예측하여 단순 합산한다.

4. 주택에 도달하는 빛은 그림에 표시된 세 개의 조명시설에서 방출되는 빛 외에는 없다고 가정한다.

————— <상 황> —————

빛공해로부터 주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에서 예측된 빛의 조도가 30을 초과할 경우 관리대상주택으로 지정한다.

- ① 1 채
- ② 2 채
- ③ 3 채
- ④ 4 채
- ⑤ 5 채

2016 민경채 (5) 6번

문 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례>에서 甲이 乙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 손해배상액은?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증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경우가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장래의 채무불이행 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약정을 말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손해액과 상관없이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배상받을 수 없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별도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증명해야 한다.

——— <사 례> ———

甲과 乙은 다음과 같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당사자 : 甲(X건물 소유주) / 乙(건축업자)

○ 계약내용 : X건물의 리모델링

○ 공사대금 : 1억 원

○ 공사기간 : 2015. 10. 1. ~ 2016. 3. 31.

○ 손해배상액의 예정 : 공사기간 내에 X건물의 리모델링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연기간 1일당 위 공사대금의 0.1 %를 乙이 甲에게 지급

그런데 乙의 과실로 인해 X건물 리모델링의 완료가 30일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甲은 5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乙이 고의로 불량자재를 사용하여 부실공사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甲은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甲은 각각의 손해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증명하여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① 500만 원
- ② 800만 원
- ③ 1,300만 원
- ④ 1,500만 원
- ⑤ 1,800만 원

2016 민경채 (5) 17번

문 1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에 해당하는 숫자는?

☐ △△원자력발전소에서 매년 사용후핵연료봉(이하 ‘폐연료봉’이라 한다)이 50,000개씩 발생하고, 이를 저장하기 위해 발전소 부지 내 2가지 방식(습식과 건식)의 임시저장소를 운영

1. 습식저장소

- 원전 내 저장수조에서 물을 이용하여 폐연료봉의 열을 냉각시키고 방사선을 차폐하는 저장방식으로 총 100,000개의 폐연료봉 저장 가능

2. 건식저장소

☐ X 저장소

- 원통형의 커다란 금속 캔에 폐연료봉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총 300기의 캐니스터로 구성되고, 한 기의 캐니스터는 9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개의 층에 60개의 폐연료봉 저장 가능

☐ Y 저장소

- 기체로 열을 냉각시키고 직사각형의 콘크리트 내에 저장함으로써 방사선을 차폐하는 저장방식으로 이 방식을 이용하여 저장소 내에 총 138,000개의 폐연료봉 저장 가능

☐ 현재 습식저장소는 1개로 저장용량의 50 %가 채워져 있고, 건식저장소 X, Y는 각각 1개로 모두 비어 있는 상황

☐ 따라서 발생하는 폐연료봉의 양이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원자력발전소에서 최대 (A)년 동안 발생하는 폐연료봉을 현재의 임시저장소에 저장 가능

- ① 3
- ② 4
- ③ 5
- ④ 6
- ⑤ 7

2017 민경채 (나) 9번

문 9.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사무관이 3월 출장여비로 받을 수 있는 총액은?

- 출장여비 기준

- 출장여비는 출장수당과 교통비의 합이다.

1) 세종시 출장

- 출장수당 : 1만 원

- 교통비 : 2만 원

2) 세종시 이외 출장

- 출장수당 : 2만 원(13시 이후 출장 시작 또는 15시 이전 출장 종료 시 1만 원 차감)

- 교통비 : 3만 원

○ 출장수당의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 시 1만 원이 차감되며, 교통비의 경우 관용차량 사용 시 1만 원이 차감된다.

<상 황>

A사무관 3월 출장내역	출장지	출장 시작 및 종료 시각	비고
출장 1	세종시	14시 ~ 16시	관용차량 사용
출장 2	인천시	14시 ~ 18시	
출장 3	서울시	09시 ~ 16시	업무추진비 사용

- ① 6만 원

② 7만 원

③ 8만 원

④ 9만 원

⑤ 10만 원

2017 민경채 (나) 18번

문 18. 다음 <조건>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향후 1년 간 자동차를 유지하는 데 소요될 총비용은?

<조 건>

- 1. 자동차 유지비는 연 감가상각비, 연 자동차 보험료, 연 주유비용으로 구성되며 그 외의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 2. 연 감가상각비 계산 공식
연 감가상각비 = (자동차 구매비용 - 운행가능기간 종료 시 잔존가치) ÷ 운행가능기간(년)
- 3. 연 자동차 보험료

(단위 : 만 원)

구 분		차 종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보 험 가 입 시 운 전 경 력	1년 미만	120	150	200
	1년 이상 2년 미만	110	135	180
	2년 이상 3년 미만	100	120	160
	3년 이상	90	105	140

- ※ 차량 구매 시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1년 단위로 가입
- ※ 보험 가입 시 해당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면 보험료 10 % 할인

- 4. 주유비용
1리터당 10 km를 운행할 수 있으며, 리터당 비용은 연중 내내 1,500원이다.

<상 황>

- 甲은 1,000만 원에 중형차 1대를 구입하여 바로 운행을 시작하였다.
- 차는 10년 동안 운행가능하며, 운행가능기간 종료 시 잔존가치는 100만 원이다.
- 자동차 보험 가입 시, 甲의 운전 경력은 2년 6개월이며 차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
- 甲은 매달 500 km씩 차를 운행한다.

- ① 192만 원
- ② 288만 원
- ③ 298만 원
- ④ 300만 원
- ⑤ 330만 원

2018 민정채 (가) 7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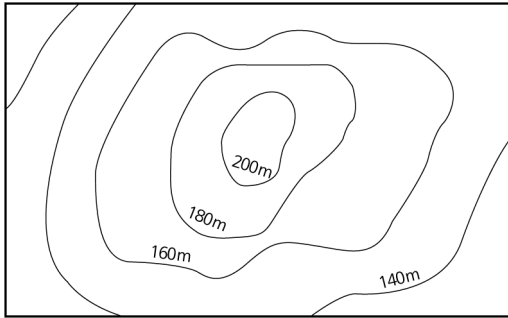
문 7. 다음 <측량학 수업 필기>를 근거로 판단할 때, <예제>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수는?

— <측량학 수업 필기> —

축척: 실제 수평 거리를 지도상에 얼마나 축소해서 나타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 1/50,000, 1/25,000, 1/10,000, 1/5,000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함
ex) 1/50,000은 실제 수평 거리 50,000cm를 지도상에 1cm로 나타냄

등고선: 지도에서 표고가 같은 지점들을 연결한 선
→ 표준 해면으로부터 지표의 어느 지점까지의 수직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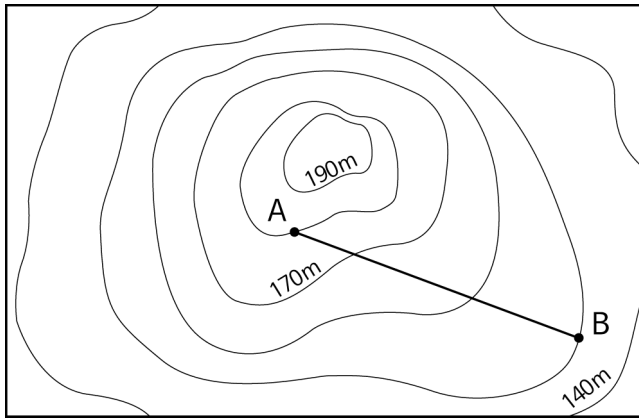
축척 1/50,000 지도에서는 표고 20m마다, 1/25,000 지도에서는 표고 10m마다, 1/10,000 지도에서는 표고 5m마다 등고선을 그림
ex) 축척 1/50,000 지도에서 등고선이 그려진 모습



경사도: 어떤 두 지점 X와 Y를 잇는 사면의 경사도는 다음의 식으로 계산

$$\text{경사도} = \frac{\text{두 지점 사이의 표고 차이}}{\text{두 지점 사이의 실제 수평 거리}}$$

— <예 제> —



위의 지도는 축척 1/25,000로 제작되었다. 지도상의 지점 A와 B를 잇는 선분을자로 재어 보니 길이가 4cm였다. 이때 두 지점 A와 B를 잇는 사면의 경사도는 ()이다.

- ① 0.015
- ② 0.025
- ③ 0.03
- ④ 0.055
- ⑤ 0.7

2018 민경채 (가) 18번

문 1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戊 중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신청자는?

A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내용을 공고하였다. <지원 기준>과 <지원 신청 현황>은 아래와 같다.

<지원 기준>

구분		용량(성능)	지원금 단가
태양광	단독주택	2 kW 이하	kW당 80만 원
		2 kW 초과 3 kW 이하	kW당 60만 원
	공동주택	30 kW 이하	kW당 80만 원
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	10 m ² 이하	m ² 당 50만 원
		10 m ² 초과 20 m ² 이하	m ² 당 30만 원
지열	수직밀폐형	10 kW 이하	kW당 60만 원
		10 kW 초과	kW당 50만 원
연료전지	인산형 등	1 kW 이하	kW당 2,100만 원

○ 지원금은 ‘용량(성능) × 지원금 단가’로 산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월 전력사용량이 450 kWh 이상인 건물은 태양열 설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용량(성능)이 <지원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신청 현황>

신청자	설비 종류	용량(성능)	건물 소유자	전월 전력사용량	비고
甲	태양광	8 kW	개인	350 kWh	공동주택
乙	태양열	15 m ²	개인	550 kWh	진공관형
丙	태양열	5 m ²	국가	400 kWh	평판형
丁	지열	15 kW	개인	200 kWh	수직밀폐형
戊	연료전지	3 kW	개인	500 kWh	인산형

- ① 甲
- ② 乙
- ③ 丙
- ④ 丁
- ⑤ 戊

2019 민경채 (나) 3번

문 3.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옳게 짝지은 것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특허출원료

가. 특허출원을 국어로 작성된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6,000원. 다만 전자문서를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매건 56,000원으로 한다.

나. 특허출원을 국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66,000원에 서면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 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작성된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73,000원

라. 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93,000원에 서면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을 가산한 금액

2. 특허심사청구료: 매건 143,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4,000원을 가산한 금액

<상 황>

甲은 청구범위가 3개 항으로 구성된 총 27면의 서면을 작성하여 1건의 특허출원을 하면서, 이에 대한 특허심사도 함께 청구한다.

	국어로 작성한 경우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
①	66,000원	275,000원
②	73,000원	343,000원
③	348,000원	343,000원
④	348,000원	375,000원
⑤	349,000원	375,000원

2020 민경채 (가) 7번

문 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19년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순서대로 세 국가(A ~ C)를 나열한 것은?

A, B, C 세 국가는 서로 간에만 무역을 하고 있다. 2019년 세 국가의 수출액은 다음과 같다.

○ A의 B와 C에 대한 수출액은 각각 200억 달러와 100억 달러였다.

○ B의 A와 C에 대한 수출액은 각각 150억 달러와 100억 달러였다.

○ C의 A와 B에 대한 수출액은 각각 150억 달러와 50억 달러였다.

A, B, C의 2019년 국내총생산은 각각 1,000억 달러, 3,000억 달러, 2,000억 달러였고, 각 국가의 무역의존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무역의존도} = \frac{\text{총 수출액} + \text{총 수입액}}{\text{국내총생산}}$$

- ① A, B, C
- ② A, C, B
- ③ B, A, C
- ④ B, C, A
- ⑤ C, A, B

2020 민경채 (가) 18번

문 18. 다음 <상황>과 <기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기관이 원천징수 후 甲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상 황>

○○국 A기관은 甲을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의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甲은 2020년 2월 2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위원회에 참석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내용을 슬라이드 20면으로 발표하였다. A기관은 아래 <기준>에 따라 甲에게 해당 위원회 참석수당과 원고료를 지급한다.

<기 준>

○ 참석수당 지급기준액

구분	단가
참석수당	· 기본료(2시간): 100,000원 · 2시간 초과 후 1시간마다 50,000원

○ 원고료 지급기준액

구분	단가
원고료	10,000원 / A4 1면

※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한다.

○ 위원회 참석수당 및 원고료는 기타소득이다.

○ 위원회 참석수당 및 원고료는 지급기준액에서 다음과 같은 기타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

- 기타소득세: (지급기준액 - 필요경비) × 소득세율(20 %)
- 주민세: 기타소득세 × 주민세율(10 %)

※ 필요경비는 지급기준액의 60 %로 한다.

- ① 220,000원
- ② 228,000원
- ③ 256,000원
- ④ 263,000원
- ⑤ 270,000원

2020 민경채 (가) 24번

문 2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공기청정기가 자동으로 꺼지는 시각은?

- ☐ A학교 학생들은 방과 후에 자기주도학습을 위해 교실을 이용한다.
 ☐ 교실 안에 있는 학생 각각은 매 순간 일정한 양의 미세 먼지를 발생시켜, 10분마다 5를 증가시킨다.
 ☐ 교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는 매 순간 일정한 양의 미세 먼지를 제거하여, 10분마다 15를 감소시킨다.
 ☐ 미세먼지는 사람에 의해서만 발생하고, 공기청정기에 의해서만 제거된다.
 ☐ 공기청정기는 매 순간 미세먼지 양을 표시하며 교실 내 미세먼지 양이 30이 되는 순간 자동으로 꺼진다.

<상 황>

15시 50분 현재, A학교의 교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켜져 있는 공기청정기가 나타내는 교실 내 미세먼지 양은 90이었다. 16시 정각에 학생 두 명이 교실에 들어와 공부를 시작하였고, 40분 후 학생 세 명이 더 들어와 공부를 시작하였다. 학생들은 모두 18시 정각에 교실에서 나왔다.

- ① 18시 50분

② 19시 00분

③ 19시 10분

④ 19시 20분

⑤ 19시 30분

2021 민경채 (나) 8번

문 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7월 1일부터 6일까지 지역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판매된 甲의 수박 총 판매액은?

- A시는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농산물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유통센터는 농산물을 수확 당일 모두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며, 당일 판매하지 못한 농산물은 판매가에서 20 %를 할인하여 다음 날 판매한다.

○ 농부 甲은 7월 1일부터 5일까지 매일 수확한 수박 100개씩을 수확 당일 A시 지역 농산물 유통센터에 공급하였다.

○ 甲으로부터 공급받은 수박의 당일 판매가는 개당 1만 원이며, 매일 판매된 수박 개수는 아래와 같았다. 단, 수확 당일 판매되지 않은 수박은 다음 날 모두 판매되었다.

날짜(일)	1	2	3	4	5	6
판매된 수박(개)	80	100	110	100	100	10

- ① 482만 원

② 484만 원

③ 486만 원

④ 488만 원

⑤ 490만 원

2020 7급 모의평가 11번

문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예약할 펜션과 워크숍 비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甲은 팀 워크숍을 추진하기 위해 펜션을 예약하려 한다.
 팀원은 총 8명으로 한 대의 렌터카로 모두 같이 이동하여
 워크숍에 참석한다. 워크숍 기간은 1박 2일이며, 甲은 워크
 쉵 비용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 워크숍 비용은 아래와 같다.

워크숍 비용 = 왕복 교통비 + 숙박요금

○ 교통비는 렌터카 비용을 의미하며, 렌터카 비용은 거리 10 km당 1,500원이다.

○ 甲은 다음 펜션 중 한 곳을 1박 예약한다.

구분	A 펜션	B 펜션	C 펜션
펜션까지 거리(km)	100	150	200
1박당 숙박요금(원)	100,000	150,000	120,000
숙박기준인원(인)	4	6	8

○ 숙박인원이 숙박기준인원을 초과할 경우, A ~ C 펜션 모두 초과 인원 1인당 1박 기준 10,00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

	예약할 펜션	워크숍 비용
①	A	155,000원
②	A	170,000원
③	B	215,000원
④	C	150,000원
⑤	C	180,000원

2020 7급 모의평가 18번

문 1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 ~ C 자동차 구매 시 지불 금액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 甲국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 정부는 차종을 고려하여 자동차 1대 당 보조금을 정액 지급한다. 중형 전기차에 대해서는 1,500만 원, 소형 전기차에 대해서는 1,000만 원,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지급한다.
- 정부는 차종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 구입 시 발생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뿐이며,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가격의 10%, 교육세는 2%, 취득세는 5%의 금액이 책정된다.

<기 준>

구분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중형 전기차	비감면	전액감면	전액감면
소형 전기차	전액감면		전액감면
하이브리드차	전액감면		비감면

○ 자동차 구매 시 지불 금액은 다음과 같다.

지불 금액 = 자동차 가격 - 보조금 + 세금

<상 황>

(단위: 만 원)

자동차	차종	자동차 가격
A	중형 전기차	4,000
B	소형 전기차	3,500
C	하이브리드차	3,500

- ① A < B < C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2021 7급 (나) 4번

문 4. 다음 글과 <지원대상 후보 현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기업 F가 받는 지원금은?

□□부는 2021년도 중소기업 광고비 지원사업 예산 6억 원을 기업에 지원하려 하며,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2020년도 총매출이 500억 원 미만인 기업만 지원하며, 우선 지원대상 사업분야는 백신, 비대면, 인공지능이다.
- 우선 지원대상 사업분야 내 또는 우선 지원대상이 아닌 사업분야 내에서는 ‘소요 광고비 × 2020년도 총매출’이 작은 기업부터 먼저 선정한다.
- 지원금 상한액은 1억 2,000만 원이나, 해당 기업의 2020년도 총매출이 100억 원 이하인 경우 상한액의 2배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금은 소요 광고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위의 지원금 산정 방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한 최대 금액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대상 기업에 순차로 배정한다.

— <지원대상 후보 현황> —

기업	2020년도 총매출(억 원)	소요 광고비 (억 원)	사업분야
A	600	1	백신
B	500	2	비대면
C	400	3	농산물
D	300	4	인공지능
E	200	5	비대면
F	100	6	의류
G	30	4	백신

- ① 없음

② 8,000만 원

③ 1억 2,000만 원

④ 1억 6,000만 원

⑤ 2억 4,000만 원

2021 7급 (나) 13번

문 13. 다음 <A기관 특허대리인 보수 지급 기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乙이 지급받는 보수의 차이는?

———— <A기관 특허대리인 보수 지급 기준> ————

- A기관은 특허출원을 특허대리인(이하 ‘대리인’)에게 의뢰하고, 이에 따라 특허출원 건을 수임한 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 보수는 착수금과 사례금의 합이다.
- 착수금은 대리인이 작성한 출원서의 내용에 따라 <착수금 산정 기준>의 세부항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세부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1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착수금은 140만 원으로 한다.

<착수금 산정 기준>

세부항목	금액(원)
기본료	1,200,000
독립항 1개 초과분(1개당)	100,000
종속항(1개당)	35,000
명세서 20면 초과분(1면당)	9,000
도면(1도당)	15,000

- ※ 독립항 1개 또는 명세서 20면 이하는 해당 항목에 대한 착수금을 산정하지 않는다.
- 사례금은 출원한 특허가 ‘등록결정’된 경우 착수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거절결정’된 경우 0원으로 한다.

———— <상 황> ————

- 특허대리인 甲과 乙은 A기관이 의뢰한 특허출원을 각각 1건씩 수임하였다.
- 甲은 독립항 1개, 종속항 2개, 명세서 14면, 도면 3도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등록결정’되었다.
- 乙은 독립항 5개, 종속항 16개, 명세서 50면, 도면 12도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거절결정’되었다.

- ① 2만 원
- ② 8만 5천 원
- ③ 123만 원
- ④ 129만 5천 원
- ⑤ 259만 원

2022 7급 (가) 12번

문 12.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선택할 사업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옳게 짝지은 것은?

○○군은 집수리지원사업인 A와 B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자는 하나의 사업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수리 항목은 외부(방수, 지붕, 담장, 쉼터)와 내부(단열, 설비, 창호)로 나누어진다.

<사업 A의 지원기준>

○ 외부는 본인부담 10%를 제외한 나머지 소요비용을 1,25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

○ 내부는 지원하지 않음

<사업 B의 지원기준>

○ 담장과 쉼터는 둘 중 하나의 항목만 지원하며, 각각 300만 원과 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 전액 지원

○ 담장과 쉼터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내·외부와 관계없이 본인부담 50%를 제외한 나머지 소요비용을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

<상 황>

甲은 본인 집의 창호와 쉼터를 수리하고자 한다. 소요 비용은 각각 500만 원과 900만 원이다. 甲은 사업 A와 B 중 지원금이 더 많은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하려고 한다.

	사업	지원금
①	A	1,250만 원
②	A	810만 원
③	B	1,250만 원
④	B	810만 원
⑤	B	300만 원

2022 7급 (가) 13번

문 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번 주 甲의 요일별 기본업무량은 다음과 같다.

요일	월	화	수	목	금
기본업무량	60	50	60	50	60

甲은 기본업무량을 초과하여 업무를 처리한 날에 ‘칭찬’을, 기본업무량 미만으로 업무를 처리한 날에 ‘꾸중’을 듣는다. 정확히 기본업무량만큼 업무를 처리한 날에는 칭찬도 꾸중도 듣지 않는다.

이번 주 甲은 방식1 ~ 방식3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방식1: 월요일에 100의 업무량을 처리하고, 그다음 날부터는 매일 전날 대비 20 적은 업무량을 처리한다.

방식2: 월요일에 0의 업무량을 처리하고, 그다음 날부터는 매일 전날 대비 30 많은 업무량을 처리한다.

방식3: 매일 60의 업무량을 처리한다.

<보 기>

ㄱ. 방식1을 선택할 경우 화요일에 꾸중을 듣는다.

ㄴ. 어느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수요일에는 칭찬도 꾸중도 듣지 않는다.

ㄷ. 어느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칭찬을 듣는 날수는 동일하다.

ㄹ. 칭찬을 듣는 날수에서 꾸중을 듣는 날수를 뺀 값을 최대로 하려면 방식2를 선택하여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ㄴ, ㄷ, ㄹ

2022 7급 (가) 16번

문 1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시는 부서 성과 및 개인 성과에 따라 등급을 매겨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 부서 등급과 개인 등급은 각각 S, A, B, C로 나뉘고, 등급별 성과급 산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성과 등급	S	A	B	C
성과급 산정비율(%)	40	20	10	0

○ 작년까지 부서 등급과 개인 등급에 따른 성과급 산정비율의 산술평균을 연봉에 곱해 직원의 성과급을 산정해왔다.

성과급 = 연봉 × {(부서 산정비율 + 개인 산정비율) / 2}

○ 올해부터 부서 등급과 개인 등급에 따른 성과급 산정 비율 중 더 큰 값을 연봉에 곱해 성과급을 산정하도록 개편하였다.

성과급 = 연봉 × max{부서 산정비율, 개인 산정비율}

※ max{a, b} = a와 b 중 더 큰 값

<상 황>

작년과 올해 □□시 소속 직원 甲 ~ 丙의 연봉과 성과 등급은 다음과 같다.

구분	작년			올해		
	연봉 (만 원)	성과 등급		연봉 (만 원)	성과 등급	
		부서	개인		부서	개인
甲	3,500	S	A	4,000	A	S
乙	4,000	B	S	4,000	S	A
丙	3,000	B	A	3,500	C	B

- ① 甲의 작년 성과급은 1,050만 원이다.
- ② 甲과 乙의 올해 성과급은 동일하다.
- ③ 甲 ~ 丙 모두 작년 대비 올해 성과급이 증가한다.
- ④ 올해 연봉과 성과급의 합이 가장 작은 사람은 丙이다.
- ⑤ 작년 대비 올해 성과급 상승률이 가장 큰 사람은 乙이다.

2022 7급 (가) 21번

문 21.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올해 말 A검사국이 인사부서에 증원을 요청할 인원은?

농식품 품질 검사를 수행하는 A검사국은 매년 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인사부서에 인력 증원을 요청한다.

○ 다음 해 A검사국의 예상 검사 건수를 모두 검사하는 데 필요한 최소 직원 수에서 올해 직원 수를 뺀 인원을 증원 요청한다.

○ 직원별로 한 해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최대 검사 건수는 매년 정해지는 ‘기준 검사 건수’에서 아래와 같이 차감하여 정해진다.

- 국장은 ‘기준 검사 건수’의 100 %를 차감한다.

- 사무 처리 직원은 ‘기준 검사 건수’의 100 %를 차감한다.

- 국장 및 사무 처리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매년 근무시간 중에 품질 검사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기준 검사 건수’의 10 %를 차감한다.

- 과장은 ‘기준 검사 건수’의 50 %를 추가 차감한다.

<상 황>

○ 올해 A검사국에는 국장 1명, 과장 9명, 사무 처리 직원 10명을 포함하여 총 100명의 직원이 있다.

○ 내년에도 국장, 과장, 사무 처리 직원의 수는 올해와 동일하다.

○ 올해 ‘기준 검사 건수’는 100건이나, 내년부터는 검사 품질 향상을 위해 90건으로 하향 조정한다.

○ A검사국의 올해 검사 건수는 현 직원 모두가 한 해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최대 검사 건수와 같다.

○ 내년 A검사국의 예상 검사 건수는 올해 검사 건수의 120 %이다.

- ① 10명
- ② 14명
- ③ 18명
- ④ 21명
- ⑤ 28명

2023 7급 (인) 7번

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주무관이 이용할 주차장은?

- 甲주무관은 출장 중 총 11시간(09:00 ~ 20:00) 동안 요금이 가장 저렴한 주차장 한 곳을 이용하고자 한다.
- 甲주무관의 자동차는 중형차이며, 3종 저공해차량이다.
- 주차요금은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할인대상인 경우 주차요금에 대하여 할인이 적용된다.
- 일 주차권이 있는 주차장의 경우, 甲은 주차요금과 일 주차권 중 더 저렴한 것을 선택한다.
- 주차장별 요금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구분	기본요금 (최초 1시간)	추가요금 (이후 30분마다)	비고
A주차장	2,000원	1,000원	-
B주차장	3,000원	1,500원	- 경차 전용 주차장 - 저공해차량 30 % 할인
C주차장	3,000원	1,750원	- 경차 50 % 할인 - 일 주차권 20,000원 (당일 00:00 ~ 24:00 이용 가능)
D주차장	5,000원	700원	-
E주차장	5,000원	1,000원	- 경차, 저공해차량 (1, 2종) 50 % 할인 - 저공해차량(3종) 20 % 할인 - 18:00 ~ 익일 07:00 무료

- ① A주차장
- ② B주차장
- ③ C주차장
- ④ D주차장
- ⑤ E주차장

2023 7급 (인) 17번

1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에게 배정되는 금액은?

A부서는 소속 직원에게 원격지 전보에 따른 이전여비를 지원한다. A부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라 지원액을 배정하고자 한다.

○ 지원액 배정 지침

- 이전여비 지원 예산 총액: 160만 원

- 심사를 통해 원격지 전보에 해당하는 신청자만 배정 대상으로 함

-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한 최대의 금액 배정

- 배정대상자 신청액의 합이 지원 예산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배정대상자의 ‘신청액 대비 배정액 비율’이 모두 같도록 삭감하여 배정

<상 황>

다음은 이전여비 지원을 신청한 A부서 직원 甲 ~ 戊의 신청액과 원격지 전보 해당 여부이다.

구분	이전여비 신청액(원)	원격지 전보 해당 여부
甲	700,000	해당
乙	400,000	해당하지 않음
丙	500,000	해당
丁	300,000	해당
戊	500,000	해당

- ① 525,000원
- ② 560,000원
- ③ 600,000원
- ④ 620,000원
- ⑤ 630,000원

2023 7급 (인) 19번

1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戊 중 금요일과 토요일의 초과근무 인정시간의 합이 가장 많은 근무자는?

- A기업에서는 근무자가 출근시각과 퇴근시각을 입력하면 초과근무 ‘실적시간’과 ‘인정시간’이 분 단위로 자동 계산된다.

- 실적시간은 근무자의 일과시간(월~금, 09:00~18:00)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인정시간은 실적시간에서 개인용무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하루 최대 인정시간은 월~금요일은 4시간이며, 토요일은 2시간이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실적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 A기업 근무자 甲~戊의 근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요일			토요일	
	출근시각	퇴근시각	비고	출근시각	퇴근시각
甲	08:55	20:00	—	10:30	13:30
乙	08:00	19:55	—	—	—
丙	09:00	21:30	개인용무시간 (19:00~19:30)	13:00	14:30
丁	08:30	23:30	재택근무	—	—
戊	07:00	21:30	—	—	—

- ① 甲
- ② 乙
- ③ 丙
- ④ 丁
- ⑤ 戊

2024 7급 (사) 12번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인쇄에 필요한 A4용지의 장수는?

甲주무관은 <인쇄 규칙>에 따라 문서 A ~ D를 각 1부씩 인쇄하였다.

<인쇄 규칙>

☐ 문서는 A4용지에 인쇄한다.

☐ A4용지 한 면에 2쪽씩 인쇄한다. 단, 중요도가 상에 해당하는 보도자료는 A4용지 한 면에 1쪽씩 인쇄한다.

☐ 단면 인쇄를 기본으로 한다. 단, 중요도가 하에 해당하는 문서는 양면 인쇄한다.

☐ 한 장의 A4용지에는 한 종류의 문서만 인쇄한다.

종류	유형	쪽수	중요도
A	보도자료	2	상
B	보도자료	34	중
C	보도자료	5	하
D	설명자료	3	상

- ① 11장
- ② 12장
- ③ 22장
- ④ 23장
- ⑤ 24장

2024 7급 (사) 20번

2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가장 많은 액수를 지급받을 예술단체의
배정액은?

□□부는 2024년도 예술단체 지원사업 예산 4억 원을 배정하려 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예술단체의 선정 및 배정액 산정·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 2023년도 기준 인원이 30명 미만이거나 운영비가 1억 원 미만인 예술단체를 선정한다.
- 사업분야가 공연인 단체의 배정액은 ‘(운영비 × 0.2) + (사업비 × 0.5)’로 산정한다.
- 사업분야가 교육인 단체의 배정액은 ‘(운영비 × 0.5) + (사업비 × 0.2)’로 산정한다.
- 인원이 많은 단체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예산 부족으로 산정된 금액 전부를 지급할 수 없는 단체에는 예산 잔액을 배정액으로 한다.
- 2023년도 기준 예술단체(A ~ D)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체	인원(명)	사업분야	운영비(억 원)	사업비(억 원)
A	30	공연	1.8	5.5
B	28	교육	2.0	4.0
C	27	공연	3.0	3.0
D	33	교육	0.8	5.0

- ① 8,000만 원
- ② 1억 1,000만 원
- ③ 1억 4,000만 원
- ④ 1억 8,000만 원
- ⑤ 2억 1,000만 원

2024 7급 (사) 24번

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 ~ 丁은 6문제로 구성된 직무능력시험 문제를 풀었다.

○ 정답을 맞힌 경우, 문제마다 기본점수 1점과 난이도에 따른 추가점수를 부여한다.

○ 추가점수는 다음 식에 따라 결정한다.

추가점수 = $\frac{\text{해당 문제를 틀린 사람의 수}}{\text{해당 문제를 맞힌 사람의 수}}$

○ 6문제의 기본점수와 추가점수를 모두 합한 총합 점수가 5점 이상인 사람이 합격한다.

甲 ~ 丁이 6문제를 풀 결과는 다음과 같고, 5번과 6번 문제의 결과는 찢어져 알 수가 없다.

(○: 정답, ×: 오답)

구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甲	○	×	○	○		
乙	○	×	○	×		
丙	○	○	×	×		
丁	×	○	○	×		
정답률(%)	75	50	75	25	50	50

<보 기>

- ㄱ. 甲이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frac{32}{3}$ 점이다.

ㄴ. 1 ~ 4번 문제에서 받은 점수의 합은 乙이 가장 낮다.

ㄷ. 4명 모두가 합격할 수는 없다.

ㄹ. 4명이 받은 점수의 총합은 24점이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2025 7급 (인) 19번

19.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부서의 1개월치 월세 지원액의 합은?

A부서는 거주지와 근무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에게 매달 월세를 지원한다.

○ 지원 대상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 중, 거주지와 근무지 간 편도 거리가 50 km 이상이거나 통근 시간이 1시간 이상인 직원이다.

○ 지원액은 아래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 본인의 월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한다. 단, 복수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지원 한도액을 적용한다.

지급기준	지원 한도액
장애, 질병 등으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는 자	35만 원
신규임용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25만 원
그 이외의 자	20만 원

<상 황>

A부서의 직원은 甲 ~ 戊이며, 이들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이들 중 甲과 戊는 신규임용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乙은 질병으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다.

직원	거주지와 근무지 간 편도 거리	통근 시간	주택 소유 여부	월세
甲	50 km	1시간 10분	○	45만 원
乙	45 km	1시간	×	30만 원
丙	100 km	1시간 30분	×	45만 원
丁	40 km	50분	×	40만 원
戊	70 km	1시간 40분	×	35만 원

- ① 70만 원

② 75만 원

③ 80만 원

④ 95만 원

⑤ 100만 원

2025 7급 추가 (핵) 5번

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월 유류비 지원금을 많이 받는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다음은 A부처 공무원 출퇴근 차량에 대한 1인당 월 유류비 지원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 서울·경기·인천 근무자는 월 20만 원, 그 외 지역 근무자는 월 25만 원을 지원한다.
- 출퇴근 차량이 1종 저공해차인 경우 위 지원 금액에서 30 %, 2종 저공해차인 경우 10 %를 추가 지원한다.

————— <상 황> —————

A부처 공무원(甲 ~ 丙)의 근무지와 출퇴근 차량 현황은 다음과 같다.

- 甲: 부산 근무, 2종 저공해차로 출퇴근
- 乙: 서울 근무, 1종 저공해차로 출퇴근
- 丙: 전남 근무, 3종 저공해차로 출퇴근

- ① 甲 > 乙 > 丙
- ② 甲 > 丙 > 乙
- ③ 乙 > 丙 > 甲
- ④ 丙 > 甲 > 乙
- ⑤ 丙 > 乙 > 甲

2025 7급 추가 (혁) 8번

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접종지원 대상 인원수와 지급되는 지원금 총액을 옳게 나열한 것은?

- △△백신 접종지원 대상
 - 65세 이상. 다만 기저질환 중 천식 또는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접종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접종비용
 - 20만 원
- 지원금
 -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

연령	지원금액
65세 이상 75세 미만	접종비용 반액
75세 이상	접종비용 전액

※ 단, △△백신 접종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액의 1/2을 지급

＜상 황＞

다음은 △△백신 접종 지원금 신청자(A ~ E)의 관련 정보이다.

구분	A	B	C	D	E
연령	76세	63세	66세	68세	78세
△△백신 접종지원 이력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없음
기저질환	－	간염	당뇨	천식	고혈압

	인원수	지원금 총액(만 원)
①	1	10
②	1	20
③	2	15
④	2	30
⑤	3	35

2025 7급 추가 (핵) 19번

1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예약할 시설을 옳게 나열한 것은?

- △△부처 주무관 甲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예약하고자 한다.

○ 행사는 전시와 세미나로 구성되며, 별개의 시설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 전시에는 최소 300 m²의 시설이 필요하고, 세미나에는 2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이 필요하다.

○ 이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시설	면적 (m ²)	정원(명)	사용료 (만 원)	비고
A	200	250	1,800	
B	250	300	2,000	
C	600	400	3,600	300 m ² 씩 분리해 별개의 시설로 사용 가능하며, 이 경우 각 200명씩 수용 가능
D	450	350	2,500	A와 동시 예약 시 D 사용료의 30 % 할인
E	350	200	2,000	B와 동시 예약 시 E 사용료의 25 % 할인

- 전시

① B

② C

③ D

④ D

⑤ E

세미나

A

C

A

B

B

2025 7급 추가 (핵) 21번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25년 11월 현재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제품 수는?

△△부처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2020년부터 고령친화 우수식품(이하 ‘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품의 경도·점도, 영양성분, 고령자 배려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1월 신규로 우수식품을 지정한다. 이와 동시에 우수식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제품 중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지정을 유지하고, 부합하지 못한 것은 지정을 해제한다.

△△부처의 담당 주무관은 2025년 2월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 신규 지정 제품은 2020년 5개, 2021년 8개였으며, 2022년부터 매년 신규 지정 제품 수는 전년도와 전전년도의 신규 지정 제품 수를 합한 수치였다.

○ 2021년의 해제 제품은 2개였으며, 2022년부터 매년 해제 제품 수는 전년도 해제 제품 수의 2배였다.

- ① 10
- ② 23
- ③ 51
- ④ 55
- ⑤ 74

2011 5급 (선) 12번

문 12. 다음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甲은 프로젝트를 도와준 동료들의 취향에 맞추어 음료를 대접하고자 한다. 동료들의 취향은 다음과 같다.

A: 녹차 큰 잔
B: 노른자를 추가한 쌍화차 작은 잔
C: 식혜 작은 잔
D: 수정과 큰 잔

<차림표>

	작은 잔(원)	큰 잔(원)
녹차	2,500	2,800
식혜	3,500	3,800
수정과	3,800	4,200
쌍화차	3,000	3,500
유자차	3,500	3,800

추가	금액(원)
꿀	500
대추와 잣	600
노른자	800

○ 오늘의 차 : 유자차 (균일가 3,000원)
○ 찻집 2주년 기념행사: 총 금액 20,000원 초과 시 5% 할인
※ 회원특전

- 10,000원 이상 결제 시 회원카드를 제시하면 총 결제 금액에서 1,000원 할인
- 적립금이 2,000점 이상인 경우, 현금처럼 사용가능 (1점당 1원, 100원 단위로만 사용가능하며, 타 할인 혜택 적용 후 최종금액의 5%까지만 사용가능)

※ 할인혜택은 중복적용 가능

甲은 유자차 작은 잔을 마실 예정이며, 자신의 회원카드를 제시하려고 한다.
甲의 회원카드 적립금은 3,800점이며, 적립금을 최대한 사용할 예정이다.

- ① 14,000원
- ② 14,500원
- ③ 15,000원
- ④ 15,500원
- ⑤ 16,000원

2011 5급 (선) 18번

문 18. 다음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장학금 지급규정> —————

1. 장학금 총액은 ‘등록생 수 × 30만 원’으로 결정된다.
2. ‘A장학금’은 학과 수석 학생 1명에게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면접을 통해 1명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3. ‘B장학금’은 등록금의 70 %를 지급한다.
4. ‘C장학금’은 등록금의 50 %를 지급한다.
5. ‘D장학금’은 등록금의 30 %를 지급한다.
6. 학생회 회장(1명)과 학생회 부회장(1명)에게는 ‘D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학생회 회장 또는 부회장이 ‘A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학생회 임원 중 다른 1명에게 ‘D장학금’을 지급한다.
7. ‘B장학금’ 수혜자의 수는 ‘C장학금’ 수혜자의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B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8. ‘C장학금’ 수혜자의 수는 ‘D장학금’ 수혜자의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C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9. 장학금 총액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액을 다음 학기로 이월한다.

————— <학과 현황> —————

- 등록생 수 40명
- 등록금 300만 원
- 지난 학기 이월 장학금 0원
- 현재 학생회는 학생회장 1명, 부회장 1명, 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① 만약 ‘B장학금’을 1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다면 ‘C장학금’은 3명에게 지급할 수 없다.
- ② 만약 ‘B장학금’을 2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다면 ‘C장학금’도 2명에게 지급해야 한다.
- ③ 만약 ‘B장학금’을 1명에게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C장학금’은 4명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④ 장학금 수혜자는 최소 3명이다.
- ⑤ 장학금 수혜자는 최대 11명이다.

2011 5급 (선) 30번

문 30. 다음을 읽고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보기>의 내용은 甲, 乙, 丙, 丁 기업의 예로 한정한다)

————— <재무비율 및 기업정보> —————

(가)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1원의 자기자본으로 순이익을 얼마만큼 발생시켰는가를 나타낸다.

(나) ‘주당 순이익’은 발행 주식 1주당 순이익이 얼마인가를 보여주는 값이다.

기업 甲, 乙, 丙, 丁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분	甲	乙	丙	丁
자기자본	100,000	500,000	250,000	80,000
액면가	5	5	0.5	1
순이익	10,000	200,000	125,000	60,000
주식가격	10	15	8	12

※ 자기자본 = 발행 주식 수 × 액면가

————— <보 기> —————

ㄱ. 주당 순이익은 甲기업이 가장 낮다.

ㄴ. 주당 순이익이 높을수록 주식가격이 높다.

ㄷ. 丁기업의 발행 주식 수는 甲기업의 발행 주식 수의 4배이다.

ㄹ. 1원의 자기자본에 대한 순이익은 丙기업이 가장 높고 甲기업이 가장 낮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ㄷ, ㄹ

2011 5급 (선) 34번

문 34. 녹색성장 추진의 일환으로 자전거 타기가 활성화되면서 자전거의 운동효과를 조사하였다. 다음의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 제시된 5명의 운전자 중 운동량이 많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조 건>

자전거 종류	바퀴 수	보조바퀴 여부
일반 자전거	2개	없음
연습용 자전거	2개	있음
외발 자전거	1개	없음

○ 운동량은 자전거 주행 거리에 비례한다.

○ 같은 거리를 주행하여도 자전거에 운전자 외에 한 명이 더 타면 운전자의 운동량은 두 배가 된다.

○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타면 같은 거리를 주행하여도 운동량이 일반 자전거의 80 %밖에 되지 않는다.

○ 바퀴가 1개인 자전거를 타면 같은 거리를 주행하여도 운동량이 일반 자전거보다 50 % 더 많다.

○ 이외의 다른 조건은 모두 같다고 본다.

<보 기>

甲: 1.4 km의 거리를 뒷자리에 한 명을 태우고 일반 자전거로 주행하였다.

乙: 1.2 km의 거리를 뒷자리에 한 명을 태우고 연습용 자전거로 주행하였다.

丙: 2 km의 거리를 혼자 외발 자전거로 주행하였다.

丁: 2 km의 거리를 혼자 연습용 자전거로 주행한 후에 이어서 1 km의 거리를 혼자 외발 자전거로 주행하였다.

戊: 0.8 km의 거리를 뒷자리에 한 명을 태우고 연습용 자전거로 주행한 후에 이어서 1.2 km의 거리를 혼자 일반 자전거로 주행하였다.

- ① 丙>丁>甲>戊>乙

② 丙>丁>甲>乙>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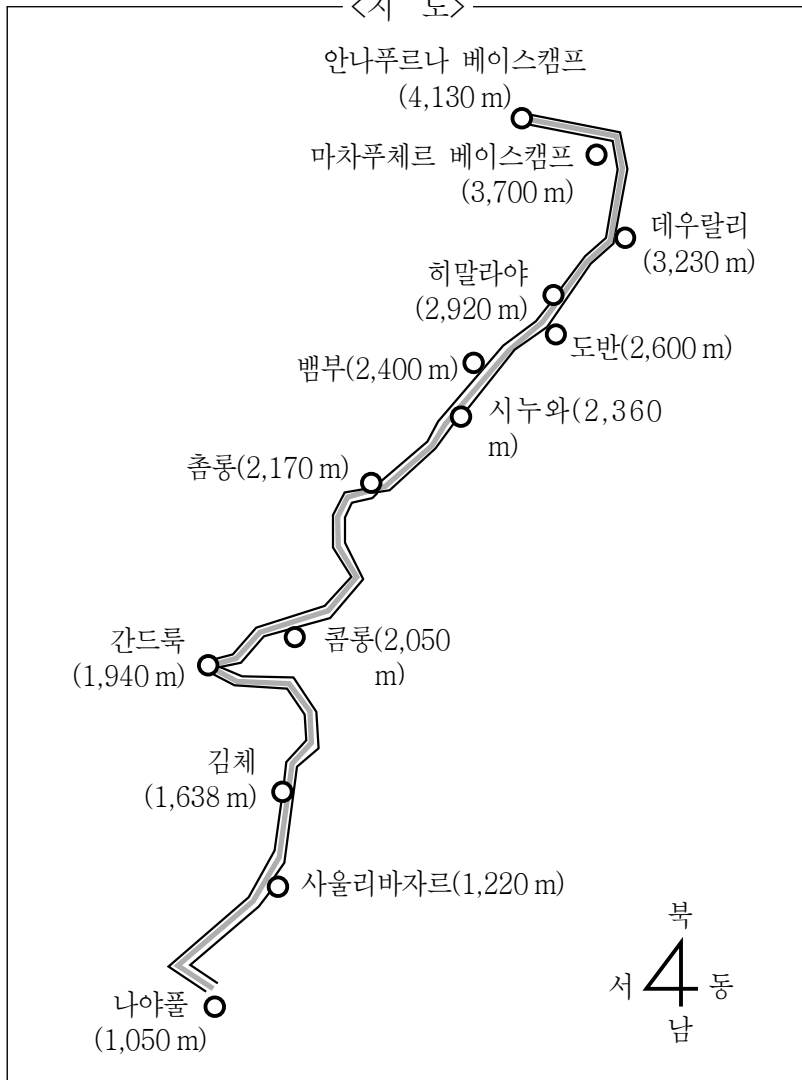
③ 丁>丙>戊>甲>乙

④ 丁>甲>丙>乙>戊

⑤ 丁>丙>甲>戊>乙

2012 5급 (인) 11번

문 11. 다음 <지도>와 <조건>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은?



※ 괄호 안의 수치는 해발고도를 나타낸다.

— <조건 1> —

<구간별 트래킹 소요시간(h : 시간)>

- 올라가는 경우
 - 나야폴 → 사울리바자르 : 3h
 - 사울리바자르 → 김체 : 2h
 - 김체 → 간드룩 : 2h
 - 간드룩 → 콤룽 : 2h
 - 콤룽 → 촘룽 : 3h
 - 촘룽 → 시누와 : 2h
 - 시누와 → 뱀부 : 1h
 - 뱀부 → 도반 : 3h
 - 도반 → 히말라야 : 2h
 - 히말라야 → 테우탈리 : 2h
 - 테우탈리 → 마차푸체르 베이스캠프 : 2h
 - 마차푸체르 베이스캠프 →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 2h
- 내려오는 경우, 구간별 트래킹 소요시간은 50 % 단축된다.

— <조건 2> —

- 트래킹은 도보로만 이루어지며, 트래킹 코스는 나야폴에서 시작하여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에 도달한 다음 나야폴로 돌아오는 것이다.
- 하루에 가능한 트래킹의 최대시간은 6시간이며, 모든 트래킹 일정을 최대한 빨리 완료해야 한다.
- 하루 트래킹이 끝나면 반드시 숙박을 해야 하고, 숙박은 지도에 ●표시가 된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 해발 2,500 m 이상에서는 고산병의 위험 때문에 당일 수면고도를 전날 수면고도에 비해 600 m 이상 높일 수 없다.

※ 수면고도는 취침하는 지역의 해발고도를 의미한다.

- ① 1일차에는 간드룩에서 숙박을 한다.
- ② 반드시 마차푸체르 베이스캠프에서 숙박을 해야 한다.
- ③ 5일차에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에서 숙박 가능하다.
- ④ 하루 6시간을 걷는 경우는 총 이틀이다.
- ⑤ 트래킹은 8일차에 완료된다.

2012 5급 (인) 31번

문 31.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甲국은 지역 A와 B로 이루어져 있고 두 지역의 인구수는 같다. 이 국가의 중앙정부와 A, B지역의 지방정부는 소득에 비례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며, 그 총액은 공공 지출의 총액과 동일하다. 중앙정부는 두 지역의 주민으로부터 징수한 소득세 전체액수의 50 %씩을 두 지역에 이전한다. 지방정부는 자체 징수한 소득세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소득세 모두를 공공부문에 지출한다. A지역의 주민 1인당 소득은 \$ 100, B지역은 \$ 200이다. 중앙정부의 소득세율은 주민 1인당 소득의 20 %이며 지방정부의 주민 1인당 소득세율은 10 %이다. 그런데 내년부터 甲국은 중앙정부의 소득세율은 10 %로, 지방정부의 소득세율은 20 %로 각각 조정할 예정이다.

○ 주민 1인당 소득대비 공공부문 이득비율 공식은 다음과 같다.

주민 1인당 소득대비 공공부문 이득비율(%)

$$= \frac{\text{주민 1인당 공공지출} - \text{주민 1인당 소득세}}{\text{주민 1인당 소득}} \times 100$$

○ A, B지역의 내년도 주민 1인당 소득은 올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보 기> ———

ㄱ. 甲국의 조세정책의 변화로 A, B지역 모두의 공공지출은 증가할 것이다.

ㄴ. 올해 A지역의 주민 1인당 소득대비 공공부문 이득비율은 10 %이다.

ㄷ. 내년 A지역의 주민 1인당 소득대비 공공부문 이득비율은 5%p 증가할 것이다.

ㄹ. 내년 B지역의 주민 1인당 소득대비 공공부문 이득비율은 - 2.5 %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13 5급 (인) 8번

문 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납부하는 송달료의 합계는?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소송상의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에 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를 말하며, 송달에 드는 비용을 송달료라고 한다.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소장이나 상소장을 제출할 때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으로 산출된 송달료를 수납은행(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이나 상소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송달료 납부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소 또는 상소 제기 시 납부해야 할 송달료

가.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당사자 수 × 송달료 10회분

나. 민사 제1심 소액사건 이외의 사건 : 당사자 수 × 송달료 15회분

다. 민사 항소사건 : 당사자 수 × 송달료 12회분

라. 민사 상고사건 : 당사자 수 × 송달료 8회분

○ 송달료 1회분 : 3,200원

○ 당사자 : 원고, 피고

○ 사건의 구별

가. 소액사건 : 소가 2,000만 원 이하의 사건

나. 소액사건 이외의 사건 : 소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건

※ 소가(訴價)라 함은 원고가 승소하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 <상 황> —

甲은 보행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乙의 상품진열대에 부딪쳐서 부상을 당하였고, 이 상황을 丙이 목격하였다. 甲은 乙에게 자신의 병원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乙은 甲의 잘못으로 부상당한 것으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오히려 甲 때문에 진열대가 파손되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甲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甲은 자신을 원고로, 乙을 피고로 하여 병원치료비와 위자료로 합계 금 2,000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증인 丙의 증언을 바탕으로 甲에게 책임이 있다는 乙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서 甲은 항소를 제기하였다.

- ① 76,800원
- ② 104,800원
- ③ 124,800원
- ④ 140,800원
- ⑤ 172,800원

2013 5급 (인) 9번

문 9. 甲은 가격이 1,000만 원인 자동차 구매를 위해 A, B, C 세 은행에서 상담을 받았다. 다음 상담 내용에 따를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총비용으로는 은행에 내야 하는 금액과 수리비만을 고려하고, 등록비용 등 기타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 A은행 : 고객님이 자동차를 구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실 때, 저희 은행이 자동차 판매자에게 즉시 구입금액 1,000만 원을 지불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날부터 매월 1,000만 원의 1%를 이자로 내시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000만 원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 B은행 : 저희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자동차를 구매하여 고객님께 전달해 드리고, 고객님께서 1년 후에 자동차 가격에 이자를 추가하여 총 1,200만 원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의 소유권은 고객님께서 1,200만 원을 상환하시는 시점에 고객님께 이전되며, 그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수리비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 C은행 : 저희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자동차를 구매하여 고객님께 임대해 드립니다. 1년 동안 매월 90만 원의 임대료를 내시면 1년 후에 그 자동차는 고객님의 소유가 되며, 임대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수리비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 <보 기> —

- ㄱ. 자동차 소유권을 얻기까지 은행에 내야 하는 총금액은 A은행의 경우가 가장 적다.

ㄴ. 1년 내에 사고가 발생해 50만 원의 수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총비용 측면에서 A은행보다 B, C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ㄷ. 최대한 빨리 자동차 소유권을 얻고 싶다면 A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ㄹ.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소유권 취득 시까지의 총비용 측면에서 B은행보다 C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013 5급 (인) 10번

문 10. <품목별 가격과 칼로리>와 <오늘의 행사>에 따라 물건을 구입하려고 한다. 10,000원의 예산 내에서 구입하려고 할 때, 다음 중 칼로리의 합이 가장 높은 조합은?

<품목별 가격과 칼로리>

품목	피자	돈가스	도넛	콜라	아이스크림
가격(원/개)	2,500	4,000	1,000	500	2,000
칼로리(kcal/개)	600	650	250	150	350

<오늘의 행사>

1. 피자 두 개 한 묶음을 사면 콜라 한 캔이 덤으로!

2. 돈가스 두 개 한 묶음을 사면 돈가스 하나가 덤으로!

3. 아이스크림 두 개 한 묶음을 사면 아이스크림 하나가 덤으로!

단, 물량 제한으로 1~3의 행사는 한 품목당 한 묶음까지만 적용됩니다.

- ① 피자 2개, 아이스크림 2개, 도넛 1개
- ② 돈가스 2개, 피자 1개, 콜라 1개
- ③ 아이스크림 2개, 도넛 6개
- ④ 돈가스 2개, 도넛 2개
- ⑤ 피자 4개

2013 5급 (인) 16번

문 16. 다음 글과 <표>에 근거할 때, <보기>에서 옳게 추론한 것을 모두 고르면?

○ 한 국가의 선거제도를 평가함에 있어 ‘비례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대의기관인 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선거 제도가 유권자의 의사를 잘 반영할수록 그 제도의 비례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 학자 X는 한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과 그 정당의 의회내 의석률이 근접하도록 하는 선거제도는 비례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즉, 각 정당들의 득표율과 의석률 차이의 절대값의 합인 x 지수가 작다면, 그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x 지수가 크다면 그 선거제도의 비례성은 낮을 것이라고 한다.

$$x\text{지수} = \sum | \text{득표율} - \text{의석률} |$$

○ 학자 Y는 의회 내에서의 정당 수와 정당 크기에 기초하여 의회 내 유효 정당 수를 측정하는 y 지수를 개발했으며,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y\text{지수} = \frac{1}{\text{의회 내 각 정당의 의석률을 제공한 값의 합}}$$

그에 따르면 y 지수가 큰 국가일수록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반면 y 지수가 작은 국가일수록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표> 각 국 의회 내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

	A 정당		B 정당		C 정당		D 정당	
	득표율	의석률	득표율	의석률	득표율	의석률	득표율	의석률
甲국	30	30	30	25	20	25	20	20
乙국	20	10	25	10	15	20	40	60
丙국	40	50	20	10	20	20	20	20
丁국	30	40	30	40	20	10	20	10

※ 甲, 乙, 丙, 丁국의 각 정당명은 A~D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보 기> —

- ㄱ. x 지수에 의하면 丙국보다 丁국 선거제도의 비례성 정도가 낮을 것이다.
- ㄴ. y 지수에 의하면 甲국보다 丙국 선거제도의 비례성 정도가 높을 것이다.
- ㄷ. 甲국은 x , y 지수 모두에서 선거제도의 비례성 정도가 4개국 중 가장 높을 것이다.
- ㄹ. 乙국은 x , y 지수 모두에서 선거제도의 비례성 정도가 4개국 중 가장 낮을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13 5급 (인) 18번

문 18. 다음 글을 근거로 할 때, 생태계보전협력금의 1회분 분할납부금액으로 가장 적은 것은? (단, 부과금을 균등한 액수로 최대한 분할납부하며, 甲~戊의 사업은 모두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대상 사업이다)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방법> —

1. 부과·징수 대상

○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2. 부과금액 산정 방식

○ 생태계보전협력금 = 생태계 훼손면적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지역계수

○ 단위면적(1m²)당 부과금액 : 250원

○ 단, 총 부과금액은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토지용도 및 지역계수

○ 토지의 용도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 처분시 토지의 용도(부과대상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용도를 말한다)에 따른다.

○ 지역계수

가. 주거지역 : 1

나. 상업지역 : 2

다. 녹지지역 : 3

라. 농림지역 : 4

마. 자연환경보전지역 : 5

4. 분할납부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은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한다.

○ 분할납부의 횟수는 부과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2회,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회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

- ※ 사업대상 전 지역에서 생태계 훼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① 상업지역 35만 m²에 레저시설을 설치하려는 개인사업자 甲

② 농림지역 20만 m²에 골프장 사업을 추진 중인 건설회사 乙

③ 녹지지역 30만 m²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려는 공공기관 丙

④ 주거지역 20만 m²와 녹지지역 20만 m²를 개발하여 새로운 복합주거상업지구를 조성하려는 지방자치단체 丁

⑤ 주거지역 25만 m²와 자연환경보전지역 25만 m²를 묶어 염전 체험박물관을 건립하려는 개인사업자 戊

2013 5급 (인) 29번

문 29. 다음 글과 <조건>에 따를 때, ○○부가 채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 대안은?

○ 올해의 전력수급현황은 다음과 같다.

- 총공급전력량 : 7,200만 kW

- 최대전력수요 : 6,000만 kW

이에 따라 ○○부는 내년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정책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정책목표 : 내년도 전력예비율을 30 % 이상으로 유지한다.

$$\text{전력예비율}(\%) = \frac{\text{총공급전력량} - \text{최대전력수요}}{\text{최대전력수요}} \times 100$$

<조 건>

조건 1 : 발전소를 하나 더 건설하면 총공급전력량이 100만 kW 증가한다.

조건 2 : 전기요금을 α % 인상하면 최대전력수요는 α % 감소한다.

- ※ 발전소는 즉시 건설·운영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외의 다른 변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발전소를 1개 더 건설하고, 전기요금을 10 % 인상한다.

② 발전소를 3개 더 건설하고, 전기요금을 3 % 인상한다.

③ 발전소를 6개 더 건설하고, 전기요금을 1 % 인상한다.

④ 발전소를 8개 더 건설하고, 전기요금을 동결한다.

⑤ 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하지 않고, 전기요금을 12 % 인상한다.

2013 5급 (인) 37번

문 37. 甲 사무관은 자동차의 공회전 발생률과 공회전 시 연료소모량이 적은 차량 운전자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포인트를 제공하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甲 사무관은 동일 차량 운전자 A~E를 대상으로 이 정책을 시범 시행하였다. 다음 <산출공식>과 <자료>를 근거로 할 때, 공회전 발생률과 공회전 시 연료소모량에 따라 A~E 운전자가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의 총합이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산출공식>

○ 공회전 발생률(%) = $\frac{\text{총공회전시간(분)}}{\text{주행시간(분)}} \times 100$

○ 공회전 시 연료소모량(cc) = $\text{총공회전시간(분)} \times \omega(\text{cc/분})$

- ※ 산출공식은 A~E 운전자에게 각각 동일하게 적용되며, A~E 운전자에 대한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
- ※ ω 는 어떤 차량의 공회전 1분당 연료소모량으로 A~E 운전자의 경우 $\omega = 20$ 이다.

<자 료>

○ 차량 시범 시행 결과

운전자	주행시간(분)	총공회전시간(분)
A	200	20
B	30	15
C	50	10
D	25	5
E	50	25

○ 공회전 발생률에 대한 구간별 탄소포인트

공회전 발생률 (%)	20미만	20이상 40미만	40이상 60미만	60이상 80미만	80이상
탄소포인트(p)	100	80	50	20	10

○ 공회전 시 연료소모량에 대한 구간별 탄소포인트

공회전 시 연료소모량(cc)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탄소포인트(p)	100	75	50	25	0

※ <자료>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D>C>A>B>E
- ② D>C>A>E>B
- ③ D>A>C>B>E
- ④ A>D>B>E>C
- ⑤ A>C>D>B>E

2013 외교 (인) 7번

문 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주식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은?

수출하는 재화가 선박에 선적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로 한다. 수출대금을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환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 공급시기 전에 환가한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아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당일의 ‘적용환율’로 계산한 금액

○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한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까지 외화로 받은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하지 않고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환가한 경우 또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받은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로 계산한 금액

<상 황>

甲주식회사는 미국의 A법인과 2월 4일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甲주식회사의 수출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수출대금 : \$ 50,000

2) 2. 4. : 수출선수금 \$ 20,000를 송금받아 외국환 은행에서 환가

3) 2. 12. : 세관에 수출 신고

4) 2. 16. : 수출물품 선적 완료

5) 2. 20. : 수출대금 잔액 \$ 30,000를 송금받아 외국환 은행에서 환가

<외환시세> (단위 : 원/달러)

일 자	기준환율	적용환율
2. 4.	960	950
2. 12.	980	970
2. 16.	1,000	990
2. 20.	1,020	1,010

- ① 49,000,000원
- ② 49,030,000원
- ③ 49,200,000원
- ④ 49,300,000원
- ⑤ 49,600,000원

2013 외교 (인) 36번

문 36. 다음 <조건>에 따를 때, E의 진료시작 시각은?

- <조 건>

○ 진료와 검진은 10시 정각부터 시작한다.

○ 진료는 접수시각 순으로 하되, 진료예약환자와 미예약 환자가 동시에 대기하는 경우에는 진료예약환자를 우선적으로 진료한다.

○ 매 5분마다 새로운 환자를 진료하며, A~J까지의 진료는 10시 50분에 종료된다.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는 없다.

○ 검진환자는 접수 후 검진을 시작하고, 검진을 받는 데에는 총 10분이 소요된다.

○ 검진환자는 검진이 끝난 순간 진료가 진행중인 환자가 없으면 바로 진료를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 순번으로 진료를 받는다.

○ 진료실은 1개만 있으며, 진료실에서는 한 명의 환자만이 진료를 받는다. 반면, 검진실은 충분히 존재하여 여러 명이 동시에 검진을 받을 수 있다.

○ 접수에 소요되는 시간 및 이동하는 시간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대기환자 리스트>
- | 환자명 | 접수시각 | 진료예약여부 | 비고 |
|-----|-------|--------|----|
| A | 9:28 | × | — |
| B | 9:30 | × | 검진 |
| C | 9:34 | ○ | — |
| D | 9:46 | × | — |
| E | 10:00 | × | — |
| F | 10:03 | ○ | 검진 |
| G | 10:04 | × | — |
| H | 10:07 | ○ | 검진 |
| I | 10:14 | ○ | 검진 |
| J | 10:31 | ○ | — |
- ① 10:25

② 10:30

③ 10:35

④ 10:40

⑤ 10:45
- 451
- 451

2014 5급 (A) 30번

문 3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의 (㉠)에 해당되는 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1. 채용목표인원

○ 성별 최소 채용목표인원(이하 ‘목표인원’)은 시험 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다만 검찰사무직렬은 20%)를 곱한 인원수로 함

2.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를 합격자로 결정함

○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나. 제2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 제1차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합격시킨 경우 일정 인원을 선발예정인원에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함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 선발예정인원

직렬(직류)	선발예정인원
검찰사무직(검찰사무)	30명

※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됨.

<상 황>

검찰사무직 제1차시험에서 남성이 39명 합격하였다면, 제1차시험의 합격자 수는 최대 (㉠)명이다.

- ① 42

② 45

③ 48

④ 52

⑤ 53

2015 5급 (인) 10번

문 10. 다음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조 건>

- A사와 B사는 신제품을 공동개발하여 판매한 총 순이익을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A사와 B사는 총 순이익에서 각 회사 제조원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각자 분배받는다.
(나) 총 순이익에서 위 (가)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분배기준은 연구개발비, 판매관리비, 광고홍보비 중 어느 하나로 결정하며, 각 회사가 지출한 비용에 비례하여 분배액을 정하기로 한다.
- 신제품 개발과 판매에 따른 비용과 총 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억 원)

구분	A사	B사
제조원가	200	600
연구개발비	100	300
판매관리비	200	200
광고홍보비	300	150
총 순이익	200	

<보 기>

- ㄱ. 분배받는 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분배기준으로, A사는 광고홍보비를, B사는 연구개발비를 선호할 것이다.
- ㄴ. 연구개발비가 분배기준이 된다면, 총 순이익에서 B사가 분배받는 금액은 A사의 3배이다.
- ㄷ. 판매관리비가 분배기준이 된다면, 총 순이익에서 A사와 B사가 분배받는 금액은 동일하다.
- ㄹ. 광고홍보비가 분배기준이 된다면, 총 순이익에서 A사가 분배받는 금액은 B사보다 많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ㄹ
- ⑤ ㄷ, ㄹ

2015 5급 (인) 12번

문 12. <여성권익사업 보조금 지급 기준>과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이 큰 시설부터 작은 시설 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단, 4개 보호시설의 종사자에는 각 1명의 시설장(長)이 포함되어 있다)

<여성권익사업 보조금 지급 기준>

1.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 종사자 1 ~ 2인 시설 : 240백만 원

○ 종사자 3 ~ 4인 시설 : 320백만 원

○ 종사자 5인 이상 시설 : 400백만 원

※ 단, 평가등급이 1등급인 보호시설에는 해당 지급액의 100 %를 지급하지만, 2등급인 보호시설에는 80 %, 3등급인 보호시설에는 60 %를 지급한다.

2.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사업비

○ 종사자 1 ~ 3인 시설 : 60백만 원

○ 종사자 4인 이상 시설 : 80백만 원

3.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 종사자 1인당 50백만 원

※ 단, 종사자가 5인 이상인 보호시설의 경우 시설장에게는 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간식비

○ 입소자 1인당 1백만 원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보호시설	종사자 수(인)	입소자 수(인)	평가등급
A	4	7	1
B	2	8	1
C	4	10	2
D	5	12	3

- ① A - C - D - B

② A - D - C - B

③ C - A - B - D

④ D - A - C - B

⑤ D - C - A - B

2016 5급 (4) 17번

문 17. 다음 <조건>과 <전투능력을 가진 생존자 현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생존자들이 탈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조 건〉

- 좀비 바이러스에 의해甲국에 거주하던 많은 사람들이 좀비가 되었다. 건물에 갇힌 생존자들은 동, 서, 남, 북 4개의 통로를 이용해 5명씩 팀을 이루어 탈출을 시도한다. 탈출은 통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한 쪽 통로를 선택하면 되돌아올 수 없다.
- 동쪽 통로에 11마리, 서쪽 통로에 7마리, 남쪽 통로에 11마리, 북쪽 통로에 9마리의 좀비들이 있다. 선택한 통로의 좀비를 모두 제거해야만 탈출할 수 있다.
- 남쪽 통로의 경우, 통로 끝이 막혀 탈출할 수 없지만 팀에 폭파전문가가 있다면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여 막힌 통로를 뚫고 탈출할 수 있다.
- ‘전투’란 생존자가 좀비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택한 통로에서 일시에 이루어진다.
- ‘전투능력’은 정상인 건강상태에서 해당 생존자가 전투에서 제거하는 좀비의 수를 의미하며, 질병이나 부상 상태인 사람은 그 능력이 50 % 줄어든다.
- 전투력 강화제는 건강상태가 정상인 생존자들 중 1명에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투능력을 50 % 향상시킨다. 사용 가능한 대상은 의사 혹은 의사의 팀 내 구성원이다.
- 생존자의 직업은 다양하며, 아이(들)와 노인(들)은 전투 능력과 보유품목이 없고 건강상태는 정상이다.

〈전투능력을 가진 생존자 현황〉

직업	인원	전투능력	건강상태	보유품목
경찰	1명	6	질병	—
사냥꾼	1명	4	정상	—
의사	1명	2	정상	전투력 강화제 1개
무사	1명	8	정상	—
폭파전문가	1명	4	부상	다이너마이트

탈출 통로

팀 구성 인원

① 동쪽 통로	폭파전문가 - 무사 - 노인(3)
② 서쪽 통로	사냥꾼 - 경찰 - 아이(2) - 노인
③ 남쪽 통로	사냥꾼 - 폭파전문가 - 아이 - 노인(2)
④ 남쪽 통로	폭파전문가 - 사냥꾼 - 의사 - 아이(2)
⑤ 북쪽 통로	경찰 - 의사 - 아이(2) - 노인

2017 5급 (가) 6번

문 6. 다음 <A대학 학사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의 ㉠과 ㉡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 <A대학 학사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졸업을 위한 재적기간 및 수료연한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적기간과 수료연한) ① 재적기간은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의 기간으로 휴학기간을 포함한다.

② 졸업을 위한 수료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료연한을 달리할 수 있다.

1. 외국인 유학생은 어학습득을 위하여 수료연한을 1년 연장하여 5년으로 할 수 있다.

2. 특별입학으로 입학한 학생은 2년차에 편입되며 수료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입학은 내국인에 한한다.

③ 수료와 동시에 졸업한다.

제3조(휴학) ① 휴학은 일반휴학과 해외 어학연수를 위한 휴학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휴학은 해당 학생의 수료연한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6개월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다.

③ 해외 어학연수를 위한 휴학은 해당 학생의 수료연한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다.

————— <상 황> —————

○ A대학의 학생이 재적할 수 있는 최장기간은 (㉠)이다.

○ A대학에 특별입학으로 입학한 학생이 일반휴학 없이 재적할 수 있는 최장기간은 (㉡)이다.

㉠	㉡
① 9년	4년
② 9년 6개월	4년
③ 9년 6개월	4년 6개월
④ 10년	4년 6개월
⑤ 10년	5년

2017 5급 (가) 8번

문 8. 다음 <지원계획>과 <연구모임 현황 및 평가결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연구모임 A~E 중 두 번째로 많은 총지원금을 받는 모임은?

<지원계획>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 모임당 6명 이상 9명 미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기본지원금
한 모임당 1,500천 원을 기본으로 지원한다. 단, 상품 개발을 위한 모임의 경우는 2,000천 원을 지원한다.

○ 추가지원금
연구 계획 사전평가결과에 따라,
‘상’ 등급을 받은 모임에는 구성원 1인당 120천 원을,
‘중’ 등급을 받은 모임에는 구성원 1인당 100천 원을,
‘하’ 등급을 받은 모임에는 구성원 1인당 70천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 협업 장려를 위해 협업이 인정되는 모임에는 위의 두 지원금을 합한 금액의 30 %를 별도로 지원한다.

<연구모임 현황 및 평가결과>

모임	상품개발 여부	구성원 수	연구 계획 사전평가결과	협업 인정 여부
A	○	5	상	○
B	×	6	중	×
C	×	8	상	○
D	○	7	중	×
E	×	9	하	×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2017 5급 (가) 10번

문 1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팀이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될 이동수단의 종류와 그 비용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4명으로 구성된 A팀은 해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다. A팀은 출장지에서의 이동수단 한 가지를 결정하려 한다. 이 때 A팀은 경제성, 용이성, 안전성의 총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점수가 가장 높은 이동수단을 선택한다.

○ 각 고려요소의 평가결과 ‘상’ 등급을 받으면 3점을, ‘중’ 등급을 받으면 2점을, ‘하’ 등급을 받으면 1점을 부여한다. 단, 안전성을 중시하여 안전성 점수는 2배로 계산한다. (예 : 안전성 ‘하’ 등급 2점)

○ 경제성은 각 이동수단별 최소비용이 적은 것부터 상, 중, 하로 평가한다.

○ 각 고려요소의 평가점수를 합하여 최종점수를 구한다.

<이동수단별 평가표>

이동수단	경제성	용이성	안전성
렌터카	?	상	하
택시	?	중	중
대중교통	?	하	중

<이동수단별 비용계산식>

이동수단	비용계산식
렌터카	(렌트비 + 유류비) × 이용 일수 - 렌트비 = \$ 50/1일(4인승 차량) - 유류비 = \$ 10/1일(4인승 차량)
택시	거리 당 가격(\$ 1/1마일) × 이동거리(마일) - 최대 4명까지 탑승가능
대중교통	대중교통패스 3일권(\$ 40/1인) × 인원수

<해외출장 일정>

출장 일정	이동거리(마일)
11월 1일	100
11월 2일	50
11월 3일	50

이동수단	비용
① 렌터카	\$ 180
② 택시	\$ 200
③ 택시	\$ 400
④ 대중교통	\$ 140
⑤ 대중교통	\$ 160

2017 5급 (가) 11번

문 11. 다음 <휴양림 요금규정>과 <조건>에 근거할 때, <상황>에서 甲, 乙, 丙 일행이 각각 지불한 총요금 중 가장 큰 금액과 가장 작은 금액의 차이는?

<휴양림 요금규정>

○ 휴양림 입장료(1인당 1일 기준)

구분	요금(원)	입장료 면제
어른	1,000	· 동절기(12월 ~ 3월) · 다자녀 가정
청소년(만 13세 이상 ~ 19세 미만)	600	
어린이(만 13세 미만)	300	

※ ‘다자녀 가정’은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 있는 가족을 말한다.

○ 야영시설 및 숙박시설(시설당 1일 기준)

구분		요금(원)		비고
		성수기 (7 ~ 8월)	비수기 (7 ~ 8월 외)	
야영시설 (10인 이내)	황토데크(개)	10,000		휴양림 입장료 별도
	캐빈(동)	30,000		
숙박시설	3인용(실)	45,000	24,000	휴양림 입장료 면제
	5인용(실)	85,000	46,000	

※ 일행 중 ‘장애인’이 있거나 ‘다자녀 가정’인 경우 비수기에 한해 야영시설 및 숙박시설 요금의 50 %를 할인한다.

<조 건>

○ 총요금 = (휴양림 입장료) + (야영시설 또는 숙박시설 요금)

○ 휴양림 입장료는 머문 일수만큼, 야영시설 및 숙박시설 요금은 숙박 일수만큼 계산함. (예 : 2박 3일의 경우 머문 일수는 3일, 숙박 일수는 2일)

<상 황>

○ 甲(만 45세)은 아내(만 45세), 자녀 3명(각각 만 17세, 15세, 10세)과 함께 휴양림에 7월 중 3박 4일간 머물렀다. 甲 일행은 5인용 숙박시설 1실을 이용하였다.

○ 乙(만 25세)은 어머니(만 55세, 장애인), 아버지(만 58세)를 모시고 휴양림에서 12월 중 6박 7일간 머물렀다. 乙 일행은 캐빈 1동을 이용하였다.

○ 丙(만 21세)은 동갑인 친구 3명과 함께 휴양림에서 10월 중 9박 10일 동안 머물렀다. 丙 일행은 황토데크 1개를 이용하였다.

- ① 40,000원

② 114,000원

③ 125,000원

④ 144,000원

⑤ 165,000원

2017 5급 (가) 16번

문 1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신입관리자과정 입교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 이러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입교 예정자가 입교 전에 총 9개 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이러닝 교과목은 2017년 4월 10일부터 수강하며, 하루 최대 수강시간은 10시간이다.
- 필수 I 교과목은 교과목별로 정해진 시간의 강의를 모두 수강하는 것을 이수조건으로 한다.
- 필수 II 교과목은 교과목별로 정해진 시간의 강의를 모두 수강하고 온라인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이수조건으로 한다. 온라인 시험은 강의시간과 별도로 교과목당 반드시 1시간이 소요되며, 그 시험시간은 수강시간에 포함된다.
- 신입관리자과정 입교는 2017년 5월 1일이다.
- 2017년 4월 30일 24시까지 교과목 미이수시, 필수 I 은 교과목당 3점, 필수 II는 교과목당 2점을 교육성적에서 감점한다.

교과목	강의시간	분류
· 사이버 청렴교육	15시간	필수 I
· 행정업무 운영제도	7시간	
· 공문서 작성을 위한 한글맞춤법	8시간	
· 공무원 복무제도	6시간	
· 역사에서 배우는 공직자의 길	8시간	필수 II
· 헌법정신에 기반한 공직윤리	5시간	
· 판례와 사례로 다가가는 헌법	6시간	
· 공무원이 알아야 할 행정법 사례	7시간	
· 쉽게 배우는 공무원 인사실무	5시간	
계	67시간	

※ 교과목은 순서에 상관없이 여러 날에 걸쳐 시간 단위로만 수강할 수 있다.

<상 황>

신입관리자과정 입교를 앞둔 甲은 2017년 4월 13일에 출국하여 4월 27일에 귀국하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甲은 일정상 출·귀국일을 포함하여 여행기간에는 이러닝 교과목을 수강하거나 온라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여행기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최대한 이러닝 교과목을 이수하려고 한다.

<보 기>

ㄱ. 甲은 계획대로라면 교육성적에서 최소 3점 감점을 받을 것이다.

ㄴ. 甲이 하루 일찍 귀국하면 이러닝 교과목을 모두 이수할 수 있을 것이다.

ㄷ. ‘판례와 사례로 다가가는 헌법’, ‘쉽게 배우는 공무원 인사실무’를 여행 중 이수할 수 있다면, 출·귀국일을 변경하지 않고도 교육성적에서 감점을 받지 않을 것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2017 5급 (가) 28번

문 2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미란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보수비용의 최대 액수는?

○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경·중·대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보수비용을 지원

<주택보수비용 지원 내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보수항목	도배 혹은 장판	수도시설 혹은 난방시설	지붕 혹은 기둥
주택당 보수비용 지원한도액	350만 원	650만 원	950만 원

○ 소득인정액에 따라 위 보수비용 지원한도액의 80~100%를 차등지원

구분	중위소득 25% 미만	중위소득 25% 이상 35% 미만	중위소득 35% 이상 43% 미만
지원율	100%	90%	80%

<상 황>

미란이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주택의 소유자이며,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0%에 해당한다. A주택의 노후도 평가 결과, 지붕의 수선이 필요한 주택보수비용 지원 대상에 선정되었다.

- ① 520만 원
- ② 650만 원
- ③ 760만 원
- ④ 855만 원
- ⑤ 950만 원

2017 5급 (가) 29번

문 29.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정당과 그 소속 후보자들이 최대로 실시할 수 있는 선거방송 시간의 총합은?

- △△국 의회는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으로 구성된다.
 - 의회의원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 선거방송은 방송광고와 방송연설로 이루어진다.
 -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비례대표의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방송매체별로 각 15회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다.
 - 후보자는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비례대표의원 선거에서는 정당별로 비례대표의원 후보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 2인이 각각 1회 10분 이내에서 방송매체별로 각 1회 실시할 수 있다. 지역구의원 선거에서는 각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 방송매체별로 각 2회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상 황>———

 - △△국 방송매체로는 텔레비전 방송사 1개, 라디오 방송사 1개가 있다.
 - △△국 甲정당은 의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의원 후보 100명을 출마시키고 비례대표의원 후보 10명을 추천하였다.

- ① 2,070분
- ② 4,050분
- ③ 4,070분
- ④ 4,340분
- ⑤ 5,225분

2017 5급 (가) 30번

문 30. 다음 글과 <설립위치 선정 기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사가 서비스센터를 설립하는 방식과 위치로 옳은 것은?

○ 휴대폰 제조사 A는 B국에 고객센터를 제공하기 위해 1개의 서비스센터 설립을 추진하려고 한다.

○ 설립방식에는 (가)방식과 (나)방식이 있다.

○ A사는 {(고객만족도 효과의 현재가치) - (비용의 현재가치)}의 값이 큰 방식을 선택한다.

○ 비용에는 규제비용과 로열티비용이 있다.

구분		(가)방식	(나)방식
고객만족도 효과의 현재가치		5억 원	4.5억 원
비용의 현재가치	규제 비용	3억 원 (설립 당해년도만 발생)	없음
	로열티 비용	없음	- 3년간 로열티비용을 지불함 - 로열티비용의 현재가치 환산액 : 설립 당해년도는 2억 원, 그 다음 해부터는 직전년도 로열티비용의 1/2씩 감액한 금액

※ 고객만족도 효과의 현재가치는 설립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산정된 결과이다.

— <설립위치 선정 기준> —

○ 설립위치로 B국의 甲, 乙, 丙 3곳을 검토 중이며, 각 위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위치	유동인구(만 명)	20 ~ 30대 비율(%)	교통혼잡성
甲	80	75	3
乙	100	50	1
丙	75	60	2

○ A사는 {(유동인구) × (20 ~ 30대 비율) / (교통혼잡성)} 값이 큰 곳을 선정한다. 다만 A사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20 ~ 30대 비율이 50 % 이하인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설립방식	설립위치
① (가)	甲
② (가)	丙
③ (나)	甲
④ (나)	乙
⑤ (나)	丙

2017 5급 (가) 37번

문 37. 다음 <관람 위치 배정방식>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관람 위치 배정방식>

○ 공연장의 좌석은 총 22개이며 좌측 6개석, 중앙 10개석, 우측 6개석으로 구성된다.

무대

좌

중앙

우

앞줄

뒷줄

			계				A	계			
			단					단			B

○ 입장은 공연일 정오에 마감되며, 해당 시점까지 공연장에 도착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관람 위치를 배정한다.

○ 좌석배정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가장 먼저 온 관람객부터 무대에 가까운 앞줄의 맨 좌측 좌석부터 맨 우측 좌석까지, 그 후 뒷줄의 맨 우측 좌석부터 맨 좌측 좌석까지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 관람객이 2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인원 중 먼저 도착한 절반은 좌측 계단에, 나머지 절반은 우측 계단에 순서대로 앉는다.

<상 황>

○ 공연장에 가장 먼저 온 관람객은 오전 2:10에 도착하였다.

○ 오전 4:30까지는 20분 간격으로 관람객이 공연장에 도착하였다.

○ 오전 4:30부터 오전 6:00까지는 10분 간격으로 관람객이 공연장에 도착하였다.

○ 오전 6:00 이후에는 30분 간격으로 관람객이 공연장에 도착하였다.

○ 공연장에 가장 마지막으로 온 관람객은 오전 11:30에 도착하였다.

○ 관람객은 공연장에 한 명씩 도착하였다.

※ 위 상황은 모두 공연일 하루 동안 발생한 것이다.

① 우측 계단에 앉은 관람객이 중앙 좌석에 앉기 위해서는 지금 보다 적어도 3시간, 최대 4시간은 일찍 도착해야 한다.

② 공연일 오전 9:00부터 공연일 오전 10:00까지 도착한 관람객은 모두 좌측 계단에 앉는다.

③ A에 앉은 관람객과 B에 앉은 관람객의 도착시간은 50분 차이가 난다.

④ 공연일 오전 6:00에 도착한 관람객은 앞줄 좌석에 앉는다.

⑤ 총 30명의 관람객이 공연장에 도착하였다.

464

464

2018 5급 (나) 11번

문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선수 A와 B의 ‘합계점수’를 더하면?

스키점프는 스키를 타고 급경사면을 내려오다가 도약대에서 점프하여 날아가 착지하는 스포츠로, 착지의 기준점을 뜻하는 K점에 따라 경기 종목이 구분된다. 도약대로부터 K점까지의 거리가 75m 이상 99m 이하이면 ‘노멀힐’, 100m 이상이면 ‘라지힐’ 경기이다. 예를 들어 ‘노멀힐 K-98’의 경우 도약대로부터 K점까지의 거리가 98m인 노멀힐 경기를 뜻한다.

출전선수의 점수는 ‘거리점수’와 ‘자세점수’를 합산하여 결정되며, 이를 ‘합계점수’라 한다. 거리점수는 도약대로부터 K점을 초과한 비행거리 1m당 노멀힐의 경우 2점이, 라지힐의 경우 1.8점이 기본점수 60점에 가산된다. 반면 K점에 미달하는 비행거리 1m당 가산점과 같은 점수가 기본점수에서 차감된다. 자세점수는 날아가는 동안의 자세, 균형 등을 고려하여 5명의 심판이 각각 20점 만점을 기준으로 채점하며, 심판들이 매긴 점수 중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을 각각 하나씩 제외한 나머지를 합산한 점수이다.

다음은 선수 A와 B의 경기 결과이다.

<경기 결과>

출전종목	선수	비행거리 (m)	자세점수(점)				
			심판1	심판2	심판3	심판4	심판5
노멀힐 K-98	A	100	17	16	17	19	17
라지힐 K-125	B	123	19	17	20	19.5	17.5

- ① 226.6

② 227

③ 227.4

④ 364

⑤ 364.4

2018 5급 (나) 14번

문 14. 다음 글과 <선정 방식>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업은 3개 신문사(甲~丙)를 대상으로 광고비를 지급하기 위해 3가지 선정 방식을 논의 중이다. 3개 신문사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신문사	발행부수(부)	유료부수(부)	발행기간(년)
甲	30,000	9,000	5
乙	30,000	11,500	10
丙	20,000	12,000	12

※ 발행부수 = 유료부수 + 무료부수

——<선정 방식>——

○ 방식 1: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을 광고비로 지급하되, 80점 미만인 신문사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평가항목	항목별 점수			
발행부수(부)	20,000 이상	15,000 ~ 19,999	10,000 ~ 14,999	10,000 미만
	50점	40점	30점	20점
유료부수(부)	15,000 이상	10,000 ~ 14,999	5,000 ~ 9,999	5,000 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발행기간(년)	15 이상	12 ~ 14	9 ~ 11	6 ~ 8
	20점	15점	10점	5점

※ 항목별 점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0점으로 처리한다.

○ 방식 2: A등급에 400만 원, B등급에 200만 원, C등급에 100만 원을 광고비로 지급하되, 등급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	발행부수(부)	유료부수(부)	발행기간(년)
A	20,000 이상	10,000 이상	10 이상
B	10,000 이상	5,000 이상	5 이상
C	5,000 이상	2,000 이상	2 이상

※ 하나의 신문사가 복수의 등급에 해당할 경우, 그 신문사에게 가장 유리한 등급을 부여한다.

○ 방식 3: 1,000만 원을 발행부수 비율에 따라 각 신문사에 광고비로 지급한다.

——<보 기>——

ㄱ. 乙은 방식 3이 가장 유리하다.
ㄴ. 丙은 방식 1이 가장 유리하다.
ㄷ. 방식 1로 선정할 경우, 甲은 20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 받는다.
ㄹ. 방식 2로 선정할 경우, 丙은 甲보다 두 배의 광고비를 지급받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ㄷ ④ ㄴ, ㄹ
- ⑤ ㄷ, ㄹ

2018 5급 (나) 17번

문 1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甲회사는 A기차역에 도착한 전체 관객을 B공연장까지 버스로 수송해야 한다.

○ 이때 甲회사는 아래 표와 같이 콘서트 시작 4시간 전부터 1시간 단위로 전체 관객 대비 A기차역에 도착하는 관객의 비율을 예측하여 버스를 운행하고자 한다. 단, 콘서트 시작 시간까지 관객을 모두 수송해야 한다.

시각	전체 관객 대비 비율(%)
콘서트 시작 4시간 전	a
콘서트 시작 3시간 전	b
콘서트 시작 2시간 전	c
콘서트 시작 1시간 전	d
계	100

○ 전체 관객 수는 40,000명이다.

○ 버스는 한 번에 대당 최대 40명의 관객을 수송한다.

○ 버스가 A기차역과 B공연장 사이를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6분이다.

※ 관객의 버스 승·하차 및 공연장 입·퇴장에 소요되는 시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 <보 기> ———

ㄱ. $a = b = c = d = 25$ 라면, 甲회사가 전체 관객을 A기차역에서 B공연장으로 수송하는 데 필요한 버스는 최소 20대이다.

ㄴ. $a = 10, b = 20, c = 30, d = 40$ 이라면, 甲회사가 전체 관객을 A기차역에서 B공연장으로 수송하는 데 필요한 버스는 최소 40대이다.

ㄷ. 만일 콘서트가 끝난 후 2시간 이내에 전체 관객을 B공연장에서 A기차역까지 버스로 수송해야 한다면, 이때 甲회사에게 필요한 버스는 최소 50대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2018 5급 (나) 32번

문 32. 다음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대안>의 월 소요 예산 규모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상 황>

○ 甲사무관은 빈곤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분석 중이다.

○ 전체 1,500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구성은 무자녀 가구 300가구, 한 자녀 가구 600가구, 두 자녀 가구 500가구, 세 자녀 이상 가구 100가구이다.

○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200만 원이다.

○ 각 가구 유형의 30 %는 맞벌이 가구이다.

○ 각 가구 유형의 20 %는 빈곤 가구이다.

<대 안>

A안: 모든 빈곤 가구에 대해 전체 가구 월 평균 소득의 25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구당 매월 지급한다.

B안: 한 자녀 가구에는 10만 원, 두 자녀 가구에는 20만 원, 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30만 원을 가구당 매월 지급한다.

C안: 자녀가 있는 모든 맞벌이 가구에 자녀 1명당 30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의 맞벌이 가구에는 일률적으로 가구당 100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

- ① $A < B < C$

② $A < C < B$

③ $B < A < C$

④ $B < C < A$

⑤ $C < A < B$

2019 5급 (가) 9번

문 9. 다음 <통역경비 산정기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사가
 甲시에서 개최한 설명회에 쓴 총 통역경비는?

<통역경비 산정기준>

통역경비는 통역료와 출장비(교통비, 이동보상비)의 합으로 산정한다.

○ 통역료(통역사 1인당)

구분	기본요금 (3시간까지)	추가요금 (3시간 초과시)
영어, 아랍어, 독일어	500,000원	100,000원/시간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600,000원	150,000원/시간

○ 출장비(통역사 1인당)

- 교통비는 왕복으로 실비 지급
- 이동보상비는 이동 시간당 10,000원 지급

<상 황>

A사는 2019년 3월 9일 甲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통역은 영어와 인도네시아어로 진행되었고, 영어 통역사 2명과 인도네시아어 통역사 2명이 통역하였다. 설명회에서 통역사 1인당 영어 통역은 4시간, 인도네시아어 통역은 2시간 진행되었다. 甲시까지의 편도로 2시간이 소요되며, 개인당 교통비는 왕복으로 100,000원이 들었다.

- ① 244만 원

② 276만 원

③ 288만 원

④ 296만 원

⑤ 326만 원

2019 5급 (가) 14번

문 1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甲과 乙은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각자 한 번에 하나의 민원만 접수한다.
- 민원은 ‘X민원’과 ‘Y민원’ 중 하나이고, 민원을 접수한 직원은 ‘X민원’ 접수 시 기분이 좋아져 감정도가 10 상승하지만 ‘Y민원’ 접수 시 기분이 나빠져 감정도가 20 하락한다.
- 甲과 乙은 오늘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했다.
- 09:00에 甲과 乙의 감정도는 100이다.
- 매시 정각 甲과 乙의 감정도는 5씩 상승한다. (단, 09:00, 13:00, 18:00 제외)
- 13:00에는 甲과 乙의 감정도가 100으로 초기화된다.
- 18:00가 되었을 때, 감정도가 50 미만인 직원에게는 1일의 월차를 부여한다.
- 甲과 乙이 오늘 접수한 각각의 민원은 아래 <민원 등록 대장>에 모두 기록됐다.

<민원 등록 대장>

접수 시각	접수한 직원	민원 종류
09:30	甲	Y민원
10:00	乙	X민원
11:40	甲	Y민원
13:20	乙	Y민원
14:10	甲	Y민원
14:20	乙	Y민원
15:10	甲	㉠
16:10	乙	Y민원
16:50	乙	㉡
17:00	甲	X민원
17:40	乙	X민원

<보 기>

- ㄱ. ㉠, ㉡에 상관없이 18:00에 甲의 감정도는 乙의 감정도 보다 높다.
- ㄴ. ㉡이 ‘Y민원’이라면, 乙은 1일의 월차를 부여받는다.
- ㄷ. 12:30에 乙의 감정도는 125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019 5급 (가) 23번

문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정부□□청사 신축 시 <화장실 위생기구 설치기준>에 따라 위생기구(대변기 또는 소변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 남자 화장실에는 위생기구 수가 짝수인 경우 대변기와 소변기를 절반씩 나누어 설치하고, 홀수인 경우 대변기를 한 개 더 많이 설치한다. 여자 화장실에는 모두 대변기를 설치한다.

<화장실 위생기구 설치기준>

기준	각 성별 사람 수(명)	위생기구 수(개)
A	1 ~ 9	1
	10 ~ 35	2
	36 ~ 55	3
	56 ~ 80	4
	81 ~ 110	5
	111 ~ 150	6
B	1 ~ 15	1
	16 ~ 40	2
	41 ~ 75	3
	76 ~ 150	4
C	1 ~ 50	2
	51 ~ 100	3
	101 ~ 150	4

— <보 기> —

- ㄱ. 남자 30명과 여자 30명이 근무할 경우, A기준과 B기준에 따라 설치할 위생기구 수는 같다.

ㄴ. 남자 50명과 여자 40명이 근무할 경우, B기준에 따라 설치할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같다.

ㄷ. 남자 80명과 여자 80명이 근무할 경우, A기준에 따라 설치할 소변기는 총 4개이다.

ㄹ. 남자 150명과 여자 100명이 근무할 경우, C기준에 따라 설치할 대변기는 총 5개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019 5급 (가) 29번

문 29. 다음 글과 <표>를 근거로 판단할 때, A사무관이 선택할 4월의 광고수단은?

- 주어진 예산은 월 3천만 원이며, A사무관은 월별 광고 효과가 가장 큰 광고수단 하나만을 선택한다.
- 광고비용이 예산을 초과하면 해당 광고수단은 선택하지 않는다.
- 광고효과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text{광고효과} = \frac{\text{총 광고 횟수} \times \text{회당 광고노출자 수}}{\text{광고비용}}$$

- 광고수단은 한 달 단위로 선택된다.

〈丑〉

광고수단	광고 횟수	회당 광고노출자 수	월 광고비용 (천 원)
TV	월 3회	100만 명	30,000
버스	일 1회	10만 명	20,000
KTX	일 70회	1만 명	35,000
지하철	일 60회	2천 명	25,000
포털사이트	일 50회	5천 명	30,000

- ① TV
- ② 버스
- ③ KTX
- ④ 지하철
- ⑤ 포털사이트

2019 5급 (가) 37번

문 3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지불한 연체료의 최솟값은?

A시립도서관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휴관일 없이 도서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시민 1인당 총 10권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이다.
- 대출 기간은 권당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총 대출 기간은 21일이 된다. 연장 신청은 기존 대출 기간 내에 해야 한다.
- 만화와 시로 분류되는 도서의 경우에는 대출 기간은 7일이며 연장 신청도 불가능하다.
- 대출한 도서를 대출 기간 내에 반납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해당 도서 반납을 연체한 것으로 본다.
- 연체료는 각 서적별로 ‘연체 일수×100원’만큼 부과되며, 최종 반납일도 연체 일수에 포함된다. 또한 대출일 기준으로 출간일이 6개월 이내인 신간의 연체료는 2배로 부과된다.

A시에 거주하는 甲은 아래와 같이 총 5권의 책을 대출 하여 2018년 10월 30일에 모두 반납하였다. 甲은 이 중 2권의 대출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반납한 날에 연체료를 전부 지불하였다.

<甲의 도서 대출 목록>

도서명	분류	출간일	대출일
원○○	만화	2018. 1. 10.	2018. 10. 10.
입 속의 검은 △	시	2018. 9. 10.	2018. 10. 20.
□의 노래	소설	2017. 10. 30.	2018. 10. 5.
☆☆ 문화유산 답사기	수필	2018. 4. 15.	2018. 10. 10.
햄◇	희곡	2018. 6. 10.	2018. 10. 5.

- ① 3,000원
- ② 3,700원
- ③ 4,400원
- ④ 5,500원
- ⑤ 7,200원

2020 5급 (나) 7번

문 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국은 출산장려를 위한 경제적 지원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안(A~C)을 고려 중이다.

○ A안: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수당을 매월 지급하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첫째와 둘째는 각각 15만 원, 셋째는 30만 원, 넷째부터는 45만 원씩의 수당을 해당 가정에 지급한다.

○ B안: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재학 중인 경우에는 24세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첫째와 둘째는 각각 20만 원, 셋째는 22만 원, 넷째부터는 25만 원씩의 수당을 해당 가정에 지급한다.

○ C안: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상한 연령 16세)까지만 해당 가정에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우선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3세 미만의 자녀 1명 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3세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첫째와 둘째는 각각 8만 원, 셋째부터는 10만 원씩 해당 가정에 지급한다. 중학생 자녀의 경우, 일률적으로 1명 당 8만 원씩 해당 가정에 지급한다.

———<보 기>———

ㄱ. 18세 이하 자녀 3명만 있는 가정의 경우, 지급받는 월 수당액은 A안보다 B안을 적용할 때 더 많다.

ㄴ. A안을 적용할 때 자녀가 18세 이하 1명만 있는 가정은 월 1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받는다.

ㄷ. C안의 수당을 50 % 증액하더라도 중학생 자녀 2명(14세, 15세)만 있는 가정은 A안보다 C안을 적용할 때 더 적은 월 수당을 지급받는다.

ㄹ. C안을 적용할 때 한 자녀에 대해 지급되는 월 수당액은 그 자녀가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020 5급 (나) 8번

문 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창렬이가 결제할 최소 금액은?

○ 창렬이는 이번 달에 인터넷 면세점에서 가방, 영양제, 목베개를 각 1개씩 구매한다. 각 물품의 정가와 이번 달 개별 물품의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정가(달러)	이번 달 할인율(%)
가방	150	10
영양제	100	30
목베개	50	10

○ 이번 달 개별 물품의 할인율은 자동 적용된다.

○ 이번 달 구매하는 모든 물품의 결제 금액에 대해 20 %를 일괄적으로 할인받는 ‘이달의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 이번 달은 쇼핑 행사가 열려, 결제해야 할 금액이 200달러를 초과할 때 ‘20,000원 추가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 할인은 ‘개별 물품 할인 → 이달의 할인 쿠폰 → 20,000원 추가 할인 쿠폰’ 순서로 적용된다.

○ 환율은 1달러 당 1,000원이다.

- ① 180,000원

② 189,000원

③ 196,000원

④ 200,000원

⑤ 210,000원

2020 5급 (나) 27번

문 2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우수부서 수와 기념품 구입 개수를 옳게 짝지은 것은?

A기관은 탁월한 업무 성과로 포상금 5,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포상금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포상금 사용기준>

- 포상금의 40 % 이상은 반드시 각 부서에 현금으로 배분한다.
 - 전체 15개 부서를 우수부서와 보통부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우수부서에 150만 원, 보통부서에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배분한다.
 - 우수부서는 최소한으로 선정한다.
- 포상금 중 2,900만 원은 직원 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데 사용한다.
- 직원 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부서별로 현금을 배분한 후 남은 금액을 모두 사용하여 개당 1만 원의 기념품을 구입한다.

	우수부서 수	기념품 구입 개수
①	9개	100개
②	9개	150개
③	10개	100개
④	10개	150개
⑤	11개	50개

2021 5급 (가) 16번

문 1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시 예산성과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A시 예산성과금 공고문>

- 제도의 취지
 -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그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포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사용 장려
- 지급요건 및 대상
 -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세입원을 발굴하는 등 세입을 증대한 경우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발생시기: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A시 공무원, A시 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A시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국민
- 지급기준
 - 1인당 지급액

구분	예산절감		수입증대
	주요사업비	경상적 경비	
지급액	절약액의 20 %	절약액의 50 %	증대액의 10 %

- 타 부서나 타 사업으로 확산 시 지급액의 30 %를 가산하여 지급

- ① 사업물자 계약방법을 개선하여 2019년 12월 주요사업비 8천만 원을 절약한 A시 사무관 甲
- ② 제도 개선을 통해 2020년 5월 주요사업비 3천 5백만 원을 절약하여 개선된 제도가 A시청 전 부서에 확대 시행되는 데 기여한 A시 사무관 乙
- ③ A시 지역축제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2020년 7월 8천만 원의 수입증대에 기여한 국민 丙
- ④ A시 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2020년 8월 경상적 경비 1천 8백만 원을 절약한 B기관 이사 丁
- ⑤ A시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용품 조달방법을 개선하여 2020년 9월 경상적 경비 1천만 원을 절약한 A시 사무관 戊

2021 5급 (가) 38번

문 3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수질 개선 설비 설치에 필요한 최소 비용은?

○ 용도에 따른 필요 수질은 다음과 같다.

- 농업용수: 중금속이 제거되고 3급 이상인 담수
- 공업용수: 중금속이 제거되고 2급 이상인 담수
- 생활용수: 중금속이 제거되고 음용이 가능하며 1급인 담수

○ 수질 개선에 사용하는 설비의 용량과 설치 비용은 다음과 같다.

수질 개선 설비	기능	처리 용량 (대당)	설치 비용 (대당)
1차 정수기	5~4급수를 3급수로 정수	5톤	5천만 원
2차 정수기	3~2급수를 1급수로 정수	1톤	1억 6천만 원
3차 정수기	음용 가능 처리	1톤	5억 원
응집 침전기	중금속 성분 제거	3톤	5천만 원
해수담수화기	염분 제거	10톤	1억 원

- 3차 정수기에는 2차 정수기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 모든 수질 개선 설비는 필요 용량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8톤의 해수를 담수로 개선하기 위해 해수담수화기가 최소 2대 설치되어야 한다.

- 수질 개선 전후 수량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상 황>—————

○○기관은 중금속이 포함된 4급에 해당하는 해수 3톤을 정수 처리하여 생활용수 3톤을 확보하려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수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 ① 16억 원
- ② 16억 5천만 원
- ③ 17억 원
- ④ 18억 6천만 원
- ⑤ 21억 8천만 원

2022 5급 (나) 9번

문 9.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 수면무호흡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양압기를 사용하면 많이 개선된다고 들었어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으면 양압기 대여료가 많이 저렴해진단데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乙: 급여 대상이 되려면 수면다원검사를 받으시고, 검사 결과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15 이상이면 돼요.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10 이상 15 미만이면 불면증·주간졸음·인지기능저하·기분장애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甲: 그러면 제가 부담하는 대여료는 얼마인가요?

乙: 일단 수면다원검사 결과 급여 대상에 해당하면 양압기 처방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양압기는 자동형과 수동형이 있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중간에 바꿀 수는 없어요. 자동형의 기준금액은 하루에 3,000원이고 수동형은 하루에 2,000원이에요. 대여기간 중에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대여료가 부과돼요. 처방일부터 최대 90일간 순응기간이 주어져요. 순응기간에는 기준금액 중 50%만 고객님의 부담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 회사로 지급해요. 90일 기간 내에 연이은 30일 중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한 일수가 21일이 되면 그날로 순응기간이 종료돼요. 그러면 바로 그다음 날부터는 정식사용기간이 시작되어 기준금액의 20%만 고객님의 부담하시면 됩니다.

————— <상 황> —————

수면다원검사 결과 甲의 무호흡·저호흡 지수는 16이었다. 甲은 2021년 4월 1일 양압기 처방을 받고 그날 양압기를 대여받았다.

————— <보 기> —————

ㄱ. 甲은 불면증·주간졸음·인지기능저하·기분장애 증상이 없었더라도 양압기 처방을 받았을 것이다.

ㄴ. 甲이 2021년 4월 한 달 동안 부담한 양압기 대여료가 30,000원이라면, 甲은 수동형 양압기를 대여받았을 것이다.

ㄷ. 甲의 순응기간이 2021년 5월 21일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해당 월에 양압기를 최소한 48시간 이상 사용하였을 것이다.

ㄹ. 甲이 자동형 양압기를 대여받았고 2021년 6월에 부담한 대여료가 36,000원이라면, 甲이 처방일부터 3개월간 부담한 총 대여료는 126,000원일 것이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2022 5급 (나) 10번

문 10.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시가 A동물보호 센터에 10월 지급할 경비의 총액은?

□□시는 관할구역 내 동물보호센터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경비를 지급하고 있다.

○ 사료비

구분	무게	1일 사료 급여량	사료가격
개	10 kg 미만	300 g/마리	5,000원/kg
	10 kg 이상	600 g/마리	5,000원/kg
고양이	—	400 g/마리	5,000원/kg

○ 인건비

- 포획활동비(1일 1인당): 안전관리사 노임액(115,000원)
- 관리비(1일 1마리당): 안전관리사 노임액(115,000원)의 100분의 20

○ 주인이 유실동물을 찾아간 경우 동물보호센터가 주인에게 보호비를 징수한다. 보호비는 보호일수와 관계없이 1마리당 100,000원이다. 단, 3일 미만 보호 시 징수하지 않으며, 7일 이상 보호 시 50 %를 가산한다.

○ □□시는 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에서 보호비를 공제한 금액을 다음 달에 경비로 지급한다.

— <상 황> —

○ □□시 소재 A동물보호센터가 9월 한 달간 관리한 동물의 일평균 마릿수는 다음과 같다.

개	10 kg 미만	10
	10 kg 이상	5
고양이	—	5

○ A동물보호센터는 9월 한 달간 1인을 8일 동안 포획 활동에 투입하였다.

○ A동물보호센터에서 9월 한 달간 주인에게 반환된 유실 동물의 마릿수는 다음과 같다.

보호일수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이상
마릿수	2	3	1	1	2	0	2

- ① 1,462만 원
- ② 1,512만 원
- ③ 1,522만 원
- ④ 1,532만 원
- ⑤ 1,572만 원

2022 5급 (나) 11번

문 11.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가 새로 읽기 시작한 350쪽의 책을 다 읽은 때는?

- A는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월 ~ 금요일까지 매일 시외버스를 타고 30분씩 각각 출근과 퇴근을 하며 밤 9시 이전에 집에 도착한다.

○ A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책을 읽는다. 단, 시내버스에서는 책을 읽지 않고, 또 밤 9시가 넘으면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책을 읽지 않는다.

○ A는 10분에 20쪽의 속도로 책을 읽는다. 다만 책의 1쪽부터 30쪽까지는 10분에 15쪽의 속도로 읽는다.

<상 황>

A는 이번 주 월 ~ 금요일까지 출퇴근을 했는데, 화요일에는 회사 앞에서 회식이 있어 밤 8시 30분에 시외버스를 타고 30분 후에 집 근처 정류장에 내려 퇴근했다. 수요일에는 오전 근무를 마치고 회의를 위해서 지하철로 20분 이동한 후 다시 시내버스를 30분 타고 회의 장소로 갔다. 회의가 끝난 직후 밤 9시 10분에 지하철을 40분 타고 퇴근했다. A는 200쪽까지 읽은 280쪽의 책을 월요일 아침 출근부터 이어서 읽었고, 그 책을 다 읽은 직후 곧바로 350쪽의 새로운 책을 읽기 시작했다.

- ① 수요일 회의 장소 이동 중

② 수요일 퇴근 중

③ 목요일 출근 중

④ 목요일 퇴근 중

⑤ 금요일 출근 중

2022 5급 (나) 30번

문 30.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X의 범위는?

A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 근로소득자나 사업자 모두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소득의 20 %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 근로소득자의 과세대상소득은 근로소득이고, 사업자의 과세대상소득은 매출액에서 생산비용을 공제한 값이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지출금액의 5 %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한다. 예를 들어 원래 과세대상소득이 1천만 원인 사람이 10만 원을 신용카드로 지출하면 이 사람의 실제 과세대상소득은 5천 원 감소하여 999만 5천 원이 된다.

○ 사업자는 신용카드로 취득한 매출액의 1 %를 수수료로 카드회사에 지불한다. 수수료는 생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지역상권 부흥상품권을 통한 거래는 사업자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 황>

2021년 A국의 근로소득자 甲은 가구를 제작·판매하는 사업자 乙로부터 100만 원에 판매되는 식탁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려고 하였다. 乙이 이 식탁을 제작하는 데 드는 생산 비용은 80만 원이다. 그런데 乙은 지역상권부흥상품권으로 자신이 판매하는 가구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X)만 원을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하였고, 甲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甲은 지역상권부흥상품권으로 이 식탁을 구매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것보다 甲과 乙 모두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았다.

- ① $0 < X < 5$

② $1 < X < 5$

③ $1 < X < 6$

④ $3 < X < 6$

⑤ $3 < X < 10$

2023 5급 (가) 26번

2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약국에 지불해야 할 약값의 총액은?

甲은 병원에서 받은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려 한다. 甲이 처방받은 약은 기침약, 콧물약, 항생제, 위장약 총 4가지이며 각 약의 형태와 복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종류	형태	복용방법
기침약	알약	1일 3정 복용(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콧물약	캡슐	1일 1정 복용(매 점심 식사 후)
항생제	알약	1일 2정 복용(매 아침, 저녁 식사 후)
위장약	캡슐	항생제 1정 복용 시 1정씩 함께 복용

○○약국의 약 종류와 가격은 다음과 같다.

종류	1정당 가격(원)	비고
기침약	300	같은 종류의 약을 10정 이상 구매 시, 해당 약 구매액의 10% 할인(단, 캡슐 형태의 약에 한정)
콧물약	200	
항생제	500	
위장약	700	

<상 황>

甲은 병원에서 다음과 같이 처방을 받았다.

☐ 기침약 3일치

☐ 콧물약, 항생제 각 7일치

☐ 위장약

- ① 19,220원
- ② 19,920원
- ③ 20,200원
- ④ 20,320원
- ⑤ 20,900원

2023 5급 (가) 38번

3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가원이가 A무인세탁소 사업자로부터 받을 총액은?

- A무인세탁소의 사업자가 사업장 내 기기의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 하여 세탁물이 훼손된 경우, 아래와 같은 배상 및 환급 기준을 적용한다.

 - 훼손된 세탁물에 대한 배상액은 ‘훼손된 세탁물의 구입 가격×배상비율’로 산정한다. 배상비율은 물품의 내구연한과 사용일수에 따라 다르며 아래 <배상비율표>에 따른다.
 - 물품의 사용일수는 사용개시일에 상관없이 구입일부터 세탁일까지의 일수이다.
 - 사업자는 훼손된 세탁물에 대한 배상과는 별도로 고객이 지불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한다.

<배상비율표>

내구 연한	배상비율			
	80 %	60 %	40 %	20 %
1년	0 ~ 44일	45 ~ 134일	135 ~ 269일	270일 ~
2년	0 ~ 88일	89 ~ 268일	269 ~ 538일	539일 ~
3년	0 ~ 133일	134 ~ 403일	404 ~ 808일	809일 ~

<상 황>

가원은 2022. 12. 20. A무인세탁소에서 셔츠, 조끼, 치마를 한꺼번에 세탁하였다. 그런데 사업자의 세탁기 관리 소홀로 인하여 세탁물 모두가 훼손되었다.

A무인세탁소의 이용요금은 세탁 1회당 8,000원이며, 가원의 세탁물 정보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구연한	구입일	사용개시일	구입가격
셔츠	1년	2022. 10. 10.	2022. 11. 15.	4만 원
조끼	3년	2021. 1. 20.	2022. 1. 22.	6만 원
치마	2년	2022. 12. 1.	2022. 12. 10.	7만 원

- ① 124,000원
- ② 112,000원
- ③ 104,000원
- ④ 96,000원
- ⑤ 88,000원

2024 5급 (나) 27번

2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2024년에 받게 될 탄소중립 포인트는?

○ A시는 주민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다음년도에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탄소중립포인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위: 포인트)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 % 이상 10 % 미만	600	75	300
10 % 이상 15 % 미만	750	150	600
15 % 이상	1,000	200	800

○ 감축률(%) = $\frac{\text{직전년도 월평균 사용량} - \text{당해년도 월평균 사용량}}{\text{직전년도 월평균 사용량}} \times 100$

<상 황>

A시 주민 甲의 2022년 및 2023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월평균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연도	전기(kWh)	상수도(m ³)	도시가스(m ³)
2022	400	11	60
2023	350	10	51

- ① 1,425
- ② 1,625
- ③ 1,675
- ④ 1,700
- ⑤ 1,750

2024 5급 (나) 30번

3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2024년 1월 10일에 보유한 포인트는?

2022년 1월 1일 甲은 A그룹 통합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하였다. 해당 서비스는 A그룹 제휴 업체에서 결제 시 결제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다음 결제부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결제 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보유한 포인트 중 가장 먼저 적립된 포인트부터 사용되며, 결제금액 중 사용포인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포인트가 적립된다. 단,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적립일(결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소멸된다.

甲이 A그룹 제휴 업체에서 결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날짜	제휴 업체	결제금액(원)	적립률(%)	사용포인트
2022. 1. 5.	A영화관	50,000	5	
2022. 9. 20.	A카페	22,000	2	2,000
2023. 1. 9.	A편의점	25,000	2	
2023. 3. 27.	A레스토랑	50,300	4	300
2024. 1. 5.	A화장품점	10,500	5	500

- ① 2,000
- ② 2,300
- ③ 2,500
- ④ 2,600
- ⑤ 3,100

2024 5급 (나) 38번

3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부처가 지급할 지원금액의 총합은?

- 甲부처는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발전부문 에너지 목표관리기업(단, 배출권거래제에 참여 중인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간보고서 점수의 20 %, 시설설치 점수의 30 %, 최종보고서 점수의 50 %를 합한 총점이 70점 이상인 기업

○ 지원금액

 - 중소기업: 총 비용의 80 %
 - 중견기업: 총 비용의 50 %
 - 대기업: 총 비용의 30 %

<상 황>

신청 기업 A~E는 모두 발전부문 에너지 목표관리기업이다.
각 기업의 평가결과 및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중간보고서 점수	시설설치 점수	최종보고서 점수	총 비용	기업 규모
A	60	70	70	10억 원	중견기업
B	90	60	80	6억 원	중소기업
C	85	60	70	7억 원	중소기업
D	70	90	80	12억 원	중견기업
E	80	90	90	15억 원	대기업

※ D는 배출권거래제에 참여 중인 기업이다.

- ① 10.4억 원
- ② 14.9억 원
- ③ 19.9억 원
- ④ 20.9억 원
- ⑤ 25.9억 원

2025 5급 (가) 7번

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 ~ 丁 일행에게 제공되는
중간 컵의 개수는?

<A카페 메뉴판>

☐ 음료 종류

○ 에스프레소(1잔의 양)

- 싱글리(30 ml): 농도가 연하며 산미와 단맛, 쓴맛이 균형을 이룸

- 리스트레포(20 ml): 농도가 진하며 산미와 단맛이 강함

- 룡고(40 ml): 농도가 연하나 쓴맛이 강함

- 도피오(60 ml): 싱글리와 같은 농도로 양이 2배

○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1잔)와 물을 1:8의 부피 비율로 제조

○ 카페라떼: 에스프레소(1잔)와 우유를 1:6의 부피 비율로 제조

○ 아인슈페너: 싱글리(1잔), 물, 생크림을 1:3:1의 부피 비율로 제조

○ 콘파냐: 도피오(1잔)와 생크림을 1:1.5의 부피 비율로 제조

☐ 컵 제공 사항

○ 작은 컵: 100 ml 미만의 음료

○ 중간 컵: 100 ml 이상 200 ml 미만의 음료

○ 큰 컵: 200 ml 이상의 음료

<상 황>

A카페를 방문한 甲 ~ 丁은 아래와 같이 대화를 나누며 음료를 주문했다.

甲: 싱글리로 만든 카페라떼 1잔을 마실래.

乙: 아인슈페너와 콘파냐 1잔씩 시켜서 맛을 비교해보려고 해.

丙: 그럼 나는 쓴맛이 강한 에스프레소로 만든 아메리카노 1잔을 주문할게.

丁: 배가 부르네. 농도가 진한 에스프레소 1잔을 마셔야겠어.

- ① 1
- ② 2
- ③ 3
- ④ 4
- ⑤ 5

2025 5급 (가) 37번

3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2월에 이용할 통신사는?

통신사(A ~ E)의 데이터 제공량과 전송 속도에 따른 월 기본 요금은 다음과 같다.

구분	데이터 제공량 (GB)	데이터 전송 속도 (Mbps)	기본요금 (천 원)
A	50	100	50
B	100	200	60
C	250	200	80
D	500	500	120
E	무제한	200	140

○ 데이터 제공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사용한 데이터 1GB당 2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 OTT 콘텐츠를 구독하는 경우, 월 2만 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단, E통신사의 기본요금에는 OTT 콘텐츠 구독료가 포함되어 있다.

<상 황>

甲은 월 요금 총액이 가장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사를 2월에 이용하려고 한다. 다만 甲은 데이터 전송 속도가 200 Mbps 미만인 통신사는 이용하지 않는다. 甲의 1월 데이터 사용량은 400 GB이고, 2월에도 같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한다. 그리고 1월까지 구독하지 않았던 OTT 콘텐츠를 구독하려고 한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2011 민경채 (인) 17번

문 1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최근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들이 매주 공연을 한 뒤, 청중 투표를 통해 탈락자를 결정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다. 100명의 청중평가단이 가수 4명의 공연을 보고, 본인의 선호에 따라 가장 마음에 드는 가수 1명에게 투표를 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득표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탈락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존 투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제작진은 가수 4명의 공연이 끝난 뒤 청중평가단에게 선호도에 따라 1위부터 4위까지의 순위를 매겨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선호도 조사결과>

(단위 : 명)

선호순위 가수	1	2	3	4
A	10	50	30	10
B	20	30	20	30
C	30	10	20	40
D	40	10	30	20

※ 위 표의 청중평가단 선호순위는 어떤 투표방식 하에서도 동일하며, 청중평가단은 그 선호순위에 따라 투표한다.

<보 기>

- ㄱ. 기존의 탈락자 선정방식은 청중평가단 선호도의 1순위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다수의 청중평가단이 2순위로 선호하는 가수도 탈락할 수 있다.

ㄴ. 가장 선호하는 가수 한 명에게만 투표하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탈락자는 A가 된다.

ㄷ. 4순위 표가 가장 많은 사람을 탈락시킬 경우, 탈락자는 C가 된다.

ㄹ. 가장 선호하는 가수 두 명의 이름을 우선순위 없이 적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투표할 경우, 최저득표자는 A가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12 민경채 (인) 22번

문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첫차는 06:00에 출발하며, 24:00 이내에 모든 버스가 운행을 마치고 종착지에 들어온다.

○ 버스의 출발지와 종착지는 같고 한 방향으로만 운행되며, 한 대의 버스가 1회 운행하는 데 소요되는 총 시간은 2시간이다. 이 때 교통체증 등의 도로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 출발지를 기준으로 시간대별 배차 간격은 아래와 같다. 예를 들면 평일의 경우 버스 출발지를 기준으로 한 버스 출발 시간은 …, 11:40, 12:00, 12:30, … 순이다.

구분	A시간대 (06:00~12:00)	B시간대 (12:00~14:00)	C시간대 (14:00~24:00)
평일	20분	30분	40분
토요일	30분	40분	60분
일요일 (공휴일)	40분	60분	75분

<보 기>

- ㄱ. 공휴일인 어린이날에는 출발지에서 13:00에 버스가 출발한다.

ㄴ. 막차는 출발지에서 반드시 22:00 이전에 출발한다.

ㄷ. 일요일에 막차가 종착지에 도착하는 시간은 23:20이다.

ㄹ. 출발지에서 09:30에 버스가 출발한다면, 이 날은 토요일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13 민경채 (인) 19번

문 19. 다음 <축제 안내문>과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공연을 볼 수 있는 최대 일수는?

— <축제 안내문> —

- 공연장소 : A도시 예술의 전당
- 축제기간 :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 공연시간 : 오후 7시(공연 시작 이후 공연장 입장은 불가합니다)
- 참고사항 : 모든 곡은 <작품별 공연개시일>에 표시된 날부터 연속하여 총 3일 동안 공연되고, 브루크너의 곡은 하루만 공연됩니다.

— <작품별 공연개시일> —

4/1(월)	4/2(화)	4/3(수)	4/4(목)	4/5(금)	4/6(토)	4/7(일)
•드보르작 - 교향곡 제9번	•쇼팽 - 즉흥환상곡	•브람스 - 바이올린 협주곡	•파가니니 -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시벨리우스 - 교향시 <판타시아> 서곡	•바흐 - 요한수난곡	•브람스 - 교향곡 제3번
•베르디 - 리골레토 서곡	•드보르작 - 교향곡 제8번	•생상스 - 교향곡 제1번	•베토벤 - 전원교향곡	•닐센 - 오페라 <사울과 다윗>	•베를리오즈 - 환상교향곡	•멘델스존 - 엘리야

4/8(월)	4/9(화)	4/10(수)	4/11(목)	4/12(금)	4/13(토)	4/14(일)
•베를리오즈 - 로마의 카발 서곡	•비발디 - 사계 중 봄	•슈만 - 사육제	•브람스 - 교향곡 제11번	•바흐 -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브루크너 - 교향곡 제6번	•브루크너 - 교향곡 제9번
•라벨 - 볼레로	•마그너 - 탄호이저 서곡	•브람스 - 교향곡 제2번	•헨델 - 스페인 칸타타	•쇼팽 - 야상곡	•브루크너 - 교향곡 제3번	

— <조 건> —

- 甲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B도시를 출발하여 주말을 A도시에서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B도시로 돌아간다.
- 甲은 레슨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 평일에는 B도시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업을 듣는다.
- 레슨은 A도시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에 종료된다.
- 레슨 장소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이동시간은 30분이며, B도시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이동시간은 3시간이다.
- 甲은 베토벤 또는 브람스의 곡이 최소한 1곡이라도 공연되는 날짜에만 공연을 본다.

- ① 2일
- ② 3일
- ③ 4일
- ④ 5일
- ⑤ 6일

2016 민경채 (5) 25번

문 2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군에서는 관내 임업인 중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에 임업인 甲, 乙, 丙, 丁이 관련 서류를 완비하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군은 평가를 거쳐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기준	배점	평가자료
1	보조금 수급 이력	없음	40	정부 보유자료
		있음	3백만 원 미만	
			3백만 원 이상	
2	임산물 판매규모	2천만 원 이상	30	2015년 연간 판매액 증빙자료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25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19	
		5백만 원 미만	12	
3	전문임업인	해당	10	군청 보유자료
		해당 없음	5	
4	임산물 관련 교육 이수	해당	10	이수증, 수료증
		해당 없음	5	
5	2015년 산림청 통계조사 표본농가	해당	10	산림청 보유자료
		해당 없음	7	

☐ 선정기준: 평가기준에 따른 총점이 가장 높은 임업인 1인

☐ 임업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 2번 항목: 2015년 임산물 판매 영수증, 세금계산서

○ 4번 항목: 이수증 또는 수료증

☐ 선정제외 대상: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

☐ 동점 시 우선 선정기준

- 보조금 수급 이력 점수가 높은 자
- 임산물 판매규모 점수가 높은 자
- 연령이 높은 자

<선정결과>

항목 임업인	1	2	3	4	5	총점	선정여부
甲	40	25	10	5	7	87	×
乙	40	19	5	10	10	84	×
丙	40	19	10	5	10	84	○
丁	26	30	5	10	7	78	×

- ① 甲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적이 있을 것이다.
- ② 甲과 丁은 2015년 산림청통계조사 표본농가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 ③ 乙이 관련 법령위반 경력이 없다면, 丙은 乙보다 연령이 높을 것이다.
- ④ 丁은 300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보조금 수급 이력 서류를 제출하였을 것이다.
- ⑤ 乙과 丁은 임산물 관련 교육 이수 사실 증명을 위해 이수증이나 수료증을 제출하였을 것이다.

2017 민경채 (나) 8번

문 8. 다음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준석이가 가장 많은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온도와 상품가치의 총합이 가장 큰 온도는?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상 황>

○ 준석이는 같은 온실에서 5가지 식물(A ~ E)을 하나씩 동시에 재배하고자 한다.

○ A ~ E의 재배가능 온도와 각각의 상품가치는 다음과 같다.

식물 종류	재배가능 온도(°C)	상품가치(원)
A	0 이상 20 이하	10,000
B	5 이상 15 이하	25,000
C	25 이상 55 이하	50,000
D	15 이상 30 이하	15,000
E	15 이상 25 이하	35,000

○ 준석이는 온도만 조절할 수 있으며, 식물의 상품가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것은 온도이다.

○ 온실의 온도는 0 °C 를 기준으로 5 °C 간격으로 조절할 수 있고, 한 번 설정하면 변경할 수 없다.

	가장 많은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온도	상품가치의 총합이 가장 큰 온도
①	15 °C	15 °C
②	15 °C	20 °C
③	15 °C	25 °C
④	20 °C	20 °C
⑤	20 °C	25 °C

2017 민경채 (나) 14번

문 1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국과 B국은 대기오염 정도를 측정하여 통합지수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보를 한다.

A국은 5가지 대기오염 물질 농도를 각각 측정하여 대기환경지수를 산정하고, 그 평균값을 통합지수로 한다. 통합지수의 범위에 따라 호흡 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며, 이를 기준으로 그 등급을 아래와 같이 6단계로 나눈다.

<A국 대기오염 등급 및 경보기준>

등급	좋음	보통	민감군에게 해로움	해로움	매우 해로움	심각함
통합 지수	0~50	51~100	101~150	151~200	201~300	301~500
경보 색깔	초록	노랑	주황	빨강	보라	적갈
행동 지침	외부활동 가능		외부활동 자제			

※ 민감군 : 노약자, 호흡기 환자 등 대기오염에 취약한 사람

B국은 A국의 5가지 대기오염 물질을 포함한 총 6가지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를 각각 측정하여 대기환경지수를 산정하고,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대기환경지수를 통합지수로 사용한다. 다만 오염물질별 대기환경지수 중 101 이상인 것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높은 대기환경지수에 20을 더하여 통합지수를 산정한다. 통합지수는 그 등급을 아래와 같이 4단계로 나눈다.

<B국 대기오염 등급 및 경보기준>

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통합지수	0~50	51~100	101~250	251~500
경보색깔	파랑	초록	노랑	빨강
행동지침	외부활동 가능		외부활동 자제	

————— <보 기> —————

ㄱ. A국과 B국의 통합지수가 동일하더라도, 각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는 다를 수 있다.

ㄴ. B국의 통합지수가 180이라면, 6가지 대기오염 물질의 대기환경지수 중 가장 높은 것은 180 미만일 수 없다.

ㄷ. A국이 대기오염 등급을 ‘해로움’으로 경보한 경우, 그 정보만으로는 특정 대기오염 물질 농도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을 것이다.

ㄹ. B국 국민이 A국에 방문하여 경보색깔이 노랑인 것을 확인하고 B국의 경보기준을 따른다면, 외부활동을 자제할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3 외교 (인) 14번

문 14. 지금은 금요일 17시 50분이다. <근로조건>과 <직원정보>를 근거로 판단할 때, 甲회사 김과장이 18시부터 시작하는 시간 외 근로를 요청하면 오늘 내로 A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는 직원은?

<근로조건>

가. 甲회사의 근로자는 09시에 근무를 시작해 18시에 마치며,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갖는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나. 시간 외 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출산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1일 2시간, 1주 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 시간 외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 여성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해서 별도의 동의를 요한다.

- ※ 시간 외 근로: <근로조건> ‘가.’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
- ※ 야간근로: 22시에서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것
- ※ 시간 외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은 없음

<직원정보>

이름	성별	이번 주 일일근로시간					A프로젝트 완수 소요시간	시간외근로 동의여부	야간근로 동의여부
		월	화	수	목	금			
김상형	남	8	8	8	8	8	5	×	—
전지연	여	—	10	10	10	8	2	○	×
차효인	여	9	8	13	9	8	3	○	○
조경은	여	8	9	9	9	8	5	○	×
심현석	남	10	11	11	11	8	1	○	—

- ※ 출산여부: 전지연은 4개월 전에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이번 주 화요일에 복귀하였고, 나머지 여성직원은 출산 경험이 없음
- 김상형, 차효인
 - 차효인, 심현석
 - 차효인, 조경은
 - 전지연, 조경은
 - 전지연, 심현석

2016 5급 (4) 16번

문 16. 다음 글과 <3년간 인증대학 현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원 체계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2013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 신규 인증을 신청한 대학이 1단계 핵심지표평가 및 2단계 현장평가 결과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규 인증대학으로 선정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 매년 2월 인증대학을 선정하며 인증은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유효하다.

○ 기존 인증대학에 대해서는 매년 2월 핵심지표평가만을 실시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인증이 취소된다.

○ 인증이 취소된 대학은 그 다음 해부터 신규 인증을 신청하여 신규 인증대학으로 다시 선정될 수 있다.

<3년간 인증대학 현황>

구분	2013년 3월	2014년 3월	2015년 3월
신규 인증대학	12	18	21
기존 인증대학	－	10	25
합계	12	28	46

— <보 기> —

- ㄱ. 2013년에 신규 인증대학으로 선정된 A대학이 2016년에 핵심지표평가만을 받는 경우는 없다.

ㄴ. 2015년 3월까지 인증대학으로 1번 이상 선정된 대학은 최대 51개이다.

ㄷ. 2015년 3월까지 인증대학으로 1번 이상 선정된 대학은 최소 46개이다.

ㄹ. 2016년 2월 현재 23개월 이상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은 25개이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20 5급 (나) 12번

문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과에는 4급 과장 1명, 5급 사무관 3명, 6급 주무관 6명이 근무한다. A과의 내선번호는 253[?] 네 자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맨 뒷자리 번호는 0~9 중에서 하나씩 과원에게 배정된다.

맨 뒷자리 번호 배정규칙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직급 순으로 배정한다. 따라서 과장에게 0, 사무관에게 1~3, 주무관에게 4~9를 배정한다. 다음으로 동일 직급 내에서는 여성에게 앞 번호가 배정된다. 성별도 같은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앞 번호가 배정된다. 나이도 같은 경우에는 소속 팀명의 ‘가’, ‘나’, ‘다’ 순으로 앞 번호가 배정된다.

<A과 조직도>

과장: 50세, 여성

가팀

나팀

다팀

사무관1: 48세, 여성	사무관2: 45세, 여성	사무관3: 45세, ()
주무관1: 58세, 여성	주무관3: (), ()	주무관5: 44세, 남성
주무관2: 39세, 남성	주무관4: 27세, 여성	주무관6: 31세, 남성

<보 기>

ㄱ. 사무관3이 배정받는 내선번호는 그의 성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

ㄴ. 여성이 총 5명이라면, 배정되는 내선번호가 확정되는 사람은 4명뿐이다.

ㄷ. 주무관3이 남성이고 31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모든 과원의 내선번호를 확정할 수 있다.

ㄹ. 사무관3의 성별과 주무관3의 나이와 성별을 알게 된다면, 현재의 배정규칙으로 모든 과원의 내선번호를 확정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20 5급 (나) 37번

문 37. 다음 <대화>와 <품질인증서번호 부여 규칙>을 근거로 판단할 때, 乙이 발급받은 품질인증서번호는?

<대 화>

甲: 안녕하세요? ‘품질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러 오셨나요?
乙: 토목분야로 예전에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어요.
재발급받으려 합니다.
甲: 인증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까지입니다. 선생님
께선 2017년 11월 20일에 발급받으셨네요. 오늘 접수
하시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난 겁니다.
乙: 그렇군요. 저희가 2019년 11월에 본사와 공장을 전부
이전해서 주소가 바뀌었어요. 본사는 대전으로 이전했고,
공장은 중동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해 있어요. 이러한
내용으로 발급해 주세요.
甲: 접수되었습니다. 품질인증서는 접수일로부터 3주 후에
발급됩니다.

<품질인증서번호 부여 규칙>

품질인증서번호는 부여 규칙(가~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란에 숫자 또는 코드가 기재된다.

㉠	㉡	㉢	㉣

가. ㉠란에 발급연도의 3, 4번째 숫자를 기재한다.
나. ㉡란에 아래의 신청유형별 코드를 기재한다.

신청유형	코드	신청유형	코드
신규신청	1A	재발급(기간만료 후)	4B
연장신청(기간만료 전)	2A	재발급(양도)	5C
규격확인 신청	3B	재발급(공장주소변경)	6C

※ 2개 이상의 신청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코드를 모두
기재하되, 각 코드에 포함된 숫자가 큰 코드를 먼저 기재한다.

다. ㉢란에 아래의 분야별 코드를 기재한다.

분야명	코드	분야명	코드
기계	AA	에너지	CC
전기·전자	AB	토목	CD
정보·통신	BB	의료기기	DD

라. ㉣란에 아래의 지역구분 코드를 기재한다. (단, 지역
구분 코드는 발급연도를 기준으로 공장소재지에 따른다)

국내	코드	국외	코드
서울·인천·경기	DA	아시아	FA
대전·세종·충남·충북	DB	미주	FB
광주·전남·전북·제주	DC	유럽	FC
부산·울산·경남	DD	중동	FD
대구·경북	DE	아프리카	FE
강원	DF	기타지역	FF

- ① 196C4BCDFA
- ② 194B6CCCCDB
- ③ 196C4BCDFD
- ④ 204B6CCDDB
- ⑤ 206C4BCDFA

2024 5급 (나) 33번

33.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乙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로 가능한 것은?

-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년 4월 10일에 지원금 지급

－ 지급일 기준 만 20세 이상 만 35세 이하의 청년에게 지원금 지급

－ 홀수해에는 지급 대상자 중 홀수일에 태어난 사람에게, 짝수해에는 지급 대상자 중 짝수일에 태어난 사람에게 기념품 증정

- <상 황>

○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담당자 甲은 지급내역을 정리하다가 2023년에 지원금을 받은 乙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가 지워져 있음을 발견하였다.

○ 甲은 乙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기억하고 있다.

－ 3가지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다.

－ 같은 숫자가 연속되는 부분이 있다.

○ 乙은 2022년에 지원금을 받았으나 기념품은 받지 못했다.

○ 乙은 2028년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① 920202
- ② 931118
- ③ 000610
- ④ 010411
- ⑤ 031103

2025 5급 (가) 12번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은 업무코드를 내부 정보망에 입력한 후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 업무코드는 4자리로, 알파벳(2개)과 숫자(2개)로 구성된다. 甲이 담당하는 업무와 업무코드는 다음과 같다.

업무코드	업무	업무코드	업무
AD10	사업자등록 결과처리	CB11	신고서 목록 관리
BA13	휴폐업신고서 관리	CD08	신고자내역 조회
BC03	휴폐업신고서 조회	DA14	신용카드 이용대금 조회
BE02	사업자등록신청서 입력	DD12	전자계산서 발급 조회

甲은 오늘 ‘휴폐업신고서 관리’, ‘신고서 목록 관리’를 포함하여 업무코드가 서로 다른 6건의 업무를 처리했다.

——— <보 기> ———

ㄱ. ‘A’를 1번만 입력했다면, ‘D’는 3번 입력했다.

ㄴ. 가장 많이 입력한 알파벳이 ‘B’라면, ‘전자계산서 발급 조회’를 처리하지 않았다.

ㄷ. 입력한 업무코드 네 번째 자리의 숫자 총합이 21이라면, ‘신고자내역 조회’를 처리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021 민경채 (나) 4번

문 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의 계약 의뢰 날짜와
공고 종료 후 결과통지 날짜를 옳게 짝지은 것은?

○ A국의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순서	단계	소요기간
1	계약 의뢰	1일
2	서류 검토	2일
3	입찰 공고	40일 (긴급계약의 경우 10일)
4	공고 종료 후 결과통지	1일
5	입찰서류 평가	10일
6	우선순위 대상자와 협상	7일

※ 소요기간은 해당 절차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걸리는 기간이다.
모든 절차는 하루 단위로 주말(토, 일) 및 공휴일에도 중단이나
중복 없이 진행된다.

<상 황>

A국 공무원인 甲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4월 30일에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계약부서에 긴급계약으로 의뢰하려
한다. 계약은 우선순위 대상자와 협상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체결된다.

	계약 의뢰 날짜	공고 종료 후 결과통지 날짜
①	3월 30일	4월 11일
②	3월 30일	4월 12일
③	3월 30일	4월 13일
④	3월 31일	4월 12일
⑤	3월 31일	4월 13일

2020 7급 모의평가 12번

문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甲국은 매년 X를 100톤 수입한다. 甲국이 X를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A국, B국, C국 3개국이며, 甲국은 이 중 한 국가로부터 X를 전량 수입한다.

○ X의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다.

국가	1톤당 단가	관세율	1톤당 물류비
A국	12달러	0 %	3달러
B국	10달러	50 %	5달러
C국	20달러	20 %	1달러

○ 1톤당 수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1톤당 수입비용 = 1톤당 단가 + (1톤당 단가 × 관세율) + 1톤당 물류비

○ 특정 국가와 FTA를 체결하면 그 국가에서 수입하는 X에 대한 관세율이 0 %가 된다.

○ 甲국은 지금까지 FTA를 체결한 A국으로부터만 X를 수입했다. 그러나 최근 A국으로부터 X의 수입이 일시 중단되었다.

————— <보 기> —————

ㄱ. 甲국이 B국과도 FTA를 체결한다면, 기존에 A국에서 수입하던 것과 동일한 비용으로 X를 수입할 수 있다.

ㄴ. C국이 A국과 동일한 1톤당 단가를 제시하였다면, 甲국은 기존에 A국에서 수입하던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C국으로부터 X를 수입할 수 있다.

ㄷ. A국으로부터 X의 수입이 다시 가능해졌으나 1톤당 6달러의 보험료가 A국으로부터의 수입비용에 추가된다면, 甲국은 A국보다 B국에서 X를 수입하는 것이 수입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ㄷ

2020 7급 모의평가 22번

문 22.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국에서는 4개 기관(A~D)에 대해 전기, 후기 두 번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전기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이 후기평가를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최종평가점수 산정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최종평가점수 = $\text{Max}[0.5 \times \text{전기평가점수} + 0.5 \times \text{후기평가점수}, 0.2 \times \text{전기평가점수} + 0.8 \times \text{후기평가점수}]$

여기서 사용한 $\text{Max}[X, Y]$ 는 X와 Y 중 큰 값을 의미한다. 즉, 전기평가점수와 후기평가점수의 가중치를 50:50으로 하여 산정한 점수와 20:80으로 하여 산정한 점수 중 더 높은 것이 해당 기관의 최종평가점수이다.

———<상 황>———

4개 기관의 전기평가점수(100점 만점)는 다음과 같다.

기관	A	B	C	D
전기평가점수	60	70	90	80

4개 기관의 후기평가점수(100점 만점)는 모두 자연수이고, C기관의 후기평가점수는 70점이다. 최종평가점수를 통해 확인된 기관 순위는 1등부터 4등까지 A-B-D-C 순이며 동점인 기관은 없다.

———<보 기>———

ㄱ. A기관의 후기평가점수는 B기관의 후기평가점수보다 최소 3점 높다.

ㄴ. B기관의 후기평가점수는 83점일 수 있다.

ㄷ. A기관과 D기관의 후기평가점수 차이는 5점일 수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2021 7급 (나) 19번

문 1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1년에 적용되는 ○○인재개발원의 분반 허용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분반 허용 기준

- 일반강의: 직전 2년 수강인원의 평균이 100명 이상 이거나, 그 2년 중 1년의 수강인원이 120명 이상

- 토론강의: 직전 2년 수강인원의 평균이 60명 이상 이거나, 그 2년 중 1년의 수강인원이 80명 이상

- 영어강의: 직전 2년 수강인원의 평균이 30명 이상 이거나, 그 2년 중 1년의 수강인원이 50명 이상

- 실습강의: 직전 2년 수강인원의 평균이 20명 이상

○ 이상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 강의만족도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이었던 강의는 위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수강인원의 90 % 이상이면 분반을 허용한다.

<보 기>

ㄱ. 2019년과 2020년의 수강인원이 각각 100명과 80명이고 2020년 강의만족도 평가점수가 85점인 일반강의 A는 분반이 허용된다.

ㄴ. 2019년과 2020년의 수강인원이 각각 10명과 45명인 영어강의 B의 분반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2020년 강의 만족도 평가점수는 90점 미만이었을 것이다.

ㄷ. 2019년 수강인원이 20명이고 2020년 강의만족도 평가 점수가 92점인 실습강의 C의 분반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2020년 강의의 수강인원은 15명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2022 7급 (가) 15번

문 1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甲이 지원금을 받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 정부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대비 2021년의 이익이 감소한 경우 이익 감소액의 10 %를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 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뺀 금액으로, 자영업자 甲의 2020년 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구분	금액	비고
매출액	8억 원	판매량(400,000단위) × 판매가격(2,000원)
변동원가	6.4억 원	판매량(400,000단위) × 단위당 변동원가(1,600원)
고정원가	1억 원	판매량과 관계없이 일정함
이익	0.6억 원	8억 원 - 6.4억 원 - 1억 원

— <보 기> —

- ㄱ. 2021년의 판매량, 판매가격, 단위당 변동원가, 고정원가는 모두 2020년과 같았다.

ㄴ.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판매가격을 5 % 인하하였고, 판매량, 단위당 변동원가, 고정원가는 2020년과 같았다.

ㄷ.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판매량은 10 % 증가하고 고정원가는 5 % 감소하였으나, 판매가격과 단위당 변동원가는 2020년과 같았다.

ㄹ.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판매가격을 5 %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25 % 증가하였고, 단위당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는 2020년과 같았다.

- ① ㄴ

② ㄹ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ㄷ, ㄹ

2011 5급 (선) 14번

문 14. 다음 ○○금융회사의 금(金) 관련 금융상품만을 고려할 때 옳지 않은 것은?

A상품 : 2011년 12월 30일에 금 1g 가격(P)이 50,000원 이상이면 ○○금융회사는 $(P - 50,000)$ 원을 A상품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는 A상품 가입자가 $(50,000 - P)$ 원을 ○○금융회사에 납부하는 상품

B상품 : 2011년 12월 30일에 금 1g 가격(P)이 50,000원 이하이면 ○○금융회사는 $(50,000 - P)$ 원을 B상품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는 B상품 가입자가 $(P - 50,000)$ 원을 ○○금융회사에 납부하는 상품

C상품 : 2011년 12월 30일에 금 1g 가격(P)이 50,000원 이상일 경우, 1,000원을 내고 C상품에 가입한 가입자에게 ○○금융회사가 $(P - 50,000)$ 원을 지급하는 상품

D상품 : 2011년 12월 30일에 금 1g 가격(P)이 50,000원 이하일 경우, 1,000원을 내고 D상품에 가입한 가입자에게 ○○금융회사가 $(50,000 - P)$ 원을 지급하는 상품

- ※ 오늘(2011.2.25) 금 1g의 가격은 50,000원(변동 없음)이고 모든 금융상품은 오늘부터 2011년 12월 29일까지만 가입이 허용된다.
 - ※ 금 가격은 ○○금융회사의 영업시작시간 이전에 하루 한 번 변동된다.
 - ※ 이외의 다른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A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오늘 금 1g을 샀다가 2011년 12월 30일에 파는 것과 수익이 동일하다.
 - ② 2011년 12월 30일에 금 가격이 50,000원 이상일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C상품보다는 A상품에 가입할 것이다.
 - ③ 오늘 B상품에 가입하면서 금 1g을 사고 2011년 12월 30일에 이를 판매한다면, 금 시세와 무관하게 50,000원을 받을 수 있다.
 - ④ C상품과 D상품에 동시에 가입한다면, 2011년 12월 30일에 금 가격과 무관하게 손해를 보지 않는다.
 - ⑤ 오늘 금 1g을 구매하고 D상품에 가입한다면, 2011년 12월 30일에 손해는 최대 1,000원을 넘지 않는다.

2011 5급 (선) 35번

문 35. A, B, C, D 국가의 대표가 각 1명씩 참석하는 4개국 회의가 개최 중이다. 다음을 근거로 추론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경제 현황>

구분 \ 국가	A국	B국	C국	D국
1인당 GDP(\$)	45,000	3,000	40,000	20,000
경제성장률(%)	2	10	0	4
실업률(%)	9	4	5	3.5
금리(%)	3	5	2	2
물가상승률(%)	1	7	0	3
A국에 대한 수출(백만\$)	-	220	100	40
B국에 대한 수출(백만\$)	80	-	130	90
C국에 대한 수출(백만\$)	50	100	-	20
D국에 대한 수출(백만\$)	30	60	50	-
총수출(백만\$)	1,100	1,200	600	360
총수입(백만\$)	1,600	1,000	550	330

<발언 내용>

甲 : 우리나라는 본 회의 참가국들로부터의 수입 총액이 가장 적습니다.

乙 : B국이 외환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여 자국 화폐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B국에 대한 경상수지 적자가 다른 나라에 대한 경상수지 적자보다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丙 : 우리나라는 회의에 참가한 국가 중 고통지수가 가장 낮습니다.

丁 : A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A국에 내재된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환율은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 경상수지 = 수출 - 수입

※ 고통지수 = 물가상승률 + 실업률

- ① 丙은 C국 대표자이다.
- ② 甲의 출신국 경상수지는 흑자이다.
- ③ 丁의 출신국은 甲의 출신국에 대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 ④ 乙의 출신국은 B국에 대해 1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 ⑤ 丁은 A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B국뿐만 아니라 C국, D국에 대해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추가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

2012 5급 (인) 26번

문 26. 다음 글에 근거할 때, 甲의 관점에서 옳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세계 각국에서 상원의석을 지역별로 배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각 지역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 지역별로 의석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또한 상원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에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의회 등이 선출하는 간접적인 방식이다. 甲은 의석 배분에서 인구 비례가 엄격하게 반영될수록,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상원의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
- X국 하원의원은 인구비례로 선출되는데 반해 상원의원은 모든 주에서 두 명씩 선출된다. 따라서 인구가 가장 많은 a주(인구수: 3,600만 명)와 가장 적은 b주(인구수: 60만 명)에서 똑같이 2명의 상원의원이 선출된다. 1913년 이전에는 주의회가 상원의원을 선출했으나 1913년 헌법 개정 이후에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반면, Y국의 상원의원은 인구의 95 %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c주, d주, e주, f주에서 각각 24명씩 선출되고, 나머지 g주, h주, i주에서 각각 1명씩 선출된다. Y국에서는 지방의회가 상원의원을 선출한다. Z국 상원의 경우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주는 8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진 주는 3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그밖의 주들은 인구규모에 따라 4 ~ 7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한다.

- <보 기>

ㄱ. X국의 경우 1913년 헌법 개정 이후의 상원의원 선출 방식은 그 이전의 선출방식보다 더 민주적이다.

ㄴ. Y국은 상원의원의 선출방식과 상원의석의 배분방식에서 X국보다 더 민주적이다.

ㄷ. 상원의석의 배분방식에서 Z국은 X국보다 더 민주적이다.

ㄹ. X국의 b주에서 선출되는 상원의원의 수를 a주에서 선출되는 상원의원수보다 더 많게 하는 경우 현재의 의석 배분방식보다 더 민주적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2014 5급 (A) 10번

문 10. 다음 글과 <상황>에 근거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시에서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의 설계, 시공 등의 건설과정이 쾌적한 거주 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점수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건축물에 다음 <표>와 같이 인증등급을 부여한다.

<표> 평가점수별 인증등급

평가점수	인증등급
80점 이상	최우수
70점 ~ 80점 미만	우수
60점 ~ 70점 미만	우량
50점 ~ 60점 미만	일반

또한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 우수 등급이면서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또는 2등급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다음 <표>와 같은 취·등록세액 감면 혜택을 얻게 된다.

<표> 취·등록세액 감면 비율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	12 %	8 %
에너지효율 2등급	8 %	4 %

<상 황>

○ 甲은 A시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현재 이 건물의 예상 되는 친환경 건축물 평가점수는 63점이고 에너지효율은 3등급이다.

○ 친환경 건축물 평가점수를 1점 높이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에너지효율 등급을 한 등급 높이기 위해서는 2,000만 원의 추가 투자비용이 든다.

○ 甲이 신축하고 있는 건물의 감면 전 취·등록세 예상액은 총 20억 원이다.

○ 甲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 = 취·등록세 감면액 - 추가 투자액.
※ 기타 비용과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 기>

ㄱ. 추가 투자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최소 투자금액은 1억 1,000만 원이다.

ㄴ. 친환경 건축물 우수 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기 위해 추가 투자할 경우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크다.

ㄷ. 에너지효율 2등급을 받기 위해 추가 투자하는 것이 3등급을 받는 것보다 甲에게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015 5급 (인) 32번

문 32. 다음 글과 <2014년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 현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가. 아동안전지도 제작은 학교 주변의 위험·안전환경 요인을 초등학교들이 직접 조사하여 지도화하는 체험 교육과정이다. 관할행정청은 각 시·도 관내 초등학교의 30 % 이상이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도록 권장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나. 각 초등학교는 1개의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며, 이 지도를 활용하여 학교 주변의 위험환경을 개선한 경우 ‘환경개선 학교’로 등록된다.
다. 1년 동안의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점수 산식은 다음과 같다.

평가점수 = 학교참가도×0.6 + 환경개선도×0.4

○ 학교참가도 = $\frac{\text{제작학교 수}}{\text{관내 초등학교 수} \times 0.3} \times 100$
※ 단, 학교참가도가 100을 초과하는 경우 100으로 간주
○ 환경개선도 = $\frac{\text{환경개선학교 수}}{\text{제작학교 수}} \times 100$

<2014년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 현황>
(단위 : 개)

시	관내 초등학교 수	제작학교 수	환경개선학교 수
A	50	12	9
B	70	21	21
C	60	20	15

<보 기>

- ㄱ. A시와 C시의 환경개선도는 같다.
ㄴ.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시는 C시이다.
ㄷ. 2014년에 A시 관내 3개 초등학교가 추가로 아동안전 지도를 제작했다면, A시와 C시의 학교참가도는 동일했을 것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2016 5급 (4) 35번

문 35. 다음 글과 <결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콩쿠르 결선 진출자 7명에게는 결선 순위에 따라 상금이 주어진다. 단, 공동 순위는 없다.

○ 특별상은 순위와는 상관없이 결선 진출자 중에서 부문별로 한 명씩만 선정된다. 단, 수상자가 선정되지 않거나 한 명이 여러 부문에 선정될 수 있다.

○ 결선 순위별 상금과 특별상 부문별 상금은 다음과 같다.

<결선 순위별 상금>
(단위: 천 원)

순위	상금
1위	30,000
2위	25,000
3위	20,000
4위	15,000
5위	10,000
6위	7,000
7위	7,000

<특별상 부문별 상금>
(단위: 천 원)

부문	상금
인기상	3,000
기교상	3,000
감동상	5,000
창의상	10,000

<결 과>

결선 진출자들의 개인별 총 상금(내림차순)은 다음과 같다. C와 D가 받은 총 상금은 아래 목록에서 누락되었고, 이번 콩쿠르에서 7명의 결선 진출자에게 지급된 총 상금은 132,000천 원이다.

<결선 진출자별 총 상금>
(단위: 천 원)

결선 진출자	총 상금
A	35,000
B	33,000
C	?
D	?
E	10,000
F	7,000
G	7,000

<보 기>

ㄱ. B가 기교상을 받았다면, 인기상 수상자는 없다.

ㄴ. 감동상을 받은 사람이 다른 특별상을 중복하여 수상한 경우는 없다.

ㄷ. C가 결선에서 4위를 했을 가능성은 없다.

ㄹ. 결선 2위는 A 또는 C 중에서 결정되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ㄱ, ㄷ, ㄹ

2017 5급 (가) 33번

문 33. 다음 글과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A 매립지에서 8월에 쓰레기를 매립할 셀은?

A 매립지는 셀 방식으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 셀 방식은 전체 매립부지를 일정한 넓이의 셀로 나누어서 각 셀마다 쓰레기를 매립한다. 이 방식에 따르면 쓰레기를 매립할 셀을 지정해서 개방한 후, 해당 셀이 포화되면 순차적으로 다른 셀을 개방한다. 이는 쓰레기를 무차별적으로 매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매립과정을 쉽게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조 건>

- A 매립지는 4×4 셀로 구성되어 있다.
- 각 행에는 1, 2, 3, 4 중 서로 다른 숫자 1개가 각 셀에 지정된다.
- A 매립지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 개 이상의 셀로 이루어진 구획을 설정하고, 조감도에 두꺼운 테두리로 표현한다.
- 두 개 이상의 셀로 구성되는 구획에는 각 구획을 구성하는 셀에 지정된 숫자들을 모두 곱한 값이 다음 예와 같이 표현되어 있다.

예)

(24*)		

‘(24*)’는 구획을 구성하는 셀에 지정된 숫자를 모두 곱하면 24가 된다는 의미이다. 1, 2, 3, 4 중 서로 다른 숫자를 곱하여 24가 되는 3개의 숫자는 2, 3, 4밖에 없으므로 위의 셀 안에는 2, 3, 4가 각각 하나씩 들어가야 한다.

- A 매립지는 하나의 셀이 한 달마다 포화되고, 개방되는 셀은 행의 순서와 셀에 지정된 숫자에 의해 결정된다. 즉 1월에는 1행의 1이 쓰인 셀, 2월에는 2행의 1이 쓰인 셀, 3월에는 3행의 1이 쓰인 셀, 4월에는 4행의 1이 쓰인 셀에 매립이 이루어진다. 5월에는 1행의 2가 쓰인 셀, 6월에는 2행의 2가 쓰인 셀에 쓰레기가 매립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12월까지 매립이 이루어지게 된다.

<A 매립지 조감도>

(24*)	3	㉠	(3*) 1
(4*) ㉡	1	(12*) 4	3
1	㉢	3	(8*) 4
3	(4*) 4	㉣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018 5급 (나) 12번

문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甲국의 1일 통관 물량은 1,000건이며, 모조품은 1일 통관 물량 중 1 %의 확률로 존재한다.
 - 검수율은 전체 통관 물량 중 검수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제로 조사하는 비율을 뜻하는데, 현재 검수율은 10 %로 전문 조사 인력은 매일 10명을 투입한다.
 - 검수율을 추가로 10%p 상승시킬 때마다 전문 조사 인력은 1일당 2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 인건비는 1인당 1일 기준 30만 원이다.
 - 모조품 적발시 부과되는 벌금은 건당 1,000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를 차감한 나머지를 세관의 ‘수입’으로 한다.

※ 검수대상에 포함된 모조품은 모두 적발되고, 부과된 벌금은 모두 징수된다.

- <보 기> —————

 - ㄱ. 1일 평균 수입은 700만 원이다.
 - ㄴ. 모든 통관 물량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다면 수입보다 인건비가 더 클 것이다.
 - ㄷ. 검수율이 40 %면 1일 평균 수입은 현재의 4배 이상일 것이다.
 - ㄹ. 검수율을 30 %로 하는 방안과 검수율을 10 %로 유지한 채 벌금을 2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비교하면 벌금을 인상하는 방안의 1일 평균 수입이 더 많을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20 5급 (나) 17번

문 1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A사업의 상황별 대안의 기대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준Ⅰ, 기준Ⅱ, 기준Ⅲ을 이용하여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안을 비교·평가할 수 있다.
 기준Ⅰ은 최상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표 1>에서 각 대안의 최대 기대이익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큰 값을 갖는 ‘대안1’을 선택하는 것이다.
 기준Ⅱ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표 1>에서 각 대안의 최소 기대이익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큰 값을 갖는 ‘대안3’을 선택하는 것이다.

<표 1> ○○사업의 상황별 대안의 기대이익

구분	상황1	상황2	상황3	최대 기대이익	최소 기대이익
대안1	30	10	-10	30	-10
대안2	20	14	5	20	5
대안3	15	15	15	15	15

기준Ⅲ은 최대 ‘후회’가 가장 작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후회는 일정한 상황에서 특정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얻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한다. <표 1>의 상황별 최대 기대이익에서 각 대안의 기대이익을 차감하여 <표 2>와 같이 후회를 구할 수 있다. 이후 각 대안의 최대 후회를 비교하여, 그 중 가장 작은 값을 갖는 ‘대안2’를 선택하는 것이다.

<표 2> ○○사업의 후회

구분	상황1	상황2	상황3	최대 후회
대안1	0	5	25	25
대안2	10	1	10	10
대안3	15	0	0	15

<A사업의 상황별 대안의 기대이익>

구분	상황S ₁	상황S ₂	상황S ₃
대안A ₁	50	16	-9
대안A ₂	30	19	5
대안A ₃	20	15	10

<보 기>

ㄱ. 기준Ⅰ로 대안을 선택한다면, 대안A₂를 선택하게 된다.
 ㄴ. 기준Ⅱ로 대안을 선택한다면, 대안A₃을 선택하게 된다.
 ㄷ. 상황S₂에서 대안A₂의 후회는 11이다.
 ㄹ. 기준Ⅲ으로 대안을 선택한다면, 대안A₁을 선택하게 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ㄴ, ㄷ, ㄹ

2021 5급 (가) 9번

문 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도시 O, A, B, C는 순서대로 동일 직선상에 배치되어 있으며 도시 간 거리는 각각 30 km로 동일하다. ($\overline{OA}$: 30 km, $\overline{AB}$: 30 km, $\overline{BC}$: 30 km)

A, B, C가 비용을 분담하여 O에서부터 A와 B를 거쳐 C까지 연결하는 직선도로를 건설하려고 한다. A, B, C 주민은 O로의 이동을 위해서만 도로를 이용한다. 도로 1 km당 건설비용은 동일하다. 비용 분담안으로 다음 세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

○ I안: 각 도시가 균등하게 비용을 부담

○ II안: 각 도시가 이용 구간의 길이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

○ III안: 도로를 $\overline{OA}$, $\overline{AB}$, $\overline{BC}$ 로 나누어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도시가 해당 구간 건설비용을 균등하게 부담

- ① A에게는 III안이 가장 부담 비용이 낮다.

② B의 부담 비용은 I안과 II안에서 같다.

③ II안에서 A와 B의 부담 비용의 합은 C의 부담 비용과 같다.

④ I안에 비해 부담 비용이 낮아지는 도시의 수는 II안보다 III안에서 더 많다.

⑤ C의 부담 비용은 III안이 I안의 2배 이상이다.

2021 5급 (가) 12번

문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18시에서 20시 사이에 보행신호가 점등된 횟수는?

○ A시는 차량통행은 많지만 사람의 통행은 적은 횡단보도에 보행자 자동인식시스템을 설치하였다.

○ 보행자 자동인식시스템이 횡단보도 앞에 도착한 보행자를 인식하면 1분 30초의 대기 후에 보행신호가 30초간 점등되며, 이후 차량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2분간 보행신호는 점등되지 않는다. 점등 대기와 보행신호 점등, 차량통행 보장 시간 동안에는 보행자를 인식하지 않는다.

점등 대기

→

보행신호 점등

→

차량통행 보장

1분 30초

30초

2분

○ 보행신호가 점등되기 전까지 횡단보도 앞에 도착한 사람만 모두 건넌다.

○ 다음은 17시 50분부터 20시까지 횡단보도 앞에 도착한 사람의 수와 도착 시각을 정리한 것이다.

도착 시각	인원	도착 시각	인원
18:25:00	1	18:44:00	3
18:27:00	3	18:59:00	4
18:30:00	2	19:01:00	2
18:31:00	5	19:48:00	4
18:43:00	1	19:49:00	2

- ① 6
- ② 7
- ③ 8
- ④ 9
- ⑤ 10

2022 5급 (나) 17번

문 1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민은 A, B 두 집단으로 구분되며, 현행 정책과 개편안에 따라 각 집단에 속한 개인이 얻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집단	현행 정책	개편안
A	100	90
B	50	80

정부는 다음 (가), (나), (다) 중 하나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정책을 채택하려고 한다.

(가) 국민 전체 혜택의 합이 더 큰 정책을 채택한다.

(나) 개인이 얻는 혜택이 적은 집단에 더 유리한 정책을 채택한다.

(다) A, B 두 집단 간 개인 혜택의 차이가 더 작은 정책을 채택한다.

<보 기>

ㄱ. (가)를 판단기준으로 할 경우, A인구가 B인구의 4배라면 현행 정책이 유지된다.

ㄴ. (가)를 판단기준으로 할 경우, B인구가 전체 인구의 30 %라면 개편안이 채택된다.

ㄷ. (나)를 판단기준으로 할 경우, A와 B의 인구와 관계없이 개편안이 채택된다.

ㄹ. (다)를 판단기준으로 할 경우, A인구가 B인구의 5배라면 현행 정책이 유지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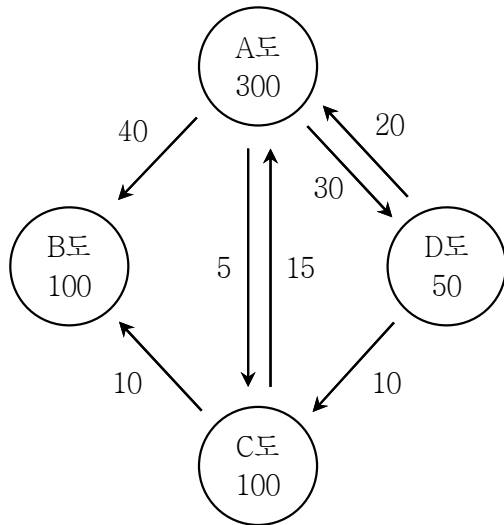
④ ㄷ, ㄹ

⑤ ㄱ, ㄴ, ㄷ

2012 민경채 (인) 24번

문 24. 다음 글에 근거할 때, <보기>에서 옳게 추론한 것을 모두 고르면?

- LOFI(Little Out From Inside)는 한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그 지역 내에서 소비된 비율을 의미한다. LOFI가 75 % 이상이면 해당 지역은 독립적인 시장으로 본다.
- A도, B도, C도, D도에는 각각 자도(自道)소주인 a소주, b소주, c소주, d소주를 생산하는 회사가 도별로 1개씩만 있다. 각 회사는 소주를 해당 도 내에서만 생산하지만, 판매는 다른 도에서도 할 수 있다.
- 다음 그림은 전체 지역의 지난 1년 간 도별 소주 생산량과 각 도 사이의 물류량을 표시한 것이다. 동그라미 안의 숫자는 각 도별 소주 생산량을 의미하고, 화살표는 이동의 방향을 나타낸다. 그리고 화살표 옆의 숫자는 소주의 이동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도에서 B도를 향한 화살표의 40은 a소주의 이동량을 나타낸다.



- 다만 D도의 d소주가 A도를 거쳐 B도에서 판매되는 것과 같이 2번 이상의 이동은 일어날 수 없다. 또한 1년 간 생산된 소주는 그 해에 모두 소비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자도소주의 LOFI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LOFI}_{\text{자도소주}} (\%) = \frac{\text{해당 도내 자도소주 소비량}}{\text{해당 도의 자도소주 생산량}} \times 100$$

— <보 기> —

- ㄱ. A도에서는 소주의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더 많다.
- ㄴ. A도와 B도가 하나의 도라면, 그 도는 독립적인 시장으로 볼 수 있다.
- ㄷ. C도는 독립적인 시장으로 볼 수 없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2013 민경채 (인) 25번

문 2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전 세계 벼 재배면적의 90 %가 아시아에 분포한다. 현재 벼를 재배하는 면적을 나라별로 보면, 인도가 4,300헥타르로 가장 넓고, 중국이 3,300헥타르로 그 다음을 잇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타이, 미얀마, 일본의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A국은 일본 다음이다.

반면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30 %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20 %를 생산하는 인도이다. 단위면적 당 쌀 생산량을 보면 A국이 헥타르 당 5.0톤으로 가장 많고 일본이 헥타르 당 4.5톤이다. A국의 단위면적 당 쌀 생산량은 인도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현재 A국의 단위면적 당 쌀 생산능력은 세계에서 제일 높다.

——<보 기>——

ㄱ. 중국의 단위면적 당 쌀 생산량은 인도의 약 2배이다.

ㄴ. 일본의 벼 재배면적이 A국보다 400헥타르가 크다면, 일본의 연간 쌀 생산량은 A국보다 많다.

ㄷ. 인도의 연간 쌀 생산량은 11,000톤 이상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2015 민경채 (인) 5번

문 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방사선은 원자핵이 분열하면서 방출되는 것으로 우리의 몸속을 비집고 들어오면 인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에 피해를 준다. 인체에 미치는 방사선 피해 정도는 ‘rem’이라는 단위로 표현된다. 1rem은 몸무게 1g당 감마선 입자 5천만 개가 흡수된 양으로 사람의 몸무게를 80kg으로 가정하면 4조 개의 감마선 입자에 해당한다. 감마선은 방사선 중에 관통력이 가장 강하다. 체르노빌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의 몸에 흡수된 감마선 입자는 각종 보호 장구에도 불구하고 400조 개 이상이었다.

만일 우리 몸이 방사선에 100rem 미만으로 피해를 입는다면 별다른 증상이 없다. 이처럼 가벼운 손상은 몸이 스스로 짧은 시간에 회복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 ‘문턱효과’가 있다고 한다. 일정량 이하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오는 경우 우리 몸이 스스로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문턱효과의 예라 할 수 있다. 방사선에 200rem 정도로 피해를 입는다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몸에 기운이 없어지고 구역질이 난다. 항암 치료로 방사선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300rem 정도라면 수혈이나 집중적인 치료를 받지 않는 한 방사선 피폭에 의한 사망 확률이 50%에 달하고, 1,000rem 정도면 한 시간 내에 행동불능 상태가 되어 어떤 치료를 받아도 살 수 없다.

※ 모든 감마선 입자의 에너지는 동일하다.

— <보 기> —

ㄱ. 몸무게 120kg 이상인 사람은 방사선에 300rem 정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수혈이나 치료를 받지 않아도 사망할 확률이 거의 없다.

ㄴ. 몸무게 50kg인 사람이 500조 개의 감마선 입자에 해당하는 방사선을 흡수한 경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구역질을 할 것이다.

ㄷ. 인체에 유입된 일정량 이하의 유해 물질이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 몸에 의해 자연스럽게 제거되는 경우 문턱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ㄹ. 체르노빌 사고 현장에 투입된 몸무게 80kg의 소방대원 A가 입은 방사선 피해는 100rem 이상이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5 민경채 (인) 19번

문 1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1678년 영의정 허적(許積)의 제의로 상평통보(常平通寶)가 주조·발행되어 널리 유통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적으로 조정이 운영하는 수공업이 쇠퇴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수공업이 발전함으로써 국내 시장의 상품교류가 확대되고, 1645년 회령 지방을 시초로 국경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화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임진왜란 이후 국가 재정이 궁핍하였으나 재정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1678년에 발행된 상평통보는 초주단자전(初鑄單字錢)이라 불리는데, 상평통보 1문(개)의 중량은 1전 2푼이고 화폐 가치는 은 1냥을 기준으로 400문으로 정하였으며 쌀 1되가 4문이었다.

1679년 조정은 상평통보의 규격을 변경하였다. 초주단자전을 대신하여 당이전(當二錢) 또는 절이전(折二錢)이라는 대형전을 주조·발행하였는데, 중량은 2전 5푼이었고 은 1냥에 대한 공인 교환율도 100문으로 변경하였다.

1678년부터 1680년까지 상평통보 주조·발행량은 약 6만 관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이전의 화폐 가치는 처음에는 제대로 유지되었지만 조정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을 증대하면서 1689년에 이르러서는 은 1냥이 당이전 400~800문이 될 정도로 그 가치가 폭락하였다. 1681년부터 1689년까지의 상평통보 주조·발행량은 약 17만 관이었다.

1752년에는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등 중앙의 3개 군사 부서와 지방의 통영에서도 중형상평통보(中型常平通寶)를 주조·발행하도록 하였다. 중형상평통보의 액면 가치는 당이전과 동일하지만 중량이 약 1전 7푼(1757년에는 1전 2푼)으로 당이전보다 줄어들고 크기도 축소되었다.

※ 상평통보 묶음단위 : 1관 = 10냥 = 100전 = 1,000문

※ 중량단위 : 1냥 = 10전 = 100푼 = 1,000리 = $\frac{1}{16}$ 근

- ① 초주단자전, 당이전, 중형상평통보 중 가장 무거운 것은 당이전이다.
- ② 은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상평통보의 가치는 경우에 따라 $\frac{1}{4}$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였다.
- ③ 1678년부터 1689년까지 주조·발행된 상평통보는 약 2억 3,000만 문으로 추정된다.
- ④ 1678년을 기준으로 은 1근은 같은 해에 주조·발행된 상평통보 4,600문의 가치를 가진다.
- ⑤ 상품교류 및 무역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상 필요에 따라 상평통보가 주조·발행되었다.

2015 민경채 (인) 23번

문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리그는 10개의 경기장에서 진행되는데, 각 경기장은 서로 다른 도시에 있다. 또 이 10개 도시 중 5개는 대도시이고 5개는 중소도시이다. 매일 5개 경기장에서 각각 한 경기가 열리며 한 시즌 당 각 경기장에서 열리는 경기의 횟수는 10개 경기장 모두 동일하다.

대도시의 경기장은 최대수용인원이 3만 명이고, 중소도시의 경기장은 최대수용인원이 2만 명이다. 대도시 경기장의 경우는 매 경기 60 %의 좌석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중소도시 경기장의 경우는 매 경기 70 %의 좌석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특정 경기장의 관중수는 그 경기장의 좌석 점유율에 최대수용인원을 곱하여 구한다.

- ① ○○리그의 1일 최대 관중수는 16만 명이다.
- ② 중소도시 경기장의 좌석 점유율이 10%p 높아진다면 대도시 경기장 한 곳의 관중수보다 중소도시 경기장 한 곳의 관중수가 더 많아진다.
- ③ 내년 시즌부터 4개의 대도시와 6개의 중소도시에서 경기가 열린다면 ○○리그의 한 시즌 전체 누적 관중수는 올 시즌 대비 2.5 % 줄어든다.
- ④ 대도시 경기장의 좌석 점유율이 중소도시 경기장과 같고 최대수용인원은 그대로라면, ○○리그의 1일 평균 관중수는 11만 명을 초과하게 된다.
- ⑤ 중소도시 경기장의 최대수용인원이 대도시 경기장과 같고 좌석 점유율은 그대로라면, ○○리그의 1일 평균 관중수는 11만 명을 초과하게 된다.

2018 민경채 (가) 24번

문 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엘로 평점 시스템(Elo Rating System)은 체스 등 일대일 방식의 종목에서 선수들의 실력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물리학자 아르파드 엘로(Arpad Elo)가 고안했다.

임의의 두 선수 X, Y의 엘로 점수를 각각 E_X , E_Y 라 하고 X가 Y에게 승리할 확률을 P_{XY} , Y가 X에게 승리할 확률을 P_{YX} 라고 하면, 각 선수가 승리할 확률은 다음 식과 같이 계산된다. 무승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두 선수가 승리할 확률의 합은 항상 1이 된다.

$$P_{XY} = \frac{1}{1 + 10^{-(E_X - E_Y)/400}}$$

$$P_{YX} = \frac{1}{1 + 10^{-(E_Y - E_X)/400}}$$

두 선수의 엘로 점수가 같다면, 각 선수가 승리할 확률은 0.5로 같다. 만약 한 선수가 다른 선수보다 엘로 점수가 200점 높다면, 그 선수가 승리할 확률은 약 0.76이 된다.

경기 결과에 따라 각 선수의 엘로 점수는 변화한다.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는 그 경기에서 패배할 확률에 K를 곱한 만큼 점수를 얻고, 경기에서 패배한 선수는 그 경기에서 승리할 확률에 K를 곱한 만큼 점수를 잃는다(K는 상수로, 보통 32를 사용한다). 승리할 확률이 높은 경기보다 승리할 확률이 낮은 경기에서 승리했을 경우 더 많은 점수를 얻는다.

— <보 기> —

- ㄱ.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가 얻는 엘로 점수와 그 경기에서 패배한 선수가 잃는 엘로 점수는 다를 수 있다.
- ㄴ. $K = 32$ 라면, 한 경기에서 아무리 강한 상대에게 승리해도 얻을 수 있는 엘로 점수는 32점 이하이다.
- ㄷ. A가 B에게 패배할 확률이 0.1이라면, A와 B의 엘로 점수 차이는 400점 이상이다.
- ㄹ. A가 B에게 승리할 확률이 0.8, B가 C에게 승리할 확률이 0.8이라면, A가 C에게 승리할 확률은 0.9 이상이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19 민경채 (나) 14번

문 1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현대적 의미의 시력 검사법은 1909년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개최된 국제안과학회에서 란돌트 고리를 이용한 검사법을 국제 기준으로 결정하면서 탄생하였다. 란돌트 고리란 시력 검사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C자형 고리를 말한다. 란돌트 고리를 이용한 시력 검사에서는 5 m 거리에서 직경이 7.5 mm인 원형 고리에 있는 1.5 mm 벌어진 틈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 5 m 거리의 1.5 mm이면 각도로 따져서 약 1′(1분)에 해당한다. 1°(1도)의 1/60이 1′이고, 1′의 1/60이 1″(1초)이다.

이 시력 검사법에서는 구분 가능한 최소 각도가 1′일 때를 1.0의 시력으로 본다. 시력은 구분 가능한 최소 각도와 반비례한다. 예를 들어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각도가 1′의 2배인 2′이라면 시력은 1.0의 1/2배인 0.5이다. 만약 이 최소 각도가 0.5′이라면, 즉 1′의 1/2배라면 시력은 1.0의 2배인 2.0이다. 마찬가지로 최소 각도가 1′의 4배인 4′이라면 시력은 1.0의 1/4배인 0.25이다. 일반적으로 시력 검사표에는 2.0까지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시력이 좋은 사람도 있다. 천문학자 A는 5″까지의 차이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보 기> ———

ㄱ.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각도가 10′인 사람의 시력은 0.1이다.

ㄴ. 천문학자 A의 시력은 12인 것으로 추정된다.

ㄷ.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각도가 1.25′인 甲은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각도가 0.1′인 乙보다 시력이 더 좋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

2019 민경채 (나) 24번

문 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사슴은 맹수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자 자신을 맹수로 바꾸어 달라고 산신령에게 빌었다. 사슴을 불쌍하게 여긴 산신령은 사슴에게 남은 수명 중 n 년(n 은 자연수)을 포기하면 여생을 아래 5가지의 맹수 중 하나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사슴으로 살 경우의 1년당 효용은 40이며, 다른 맹수로 살 경우의 1년당 효용과 그 맹수로 살기 위해 사슴이 포기해야 하는 수명은 아래의 <표>와 같다. 예를 들어 사슴의 남은 수명이 12년일 경우 사슴으로 계속 산다면 $12 \times 40 = 480$ 의 총 효용을 얻지만, 독수리로 사는 것을 선택한다면 $(12 - 5) \times 50 = 350$ 의 총 효용을 얻는다.

사슴은 여생의 총 효용이 줄어드는 선택은 하지 않으며, 포기해야 하는 수명이 사슴의 남은 수명 이상인 맹수는 선택할 수 없다. 1년당 효용이 큰 맹수일수록, 사슴은 그 맹수가 되기 위해 더 많은 수명을 포기해야 한다. 사슴은 자신의 남은 수명과 <표>의 ‘?’로 표시된 수를 알고 있다.

<표>

맹수	1년당 효용	포기해야 하는 수명(년)
사자	250	14
호랑이	200	?
곰	170	11
악어	70	?
독수리	50	5

<보 기>

ㄱ. 사슴의 남은 수명이 13년이라면, 사슴은 곰을 선택할 것이다.

ㄴ. 사슴의 남은 수명이 20년이라면, 사슴은 독수리를 선택 하지는 않을 것이다.

ㄷ. 호랑이로 살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수명이 13년이라면, 사슴의 남은 수명에 따라 사자를 선택했을 때와 호랑이를 선택했을 때 여생의 총 효용이 같은 경우가 있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020 7급 모의평가 8번

문 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과 ㉡에 들어갈 수를 옳게 짝지은 것은?

올림픽은 원칙적으로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대회이다. 제1회 하계 올림픽은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동계 올림픽은 1924년 프랑스 샤모니에서 개최되었다. 그런데 두 대회의 차수(次數)를 계산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올림픽 사이의 기간인 4년을 올림피아드(Olympiad)라 부르는데, 하계 올림픽의 차수는 올림피아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전 대회부터 하나의 올림피아드만큼 시간이 흐르면 올림픽 대회 차수가 하나씩 올라가게 된다. 대회가 개최되지 못해도 올림피아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회 차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제로 하계 올림픽은 제1·2차 세계대전으로 세 차례(1916년, 1940년, 1944년) 개최되지 못하였는데, 1912년 제5회 스톡홀름 올림픽 다음으로 1920년에 벨기에 안트베르펜에서 개최된 올림픽은 제7회 대회였다. 마찬가지로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다음으로 개최된 1948년 런던 올림픽은 제(㉠)회 대회였다. 반면에 동계 올림픽의 차수는 실제로 열린 대회만으로 정해진다. 동계 올림픽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두 차례(1940년, 1944년) 열리지 못하였는데, 1936년 제4회 동계 올림픽 다음 대회인 1948년 동계 올림픽은 제5회 대회였다. 이후 2020년 전까지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은 적은 없다.

1992년까지 동계·하계 올림픽은 같은 해 치러졌으나 그 이후로는 IOC 결정에 따라 분리되어 2년 격차로 개최되었다.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 대회는 이 결정에 따라 처음으로 하계 올림픽에 2년 앞서 치러진 대회였다. 이를 기점으로 동계 올림픽은 지금까지 4년 주기로 빠짐없이 개최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48년 런던 하계 올림픽에 처음 출전하여,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하계 올림픽과 1992년 제(㉡)회 알베르빌 동계 올림픽에서 각각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	㉡
①	12	16
②	12	21
③	14	16
④	14	19
⑤	14	21

2022 7급 (가) 6번

문 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의 자동차에 장착된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도중 대안경로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 시스템은 기존경로와 비교하여 남은 거리와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준다. 즉 목적지까지의 잔여거리(A)가 몇 km 증가·감소하는지, 잔여시간(B)이 몇 분 증가·감소하는지 알려준다. 甲은 기존경로와 대안경로 중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평균속력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로를 항상 선택한다.

——— <보 기> ———

ㄱ. A가 증가하고 B가 감소하면 甲은 항상 대안경로를 선택한다.

ㄴ. A와 B가 모두 증가하면 甲은 항상 대안경로를 선택한다.

ㄷ. A와 B가 모두 감소할 때 甲이 대안경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ㄹ. A가 감소하고 B가 증가할 때 甲이 대안경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022 7급 (가) 14번

문 1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부의 甲국장은 직원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乙주무관에게 직원 1,0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연수 희망 여부와 희망 지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甲과 乙은 그 결과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甲: 설문조사는 잘 시행되었나요?
乙: 예. 직원 1,000명 모두 연수 희망 여부에 대해 응답 하였습니다. 연수를 희망하는 응답자는 43 %였으며, 남자직원의 40 %와 여자직원의 50 %가 연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甲: 연수 희망자 전원이 희망 지역에 대해 응답했나요?
乙: 예. A지역과 B지역 두 곳 중에서 희망하는 지역을 선택하라고 했더니 B지역을 희망하는 비율이 약간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연수를 희망하는 여자직원 중 B지역 희망 비율은 연수를 희망하는 남자직원 중 B지역 희망 비율의 2배인 80 %였습니다.

————— <보 기> —————

ㄱ. 전체 직원 중 남자직원의 비율은 50 %를 넘는다.
ㄴ. 연수 희망자 중 여자직원의 비율은 40 %를 넘는다.
ㄷ. A지역 연수를 희망하는 직원은 200명을 넘지 않는다.
ㄹ. B지역 연수를 희망하는 남자직원은 100명을 넘는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2012 5급 (인) 6번

문 6.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옳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국은 양원제이면서 양당제 국가이다. ○○국의 상원 의원과 하원의원 선거구는 동일하며, 총 26개이다. 상·하원 의원 모두 임기는 4년이다. 하원의원 선거는 1970년에 처음 실시되었고, 상원의원 선거도 그로부터 2년 후에 처음 실시되었다. ○○국의 하원의원 선거 투표율은 1982년부터 199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1982년 선거에서는 총 유권자의 30 %가 투표에 참가하였고, 투표자의 59 %가 여당을, 41 %가 야당을 지지하였다. 하지만 1990년 선거에서는 총 유권자의 80 %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투표자 중 54 %가 여당을, 46 %가 야당을 지지하였다. 1990년 선거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선거구는 37 %의 투표율을 보인 A선거구였고, 이 투표율은 197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그 다음은 31 %의 투표율을 보인 B선거구였다. A·B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선거구 각각의 투표율은 1982년과 1986년의 해당 선거구의 투표율보다 더 낮았다.

※ 상원의원 선거와 하원의원 선거는 매 4년마다 실시되었다.

- <보 기>—————

ㄱ. 1980년에는 상원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ㄴ. 1984년 선거의 투표율은 30 % 미만에 머물렀다.
 ㄷ. A선거구의 투표율은 매 선거마다 다른 선거구보다 더 높았다.
 ㄹ. 1990년 선거에서 A·B선거구를 제외한 24개 선거구 가운데 투표율이 20 %를 넘는 선거구가 있을 수 있다.
 ㅁ. 1982년부터 1990년 사이의 하원의원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의 득표율 차이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2013 5급 (인) 22번

문 22. 다음 글을 근거로 추론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물은 공기와 더불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성인의 경우 체중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체내에서 물은 여러 가지 생리기능을 담당하는 용매로서 영양소를 운반하고, 체온조절을 하는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

사람은 물이 일정 비율 이상 부족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사람은 체내에 수분이 2%가 부족하면 심한 갈증을 느끼고, 5%가 부족하면 혼수상태에 빠지며, 12%가 부족하면 사망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항상 일정한 양의 수분을 보유하기 위해 수분배출량과 섭취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성인의 경우, 1일 기준으로 700 ml를 호흡으로, 200 ml를 땀으로, 1,500 ml를 소변으로, 100 ml를 대변으로 수분을 배출하므로 우리는 그 만큼의 수분을 매일 섭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1일 수분섭취량의 약 30%는 음식을 통해 공급받는다.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은 종류에 따라 수분함량이 다르다. 예를 들어 상추는 수분함량이 96%나 되지만 감자는 80%, 쌀밥은 66%, 버터는 20%이며 김은 10%에 불과하다.

※ 단, 물 1,000 ml의 무게는 1,000 g이다.

- <보 기>

ㄱ. 60 kg 성인의 경우, 체내에서 차지하는 수분의 무게는 약 36 kg이다.
 ㄴ. 80 kg 성인의 경우, 체내에서 약 4,760 ml의 수분이 부족하면 사망하게 된다.
 ㄷ. 70 kg 성인의 경우, 성인 1일 기준 수분배출량만큼의 수분이 부족하면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ㄹ. 성인 1일 기준 수분배출량의 30%를 상추와 쌀밥만으로 섭취한다고 할 때, 상추 400 g과 쌀밥 300 g이면 충분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ㄷ, ㄹ

2013 외교 (인) 23번

문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피부색은 멜라닌, 카로틴 및 헤모글로빈이라는 세 가지 색소에 의해 나타난다. 흑색 또는 흑갈색의 색소인 멜라닌은 멜라노사이트라 하는 세포에서 만들어지며, 계속적으로 표피 세포에 멜라닌 과립을 공급한다. 멜라닌의 양이 많을수록 피부색이 황갈색에서 흑갈색을 띠고, 적을수록 피부색이 옅어진다. 멜라닌은 피부가 햇빛에 노출될수록 더 많이 생성된다. 카로틴은 주로 각질층과 하피의 지방조직에 존재하며, 특히 동양인의 피부에 풍부하여 그들의 피부가 황색을 띠게 한다. 서양인의 혈색이 분홍빛을 띠는 것은 적혈구 세포 내에 존재하는 산화된 헤모글로빈의 진홍색에 기인한다. 골수에서 생성된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1개의 적혈구는 3억 개의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으며, 1개의 헤모글로빈에는 4개의 헴이 있다. 헴 1개가 산소 분자 1개를 운반한다.

한편 태양이 방출하는 여러 파장의 빛, 즉 적외선, 자외선 그리고 가시광선 중 피부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외선이다. 자외선은 파장이 가장 길고 피부 노화를 가져오는 자외선 A, 기미와 주근깨 등의 색소성 질환과 피부암을 일으키는 자외선 B, 그리고 화상과 피부암 유발 위험을 지니며 파장이 가장 짧은 자외선 C로 구분된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다. 자외선 차단제에 표시되어 있는 자외선 차단지수(sun protection factor : SPF)는 자외선 B를 차단해주는 시간을 나타낼 뿐 자외선 B의 차단 정도와는 관계가 없다. SPF 수치는 1부터 시작하며, SPF 1은 자외선 차단 시간이 15분임을 의미한다. SPF 수치가 1단위 올라갈 때마다 자외선 차단 시간은 15분씩 증가한다. 따라서 SPF 4는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차단시켜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 <보 기> —

- ㄱ. 멜라닌의 종류에 따라 피부색이 결정된다.
- ㄴ. 1개의 적혈구는 산소 분자 12억 개를 운반할 수 있다.
- ㄷ. SPF 50은 SPF 30보다 1시간 동안 차단하는 자외선 B의 양이 많다.
- ㄹ. SPF 40을 얼굴에 한 번 바르면 10시간 동안 자외선 B의 차단 효과가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13 외교 (인) 28번

문 28. 다음은 ○○기관의 제휴시설 안내 홈페이지의 일부인 <호텔 상호 리스트>와 <지역별 리스트>이다. 이를 근거로 추론할 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호텔 상호 리스트>

호텔

콘도미니엄

지역별

● 남송마리나피싱리조트 (1)

● 남해스포츠파크 호텔 (1)

● 노보텔 엠베서더 (4)

● 대둔산관광호텔 (1)

● 호텔인터시티 (1)

● 신안비치호텔 (1)

● 씨클라우드 호텔 (1)

● 유성호텔 (1)

● 켄싱턴호텔 (2)

● 코모도호텔 (1)

● 춘천세종호텔 (1)

● 단양관광호텔 (1)

● 호텔농심 (1)

● 해운대그랜드호텔 (1)

● 서울교육문화회관 (1)

● 경주교육문화회관 (1)

●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1)

● 라마다호텔&스위트 (2)

● 해운대 센텀호텔 (1)

● 라마다송도호텔 (1)

●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1)

● 송도파크호텔 (1)

● 더클래스300 호텔 (1)

● 해남땅끝호텔 (1)

● 한옥호텔 영산재 (1)

● 여수엠블호텔 (1)

숙소명	소재지	상세보기
남송마리나피싱리조트	경남 남해군 삼동면	[상세보기]

<지역별 리스트>

호텔

콘도미니엄

지역별

● 서울 (5)

● 부산 (7)

● 대구 (1)

● 인천 (2)

● 광주 (1)

● 대전 (2)

● 경기 (5)

● 강원 (15)

● 충북 (4)

● 충남 (3)

● 전북 (3)

● 전남 (9)

● 경북 (3)

● 경남 (4)

● 제주 (5)

숙소명	소재지	상세보기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지점	서울시 강남구	[상세보기]
노보텔 엠베서더 독산지점	서울시 금천구	[상세보기]
라마다호텔&스위트 남대문지점	서울시 중구	[상세보기]
라마다호텔&스위트 동대문지점	서울시 중구	[상세보기]
서울교육문화회관	서울시 서초구	[상세보기]

- ※ ○○기관은 호텔과 콘도미니엄만을 제휴시설로 한다.
- ※ 호텔과 콘도미니엄 리스트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제휴시설은 없다.
- ※ <호텔 상호 리스트>에서 지역명을 포함한 호텔은 그 해당 지역에 위치한다.

<보 기>

ㄱ. 기관과 제휴된 호텔 수와 콘도미니엄 수는 동일하다.

ㄴ. 하나의 시·도에 동일 상호를 사용하는 호텔이나 콘도미니엄은 없다.

ㄷ. 기관과 제휴된 호텔은 모두 호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ㄹ. 기관과 제휴된 콘도미니엄이 없는 시·도가 있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2014 5급 (A) 21번

문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부는 2013년 11월 김치 담그는 비용을 지수화한 ‘김치지수’를 발표했다. 김치지수는 개별품목 가격이 아닌 김치재료를 포괄하는 비용을 지수화한 것이다. ○○부는 김치재료 13개 품목의 소매가격을 바탕으로 기준가격을 산출했다. 4인 가족 기준 13개 품목은 배추 20포기(60 kg), 무 10개(18 kg), 고춧가루 1.86 kg, 깐마늘 1.2 kg, 대파 2 kg, 쪽파 2.4 kg, 흡생강 120 g, 미나리 2 kg, 갓 2.6 kg, 굴 2 kg, 멸치액젓 1.2 kg, 새우젓 1 kg, 굵은소금 8 kg이다.

○○부는 2008년부터 2012년 중 최고, 최저를 제외한 3개년의 평균비용을 김치지수 100으로 간주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이번 달의 김치지수는 91.3이며 김치를 담그는 비용은 19만 5,214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김장철 기준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김치지수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배추파동이 있었던 2010년 10월로 152.6이었으며 김치를 담그는 비용은 32만 6,387원으로 평년 동월 대비 45.0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간 평균 김치지수가 가장 높았던 2012년의 김치지수는 113.5였다. 이는 고춧가루 가격이 연중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배추 가격도 평년보다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 <보 기> —————

ㄱ.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국내보다 저렴한 고춧가루를 대량으로 수입하여 고춧가루 소매가격이 하락하면 김치지수가 상승할 것이다.

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모든 해산물 및 해산물 가공 제품의 소매가격이 상승할 경우 김치지수는 상승할 것이다.

ㄷ. 2008년부터 2012년 중 최고, 최저를 제외한 3개년의 김치를 담그는 평균 비용은 20만 원을 초과할 것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4 5급 (A) 23번

문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4(210 mm×297 mm)를 비롯한 국제표준 용지 규격은 독일 물리학자 게오르크 리히텐베르크에 의해 1786년에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이른바 A시리즈 용지들의 면적은 한 등급 올라갈 때마다 두 배로 커진다. 한 등급의 가로는 그 위 등급의 세로의 절반이고, 세로는 그 위 등급의 가로와 같으며, 모든 등급들의 가로 대 세로 비율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용지들의 가로를 W, 세로를 L이라고 하면, 한 등급의 가로 대 세로 비율과 그 위 등급의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등식 $W/L = L/2W$ 이 성립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L^2 = 2W^2$ 이 성립해야 하므로 가로 대 세로 비율은 1 대 $\sqrt{2}$ 가 되어야 한다. 요컨대 세로가 가로의 $\sqrt{2}$ 배여야 한다. $\sqrt{2}$ 는 대략 1.4이다.

이 비율 덕분에 우리는 A3 한 장을 축소복사하여 A4 한 장에 꼭 맞게 출력할 수 있다. A3를 A4로 축소할 때의 비율은 복사기의 제어판에 70 %로 표시된다. 왜냐하면 그 비율은 길이를 축소하는 비율을 의미하고, $1/\sqrt{2}$ 은 대략 0.7이기 때문이다. 이 비율로 가로와 세로를 축소하면 면적은 1/2로 줄어든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에서 쓰이는 미국표준협회 규격 용지들은 가로와 세로가 인치 단위로 정해져 있으며, 레터 용지(8.5인치×11.0인치), 리절용지(11인치×17인치), 이그제 큐티브용지(17인치×22인치), D레저용지(22인치×34인치), E레저용지(34인치×44인치)가 있다. 미국표준협회 규격 용지의 경우, 한 용지와 그보다 두 등급 위의 용지는 가로 대 세로 비율이 같다.

— <보 기> —

- ㄱ. 국제표준 용지 중 A2 용지의 크기는 420 mm×594 mm 이다.
- ㄴ. A시리즈 용지의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의 용지를 잘라서 바로 아래 등급의 용지 두 장을 만들 수 있다.
- ㄷ. A시리즈 용지의 경우, 한 등급 위의 용지로 확대복사할 때 복사기의 제어판에 표시되는 비율은 130 %이다.
- ㄹ. 미국표준협회 규격 용지의 경우, 세로를 가로로 나눈 값은 $\sqrt{2}$ 이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2016 5급 (4) 3번

문 3. 다음 글과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흉작에 대비하여 군현 차원에서 수령이 취해야 할 대책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는 효과적인 대책으로 권분(勸分)을 꼽았는데, 권분이란 군현에서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곡식을 내놓도록 권하는 제도였다.

권분의 대상자는 요호(饒戶)라고 불렀다. 요호는 크게 3등(等)으로 구분되는데, 각 등은 9급(級)으로 나누어졌다. 상등 요호는 봄에 무상으로 곡물을 내놓는 진희(賑籩), 중등 요호는 봄에 곡물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상환받는 진대(賑貸), 하등 요호는 봄에 곡물을 시가의 1/4로 판매하는 진조(賑糶)를 권분으로 행하였다. 정약용이 하등 요호 8, 9급 까지 권분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현실적으로 상등 요호와 중등 요호는 소수이고 하등 요호가 대다수이었기 때문이다.

상등 요호 1급의 진희량은 벼 1,000석이고, 요호의 등급이 2급, 3급 등으로 한 급씩 내려갈 때마다 벼 100석씩 감소하였다. 중등 요호 1급의 진대량은 벼 100석이고, 한 급씩 내려갈 때마다 벼 10석씩 감소하였다. 하등 요호 1급의 진조량은 벼 10석이고, 한 급씩 내려갈 때마다 벼 1석씩 감소하였다. 조선시대 국법은 벼 50석 이상 권분을 행한 자부터 시상(施賞)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상등 요호들은 이러한 자격조건을 충분히 넘어섰고, 이들에게는 군역 면제의 혜택이 주어졌다.

- <조 건> ———
- 조선시대 벼 1석의 봄 시가: 6냥
 - 조선시대 벼 1석의 가을 시가: 1.5냥

- <보 기> ———
- ㄱ. 상등 요호 1급 甲에게 정해진 권분량과 하등 요호 9급 乙에게 정해진 권분량의 차이는 벼 999석이었을 것이다.
 - ㄴ. 중등 요호 6급 丙이 권분을 다한 경우, 조선시대 국법에 의하면 시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 ㄷ. 중등 요호 7급 丁에게 정해진 권분량의 대여시점과 상환시점의 시가 차액은 180냥이었을 것이다.
 - ㄹ. 상등 요호 9급 戊에게 정해진 권분량의 권분 당시 시가는 1,200냥이었을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016 5급 (4) 4번

문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독일의 통계학자 A는 가계지출을 음식비, 피복비, 주거비, 광열비, 문화비(교육비, 공과금, 보건비, 기타 잡비)의 5개 항목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그 결과 소득의 증가에 따라 총 가계지출 중 음식비 지출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피복비 지출은 소득의 증감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주거비와 광열비에 대한 지출 비중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고, 문화비 지출 비중은 소득 증가에 따라 급속하게 증가한다는 것도 알아냈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아울러 ‘A의 법칙’이라고 한다. 특히 이 가운데서 가계지출 중 음식비 지출 비중만을 따로 떼어 내어 ‘A계수’라고 한다. A계수는 총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음식비의 비중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지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가계지출 중 자녀 교육비의 비중을 나타낸 수치를 ‘B계수’라고 한다. 지난 1분기 가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12만 원으로 가계지출의 10%였다. 반면 가계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72만 원으로 가계소득 하위 20% 가구의 6배에 달했고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였다.

- ① 가계소득이 증가할 때 A계수와 B계수는 모두 높아질 것이다.
- ② 소득이 높은 가계라도 가계구성원 모두가 값비싼 음식을 선호한다면 소득이 낮은 가계보다 A계수가 높을 수 있다.
- ③ A의 법칙에 의하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음식비 지출액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 ④ 지난 1분기 가계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가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3배이다.
- ⑤ 지난 1분기 가계소득 분위별 교육비 지출액 현황을 볼 때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교육열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017 5급 (가) 3번

문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모든 신호등은 ‘신호운영계획’에 따라 움직인다. 신호운영 계획이란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순서, 신호시간, 신호주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신호순서’란 방향별, 회전별 순서를 말하고, ‘신호시간’이란 차량 또는 보행자 신호등이 켜진 상태로 지속되는 시간을 말하며, ‘신호주기’란 한 신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최초로 같은 신호가 나오기까지의 시간 간격을 말한다.

‘횡단보도 보행시간’은 기본적으로 보행진입시간 (㉠)초에 횡단시간(횡단보도 1m당 1초)을 더하여 결정되는데, 예외적으로 보행약자나 유동인구가 많아 보행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더 긴 횡단시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길이가 32m인 횡단보도 보행시간은 원칙적으로 39초이지만, 어린이,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이동이 많아 배려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경우 ‘1m당 1초’ 보다 완화된 ‘(㉡)m당 1초’를 기준으로 횡단시간을 결정하여, 32m 길이 횡단보도의 보행시간을 47초로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신호가 바뀔 때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전(全)방향 적색신호’, ‘한 박자 늦은 보행신호’ 방식을 운영하기도 한다. 전방향 적색신호 방식은 차량 녹색신호가 끝나는 시점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교차로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다른 방향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1~2초 동안 모든 방향을 적색신호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한 박자 늦은 보행신호 방식은 차량 녹색신호가 끝나는 시점에 진입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완전히 통과하기 전에 보행자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량 녹색신호가 끝나고 1~2초 뒤에 보행 녹색 신호가 들어오는 방식이다.

—————<보 기>—————

ㄱ. ‘한 박자 늦은 보행신호’ 방식은 차량과 보행자 사이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식이다.

ㄴ. 어떤 교차로에는 모든 차량신호등이 적색이 되는 시점이 있다.

ㄷ. ㉠과 ㉡의 합은 8보다 크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2019 5급 (가) 7번

문 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다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이상적인 점포 입지를 결정하기 위한 상권분석이론에는 ‘X가설’과 ‘Y가설’이 있다. X가설에 의하면, 소비자는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점포들 중 한 점포를 선택할 때 가장 가까운 점포를 선택한다. 그러나 이동거리가 점포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소비자가 항상 가장 가까운 점포를 찾는다는 X가설이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가령, 소비자들은 먼 거리에 위치한 점포가 보다 나은 구매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동에 따른 추가 노력을 보상한다면 기꺼이 먼 곳까지 찾아간다. 한편 Y가설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어떤 지역에 대한 각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은 각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각 도시로부터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본다. 즉,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더 많은 구매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고 본 것이다.

예를 들어, 일직선 상에 A, B, C 세 도시가 있고, C시는 A시와 B시 사이에 위치하며, C시는 A시로부터 5km, B시로부터 10km 떨어져 있다. 그리고 A시 인구는 50만 명, B시의 인구는 400만 명, C시의 인구는 9만 명이다. 만약 A시와 B시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C시의 모든 인구가 A시와 B시에서만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Y가설에 따라 A시와 B시로 구매활동에 유인되는 C시의 인구 규모를 계산할 수 있다. A시의 흡인력은 $20,000 (= 50\text{만} \div 25)$, B시의 흡인력은 $40,000 (= 400\text{만} \div 100)$ 이다. 따라서 9만 명인 C시의 인구 중 $1/3$ 인 3만 명은 A시로, $2/3$ 인 6만 명은 B시로 흡인된다.

- <보 기>———
- ㄱ. X가설에 따르면, 소비자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점포들 중 한 점포를 선택할 때 소비자는 더 싼 가격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더 먼 거리에 있는 점포에 간다.
 - ㄴ. Y가설에 따르면, 인구 및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거리가 가까운 도시일수록 이상적인 점포 입지가 된다.
 - ㄷ. Y가설에 따르면, C시로부터 A시와 B시가 떨어진 거리가 5km로 같다고 가정할 때 C시의 인구 중 8만 명이 B시로 흡인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019 5급 (가) 35번

문 3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국 의회의 의원 정수는 40명이다. 현재는 4개의 선거구(A ~ D)로 이루어져 있고 각 선거구에서 10명씩 의원을 선출한다. 정당은 각 선거구별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는다. 각 선거구에서 정당별 의석수는 정당별 득표율에 그 선거구의 총 의석수를 곱한 수에서 소수점 이하를 제외한 정수만큼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가 큰 순서대로 1석씩 차례로 배분한다. 그런데 유권자 1표의 가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선거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X안이 논의 중이다.

X안은 현재의 4개 선거구를 2개의 선거구로 통합하되, 이 경우 두 선거구 유권자수가 1:1이 되도록 A, C선거구와 B, D선거구를 각각 통합한다. 이때 통합된 A·C선거구와 B·D선거구의 의석수는 각각 20석이다. 선거구별 정당 의석 배분 방식은 현행제도와 동일하다. 다음은 ○○국에서 최근 실시된 의원 선거의 각 선거구별 유권자수와 정당 득표수이다.

<선거구별 유권자수>

(단위: 천 명)

선거구	A	B	C	D	합계
유권자수	200	400	300	100	1,000

<선거구별 정당 득표수>

(단위: 천 표)

선거구 정당	A	B	C	D
甲	80	120	150	40
乙	60	160	60	40
丙	40	40	90	10
丁	20	80	0	10
합계	200	400	300	100

- ※ 특정 선거구 ‘유권자 1표의 가치’는 해당 선거구 의원 의석수를 해당 선거구 유권자수로 나눈 값임
- ① 최근 실시된 의원 선거에서 유권자 1표의 가치가 가장 큰 곳은 B선거구이다.

② 최근 실시된 의원 선거의 결과에 X안을 적용할 경우, 丁정당의 의석수는 현행제도보다 늘어난다.

③ 최근 실시된 의원 선거의 결과에 X안을 적용할 경우, 甲정당의 의석수는 현행제도와 차이가 없다.

④ 최근 실시된 의원 선거의 결과에 X안을 적용할 경우, A선거구 유권자 1표의 가치가 현행제도보다 커진다.

⑤ 최근 실시된 의원 선거의 결과에 X안을 적용할 경우, 乙정당과 丙정당은 의석수에 있어서 현행제도가 X안보다 유리하다.

2021 5급 (가) 7번

문 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맥동변광성(脈動變光星)은 팽창과 수축을 되풀이하면서 밝기가 변하는 별이다. 맥동변광성은 변광 주기가 길수록 실제 밝기가 더 밝다. 이를 ‘주기-광도 관계’라 한다.

세페이드 변광성은 보통 3일에서 50일 이내의 변광 주기를 갖는 맥동변광성이다. 지구에서 관찰되는 별의 밝기는 지구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밝기는 측정하기 어려운데, 세페이드 변광성의 경우는 주기-광도 관계를 이용하여 실제 밝기를 알 수 있다.

별의 밝기는 등급으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지구에서 측정한 밝기인 겉보기등급과 실제 밝기를 나타낸 절대등급이 있다. 두 경우 모두 등급의 수치가 작을수록 밝은데, 그 수치가 1 줄어들 때마다 2.5배 밝아진다. 겉보기등급이 절대등급과 다른 까닭은 별의 밝기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한편 모든 별이 지구로부터 10파섹(1파섹 = 3.26광년)의 일정한 거리에 있다고 가정하고 지구에서 관찰된 밝기를 산출한 것을 절대등급이라고 한다. 어느 성단에서 세페이드 변광성이 발견되면 주기-광도 관계에 따라 별의 절대등급을 알 수 있으므로, 겉보기등급과의 차이를 보아 그 성단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천문학자 W. 바데는 세페이드 변광성에 두 종류가 있으며, I형 세페이드 변광성이 동일한 변광 주기를 갖는 II형 세페이드 변광성보다 1.5등급만큼 더 밝다는 것을 밝혀냈다.

——— <보 기> ———

ㄱ. 변광 주기가 10일인 I형 세페이드 변광성은 변광 주기가 50일인 I형 세페이드 변광성보다 어둡다.

ㄴ. 변광 주기가 동일한 두 개의 II형 세페이드 변광성의 겉보기등급 간에 수치 차이가 1이라면, 지구로부터 두 별까지의 거리의 비는 2.5이다.

ㄷ. 실제 밝기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변광 주기가 20일인 I형 세페이드 변광성은 같은 주기의 II형 세페이드 변광성보다 2.5배 이상 밝다.

ㄹ. 지구로부터 1파섹 떨어진 별의 밝기는 절대등급과 겉보기등급이 동일하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ㄷ

2021 5급 (가) 18번

문 1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보고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규모 외환거래는 런던, 뉴욕, 도쿄, 프랑크푸르트, 싱가포르 같은 금융중심지에서 이루어진다. 최근 들어 세계 외환거래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하루 평균 세계 외환거래액은 1989년에 6천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2019년에는 6조 6천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은행 간 외환거래는 대부분 미국 달러를 통해 이루어진다. 달러는 이처럼 외환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축통화라고 불린다. 기축통화는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거래 참여자가 국제거래를 위해 널리 사용하는 통화이다. 1999년 도입된 유럽 유로는 달러와 동등하게 기축통화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20년 세계 외환거래액의 32%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이는 4년 전보다는 2%p 높아진 것이지만 10년 전보다는 오히려 8%p 낮아진 수치이다.

— <상 황> —

2010년과 2016년의 하루 평균 세계 외환거래액은 각각 3조 9천억 달러와 5조 2천억 달러였다. ○○은행 국제자본 이동분석팀장 甲은 2016년 유로로 이루어진 하루 평균 세계 외환거래액을 2010년과 비교(달러 기준)하여 보고하려 한다.

- ① 10억 달러 감소

② 10억 달러 증가

③ 100억 달러 감소

④ 100억 달러 증가

⑤ 변화 없음

2021 5급 (가) 27번

문 2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질병의 확산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수치 중 하나로 ‘기초 감염재생산지수(R_0)’가 있다. 간단히 말해 이 수치는 질병에 대한 예방조치가 없을 때, 해당 질병에 감염된 사람 한 명이 비감염자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다만 이 수치는 질병의 전파 속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R_0 가 4라고 하면 예방조치가 없을 때, 한 사람의 감염자가 질병에서 회복하거나 질병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그 질병을 평균적으로 4명의 비감염자에게 옮긴다는 뜻이다. 한편 또 하나의 질병 통계치인 치사율은 어떤 질병에 걸린 환자 중 그 질병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R_0 의 크기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예방조치가 없을 때, R_0 가 1보다 큰 질병은 전체 개체군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 수치는 때로 1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스페인 독감은 3, 천연두는 6, 홍역은 무려 15였다. 전염성이 강한 질병 중 하나로 꼽히는 말라리아의 R_0 는 100이 넘는다.

문제는 특정 전염병이 한 차례 어느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후 관련 통계 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흐르고 난 뒤에야, 그 질병의 R_0 에 대해 믿을 만한 추정치가 나온다는 데 있다. 그렇기에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초기에는 얼마 되지 않는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 R_0 와 마찬가지로 치사율도 확산 초기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상 황>

다음 표는 甲국의 최근 20년간의 데이터를 토대로 A~F 질병의 R_0 를 추정한 것이다.

질병	A	B	C	D	E	F
R_0	100	15	6	3	2	0.5

- ① 예방조치가 없다면, 발병 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질병은 A일 것이다.

② 예방조치가 없다면, A~F질병 모두가 전 국민을 감염시킬 것이다.

③ 예방조치가 없다면, C질병이 전 국민을 감염시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D질병의 절반일 것이다.

④ R_0 와 달리 치사율은 전염병의 확산 초기 단계에서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⑤ 예방조치가 없다면, 감염자 1명당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 수의 평균은 B질병이 D질병의 5배일 것이다.

2022 5급 (나) 7번

문 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한 지리학자는 임의의 국가에 분포하는 도시를 인구규모 순으로 배열할 때, 도시 순위와 인구규모 사이에 일정한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도시의 순위규모 법칙이라고 부르며, 이에 따른 분포를 ‘순위규모분포’라고 한다. 순위규모분포가 나타나는 경우 인구규모 두 번째 도시의 인구는 인구규모가 가장 큰 도시인 수위도시 인구의 1/2이고, 세 번째 도시의 인구는 수위도시 인구의 1/3이 된다. 그 이하의 도시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이와 달리 한 국가의 인구규모 1위 도시에 인구가 집중 되는 양상이 나타나면 이를 ‘종주분포’라고 한다. 도시화가 전국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인구규모 2위 이하의 도시에 비해 1위 도시의 인구규모가 훨씬 큰 종주분포 형태를 보인다. 이때 인구규모가 첫 번째인 도시를 종주 도시라고 부른다. 종주분포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종주도시지수가 사용된다. 종주도시지수는 ‘1위 도시의 인구 ÷ 2위 도시의 인구’로 나타낸다. 대체로 개발도상국의 경우 급속한 산업화로 종주도시로의 인구집중이 현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종주도시지수가 높다.

- <상 황>

○ 순위규모분포를 보이는 A국에서 인구규모 세 번째 도시의 인구는 200만 명이다.

○ 종주분포를 보이는 B국에서 인구규모 두 번째 도시의 인구는 200만 명이고 종주도시지수는 3.3이다.

① A국의 수위도시와 인구규모 두 번째 도시 간 인구의 차이는 300만 명이다.

② B국의 인구규모 세 번째 도시의 인구는 종주도시의 1/3이다.

③ B국의 종주도시 인구는 A국의 수위도시에 비해 40만 명 적다.

④ 인구규모 첫 번째 도시와 두 번째 도시의 인구 합은 A국이 B국보다 60만 명 더 많다.

⑤ A국과 B국의 인구규모 두 번째 도시 인구는 동일하다.

2024 5급 (나) 7번

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상대습도란 현재 대기 중의 수증기량을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는 현재 온도에서 공기가 최대로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에 대한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의 비율이다. 상대습도가 100 %일 때를 포화 상태라고 표현하며, 이때는 물과 수증기가 평형을 이루어 수증기의 양이 늘거나 줄지 않는다.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증가하고 기온이 내려갈수록 감소하는데,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여 현재 수증기량보다 적어지면 초과한 만큼의 수증기가 응결되어 물이 된다.

— <보 기> —

ㄱ. 포화 수증기량이 20 % 증가하면 상대습도는 20 % 낮아진다.
ㄴ. 상대습도가 80 %인 공기의 수증기량을 증가시켜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다.
ㄷ. 밀폐된 공간의 공기 온도가 올라가면 상대습도는 높아진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2015 민경채 (인) 25번

문 25. 다음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초록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과 A 입장에서 왼편에 앉은 사람으로 모두 옳은 것은?

- <조 건>

2017 민경채 (나) 22번

문 22. 다음 글과 <표>를 근거로 판단할 때, 백설공주의 친구 7명(A~G) 중 왕자의 부하는 누구인가?

- ☐ A~G 중 2명은 왕자의 부하이다.

☐ B~F는 모두 20대이다.

☐ A~G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왕자의 부하가 아니다.

☐ A~G 중 여자보다 남자가 많다.

☐ 왕자의 두 부하는 성별이 서로 다르고, 국적은 동일하다.

<표>

친구	나이	성별	국적
A	37살	?	한국
B	28살	?	한국
C	22살	여자	중국
D	?	여자	일본
E	?	?	중국
F	?	?	한국
G	38살	여자	중국

- ① A, B

② B, F

③ C, E

④ D, F

⑤ E, G

2017 민경채 (나) 23번

문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연구소 신입직원 7명(A ~ G)의 부서배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연구소에서는 신입직원 7명을 선발하였으며, 신입직원들을 각 부서에 배치하고자 한다. 각 부서에서 요구한 인원은 다음과 같다.

정책팀	재정팀	국제팀
2명	4명	1명

신입직원들은 각자 원하는 부서를 2지망까지 지원하며, 1, 2지망을 고려하여 이들을 부서에 배치한다. 먼저 1지망 지원부서에 배치하는데, 요구인원보다 지원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입사성적이 높은 신입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1지망 지원부서에 배치되지 못한 신입직원은 2지망 지원 부서에 배치되는데, 이때 역시 1지망에 따른 배치 후 남은 요구인원보다 지원인원이 많은 경우 입사성적이 높은 신입 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1, 2지망 지원부서 모두에 배치되지 못한 신입직원은 요구인원을 채우지 못한 부서에 배치된다.

신입직원 7명의 입사성적 및 1, 2지망 지원부서는 아래와 같다. A의 입사성적만 전산에 아직 입력되지 않았는데, 82점 이상이라는 것만 확인되었다. 단, 입사성적의 동점자는 없다.

신입 직원	A	B	C	D	E	F	G
입사 성적	?	81	84	78	96	80	93
1지망	국제	국제	재정	국제	재정	정책	국제
2지망	정책	재정	정책	정책	국제	재정	정책

- ① A의 입사성적이 90점이라면, A는 정책팀에 배치된다.
- ② A의 입사성적이 95점이라면, A는 국제팀에 배치된다.
- ③ B는 재정팀에 배치된다.
- ④ C는 재정팀에 배치된다.
- ⑤ D는 정책팀에 배치된다.

2018 민경채 (가) 10번

문 10.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 복지관에 채용될 2명의 후보자는?

A 복지관은 청소년업무 담당자 2명을 채용하고자 한다. 청소년업무 담당자들은 심리상담, 위기청소년지원, 진학지도, 지역안전망구축 등 4가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채용되는 2명은 서로 다른 업무를 맡아 4가지 업무를 빠짐없이 분담해야 한다.

4가지 업무에 관련된 직무역량으로는 의사소통역량, 대인관계역량, 문제해결역량, 정보수집역량, 자원관리역량 등 5가지가 있다. 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업무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모두 갖춰야 한다. 아래는 이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업무	필요 직무역량
심리상담	의사소통역량, 대인관계역량
위기청소년지원	의사소통역량, 문제해결역량
진학지도	문제해결역량, 정보수집역량
지역안전망구축	대인관계역량, 자원관리역량

- <상 황> —

 - A 복지관의 채용후보자는 4명(甲, 乙, 丙, 丁)이며, 각 채용후보자는 5가지 직무역량 중 3가지씩을 갖추고 있다.
 - 자원관리역량은 丙을 제외한 모든 채용후보자가 갖추고 있다.
 - 丁이 진학지도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려면, 의사소통역량만 추가로 갖추면 된다.
 - 甲은 심리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乙과 丙은 진학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대인관계역량을 갖춘 채용후보자는 2명이다.

- ① 甲, 乙
- ② 甲, 丙
- ③ 乙, 丙
- ④ 乙, 丁
- ⑤ 丙, 丁

2019 민경채 (나) 7번

문 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B구역 청소를 하는 요일은?

甲레스토랑은 매주 1회 휴업일(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영업한다. 甲레스토랑의 청소시간은 영업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이다. 이 시간에 A구역, B구역, C구역 중 하나를 청소한다. 청소의 효율성을 위하여 청소를 한 구역은 바로 다음 영업일에는 하지 않는다. 각 구역은 매주 다음과 같이 청소한다.

○ A구역 청소는 일주일에 1회 한다.

○ B구역 청소는 일주일에 2회 하되, B구역 청소를 한 후 영업일과 휴업일을 가리지 않고 이틀 간은 B구역 청소를 하지 않는다.

○ C구역 청소는 일주일에 3회 하되, 그 중 1회는 일요일에 한다.

- ① 월요일과 목요일
- ② 월요일과 금요일
- ③ 월요일과 토요일
- ④ 화요일과 금요일
- ⑤ 화요일과 토요일

2020 민경채 (가) 23번

문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네 사람(甲~丁)은 각각 주식, 채권, 선물, 옵션 중 서로 다른 하나의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액과 수익률도 각각 다르다.

○ 네 사람 중 투자액이 가장 큰 50대 주부는 주식에 투자하였다.

○ 30대 회사원 丙은 네 사람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려 아내와 여행을 다녀왔다.

○ 甲은 주식과 옵션에는 투자하지 않았다.

○ 40대 회사원 乙은 옵션에 투자하지 않았다.

○ 60대 사업가는 채권에 투자하지 않았다.

- ① 채권 투자자는 甲이다.
- ② 선물 투자자는 사업가이다.
- ③ 투자액이 가장 큰 사람은 乙이다.
- ④ 회사원은 옵션에 투자하지 않았다.
- ⑤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 사람은 선물 투자자이다.

2021 민경채 (나) 5번

문 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에게 전달할 책의 제목과 A의 연구실 번호를 옳게 짝지은 것은?

- 5명의 연구원(A ~ E)에게 책 1권씩을 전달해야 하고, 책 제목은 모두 다르다.

○ 5명은 모두 각자의 연구실에 있고, 연구실 번호는 311호부터 315호까지이다.

○ C는 315호, D는 312호, E는 311호에 있다.

○ B에게 「연구개발」, D에게 「공공정책」을 전달해야 한다.

○ 「전환이론」은 311호에, 「사회혁신」은 314호에, 「복지실천」은 315호에 전달해야 한다.

책 제목	연구실 번호
① 「전환이론」	311호
② 「공공정책」	312호
③ 「연구개발」	313호
④ 「사회혁신」	314호
⑤ 「복지실천」	315호

2020 7급 모의평가 25번

문 25. 다음 글과 <대화>를 근거로 판단할 때, 乙 ~ 丁의 소속 과와 과 총원을 옳게 짝지은 것은?

- A부서는 제1과부터 제4과까지 4개 과, 총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A부서 각 과 총원은 과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이며, 그 수가 모두 다르다.

○ A부서에 ‘부여’된 내선번호는 7001번부터 7045번이다.

○ 제1과 ~ 제4과 순서대로 연속된 오름차순의 내선번호가 부여되는데, 각 과에는 해당 과 총원 이상의 내선번호가 부여된다.

○ 모든 직원은 소속 과의 내선번호 중 서로 다른 번호 하나를 각자 ‘배정’받는다.

○ 각 과 과장에게 배정된 내선번호는 해당 과에 부여된 내선번호 중에 제일 앞선다.

○ 甲 ~ 丁은 모두 A부서의 서로 다른 과 소속이다.

——— <대 화> ———

甲: 홈페이지에 내선번호 알림을 새로 해야겠네요. 저희 과는 9명이고, 부여된 내선번호는 7016 ~ 7024번입니다.

乙: 甲주무관님 과는 총원과 내선번호 개수가 같네요. 저희 과 총원이 제일 많은데, 내선번호는 그보다 4개 더 있어요.

丙: 저희 과는 총원보다 내선번호가 3개 더 많아요. 아, 丁주무관님! 제 내선번호는 7034번이고, 저희 과장님 내선번호는 7025번이에요.

丁: 저희 과장님 내선번호 끝자리와 丙주무관님 과의 과장님 내선번호 끝자리가 동일하네요.

	직원	소속 과	과 총원
①	乙	제1과	10명
②	乙	제4과	11명
③	丙	제3과	8명
④	丁	제1과	7명
⑤	丁	제4과	8명

2021 7급 (나) 21번

문 21. 다음 글과 <대화>를 근거로 판단할 때, ㉠에 들어갈 丙의 대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주무관 丁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

- 이번 주 개업한 A식당은 평일 ‘점심(12시)’과 ‘저녁(18시)’으로만 구분해 운영되며, 해당 시각 이전에 예약할 수 있다.
- 주무관 甲~丙은 A식당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서로 겹치지 않게 예약하고 각자 한 번씩 다녀왔다.

— <대 화> —

甲: 나는 이번 주 乙의 방문후기를 보고 예약했어. 음식이 정말 훌륭하더라!

乙: 그렇지? 나도 나중에 들었는데 丙은 점심 할인도 받았대. 나도 다음에는 점심에 가야겠어.

丙: 월요일은 개업일이라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피했어.

㉠

丁: 너희 모두의 말을 다 들어보니, 각자 식당에 언제 갔는지를 정확하게 알겠다!

- ① 乙이 다녀온 바로 다음날 점심을 먹었지.
- ② 甲이 먼저 점심 할인을 받고 나에게 알려준 거야.
- ③ 甲이 우리 중 가장 늦게 갔었구나.
- ④ 월요일에 갔던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 ⑤ 같이 가려고 했더니 이미 다들 먼저 다녀왔더군.

2022 7급 (가) 23번

문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팀원 7명(A~G)은 새로 부임한 팀장 甲과 함께 하는 환영식사를 계획하고 있다. 모든 팀원은 아래 조건을 전부 만족시키며 甲과 한 번씩만 식사하려 한다.

☐ 함께 식사하는 총 인원은 4명 이하여야 한다.

☐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

☐ 부팀장은 A, B뿐이며, 이 둘은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

☐ 같은 학교 출신인 C, D는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

☐ 입사 동기인 E, F는 함께 식사한다.

☐ 신입사원 G는 부팀장과 함께 식사한다.

- ① A는 E와 함께 환영식사에 참석할 수 있다.

② B는 C와 함께 환영식사에 참석할 수 있다.

③ C는 G와 함께 환영식사에 참석할 수 있다.

④ D가 E와 함께 환영식사에 참석하는 경우, C는 부팀장과 함께 환영식사에 참석하게 된다.

⑤ G를 포함하여 총 4명이 함께 환영식사에 참석하는 경우, F가 참석하는 환영식사의 인원은 총 3명이다.

2023 7급 (인) 23번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A ~ E 간에 갖고 있는 상대방의 연락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A는 3명의 연락처를 갖고 있는데, 그 중 2명만 A의 연락처를 갖고 있다. 그런데 A의 연락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총 3명이다.

○ B는 2명의 연락처를 갖고 있는데, 그 2명을 제외한 2명만 B의 연락처를 갖고 있다.

○ C는 A의 연락처만 갖고 있는데, A도 C의 연락처를 갖고 있다.

○ D는 2명의 연락처를 갖고 있다.

○ E는 B의 연락처만 갖고 있다.

- ① A는 B의 연락처를 갖고 있다.
- ② B는 D의 연락처를 갖고 있다.
- ③ C의 연락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 3명이다.
- ④ D의 연락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 A뿐이다.
- ⑤ E의 연락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 2명이다.

2024 7급 (사) 14번

1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국은 국내 순위 1~10위 선수 10명 중 4명을 국가대표로 선발하고자 한다. 국가대표는 국내 순위가 높은 선수가 우선 선발되나, A, B, C팀 소속 선수가 최소한 1명씩은 포함되어야 한다.

- <상 황> —————
- 국내 순위 1~10위 중 공동 순위는 없다.
 - 선수 10명 중 4명은 A팀, 3명은 B팀, 3명은 C팀 소속이다.
 - C팀 선수 중 국내 순위가 가장 낮은 선수가 A팀 선수 중 국내 순위가 가장 높은 선수보다 국내 순위가 높다.
 - B팀 소속 선수 3명의 국내 순위는 각각 2위, 5위, 8위이다.

- <보 기> —————
- ㄱ. 국내 순위 1위 선수의 소속팀은 C팀이다.
 - ㄴ. A팀 소속 선수 중 국내 순위가 가장 낮은 선수는 9위이다.
 - ㄷ. 국가대표 중 국내 순위가 가장 낮은 선수는 7위이다.
 - ㄹ. 국내 순위 3위 선수와 4위 선수는 같은 팀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2024 7급 (사) 18번

1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인터넷 장애로 인해 甲 ~ 丁은 ‘메일’, ‘공지’, ‘결재’, ‘문의’ 중 접속할 수 없는 메뉴가 각자 1개 이상 있다. 다음은 이에 관한 甲 ~ 丁의 대화이다.

甲: 나는 결재를 포함한 2개 메뉴에만 접속할 수 없고, 乙, 丙, 丁은 모두 이 2개 메뉴에 접속할 수 있어.

乙: 丙이나 丁이 접속하지 못하는 메뉴는 나도 전부 접속할 수 없어.

丙: 나는 문의에 접속해서 이번 오류에 대해 질문했어.

丁: 나는 공지에 접속할 수 없고, 丙은 공지에 접속할 수 있어.

- ① 甲은 공지에 접속할 수 없다.
- ② 乙은 메일에 접속할 수 없다.
- ③ 乙은 2개의 메뉴에 접속할 수 있다.
- ④ 丁은 문의에 접속할 수 있다.
- ⑤ 甲과 丙이 공통으로 접속할 수 있는 메뉴가 있다.

2024 7급 (사) 21번

21. 다음 글과 <대화>를 근거로 판단할 때,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甲 ~ 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실시되는 직무교육을 받게 되었다. 교육장소에는 2×2 로 배열된 책상이 있었으며, 앞줄에 2명, 뒷줄에 2명을 각각 나란히 앉게 하였다. 교육기간 동안 자리 이동은 없었다. 교육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4명 모두 교육을 받았다. 직무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4일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대 화> ———
甲: 교육 둘째 날에 내 바로 앞사람만 결석했어.
乙: 교육 둘째 날에 나는 출석했어.
丙: 교육 셋째 날에 내 바로 뒷사람만 결석했어.
丁: 교육 넷째 날에 내 바로 앞사람과 나만 교육을 받았어.

- ① 乙
- ② 丙
- ③ 甲, 丙
- ④ 甲, 丁
- ⑤ 乙, 丁

2025 7급 (인) 17번

17. 다음 글과 <대화>를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丙의 근무처와 직위를 옳게 나열한 것은?

- 직급이 5급 이상인 공무원 甲, 乙, 丙은 서로 다른 우체국 A, B, C에서 근무하고 있다.

○ 각 우체국의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국장, 과장, 팀장의 직위가 부여되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A우체국: 3급 1명(국장), 4급 2명(과장), 5급 1명(팀장)
 - B우체국: 4급 1명(국장), 5급 3명(과장)
 - C우체국: 5급 1명(국장)

——— <대 화> ———

甲: 저는 C우체국에서 근무하지 않아요.

乙: 저는 甲과 직급이 같아요.

丙: 저는 A우체국에서 근무하지 않고, 乙이 근무하는 우체국의 어느 공무원보다도 직급이 높아요.

甲	丙
① A우체국 팀장	B우체국 국장
② A우체국 과장	B우체국 과장
③ A우체국 국장	B우체국 국장
④ B우체국 과장	C우체국 국장
⑤ B우체국 국장	C우체국 국장

2025 7급 (인) 22번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甲 ~ 丁 4명은 동물카드를 이용한 게임을 하려 한다. 동물 카드의 종류에는 사자, 불곰, 얼룩말, 하이에나 카드가 있으며, 승부를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사자 카드는 얼룩말 카드를 이긴다.
○ 불곰 카드는 사자 카드를 이긴다.
○ 얼룩말 카드는 하이에나 카드를 이긴다.
○ 하이에나 카드는 사자 카드를 이긴다.
○ 그 외 카드 조합은 무승부로 한다.

甲 ~ 丁은 서로 다른 동물카드를 한 장씩 나누어 가졌으며,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甲: 나는 丁과 겨루면 지게 돼.
乙: 내가 丁과 겨루면 이겨.
丙: 나와 丁이 겨루면 무승부야.

- ① 甲의 카드는 얼룩말 카드이다.
- ② 乙의 카드는 하이에나 카드이다.
- ③ 丙의 카드는 불곰 카드이다.
- ④ 丁의 카드는 사자 카드이다.
- ⑤ 甲 ~ 丁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어느 것도 확정할 수 없다.

2025 7급 (인) 24번

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씨앗 A ~ D의 싹이 튼 순서로 옳은 것은?

찬우는 봄을 맞이하여 네 종류의 씨앗(A ~ D)을 화단에 심었다. 화단에 심은 씨앗의 싹이 트는 조건은 각각 아래와 같다.

씨앗 A: 이틀 연속 날이 맑으면 다음 날에 싹이 튼다.

씨앗 B: 맑은 날 다음 날에 싹이 튼다.

씨앗 C: 비가 온 날이 총 사흘이 된 다음 날에 싹이 튼다.

씨앗 D: 이틀 연속 비가 오면 다음 날에 싹이 튼다.

찬우는 4월 1일 0시에 A ~ D를 하나씩 심었고, 이후 7일 동안 날짜별로 싹이 튼 씨앗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4월 1일	4월 2일	4월 3일	4월 4일	4월 5일	4월 6일	4월 7일
0	1	0	1	0	1	1

※ 이 기간에 맑은 날은 내내 맑았고, 비가 온 날은 내내 비가 왔다.

- ① A - B - D - C
- ② B - A - C - D
- ③ B - A - D - C
- ④ B - D - A - C
- ⑤ B - D - C - A

2025 7급 (인) 25번

2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올해 A기업의 1 ~ 3분기 안전평가에서 ‘보완’ 등급이 부여된 횟수는?

A기업에서는 매 분기 전체 5개 부서 중 3개 이상의 부서를 대상으로 안전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또는 ‘보완’ 등급을 부여한다. 안전평가 대상은 직전 분기 안전평가에서 보완 등급을 받은 부서이다. 다만 직전 분기에 보완 등급을 받은 부서가 2개 이하인 경우, 안전평가를 받은 지 오래된 순서대로 부서를 추가하여 평가한다.

— <상 황> —

A기업은 올해 1월 초, 4월 초, 7월 초에 각각 1, 2, 3분기 안전평가를 실시하였다. 아래는 A기업의 서로 다른 부서에 속해 있는 5명(甲 ~ 戊)의 7월 말 대화이다.

甲: 이번 달 안전평가에서 3개 부서가 우수 등급을 받았대.
乙: 우리 부서는 1월 안전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어.
丙: 우리 부서는 1월에 안전평가를 받지 않았어.
丁: 올해 우리 부서는 안전평가를 받지 않았어.
戊: 우리 부서는 매 분기마다 안전평가를 받았어.

- ① 1
- ② 2
- ③ 3
- ④ 4
- ⑤ 5

2012 5급 (인) 16번

문 16. 5명(A ~ E)이 순서대로 퀴즈게임을 해서 벌칙 받을 사람 1명을 선정하고자 한다. 다음 <게임 규칙과 결과>에 근거할 때, 항상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게임 규칙과 결과> ————

<규칙>

- A → B → C → D → E 순서대로 퀴즈를 1개씩 풀고, 모두 한 번씩 퀴즈를 풀고 나면 한 라운드가 끝난다.
- 퀴즈 2개를 맞힌 사람은 벌칙에서 제외되고, 다음 라운드 부터는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다.
- 라운드를 반복하여 맨 마지막까지 남는 한 사람이 벌칙을 받는다.
- 벌칙을 받을 사람이 결정되면 라운드 중이라도 더 이상 퀴즈를 출제하지 않는다.
- 게임 중 동일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

<결과>

3라운드에서 A는 참가자 중 처음으로 벌칙에서 제외되었고, 4라운드에서는 오직 B만 벌칙에서 제외되었으며, 벌칙을 받을 사람은 5라운드에서 결정되었다.

———— <보 기> ————

ㄱ. 5라운드까지 참가자들이 정답을 맞힌 퀴즈는 총 9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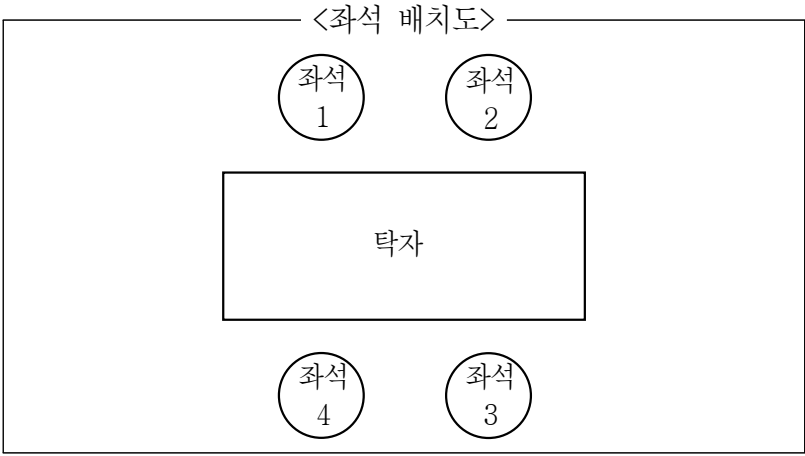
ㄴ. 게임이 종료될 때까지 총 22개의 퀴즈가 출제되었다면, E는 5라운드에서 퀴즈의 정답을 맞혔다.

ㄷ. 게임이 종료될 때까지 총 21개의 퀴즈가 출제되었다면, 퀴즈를 푸는 순서가 벌칙을 받을 사람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012 5급 (인) 35번

문 35. 김가영(女), 이나울(男), 최규리(女), 박혁준(男)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1년에 한 번씩 모여 선물을 교환한다. 올해는 서로 동물인형을 선물하기로 했다. 선물교환이 끝난 후 누군가가 자신이 받은 인형 안에 프리포즈 반지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음을 근거로 판단할 때, 프리포즈 반지를 선물한 사람과 받은 사람은 각각 누구인가? (단, 이 때 옆으로 나란히 앉은 사람과 마주보고 앉은 사람은 모두 접하여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좌석 1은 좌석 2, 좌석 4와 접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교환한 인형>

토끼 인형, 강아지 인형, 고양이 인형, 호랑이 인형
(프리포즈 반지는 강아지 인형에만 들어있다)

- <상 황>
- 토끼 인형을 준비한 사람과 고양이 인형을 준비한 사람은 마주보고 앉아있다.
 - 이나울은 토끼 인형을 준비하지 않았으며, 강아지 인형을 준비한 사람과 접하여 앉아있다.
 - 프리포즈 반지를 선물한 사람과 받은 사람은 옆으로 나란히 앉지 않았다.
 - 최규리는 토끼 인형을 준비하지 않았으며, 김가영은 고양이 인형을 준비하였다.
 - 같은 성별의 사람들은 접하여 있지 않으며, 프리포즈 반지는 이성에게 선물하였다.

	프리포즈 반지를 선물한 사람	프리포즈 반지를 받은 사람
①	이나울	김가영
②	박혁준	김가영
③	최규리	이나울
④	최규리	박혁준
⑤	박혁준	최규리

2012 5급 (인) 37번

문 37. 다음 글을 읽고 <조건>에 따라 추론할 때, 하나의 조건을 추가하면 조선왕조의례가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연도를 알 수 있다고 한다. 다음 중 이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은?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세계 여러 나라의 기록물들 가운데 미적·사회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을 선정하여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해 왔다. 2010년 현재 UNESCO가 지정한 대한민국의 세계기록유산은 총 7개로 동의보감,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의례, 직지심체요절, 팔만대장경판, 훈민정음이다. UNESCO는 1997년에 2개, 2001년에 2개, 2007년에 2개, 2009년에 1개를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하였다.

- <조 건> —
- 조선왕조실록은 승정원일기와 팔만대장경판보다 먼저 지정되었다.
 - 훈민정음은 단독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 직지심체요절은 단독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 동의보감은 조선왕조의례보다 먼저 지정되지 않았다.
 - 2002년 한·일 월드컵은 승정원일기가 지정된 이후에 개최되었다.
 - 직전의 지정이 있는 때로부터 직지심체요절이 지정되기까지의 시간 간격은 가장 긴 간격이 아니었다.

※ 동일 연도에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기록물들은 같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① 훈민정음은 2002년 이전에 지정되었다.
- ② 동의보감은 2002년 이후에 지정되었다.
- ③ 직지심체요절은 2002년 이전에 지정되었다.
- ④ 팔만대장경판은 2002년 이후에 지정되었다.
- ⑤ 팔만대장경판은 동의보감보다 먼저 지정되었다.

2013 5급 (인) 33번

문 33. 다음 <상황>에 근거할 때, 약사 甲이 4명의 환자에게 조제한 약을 옳게 짝지은 것은?

<상 황>

오늘 아침 甲의 약국에 희경, 은정, 소미, 정선 4명의 손님이 방문하였다. 甲은 이들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A~D 네 봉지의 약을 조제하였는데, 약을 조제한 후 처방전을 분실하여 누구의 약인지 알지 못한다. 다만 甲은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정보만 기억하고 있다.

○ 오늘 아침 방문한 환자들의 병명은 몸살, 배탈, 치통, 피부병이었다.

○ 은정의 처방전은 B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그녀는 몸살이나 배탈 환자가 아니었다.

○ A는 배탈 환자에 사용되는 약이 아니다.

○ D는 연고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연고는 피부병에만 사용된다.

○ 희경은 임신부이고, A와 D에는 임신부가 먹어서는 안 되는 약품이 사용되었다.

○ 소미는 몸살 환자가 아니었다.

	<u>A</u>	<u>B</u>	<u>C</u>	<u>D</u>
① 정선	은정	희경	소미	
② 정선	은정	소미	희경	
③ 소미	은정	희경	정선	
④ 희경	은정	소미	정선	
⑤ 희경	은정	정선	소미	

567

567

2013 외교 (인) 13번

문 13. 다음 <사실>과 <진술>을 근거로 추론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사 실> —

- 가영, 나리, 다숨, 라익, 마음, 바울이는 어느 날 아침에 숙소의 음식을 나눠 먹었다. 그 후 가영, 나리, 다숨, 마음에게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다.
- 이들은 잼, 요거트, 빵, 우유, 주스, 샐러드, 버터, 치즈, 쿠키, 달걀 프라이, 감자 등 총 11종류의 음식을 먹었다.
- 최소 1종류 이상의 음식이 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 상한 음식을 1종류라도 먹게 되면 식중독에 걸린다.
- 식중독의 발병 여부는 섭취한 음식량과 무관하며, 조금이라도 상한 음식을 먹었으면 식중독에 걸린다.
- 음식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는 식중독에 걸리지 않는다.

— <진 술> —

- 가영: 잼을 넣은 요거트를 먹었어. 잼을 바른 빵과 함께 우유를 한 잔 마시고, 샐러드랑 쿠키도 먹었어.
- 나리: 잼과 버터를 바른 빵과 함께 감자랑 달걀 프라이를 먹었어.
- 다숨: 빵 사이에 치즈를 끼워서 우유와 함께 먹었어. 요거트랑 쿠키도 조금 먹었어.
- 라익: 배가 별로 고프지 않아서 달걀 프라이랑 우유, 감자만 조금 먹었어.
- 마음: 요거트를 먹은 후, 잼 바른 빵과 샐러드에 주스를 함께 먹었어.
- 바울: 버터 바른 빵과 달걀 프라이에 우유를 먹고, 후식으로 요거트를 먹었어.

- ① 가영이가 먹은 음식 중 상한 음식은 반드시 한 종류일 것이다.
- ② 다숨이가 요거트와 우유를 먹지 않았어도 식중독에 걸렸을 것이다.
- ③ 만약 잼을 바른 빵과 우유, 달걀 프라이를 먹는다면 식중독에 걸릴 것이다.
- ④ 만약 샐러드와 치즈, 쿠키와 우유를 먹는다면 반드시 식중독에 걸릴 것이다.
- ⑤ 나리가 먹은 음식 중 상한 음식은 반드시 한 종류일 것이다.

2013 외교 (인) 15번

문 15. 고민정은 x , y 의 2가지 조항으로 이루어진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5개 정당(A ~ E) 대표들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메모하였다. 다음 <메모>를 근거로 추론할 때 옳은 것은? (단, 각 정당 대표의 태도는 ‘찬성’, ‘중립’, ‘반대’ 중 어느 하나이며, 해당 정당의 의견이다)

<메 모>

☐

A정당대표: x 조항에 대한 태도는 C정당대표의 y 조항에 대한 태도와 같고, y 조항에 대한 태도는 C정당대표의 x 조항에 대한 태도와 같음. 단, A정당대표와 D정당 대표간 동일한 태도를 취한 조항은 없음.

☐

B정당대표: x 조항에 대해 중립이고, 어느 조항에 대해서도 A정당대표보다 부정적임.

☐

C정당대표: 하나의 조항에 대해서는 찬성이고,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중립임.

☐

D정당대표: x , y 조항에 대한 태도는 같음.

☐

E정당대표: x 조항에 대해 중립이며, y 조항에 대해서는 D정당대표의 태도와 같음.

※ 찬성보다 중립이 부정적이고, 중립보다 반대가 더 부정적이다.

- ① 두 조항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정당은 A정당이다.
- ② y 조항에 대해 정당대표 과반수가 ‘찬성’이다.
- ③ 두 조항 모두에 대해 ‘찬성’한 정당은 없다.
- ④ x 조항에 대해 정당대표 과반수가 ‘반대’이다.
- ⑤ x 조항에 대해 같은 태도를 보인 정당은 2개이다.

2013 외교 (인) 38번

문 38. 다음 <조건>과 <연주곡과 악기>를 근거로 판단할 때, 연주자 6명 (A ~ F)이 연주 가능한 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조 건> —

○ A는 바이올린, B는 바이올린, C는 피아노·첼로, D는 바이올린·비올라, E는 피아노·비올라, F는 피아노·바이올린·첼로를 연주할 수 있다.

○ 각 연주자는 연속하여 연주할 수 없으며, 한 곡에서 2개 이상의 악기를 연주할 수 없다.

<연주곡과 악기>

곡명	악기
모차르트 K.488	피아노 + 피아노
베토벤의 ‘봄’ Op.24	피아노 + 바이올린
베토벤의 ‘유령’ Op.70-1	피아노 + 바이올린 + 첼로
멘델스존 Op.49	피아노 + 바이올린 + 첼로
브람스 Op.25	피아노 + 바이올린 + 비올라 + 첼로
슈만 Op.47	피아노 + 바이올린 + 비올라 + 첼로
슈베르트의 ‘승어’ Op.114	피아노 + 바이올린 + 바이올린 + 비올라 + 첼로

- ① 모차르트 K.488 → 슈베르트의 ‘승어’ Op.114

② 베토벤의 ‘봄’ Op.24 → 슈베르트의 ‘승어’ Op.114

③ 베토벤의 ‘유령’ Op.70-1 → 멘델스존 Op.49

④ 베토벤의 ‘유령’ Op.70-1 → 모차르트 K.488 → 슈만 Op.47

⑤ 멘델스존 Op.49 → 베토벤의 ‘봄’ Op.24 → 브람스 Op.25

2014 5급 (A) 15번

문 15. 다음 글과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가장 많은 품삯을 받은 일꾼은? (단, 1전은 10푼이다)

『화성성역의궤』는 정조시대 수원 화성(華城) 축조에 관한 경위와 제도, 의식 등을 수록한 책이다. 이 책에는 화성 축조에 참여한 일꾼의 이름과 직업, 품삯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 <조 건>

○ 일꾼 다섯 명의 이름은 쯤쇠, 작은놈, 어인놈, 상득, 정월쇠이다.

○ 다섯 일꾼 중 김씨가 2명, 이씨가 1명, 박씨가 1명, 윤씨가 1명이다.

○ 이들의 직업은 각각 목수, 단청공, 벽돌공, 대장장이, 미장공이다.

○ 일당으로 목수와 미장공은 4전 2푼을 받고, 단청공과 벽돌공, 대장장이는 2전 5푼을 받는다.

○ 윤씨는 4일, 박씨는 6일, 김씨 두 명은 각각 4일, 이씨는 3일 동안 동원되었다. 동원되었지만 일을 하지 못한 날에는 보통의 일당 대신 1전을 받는다.

○ 박씨와 윤씨는 동원된 날 중 각각 하루씩은 배가 아파 일을 하지 못했다.

○ 목수는 이씨이다.

○ 쯤쇠는 박씨도 이씨도 아니다.

○ 어인놈은 단청공이다.

○ 대장장과 미장공은 김씨가 아니다.

○ 정월쇠의 일당은 2전 5푼이다.

○ 상득은 김씨이다.

○ 윤씨는 대장장이가 아니다.

- ① 쯤쇠

② 작은놈

③ 어인놈

④ 상득

⑤ 정월쇠

2014 5급 (A) 17번

문 1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김과장이 단식을 시작한 첫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 끼만 먹은 요일(끼니때)은?

김과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기로 했다. 김과장이 선택한 간헐적 단식 방법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중에 2일을 선택하여 아침 혹은 저녁 한 끼 식사만 하는 것이다. 단, 단식을 하는 날 전후로 각각 최소 2일간은 정상적으로 세 끼 식사를 하고, 업무상의 식사 약속을 고려하여 단식일과 방법을 유동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단식을 하는 날 이외에는 항상 세 끼 식사를 한다.

간헐적 단식 2주째인 김과장은 그동안 단식을 했던 날짜를 기록해두기 위해 아래와 같이 최근 식사와 관련된 기억을 떠올렸다.

- 2주차 월요일에는 단식을 했다.
- 지난주에 먹은 아침식사 횟수와 저녁식사 횟수가 같다.
- 지난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조찬회의에 참석하여 아침식사를 했다.
- 지난주 목요일에는 업무약속이 있어서 점심식사를 했다.

- ① 월요일(저녁), 목요일(저녁)
- ② 화요일(아침), 금요일(아침)
- ③ 화요일(아침), 금요일(저녁)
- ④ 화요일(저녁), 금요일(아침)
- ⑤ 화요일(저녁), 토요일(아침)

2014 5급 (A) 35번

문 35. 다음 <조건>과 <정보>를 근거로 판단할 때, 꽃감의 위치와 착한 호랑이, 나쁜 호랑이의 조합으로 가능한 것은?

- <조 건>————

 - 착한 호랑이는 2마리이고, 나쁜 호랑이는 3마리로 총 5마리의 호랑이(甲 ~ 戊)가 있다.
 - 착한 호랑이는 참말만 하고, 나쁜 호랑이는 거짓말만 한다.
 - 꽃감은 꿀단지, 아궁이, 소쿠리 중 한 곳에만 있다.

- <정 보>————

甲：꽃감은 아궁이에 있지.

乙：여기서 나만 꽃감의 위치를 알아.

丙：甲은 나쁜 호랑이야.

丁：나는 꽃감이 어디 있는지 알지.

戊：꽃감은 꿀단지에 있어.

	꽃감의 위치	착한 호랑이	나쁜 호랑이
①	꿀단지	戊	丙
②	소쿠리	丁	乙
③	소쿠리	乙	丙
④	아궁이	丙	戊
⑤	아궁이	甲	丁

2014 5급 (A) 37번

문 37. 다음 <상황>과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상 황> —————
A대학교 보건소에서는 4월 1일(월)부터 한 달 동안 재학생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4회, 금주교육 3회, 성교육 2회를 실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조 건> —————
- 금연교육은 정해진 같은 요일에만 주 1회 실시하고, 화, 수, 목요일 중에 해야 한다.
 - 금주교육은 월요일과 금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시행하며, 주 2회 이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성교육은 4월 10일 이전, 같은 주에 이를 연속으로 실시한다.
 -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간고사 기간이고, 이 기간에 보건소는 어떠한 교육도 실시할 수 없다.
 - 보건소의 교육은 하루에 하나만 실시할 수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 보건소는 계획한 모든 교육을 반드시 4월에 완료하여 야 한다.

- ① 금연교육이 가능한 요일은 화요일과 수요일이다.
- ② 금주교육은 같은 요일에 실시되어야 한다.
- ③ 금주교육은 4월 마지막 주에도 실시된다.
- ④ 성교육이 가능한 일정 조합은 두 가지 이상이다.
- ⑤ 4월 30일에도 교육이 있다.

2015 5급 (인) 16번

문 16. 다음 글을 근거로 <점심식단>의 빈 칸을 채워 넣을 때 옳지 않은 것은?

○ 한 끼의 식사는 밥, 국, 김치, 기타 반찬, 후식 각 종류별로 하나의 음식을 포함하며, 요일마다 다양한 색의 음식으로 이번 주의 점심식단을 짜고자 한다.

○ 밥은 4가지, 국은 5가지, 김치는 2가지, 기타 반찬은 5가지, 후식은 4가지가 준비되어 있다.

종류\색	흰색	붉은색	노란색	검은색
밥	백미밥	—	잡곡밥	흑미밥, 짜장덮밥
국	북엇국	김치국, 육개장	된장국	미역국
김치	—	배추김치, 깍두기	—	—
기타 반찬	—	김치전	계란찜, 호박전, 잡채	돈육장조림
후식	송편, 식혜	수정과	단호박샐러드	—

○ 점심식단을 짜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총 20가지의 음식은 이번 주 점심식단에 적어도 1번씩은 오른다.
- 붉은색과 흰색 음식은 각각 적어도 1가지씩 매일 식단에 오른다.
- 하루에 붉은색 음식이 3가지 이상 오를 시에는 흰색 음식 2가지가 함께 나온다.
- 목요일에만 검은색 음식이 없다.
- 금요일에는 노란색 음식이 2가지 나온다.
- 일주일 동안 2번 나오는 후식은 식혜뿐이다.
- 후식에서 같은 음식이 이틀 연속 나올 수 없다.

<점심식단>

종류\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밥	잡곡밥	백미밥			짜장덮밥
국		된장국	김치국	육개장	
김치	배추김치	배추김치	깍두기		
기타 반찬			호박전	김치전	잡채
후식		수정과			

- ① 월요일의 후식은 송편이다.

② 화요일의 기타 반찬은 돈육장조림이다.

③ 수요일의 밥은 흑미밥이다.

④ 목요일의 밥은 백미밥이다.

⑤ 금요일의 국은 북엇국이다.

2015 5급 (인) 34번

문 34. 다음 글과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A부에서 3인 4각 선수로 참가해야 하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甲사에서는 부서 대항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甲사의 A부는 종목별로 아래 인원이 참가하기로 했다.

오래달리기	팔씨름	3인 4각	공굴리기
1명	4명	3명	4명

 A부는 종목별 선수 명단을 확정하려고 한다. 선수 후보는 가영, 나리, 다숨, 라임, 마야, 바다, 사랑이며, 개인별 참가 가능 종목은 아래와 같다.

선수 후보 종목	가영	나리	다숨	라임	마야	바다	사랑
오래달리기	○	×	○	×	×	×	×
팔씨름	○	×	○	○	○	×	×
3인 4각	×	○	○	○	○	×	○
공굴리기	○	×	○	×	○	○	○

※ ○: 참가 가능, ×: 참가 불가능
 ※ 어떤 종목도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다.

- <조 건> ———

○ 한 사람이 두 종목까지 참가할 수 있다.
 ○ 모든 사람이 한 종목 이상 참가해야 한다.

- ① 가영, 나리, 바다
 ② 나리, 다숨, 마야
 ③ 나리, 다숨, 사랑
 ④ 나리, 라임, 사랑
 ⑤ 다숨, 마야, 사랑

2017 5급 (가) 18번

문 1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색칠된 사물함에 들어 있는 돈의 총액으로 가능한 것은?

- 아래와 같이 생긴 25개의 사물함 각각에는 200원이 들어 있거나 300원이 들어 있거나 돈이 아예 들어있지 않다.
- 그림의 우측과 아래에 쓰인 숫자는 그 줄의 사물함에 든 돈의 액수를 모두 합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물함에 든 돈의 액수를 모두 합하면 900원이다.
- 11번 사물함에는 200원이 들어 있고, 25번 사물함에는 300원이 들어 있으며, 전체 사물함 중 200원이 든 사물함은 4개뿐이다.

1	2	3	4	5	900
6	7	8	9	10	700
11	12	13	14	15	500
16	17	18	19	20	300
21	22	23	24	25	500
500	400	900	600	500	

- ① 600원
- ② 900원
- ③ 1,000원
- ④ 1,200원
- ⑤ 1,400원

2018 5급 (나) 13번

문 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과 사탕 1개와 딸기 사탕 1개를
함께 먹은 사람과 戊가 먹은 사탕을 옳게 짝지은 것은?

사과 사탕, 포도 사탕, 딸기 사탕이 각각 2개씩 있다.
다섯 명의 사람(甲 ~ 戊) 중 한 명이 사과 사탕 1개와
딸기 사탕 1개를 함께 먹고, 다른 네 명이 남은 사탕을
각각 1개씩 먹었다. 이 사실만을 알고 甲 ~ 戊는 차례대로
다음과 같이 말했으며, 모두 진실을 말하였다.
甲: 나는 포도 사탕을 먹지 않았어.
乙: 나는 사과 사탕만을 먹었어.
丙: 나는 사과 사탕을 먹지 않았어.
丁: 나는 사탕을 한 종류만 먹었어.
戊: 너희 말을 다 듣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딸기 사탕을
먹은 사람 두 명 다 알 수는 없어.

- ① 甲, 포도 사탕 1개
- ② 甲, 딸기 사탕 1개
- ③ 丙, 포도 사탕 1개
- ④ 丙, 딸기 사탕 1개
- ⑤ 戊, 사과 사탕 1개와 딸기 사탕 1개

2018 5급 (나) 36번

문 3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甲, 乙, 丙은 12장의 카드로 게임을 하고 있다.

○ 12장의 카드 중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가지 종류의 계절 카드가 각각 3장씩 있는데, 카드 뒷면만 보고는 어느 계절 카드인지 알 수 없다.

○ 참가자들은 게임을 시작할 때 무작위로 4장씩 카드를 나누어 갖는다.

○ 참가자들은 자신의 카드를 확인한 후 1대 1로 카드를 각자 2장씩 맞바꿀 수 있다. 맞바꿀 카드는 상대방의 카드 뒷면만 보고 무작위로 동시에 선택한다.

○ 가장 먼저 봄, 여름, 가을, 겨울 카드를 모두 갖게 된 사람이 우승한다.

○ 게임을 시작하여 4장의 카드를 나누어 가진 직후에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카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실을 말했다.

甲: 겨울 카드는 내가 모두 갖고 있다.

乙: 나는 봄과 여름 2가지 종류의 계절 카드만 갖고 있다.

丙: 나는 여름 카드가 없다.

- <보 기>—————

ㄱ. 게임 시작시 3가지 종류의 계절 카드를 받은 사람은 1명이다.

ㄴ. 게임 시작시 참가자 모두 봄 카드를 받았다면, 가을 카드는 모두 丙이 갖고 있다.

ㄷ. 첫 번째 맞바꾸기에서 甲과 乙이 카드를 맞바꿔서 甲이 바로 우승했다면, 게임 시작시 丙은 봄 카드를 2장 받았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2019 5급 (가) 11번

문 11. 다음 <감독의 말>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戊 중 드라마에 캐스팅되는 배우는?

<감독의 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열혈 군의관, 조선시대로 가다!’ 드라마 오디션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오디션을 시작할 텐데요. 이번 오디션에서 캐스팅하려는 역은 20대 후반의 군의관입니다. 오디션 실시 후 오디션 점수를 기본 점수로 하고, 다음 채점 기준의 해당 점수를 기본 점수에 가감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하며, 이 최종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캐스팅합니다.

첫째, 28세를 기준으로 나이가 많거나 적은 사람은 1세 차이당 2점씩 감점하겠습니다. 둘째, 이전에 군의관 역할을 연기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5점을 감점하겠습니다. 시청자들이 식상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셋째, 저희 드라마가 퓨전 사극이기 때문에, 사극에 출연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10점의 가점을 드리겠습니다. 넷째, 최종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여럿인 경우, 그 중 기본 점수가 가장 높은 한 사람을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 황>

- 오디션 지원자는 총 5명이다.
- 오디션 점수는 甲이 76점, 乙이 78점, 丙이 80점, 丁이 82점, 戊가 85점이다.
- 각 배우의 오디션 점수에 각자의 나이를 더한 값은 모두 같다.
- 오디션 점수가 세 번째로 높은 사람만 군의관 역할을 연기해 본 경험이 있다.
- 나이가 가장 많은 배우만 사극에 출연한 경험이 있다.
- 나이가 가장 적은 배우는 23세이다.

- ① 甲
- ② 乙
- ③ 丙
- ④ 丁
- ⑤ 戊

2019 5급 (가) 33번

문 33. 다음 글과 <자기소개>를 근거로 판단할 때, 대학생, 성별, 학과, 가면을 모두 옳게 짝지은 것은?

- 대학생 5명(A ~ E)이 모여 주말에 가면파티를 하기로 했다.
- ☐

남학생이 3명이고 여학생이 2명이다.
- ☐
- 5명은 각각 행정학과, 경제학과, 식품영양학과, 정치외교학과, 전자공학과 재학생이다.

☐☐

<자기소개>

A: 식품영양학과와 경제학과에 다니지 않는 남학생인데 드라큘라 가면을 안 쓸 거야.

B: 행정학과에 다니는 남학생인데 늑대인간 가면을 쓸 거야.

C: 식품영양학과에 다니는 남학생인데 처녀귀신 가면을 쓸 거야.

D: 정치외교학과에 다니는 여학생인데 좀비 가면을 쓸 거야.

E: 전자공학과에 다니는 남학생인데 드라큘라 가면을 쓸 거야.

	대학생	성별	학과	가면
①	A	여	행정학과	늑대인간
②	B	여	경제학과	유령
③	C	남	식품영양학과	좀비
④	D	여	정치외교학과	드라큘라
⑤	E	남	전자공학과	처녀귀신

2020 5급 (나) 34번

문 34. 다음 <상황>과 <자기소개>를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상 황> —————

5명의 직장인(甲 ~ 戊)이 커플 매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 남성이 3명이고 여성이 2명이다.

○ 5명의 나이는 34세, 32세, 30세, 28세, 26세이다.

○ 5명의 직업은 의사, 간호사, TV드라마감독, 라디오작가, 요리사이다.

○ 의사와 간호사는 성별이 같다.

○ 라디오작가는 요리사와 매칭된다.

○ 남성과 여성의 평균 나이는 같다.

○ 한 사람당 한 명의 이성과 매칭이 가능하다.

————— <자기소개> —————

甲: 안녕하세요. 저는 32세이고 의료 관련 일을 합니다.

乙: 저는 방송업계에서 일하는 남성입니다.

丙: 저는 20대 남성입니다.

丁: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업계에서 일하는 여성입니다.

戊: 제가 이 중 막내네요. 저는 요리사입니다.

- ① TV드라마감독은 乙보다 네 살이 많다.

② 의사와 간호사 나이의 평균은 30세이다.

③ 요리사와 라디오작가는 네 살 차이이다.

④ 甲의 나이는 방송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나이의 평균과 같다.

⑤ 丁은 의료계에서 일하는 두 사람 중 나이가 적은 사람보다 두 살 많다.

2021 5급 (가) 14번

문 1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 안녕? 나는 지난 주말 중 하루에 당일치기로 서울 여행을 다녀왔는데, 서울에는 눈이 예쁘게 내려서 너무 좋았어. 너희는 지난 주말에 어디 있었니?
乙: 나는 서울과 강릉을 하루에 모두 다녀왔는데, 두 곳 다 눈이 예쁘게 내리더라.
丙: 나는 부산과 강릉에 하루씩 있었는데 하늘에서 눈을 보지도 못했어.
丁: 나도 광주에 하루 있었는데, 해만 짹짹하고 눈은 안 왔어. 그날 뉴스를 보니까 부산에도 광주처럼 눈은 커녕 해가 짹짹하다고 했더라고.
甲: 응? 내가 서울에 있던 날 뉴스를 봤는데, 광주에도 눈이 내리고 있다고 했어.

※ 지난 주말(토요일과 일요일) 각 도시에 눈이 내린 날은 하루 종일 눈이 내렸고, 눈이 내리지 않은 날은 하루 종일 눈이 내리지 않았다.

—————<보 기>—————
ㄱ. 광주에는 지난 주말 중 하루만 눈이 내렸다.
ㄴ. 지난 주말 중 하루만 서울에 눈이 내렸다면 부산에도 지난 주말 중 하루만 눈이 내렸다.
ㄷ. 지난 주말 중 하루만 부산에 눈이 내렸다면 甲과 乙이 서울에 있었던 날은 다른 날이다.
ㄹ. 지난 주말 중 하루만 서울에 눈이 내렸다면 丙이 부산에 있었던 날과 丁이 광주에 있었던 날은 다른 날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21 5급 (가) 15번

문 15. 다음 글과 <대화>를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A부서의 소속 직원(甲 ~ 戊)은 법령집, 백서, 판례집, 민원 사례집을 각각 1권씩 보유하고 있었다.

○ A부서는 소속 직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새로 발행된 도서(법령집 3권, 백서 3권, 판례집 1권, 민원 사례집 2권)를 나누어 주었다.

 - 법령집: 보유하고 있던 법령집의 발행연도가 빠른 사람부터 1권씩 나누어 주었다.
 - 백서: 근속연수가 짧은 사람부터 1권씩 나누어 주었다.
 - 판례집: 보유하고 있던 판례집의 발행연도가 가장 빠른 사람에게 주었다.
 - 민원 사례집: 민원업무가 많은 사람부터 1권씩 나누어 주었다.

※ 甲 ~ 戊는 근속연수, 민원업무량에 차이가 있고, 보유하고 있던 법령집, 판례집은 모두 발행연도가 다르다.

— <대 화> —

甲: 나는 책을 1권만 받았어.

乙: 나는 4권의 책을 모두 받았어.

丙: 나는 법령집은 받았지만 판례집은 받지 못했어.

丁: 나는 책을 1권도 받지 못했어.

戊: 나는 丙이 받은 책은 모두 받았고, 丙이 받지 못한 책은 받지 못했어.

- ① 법령집을 받은 사람은 백서도 받았다.
- ② 甲은 丙보다 민원업무가 많다.
- ③ 甲은 戊보다 많은 도서를 받았다.
- ④ 丁은 乙보다 근속연수가 길다.
- ⑤ 乙이 보유하고 있던 법령집은 甲이 보유하고 있던 법령집보다 발행연도가 빠르다.

2022 5급 (나) 8번

문 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乙이 계산할 금액은?

甲~丁은 회전 초밥을 먹으러 갔다. 식사를 마친 후, 각자 먹은 접시는 각자 계산하기로 했다. 초밥의 접시당 가격은 다음과 같다.

<초밥의 접시당 가격>

(단위: 원)

빨간색 접시	1,500
파란색 접시	1,200
노란색 접시	2,000
검정색 접시	4,000

이들은 각각 3가지 색의 접시만 먹었으며, 각자 먹지 않은 접시의 색은 서로 달랐다. 이들이 먹은 접시 개수를 모두 세어 보니 빨간색 접시 7개, 파란색 접시 4개, 노란색 접시 8개, 검정색 접시 3개였다. 이들이 먹은 접시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甲은 빨간색 접시 4개, 파란색 접시 1개, 노란색 접시 2개를 먹었다.
- 丙은 乙보다 파란색 접시를 1개 더 먹었으며, 노란색 접시는 먹지 않았다.
- 丁은 모두 6개의 접시를 먹었으며, 이 중 빨간색 접시는 2개였고 파란색 접시는 먹지 않았다.

- ① 7,200원
- ② 7,900원
- ③ 9,400원
- ④ 11,200원
- ⑤ 13,000원

2022 5급 (나) 14번

문 1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의 청소
당번을 옳게 짝지은 것은?

A~D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한 명씩
청소당번을 정하려고 한다. 청소당번을 정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 A~D는 최소 한 번씩 청소당번을 한다.

☐ 시험 전날에는 청소당번을 하지 않는다.

☐ 발표 수업이 있는 날에는 청소당번을 하지 않는다.

☐ 한 사람이 이틀 연속으로는 청소당번을 하지 않는다.

다음은 청소당번을 정한 후 A~D가 나눈 대화이다.

A: 나만 두 번이나 청소당번을 하잖아. 월요일부터 청소
당번이라니!

B: 미안. 내가 월요일에 발표 수업이 있어서 그날 너밖에
할 사람이 없었어.

C: 나는 다음 주에 시험이 이틀 있는데, 발표 수업이 매번
시험 보는 날과 겹쳐서 청소할 수 있는 요일이 하루밖에
없었어.

D: 그래도 금요일에 청소하고 가야 하는 나보다는 나을걸.

	수요일	목요일
①	A	B
②	A	C
③	B	A
④	C	A
⑤	C	B

2022 5급 (나) 15번

문 1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퍼스널컬러(personal color)란 개인의 머리카락, 눈동자, 피부색 등을 종합하여 본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색상을 말한다. 퍼스널컬러는 크게 웜(warm)톤과 쿨(cool)톤으로 나뉘지는데, 웜톤은 따스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색인 반면에 쿨톤은 차갑고 시원한 느낌의 색이다. 웜톤은 봄타입과 가을타입으로, 쿨톤은 여름타입과 겨울타입으로 세분화된다. 퍼스널컬러는 각 타입의 색상 천을 얼굴에 대봄으로써 찾을 수 있다. 가장 잘 어울리는 타입의 천을 얼굴에 댔을 때 얼굴빛이 화사해지고 이목구비가 또렷해 보인다. 이를 ‘형광등이 켜졌다’라고 표현한다.

— <상 황> —

네 명(甲~丁)이 퍼스널컬러를 알아보러 갔다. 각 타입(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색상 천은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있어서 총 8장이 있다. 하나의 색상 천을 네 명에게 동시에 대보고 형광등이 켜지는지 확인하였다. 얼굴에 대보는 색상 천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밝은 색 천을 대보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어두운 색 천을 대본다.
2. 웜톤 천과 쿨톤 천을 교대로 대보지만, 첫 번째로 대보는 천의 톤은 알 수 없다.

진단 결과, 甲, 乙, 丙, 丁은 서로 다른 타입의 퍼스널컬러를 진단받았으며, 본인 타입의 천을 대보았을 때는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천 모두에서 형광등이 켜졌고, 그 외의 천을 대보았을 때는 형광등이 켜지지 않았다.

다음은 진단 후 네 명이 나눈 대화이다.

甲: 나는 가을타입이었어. 마지막 색상 천에서는 형광등이 켜지지 않았어.

乙: 나는 짝수 번째 천에서는 형광등이 켜진 적이 없어.

丙: 나는 乙이랑 타입은 다르지만 톤은 같아. 그리고 나한테 형광등이 켜진 색상 천 순서에 해당하는 숫자를 합해 보니까 6이야.

丁: 나는 밝은 색 천을 대보았을 때, 乙보다 먼저 형광등이 켜졌어.

— <보 기> —

ㄱ. 네 명의 타입을 모두 알 수 있다.
ㄴ. 丙은 첫 번째 색상 천에서 형광등이 켜졌다.
ㄷ. 색상 천을 대본 순서별로 형광등이 켜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ㄹ. 형광등이 켜진 색상 천 순서에 해당하는 숫자의 합은 丙을 제외한 세 명이 같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22 5급 (나) 33번

문 33. 다음 <대화>를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단, 토끼는 옹달샘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물을 마실 수 있다)

— <대 화> —

토끼 A: 우리 중 나를 포함해서 셋만 옹달샘에 다녀왔어.
토끼 B: D가 물을 마셨다면 나도 물을 마셨어.
토끼 C: 나는 계속 D만 졸졸 따라다녔어.
토끼 D: B가 옹달샘에 가지 않았다면, 나도 옹달샘에 가지 않았어.
토끼 E: 너희 중 둘은 물을 마셨지. 나를 포함해서 셋은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아서 목이 타.

- ① A와 D는 둘 다 물을 마셨다.
- ② C와 D는 둘 다 물을 마셨다.
- ③ E는 옹달샘에 다녀가지 않았다.
- ④ A가 물을 마시지 않았으면 B가 물을 마셨다.
- ⑤ 물을 마시지 않은 토끼는 모두 옹달샘에 다녀갔다.

2023 5급 (가) 11번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와 B가 선택하지 않을 결혼식 날짜는?

A와 B는 다음 달에 결혼식을 하려고 한다. 두 사람은 결혼식에 5명의 친구들(甲 ~ 戊)을 초대할 예정이며, 그 친구들이 가장 많이 올 수 있도록 결혼식 날짜를 선택하려고 한다.

甲 ~ 戊의 다음 달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일정이 있는 날짜에는 결혼식에 갈 수 없고 그 외의 날짜에는 결혼식에 갈 수 있다.

○ 甲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휴일에 상관없이 회사에 간다.

○ 乙은 매주 화, 목, 토요일에는 세미나가 있다.

○ 丙은 1일부터 14일까지 여행을 간다.

○ 丁은 매주 일요일에는 등산을 한다.

○ 戊는 3의 배수 또는 3, 6, 9가 포함되는 날짜에는 부모님 간병을 한다.

<다음 달 달력>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① 다음 달 9일
- ② 다음 달 17일
- ③ 다음 달 20일
- ④ 다음 달 22일
- ⑤ 다음 달 25일

2023 5급 (가) 14번

1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대륙의 국가들은 외교 조약을 체결한다. 외교 조약은 두 나라 사이에서만 직접 체결된다. 이때 그 두 나라는 ‘직접 조약’ 관계에 있다고 한다.

한편 어떤 두 나라가 직접 조약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그 두 나라와 공통으로 직접 조약 관계인 나라가 3개 이상인 경우 ‘친밀’ 관계, 2개인 경우 ‘우호’ 관계, 1개 이하인 경우 ‘중립’ 관계라 한다.

—————<상 황>—————

○ △△대륙의 국가는 A~E국으로 총 5개국이다.

○ A국과 직접 조약 관계인 어떤 나라도 D국과 직접 조약 관계에 있지 않다.

○ A국과 B국은 친밀 관계이다.

—————<보 기>—————

ㄱ. D국과 E국은 우호 관계이다.

ㄴ. A국과 D국은 직접 조약 관계이다.

ㄷ. 중립 관계인 두 나라가 있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023 5급 (가) 34번

3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다음 주에 戊가 A와 함께 먹을 음식의 종류는?

甲~戊는 다음 주 월~금요일 중 각자 다른 요일에 A와 저녁을 먹으려 한다. A는 다양한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 한식, 중식, 일식, 양식, 퓨전음식을 한 번씩 먹는다. 甲은 A와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중식을 먹기로 약속을 잡았다. 乙은 출장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만 약속을 잡을 수 있고, 丙은 일식과 양식만 먹는다. 丁은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금식하며, 수요일에는 한식을, 목요일에는 일식을, 금요일에는 다른 종류의 음식을 먹는다. 한편 한식 음식점은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영업하지 않으며, 퓨전음식점은 수요일에만 영업한다.

- ① 한식
- ② 중식
- ③ 일식
- ④ 양식
- ⑤ 퓨전음식

2023 5급 (가) 35번

3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강좌의 교수는 수강생을 3개의 팀으로 편성하려고 한다.

○ 모든 수강생들에 대한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빈칸은 현재 알 수 없는 정보이지만, 해당 정보가 무엇이더라도 ‘팀 편성 규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팀을 편성해야 한다.

구분	수강생	학년	성별	학과
팀장	A	3		수학과
	B	2	남성	통계학과
	C		여성	화학과
팀원	甲	4	남성	경영학과
	乙	4	여성	영문학과
	丙	3	남성	국문학과
	丁	3	여성	경영학과
	戊	2	여성	물리학과
	己	2	여성	기계공학과

○ 팀 편성 규칙은 다음과 같다.

- 각 팀은 팀장 1명과 팀원 2명으로 구성한다.
- 4학년 학생 2명을 한 팀에 편성할 수 없다.
- 동일 학과 학생을 한 팀에 편성할 수 없다.
- 물리학과 학생과 화학과 학생은 한 팀에 편성한다.
- 각 팀은 특정 성(性)의 수강생만으로 편성할 수 없다.
- 丙과 丁은 한 팀에 편성할 수 없다.

—————<보 기>—————

ㄱ. 乙과 丁은 한 팀에 편성한다.

ㄴ. 경영학과 학생과 기계공학과 학생은 한 팀에 편성할 수 없다.

ㄷ. 己는 A의 팀에 편성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024 5급 (나) 14번

1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솟값과 최댓값을 옳게 짝지은 것은?

A시는 호우특보(호우주의보 또는 호우경보) 발효 중에 현장 모니터링을 위해 당직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호우주의보 발효 중에는 하루에 1명씩 당직을 선다.
- 호우경보 발효 중에는 하루에 2명씩 당직을 선다.
- 당직 대상자는 총 3명(甲 ~ 丙)이다.
- 출장이나 휴가를 간 날에는 당직을 설 수 없다.
- 같은 사람이 이틀 연속 당직을 설 수 없다.

————— <상 황> —————

A시에 8월 중에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만 호우특보가 발효되었다. 8월 9일과 13일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날에는 모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다. 乙은 8월 11일에 하루 출장을 갔고, 丙은 8월 13일에 하루 휴가를 갔다. 甲 ~ 丙은 8월에 호우특보 발효 기간에만 당직을 섰다. 丙은 8월 중 총 ㉠ 일 당직을 섰다.

	최솟값	최댓값
①	2	3
②	2	4
③	3	4
④	3	5
⑤	4	5

2024 5급 (나) 15번

1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일주일에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최대 횟수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甲은 다음 조건에 따라 매주 같은 횟수로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다.

강아지 산책은 아침, 점심, 저녁에 각 한 번, 하루 세 번까지 가능하다. 하루에 세 번 강아지를 산책시키면 이튿날은 아침과 점심에 강아지를 산책시킬 수 없다. 그리고 하루에 점심, 저녁 연달아 강아지를 산책시키면 이튿날 아침에는 산책을 쉬어야 한다. 강아지를 하루에 한 번도 산책시키지 않으면 이튿날 아침에도 산책을 시키지 않는다. 甲은 매주 수요일에는 하루 종일 출장을 가서 강아지를 산책시킬 수 없다. 또한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강아지를 산책시킬 수 없다.

- ① 12
- ② 13
- ③ 14
- ④ 15
- ⑤ 16

2024 5급 (나) 32번

3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달리기에서 3등을 한 사람은?

사무관 5명(甲 ~ 戊)은 달리를 한 후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甲: 나는 1등 아니면 5등이야.

乙: 나는 중간에 丙과 丁을 제친 후, 누구에게도 추월당하지 않았어.

丙: 나보다 앞서 달린 적이 있는 사람은 乙과 丁뿐이야.

丁: 나는 丙에게 따라잡힌 적이 없어.

戊: 우리 중 같은 등수는 없네.

- ① 甲
- ② 乙
- ③ 丙
- ④ 丁
- ⑤ 戊

2024 5급 (나) 34번

34. 다음 글과 <1차 투표 결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부서에서는 팀원 5명(甲 ~ 戊)의 투표를 통해 프로젝트명을 정하려 한다.
 - 프로젝트명 후보는 3개(A ~ C)이다.
 - 1차 투표에서는 한 명당 두 표를 가지며, 두 표 모두 하나의 후보에 줄 수도 있다.
 - 1차 투표 결과에 따라 최다 득표 후보를 프로젝트명으로 선정하며, 최다 득표 후보가 복수인 경우 최소 득표 후보를 제외하고 2차 투표를 실시한다.
 - 2차 투표에서는 한 명당 한 표씩 행사하여, 최다 득표 후보를 프로젝트명으로 선정한다.

- <1차 투표 결과> —————

 - 하나의 후보에 두 표를 모두 준 사람은 甲과 乙뿐이며, 이들은 동일한 후보에 표를 주었다.
 - A에 투표한 사람은 3명이다.
 - B에 투표한 사람은 2명이다.
 - C에 투표한 사람은 3명이다.

- ① B는 선정될 수 없다.
- ② 1차 투표에서 丙과 丁이 투표한 후보의 조합은 서로 다르다.
- ③ 1차 투표에서 A가 받은 표는 최대 5표이다.
- ④ 1차 투표에서 C는 4표 이상 받았다.
- ⑤ 2차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2025 5급 (가) 34번

3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근무하는 층이 확정되는 사람은?

- A건물은 10층까지 있고, 4대의 엘리베이터(1 ~ 4호기)가 있다.

○ 甲 ~ 戊는 A건물의 1층을 제외한 서로 다른 층에서 근무하며, 1층과 각자 근무하는 층에서만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 1호기는 1층과 짝수 층만 운행한다.

○ 2호기는 1층과 홀수 층만 운행한다.

○ 3호기는 1층과 5층 이하만 운행한다.

○ 4호기는 1층과 6층 이상만 운행한다.

<상 황>

甲: 오늘 퇴근하며 내려가는 4호기를 탔는데, 이미 乙이 타고 있었어.

乙: 평소에는 1호기를 타는데, 오늘 1호기가 고장 나서 4호기를 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았어.

丙: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乙과 마주칠 일이 없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戊를 자주 봤는데, 요즘은 보이지 않네.

丁: 나는 戊를 제외한 나머지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있어.

戊: 나는 요즘 주로 계단으로 다녀. 근무하는 층이 3층 이하면 계단을 이용하라는 권고가 있었거든.

- ① 甲

② 乙

③ 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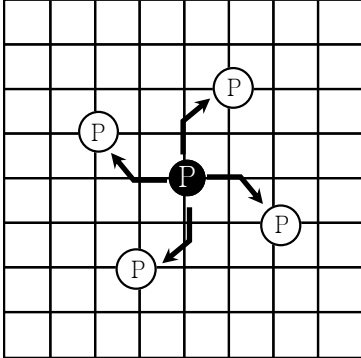
④ 丁

⑤ 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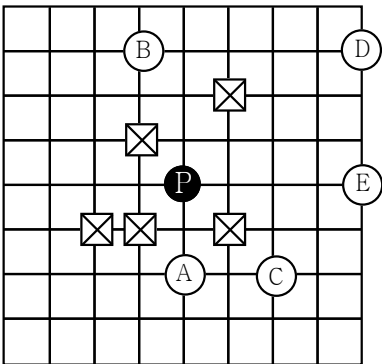
2013 민경채 (인) 22번

문 22. 다음 <그림>처럼 P가 1회 이동할 때는 선을 따라 한 칸 움직인 지점에서 우측으로 45도 꺾어서 한 칸 더 나아가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P가 이동하려는 경로 상에 장애물(☒)이 있으면 움직이지 못한다. <보기> A~E에서 P가 3회 이하로 이동해서 위치할 수 있는 곳만을 옳게 묶은 것은?

<그림>



<보기>



- ① A, B
- ② B, D
- ③ A, C, E
- ④ B, D, E
- ⑤ C, D, E

2019 민경채 (나) 15번

문 1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가락>을 연주하기 위해 ㉠을 누른 상태로 줄을 튕기는 횟수는?

줄이 하나인 현악기가 있다. 이 악기는 줄을 누를 수 있는 지점이 ㉠부터 ㉡까지 총 11곳 있고, 이 중 어느 한 지점을 누른 상태로 줄을 튕겨서 연주한다. ㉠을 누르고 줄을 튕기면 A음이 나고, ㉡를 누르고 줄을 튕기면 A음보다 반음 높은 소리가 난다. 이런 식으로 ㉠ ~ ㉡순으로 누르는 지점을 옮길 때마다 반음씩 더 높은 소리가 나며, 최저 A음부터 최고 G음까지 낼 수 있다.

이들 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반음 차이 두 개의 합은 한음 차이와 같다.
- A음보다 B음이, C음보다 D음이, D음보다 E음이, F음보다 G음이 한음 높고, 둘 중 낮은 음보다 반음 높은 음은 낮은 음의 이름 오른쪽에 #을 붙여 표시한다.
- B음보다 C음이, E음보다 F음이 반음 높다.

————— <가 락> —————

E D# E D# E B D C A A A B E G B C

- ① 0
- ② 1
- ③ 2
- ④ 3
- ⑤ 4

2020 민경채 (가) 21번

문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키가 서로 다른 6명의 어린이를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일렬로 세우려고 한다. 그림은 일렬로 세운 하나의 예이다. 한 어린이(이하 甲이라 한다)의 등 뒤에 甲보다 키가 큰 어린이가 1명이라도 있으면 A방향에서 甲의 뒷통수는 보이지 않고, 1명도 없으면 A방향에서 甲의 뒷통수는 보인다. 반대로 甲의 앞에 甲보다 키가 큰 어린이가 1명이라도 있으면 B방향에서 甲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1명도 없으면 B방향에서 甲의 얼굴은 보인다.



— <보 기> —

- ㄱ. A방향에서 보았을 때 모든 어린이의 뒷통수가 다 보이게 세우는 방법은 1가지뿐이다.
- ㄴ. 키가 세 번째로 큰 어린이를 5번 자리에 세운다면, A방향에서 보았을 때 그 어린이의 뒷통수는 보이지 않는다.
- ㄷ. B방향에서 2명의 얼굴만 보이도록 어린이들을 세웠을 때, A방향에서 6번 자리에 서 있는 어린이의 뒷통수는 보이지 않는다.
- ㄹ. B방향에서 3명의 얼굴이 보인다면, A방향에서 4명의 뒷통수가 보일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12 5급 (인) 14번

문 14. 아파트 경비원 A, B 중 A는 청력이 좋지 않아 특정 날씨 조건에 따라 ‘삼’과 ‘천’을 바꾸어 알아듣는다. 예를 들면 ‘301호’를 ‘천백일호’라고, ‘1101호’를 ‘삼백일호’라고 알아듣는다. 또한 이 아파트 〇〇〇호 주인이 경비원에게 맡겨진 자신의 물건을 가져다 줄 것을 부탁할 때는 항상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통화한다.

<통화내용>

〇〇〇호 주인 : 여기 〇〇〇호 주인인데요, 관리실에 맡겨져 있는 △△(주인과 호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를 저희 집에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비원 : 알겠습니다.

11월 1일에서 11월 7일까지의 <상황>이 다음과 같다고 할 때, 경비원 A, B가 7일간 301호와 1101호에 전달한 내용물은?

<상 황>

○ 근무 일정 및 날씨

일자 /날씨	11월 1일 종일 맑음	11월 2일 종일 비	11월 3일 종일 맑음	11월 4일 종일 맑음	11월 5일 종일 맑음	11월 6일 종일 흐림	11월 7일 종일 비
근무자	A	B	A	B	A	B	A
발신자	1101호 주인	1101호 주인	-	-	301호 주인	301호 주인	-
요청사항	천 묶음 전달	삼 묶음 전달	-	-	천백원 봉투 전달	삼백원 봉투 전달	-

○ A와 B는 1일씩 근무하고 밤 12시 정각에 교대한다.

○ 이 경비실에는 상기 기간 동안 천 2묶음, 삼 2묶음, 천백원 봉투 2개, 삼백원 봉투 2개가 맡겨져 있다.

○ 청력상태

- A : 날씨가 맑지 않으면 위와 같이 ‘삼’과 ‘천’을 바꾸어 알아듣는다.

- B : 날씨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알아 듣는다.

○ 특이 사항 : B가 11월 2일에 전화받은 내용을 미처 실행에 옮기지 못하여 B가 A에게 교대하기 10분 전에 “삼 묶음을 1101호에 내일 전달해 주세요.”라고 말하였고, A는 알아들었다고 했다.

- 301호

1101호
- ① 천 묶음, 삼백원 봉투, 천백원 봉투

천 묶음
- ② 삼 묶음, 천 묶음

삼백원 봉투, 천백원 봉투
- ③ 천 묶음, 삼백원 봉투

천 묶음, 삼 묶음
- ④ 삼백원 봉투, 천백원 봉투

천 묶음, 삼백원 봉투
- ⑤ 천 묶음

삼 묶음, 삼백원 봉투, 천백원 봉투

2013 외교 (인) 16번

문 16. 다음 <그림>에서 맨 윗줄에 있는 임의의 한 숫자에서 시작하여 아래쪽으로(대각선 방향 포함) 한 칸씩 이동할 수 있다. 위로 가거나 좌우로 이동할 수는 없다. 숫자 1과 숫자 1의 좌우 옆칸은 지날 수 없지만, 시작과 도착은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맨 아랫줄까지 이동할 때, 시작부터 도착까지 숫자의 합이 가장 큰 것은?

<그 립>

	좌				우			
상	9	4	5	3	6	1	8	2
	8	2	2	1	3	2	5	1
	6	9	8	4	2	4	3	5
	4	8	1	3	5	2	6	1
	1	4	3	7	6	3	1	4
	9	2	4	8	6	4	5	3
	4	2	4	9	8	6	7	1
	2	8	1	6	5	9	3	2
하	9	6	7	2	1	4	3	5

- ① 52
- ② 53
- ③ 54
- ④ 55
- ⑤ 58

2014 5급 (A) 16번

문 16. 다음 글과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두 번째로 전화를 걸 대상은?

○○국은 자문위원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담당자 甲은 <자문위원 명단>을 보고 모든 자문위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참석여부를 확인하려 한다.

<자문위원 명단>

성명	소속	분야	참석경험 유무
A	가 대학	세계경제	○
B	나 기업	세계경제	×
C	다 연구소	경제원조	×
D	다 연구소	경제협력	○
E	라 협회	통상	×
F	가 대학	경제협력	×

- <조 건>
- 같은 소속이면 참석경험이 있는 자문위원에게 먼저 전화를 건다.
 - 같은 분야면 참석경험이 있는 자문위원에게 먼저 전화를 건다.
 - 같은 소속의 자문위원에게 연이어 전화를 걸 수 없다.
 - 같은 분야의 자문위원에게 연이어 전화를 걸 수 없다.
 - 참석경험이 있는 자문위원에게 연이어 전화를 걸 수 없다.
 - 명단에 있는 모든 자문위원에게 1회만 전화를 건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2014 5급 (A) 38번

문 38. 다음 <조건>에 따라 ○○대회 예선이 진행된다. 甲이 심사위원장을 알아내고자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조 건>——

○ 예선의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4인이며, 그 중 누가 심사위원장인지 참가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 심사위원은 참가자의 노래를 들은 후 동시에 O 또는 X의 결정을 내리며, 다수결에 의해 예선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 만약 O와 X를 결정한 심사위원의 수가 같다면, 심사위원장이 O 결정을 한 경우 통과, X 결정을 한 경우 탈락한다.

○ 4명의 참가자들은 어떤 심사위원이 자신에게 O 또는 X 결정을 내렸는지와 통과 또는 탈락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여 甲에게 알려주었다.

——<보 기>——

ㄱ. 4명의 참가자가 모두 심사위원 3인의 O 결정으로 통과했다면, 甲은 심사위원장을 알아낼 수 없다.

ㄴ. 4명의 참가자가 모두 같은 2인의 심사위원에게만 O 결정을 받아 탈락했다면, 甲은 심사위원장을 알아낼 수 있다.

ㄷ. 4명의 참가자가 모두 2인의 심사위원에게만 O 결정을 받았고, O 결정을 한 심사위원의 구성이 모두 다르다면, 甲은 심사위원장을 알아낼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015 5급 (인) 13번

문 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 乙, 丙은 미팅에서 짝을 정하려고 한다. 짝을 결정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 미팅 상대방 A, B, C는 각자의 이름을 자신의 쪽지에 적는다.

☐ 그 쪽지 세 장을 무작위로 甲, 乙, 丙에게 한 장씩 나누어 준다.

☐ 각자가 받은 쪽지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 자신의 짝 후보가 된다.

☐ 甲, 乙, 丙 순으로 각자의 <성향>에 따라 짝 후보를 거절하거나 수락한다.

☐ 만일 한 명이라도 거절할 경우, 그 즉시 세 장의 쪽지를 무작위로 다시 나누어 주어 甲, 乙, 丙 순으로 거절하거나 수락한다. 예를 들어 甲이 수락한 후 乙이 거절한 경우, 丙의 선택을 묻지 않고 세 장의 쪽지를 무작위로 다시 나누어 주게 된다.

☐ 모두가 수락할 경우 짝이 확정된다.

<성 향>

甲	B만 내 짝이 아니면 된다고 생각한다. 단, 네 번 이상 거절하지 않는다.
乙	내 짝으로 삼고 싶은 사람은 A뿐이다. 단, 세 번 이상 거절하지 않는다.
丙	내 짝으로 삼고 싶은 사람은 C뿐이다. 단, 두 번 이상 거절하지 않는다.

<보 기>

ㄱ. 짝이 확정되기 위한 최소의 거절 횟수와 최대의 거절 횟수를 합하면 총 7회이다.

ㄴ. 甲, 甲, 乙, 乙 순으로 거절한 이후 짝이 확정되었다면 乙의 짝은 A이다.

ㄷ. 甲, 乙, 丙, 甲 순으로 거절한 이후 짝이 확정되었다면 丙의 짝은 B이다.

ㄹ. 甲, 乙, 甲, 丙 순으로 거절한 이후 짝이 확정되었다면, 丙이 거절했을 당시 甲의 짝 후보는 A이었을 것이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015 5급 (인) 36번

문 3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모든 방청객이 심사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표했다면 탈락자 또는 우승자가 바뀔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5명(甲 ~ 戊)이 노래경연대회에 참가하였다.

○ 참가자들은 총 3회전에 걸친 노래경연을 하며, 심사는 방청객 50명의 투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 방청객은 매 회전 정해진 시간 내에 투표를 마쳐야 한다.

○ 1회전과 2회전에서는 노래를 가장 못 불렀다고 생각하는 1명에게 투표하여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1명씩 탈락자가 된다.

○ 3회전에서는 남은 3명 중 노래를 가장 잘 불렀다고 생각하는 1명에게 투표하여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우승자가 된다.

○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 해당하는 사람들끼리 재대결하여 탈락자 또는 우승자를 결정한다.

○ 투표결과는 아래와 같다.

경연	甲	乙	丙	丁	戊	기권	심사결과
1회전	12	11	7	6	14	0	戊 탈락
2회전	14	15	9	10		2	乙 탈락
3회전	13		20	17		0	丙 우승

<보 기>

- ㄱ. 방청객 2명이 심사규칙을 이해하지 못하여 1~3회전 모두 노래를 가장 못 불렀다고 생각한 甲에게 투표했다.

ㄴ. 방청객 2명이 심사규칙을 이해하지 못하여 1~3회전 모두 노래를 가장 잘 불렀다고 생각한 丁에게 투표했다.

ㄷ. 방청객 2명이 1회전에서만 심사규칙을 이해하지 못하여 노래를 가장 잘 불렀다고 생각한 戊에게 투표했다.

ㄹ. 방청객 2명이 2회전에서 한 명은 甲, 한 명은 乙에게 투표하려 했으나, 투표시기를 놓쳐 기권으로 처리됐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6 5급 (4) 11번

문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이 게임은 카드를 뽑아 낱말퍼즐 조각끼리 맞바꿔 단어를 만드는 게임이다. 낱말퍼즐은 총 16조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음과 같이 1조각당 숫자 1개와 문자 1개가 함께 적혀 있다.

1 경	2 표	3 명	4 심
5 목	6 세	7 유	8 서
9 차	10 심	11 보	12 범
13 손	14 민	15 병	16 감

○ 카드는 A, B, C 각 1장씩 있고, 뽑힌 각 1장의 카드로 낱말퍼즐 조각 2개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1회 맞바꿀 수 있다.

카드 A	짝수가 적혀 있는 낱말퍼즐 조각끼리 맞바꿈
카드 B	낱말퍼즐 조각에 적힌 숫자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조각끼리 맞바꿈
카드 C	낱말퍼즐 조각에 적힌 숫자를 더해서 소수가 되는 조각끼리 맞바꿈

○ 낱말퍼즐에서 같은 가로 줄에 있는 4개의 문자를 왼쪽에서부터 차례로 읽은 것 또는 같은 세로 줄에 있는 4개의 문자를 위쪽에서부터 차례로 읽은 것을 ‘단어’라고 한다.

<보 기>

ㄱ. 카드 A, B를 뽑았다면 ‘목민심서’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다.

ㄴ. 카드 A, C를 뽑았다면 ‘경제유표’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다.

ㄷ. 카드 B, C를 뽑았다면 ‘명심보감’이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

2016 5급 (4) 12번

문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도형의 모양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5명의 학생은 5개 도형 A ~ E의 모양을 맞히는 게임을 하고 있다. 5개의 도형은 모두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며 각각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원 중 하나의 모양으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에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5개의 도형을 보여준 후 도형의 모양을 2개씩 진술하게 하였다. 학생들이 진술한 도형의 모양은 다음과 같고, 모두 하나씩만 정확하게 맞혔다.

지영 : C = 삼각형, D = 사각형

종형 : B = 오각형, E = 사각형

미석 : C = 원, D = 오각형

길원 : A = 육각형, E = 사각형

수연 : A = 육각형, B = 삼각형

- ① A = 육각형, D = 사각형
- ② B = 오각형, C = 삼각형
- ③ A = 삼각형, E = 사각형
- ④ C = 오각형, D = 원
- ⑤ D = 오각형, E = 육각형

2017 5급 (가) 12번

문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A회사의 모든 직원이 매일 아침 회사에서 요일별로 제공되는 빵을 먹었다. 직원 가운데 甲, 乙, 丙, 丁 네 사람은 빵에 포함된 특정 재료로 인해 당일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났다. A회사는 요일별로 제공된 빵의 재료와 甲, 乙, 丙, 丁에게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 요일을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했으나, 화요일에 제공된 빵에 포함된 두 가지 재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甲, 乙, 丙, 丁은 각각 한 가지 재료에 대해서만 알레르기 증상을 보였다.

구분	월	화	수	목	금
재료	밀가루, 우유	밀가루, ? , ?	옥수수가루, 아몬드, 달걀	밀가루, 우유, 달걀	밀가루, 우유, 달걀, 식용유
알레르기 증상 발생자	甲	丁	乙, 丁	甲, 丁	甲, 丙, 丁

※ 알레르기 증상은 발생한 당일 내에 사라진다.

· <보 기>

- ㄱ. 甲이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 것은 밀가루 때문이다.
- ㄴ. 甲, 乙, 丙은 서로 다른 재료에 대하여 알레르기 증상을 보였다.
- ㄷ. 화요일에 제공된 빵의 확인되지 않은 재료 중 한 가지는 달걀이다.
- ㄹ. 만약 화요일에 제공된 빵에 포함된 재료 중 한 가지가 아몬드였다면, 乙의 알레르기 증상은 옥수수가루 때문이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2017 5급 (가) 17번

문 17. 다음 <조건>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조 건>

민우의 스마트폰은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배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종료된다.

○ 3개 이상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이 동시에 실행 중일 수 없다.

○ 총 메모리 사용량이 메모리의 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기본 메모리 용량은 1.5 GB이나, 1.6 GB로 확장할 수 있다)

○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 이름의 글자 수 합이 22자를 초과할 수 없다.

○ 서로 종류(메신저, 게임, 지도, 뱅킹)가 다른 4가지의 애플리케이션이 동시에 실행 중일 수 없다.

<상 황>

○ 민우의 스마트폰에는 총 9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아래와 같이 설치되어 있다.

이름	종류	메모리 사용량(MB)
바나나톡	메신저	400
나인	메신저	300
모노그램	메신저	150
쿠키워크	게임	350
레일런	게임	150
녹색지도	지도	300
고글지도	지도	100
컨트리은행	뱅킹	90
구한은행	뱅킹	260

○ 현재 민우의 스마트폰은 전원이 켜져 있다.

○ 현재 민우의 스마트폰에서는 총 6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이다.

○ 현재 민우의 스마트폰에서는 ‘바나나톡’, ‘구한은행’이 실행 중이다.

- ※ 1 GB는 1,024 MB이다.
- ※ 총 메모리 사용량은 실행 중인 개별 애플리케이션 메모리 사용량의 합이다.
- ① 현재 ‘나인’은 실행 중이다.

② 현재 ‘컨트리은행’은 실행되지 않고 있다.

③ 현재 게임 애플리케이션은 모두 실행 중이다.

④ 현재 ‘고글지도’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

⑤ 민우의 스마트폰은 메모리가 확장되어 현재 1.6 GB인 상태이다.

2018 5급 (나) 30번

문 30. 다음 글과 <실험>을 근거로 판단할 때, 히스티딘을 합성하게 하는 ‘코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20세기 초중반에 걸쳐 이루어진 유전정보에 관한 발견이다. DNA는 유전물질이며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DNA의 유전정보는 RNA로 전달되어 단백질을 합성하게 함으로써 형질을 발현시킨다.

RNA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다.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A, G, C, U의 4종류가 있다. 연속된 3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조합을 ‘코돈’이라 한다. 만약 G와 U 2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GUUGUGU와 같이 연결되어 RNA를 구성하고 있다면, 가능한 코돈은 GUU, UUG, UGU, GUG의 4가지이다. 하나의 코돈은 하나의 아미노산만을 합성하게 한다. 그러나 특정한 아미노산을 합성하게 하는 코돈은 여러 개일 수 있다.

※ 아미노산 : 단백질의 기본단위로서 히스티딘, 트레오닌, 프롤린, 글루타민, 아스파라긴 등이 있다.

— < 실험 > —

어떤 과학자가 아미노산을 합성하게 하는 RNA의 유전정보를 번역하기 위해 뉴클레오타이드 A와 C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실험 1 : A와 C를 교대로 연결하여 …ACACAC…인 RNA를 만들고, 이 RNA의 코돈을 이용하여 히스티딘과 트레오닌을 합성하였다.

실험 2 : A와 2개의 C인 ACC를 반복적으로 연결하여 …ACCACCACC…인 RNA를 만들고, 이 RNA의 코돈을 이용하여 히스티딘, 트레오닌, 프롤린을 합성하였다.

실험 3 : C와 2개의 A인 CAA를 반복적으로 연결하여 …CAACAACAA…인 RNA를 만들고, 이 RNA의 코돈을 이용하여 트레오닌, 글루타민, 아스파라긴을 합성하였다.

- ① AAC
- ② ACA
- ③ CAA
- ④ CAC
- ⑤ CCA

2018 5급 (나) 35번

문 35. 다음 글과 <표>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세 사람 사이의 관계가 ‘모호’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임의의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동갑’과 ‘위아래’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 두 사람이 태어난 연도가 같은 경우 초등학교 입학년도에 상관없이 ‘동갑’ 관계가 된다.
- 두 사람이 태어난 연도가 다른 경우 ‘위아래’ 관계가 된다. 이때 생년이 더 빠른 사람이 ‘윗사람’, 더 늦은 사람이 ‘아랫사람’이 된다.
- 두 사람이 태어난 연도가 다르더라도 초등학교 입학년도가 같고 생년월일의 차이가 1년 미만이라면 ‘동갑’ 관계가 된다.
-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임의의 세 사람(A~C) 사이의 관계는 ‘명확’과 ‘모호’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 A와 B, A와 C가 ‘동갑’ 관계이고 B와 C 또한 ‘동갑’ 관계인 경우 세 사람 사이의 관계는 ‘명확’하다.
- A와 B가 ‘동갑’ 관계이고 A가 C의 ‘윗사람’, B가 C의 ‘윗사람’인 경우 세 사람 사이의 관계는 ‘명확’하다.
- A와 B, A와 C가 ‘동갑’ 관계이고 B와 C가 ‘위아래’ 관계인 경우 세 사람 사이의 관계는 ‘모호’하다.

<표>

이름	생년월일	초등학교 입학년도
甲	1992. 4. 11.	1998
乙	1991. 10. 3.	1998
丙	1991. 3. 1.	1998
丁	1992. 2. 14.	1998
戊	1993. 1. 7.	1999

<보 기>

- ㄱ. 甲, 乙, 丙
- ㄴ. 甲, 乙, 丁
- ㄷ. 甲, 丙, 丁
- ㄹ. 乙, 丁, 戊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19 5급 (가) 32번

문 3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기업은 5명(甲 ~ 戊)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였다. 면접시험의 평가기준은 가치관, 열정, 표현력, 잠재력, 논증력 5가지 항목이며 각 항목 점수는 3점 만점이다. 이에 따라 5명은 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받았다.

<면접시험 결과> (단위: 점)

구분	甲	乙	丙	丁	戊
가치관	3	2	3	2	2
열 정	2	3	2	2	2
표현력	2	3	2	2	3
잠재력	3	2	2	3	3
논증력	2	2	3	3	2

종합점수는 각 항목별 점수에 항목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하며,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등수를 결정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등수>

1등	乙
2등	戊
3등	甲
4등	丁
5등	丙

- ① 잠재력은 열정보다 항목가중치가 높다.
- ② 논증력은 열정보다 항목가중치가 높다.
- ③ 잠재력은 가치관보다 항목가중치가 높다.
- ④ 가치관은 표현력보다 항목가중치가 높다.
- ⑤ 논증력은 잠재력보다 항목가중치가 높다.

2020 5급 (나) 32번

문 3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출연할 요일과 프로그램을 옳게 짝지은 것은?

甲은 ○○방송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 특별 출연을 요청받았다.

매체	프로그램	시간대	출연 가능 요일
TV	모여라 남극유치원	오전	월, 수, 금
	펭귄극장	오후	화, 목, 금
	남극의 법칙	오후	월, 수, 목
라디오	지금은 남극시대	오전	화, 수, 목
	펭귄파워	오전	월, 화, 금
	열시의 펭귄	오후	월, 수, 금
	굿모닝 남극대행진	오전	화, 수, 금

甲은 다음주 5일(월요일 ~ 금요일) 동안 매일 하나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한 번 출연한 프로그램에는 다시 출연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 매체에 2일 연속 출연하지 않으며, 동일 시간대에도 2일 연속 출연하지 않는다.

- 요일

프로그램
- ① 월요일

펭귄파워
- ② 화요일

굿모닝 남극대행진
- ③ 수요일

열시의 펭귄
- ④ 목요일

펭귄극장
- ⑤ 금요일

모여라 남극유치원

2021 5급 (가) 28번

문 2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3개의 과일상자가 있다.

☐ 하나의 상자에는 사과만 담겨 있고, 다른 하나의 상자에는 배만 담겨 있으며, 나머지 하나의 상자에는 사과와 배가 섞여 담겨 있다.

☐ 각 상자에는 ‘사과 상자’, ‘배 상자’, ‘사과와 배 상자’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다.

☐ 이름표대로 내용물(과일)이 들어 있는 상자는 없다.

☐ 상자 중 하나에서 한 개의 과일을 꺼내어 확인할 수 있다.

- <보 기>——

ㄱ. ‘사과와 배 상자’에서 과일 하나를 꺼내어 확인한 결과 사과라면, ‘사과 상자’에는 배만 들어 있다.

ㄴ. ‘배 상자’에서 과일 하나를 꺼내어 확인한 결과 배라면, ‘사과 상자’에는 사과와 배가 들어 있다.

ㄷ. ‘사과 상자’에서 과일 하나를 꺼내어 확인한 결과 배라면, ‘배 상자’에는 사과만 들어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2 5급 (나) 35번

문 3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A마을에서는 다음과 같이 양의 이름을 짓는다.

 - ‘물’, ‘불’, ‘돌’, ‘눈’ 중 한 개 이상의 글자를 사용하여 이름을 짓는다.
 - 봄에 태어난 양의 이름에는 ‘물’, 여름에 태어난 양의 이름에는 ‘불’, 가을에 태어난 양의 이름에는 ‘돌’, 겨울에 태어난 양의 이름에는 ‘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수컷 양의 이름에는 ‘물’, 암컷 양의 이름에는 ‘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같은 글자가 두 번 이상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보 기> —————

 - ㄱ. 겨울에 태어난 A마을 양이 암컷이라면, 그 양에게 붙일 수 있는 두 글자 이름은 두 가지이다.
 - ㄴ. A마을 양 ‘물불’은 여름에 태어났다면 수컷이고 봄에 태어났다면 암컷이다.
 - ㄷ. A마을 양의 이름은 모두 두 글자 이상 네 글자 이하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2023 5급 (가) 8번

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 해당하는 수는?

甲: <자기를 위한 인생>을 찍은 소다르 감독 작고 소식 들었어?
乙: 응. 그 작품이 소다르 감독이 세 번째로 찍은 영화였지?
1962년 작품이었나?
甲: 그렇지. 그해 마지막으로 찍은 작품이기도 하고. 1960년에
<내 멋대로 하자>로 데뷔하고 <남자는 남자다> 다음에
찍은 영화니까. 정작 우리나라에서 개봉은 늦어졌지만.
乙: 우리나라에선 1983년에 찍은 <미남 갱 카르멘>이 주목
받아서 그해 처음 개봉된 다음, 데뷔작부터 찍은 순서대로
개봉됐던 거지?
甲: 전부 순서대로 개봉된 것은 아냐. 1963년 작품 중 2편은
우리나라에서 10편 넘는 작품이 개봉된 이후에야 극장에서
상영되었지.
乙: 아, 그랬지. 1963년에는 총 3편, 그다음 해에는 총 2편을
찍었으니까
甲: 응. 그리고 1965년에 첫 번째로 찍은 영화가 <베타빌>이야.
乙: 그럼 <베타빌>은 소다르 감독 작품 중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순서로 ㉠ 번째구나.

- ① 6
- ② 7
- ③ 8
- ④ 9
- ⑤ 10

2023 5급 (가) 28번

2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와, 태어난 날을 0살로 하여 매해 생일에 한 살씩 더하는 ‘만 나이’로 구분된다. 연 나이와 만 나이에 따라 甲~丁이 각각 존댓말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甲: 만 나이 기준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많으면 존댓말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존댓말을 쓰지 않는다.

乙: 연 나이 기준으로 자신보다 두 살 이상 많으면 존댓말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존댓말을 쓰지 않는다.

丙: 연 나이 기준으로 자신보다 두 살 이상 많거나 만 나이 기준으로 한 살 이상 많으면 존댓말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존댓말을 쓰지 않는다.

丁: 연 나이, 만 나이 모두 자신과 같으면 존댓말을 쓰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존댓말을 쓴다.

甲은 1995년 10월 21일에, 乙은 1994년 7월 19일에, 丙은 1994년 7월 6일에, 丁은 1994년 11월 22일에 태어났다.

——<보 기>——

ㄱ. 甲은 乙에게 항상 존댓말을 쓴다.

ㄴ. 乙과 丙은 서로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는다.

ㄷ. 2022년 9월 26일에 丁은 甲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는다.

ㄹ. 乙은 丁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지만, 丁은 乙에게 존댓말을 쓰는 경우가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2013 민경채 (인) 24번

문 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8개 국가의 장관이 회담을 위해 ○○에 모였다. 각국의 장관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회담이 갑자기 개최되어 통역관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통역을 거칠 수도 있고, 2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장관이 통역관의 역할을 겸할 수도 있다.

현재 회담에 참여하는 장관과 배석 가능한 통역관은 다음과 같다.

장관	사용언어
A	네팔어
B	영어
C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D	카자흐어, 러시아어
E	영어, 스와힐리어
F	에스파냐어
G	스와힐리어
H	한국어

통역관	통역 가능한 언어
甲	한국어, 우즈베크어
乙	영어, 네팔어
丙	한국어, 에스파냐어
丁	한국어, 영어, 스와힐리어

- <보 기>——

 - ㄱ. A장관이 F장관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명의 통역관이 배석하여야 한다.
 - ㄴ. 통역관이 丁밖에 없다면 H장관은 최대 3명의 장관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ㄷ. 통역관 丁이 없으면 G장관은 어느 장관과도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 ㄹ. 8명의 장관과 4명의 통역관이 모두 회담에 참석하면 모든 장관들은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12 5급 (인) 36번

문 36. 다음 <조건>에 따라 악기를 배치하고자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조 건> —————

- 목관5중주는 플루트, 클라리넷, 오보에, 바순, 호른 각 1대씩으로 이루어진다.
- 최상의 음향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음색이 서로 잘 어울리는 악기는 바로 옆자리에 놓아야 하고,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악기는 바로 옆자리에 놓아서는 안 된다.
- 오보에와 클라리넷의 음색은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다.
- 플루트와 클라리넷의 음색은 서로 잘 어울린다.
- 플루트와 오보에의 음색은 서로 잘 어울린다.
- 호른과 오보에의 음색은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다.
- 바순의 음색과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악기는 없다.
- 바순은 그 음이 낮아 제일 왼쪽(1번) 자리에는 놓일 수 없다.

1	2	3	4	5
○	○	○	○	○

- ① 플루트는 3번 자리에 놓일 수 있다.
- ② 클라리넷은 5번 자리에 놓일 수 있다.
- ③ 오보에는 2번 자리에 놓일 수 있다.
- ④ 바순은 3번 자리에 놓일 수 없다.
- ⑤ 호른은 2번 자리에 놓일 수 없다.

2013 외교 (인) 33번

문 33. 다음 <조건>에 따를 때,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조 건>

- 1. 양동, 남현, 보란, 예슬 네 사람은 시급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성된 태스크포스팀의 팀원이다. 이들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로 다른 지역에 파견된 상태이다.
- 2. 네 사람은 오직 스마트폰의 MOFA톡 애플리케이션만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한다.
- 3. MOFA톡은 오로지 1대1 메시지 전송만이 가능하다.
- 4. 상호 ‘친구’로 등록한 경우 두 사람은 서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 5. 만약 한 사람(A)이 상대방(B)을 ‘친구’ 목록에서 삭제한 경우, 그 사람(A)은 상대방(B)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B)에게는 여전히 그 사람(A)이 ‘친구’로 등록되어 있다면, 상대방(B)은 자신의 메시지를 그 사람(A)에게 전송할 수 있다.
- 6. 네 사람의 MOFA톡 ‘친구’ 관계는 다음과 같다.
 - (1) 양동은 남현, 보란, 예슬 모두를 MOFA톡 ‘친구’로 등록하였다.
 - (2) 남현은 양동, 보란, 예슬 모두를 MOFA톡 ‘친구’로 등록하였다.
 - (3) 보란은 양동, 예슬을 MOFA톡 ‘친구’로 등록했지만 남현을 ‘친구’ 목록에서 삭제하였다.
 - (4) 예슬은 남현을 MOFA톡 ‘친구’로 등록했지만 양동, 보란을 ‘친구’ 목록에서 삭제하였다.

<보 기>

- ㄱ.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예슬은 곧바로 남현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 메시지를 받은 남현이 보란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보란은 최종적으로 양동에게 이 메시지를 전송했다.
- ㄴ. 남현은 특정 사항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양동에게 전송했다. 양동은 이를 위임하는 메시지를 예슬에게 전송했고, 3일 뒤 예슬은 양동에게 조사결과 메시지를 전송했다.
- ㄷ. 보란은 현재 진척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예슬에게 전송했고, 5분 뒤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예슬로부터 전송받았다.
- ㄹ. 예슬은 업무관련 문의 메시지를 남현에게 전송했고, 남현은 잘 모르겠다며 보란에게 문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보란은 답변을 정리하여 예슬에게 메시지를 전송했다.
- ㅁ. 예슬은 남현이 주어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며 비난하는 메시지를 남현에게 전송하였다. 이에 화가 난 남현은 하소연하는 메시지를 보란에게 전송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ㅁ

2014 5급 (A) 32번

문 3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아마존 탐사대가 깊은 숲 속에서 새로운 개구리를 발견하여 실험실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개구리들은 복잡한 생식방식과 혈액형 유전 양상을 보였다.

○ 개구리의 혈액형은 Q, W, E형(QWE기준)으로 구분되며 각 혈액형은 α , β , γ 형($\alpha\beta\gamma$ 기준)으로 다시 구분된다.

○ α 형은 수컷 혹은 암컷의 성별을 띠며 유성생식만 가능하고 그 결과로 50 %는 α 형, 50 %는 γ 형을 낳는다. β 형은 양성을 띠어 유성생식과 무성생식 모두 가능하고, 유성생식의 결과로 α 형을 낳고 무성생식의 결과로 β 형을 낳는다. γ 형의 경우는 성별이 없어 무성생식만 가능하며 그 결과로 50 %는 β 형, 50 %는 γ 형을 낳는다. $\alpha\beta\gamma$ 기준으로 동일 혈액형간에만 생식이 가능하다.

○ 무성생식 시, 자식은 부모세대의 Q, W, E형 혈액형을 그대로 물려받는다. 유성생식 시에는 Q-W 조합은 E형, Q-E 조합은 W형, W-E 조합은 Q형 자식을 낳는다. QWE기준으로 동일 혈액형간 유성생식 조합은 부모세대와 같은 혈액형의 자식을 낳는다.

○ 현재 실험실에 있는 개구리의 혈액형과 성별은 아래와 같다.

	QWE기준	$\alpha\beta\gamma$ 기준	성별
개구리1	Q	α	수컷
개구리2	Q	α	암컷
개구리3	W	γ	무성
개구리4	W	β	양성
개구리5	E	γ	무성

- ※ 유성생식 : 암수가 합쳐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생식 방법.
- ※ 무성생식 : 암수의 어울림이 없이 그 자체에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생식 방법.

————— <보 기> —————

ㄱ. W β (양성)형의 경우 매 세대 존재할 수 있다.

ㄴ. 개구리5의 자식과 개구리4의 생식의 결과로 Q α (암컷)형이 가능하다.

ㄷ. 실험실에 개구리3과 개구리5 두 마리만 있다면, 더 이상 α 형 개구리는 실험실 내에서 만들어낼 수 없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019 5급 (가) 36번

문 3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수호가 세탁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수건의 색조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호는 현재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 검은색 수건을 각 1개씩 가지고 있다.

○ 수호는 본인의 세탁기로 세탁하며, 동일한 수건을 여러 번 세탁할 수 있다.

○ 수호가 가지고 있는 세탁기는 수건을 2개까지 동시에 세탁할 수 있고, 다른 색의 수건을 함께 세탁하면 다음과 같이 색이 변한다.

 - 빨간색 수건과 파란색 수건을 함께 세탁하면, 모두 보라색 수건이 된다.
 - 빨간색 수건과 노란색 수건을 함께 세탁하면, 각각 빨간색 수건과 주황색 수건이 된다.
 - 파란색 수건과 노란색 수건을 함께 세탁하면, 각각 파란색 수건과 초록색 수건이 된다.
 - 흰색 수건을 다른 색 수건과 함께 세탁하면, 모두 그 다른 색 수건이 된다.
 - 검은색 수건을 다른 색 수건과 함께 세탁하면, 모두 검은색 수건이 된다.

- ① 빨간색 1개, 파란색 1개, 보라색 2개, 검은색 1개
- ② 주황색 1개, 파란색 1개, 노란색 1개, 검은색 2개
- ③ 빨간색 1개, 주황색 1개, 파란색 2개, 검은색 1개
- ④ 보라색 3개, 초록색 1개, 검은색 1개
- ⑤ 빨간색 2개, 초록색 1개, 검은색 2개

2012 민경채 (인) 25번

문 25. 5명(A ~ E)이 다음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하고 있다. $4 \rightarrow 1 \rightarrow 1$ 의 순서로 숫자가 호명되어 게임이 진행되었다면 네 번째 술래는?

- ☐ $A \rightarrow B \rightarrow C \rightarrow D \rightarrow E$ 순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동그랗게 앉아있다.

☐ 한 명의 술래를 기준으로, 술래는 항상 숫자 3을 배정 받고, 반시계방향으로 술래 다음 사람이 숫자 4를, 그 다음 사람이 숫자 5를, 술래 이전 사람이 숫자 2를, 그 이전 사람이 숫자 1을 배정받는다.

☐ 술래는 1 ~ 5의 숫자 중 하나를 호명하고, 호명된 숫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술래가 된다. 새로운 술래를 기준으로 다시 위의 조건에 따라 숫자가 배정되며 게임이 반복된다.

☐ 첫 번째 술래는 A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2021 7급 (나) 7번

문 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마지막에 송편을 먹었다면 그 직전에 먹은 떡은?

원 쟁반의 둘레를 따라 쭉떡, 인절미, 송편, 무지개떡, 팔떡, 호박떡이 순서대로 한 개씩 시계방향으로 놓여 있다. 이 떡을 먹는 순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른다. 특정한 떡을 시작점(첫 번째)으로 하여 시계방향으로 떡을 세다가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떡을 먹는다. 떡을 먹고 나면 시계방향으로 이어지는 바로 다음 떡이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떡이 한 개 남게 되면 마지막으로 그 떡을 먹는다.

- ① 무지개떡
- ② 쭉떡
- ③ 인절미
- ④ 팔떡
- ⑤ 호박떡

2022 7급 (가) 17번

문 1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甲부처 신입직원 선발시험은 전공, 영어, 적성 3개 과목으로 이루어진다. 3개 과목 합계 점수가 높은 사람순으로 정원까지 합격한다. 응시자는 7명(A~G)이며, 7명의 각 과목 성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 전공시험 점수: A는 B보다 높고, B는 E보다 높고, C는 D보다 높다.

○ 영어시험 점수: E는 F보다 높고, F는 G보다 높다.

○ 적성시험 점수: G는 B보다도 높고 C보다도 높다.

합격자 선발 결과, 전공시험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응시자는 모두 합격한 반면 그 점수에 달하지 않은 응시자는 모두 불합격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영어시험과 적성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 ① A가 합격하였다면, B도 합격하였다.
- ② G가 합격하였다면, C도 합격하였다.
- ③ A와 B가 합격하였다면, C와 D도 합격하였다.
- ④ B와 E가 합격하였다면, F와 G도 합격하였다.
- ⑤ B가 합격하였다면, B를 포함하여 적어도 6명이 합격하였다.

2024 5급 (나) 13번

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A마을에 사는 5명(甲 ~ 戊)은 서로 나이가 다르다. 이들은 자신보다 연상인 사람의 나이는 모르지만, 연하인 사람의 나이는 알고 있다.

A마을 사람들은 연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아래 표에 따라 칭하는 말을 붙인다.

칭하는 대상 \ 화자	여자	남자
여자	우후	우히
남자	이후	이히

甲 ~ 丁은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甲: 戊 우후가 몇 살이지?

乙: 글썄, 모르겠네. 甲, 네가 나보다 1살 어린 건 기억나는데.

丙: 乙 이히가 모르는 것도 있네.

丁: 내 나이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 戊 이후도 내 나이를 알고 있어.

- ① 甲은 丙에게 ‘우히’를 붙인다.
- ② 丁은 丙에게 ‘이후’를 붙인다.
- ③ 丙과 戊의 나이 차는 2살 이하이다.
- ④ 甲 ~ 戊 중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다.
- ⑤ 甲 ~ 戊 중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사람은 乙이다.

2019 민경채 (나) 22번

문 22. 다음 <상황>과 <대화>를 근거로 판단할 때 6월생은?

<상 황>

○ 같은 해에 태어난 5명(지나, 정선, 혜명, 민경, 효인)은 각자 자신의 생일을 알고 있다.

○ 5명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생일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3월생이 2명, 6월생이 1명, 9월생이 2명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

○ 아래 <대화>는 5명이 한 자리에 모여 나눈 대화를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다.

○ 5명은 <대화>의 진행에 따라 상황을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솔직하게 대답한다.

<대 화>

민경: 지나야, 네 생일이 5명 중에서 제일 빠르니?

지나: 그럴 수도 있지만 확실히는 모르겠어.

정선: 혜명아, 네가 지나보다 생일이 빠르니?

혜명: 그럴 수도 있지만 확실히는 모르겠어.

지나: 민경아, 넌 정선이가 몇 월생인지 알겠니?

민경: 아니, 모르겠어.

혜명: 효인아, 넌 민경이보다 생일이 빠르니?

효인: 그럴 수도 있지만 확실히는 모르겠어.

- ① 지나

② 정선

③ 혜명

④ 민경

⑤ 효인

2025 7급 추가 (핵) 25번

2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甲이 확인할 사항만을 모두 고르면?

甲 ~ 丙 세 사람이 동일한 요리로 식사를 하려고 한다. 甲은 세 사람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리를 찾을 때까지 다양한 요리를 하나씩 확인해보려고 한다. 이때 甲은 각각의 요리에 대해 꼭 필요한 사항만 확인한다.

甲 ~ 丙이 각자의 요구에 대해 나눈 대화는 다음과 같다.

甲: 한식 아니면 어떤 요리든 괜찮아. 면 요리면 한식도 괜찮고.

乙: 나는 한식이면 돼. 아니면 면 요리나 해산물이 들어간 요리로 해 줘.

丙: 나는 해산물이 들어간 요리만 아니면 돼.

- <보 기>
- ㄱ. 각 요리가 한식인지 여부

ㄴ. 각 요리가 면 요리인지 여부

ㄷ. 각 요리에 해산물이 들어가는지 여부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019 5급 (가) 13번

문 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철수가 구매한 과일 바구니를 확실히 맞힐 수 있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 철수는 아래 과일바구니(A ~ E) 중 하나를 구매하였다.
- 甲, 乙, 丙, 丁은 각자 철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여 대답을 듣고 철수가 구매한 과일바구니를 맞히려 한다.
- 모든 사람은 <과일바구니 종류>와 <과일의 무게 및 색깔>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철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과일바구니 종류>

종류	바구니 색깔	바구니 구성
A	빨강	사과 1개, 참외 2개, 메론 1개
B	노랑	사과 1개, 참외 1개, 귤 2개, 오렌지 1개
C	초록	사과 2개, 참외 2개, 귤 1개
D	주황	참외 1개, 귤 2개
E	보라	사과 1개, 참외 1개, 귤 1개, 오렌지 1개

<과일의 무게 및 색깔>

구분	사과	참외	메론	귤	오렌지
무게	200 g	300 g	1,000 g	100 g	150 g
색깔	빨강	노랑	초록	주황	주황

— <보 기> —

- 甲: 바구니에 들어 있는 과일이 모두 몇 개니? 바구니에 들어 있는 과일의 무게를 모두 합치면 1 kg 이상이니?
- 乙: 바구니의 색깔과 같은 색깔의 과일이 포함되어 있니? 바구니에 들어 있는 과일이 모두 몇 개니?
- 丙: 바구니에 들어 있는 과일이 모두 몇 개니? 바구니에 들어 있는 과일의 종류가 모두 다르니?
- 丁: 바구니에 들어 있는 과일의 종류가 모두 다르니? 바구니에 들어 있는 과일의 무게를 모두 합치면 1 kg 이상이니?

- ① 甲, 乙
- ② 甲, 丁
- ③ 乙, 丙
- ④ 甲, 乙, 丁
- ⑤ 乙, 丙, 丁

2020 5급 (나) 15번

문 15. 다음 <상황>과 <대화>를 근거로 판단할 때 乙의 점수는?

————— <상 황> —————

○ 甲, 乙, 丙이 과제를 제출하여 각자 성적을 받았다.

○ 甲, 乙, 丙의 점수는 서로 다른 자연수로서 세 명의 점수를 합하면 100점이 되며, 甲, 乙, 丙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 甲, 乙, 丙은 자신의 점수는 알지만 다른 사람의 점수는 모르고 있다.

————— <대 화> —————

甲: 내가 우리 셋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

乙: 甲의 말을 들으니 우리 세 사람이 받은 점수를 확실히 알겠네.

丙: 나도 이제 우리 세 사람의 점수를 확실히 알겠어.

- ① 1
- ② 25
- ③ 33
- ④ 41
- ⑤ 49

2022 5급 (나) 13번

문 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 해당하는 것은?

甲: 혹시 담임 선생님 생신이 몇 월 며칠인지 기억나?
乙: 응, 기억하지. 근데 그건 왜?
甲: 내가 그날(월일)로 네 자리 일련번호를 설정했는데,
 맨 앞자리가 0이 아니었다는 것 말고는 도저히 기억이
 나질 않아서 말이야.
乙: 그럼 내가 몇 가지 힌트를 줄게. 맞혀볼래?
甲: 좋아.
乙: 선생님 생신은 31일까지 있는 달에 있어.
甲: 고마워. 그다음 힌트는 뭐야?
乙: 선생님 생신의 일은 8의 배수야.
甲: 그래도 기억이 나질 않네. 힌트 하나만 더 줄 수 있어?
乙: 알았어. ㉠
甲: 아! 이제 알았다. 고마워.

- ① 선생님 생신은 15일 이전이야.
- ② 선생님 생신의 일은 월의 배수야.
- ③ 선생님 생신의 일은 월보다 큰 수야.
- ④ 선생님 생신은 네 자리 모두 다른 수야.
- ⑤ 선생님 생신의 네 자리 수를 모두 더하면 9야.

2023 5급 (가) 33번

3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추가 질문으로 가능한 것은?

○ 甲 ~ 戊 5명은 총 18개의 구슬을 서로 다른 개수로 나누어 가지며, 모두 한 개 이상의 구슬을 가지고 있다.

○ 각각 몇 개의 구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한 甲 ~ 戊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질문	답변				
	甲	乙	丙	丁	戊
가지고 있는 구슬의 개수가 짝수입니까?	아니요	예	예	아니요	예
5명이 각자 가진 구슬 개수의 산술평균보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예	예	예

○ 1회의 추가 질문으로 甲 ~ 戊가 각각 가진 구슬의 개수를 모두 정확히 알아내고자 한다.

- ① 가지고 있는 구슬의 개수가 4 이상입니까?
- ② 가지고 있는 구슬의 개수가 8 이하입니까?
- ③ 가지고 있는 구슬의 개수가 10의 약수입니까?
- ④ 가지고 있는 구슬의 개수가 12의 약수입니까?
- ⑤ 가지고 있는 구슬의 개수가 3의 배수입니까?

2025 5급 (가) 14번

1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己가 받은 작년과 올해 성과평가 등급은?

△△과는 직원 6명(甲 ~ 己)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1명에게는 가장 높은 S등급, 2명에게는 A등급, 3명에게는 가장 낮은 B등급을 부여한다. 甲 ~ 己는 올해 성과평가 등급을 받은 뒤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들은 대화 전까지 자신의 작년과 올해 성과평가 등급은 알고 있었지만, 다른 직원의 성과평가 등급은 모르고 있었다.

<대 화>

甲: 나는 작년보다 등급이 올랐어.

乙: 나도 작년보다 등급이 올랐어.

丙: 그래? 나는 그대로야.

丁: 나는 甲, 乙, 丙 너희들이 작년이랑 올해 어떤 성과평가 등급을 받았는지 알겠어.

戊: 나는 너희 말을 들으니 우리 모두가 작년이랑 올해 어떤 성과평가 등급을 받았는지 알겠어.

己: 이제 나도 알겠어.

	작년	올해
①	S	A
②	S	B
③	A	S
④	A	B
⑤	B	A

2016 5급 (4) 14번

문 1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9명의 참가자는 1번부터 9번까지의 번호 중 하나를 부여 받고, 동시에 제비를 뽑아 3명은 범인, 6명은 시민이 된다.

○ ‘1번의 오른쪽은 2번, 2번의 오른쪽은 3번, …, 8번의 오른쪽은 9번, 9번의 오른쪽은 1번’과 같이 번호 순서대로 동그랗게 앉는다.

○ 참가자는 본인과 바로 양 옆에 앉은 사람이 범인인지 시민인지 알 수 있다.

○ “옆에 범인이 있다”라는 말은 바로 양 옆에 앉은 2명 중 1명 혹은 2명이 범인이라는 뜻이다.

○ “옆에 범인이 없다”라는 말은 바로 양 옆에 앉은 2명 모두 범인이 아니라는 뜻이다.

○ 범인은 거짓말만 하고, 시민은 참말만 한다.

- <보 기> —————

ㄱ. 1, 4, 6, 7, 8번의 진술이 “옆에 범인이 있다”이고, 2, 3, 5, 9번의 진술이 “옆에 범인이 없다”일 때, 8번이 시민임을 알면 범인들을 모두 찾아낼 수 있다.

ㄴ. 만약 모두가 “옆에 범인이 있다”라고 진술한 경우, 범인이 부여 받은 번호의 조합은 (1, 4, 7)/(2, 5, 8)/(3, 6, 9) 3가지이다.

ㄷ. 한 명만이 “옆에 범인이 없다”라고 진술할 경우는 없다.

- ① ㄴ

② ㄷ

③ ㄱ, 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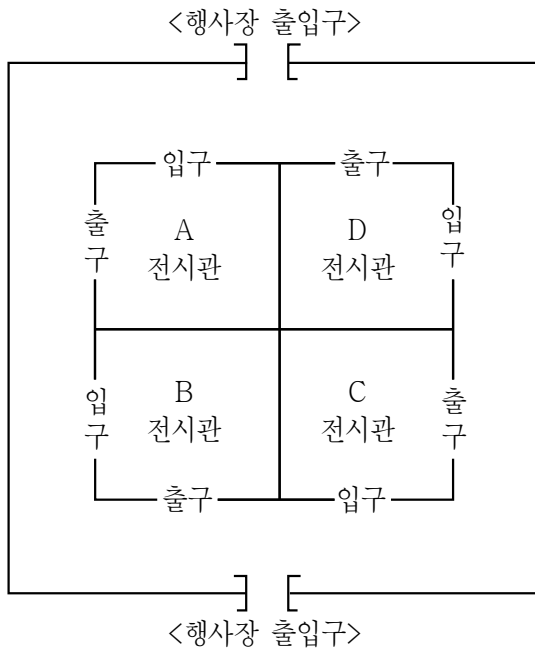
④ ㄱ, ㄷ

⑤ ㄱ, ㄴ, ㄷ

2014 민경채 (A) 25번

문 2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B 전시관 앞을 지나가거나 관람한 총인원은?

- 전시관은 $A \rightarrow B \rightarrow C \rightarrow D$ 순서로 배정되어 있다. <행사장 출입구>는 아래 그림과 같이 두 곳이며 다른 곳으로는 출입이 불가능하다.
- 관람객은 <행사장 출입구> 두 곳 중 한 곳으로 들어와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며, 모든 관람객은 4개의 전시관 중 2개의 전시관만을 골라 관람한다.
- 자신이 원하는 2개의 전시관을 모두 관람하면 그 다음 만나게 되는 첫 번째 <행사장 출입구>를 통해 나가기 때문에, 관람객 중 일부는 반 바퀴를, 일부는 한 바퀴를 돌게 되지만 한 바퀴를 초과해서 도는 관람객은 없다.
- <행사장 출입구> 두 곳을 통해 행사장에 입장한 관람객 수의 합은 400명이며, 이 중 한 바퀴를 돈 관람객은 200명이고 D 전시관 앞을 지나가거나 관람한 인원은 350명이다.



- ① 50명
- ② 100명
- ③ 200명
- ④ 250명
- ⑤ 350명

2017 민경채 (나) 21번

문 21. 다음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짜장면 1그릇의 가격은?

<상 황>

○ A중식당의 각 테이블별 주문 내역과 그 총액은 아래 <표>와 같다.

○ 각 테이블에서는 음식을 주문 내역별로 1그릇씩 주문 하였다.

<표>

테이블	주문 내역	총액(원)
1	짜장면, 탕수육	17,000
2	짬뽕, 간pong기	20,000
3	짜장면, 볶음밥	14,000
4	짬뽕, 탕수육	18,000
5	볶음밥, 간pong기	21,000

- ① 4,000원
- ② 5,000원
- ③ 6,000원
- ④ 7,000원
- ⑤ 8,000원

2018 민경채 (가) 22번

문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甲 시청은 관내 도장업체(A ~ C)에 청사 바닥(면적: 60㎡) 도장공사를 의뢰하려 한다.

<관내 도장업체 정보>

업체	1㎡당 작업시간	시간당 비용
A	30분	10만 원
B	1시간	8만 원
C	40분	9만 원

○ 개별 업체의 작업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각 참여 업체는 언제나 동시에 작업하며 업체당 작업시간은 동일하다. 이때 각 참여 업체가 작업하는 면은 겹치지 않는다.

○ 모든 업체는 시간당 비용에 비례하여 분당 비용을 받는다. (예: A가 6분 동안 작업한 경우 1만 원을 받는다)

—————<보 기>—————

ㄱ. 작업을 가장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는 A와 C에게만 작업을 맡겨야 한다.

ㄴ. B와 C에게 작업을 맡기는 경우, 작업 완료까지 24시간이 소요된다.

ㄷ. A, B, C에게 작업을 맡기는 경우, B와 C에게 작업을 맡기는 경우보다 많은 비용이 든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2021 민경채 (나) 6번

문 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 해당하는 수는?

○○부처의 주무관은 모두 20명이며, 성과등급은 4단계 (S, A, B, C)로 구성된다. 아래는 ○○부처 소속 직원들의 대화 내용이다.

甲주무관: 乙주무관 축하해! 작년에 비해 올해 성과등급이 비약적으로 올랐던데? 우리 부처에서 성과등급이 세 단계나 변한 주무관은 乙주무관 외에 없잖아.

乙주무관: 고마워. 올해는 평가방식을 많이 바꿨다며? 작년이랑 똑같은 성과등급을 받은 주무관은 우리 부처에서 한 명밖에 없어.

甲주무관: 그렇구나. 우리 부처에서 작년에 비해 성과등급이 한 단계 변한 주무관 수는 두 단계 변한 주무관 수의 2배라고 해.

乙주무관: 그러면 우리 부처에서 성과등급이 한 단계 변한 주무관은 (㉠)명이네.

- ① 4
- ② 6
- ③ 8
- ④ 10
- ⑤ 12

2020 7급 모의평가 10번

문 10. 다음 글과 <사무용품 배분방법>을 근거로 판단할 때, 11월 1일 현재 甲기관의 직원 수는?

甲기관은 사무용품 절약을 위해 <사무용품 배분방법>으로 한 달 동안 사용할 네 종류(A, B, C, D)의 사무용품을 매월 1일에 배분한다. 이에 따라 11월 1일에 네 종류의 사무용품을 모든 직원에게 배분하였다. 甲기관이 배분한 사무용품의 개수는 총 1,050개였다.

- <사무용품 배분방법> ————
- A는 1인당 1개씩 배분한다.
 - B는 2인당 1개씩 배분한다.
 - C는 4인당 1개씩 배분한다.
 - D는 8인당 1개씩 배분한다.

- ① 320명
- ② 400명
- ③ 480명
- ④ 560명
- ⑤ 640명

2021 7급 (나) 10번

문 1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현재 시점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일을 한 사람은?

A부서 주무관 5명(甲 ~ 戊)은 오늘 해야 하는 일의 양이 같다. 오늘 업무 개시 후 현재까지 한 일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甲은 丙이 아직 하지 못한 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의 일을 했다. 乙은 丁이 남겨 놓고 있는 일의 2배에 해당하는 양의 일을 했다. 丙은 자신이 현재까지 했던 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일을 남겨 놓고 있다. 丁은 甲이 남겨 놓고 있는 일과 동일한 양의 일을 했다. 戊는 乙이 남겨 놓은 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의 일을 했다.

- ① 甲
- ② 乙
- ③ 丙
- ④ 丁
- ⑤ 戊

2024 7급 (사) 19번

1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1층 바닥면에서 2층 바닥면까지의 높이는?

1층 바닥면과 2층 바닥면이 계단으로 연결된 건물이 있다. A가 1층 바닥면에 서 있고, B가 2층 바닥면에 서 있을 때, A의 머리 끝과 B의 머리 끝의 높이 차이는 240 cm이다. A와 B가 위치를 서로 바꾸는 경우, A와 B의 머리 끝의 높이 차이는 220 cm이다. A와 B의 키는 1층 바닥면에서 2층 바닥면까지의 높이보다 크지 않다.

- ① 210 cm
- ② 220 cm
- ③ 230 cm
- ④ 240 cm
- ⑤ 250 cm

2020 5급 (나) 35번

문 3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조립한 상자의 개수는?

甲, 乙, 丙은 상자를 조립하는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상자 조립을 동시에 시작하여 각각 일정한 속도로 조립하였다. 그리고 ‘1분당 조립한 상자 개수’, ‘조립한 상자 개수’, ‘조립한 시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단, 2명은 모두 진실만을 말하였고 나머지 1명은 거짓만을 말하였다.

甲: 나는 乙보다 1분당 3개 더 조립했는데, 乙과 조립한 상자 개수는 같아. 丙보다 10분 적게 일했어.

乙: 나는 甲보다 40분 오래 일했어. 丙보다 10개 적게 조립했고 1분당 2개 적게 조립했어.

丙: 나는 甲보다 1분당 1개 더 조립했어. 조립한 시간은 乙과 같은데 乙보다 10개 적게 조립했어.

- ① 210
- ② 240
- ③ 250
- ④ 270
- ⑤ 300

2023 5급 (가) 7번

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팀이 1박스 분량의 용지를 사용하는 데 걸리는 일수는?

□□부처의 A팀은 甲 ~ 丁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甲 ~ 丁 각각은 매일 일정한 양의 용지를 사용한다. 개인의 용지 사용량과 관련하여 甲 ~ 丁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甲: 나는 용지 1박스를 사용하는 데 20일 걸려.
乙: 나는 용지 1박스를 사용하는 데 甲의 4배의 시간이 걸려.
丙: 나도 乙과 같아.
丁: 丙이 용지 $\frac{1}{2}$ 박스를 사용하는 동안, 나는 1박스를 사용해.

- ① 5
- ② 8
- ③ 9
- ④ 10
- ⑤ 12

2023 5급 (가) 27번

2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승화는 100원 단위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아이스크림을 5개 샀다. 5개 아이스크림 가운데 1개의 가격은 다른 4개의 아이스크림 가격을 합한 것과 같았다. 승화가 산 아이스크림 중 두 번째로 비싼 아이스크림 가격은 1,500원이었고, 이는 승화가 산 어떤 한 아이스크림 가격의 3배였다. 승화가 산 5개 아이스크림 가격의 합은 5,000원이었다.

- ① 승화는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샀다.
- ② 승화는 4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샀을 수도 있다.
- ③ 승화는 가격이 같은 아이스크림을 2개 샀을 수도 있다.
- ④ 승화가 산 아이스크림 가운데 가장 비싼 아이스크림의 가격은 2,500원이었다.
- ⑤ 승화가 산 가장 비싼 아이스크림의 가격은 승화가 산 가장 싼 아이스크림 가격의 20배를 넘었을 수도 있다.

2023 5급 (가) 30번

3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3월 3일의 ‘일 지수’를 옳게 계산한 것은?

甲, 乙, 丙은 함께 밭을 일구었다. 이들은 하루 동안 한 일의 양을 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 지수’를 만들었다.

일 지수 = [甲이 한 일의 양] × [乙이 한 일의 양] × [丙이 한 일의 양]

甲은 3월 3일의 일 지수를 계산할 때, 자신이 실제로 한 일의 양의 $\frac{1}{5}$ 을 늘려서 계산했다. 甲은 계산된 일 지수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앞에서 계산했던 방식에서 乙이 한 일의 양의 $\frac{1}{5}$ 을 줄이고 그 외는 동일하게 계산했다. 甲이 이렇게 계산한 이유는 자신이 실제로 한 일과 乙이 실제로 한 일의 양이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한 일 지수는 옳게 계산한 일 지수보다 3이 작았다.

- ① 66
- ② 69
- ③ 72
- ④ 75
- ⑤ 84

2024 5급 (나) 11번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乙이 가지고 있는 닭의 마릿수는?

甲: 닭 가격이 올랐으니 지금이 닭을 팔 좋은 기회야. 우리 둘이 가진 닭 중 75마리를 팔면, 지금 가진 사료만으로도 닭을 팔기 전보다 20일 더 먹일 수 있어.

乙: 하지만 내 생각에는 닭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 지금은 닭을 팔기보다는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만약 닭을 100마리 사면 지금 가진 사료가 15일 일찍 동이 나겠지만, 사료는 더 구매하면 되는 것이고 ...

甲: 그래? 그럼 닭을 팔아야 할지 사야 할지 다시 고민해보자.

- ① 100
- ② 200
- ③ 300
- ④ 400
- ⑤ 500

2024 5급 (나) 31번

3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임용 후 외향형이자 사고형인 사람의 수는?

A부는 100명의 신입 사무관을 대상으로 임용 전과 임용 후의 성격유형을 검사하였다. 성격유형은 쌍을 이루는 두 가지 지표 (외향형－내향형, 감정형－사고형)로 구성되었다. 100명의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내향형이자 사고형인 사람의 수는 임용 전후 모두 20명이다.

☐ 임용 후 내향형인 사람의 수는 임용 전의 두 배가 되었다.

☐ 임용 후 사고형인 사람의 수는 임용 전의 절반이 되었다.

☐ 임용 후 외향형이자 감정형인 사람의 수는 임용 전의 두 배가 되었다.

- ① 10
- ② 20
- ③ 30
- ④ 40
- ⑤ 60

2025 5급 (가) 28번

2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1년 중 홍수가 난 날은?

개미는 매일 6 g의 먹이를 먹는다. 1년(365일) 중 마지막 90일은 개미의 겨울이라서 이 기간에는 먹이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개미는 겨울을 제외한 기간에는 매일 아침 10 g의 먹이를 수집하여 6 g을 먹고, 남은 4 g을 즉시 비축한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홍수가 나서, 그때까지 개미가 비축한 먹이 중 $\frac{2}{3}$ 가 휩쓸려 사라졌다. 그럼에도 개미는 이전과 같이 먹이 수집과 비축을 계속하여, 모자라거나 남은 먹이 없이 겨울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

- ① 180일째 날
- ② 190일째 날
- ③ 200일째 날
- ④ 210일째 날
- ⑤ 220일째 날

2020 5급 (나) 38번

문 3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여러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물질을 조성물이라고 한다. 조성물을 구성하는 각 성분의 양은 일정한 범위 내에 있고, 이는 각 성분의 ‘중량%’ 범위로 표현할 수 있다. 중량% 범위의 최솟값을 최소성분량, 최댓값을 최대성분량이라고 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는 조성물을 ‘불명확’ 하다고 한다.

- 모든 성분의 최소성분량의 합이 100 중량%를 초과하는 경우
- 모든 성분의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 중량%에 미달하는 경우
- 어느 한 성분의 최소성분량과 나머지 모든 성분의 최대 성분량의 합이 100 중량%에 미달하는 경우
- 어느 한 성분의 최대성분량과 나머지 모든 성분의 최소 성분량의 합이 100 중량%를 초과하는 경우

<상 황>

조성물 甲은 성분 A, B, C, D, E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최소성분량과 최대성분량은 다음과 같다.

(단위: 중량%)

성분	최소성분량	최대성분량
A	5	10
B	25	30
C	10	20
D	20	40
E	x	y

<보 기>

ㄱ. x가 4이고 y가 10인 경우, 조성물 甲은 불명확하다.

ㄴ. x가 10이고 y가 20인 경우, 조성물 甲은 불명확하다.

ㄷ. x가 25이고 y가 26인 경우, 조성물 甲은 불명확하다.

ㄹ. x가 20이고 y가 x보다 크고 40보다 작은 경우, 조성물 甲은 불명확하지 않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21 5급 (가) 32번

문 3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물건 1개의 무게로 가능한 것은?

甲이 가진 전자식 체중계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kg 단위의 자연수로 무게를 표시한다. 甲은 이 체중계를 아래와 같이 이용하여 A물건의 무게를 추정하고자 한다.

☐ 甲이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66이 표시되었다.

☐ 甲이 A물건을 2개 들고 체중계에 올라갔지만 66이 그대로 표시되었다.

☐ 甲이 A물건을 3개 들고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67이 표시되었다.

☐ 甲이 A물건을 4개 들고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에도 67이 표시되었다.

☐ 甲이 A물건을 5개 들고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68이 표시되었다.

- ① 200 g
- ② 300 g
- ③ 400 g
- ④ 500 g
- ⑤ 600 g

2025 5급 (가) 33번

33.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과녁 A와 C의 내구성 값의 합은?

甲 ~ 丙은 소총을 조절하여 총알의 파워를 설정한 후, 일렬로 늘어선 과녁을 관통시키고자 한다. 이때 과녁은 고유의 내구성 값을 가지며, 과녁의 내구성 값과 총알의 파워 단위는 동일하다. 과녁의 내구성 값 이상의 파워로 소총을 쏘면, 그 과녁은 관통되며 뒤에 있는 과녁도 관통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과녁을 향한 총알의 파워는 관통된 과녁의 내구성 값만큼 감소한다. 예를 들어 총알의 파워가 7이고 내구성 값이 각각 2, 3, 4인 과녁이 순서대로 놓여있을 때, 해당 총알은 처음 2개의 과녁은 관통하지만, 내구성 값이 4인 마지막 과녁은 관통하지 못한다.

— <상 황> —

甲, 乙, 丙은 소총을 조절하여 총알의 파워를 각각 8, 3, 8로 설정했다. 甲, 乙, 丙은 5개 과녁(A ~ E)의 순서를 각자 정하여 관통시키고자 한다. 단, 5개 과녁의 내구성 값은 서로 다르며, 1부터 5까지의 정수 중 하나이다. 다음은 甲 ~ 丙의 소총 사격 결과이다.

甲: A, B, C, D, E의 순으로 배치하여 쏘더니, 과녁 3개가 관통되었다.

乙: B, E, A, C, D의 순으로 배치하여 쏘더니, 과녁 2개가 관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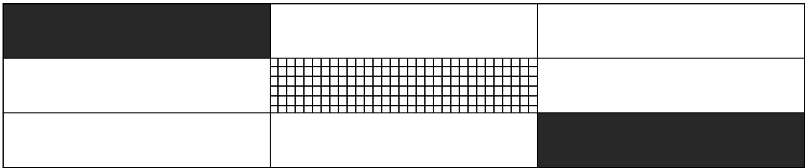
丙: E, D, C, B, A의 순으로 배치하여 쏘더니, 과녁 2개가 관통되었다.

- ① 5
- ② 6
- ③ 7
- ④ 8
- ⑤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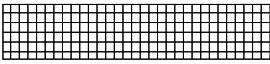
2012 민경채 (인) 10번

문 10. 다음은 9개 구역으로 이루어진 <A지역>과 그 지역을 구성하는 <구역 유형별 유권자 수>이다. A지역을 <조건>에 따라 유권자 수가 동일한 3개의 선거구로 나누려고 할 때 가능한 경우의 수는?

<A지역>



<구역 유형별 유권자 수>

	10명
	30명
	6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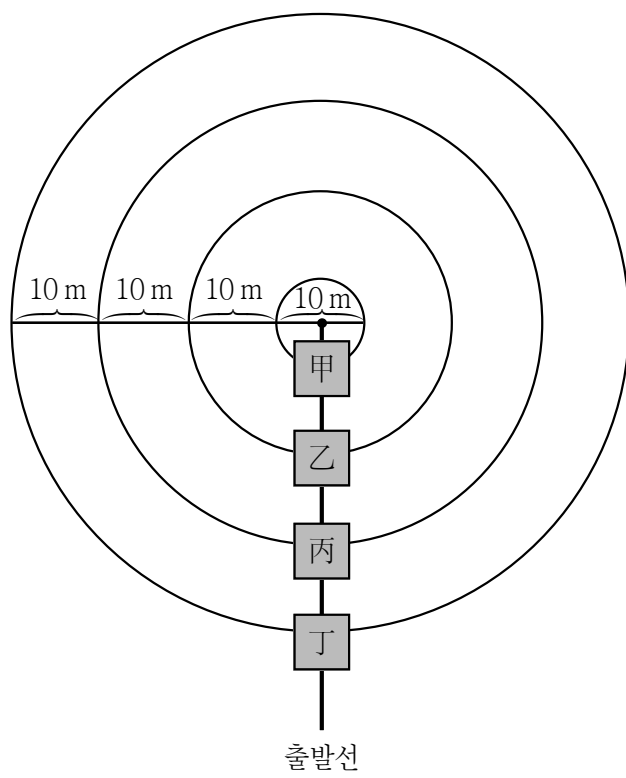
<조 건>

같은 선거구에 속하는 구역들은 사각형의 한 변이 적어도 그 선거구에 속하는 다른 한 구역의 사각형의 한 변과 맞닿아 있어야 한다.

- ① 1가지
- ② 2가지
- ③ 3가지
- ④ 4가지
- ⑤ 5가지

2012 민경채 (인) 19번

문 19. 甲, 乙, 丙, 丁이 다음과 같은 경기를 하였을 때, 평균속력이 가장 빠른 사람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甲, 乙, 丙, 丁은 동심원인 위의 그림과 같이 일직선상의 출발선에서 경기를 시작한다.
- 甲, 乙, 丙, 丁은 위의 경기장에서 각자 자신에게 정해진 원 위를 10분 동안 걷는다.
- 甲, 乙, 丙, 丁은 정해진 원 이외의 다른 원으로 넘어갈 수 없다.
- 甲, 乙, 丙, 丁이 10분 동안에 각자 걸었던 거리는 다음과 같다.

甲	乙	丙	丁
7바퀴	5바퀴	3바퀴	1바퀴

- ① 乙, 丙, 甲, 丁
- ② 丙, 乙, 丁, 甲
- ③ 乙 = 丙, 甲 = 丁
- ④ 甲, 丁 = 乙, 丙
- ⑤ 甲, 丁, 乙, 丙

2013 민경채 (인) 16번

문 16. 다음 <상황>과 <대화>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상 황>—————

지구와 거대한 운석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자, A국 정부는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 甲, 乙, 丙 세 사람을 각각 냉동캡슐에 넣어 보존하기로 했다. 운석 충돌 후 시간이 흘러 지구에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자, 3개의 냉동캡슐은 각각 다른 시점에 해동이 시작되어 하루 만에 완료되었다. 그 후 甲, 乙, 丙 세 사람은 2120년 9월 7일 한 자리에 모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대 화>—————

甲: 나는 2086년에 태어났습니다. 19살에 냉동캡슐에 들어갔고, 캡슐에서 해동된 지는 정확히 7년이 되었어요.

乙: 나는 2075년생입니다. 26살에 냉동캡슐에 들어갔고, 캡슐에서 해동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년 5개월 전입니다.

丙: 난 2083년 5월 17일에 태어났어요. 21살이 되기 두 달 전에 냉동캡슐에 들어갔고, 해동된 건 일주일 전이에요.

※ 이들이 밝히는 나이는 만 나이이며, 냉동되어 있는 기간은 나이에 산입되지 않는다.

—————<보 기>—————

ㄱ. 甲, 乙, 丙이 냉동되어 있던 기간은 모두 다르다.

ㄴ. 대화를 나눈 시점에 甲이 丙보다 나이가 어리다.

ㄷ. 가장 이른 연도에 냉동캡슐에 들어간 사람은 甲이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014 민경채 (A) 10번

문 10. 다음 숫자 배열 (가) ~ (다)의 공통적인 특성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가) 2, 3, 6, 7, 8
- (나) 1, 4, 5, 6, 9
- (다) 6, 5, 8, 3, 9

- <보 기>
- ㄱ. 홀수 다음에 홀수가 연이어 오지 않는다.
- ㄴ. 짝수 다음에 짝수가 연이어 오지 않는다.
- ㄷ. 동일한 숫자는 반복하여 사용되지 않는다.
- ㄹ. 어떤 숫자 바로 다음에는 그 숫자의 배수가 오지 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ㄱ, ㄷ, ㄹ

2015 민경채 (인) 22번

문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거짓말 탐지기는 진술 내용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장치이다.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는 탐지 대상이 되는 진술이 참인 것을 [참]으로, 거짓인 것을 [거짓]으로 옳은 판단을 내릴 확률을 의미하며,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 각각에 대하여 동일한 정확도를 나타낸다. 甲이 사용하는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는 80 %이다.

- <보 기> —————
- ㄱ. 탐지 대상이 되는 진술이 총 100건이라면, 甲의 거짓말 탐지기는 20건에 대하여 옳지 않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
 - ㄴ. 탐지 대상이 되는 진술 100건 가운데 참인 진술이 20건이라면, 甲의 거짓말 탐지기가 이 100건 중 [참]으로 판단하는 것은 총 32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 ㄷ. 탐지 대상이 되는 진술 100건 가운데 참인 진술이 10건인 경우, 甲이 사용하는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가 높아진다면 이 100건 중 [참]으로 판단하는 진술이 많아진다.
 - ㄹ.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가 90 %이고 탐지 대상이 되는 진술 100건 가운데 참인 진술이 10건인 경우, 탐지기가 18건을 [참]으로 판단했다면 그 중 거짓인 진술이 9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16 민경채 (5) 9번

문 9.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국 사람들은 아래와 같이 한 손으로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표현한다.					
숫자	1	2	3	4	5
펼친 손가락 개수	1개	2개	3개	4개	5개
펼친 손가락 모양					
숫자	6	7	8	9	10
펼친 손가락 개수	2개	3개	2개	1개	2개
펼친 손가락 모양					

<상 황>

A국에 출장을 간 甲은 A국의 언어를 하지 못하여 물건을 살 때 상인의 손가락을 보고 물건의 가격을 추측한다. A국 사람의 숫자 표현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甲은 상인이 금액을 표현하기 위해 펼친 손가락 1개당 1원씩 돈을 지불하려고 한다. (단, 甲은 하나의 물건을 구매하며, 물건의 가격은 최소 1원부터 최대 10원까지라고 가정한다)

<보 기>

- ㄱ. 물건의 가격과 甲이 지불하려는 금액이 일치했다면, 물건의 가격은 5원 이하이다.
- ㄴ. 상인이 손가락 3개를 펼쳤다면, 물건의 가격은 최대 7원이다.
- ㄷ. 물건의 가격과 甲이 지불하려는 금액이 8원 만큼 차이가 난다면, 물건의 가격은 9원이거나 10원이다.
- ㄹ. 甲이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하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18 민경채 (가) 9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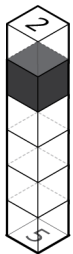
문 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그림 2>의 정육면체 아랫면에 쓰인 36개 숫자의 합은?

정육면체인 하얀 블록 5개와 검은 블록 1개를 일렬로 붙인 막대를 30개 만든다. 각 막대의 윗면에는 가장 위에 있는 블록부터, 아랫면에는 가장 아래에 있는 블록부터 세어 검은 블록이 몇 번째 블록인지를 나타내는 숫자를 쓴다. 이런 규칙에 따르면 <그림 1>의 예에서는 윗면에 2를, 아랫면에 5를 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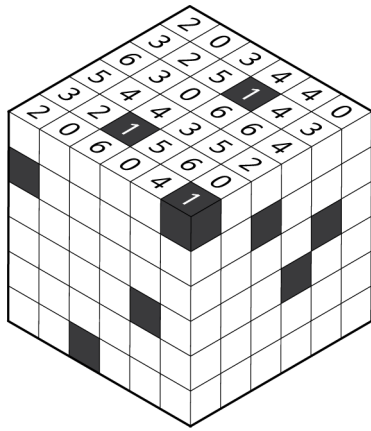
다음으로 검은 블록 없이 하얀 블록 6개를 일렬로 붙인 막대를 6개 만든다. 검은 블록이 없으므로 윗면과 아랫면 모두에 0을 쓴다.

이렇게 만든 36개의 막대를 붙여 <그림 2>와 같은 큰 정육면체를 만들었더니, 윗면에 쓰인 36개 숫자의 합이 109였다.

<그림 1>



<그림 2>



- ① 97
- ② 100
- ③ 101
- ④ 103
- ⑤ 104

2018 민경채 (가) 17번

문 1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의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A 부처와 B 부처에 소속된 공무원 수는 각각 100명이고, 모두 소속된 부처에 있었다. 그런데 A 부처는 국가 행사를 담당하게 되어 B 부처에 9명의 인력지원을 요청하였다. B 부처는 소속 공무원 100명 중 9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A 부처에 지원 인력으로 보냈다. 얼마 후 B 부처 역시 또 다른 국가 행사를 담당하게 되어 A 부처에 인력지원을 요청하였다. A 부처는 B 부처로부터 지원받았던 인력을 포함한 109명 중 9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B 부처에 지원 인력으로 보냈다.

————— <보 기> —————

ㄱ. A 부처와 B 부처 간 인력지원이 한 차례씩 이루어진 후, A 부처에 B 부처 소속 공무원이 3명 남아있다면 B 부처에는 A 부처 소속 공무원이 ()명 있다.

ㄴ. A 부처와 B 부처 간 인력지원이 한 차례씩 이루어진 후, B 부처에 A 부처 소속 공무원이 2명 남아있다면 A 부처에는 B 부처 소속 공무원이 ()명 있다.

- ① 5
- ② 8
- ③ 10
- ④ 13
- ⑤ 15

2018 민경채 (가) 23번

문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손글씨 대회 참가자 100명을 왼손으로만 필기할 수 있는 왼손잡이, 오른손으로만 필기할 수 있는 오른손잡이, 양손으로 모두 필기할 수 있는 양손잡이로 분류하고자 한다.

○ 참가자를 대상으로 아래 세 가지 질문을 차례대로 하여 해당하는 참가자는 한 번만 손을 들도록 하였다.

[질문 1] 왼손으로만 필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질문 2] 오른손으로만 필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질문 3] 양손으로 모두 필기할 수 있는 사람은?

○ 양손잡이 중 일부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질문 1, 2, 3에 모두 손을 들었고, 그 외 모든 참가자는 올바르게 손을 들었다.

○ 질문 1에 손을 든 참가자는 16명, 질문 2에 손을 든 참가자는 80명, 질문 3에 손을 든 참가자는 10명이다.

- <보 기> —————

ㄱ. 양손잡이는 총 10명이다.

ㄴ. 왼손잡이 수는 양손잡이 수보다 많다.

ㄷ. 오른손잡이 수는 왼손잡이 수의 6배 이상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2019 민경채 (나) 5번

문 5. 다음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조 건>

○ 한글 단어의 ‘단어점수’는 그 단어를 구성하는 자음으로만 결정된다.

○ ‘단어점수’는 각기 다른 자음의 ‘자음점수’를 모두 더한 값을 그 단어를 구성하는 자음 종류의 개수로 나눈 값이다.

○ ‘자음점수’는 그 자음이 단어에 사용된 횟수만큼 2를 거듭제곱한 값이다. 단, 사용되지 않는 자음의 ‘자음점수’는 0이다.

○ 예를 들어 글자 수가 4개인 ‘셋방살이’는 ㅅ 3개, ㅇ 2개, ㅂ 1개, ㄹ 1개의 자음으로 구성되므로 ‘단어점수’는 $(2^3 + 2^2 + 2^1 + 2^1)/4$ 의 값인 4점이다.

※ 의미가 없는 글자의 나열도 단어로 인정한다.

<보 기>

ㄱ. ‘각기’는 ‘논리’보다 단어점수가 더 높다.

ㄴ. 단어의 글자 수가 달라도 단어점수가 같을 수 있다.

ㄷ. 글자 수가 4개인 단어의 단어점수는 250점을 넘을 수 없다.

-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2019 민경채 (나) 8번

문 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은 결혼 준비를 위해 스튜디오 업체(A, B), 드레스 업체 (C, D), 메이크업 업체(E, F)의 견적서를 각각 받았는데, 최근 생긴 B업체만 정가에서 10 % 할인한 가격을 제시하였다. 아래 <표>는 각 업체가 제시한 가격의 총액을 계산한 결과이다. (단, A ~ F 각 업체의 가격은 모두 상이하다)

<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총액
A	C	E	76만 원
이용 안함	C	F	58만 원
A	D	E	100만 원
이용 안함	D	F	82만 원
B	D	F	127만 원

— <보 기> —

ㄱ. A업체 가격이 26만 원이라면, E업체 가격이 F업체 가격보다 8만 원 비싸다.
 ㄴ. B업체의 할인 전 가격은 50만 원이다.
 ㄷ. C업체 가격이 30만 원이라면, E업체 가격은 28만 원이다.
 ㄹ. D업체 가격이 C업체 가격보다 26만 원 비싸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ㄴ, ㄷ
 ⑤ ㄷ, ㄹ

2019 민경채 (나) 10번

문 10. 다음 <재난관리 평가지침>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재난관리 평가지침>

☐ 순위산정 기준

☐ 최종순위 결정

- 정량평가 점수(80점)와 정성평가 점수(20점)의 합으로 계산된 최종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순위 결정

☐ 동점기관 처리

- 최종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순위 결정

☐ 정성평가 기준

☐ 지자체 및 민간분야와의 재난안전분야 협력(10점 만점)

평가	상	중	하
선정비율	20 %	60 %	20 %
배점	10점	6점	3점

☐ 재난관리에 대한 종합평가(10점 만점)

평가	상	중	하
선정비율	20 %	60 %	20 %
배점	10점	5점	1점

<상 황>

일부 훼손된 평가표는 아래와 같다. (단, 평가대상기관은 5개이다)

기관 \ 평가	정량평가 (80점 만점)	정성평가 (20점 만점)
A	71	20
B	80	11
C	69	11
D	74	
E	66	

- ① A기관이 2위일 수도 있다.

② B기관이 3위일 수도 있다.

③ C기관이 4위일 가능성은 없다.

④ D기관이 3위일 가능성은 없다.

⑤ E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5위일 것이다.

2019 민경채 (나) 16번

문 1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의 ㉠과 ㉡을 옳게 짝지은 것은?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조직에 적합한 인재의 선발, 즉 필요한 수준의 기본적 직무적성·태도 등 전반적 잠재력을 가진 지원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채용 과정에서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적합한 지원자 중 탈락시킨 지원자의 비율을 오탈락률이라 하고, 적합하지 않은 지원자 중 채용한 지원자의 비율을 오채용률이라 한다.

— <상 황> —
甲회사의 신입사원 채용 공고에 1,200명이 지원하여, 이 중에 360명이 채용되었다. 신입사원 채용 후 조사해보니 1,200명의 지원자 중 회사에 적합한 지원자는 800명이었고, 적합하지 않은 지원자는 400명이었다. 채용된 360명의 신입사원 중 회사에 적합하지 않은 인원은 40명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르면 오탈락률은 (㉠) %이고, 오채용률은 (㉡) %이다.

	㉠	㉡
①	40	5
②	40	10
③	55	10
④	60	5
⑤	60	10

2019 민경채 (나) 21번

문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시에서 B시까지의 거리는?

甲은 乙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A시에서 B시를 거쳐 C시로 가는 중이었다. A, B, C는 일직선 상에 순서대로 있으며, 乙은 자동차를 일정한 속력으로 운전하여 도시 간 최단 경로로 이동했다. A시를 출발한지 20분 후 甲은 乙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왔는지 물어보았다.

“여기서부터 B시까지 거리의 딱 절반만큼 왔어.”라고 乙이 대답하였다.

그로부터 75 km를 더 간 후에 甲은 다시 물어보았다.

“C까지는 얼마나 남았지?”

乙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여기서부터 B시까지 거리의 딱 절반만큼 남았어.”

그로부터 30분 뒤에 甲과 乙은 C시에 도착하였다.

- ① 35 km
- ② 40 km
- ③ 45 km
- ④ 50 km
- ⑤ 55 km

2021 민경채 (나) 9번

문 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부처는 CO₂ 배출량 감소를 위해 전기와 도시가스 사용을 줄이는 가구를 대상으로 CO₂ 배출 감소량에 비례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기는 5kWh, 도시가스는 1m³를 사용할 때 각각 2kg의 CO₂가 배출되며, 전기 1kWh당 사용 요금은 20원, 도시가스 1m³당 사용 요금은 60원이다.

—————<보 기>—————

ㄱ. 매월 전기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각각 1만 2천 원씩 부담하는 가구는 전기 사용으로 인한 월 CO₂ 배출량이 도시가스 사용으로 인한 월 CO₂ 배출량보다 적다.

ㄴ. 매월 전기 요금을 5만 원, 도시가스 요금을 3만 원 부담하는 가구는 전기와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월 CO₂ 배출량이 동일하다.

ㄷ. 전기 1kWh를 절약한 가구는 도시가스 1m³를 절약한 가구보다 많은 포인트를 지급받는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021 7급 (나) 12번

문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아기 돼지 삼형제와 각각의 집을
옳게 짝지은 것은?

○ 아기 돼지 삼형제는 엄마 돼지로부터 독립하여 벽돌집, 나무집, 지푸라기집 중 각각 다른 한 채씩을 선택하여 짓는다.

○ 벽돌집을 지을 때에는 벽돌만 필요하지만, 나무집은 나무와 지지대가, 지푸라기집은 지푸라기와 지지대가 재료로 필요하다. 지지대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의 면적과 상관없이 나무집의 경우 20만 원, 지푸라기집의 경우 5만 원이다.

○ 재료의 1개당 가격 및 집의 면적 1㎡당 필요 개수는 아래와 같다.

구 분	벽돌	나무	지푸라기
1개당 가격(원)	6,000	3,000	1,000
1㎡당 필요 개수	15	20	30

○ 첫째 돼지 집의 면적은 둘째 돼지 집의 2배이고, 셋째 돼지 집의 3배이다. 삼형제 집의 면적의 총합은 11㎡이다.

○ 모두 집을 짓고 나니, 둘째 돼지 집을 짓는 재료 비용이 가장 많이 들었다.

	첫째	둘째	셋째
①	벽돌집	나무집	지푸라기집
②	벽돌집	지푸라기집	나무집
③	나무집	벽돌집	지푸라기집
④	지푸라기집	벽돌집	나무집
⑤	지푸라기집	나무집	벽돌집

2022 7급 (가) 7번

문 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甲은 정기모임의 간식을 준비하기 위해 과일 가게에 들렀다. 甲이 산 과일의 가격과 수량은 아래 표와 같다. 과일 가게 사장이 준 영수증을 보니, 총 228,000원이어야 할 결제 금액이 총 237,300원이었다.

구분	사과	귤	복숭아	딸기
1상자 가격(원)	30,700	25,500	14,300	23,600
구입 수량(상자)	2	3	3	2

- ① 한 과일이 2상자 더 계산되었다.
 ② 두 과일이 각각 1상자 더 계산되었다.
 ③ 한 과일이 1상자 더 계산되고, 다른 한 과일이 1상자 덜 계산되었다.
 ④ 한 과일이 1상자 더 계산되고, 다른 두 과일이 각각 1상자 덜 계산되었다.
 ⑤ 두 과일이 각각 1상자 더 계산되고, 다른 두 과일이 각각 1상자 덜 계산되었다.

2022 7급 (가) 24번

문 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 해당하는 수는?

甲과 乙은 같은 층의 서로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각 사무실은 일직선 복도의 양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 사람은 복도에서 항상 자신만의 일정한 속력으로 걷는다. 甲은 약속한 시각에 乙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을 나섰다. 甲은 乙의 사무실에 도착하여 서류를 전달하고 곧바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올 계획이었다. 한편 甲을 기다리고 있던 乙에게 甲의 사무실 쪽으로 가야 할 일이 생겼다. 그래서 乙은 甲이 도착하기로 약속한 시각보다 ㉠분 일찍 자신의 사무실을 나섰다. 乙은 출발한 지 4분 뒤 복도에서 甲을 만나 서류를 받았다. 서류 전달 후 곧바로 사무실로 돌아온 甲은 원래 예상했던 시각보다 2분 일찍 사무실로 복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① 2
- ② 3
- ③ 4
- ④ 5
- ⑤ 6

2023 7급 (인) 6번

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처방에 따라 아기에게 더 먹여야 하는 해열시럽의 양은?

아기가 열이 나서 부모는 처방에 따라 해열시럽 4 mL를 먹여야 하는데, 아기가 약 먹기를 거부했다. 부모는 피를 내어 배즙 4 mL와 해열시럽 4 mL를 균일하게 섞어 주었지만 아기는 맛이 이상했는지 4분의 1만 먹었다. 부모는 아기가 남긴 것 전부와 사과즙 50 mL를 다시 균일하게 섞어 주었다. 아기는 그 절반을 먹더니 더 이상 먹지 않았다.

- ① 1.5 mL
- ② 1.6 mL
- ③ 2.0 mL
- ④ 2.4 mL
- ⑤ 2.5 mL

2023 7급 (인) 13번

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 해당하는 수는?

- 산타클로스는 연간 ‘착한 일 횟수’와 ‘울음 횟수’에 따라 어린이 甲~戊에게 선물 A, B 중 하나를 주거나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나눠주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별로 (‘착한 일 횟수’×5) – (‘울음 횟수’× ㉠)의 값을 계산한다. 그 값이 10 이상이면 선물 A를 주고, 0 이상 10 미만이면 선물 B를 주며, 그 값이 음수면 선물을 주지 않는다. 이때, ㉠은 자연수이다.
- 이 방식을 적용한 결과, 甲~戊 중 1명이 선물 A를 받았고, 3명이 선물 B를 받았으며, 1명은 선물을 받지 못했다.
- 甲~戊의 연간 ‘착한 일 횟수’와 ‘울음 횟수’는 아래와 같다.

구분	착한 일 횟수	울음 횟수
甲	3	3
乙	3	2
丙	2	3
丁	1	0
戊	1	3

- ① 1
- ② 2
- ③ 3
- ④ 4
- ⑤ 5

2023 7급 (인) 14번

1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작성한 보고서 한 건의 쪽수의 최댓값은?

A회사 직원인 甲은 근무일마다 동일한 쪽수의 보고서를 한 건씩 작성한다. 甲은 작성한 보고서를 회사의 임원들 각각에게 당일 출력하여 전달한다. 甲은 A회사에 1개월 전 입사하였으며 총 근무일은 20일을 초과하였다. 甲이 현재까지 출력한 총량은 1,000쪽이며, 임원은 2명 이상이다.

- ① 5
- ② 8
- ③ 10
- ④ 20
- ⑤ 40

2023 7급 (인) 15번

1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E 중 한 명만 화상강의 시스템에 접속해 있던 시각으로 가능한 것은?

○ 어제 9:00부터 9:30까지 진행된 수업시간 중 학생 A~E가 화상강의 시스템에 접속해 있던 시간은 아래와 같다.

학생	A	B	C	D	E
시간(분)	13	15	17	21	25

○ 학생들의 접속 횟수는 각 1회였다.

○ A와 C가 접속해 있던 시간은 서로 겹치지 않았다.

- ① 9:04
- ② 9:10
- ③ 9:15
- ④ 9:21
- ⑤ 9:24

2024 7급 (사) 6번

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이지 않는 숫자를 모두 합한 값은?

甲 ~ 丁은 매일 최대한 많이 걷기로 하고 특정 시간에 만나서
각자의 걸음 수와 그 합을 기록하였다. 그 기록한 걸음 수의
합은 199,998걸음이었다. 그런데 수명이 다 된 펜으로 각자의
걸음 수를 쓴 탓이었는지 다음날에 보니 아래와 같이 다섯 개의
숫자(□)가 보이지 않았다.

甲：

□

5

7

0

1

乙：

8

4

□

9

8

丙：

8

3

□

□

4

丁：

□

6

7

1

5

- ① 13
- ② 14
- ③ 15
- ④ 16
- ⑤ 17

2024 7급 (사) 22번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가)에 해당하는 수는?

A공원의 다람쥐 열 마리는 각자 서로 다른 개수의 도토리를 모았는데, 한 다람쥐가 모은 도토리는 최소 1개부터 최대 10개까지였다. 열 마리 다람쥐는 두 마리씩 짝을 이루어 그날 모은 도토리 일부를 함께 먹었다. 도토리를 모으고 먹는 이런 모습은 매일 동일하게 반복됐다. 이때 도토리를 먹는 방법은 정해져 있었다. 한 쌍의 다람쥐는 각자가 그날 모은 도토리 개수를 비교해서 그 차이 값에 해당하는 개수의 도토리를 함께 먹는다. 예를 들면, 1개의 도토리를 모은 다람쥐와 9개의 도토리를 모은 다람쥐가 짝을 이루면 이 두 마리는 8개의 도토리를 함께 먹는다.

열 마리의 다람쥐를 이틀 동안 관찰한 결과, ‘첫째 날 각 쌍이 먹은 도토리 개수’는 모두 동일했고, ‘둘째 날 각 쌍이 먹은 도토리 개수’도 모두 동일했다. 하지만 ‘첫째 날 각 쌍이 먹은 도토리 개수’와 ‘둘째 날 각 쌍이 먹은 도토리 개수’는 서로 달랐고, 그 차이는 (가) 개였다.

- ① 1
- ② 2
- ③ 3
- ④ 4
- ⑤ 5

2024 7급 (사) 25번

25. 다음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상 황>

○ 테니스 선수 랭킹은 매달 1일 발표되며, 발표 전날로부터 지난 1년간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획득한 점수의 합(이하 ‘총점수’라 한다)이 높은 순으로 순위가 매겨진다.

○ 매년 12월에는 챔피언십 대회(매년 12월 21일 ~ 25일)만 개최된다. 이 대회에는 당해 12월 1일 기준으로 랭킹 1 ~ 4위의 선수만 참가한다.

○ 매년 챔피언십 대회의 순위에 따른 획득 점수 및 2023년 챔피언십 대회 전후 랭킹은 아래와 같다. 단, 챔피언십 대회에서 공동 순위는 없다.

챔피언십 대회 성적	점수
우승	2000
준우승	1000
3위	500
4위	250

<2023년 12월 1일>

랭킹	선수	총점수
1위	A	7500
2위	B	7000
3위	C	6500
4위	D	5000
⋮	⋮	⋮

⇒

<2024년 1월 1일>

랭킹	선수	총점수
1위	C	7500
2위	B	7250
3위	D	7000
4위	A	6000
⋮	⋮	⋮

○ 총점수에는 지난 1년간 획득한 점수만 산입되므로, <2024년 1월 1일>의 총점수에는 2022년 챔피언십 대회에서 획득한 점수는 빠지고, 2023년 챔피언십 대회에서 획득한 점수가 산입되었다.

<보 기>

ㄱ. 2022년 챔피언십 대회 우승자는 A였다.

ㄴ. 2023년 챔피언십 대회 4위는 B였다.

ㄷ. 2023년 챔피언십 대회 우승자는 C였다.

ㄹ. 2022년 챔피언십 대회 3위는 D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ㄹ

677

677

2025 7급 (인) 15번

1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甲도는 A ~ E 총 5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지역의 인구는 서로 다르다. 甲도는 건강행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하는 지표 중 하나인 건강생활실천율은 거주자 중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지역별 건강생활실천율은 다음과 같다.

지역	A	B	C	D	E
건강생활실천율(%)	35	30	25	30	30

- ① A지역에서 금연, 절주,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이 각각 2%p씩 높아지면 건강생활실천율도 2%p 높아진다.
- ② 건강생활실천율이 증가하려면 금연, 절주,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 중 가장 낮은 값이 증가해야만 한다.
- ③ 금연과 절주를 동시에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은 B지역이 C지역보다 높다.
- ④ D지역에서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은 최소 30%이다.
- ⑤ 甲도의 건강생활실천율은 30%이다.

2025 7급 (인) 21번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의 셔츠의 최소 벌수는?

매일 아침 甲은 세탁소에서 찾아온 셔츠를 한 벌 꺼내 입는다. 그는 입었던 셔츠를 한데 모아 놓았다가 매주 월요일 점심에 세탁소에 모두 맡기고 온다. 매주 월요일 저녁에는 세탁이 다 된 셔츠를 세탁소에서 찾아온다. 셔츠 세탁에는 일주일의 소요되므로 찾아오는 셔츠는 그 전주 월요일 점심에 맡겼던 셔츠이다. 단, 세탁소에 다녀올 때는 그날 아침에 꺼내 입은 셔츠를 입는다.

- ① 7
- ② 8
- ③ 14
- ④ 15
- ⑤ 16

2025 7급 추가 (핵) 23번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아래 표는 대학생 甲의 최근 세 학기의 ‘학기 평균 평점’ 및 ‘누적 평균 평점’을 나타낸 것이다. 학기 평균 평점은 해당 학기에 수강한 과목의 평점을 평균한 값이며, 누적 평균 평점은 1학년 1학기부터 해당 학기까지 수강한 과목의 평점을 평균한 값이다.

구분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학기 평균 평점	a	b	c
누적 평균 평점	4.0	d	e

— <보 기> —

ㄱ. $a < 4.0$ 이면 甲의 2학년 1학기까지의 누적 평균 평점은 4.0보다 높다.

ㄴ. $d < 4.0$ 이면 $b < d$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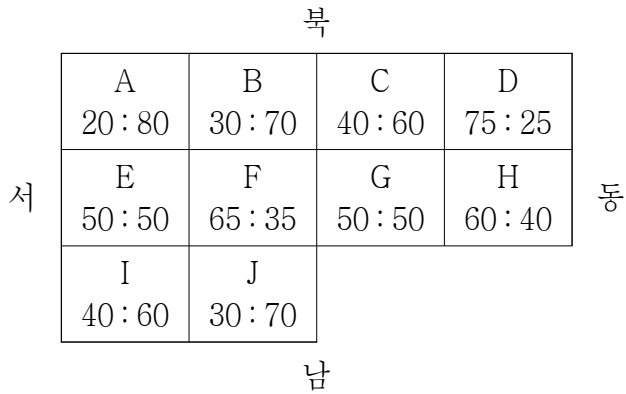
ㄷ. $b < c$ 이면 $d < e$ 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ㄴ, ㄷ

2012 5급 (인) 7번

문 7. 甲정당과 乙정당은 선거구별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그림>과 같은 10개의 선거구(A ~ J)를 5개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다음 <조건>에 근거할 때, 甲정당에 가장 유리한 통합 방안은?

<그림> 선거구 위치와 선거구 내 정당별 지지율



— <조 건> —

- 각 선거구의 유권자 수는 동일하며, 모든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에게 1인 1표제에 따라 투표한다.
- 선거구의 통합은 동서 또는 남북으로 인접한 2개의 선거구 사이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 위 <그림>에서 선거구 내 앞의 숫자는 甲정당 지지율, 뒤의 숫자는 乙정당 지지율이다.
- 선거구 통합은 정당 지지율을 포함한 다른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① (A+B), (C+D), (E+F), (G+H), (I + J)
- ② (A+B), (C+D), (E+ I), (F + J), (G+H)
- ③ (A+B), (C+G), (D+H), (E+ I), (F + J)
- ④ (A+E), (B+F), (C +D), (G+H), (I + J)
- ⑤ (A+E), (B+F), (C +G), (D+H), (I + J)

2012 5급 (인) 13번

문 13.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숫자판은 아래와 같이 6개의 전구를 켜거나 끌 수 있게 되어 있다.

<숫자판>

32	16	8	4	2	1
○	○	○	○	○	○

- 숫자판은 전구가 켜진 칸에 있는 숫자를 더하여 결과값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아래의 숫자판은 결과값 '19'를 표현한다.

32	16	8	4	2	1
○	☀	○	○	☀	☀

(☀: 불이 켜진 전구, ○: 불이 꺼진 전구)

- 전구는 6개까지 동시에 켜질 수 있으며, 하나도 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보 기>

- ㄱ. 이 숫자판을 사용하면 1부터 63까지의 모든 자연수를 결과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
 ㄴ. 숫자판에 한 개의 전구를 켜서 표현한 결과값은 두 개 이상의 전구를 켜서도 표현할 수 있다.
 ㄷ. 숫자 1의 전구가 고장 나서 안 켜질 때 표현할 수 있는 결과값의 갯수가 숫자 32의 전구가 고장 나서 안 켜질 때 표현할 수 있는 결과값의 갯수보다 많다.
 ㄹ. 숫자판에서 하나의 전구가 켜진 경우의 결과값은, 숫자판에서 그 외 다섯 개의 전구가 모두 켜진 경우의 결과값보다 클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13 5급 (인) 12번

문 12. 어느 날 甲 과장은 부서원들에게 예정에 없는 회식을 제안했다.
다음 <조건>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은?

<조 건>

- 부서원은 A를 포함하여 5명이고,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한다.
- 과장은 부서원 중 참석 희망자가 3명 이상이면 이들만을 대상으로 회식을 실시한다.
- 참석 희망 여부는 한 번 결정하면 변경이 불가능하고, 현재 A는 다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알지 못한다.
- A는 12만큼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선약이 있다. A가 회식 참석을 결정하면 선약을 미리 취소해야 하고, 회식불참을 결정하면 선약은 지켜진다.
- A의 편익은 아래의 <표>와 같다.
 - A가 회식참석을 결정하고 회식이 실시되면, A의 편익은 (참석자 수) × 3이다. 그러나 A가 회식참석을 결정했을 지라도 회식이 취소되면, A의 편익은 0이다.
 - A가 회식불참을 결정했으나 회식이 실시되면, A의 편익은 12 - (참석자 수)이다. 그러나 A가 회식불참을 결정하고 회식도 취소되면, A의 편익은 12가 된다.

<표>

회식 실시 여부 A의 행동	실시	취소
	회식참석 · 선약취소 (참석자 수) × 3	0
회식불참 · 선약실행	12 - (참석자 수)	12

- ※ 부서원 수 및 참석자 수에는 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 ① A의 최대편익과 최소편익의 차이는 12이다.
 - ② 다른 부서원들의 결정과 무관하게 불참을 결정하는 것이 A에게 유리하다.
 - ③ A의 편익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불참을 결정하고 회식도 취소되는 경우이다.
 - ④ 다른 부서원 2명이 회식에 참석하겠다고 결정하면, A도 참석하는 것이 유리하다.
 - ⑤ 다른 부서원 3명 이상이 회식에 참석하겠다고 결정하면, A도 참석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3 5급 (인) 31번

문 31. 다음 <면접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할 때, 심층면접을 할 수 있는 최대 인원수와 마지막 심층면접자의 기본면접 종료 시각을 옳게 짝지은 것은?

<면접방식>

○ 면접은 기본면접과 심층면접으로 구분된다. 기본면접실과 심층면접실은 각 1개이고, 면접대상자는 1명씩 입실한다.

○ 기본면접과 심층면접은 모두 개별면접의 방식을 취한다. 기본면접은 심층면접의 진행 상황에 관계없이 10분 단위로 계속되고, 심층면접은 기본면접의 진행 상황에 관계없이 15분 단위로 계속된다.

○ 기본면접을 마친 면접대상자는 순서대로 심층면접에 들어간다.

○ 첫 번째 기본면접은 오전 9시 정각에 실시되고, 첫 번째 심층면접은 첫 번째 기본면접이 종료된 시각에 시작된다.

○ 기본면접과 심층면접 모두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 및 휴식 시간을 가진다.

○ 각각의 면접 도중에 점심 및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없고, 1인을 위한 기본면접 시간이나 심층면접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새로운 면접을 시작하지 않는다.

○ 기본면접과 심층면접 모두 오후 1시에 오후 면접 일정을 시작하고, 기본면접의 일정과 관련 없이 심층면접은 오후 5시 정각에는 종료되어야 한다.

※ 면접대상자의 이동 및 교체 시간 등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인원수	종료 시각
①	27명	오후 2시 30분
②	27명	오후 2시 40분
③	28명	오후 2시 30분
④	28명	오후 2시 40분
⑤	28명	오후 2시 50분

684

684

2013 외교 (인) 10번

문 1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례>에서 발생한 슬기의 손익은?

- 甲은행이 A가격(원/달러)에 달러를 사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乙은행이 B가격(원/달러)에 달러를 팔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중개인은 달러 고시 가격을 A/B로 고시한다.

○ 만약 달러를 즉시 사거나 팔려면 그것을 팔거나 사려는 측이 제시하는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 환전수수료 등의 금융거래비용은 없다.

- <사 례> —————

○ 현재 달러 고시 가격은 1204.00/1204.10이다. 슬기는 달러를 당장 사고 싶었고, 100달러를 바로 샀다.

○ 1시간 후 달러 고시 가격은 1205.10/1205.20으로 움직였다. 슬기는 달러를 당장 팔고 싶었고, 즉시 100달러를 팔았다.

- ① 100원 이익

② 120원 이익

③ 200원 이익

④ 100원 손실

⑤ 200원 손실

2013 외교 (인) 12번

문 12. 커피전문점 A와 B는 ○○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A와 B의 개점 및 매출액 등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B의 전체 지점의 월간 매출액이 A의 전체 지점의 월간 매출액을 넘어서는 최초의 시점은?

○ B는 A가 개점한 지역에, A가 개점한 순서에 따라, B의 개점주기대로 반드시 진입한다.

○ B의 커피맛이 A보다 더 좋아 B가 진입하면 해당 지역의 전체 커피수요는 증가하지만, B가 A의 소비자 대부분을 끌어오게 되어 해당 월부터 바로 A의 지점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다.

○ A, B는 한 지역당 한 지점만 개점한다.

구분	A	B
○○국 1호점 개점일	2013년 1월 1일	2013년 3월 1일
개점주기	매월 1일, 1지점	격월 1일, 1지점
각 지점당 월간 매출액	· 100만원 · B가 진입한 지역의 지점은 20만원	150만원

- ① 2013년 7월
- ② 2013년 9월
- ③ 2013년 11월
- ④ 2014년 1월
- ⑤ 2014년 3월

2013 외교 (인) 32번

문 3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도자기 장인 A의 제자들이 몇 명까지 배출되면 도자기 제작자들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도자기 개수의 합이 최대가 되는가?

- 장인 A는 제자 1을 길러내고, 제자 1은 제자 2를, 제자 2는 제자 3을 길러내는 방식으로 제자 수를 늘려나간다. 즉, 각 도자기 제작자는 단 1명에게만 자신의 기술을 전수할 수 있으며, 기술 전수에는 1년이 소요된다.

○ 각 제자가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도자기 개수는 자신을 직접 길러낸 스승의 최초 1일 도자기 생산량보다 20개 적다.

○ 각 도자기 제작자는 모든 직계 제자를 관리해야 하므로, 도자기 제작자가 만드는 1일 도자기 개수도 제자 1명이 증가할 때마다 10개씩 감소한다. 예컨대 제자 1만 있으면 장인 A의 도자기 생산량은 10개 감소하지만, 제자 2까지 있으면 장인 A는 20개, 제자 1은 10개 감소한다.

○ 장인 A의 최초 1일 도자기 생산량은 100개이다.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2014 5급 (A) 4번

문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 해당하는 값은? (단, 소수점 이하 반올림함)

한 남자가 도심 거리에서 강도를 당했다. 그는 그 강도가 흑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당시와 유사한 조건을 갖추고 현장을 재연했을 때, 피해자가 강도의 인종을 정확하게 인식한 비율이 80 %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강도가 정말로 흑인일 확률은 얼마일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확률은 80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확률은 이보다 상당히 낮을 수 있다. 인구가 1,000명인 도시를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 이 도시 인구의 90 %는 백인이고 10 %만이 흑인이다. 또한 강도짓을 할 가능성은 두 인종 모두 10 %로 동일하며, 피해자가 백인을 흑인으로 잘못 보거나 흑인을 백인으로 잘못 볼 가능성은 20 %로 똑같다고 가정한다. 이 같은 전제가 주어졌을 때, 실제 흑인강도 10명 가운데 ()명만 정확히 흑인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실제 백인강도 90명 중 ()명은 흑인으로 오인된다. 따라서 흑인으로 인식된 ()명 가운데 ()명만이 흑인이므로, 피해자가 범인이 흑인이라는 진술을 했을 때 그가 실제로 흑인에게 강도를 당했을 확률은 겨우 ()분의 (), 즉 약 ㉠ %에 불과하다.

- ① 18
- ② 21
- ③ 26
- ④ 31
- ⑤ 36

2014 5급 (A) 14번

문 14. 다음 글과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처리공정 1회 가동 후 바로 생산된 물에는 A균과 B균이 리터(L)당 각각 몇 마리인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란이와 예슬이는 주스를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甲회사의 물과 乙회사의 물을 정화한 후 섞어서 사용한다. 甲회사의 물에는 A균이, 乙회사의 물에는 B균이 리터(L)당 1,000마리씩 균일하게 존재한다. A균은 70℃ 이상에서 10분간 가열하면 90%가 죽지만, B균은 40℃ 이상이 되면 즉시 10% 증식한다. 필터를 이용해 10분간 거르면 A균은 30%, B균은 80%가 걸리진다. 또한 자외선을 이용해 물을 10분간 살균하면 A균은 90%, B균은 80%가 죽는다.

<물 처리공정>

공정 (1) 甲회사의 물과 乙회사의 물을 각각 자외선을 이용하여 10분간 살균한다.

공정 (2-1) 甲회사의 물을 100℃ 이상에서 10분간 가열한다.

공정 (2-2) 乙회사의 물을 10분간 필터로 거른다.

공정 (3) 甲회사의 물과 乙회사의 물을 1:1의 비율로 배합한다.

- <조 건>
- ☐ 물 처리공정 1회 가동시 (1)~(3)의 공정이 20분 동안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 각각의 공정은 독립적이며,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공정 (2-1)과 공정 (2-2)는 동시에 이루어진다.

☐ 공정 (3)을 거친 물의 온도는 60℃이다.

☐ 모든 공정에서 물의 양은 줄어들지 않는다.

☐ 모든 공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물의 양과는 상관관계가 없다.

	A균	B균
①	10	44
②	10	40
③	5	44
④	5	22
⑤	5	20

2016 5급 (4) 9번

문 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에서는 배구가 인기 스포츠이고 매년 1월 프로배구 결승전이 5전 3선승제로 열려 우승팀을 가린다. 단, 각 경기에서 무승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올해는 甲팀과 乙팀이 결승전에 진출하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다.

1차전 승리한 팀의 우승확률 A %!!
1·2차전 모두 승리한 팀의 우승확률 B %!!
- △△일보 -

위와 같은 기사에 흥미를 느낀 누리는 △△일보 기자에게 우승확률을 어떻게 산출하였는지 물었다. 기자는 과거 20년간 매년 치러진 결승전의 모든 진출팀들과 결승전 결과를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적용하였다고 대답하였다.

$$A = \frac{\text{1차전 승리한 팀이 우승한 횟수}}{\text{1차전 승리한 팀이 우승한 횟수} + \text{1차전 패배한 팀이 우승한 횟수}} \times 100$$
$$B = \frac{\text{1·2차전 모두 승리한 팀이 우승한 횟수}}{\text{1·2차전 모두 승리한 팀이 우승한 횟수} + \text{1·2차전 모두 패배한 팀이 우승한 횟수}} \times 100$$

- <보 기>
- ㄱ. A를 구하는 계산식의 분모는 20이다.
 - ㄴ. A와 B 모두 50보다 작을 수는 없다.
 - ㄷ. A>B가 될 수는 없다.
 - ㄹ. △△일보 기사에 따르면, 1·2차전을 모두 패배한 팀의 우승확률은 (100 - B) %이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2016 5급 (4) 29번

문 2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올해의 체육인상’ 후보에 총 5명(甲 ~ 戊)이 올랐다. 수상자는 120명의 기자단 투표에 의해 결정되며 투표규칙은 다음과 같다.

- 투표권자는 한 명당 한 장의 투표용지를 받고, 그 투표용지에 1순위와 2순위 각 한 명의 후보자를 적어야 한다.
- 투표권자는 1순위와 2순위로 동일한 후보자를 적을 수 없다.
- 투표용지에 1순위로 적힌 후보자에게는 5점이, 2순위로 적힌 후보자에게는 3점이 부여된다.
- ‘올해의 체육인상’은 개표 완료 후, 총 점수가 가장 높은 후보자가 수상하게 된다.
- 기권표와 무효표는 없다.

현재 투표까지의 중간집계 점수는 아래와 같다.

<중간집계>

후보자	점수
甲	360점
乙	15점
丙	170점
丁	70점
戊	25점

— <보 기> —

- ㄱ. 현재 투표한 인원은 총 투표인원의 64 %를 넘는다.
- ㄴ. 중간집계 결과로 볼 때, ‘올해의 체육인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甲뿐이다.
- ㄷ. 중간집계 결과로 볼 때, 8명이 丁을 1순위로 적었다면 최대 60명이 甲을 1순위로 적었을 것이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016 5급 (4) 33번

문 33. 다음 <규칙>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규칙>

○ 직원이 50명인 A회사는 야유회에서 경품 추첨 행사를 한다.

○ 직원들은 1명당 3장의 응모용지를 받고, 1~100 중 원하는 수 하나씩을 응모용지별로 적어서 제출한다. 한 사람당 최대 3장까지 원하는 만큼 응모할 수 있고, 모든 응모용지에 동일한 수를 적을 수 있다.

○ 사장이 1~100 중 가장 좋아하는 수 하나를 고르면 해당 수를 응모한 사람이 당첨자로 결정된다. 해당 수를 응모한 사람이 없으면 사장은 당첨자가 나올 때까지 다른 수를 고른다.

○ 당첨 선물은 사과 총 100개이고, 당첨된 응모용지가 n장이면 당첨된 응모용지 1장당 사과를 $\frac{100}{n}$ 개씩 나누어 준다.

○ 만약 한 사람이 2장의 응모용지에 똑같은 수를 써서 당첨된다면 2장 몫의 사과를 받고, 3장일 경우는 3장 몫의 사과를 받는다.

<보기>

ㄱ. 직원 甲과 乙이 함께 당첨된다면 甲은 최대 50개의 사과를 받는다.

ㄴ. 직원 중에 甲과 乙 두 명만이 사과를 받는다면 甲은 최소 25개의 사과를 받는다.

ㄷ. 당첨된 수를 응모한 직원이 甲밖에 없다면, 甲이 그 수를 1장 써서 응모하거나 3장 써서 응모하거나 같은 개수의 사과를 받는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2016 5급 (4) 36번

문 36. 다음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36개의 로봇 중 가장 빠른 로봇 1, 2위를 선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경기 수는?

<상 황>

○ 전국 로봇달리기 대회에 36개의 로봇이 참가한다.

○ 경주 레인은 총 6개이고, 경기당 각 레인에 하나의 로봇만 배정할 수 있으나, 한 경기에 모든 레인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 배정된 레인 내에서 결승점을 먼저 통과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정한다.

○ 속력과 시간의 측정은 불가능하고, 오직 경기 결과에 의해서만 순위를 결정한다.

○ 로봇별 속력은 모두 다르고 각 로봇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다.

○ 로봇의 고장과 같은 다른 요인은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7

② 8

③ 9

④ 10

⑤ 11

693

693

2017 5급 (가) 15번

문 15. 다음 <조건>과 <2월 날씨>를 근거로 판단할 때, 2월 8일과 16일의 실제 날씨로 가능한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Ⅱ. <조 건>

○ 날씨 예측 점수는 매일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예측 실제	맑음	흐림	눈·비
맑음	10점	6점	0점
흐림	4점	10점	6점
눈·비	0점	2점	10점

○ 한 주의 주중(월~금) 날씨 예측 점수의 평균은 매주 5점 이상이다.

○ 2월 1일부터 19일까지 요일별 날씨 예측 점수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

요일	월	화	수	목	금
날씨 예측 점수 평균	7점 이하	5점 이상	7점 이하	5점 이상	7점 이하

<2월 날씨>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날짜			1	2	3	4	5
예측			맑음	흐림	맑음	눈·비	흐림
실제			맑음	맑음	흐림	흐림	맑음
날짜	6	7	8	9	10	11	12
예측	맑음	흐림	맑음	맑음	맑음	흐림	흐림
실제	흐림	흐림	?	맑음	흐림	눈·비	흐림
날짜	13	14	15	16	17	18	19
예측	눈·비	눈·비	맑음	눈·비	눈·비	흐림	흐림
실제	맑음	맑음	맑음	?	눈·비	흐림	눈·비

※ 위 달력의 같은 줄을 한 주로 한다.

2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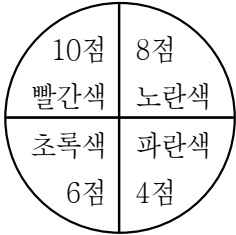
2월 16일

① 맑음	흐림
② 맑음	눈·비
③ 눈·비	흐림
④ 눈·비	맑음
⑤ 흐림	흐림

2017 5급 (가) 34번

문 3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甲~丁은 다음 그림과 같은 과녁에 각자 보유한 화살을 쏜다. 과녁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의 칸으로 4등분이 되어 있다. 화살은 반드시 4개의 칸 중 하나의 칸에 명중하며, 하나의 칸에 여러 개의 화살이 명중할 수 있다.



- 화살을 쏜 사람은 그 화살이 명중한 칸에 쓰인 점수를 받는다.
- 화살의 색깔과 화살이 명중한 칸의 색깔이 일치하면 칸에 쓰인 점수보다 1점을 더 받는다.
- 노란색 화살이 파란색 칸에 명중하는 경우에만 칸에 쓰인 점수보다 1점을 덜 받는다.
- 甲~丁이 보유한 화살은 다음과 같으며, 각자가 보유한 화살을 전부 쏘아 얻은 점수를 합하여 최종 점수를 계산한다. 단, 각 화살은 한 번씩만 쏜다.

사람	보유 화살
甲	빨간색 화살 1개, 노란색 화살 1개
乙	초록색 화살 2개
丙	노란색 화살 1개, 초록색 화살 1개
丁	초록색 화살 1개, 파란색 화살 1개

— <보 기> —

- ㄱ. 乙의 최종 점수의 최댓값과 丁의 최종 점수의 최댓값은 같다.
- ㄴ. 甲과 丙의 최종 점수가 10점으로 같았다면, 노란색 화살들은 모두 초록색 칸에 명중한 것이다.
- ㄷ. 乙의 최종 점수의 최솟값은 甲의 최종 점수와는 다를 것이다.
- ㄹ. 丙과 丁의 화살 4개가 모두 같은 칸에 명중했고 최종 점수가 같았다면, 그 칸은 파란색일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2018 5급 (나) 15번

문 1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하이드와 페터가 키우는 양의 총 마리 수와 ㉠~㉤ 중 옳게 기록된 것만을 짝지은 것은?

- 하이드와 페터는 알프스의 목장에서 양을 키우는데, 목장은 4개의 구역(A~D)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들은 자유롭게 다른 구역을 넘나들 수 있지만 목장을 벗어나지 않는다.

○ 하이드와 페터는 양을 잘 관리하기 위해 구역별 양의 수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양들이 계속 구역을 넘나들기 때문에 양의 수를 정확히 헤아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민 끝에 하이드와 페터는 시간별로 양의 수를 기록하되, 하이드는 특정 시간 특정 구역의 양의 수만을 기록하고, 페터는 양이 구역을 넘나들 때마다 그 시간과 그때 이동한 양의 수를 기록하기로 하였다.

○ 하이드와 페터가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 15분까지 작성한 기록표는 다음과 같으며, ㉠~㉤을 제외한 모든 기록은 정확하다.

하이드의 기록표			페터의 기록표		
시간	구역	마리 수	시간	구역 이동	마리 수
09:10	A	17마리	09:08	B → A	3마리
09:22	D	21마리	09:15	B → D	2마리
09:30	B	8마리	09:18	C → A	5마리
09:45	C	11마리	09:32	D → C	1마리
09:58	D	㉠ 21마리	09:48	A → C	4마리
10:04	A	㉡ 18마리	09:50	D → B	1마리
10:10	B	㉢ 12마리	09:52	C → D	3마리
10:15	C	㉣ 10마리	10:05	C → B	2마리

※ 구역 이동 외의 양의 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59마리, ㉡, ㉣

② 59마리, ㉢, ㉣

③ 60마리, ㉠, ㉣

④ 61마리, ㉠, ㉡

⑤ 61마리, ㉡, ㉣

2018 5급 (나) 18번

문 18. 다음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상 황>

○ 체육대회에서 8개의 종목을 구성해 각 종목에서 우승 시 얻는 승점을 합하여 각 팀의 최종 순위를 매기고자 한다.

○ 각 종목은 순서대로 진행하고, 3번째 종목부터는 각 종목 우승 시 받는 승점이 그 이전 종목들의 승점을 모두 합한 점수보다 10점 더 많도록 구성하였다.

※ 승점은 각 종목의 우승 시에만 얻을 수 있으며, 모든 종목의 승점은 자연수이다.

<보 기>

ㄱ. 1번째 종목과 2번째 종목의 승점이 각각 10점, 20점이라면 8번째 종목의 승점은 1,000점을 넘게 된다.

ㄴ. 1번째 종목과 2번째 종목의 승점이 각각 100점, 200점이라면 8번째 종목의 승점은 10,000점을 넘게 된다.

ㄷ. 1번째 종목과 2번째 종목의 승점에 상관없이 8번째 종목의 승점은 6번째 종목 승점의 네 배이다.

ㄹ. 만약 3번째 종목부터 각 종목 우승 시 받는 승점이 그 이전 종목들의 승점을 모두 합한 점수보다 10점 더 적도록 구성한다면, 1번째 종목과 2번째 종목의 승점에 상관없이 8번째 종목의 승점은 6번째 종목 승점의 네 배보다 적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18 5급 (나) 38번

문 3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 들어갈 일시는?

○ 서울에 있는 甲사무관, 런던에 있는 乙사무관, 시애틀에 있는 丙사무관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영상업무회의를 진행하였다.

○ 회의 시각은 런던을 기준으로 11월 1일 오전 9시였다.

○ 런던은 GMT+0, 서울은 GMT+9, 시애틀은 GMT-7을 표준시로 사용한다. (즉, 런던이 오전 9시일 때, 서울은 같은 날 오후 6시이며 시애틀은 같은 날 오전 2시이다)

甲: 제가 프로젝트에서 맡은 업무는 오늘 오후 10시면 마칠 수 있습니다. 런던에서 받아서 1차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乙: 네, 저는 甲사무관님께서 제시간에 끝내 주시면 다음날 오후 3시면 마칠 수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받아서 마지막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丙: 알겠습니다. 저는 앞선 두 분이 제시간에 끝내 주신다면 서울을 기준으로 모레 오전 10시면 마칠 수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마치면 프로젝트가 최종 마무리 되겠군요.

甲: 잠깐, 다들 말씀하신 시각의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부터 런던을 기준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렸습니다.

乙: 저는 처음부터 시애틀을 기준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렸는데요?

丙: 저는 처음부터 서울을 기준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계획대로 진행될 때 서울을 기준으로 (㉠)에 프로젝트를 최종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甲, 乙: 네, 맞습니다.

- ① 11월 2일 오후 3시
- ② 11월 2일 오후 11시
- ③ 11월 3일 오전 10시
- ④ 11월 3일 오후 3시
- ⑤ 11월 3일 오후 7시

2019 5급 (가) 10번

문 1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부족과 B부족은 한쪽 손의 손모양으로 손가락 셈법(지산법)을 사용하여 셈을 한다.

○ A부족의 손가락 셈법에 따르면, 손모양을 보아 손바닥이 보이면 펴져 있는 손가락 개수만큼 더하고, 손등이 보이면 펴져 있는 손가락 개수만큼을 뺀다.

○ B부족의 손가락 셈법에 따르면, 손모양을 보아 엄지가 펴져 있으면 엄지를 제외하고 펴져 있는 손가락 개수만큼 더하고, 엄지가 접혀 있으면 펴져 있는 손가락 개수만큼 뺀다.

——— <보 기> ———

ㄱ. 손바닥이 보이는 채로, 손가락 다섯 개가 세 번 모두 펴져 있으면, 셈의 합은 A부족이 15이고 B부족은 12일 것이다.

ㄴ. B부족의 셈법에 따르면, 세 번 다 엄지만이 펴져 있는 것의 셈의 합과 세 번 다 주먹이 쥐어져 있는 것의 셈의 합은 동일하다.

ㄷ. 손바닥이 보이는 채로, 첫 번째는 엄지·검지·중지만이 펴져 있고, 두 번째는 엄지가 접혀 있고 검지·중지만 펴져 있고, 세 번째는 다른 손가락은 접혀 있고 엄지만 펴져 있다. 이 경우 셈의 합은 A부족이 6이고 B부족은 3일 것이다.

ㄹ. 세 번 동안 손가락이 몇 개씩 펴져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세 번 내내 엄지는 꼭 펴져 있었다. 이를 A부족, B부족 각각의 셈법에 따라 셈을 하였을 때, 셈의 합이 똑같이 9가 나올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2019 5급 (가) 34번

문 3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4종류(A, B, C, D)의 세균을 대상으로 세균 간 ‘관계’에 대한 실험을 2일 간 진행한다.

○ 1일차 실험에서는 4종류의 세균 중 2종류의 세균을 짝지어 하나의 수조에 넣고, 나머지 2종류의 세균을 짝지어 다른 하나의 수조에 넣어 관찰한다.

○ 2일차 실험에서는 1일차 실험의 수조에서 각 종류의 세균을 분리하여 채취한 후 짝을 바꾸어 1일차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 4종류의 세균 간에는 함께 보관 시에 아래와 같이 공생, 독립, 기피, 천적의 4가지 관계가 존재한다.

 - A와 B: 독립관계
 - A와 C: 기피관계
 - A와 D: 천적관계(A강제, D약제)
 - B와 C: 기피관계
 - B와 D: 공생관계
 - C와 D: 천적관계(C강제, D약제)

○ 2종류의 세균을 짝을 지어 하나의 수조에 보관했을 때 생존지수는 1일마다 각각의 관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정하게 변화한다.

 - 공생관계: 각각 3만큼 증가
 - 독립관계: 불변
 - 기피관계: 각각 2만큼 감소
 - 천적관계: 강제측은 불변, 약제측은 4만큼 감소

○ 각 세균의 1일차 실험시작 직전 초기 생존지수와 2일차 실험이 종료된 후의 생존지수는 아래와 같다.

구분	A	B	C	D
초기 생존지수	10	20	30	40
2일차 실험종료 후 생존지수	8	21	26	39

- <보 기> ———

ㄱ. 실험기간 동안 천적관계에 있는 세균끼리 짝을 지어 하나의 수조에서 실험한 적은 없다.

ㄴ. 실험기간 동안 독립관계에 있는 세균끼리 짝을 지어 하나의 수조에서 실험한 적은 없다.

ㄷ. 1일차와 2일차 모두 적어도 1개의 수조에는 기피관계에 있는 세균끼리 짝을 지어 실험했다.

ㄹ. 한 종류의 세균에 대해서는 1일차와 2일차 모두 동일한 ‘관계’에 있는 세균끼리 짝을 지어 실험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20 5급 (나) 10번

문 1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서 모두 B안에 투표한 주민 수의 최솟값은?

○○마을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였다. 주민들에게 사업안 A, B, C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1차 투표를 한 후, 주민들끼리 토론을 거쳐 2차 투표로 최종안을 결정하였다. 1차와 2차 투표 모두 투표율은 100 %였고, 무효표는 없었다.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1차 투표	2차 투표
A안	30명	()명
B안	50명	()명
C안	20명	35명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서 모두 A안에 투표한 주민은 20명이었고, 2차 투표에서만 A안에 투표한 주민은 5명이었다.

- ① 10
- ② 15
- ③ 20
- ④ 25
- ⑤ 30

2021 5급 (가) 29번

문 2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귀가했을 때의 정확한 시각은?

甲은 집에 있는 시계 X의 건전지가 방전되어 새 건전지로
갈아 끼웠다. 甲은 정확한 시각을 알 수 없어서 일단 X의
시각을 정오로 맞춘 직후 일정한 빠르기로 걸어 친구 乙의
집으로 갔다. 乙의 집에 당일 도착했을 때 乙의 집 시계 Y는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甲은 乙과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집으로 출발했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갈 때와
같은 길을 2배의 빠르기로 걸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X는
14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다. 단, Y는 정확한 시각보다
10분 느리게 설정되어 있다.

※ X와 Y는 시각이 부정확한 것 외에는 정상 작동하고 있다.

- ① 11시 40분
- ② 11시 50분
- ③ 12시 00분
- ④ 12시 10분
- ⑤ 12시 20분

2021 5급 (가) 30번

문 3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아르키메데스는 대장장이가 만든 왕관이 순금인지 알아내기 위해 질량 1kg인 왕관을 물이 가득 찬 용기에 완전히 잠기도록 넣었을 때 넘친 물의 부피를 측정하였다.

이 왕관은 금, 은, 구리, 철 중 1개 이상의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밀도는 각각 20, 10, 9, 8 g/cm³이다.

밀도와 질량, 부피 사이의 관계는 아래 식과 같다.

$$\text{밀도(g/cm}^3\text{)} = \frac{\text{질량(g)}}{\text{부피(cm}^3\text{)}}$$

※ 각 금속의 밀도, 질량, 부피 변화나 금속 간의 반응은 없고, 둘 이상의 금속을 합해 만든 왕관의 질량(또는 부피)은 각 금속의 질량(또는 부피)의 합과 같다.

————— <보 기> —————

ㄱ. 대장장이가 왕관을 금으로만 만들었다면, 넘친 물의 부피는 50 cm³이다.

ㄴ. 넘친 물의 부피가 80 cm³이고 왕관이 금과 은으로만 만들어졌다면, 왕관에 포함된 은의 부피는 왕관에 포함된 금 부피의 3배이다.

ㄷ. 넘친 물의 부피가 80 cm³이고 왕관이 금과 구리로만 만들어졌다면, 왕관에 포함된 구리의 부피는 왕관에 포함된 금 부피의 3배 이상이다.

ㄹ. 넘친 물의 부피가 120 cm³보다 크다면, 왕관은 철을 포함하고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2022 5급 (나) 32번

문 3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에서 9까지 아홉 개의 숫자버튼이 있고, 단계별로 숫자 버튼을 한 번 누르면 <규칙>에 따라 값이 출력되는 장치가 있다.

<규 칙>

1단계: 숫자버튼을 누르면 그 수가 그대로 출력된다.

2단계: ‘1단계 출력값’에 ‘2단계에서 누른 수에 11을 곱한 값’을 더한 값이 출력된다.

3단계: ‘2단계 출력값’에 ‘3단계에서 누른 수에 111을 곱한 값’을 더한 값이 출력된다. 다만 그 값이 1,000 이상인 경우 0이 출력된다.

<보 기>

ㄱ. 100부터 999까지의 정수는 모두 출력 가능하다.

ㄴ. 250이 출력되도록 숫자버튼을 누르는 방법은 한 가지이다.

ㄷ. 100의 배수(0 제외)가 출력되었다면 처음 누른 숫자버튼은 반드시 1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2024 5급 (나) 16번

1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부는 A ~ D업체 중 여론조사를 수행할 1개의 업체를 선정하고자 한다. 각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5명의 평가위원이 상, 중, 하 3개의 등급으로 평가하여 각각 100점, 90점, 80점을 부여한다.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의 합이 가장 큰 업체를 선정한다. 단, 최고점이 여러 개일 경우 1개의 점수만 제외하고, 최저점이 여러 개일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최고 득점 업체가 복수인 경우, 최고 득점 업체를 대상으로 2차 발표 평가를 추가로 진행한다.

<상 황>

다음은 5명의 평가위원이 A ~ D업체에 부여한 평가점수에 대한 정보이다.

구분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최고점	100	90	90	100
최저점	80	80	?	80
평균점수	92	?	88	?

- ① A업체는 평가위원 3명으로부터 중의 등급을 받았다.
- ② C업체는 평가위원 2명으로부터 하의 등급을 받았다.
- ③ B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은 없다.
- ④ C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 ⑤ 3개 업체가 2차 발표 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2024 5급 (나) 28번

2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기부한 금액의 일의 자리 숫자와 丙이 기부한 금액의 십의 자리 숫자의 합은?

甲의 기부액은 일의 자리 숫자(□)를 모르는 12,345,67□원이다.
乙의 기부액은 甲의 3배이고, 丙의 기부액은 乙의 3배이다. 丁의 기부액은 丙의 3배이며 모든 자리 숫자가 3이다.

- ① 4
- ② 5
- ③ 7
- ④ 10
- ⑤ 14

2025 5급 (가) 9번

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乙이 사망하던 날 甲의 나이는?

甲은 0세의 나이에 75세의 얼굴을 지녔으며, 다른 모든 사람과는 반대로 나이를 한 살 먹을 때마다 얼굴은 한 살씩 어려진다. 乙은 21세가 되는 날, 乙의 나이보다 30세가 더 많아 보이는 甲과 결혼했다. 甲과 乙은 결혼한 지 1년이 되는 날에 아들을 낳았다. 甲의 얼굴이 아들과 동일한 나이로 보이게 되는 날에 乙은 사망하였고, 甲은 乙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을 더 살았다.

- ① 40세
- ② 45세
- ③ 50세
- ④ 55세
- ⑤ 60세

2025 5급 (가) 29번

2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가)에 들어갈 최소 일수는?

과학자 甲은 AI 로봇의 성능이 환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고 싶어 AI 로봇을 초원과 사막에 각각 보냈다. 초원에 간 AI 로봇은 매일 142,857그루의 나무를 7일 동안 심고 임무를 종료하였다. 한편 사막에 간 AI 로봇은 매일 37그루의 나무를 (가)일 동안 심고 임무를 종료하였다. 사막에 간 AI 로봇이 심은 총 나무 수를 세어보니, 그 수는 초원에 간 AI 로봇이 심은 총 나무 수에 포함된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 ① 17
- ② 23
- ③ 25
- ④ 27
- ⑤ 37

2025 5급 (가) 30번

3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 B, C팀 구성원의 총수는?

A, B, C팀 구성원의 남성 대 여성의 비는 각각 1:1, 2:1, 1:2이고, 숙련자 대 비숙련자의 비는 각각 2:1, 1:1, 1:2이다. 이 상황에서 A팀의 남성 숙련자 1명을 C팀으로 보내고, B팀의 남성 비숙련자 1명을 A팀으로 보내고, C팀의 여성 비숙련자 1명을 B팀으로 보내면, 각 팀의 남성 대 여성, 숙련자 대 비숙련자의 비는 모두 1:1이 된다.

- ① 18명
- ② 20명
- ③ 22명
- ④ 24명
- ⑤ 26명

2012 민경채 (인) 18번

문 18. 甲은 키보드를 이용해 숫자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키보드의 숫자 배열을 휴대폰의 숫자 배열로 착각하고 숫자를 입력하였다. 휴대폰과 키보드의 숫자 배열이 다음과 같다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휴대폰의 숫자 배열>

1	2	3
4	5	6
7	8	9
@	0	#

<키보드의 숫자 배열>

7	8	9
4	5	6
1	2	3
0		.

<보 기>

- ㄱ. ‘ 46×5 ’의 계산 결과는 옳게 산출되었다.
- ㄴ. ‘ $789 + 123$ ’의 계산 결과는 옳게 산출되었다.
- ㄷ. ‘ $159 + 753$ ’의 계산 결과는 옳게 산출되었다.
- ㄹ. ‘ $753 + 951$ ’의 계산 결과는 옳게 산출되었다.
- ㅁ. ‘ $789 - 123$ ’의 계산 결과는 옳게 산출되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ㄹ, 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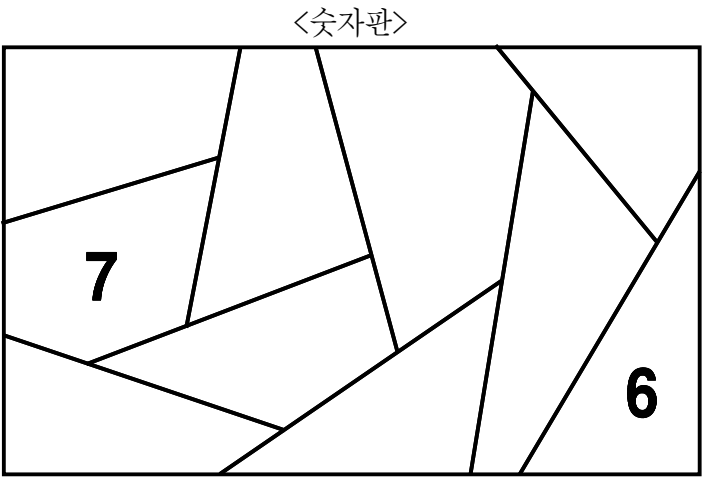
2016 민경채 (5) 24번

문 24. 다음 <조건>을 따를 때, 5에 인접한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단, 숫자가 인접한다는 것은 숫자가 쓰인 칸이 인접함을 의미한다)

- <조 건> —

 - 1 ~ 10까지의 자연수를 모두 사용하여, <숫자판>의 각 칸에 하나의 자연수를 쓴다. 단, 6과 7은 <숫자판>에 쓰여 있다.
 - 1은 소수와만 인접한다.
 - 2는 모든 홀수와 인접한다.
 - 3에 인접한 숫자를 모두 더하면 16이 된다.
 - 5는 가장 많은 짝수와 인접한다.
 - 10은 어느 짝수와도 인접하지 않는다.

※ 소수 :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자연수



- ① 22
- ② 23
- ③ 24
- ④ 25
- ⑤ 26

2019 민경채 (나) 17번

문 1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 乙, 丙의 자동차 번호 끝자리 숫자의 합으로 가능한 최댓값은?

○ A사는 자동차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 요일별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 번호 끝자리 숫자는 아래와 같다.

요일	월	화	수	목	금
숫자	1, 2	3, 4	5, 6	7, 8	9, 0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경우 A사는 자동차 요일제가 아닌 차량 홀짝제를 시행한다. 차량 홀짝제를 시행하는 날에는 시행일이 홀수이면 자동차 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고, 시행일이 짝수이면 자동차 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가 아닌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상 황>

A사의 직원인 甲, 乙, 丙은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5일 모두 출근했고, 12일, 13일, 14일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었다. 자동차 요일제와 차량 홀짝제로 인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3명 모두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로 출근을 했다. 다음은 甲, 乙, 丙이 16일에 출근한 후 나눈 대화이다.

○ 甲: 나는 12일에 내 자동차로 출근을 했어. 따져보니 이번 주에 총 4일이나 내 자동차로 출근했어.

○ 乙: 저는 이번 주에 이틀만 제 자동차로 출근했어요.

○ 丙: 나는 이번 주엔 13일, 15일, 16일만 내 자동차로 출근할 수 있었어.

※ 甲, 乙, 丙은 자동차를 각각 1대씩 소유하고 있다.

- ① 14
- ② 16
- ③ 18
- ④ 20
- ⑤ 22

2020 민경채 (가) 19번

문 1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비밀번호의 둘째 자리 숫자와 넷째 자리 숫자의 합은?

甲은 친구의 자전거를 빌려 타기로 했다. 친구의 자전거는 다이얼을 돌려 다섯 자리의 비밀번호를 맞춰야 열리는 자물쇠로 잠겨 있다. 각 다이얼은 0~9 중 하나가 표시된다. 자물쇠에 현재 표시된 숫자는 첫째 자리부터 순서대로 3 - 6 - 4 - 4 - 9이다. 친구는 비밀번호에 대해 다음과 같은 힌트를 주었다.

○ 비밀번호는 모두 다른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 자물쇠에 현재 표시된 모든 숫자는 비밀번호에 쓰이지 않는다.

○ 현재 짝수가 표시된 자리에는 홀수가, 현재 홀수가 표시된 자리에는 짝수가 온다. 단, 0은 짝수로 간주한다.

○ 비밀번호를 구성하는 숫자 중 가장 큰 숫자가 첫째 자리에 오고, 가장 작은 숫자가 다섯째 자리에 온다.

○ 비밀번호 둘째 자리 숫자는 현재 둘째 자리에 표시된 숫자보다 크다.

○ 서로 인접한 두 숫자의 차이는 5보다 작다.

① 7

② 8

③ 10

④ 12

⑤ 13

713

713

2020 7급 모의평가 13번

문 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올바른 우편번호의 첫자리와 끝자리 숫자의 합은?

다섯 자리 자연수로 된 우편번호가 있다. 甲과 乙은 실수로 ‘올바른 우편번호’에 숫자 2를 하나 추가하여 여섯 자리로 표기하였다. 甲은 올바른 우편번호의 끝자리 뒤에 2를 추가하였고, 乙은 올바른 우편번호의 첫자리 앞에 2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 甲이 잘못 표기한 우편번호 여섯 자리 수는 乙이 잘못 표기한 우편번호 여섯 자리 수의 3배가 되었다.

올바른 우편번호와 甲과 乙이 잘못 표기한 우편번호는 아래와 같다.

☐ 올바른 우편번호: □□□□□

☐ 甲이 잘못 표기한 우편번호: □□□□□2

☐ 乙이 잘못 표기한 우편번호: 2□□□□□

- ① 11
- ② 12
- ③ 13
- ④ 14
- ⑤ 15

2020 7급 모의평가 16번

문 1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1에서부터 5까지 적힌 카드가 각 2장씩 10장이 있다.
5가 적힌 카드 중 하나를 맨 왼쪽에 놓고, 나머지 9장의
카드를 일렬로 배열하려고 한다. 카드는 왼쪽부터 1장씩
놓는데, 각 카드에 적혀 있는 수는 바로 왼쪽 카드에 적혀
있는 수보다 작거나, 같거나, 1만큼 커야 한다.
이 규칙에 따라 카드를 다음과 같이 배열하였다.

5	1	2	3	A	3	B	C	D	E

- ① A로 가능한 수는 2가지이다.
- ② B는 4이다.
- ③ C는 5가 아니다.
- ④ D가 2라면 A, B, C, E를 모두 알 수 있다.
- ⑤ E는 1이나 2이다.

2022 7급 (가) 20번

문 2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 해당하는 수는?

甲: 그저께 나는 만 21살이었는데, 올해 안에 만 23살이 될 거야.
乙: 올해가 몇 년이지?
甲: 올해는 2022년이야.
乙: 그러면 네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의 각 숫자를 모두 곱하면 ㉠이구나.
甲: 그래, 맞아!

- ① 0
- ② 81
- ③ 486
- ④ 648
- ⑤ 2,916

2023 7급 (인) 16번

1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만든 비밀번호 각 자리의 숫자를 모두 곱한 값은?

- ☐ 甲은 1, 2, 3, 4 중에서 숫자를 골라 네 자리 비밀번호를 만들었다.

☐ 비밀번호 각 자리의 숫자를 ‘모두 더한 값’과 ‘모두 곱한 값’이 같았다.

- ① 8
- ② 9
- ③ 10
- ④ 12
- ⑤ 16

2025 7급 추가 (핵) 15번

1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甲은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5자리로 이루어진 금고 비밀번호를 만들려 한다.

○ 비밀번호는 알파벳 소문자 14개(a ~ n) 중 서로 다른 5개를 사용하여 구성한다.

○ 1번째 자리부터 알파벳 오름차순으로 배열한다.

○ 1, 3번째 자리에는 알파벳 모음인 a, e, i만 올 수 있다.

○ 2, 5번째 자리에는 알파벳 자음만 올 수 있다.

- ① 4번째 자리에는 i가 올 수 없다.
- ② 5번째 자리에는 f가 올 수 있다.
- ③ 2번째 자리가 g라면, 4번째 자리에는 i가 올 수 있다.
- ④ 3번째 자리가 i라면, 2번째 자리는 h가 되어야 한다.
- ⑤ 5번째 자리가 j라면, 1번째 자리는 a가 되어야 한다.

2011 5급 (선) 16번

문 16. 다음 <놀이 규칙>에 따라 甲과 乙이 주사위 놀이를 할 때 甲이 승리하는 경우는?

<놀이 규칙>

○ 3개의 정육면체 주사위 중 주사위 A에는 0부터 5, 주사위 B에는 1부터 6, 주사위 C에는 2부터 7의 숫자가 각각 주사위의 여섯 면에 적혀있다.

○ 주사위 A에서 나오는 숫자 a, 주사위 B에서 나오는 숫자 b, 주사위 C에서 나오는 숫자 c를 자신의 기록지에 순서대로 아래와 같이 적는다. 그리고 ㉠자리와 ㉡자리에는 사칙연산 부호(+, -, ×, ÷) 중 하나씩을 甲과 乙이 각자 놀이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유리한 대로 골라서 자신의 기록지에 적는다. 이 때 甲과 乙은 상대방이 고른 부호를 고를 수 있지만, 한 사람이 같은 부호를 ㉠와 ㉡자리에 중복해서 쓸 수는 없다.

a ㉠ b ㉡ c = 점수

○ 점수는 a, b, c의 숫자 및 ㉠와 ㉡의 사칙연산 부호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사칙연산 시에는 일반적인 사칙연산의 계산 순서에 따라 ×, ÷를 +, -보다 먼저 계산한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 a = 4, b = 4, c = 5가 나왔고 ㉠에는 +, ㉡에는 ×를 넣기로 하였다면 점수는 24점이 된다.

○ 승패의 결정은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점수가 1점이 되면 상대가 아무리 높은 점수라 하더라도 1점이 되는 사람이 승리한다.

	甲			乙		
	a	b	c	a	b	c
①	1	4	7	5	1	5
②	5	6	5	0	3	3
③	3	6	3	5	4	2
④	3	3	3	1	6	2
⑤	4	5	7	2	2	2

2013 5급 (인) 15번

문 15. 다음 <규칙>에 근거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규 칙> —————

○ 9장의 카드에는 1부터 9까지의 숫자 중 각각 다른 하나의 숫자가 적혀 있다.

○ 9장의 카드 중 4장을 동시에 사용하여 네 자리 수를 만든다.

○ 천의 자리에 있는 숫자와 백의 자리에 있는 숫자를 곱한 값이 십의 자리 숫자와 일의 자리 숫자가 된다.
예를 들어 ‘7856’은 가능하지만 ‘7865’는 불가능하다.

————— <보 기> —————

ㄱ.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를 뺀 값은 7158이다.

ㄴ. 천의 자리가 5이거나 일의 자리가 5인 네 자리 수는 만들 수 없다.

ㄷ. 천의 자리에 9를 넣을 때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수의 개수는 천의 자리에 다른 어떤 수를 넣을 때 보다 많다.

ㄹ. 숫자 1이 적힌 카드가 한 장 추가되어도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수의 총 개수에는 변화가 없다.

ㅁ. 숫자 9가 적힌 카드가 한 장 추가되어도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수의 총 개수에는 변화가 없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ㅁ
- ④ ㄱ, ㄹ, ㅁ
- ⑤ ㄴ, ㄷ, ㅁ

2013 5급 (인) 38번

문 38. 다음 <숫자를 만드는 규칙>과 <놀이규칙>에 따라 놀이를 할 때, <보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경우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숫자를 만드는 규칙>

<

2016 5급 (4) 15번

문 1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혜민이와 은이는 OX퀴즈를 풀었다. 문제는 총 8개(100점 만점)이고 분야별 문제 수와 문제당 배점은 다음과 같다.

분야	문제 수	문제당 배점
역사	6	10점
경제	1	20점
예술	1	20점

문제 순서는 무작위로 정해지고, 혜민이와 은이가 각 문제에 대해 ‘O’ 또는 ‘X’를 다음과 같이 선택했다.

문제	혜민	은
1	O	O
2	X	O
3	O	O
4	O	X
5	X	X
6	O	X
7	X	O
8	O	O
총점	80	70

—————<보 기>—————

ㄱ. 혜민이와 은이 모두 경제 문제를 틀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ㄴ. 혜민이만 경제 문제를 틀렸다면, 예술 문제는 혜민이와 은이 모두 맞혔다.

ㄷ. 혜민이가 역사 문제 두 문제를 틀렸다면, 은이는 예술 문제와 경제 문제를 모두 맞혔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2016 5급 (4) 30번

문 30. 다음 <규칙>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와 B가 한 번의 게임에서 얻은 점수 합계의 최댓값과 최솟값은?

<규칙>

○ A와 B는 상자 안에 든 1~9까지의 숫자가 적힌 아홉 개의 공을 번갈아가며 하나씩 뽑는다. 단, 하나의 공에는 하나의 숫자만 적혀 있고, 중복되거나 누락된 숫자는 없다.

○ 뽑은 공은 상자 안에 다시 넣지 않는다.

○ 공은 A가 먼저 뽑고, 공을 모두 뽑으면 게임은 종료된다.

○ 득점방식은 다음과 같다.

– (n-1)번째 뽑은 공에 적힌 숫자와 n번째 뽑은 공에 적힌 숫자를 더한다. (n=2, 3, 4, 5, 6, 7, 8, 9)

– 위 합산 값의 일의 자리 수가 n번째 공을 뽑은 사람의 득점이 된다. 즉 n이 홀수일 때 A가 득점하고, n이 짝수일 때 B가 득점한다.

– A는 자신이 뽑은 첫 번째 공으로 득점할 수 없다.

	최댓값	최솟값
①	61	3
②	61	4
③	61	5
④	67	4
⑤	67	5

723

723

2018 5급 (나) 33번

문 3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甲과 乙은 책의 쪽 번호를 이용한 점수 게임을 한다.

☐ 책을 임의로 펼쳐서 왼쪽 면 쪽 번호의 각 자리 숫자를 모두 더하거나 모두 곱해서 나오는 결과와 오른쪽 면 쪽 번호의 각 자리 숫자를 모두 더하거나 모두 곱해서 나오는 결과 중에 가장 큰 수를 본인의 점수로 한다.

☐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이 승리하고, 같은 점수가 나올 경우 무승부가 된다.

☐ 甲과 乙이 가진 책의 시작 면은 1쪽이고, 마지막 면은 378쪽이다. 책을 펼쳤을 때 왼쪽 면이 짝수, 오른쪽 면이 홀수 번호이다.

☐ 시작 면이나 마지막 면이 나오게 책을 펼치지 않는다.

- ※ 쪽 번호가 없는 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 ※ 두 사람은 항상 서로 다른 면을 펼친다.

- <보 기> —————

ㄱ. 甲이 98쪽과 99쪽을 펼치고, 乙은 198쪽과 199쪽을 펼치면 乙이 승리한다.

ㄴ. 甲이 120쪽과 121쪽을 펼치고, 乙은 210쪽과 211쪽을 펼치면 무승부이다.

ㄷ. 甲이 369쪽을 펼치면 반드시 승리한다.

ㄹ. 乙이 100쪽을 펼치면 승리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2020 5급 (나) 11번

문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甲과 乙은 총 10장의 카드를 5장씩 나누어 가진 후에 심판의 지시에 따라 게임을 한다.

○ 카드는 1부터 9까지의 서로 다른 숫자가 하나씩 적힌 9장의 숫자카드와 1장의 만능카드로 이루어진다.

○ 이 중 6 또는 9가 적힌 숫자카드는 9와 6 중에서 원하는 숫자카드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

○ 만능카드는 1부터 9까지의 숫자 중 원하는 숫자가 적힌 카드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

- <보 기> —————

ㄱ. 심판이 가장 큰 다섯 자리의 수를 만들라고 했을 때, 가능한 가장 큰 수는 홀수이다.

ㄴ. 상대방보다 작은 두 자리의 수를 만들면 승리한다고 했을 때, 乙이 ‘12’를 만들었다면 승리한다.

ㄷ. 상대방보다 큰 두 자리의 수를 만들면 승리한다고 했을 때, 甲이 ‘98’을 만들었다면 승리한다.

ㄹ. 심판이 10보다 작은 3의 배수를 상대방보다 많이 만들라고 했을 때, 乙이 3개를 만들었다면 승리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20 5급 (나) 14번

문 14. 다음 글과 <진술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첫 번째 사건의 가해차량 번호와 두 번째 사건의 목격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 어제 두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 첫 번째 사건의 가해차량 번호는 다음 셋 중 하나이다.
99★2703, 81★3325, 32★8624

○ 어제 사건에 대해 진술한 목격자는 甲, 乙, 丙 세 명이다.
이 중 두 명의 진술은 첫 번째 사건의 가해차량 번호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한 명의 진술은 두 번째 사건의 가해차량 번호에 대한 것이다.

○ 첫 번째 사건의 가해차량 번호는 두 번째 사건의 목격자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 편의상 차량 번호에서 ★ 앞의 두 자리 수는 A, ★ 뒤의 네 자리 수는 B라고 한다.

- <진술 내용> —————

○ 甲: A를 구성하는 두 숫자의 곱은 B를 구성하는 네 숫자의 곱보다 작다.

○ 乙: B를 구성하는 네 숫자의 합은 A를 구성하는 두 숫자의 합보다 크다.

○ 丙: B는 A의 50배 이하이다.

	첫 번째 사건의 가해차량 번호	두 번째 사건의 목격자
①	99★2703	甲
②	99★2703	乙
③	81★3325	乙
④	81★3325	丙
⑤	32★8624	丙

2021 5급 (가) 31번

문 3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과 ㉡을 옳게 짝지은 것은?

○ 甲회사는 재고를 3개의 창고 A, B, C에 나누어 관리하며, 2020년 1월 1일자 재고는 A창고 150개, B창고 100개, C창고 200개였다.

○ 2020년 상반기 입·출고기록은 다음 표와 같으며, 재고는 입고 및 출고에 의해서만 변화한다.

입고기록					출고기록				
일자	창고	A	B	C	일자	창고	A	B	C
3월 4일		50	80	0	2월 18일		30	20	10
4월 10일		0	25	10	3월 27일		10	30	60
5월 11일		30	0	0	4월 13일		20	0	15

○ 2020년 5월 25일 하나의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 창고 안에 있던 재고 전부가 불에 그을렸는데, 그 개수를 세어보니 150개였다.

○ 화재 직후인 2020년 5월 26일 甲회사의 재고 중 불에 그을리지 않은 것은 ㉠ 개였다.

○ 甲회사는 2020년 6월 30일 상반기 장부를 정리하던 중 두 창고 ㉡의 상반기 전체 출고기록이 맞바뀐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다.

- ㉠

㉡
- ① 290

A와 B
- ② 290

A와 C
- ③ 290

B와 C
- ④ 300

A와 B
- ⑤ 300

A와 C

2021 5급 (가) 35번

문 3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乙이 가진 4장의 숫자 카드에 적힌 수의 합으로 가능한 것은?

1부터 9까지 서로 다른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9장의 숫자 카드 1세트가 있다. 甲과 乙은 여기에서 각각 2장씩 카드를 뽑았다. 카드를 뽑고 보니 甲이 가진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과 乙이 가진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같았다. 또한 甲이 첫 번째 뽑은 카드에 3을 곱한 값과 두 번째 뽑은 카드에 9를 곱한 값의 일의 자리 수가 서로 같았다. 乙도 같은 방식으로 곱하여 얻은 두 값의 일의 자리 수가 서로 같았다.

- ① 18
- ② 20
- ③ 22
- ④ 24
- ⑤ 26

2022 5급 (나) 34번

문 3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무소 B의 전화번호를 구성하는 6개 숫자를 모두 합한 값의 최댓값은?

사무소 A와 사무소 B 각각의 전화번호는 1부터 9까지의 숫자 중 6개로 구성되어 있다.

☐

A와 B전화번호에서 공통된 숫자의 종류는 5를 포함하여 세 가지이다.

☐

A전화번호는 세 가지의 홀수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

A전화번호의 첫 번째와 마지막 숫자는 서로 다르며, 합이 10이다.

☐

B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 중 가장 큰 숫자는 세 번 나타난다.

☐

B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 중 두 번째로 작은 숫자는 짝수다.

- ① 33
- ② 35
- ③ 37
- ④ 39
- ⑤ 42

2023 5급 (가) 12번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rightarrow$ 는 자연수의 맨 앞 숫자를 맨 뒤로 보내라는 기호이다.
(예: $\rightarrow 4321 = 3214$)

○ $\leftarrow$ 는 자연수의 맨 뒤 숫자를 맨 앞으로 보내라는 기호이다.
(예: $\leftarrow 4321 = 1432$)

○ $\rightarrow$ 또는 $\leftarrow$ 를 적용하여 0이 맨 앞 숫자가 되면 그 0을 제거한다.

○ 기호가 연속된 경우에는 숫자에 가까운 기호부터 차례대로 적용한다. (예: $\rightarrow \leftarrow 4321 = \rightarrow 1432 = 4321$)

- ① $\rightarrow 43$ 의 결과는 홀수이다.
- ② 두 자리 자연수에 $\rightarrow \leftarrow$ 를 적용하면 원래 수와 같다.
- ③ 세 자리 자연수에 $\rightarrow \rightarrow \rightarrow$ 를 적용하면 원래 수와 같다.
- ④ 두 자리 자연수에 $\rightarrow \leftarrow$ 를 적용한 결과와 $\leftarrow \rightarrow$ 를 적용한 결과는 다르다.
- ⑤ 두 자리 자연수 A가 있을 때 $(\rightarrow A) + A$ 의 결과는 11의 배수이다.

2023 5급 (가) 32번

3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22년 A시 인구수의 천의 자리 숫자는?

A시는 2022년까지 매년 인구수를 발표해왔다. 2010년 이후 이 도시의 인구는 매년 600명 이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만 해왔다.

그런데 A시의 2019년 인구수는 2,739,372로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천의 자리 숫자(한가운데 숫자)를 중심으로 하여, 나머지 숫자들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으로 놓여 있다. 즉, 2739372는 9를 중심으로 2, 7, 3이 각각 좌우 대칭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다. 3년 뒤인 2022년 인구수도 마찬가지로 형태이다.

- ① 0
- ② 1
- ③ 2
- ④ 3
- ⑤ 4

2024 5급 (나) 10번

1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 ㉡, ㉢, ㉣의 합으로 가능한 수는?

- ㉠

,

㉡

,

㉢

,

㉣

은 0부터 9까지의 정수이다.

○

㉠과 ㉡은 같다.

○

㉠, ㉡, ㉢, ㉣ 중 홀수는 ㉡개다.

○

㉠, ㉡, ㉢, ㉣ 중 1은 ㉢개다.

○

㉠, ㉡, ㉢, ㉣ 중 2는 ㉣개다.

- ①

1

②

3

③

5

④

7

⑤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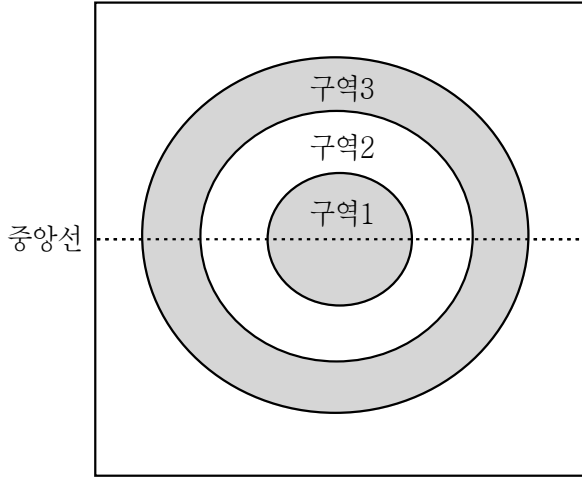
732

732

2018 민경채 (가) 19번

문 1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부터 5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와 3개의 구역이 있는 다트판이 있다. 甲과 乙은 다음 방법에 따라 점수를 얻는 게임을 하기로 했다.



- 우선 5장의 카드 중 1장을 임의로 뽑고, 그 후 다트를 1차 시기와 2차 시기에 각 1번씩 총 2번 던진다.
- 뽑힌 카드에 적혀 있는 숫자가 ‘카드점수’가 되며 점수를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차 시기 점수 산정 방법>

- 다트가 구역1에 꽂힐 경우: 카드점수 $\times$ 3
- 다트가 구역2에 꽂힐 경우: 카드점수 $\times$ 2
- 다트가 구역3에 꽂힐 경우: 카드점수 $\times$ 1
- 다트가 그 외 영역에 꽂힐 경우: 카드점수 $\times$ 0

<2차 시기 점수 산정 방법>

- 다트가 다트판의 중양선 위쪽에 꽂힐 경우: 2점
- 다트가 다트판의 중양선 아래쪽에 꽂힐 경우: 0점

<최종점수 산정 방법>

- 최종점수: 1차 시기 점수 + 2차 시기 점수

※ 다트판의 선에 꽂히는 경우 등 그 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 <보 기> —

- ㄱ. 甲이 짝수가 적힌 카드를 뽑았다면, 최종점수는 홀수가 될 수 없다.
- ㄴ. 甲이 숫자 2가 적힌 카드를 뽑았다면, 가능한 최종점수는 8가지이다.
- ㄷ. 甲이 숫자 4가 적힌 카드를, 乙이 숫자 2가 적힌 카드를 뽑았다면, 가능한 甲의 최종점수 최댓값과 乙의 최종점수 최솟값의 차이는 14점이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2023 7급 (인) 22번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엘리베이터 안에는 각 층을 나타내는 버튼만 하나씩 있다.
 - 버튼을 한 번 누르면 해당 층에 가게 되고, 다시 누르면 취소된다. 취소된 버튼을 다시 누를 수 있다.
 - 1층에 계속해서 정지해 있던 빈 엘리베이터에 처음으로 승객 7명이 탔다.
 - 승객들이 버튼을 누른 횟수의 합은 10이며, 1층에서만 눌렀다.
 - 승객 3명은 4층에서, 2명은 5층에서 내렸다. 나머지 2명은 6층 이상의 서로 다른 층에서 내렸다.
 - 1층 외의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승객은 없으며, 엘리베이터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층에서만 정지했다.

- <보 기> ———

 - ㄱ. 각 승객은 1개 이상의 버튼을 눌렀다.
 - ㄴ. 5번 누른 버튼이 있다면, 2번 이상 누른 다른 버튼이 있다.
 - ㄷ. 4층 버튼을 가장 많이 눌렀다.
 - ㄹ. 승객이 내리지 않은 층의 버튼을 누른 사람은 없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024 7급 (사) 16번

1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두 선수가 맞붙어 승부를 내는 스포츠 경기가 있다. 이 경기는 개별 게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게임의 승부가 결정되면 그 게임의 승자는 1점을 얻고 패자는 점수를 얻지 못한다. 무승부는 없다. 개별 게임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한 선수의 점수가 다른 선수보다 2점 많아지면 그 선수가 경기의 승자가 되고 경기가 종료된다.

<상 황>

두 선수 甲과 乙이 맞붙어 이 경기를 치른 결과, n 번째 게임을 끝으로 甲이 경기의 승자가 되고 경기가 종료되었다. 단, $n > 3$ 이다.

<보 기>

ㄱ. n 이 홀수인 경우가 있다.
ㄴ. $(n - 1)$ 번째 게임에서 乙이 이겼을 수도 있다.
ㄷ. $(n - 2)$ 번째 게임 종료 후 두 선수의 점수는 같았다.
ㄹ. $(n - 3)$ 번째 게임에서 乙이 이겼을 수도 있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ㄹ
- ⑤ ㄷ, ㄹ

2025 7급 추가 (핵) 16번

1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B팀 총 득점의 최댓값은?

최대 3세트까지 진행되는 스포츠 경기가 있다. 득점은 1점씩 이루어지며 각 세트는 25점을 먼저 얻은 팀이 이긴다. 두 세트를 먼저 이기는 팀이 경기에서 승리한다. A팀과 B팀이 맞붙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A팀이 경기에서 승리하였다.
○ A팀이 한 자릿수 득점에 그친 세트가 있다.
○ B팀은 두 세트에서 동일한 득점을 기록하였다.
○ B팀의 총 득점은 A팀보다 9점 많았다.

- ① 65점
- ② 67점
- ③ 68점
- ④ 69점
- ⑤ 71점

2013 5급 (인) 14번

문 14. ‘홀로섬’에 사는 석봉이는 매일 삼치, 꽁치, 고등어 중 한 가지 생선을 먹는다. 다음 1월 달력과 <조건>에 근거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조 건>
- 같은 생선을 연속해서 이틀 이상 먹을 수 없다.
 - 매주 화요일은 삼치를 먹을 수 없다.
 - 1월 17일은 꽁치를 먹어야 한다.
 - 석봉이는 하루에 1마리의 생선만 먹는다.

- <보 기>
- ㄱ. 석봉이가 1월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꽁치는 최대 15마리이다.
 - ㄴ. 석봉이가 1월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삼치는 최대 14마리이다.
 - ㄷ. 석봉이가 1월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고등어는 최대 14마리이다.
 - ㄹ. 석봉이가 1월 6일에 꽁치를 먹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하면, 석봉이는 1월 한 달 동안 삼치, 꽁치, 고등어를 1마리 이상씩 먹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013 5급 (인) 28번

문 28. 다음 <상황>에 근거하여 <점수표>의 빈칸을 채울 때, 민경과 혜명의 최종점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상 황>—————

민경과 혜명은 0점, 3점, 5점이 그려진 과녁에 화살을 쏘아 과녁 맞히기를 하고 있다. 둘은 각각 10개의 화살을 쏘았는데, 0점을 맞힌 화살의 개수만 <점수표>에 기록을 했다. 최종 점수는 각 화살이 맞힌 점수의 합으로 한다. 둘이 쏜 화살 중 과녁 밖으로 날아간 화살은 하나도 없다. 이 때 민경과 혜명이 5점을 맞힌 화살의 개수는 동일하다.

<점수표>

점수	민경의 화살 수	혜명의 화살 수
0점	3	2
3점		
5점		

	<u>민경의 최종점수</u>	<u>혜명의 최종점수</u>
①	25	29
②	26	29
③	27	30
④	28	31
⑤	29	31

2021 5급 (가) 33번

문 3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잃어버린 인물카드의 수는?

甲은 이름, 성별, 직업이 기재된 인물카드를 모으고 있다.
며칠 전 그 중 몇 장을 잃어버렸다. 다음은 카드를 잃어버리기
전과 후의 상황이다.

<잃어버리기 전>

☐ 남성 인물카드를 여성 인물카드보다 2장 더 많이 가지고 있다.

☐ 가지고 있는 인물카드의 직업은 총 5종류이며, 인물카드는 직업별로 최대 2장이다.

☐ 가수 직업의 인물카드는 1장만 가지고 있다.

<잃어버린 후>

☐ 잃어버린 인물카드 중 2장은 직업이 소방관이다.

☐ 가수 직업의 인물카드는 잃어버리지 않았다.

☐ 인물카드는 총 5장 가지고 있으며, 직업은 4종류이다.

- ① 2장
- ② 3장
- ③ 4장
- ④ 5장
- ⑤ 6장

2025 5급 (가) 31번

3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은 병원에서 A와 B 두 종류의 알약을 10정씩 처방받았다.
甲은 A와 B를 매일 1정씩 복용해야 한다. 두 약은 모양과 색깔이 비슷하여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혼동하기 쉽다. 甲은 휴대하기 편하게 20정을 한 병에 넣고 매일 2정을 복용하였다. 甲은 8일 동안 약을 복용한 후, A와 B를 매일 1정씩 제대로 먹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남은 약을 확인하였다.

- <보 기> ———
- ㄱ. A와 B가 각각 2정씩 남아 있었다면, 甲은 8일 내내 약을 제대로 복용하였다.
 - ㄴ. A가 1정, B가 3정 남아 있었다면, 甲은 8일 중 적어도 하루는 약을 제대로 복용하였다.
 - ㄷ. A만 4정 남아 있었다면, 甲이 8일 중 약을 제대로 복용한 날은 5일이 될 수 없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025 5급 (가) 10번

1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戊가 하루에 가져오는 셔틀콕 개수의 차는?

甲 ~ 戊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한다. 이들은 각자에게 지정된 개수의 셔틀콕을 매일 가지고 오기로 했다. 지정된 셔틀콕의 개수는 5명이 서로 다르며 요일에 따른 변동은 없다. 이들이 하루에 가져오는 셔틀콕 개수의 총합은 24개이다.

甲이 5일 동안 가져오는 셔틀콕의 총 개수는 丙이 하루에 가져오는 셔틀콕 개수와 같다. 또 丙이 3일 동안 가져오는 셔틀콕 개수와 丁이 2일 동안 가져오는 셔틀콕 개수의 차는 3이다. 乙이 하루에 가져오는 셔틀콕의 개수는 戊가 하루에 가져오는 셔틀콕의 개수보다 적고, 그 두 수를 곱하면 홀수이다.

- ① 5
- ② 6
- ③ 7
- ④ 8
- ⑤ 9

2013 민경채 (인) 9번

문 9. 다음 <규칙>과 <결과>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甲과 乙 중 승리한 사람과 甲이 사냥한 동물의 종류 및 수량으로 가능한 조합은?

- <규 칙>————

 - 이동한 거리, 채집한 과일, 사냥한 동물 각각에 점수를 부여하여 합계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 게임시간은 1시간이며, 주어진 시간 동안 이동을 하면서 과일을 채집하거나 사냥을 한다.
 - 이동거리 1미터 당 1점을 부여한다.
 - 사과는 1개 당 5점, 복숭아는 1개 당 10점을 부여한다.
 - 토끼는 1마리 당 30점, 여우는 1마리 당 50점, 사슴은 1마리 당 100점을 부여한다.

- <결 과>————

 - 甲의 합계점수는 1,590점이다. 甲은 과일을 채집하지 않고 사냥에만 집중하였으며, 총 1,400미터를 이동하는 동안 모두 4마리의 동물을 잡았다.
 - 乙은 총 1,250미터를 이동했으며, 사과 2개와 복숭아 5개를 채집하였다. 또한 여우를 1마리 잡고 사슴을 2마리 잡았다.

	승리한 사람	甲이 사냥한 동물의 종류 및 수량
①	甲	토끼 3마리와 사슴 1마리
②	甲	토끼 2마리와 여우 2마리
③	乙	토끼 3마리와 여우 1마리
④	乙	토끼 2마리와 여우 2마리
⑤	乙	토끼 1마리와 사슴 3마리

2018 민경채 (가) 21번

문 21. 다음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상 황>

○ A 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 12명의 위원은 자신을 제외한 11명 중 서로 다른 2명에게 1표씩 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결정한다.

○ 최다 득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추첨을 통해 이들 중 1명을 위원장으로 결정한다.

※ 기권 및 무효표는 없다.

<보 기>

ㄱ. 득표자 중 5표를 얻은 위원이 존재하고 추첨을 통해 위원장이 결정되었다면, 득표자는 3명 이하이다.

ㄴ. 득표자가 총 3명이고 그 중 1명이 7표를 얻었다면, 위원장을 추첨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ㄷ. 득표자 중 최다 득표자가 8표를 얻었고 추첨 없이 위원장이 결정되었다면, 득표자는 4명 이상이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2021 7급 (나) 6번

문 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통합력에 투입해야 하는 노력의 최솟값은?

○ 업무역량은 기획력, 창의력, 추진력, 통합력의 4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 부문별 업무역량 값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부문별 업무역량 값

= (해당 업무역량 재능 × 4) + (해당 업무역량 노력 × 3)

※ 재능과 노력의 값은 음이 아닌 정수이다.

○ 甲의 부문별 업무역량의 재능은 다음과 같다.

기획력	창의력	추진력	통합력
90	100	110	60

○ 甲은 통합력의 업무역량 값을 다른 어떤 부문의 값보다 크게 만들고자 한다. 단, 甲이 투입 가능한 노력은 총 100이며 甲은 가능한 노력을 남김없이 투입한다.

- ① 67
- ② 68
- ③ 69
- ④ 70
- ⑤ 71

2021 7급 (나) 8번

문 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구매하려는 두 상품의 무게로 옳은 것은?

○○마트에서는 쌀 상품 A~D를 판매하고 있다. 상품 무게는 A가 가장 무겁고, B, C, D 순서대로 무게가 가볍다. 무게 측정을 위해 서로 다른 두 상품을 저울에 올린 결과, 각각 35 kg, 39 kg, 44 kg, 45 kg, 50 kg, 54 kg으로 측정되었다. 甲은 가장 무거운 상품과 가장 가벼운 상품을 제외하고 두 상품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 상품 무게(kg)의 값은 정수이다.

- ① 19 kg, 25 kg
- ② 19 kg, 26 kg
- ③ 20 kg, 24 kg
- ④ 21 kg, 25 kg
- ⑤ 22 kg, 26 kg

2021 7급 (나) 11번

문 11. 다음 글과 <대화>를 근거로 판단할 때, 丙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성과점수는?

- A과는 과장 1명과 주무관 4명(甲 ~ 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무관의 직급은 甲이 가장 높고, 乙, 丙, 丁 순으로 낮아진다.

○ A과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보상으로 성과점수 30점을 부여받았다. 과장은 A과에 부여된 30점을 자신을 제외한 주무관들에게 분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과장은 주무관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여 성과점수를 분배하려 한다.

○ 주무관들이 받는 성과점수는 모두 다른 자연수이다.

————— <대 화> —————

甲: 과장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야죠. 아! 그렇지만 丁보다는 제가 높아야 합니다.

乙: 이번 프로젝트 성공에는 제가 가장 큰 기여를 했으니, 제가 가장 높은 성과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丙: 기여도를 고려했을 때, 제 경우에는 상급자보다는 낮게 받고 하급자보다는 높게 받아야 합니다.

丁: 저는 내년 승진에 필요한 최소 성과점수인 4점만 받겠습니다.

- ① 6

② 7

③ 8

④ 9

⑤ 10

2024 7급 (사) 7번

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은 아래 3가지 색의 공을 <조건>에 따라 3개의 상자에 나누어 모두 담으려고 한다.

색	무게(g)	개수
빨강	30	3
노랑	40	2
파랑	50	2

<조 건>

○ 각 상자에는 100 g을 초과해 담을 수 없다.

○ 각 상자에는 적어도 2가지 색의 공을 담아야 한다.

<보 기>

ㄱ. 빨간색 공은 모두 서로 다른 상자에 담기게 된다.

ㄴ. 각 상자에 담긴 공 무게의 합은 서로 다르다.

ㄷ. 빨간색 공이 담긴 상자에는 파란색 공이 담기지 않는다.

ㄹ. 3개의 상자 중에서 공 무게의 합이 가장 작은 상자에는 파란색 공이 담기게 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024 7급 (사) 17번

17.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치른 3경기의 순위를 모두 합한 수는?

10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경기가 있다. 현재까지 3경기가 치러졌다. 참여한 선수에게는 매 경기의 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부여한다.

순위	점수	순위	점수
1	100	6	8
2	50	7	6
3	30	8	4
4	20	9	2
5	10	10	1

만약 어떤 순위에 공동 순위가 나온다면, 그 순위를 포함하여 공동 순위자의 수만큼 이어진 순위 각각에 따른 점수의 합을 공동 순위자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부여한다. 예를 들어 공동 3위가 3명이면, 공동 3위 각각에게 부여되는 점수는 $(30 + 20 + 10) \div 3$ 으로 20이다. 이 경우 그다음 순위는 6위가 된다.

<상 황>

○ 甲은 3경기에서 총 157점을 획득하였으며, 공동 순위는 한 번 기록하였다.

○ 치러진 3경기에서 공동 순위가 4명 이상인 경우는 없었다.

- ① 8
- ② 9
- ③ 10
- ④ 11
- ⑤ 12

2025 7급 (인) 6번

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乙이 먹은 어묵의 개수는?

甲: 분식집에서 얼마 냈어?
乙: 15,000원.
甲: 어묵 한 개 1,000원, 떡볶이 한 접시 3,000원, 만두 한 접시 2,000원이었잖아. 둘이 먹었는데 그렇게 많이 나왔어?
乙: 떡볶이 한 접시와 만두 한 접시를 먹었지. 그리고 어묵은 여러 개 먹었어. 그런데 사장님이 만듯값은 안 받으셨어.
甲: 어묵을 많이 먹긴 했나 보다.
乙: 네가 나보다 어묵을 두 개나 더 먹었잖아.

- ① 5
- ② 6
- ③ 7
- ④ 8
- ⑤ 9

2025 7급 추가 (핵) 17번

1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의 첫째 아들 나이의 최댓값은?

甲은 딸 2명을 낳은 후 아들 2명을 낳아서 모두 4명의 자녀가 있다. 자녀들의 나이는 서로 다르며, 자녀들 나이의 합은 22세이다.

- ① 5세
- ② 6세
- ③ 7세
- ④ 8세
- ⑤ 9세

2013 외교 (인) 29번

문 2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보존’과 ‘페르미온’이라는 2개의 방이 있다.

○ 각 방에는 1부터 20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공 2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 ‘페르미온’이라는 방에 들어가면 주머니에서 한번에 3개의 공을 뽑고, 이 3개의 공에 적혀 있는 숫자 각각의 제곱의 합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 ‘보존’이라는 방에 들어가면 주머니에서 공을 1개 뽑고, 다시 그 공을 넣어서 흔든 후 두 번째 공을 1개 뽑고, 다시 그 공을 넣어서 흔든 후 마지막 공을 1개 뽑은 다음 세 숫자의 각각의 제곱의 합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 A군은 둘 중 하나의 방에만 들어간다.

<보 기>

- ㄱ. 만약 A군이 어느 방에 들어갔다 나와서 알려준 숫자가 14보다 작은 수라면, A군은 틀림없이 ‘보존’방에 들어갔었다.

ㄴ. A군이 ‘보존’이라는 방에 들어갔다 나와서 우리에게 108이라는 숫자를 알려주었다. 이 경우 A군이 뽑은 숫자들은 2, 2, 10 또는 6, 6, 6의 조합이다.

ㄷ. 만약 우리에게 알려준 숫자가 108이면, A군이 ‘페르미온’이라는 방에 들어갔다 나왔을 확률은 50 %이다.

ㄹ. A군이 ‘보존’이라는 방에 들어갔다 나와서 우리에게 108이라는 숫자를 알려주었다. 108이 나온 경우 중, A군이 첫 번째에 2를 뽑고 두 번째에 2를 뽑고 세 번째에 10을 뽑았을 확률은 25 %이다.

-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15 5급 (인) 35번

문 3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은 정육면체의 각 면에 점을 새겨 게임 도구를 만들려고 한다. 게임 도구는 다음의 규칙에 따라 만든다.

☐ 정육면체의 모든 면에는 반드시 점을 1개 이상 새겨야 한다.

☐ 한 면에 새기는 점의 수가 6개를 넘어서는 안 된다.

☐ 각 면에 새기는 점의 수가 반드시 달라야 할 필요는 없다.

<보 기>

ㄱ. 정육면체에 새긴 점의 총 수가 10개라면 점 6개를 새긴 면은 없다.

ㄴ. 정육면체에 새긴 점의 총 수가 21개인 방법은 1가지밖에 없다.

ㄷ. 정육면체에 새긴 점의 총 수가 24개라면 각 면에 새긴 점의 수는 모두 다르다.

ㄹ. 정육면체에 새긴 점의 총 수가 20개라면 3개 이하의 점을 새긴 면이 4개 이상이어야 한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ㄷ, ㄹ

2019 5급 (가) 30번

문 3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길동이가 오늘 아침에 수행한 아침 일과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길동이는 오늘 아침 7시 20분에 기상하여, 25분 후인 7시 45분에 집을 나섰다. 길동이는 주어진 25분을 모두 아침 일과를 씬없이 수행하는 데 사용했다.

아침 일과를 수행하는 데 정해진 순서는 없으며, 같은 아침 일과를 두 번 이상 수행하지 않는다.

단, 머리를 감았다면 반드시 말리며, 각 아침 일과 수행 중에 다른 아침 일과를 동시에 수행할 수는 없다. 각 아침 일과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아래와 같다.

아침 일과	소요 시간
샤워	10분
세수	4분
머리 감기	3분
머리 말리기	5분
몸치장 하기	7분
구두 닦기	5분
주스 만들기	15분
양말 신기	2분

- ① 세수
- ② 머리 감기
- ③ 구두 닦기
- ④ 몸치장 하기
- ⑤ 주스 만들기

2023 5급 (가) 16번

1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가 방문할 매장을 모두 고르면?

A는 친구 5명(甲~戊)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려고 한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고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예산은 20만 원이며, 모두 사용한다.
- 매장은 2곳만 방문한다.
- 모두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사준다. 단, 甲과 乙에게는 똑같은 선물을 사준다.
- 丙에게는 건강식품을 선물한다.

<상 황>

다음은 A가 방문할 수 있는 매장과 선물 품목 등에 관한 정보이다.

매장	판매품 종류	선물 품목	가격
홍삼전문점	건강식품	홍삼 절편	4만 원
		홍삼액	5만 원
녹차전문점	음료 용품	녹차 티백	3만 원
		다도 세트	4만 원
인테리어 가게	인테리어 소품	램프	5만 원
		액자 세트	6만 원
문구점	필기구	만년필	4만 원

- ① 홍삼전문점, 녹차전문점
- ② 홍삼전문점, 인테리어 가게
- ③ 홍삼전문점, 문구점
- ④ 녹차전문점, 인테리어 가게
- ⑤ 녹차전문점, 문구점

2025 5급 (가) 11번

11.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낚시대회에서는 잡은 물고기마다 아래의 <표>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긴다.

<표>	
물고기 종류	점수(마리당)
A	30
B	20
C	10

<상 황>

○○낚시대회에서 甲, 乙, 丙은 <표>의 물고기만 잡았다. 甲, 乙, 丙은 각각 3, 4, 5마리를 잡았고 점수의 합이 서로 달랐다. 그리고 甲, 乙, 丙은 각각 1, 2, 3위를 차지하였다.

<보 기>

ㄱ. 甲은 A를 잡았다.
ㄴ. 乙이 80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면, 乙은 B를 잡았다.
ㄷ. 丙은 C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018 민경채 (가) 20번

문 20. 다음 글과 <대화>를 근거로 판단할 때 대장 두더지는?

- 甲은 튀어나온 두더지를 뿔망치로 때리는 ‘두더지 게임’을 했다.

○ 두더지는 총 5마리(A ~ E)이며, 이 중 1마리는 대장 두더지이고 나머지 4마리는 부하 두더지이다.

○ 대장 두더지를 맞혔을 때는 2점, 부하 두더지를 맞혔을 때는 1점을 획득한다.

○ 두더지 게임 결과, 甲은 총 14점을 획득하였다.

○ 두더지 게임이 끝난 후 두더지들은 아래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

————— <대 화> —————

두더지 A: 나는 맞은 두더지 중에 가장 적게 맞았고, 맞은 횟수는 짝수야.

두더지 B: 나는 두더지 C와 똑같은 횟수로 맞았어.

두더지 C: 나와 두더지 A, 두더지 D가 맞은 횟수를 모두 더하면 모든 두더지가 맞은 횟수의 3/4이야.

두더지 D: 우리 중에 한 번도 맞지 않은 두더지가 1마리 있지만 나는 아니야.

두더지 E: 우리가 맞은 횟수를 모두 더하면 12번이야.

- ① 두더지 A

② 두더지 B

③ 두더지 C

④ 두더지 D

⑤ 두더지 E

2021 7급 (나) 5번

문 5. 다음 글의 ㉠과 ㉡에 해당하는 수를 옳게 짝지은 것은?

甲담당관: 우리 부서 전 직원 57명으로 구성되는 혁신조직을 출범시켰으면 합니다.
乙주무관: 조직은 어떻게 구성할까요?
甲담당관: 5 ~ 7명으로 구성된 10개의 소조직을 만들되, 5명, 6명, 7명 소조직이 각각 하나 이상 있었으면 합니다. 단, 각 직원은 하나의 소조직에만 소속되어야 합니다.
乙주무관: 그렇게 할 경우 5명으로 구성되는 소조직은 최소 (㉠)개, 최대 (㉡)개가 가능합니다.

	㉠	㉡
①	1	5
②	3	5
③	3	6
④	4	6
⑤	4	7

2023 7급 (인) 20번

2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甲의 시험과목별 점수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제교육과정 중에 있는 사람은 수료시험에서 5개 과목(A~E) 평균 60점 이상을 받고 한 과목도 과락(50점 미만)이 아니어야 수료할 수 있다.

甲은 수료시험에서 5개 과목 평균 60점을 받았으나 2개 과목이 과락이어서 ○○국제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했다. 甲이 돌려받은 답안지에 점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각 문항에 아래와 같은 표시만 되어 있었다. 이는 국적이 서로 다른 각 과목 강사가 자신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정답·오답 표시만 해놓은 결과였다.

과목	문항									
	1	2	3	4	5	6	7	8	9	10
A	○	○	×	○	×	○	×	○	○	○
B	V	×	V	V	V	×	V	×	V	V
C	/	○	○	○	○	/	/	○	/	○
D	○	○	V	V	V	○	○	V	V	V
E	/	/	/	/	×	×	/	/	/	/

※ 모든 과목은 각 10문항이며, 각 문항별 배점은 10점이다.

<보 기>

	시험과목	점수
ㄱ.	A	70
ㄴ.	B	30
ㄷ.	C	60
ㄹ.	D	40
ㅁ.	E	80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ㄷ, ㅁ

2025 7급 (인) 23번

23.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받을 새로운 식권의 개수는?

A부처의 구내식당에서는 점심 가격이 상승하여 기존 식권을 4,500원과 5,500원 두 종류의 새로운 식권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교환할 때에는 식권의 종류에 상관없이 기존 식권의 총액과 새로운 식권의 총액이 동일하도록 교환한다. 그럴 수 없는 경우, 최소의 추가 금액을 결제하여 교환한다.

————— <상 황> —————
甲은 기존 4,000원 식권 6장과 5,000원 식권 7장을 가지고 있다. 甲은 자신이 가진 모든 식권을 한 번에 교환하려고 한다.

- ① 10
- ② 11
- ③ 12
- ④ 13
- ⑤ 14

2016 5급 (4) 32번

문 3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참말을 한 사람은?

A동아리 5명의 학생 각각은 B동아리 학생들과 30회씩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다. 각 게임에서 이길 경우 5점, 비길 경우 1점, 질 경우 -1점을 받는다. 게임이 모두 끝나자 A 동아리 5명의 학생들은 자신이 얻은 합산 점수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태우: 내 점수는 148점이야
시윤: 내 점수는 145점이야
성현: 내 점수는 143점이야
빛나: 내 점수는 140점이야
은지: 내 점수는 139점이야

이들 중 한 명만이 참말을 하고 있다.

- ① 태우
- ② 시윤
- ③ 성현
- ④ 빛나
- ⑤ 은지

2021 5급 (가) 26번

문 2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친구 단위’로 입장한 사람의 수와 ‘가족 단위’로 입장한 사람의 수를 옳게 짝지은 것은?

A놀이공원은 2명의 친구 단위 또는 4명의 가족 단위로만 입장이 가능하다. 발권기계는 2명의 친구 단위 또는 4명의 가족 단위당 1장의 표를 발권한다. 놀이공원의 입장객은 총 158명이며, 모두 50장의 표가 발권되었다.

	<u>‘친구 단위’로 입장한 사람의 수</u>	<u>‘가족 단위’로 입장한 사람의 수</u>
①	30	128
②	34	124
③	38	120
④	42	116
⑤	46	112

2016 민경채 (5) 10번

문 1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자바둑기사단이 선발할 수 있는 출전선수 조합의 총 가짓수는?

- 사자바둑기사단과 호랑이바둑기사단이 바둑시합을 한다.

○ 시합은 일대일 대결로 총 3라운드로 진행되며, 한 명의 선수는 하나의 라운드에만 출전할 수 있다.

○ 호랑이바둑기사단은 1라운드에는 甲을, 2라운드에는 乙을, 3라운드에는 丙을 출전시킨다.

○ 사자바둑기사단은 각 라운드별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0.6 이상이 되도록 7명의 선수(A ~ G) 중 3명을 선발한다.

○ A ~ G가 甲, 乙, 丙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선수	甲	乙	丙
A	0.42	0.67	0.31
B	0.35	0.82	0.49
C	0.81	0.72	0.15
D	0.13	0.19	0.76
E	0.66	0.51	0.59
F	0.54	0.28	0.99
G	0.59	0.11	0.64

- ① 18가지

② 17가지

③ 16가지

④ 15가지

⑤ 14가지

2016 민경채 (5) 20번

문 2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과 乙이 ‘사냥게임’을 한다. 1, 2, 3, 4의 번호가 매겨진 4개의 칸이 아래와 같이 있다.

1	2	3	4

여기에 甲은 네 칸 중 괴물이 위치할 연속된 두 칸을 정하고, 乙은 네 칸 중 화살이 명중할 하나의 칸을 정한다. 甲과 乙은 동시에 자신들이 정한 칸을 말한다. 그 결과 화살이 괴물이 위치하는 칸에 명중하면 乙이 승리하고, 명중하지 않으면 甲이 승리한다.

예를 들면 甲이 [1][2], 乙이 [1] 또는 [2]를 선택한 경우 괴물이 화살에 맞은 것으로 간주하여 乙이 승리한다. 만약 甲이 [1][2], 乙이 [3] 또는 [4]를 선택했다면 괴물이 화살을 피한 것으로 간주하여 甲이 승리한다.

——— <보 기> ———

ㄱ. 괴물이 위치할 칸을 甲이 무작위로 정할 경우 乙은 [1]보다는 [2]를 선택하는 것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

ㄴ. 화살이 명중할 칸을 乙이 무작위로 정할 경우 甲은 [2][3]보다는 [3][4]를 선택하는 것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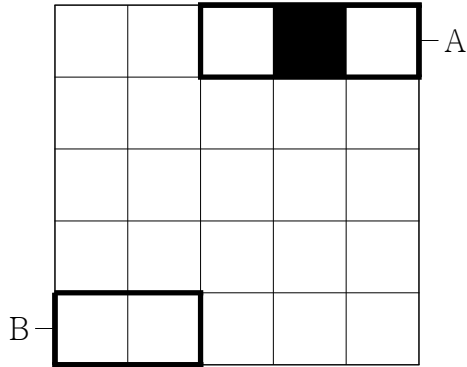
ㄷ. 이 게임에서 甲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3개이고 乙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4개이므로 乙이 이기는 경우의 수가 더 많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ㄷ

2016 민경채 (5) 23번

문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코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총 25칸(5×5)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칸을 흰색으로 채우거나 검정색으로 채우는 조합에 따라 다른 코드가 만들어진다.



- 상단 오른쪽의 3칸(A)은 항상 ‘흰색-검정색-흰색’으로 ○○코드의 고유표시를 나타낸다.
○ 하단 왼쪽의 2칸(B)은 코드를 제작한 지역을 표시하는 것으로 전 세계를 총 4개의 지역으로 분류하고, 甲지역은 ‘흰색-흰색’으로 표시한다.

※ 코드를 회전시키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 <보 기> —

- ㄱ. 甲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 코드 개수는 100만 개를 초과한다.
ㄴ. 甲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 코드와 다른 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 코드는 최대 20칸이 동일하다.
ㄷ. 각 칸을 기존의 흰색과 검정색뿐만 아니라 빨간색과 파란색으로도 채울 수 있다면, 만들 수 있는 코드 개수는 기존보다 100만 배 이상 증가한다.
ㄹ. 만약 상단 오른쪽의 3칸(A)도 다른 칸과 마찬가지로 코드 만드는 것에 사용토록 개방한다면, 만들 수 있는 코드 개수는 기존의 6배로 증가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21 7급 (나) 22번

문 22.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날씨 예보 앱을 설치한 잠재 사용자의 총수는?

내일 비가 오는지를 예측하는 날씨 예보시스템을 개발한 A청은 다음과 같은 날씨 예보 앱의 ‘사전테스트전략’을 수립하였다.

- 같은 날씨 변화를 경험하는 잠재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개인의 동의를 얻어 확보한다.
- 첫째 날에는 잠재 사용자를 같은 수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비가 온다”로 다른 한쪽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로 메시지를 보낸다.
- 둘째 날에는 직전일에 보낸 메시지와 날씨가 일치한 그룹을 다시 같은 수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비가 온다”로 다른 한쪽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로 메시지를 보낸다.
- 이후 날에도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한다.
- 보낸 메시지와 날씨가 일치하지 않은 잠재 사용자를 대상으로도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즉, 직전일에 보낸 메시지와 날씨가 일치하지 않은 잠재 사용자를 같은 수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비가 온다”로 다른 한쪽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로 메시지를 보낸다.

————— <상 황> —————

A청은 사전테스트전략대로 200,000명의 잠재 사용자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메시지를 보냈다. 받은 메시지와 날씨가 3일 연속 일치한 경우, 해당 잠재 사용자는 날씨 예보 앱을 그날 설치한 후 제거하지 않았다.

- ① 12,500명
- ② 25,000명
- ③ 37,500명
- ④ 43,750명
- ⑤ 50,000명

2011 5급 (선) 33번

문 33. 다음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A는 한 달 전에 L회사 제품의 마우스와 자판(키보드)을 포함한 컴퓨터 일체를 샀다. L회사의 마우스는 태국의 공장, 중국의 공장 그리고 필리핀의 공장 등 3곳에서 생산된다. 태국공장은 L회사 마우스의 20 %를, 중국공장은 30 %를, 필리핀공장은 50 %를 생산한다. 태국공장에서 생산된 L회사 마우스의 70 %, 중국공장에서 생산된 L회사 마우스의 60 %, 필리핀공장에서 생산된 L회사 마우스의 50 %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자판은 하나의 생산공장에서만 생산 되는데, ‘제품 결함률’은 40 %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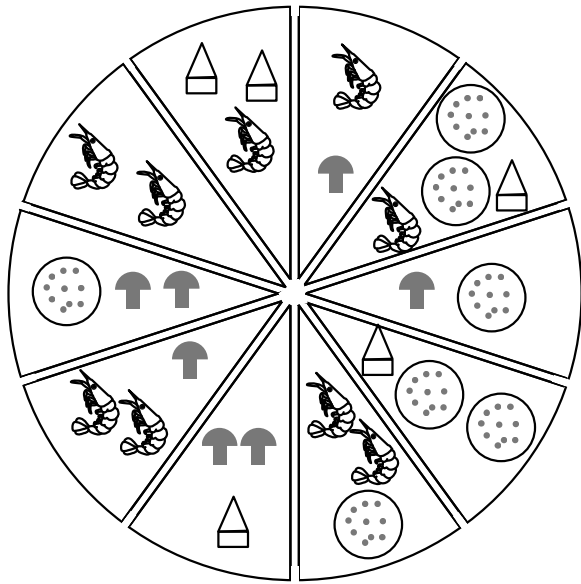
- <보 기> ———
- ㄱ. A가 산 자판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마우스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보다 낮다.
 - ㄴ. A가 산 마우스에 결함이 없을 가능성이 결함이 있을 가능성보다 높다.
 - ㄷ. A가 산 마우스에 결함이 있다면 A의 마우스는 중국 보다는 필리핀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ㄹ. A가 산 마우스에 결함이 없다면 중국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12 5급 (인) 17번

문 17. 다음 <조건>과 같이 토핑(피자 위에 얹는 재료)을 올린 피자 10조각이 있다. 이때 5명(甲 ~ 戊)의 식성에 따라 각각 2조각씩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총 몇 가지인가?

<조 건>



토핑: 새우 버섯 파인애플 소시지

- 甲 : 해산물을 먹지 않는다.
- 乙 : 소시지가 들어간 피자만 먹는다.
- 丙 : 소시지가 들어있는 피자는 먹지 않지만, 소시지가 새우와 함께 들어있으면 먹는다.
- 丁 : 파인애플이 들어간 피자만 먹지만, 버섯이 함께 들어간 피자는 먹지 않는다.
- 戊 : 똑같은 토핑이 2개 들어간 것은 먹지 않는다.

- ① 0가지
- ② 1가지
- ③ 2가지
- ④ 3가지
- ⑤ 4가지

2013 5급 (인) 36번

문 36. 다음 <조건>에 근거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조 건>

○ 영어 알파벳 26자에 한정하여 생각한다.

○ 순서를 반대로 뒤집어도 철자순서가 같은 것을 pop라고 한다. 예를 들어 ‘kk’, ‘bob’, ‘did’, ‘cddc’, ‘abcba’, ‘aaabaaa’ 등은 모두 pop이다.

※ 단어가 가진 원래의 뜻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 기>

ㄱ. 세 글자인 pop는 모두 26×26 개이다.

ㄴ. 네 글자인 pop가 세 글자인 pop보다 많다.

ㄷ. 다섯 글자인 pop 개수는 세 글자인 pop 개수의 25배 이상이다.

ㄹ. 모든 알파벳을 사용할 경우의 세 글자 pop 개수는 알파벳 13자만 사용하여 만든 다섯 글자 pop 개수보다 많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2013 외교 (인) 18번

문 18. 다음 <조건>에 따라 만들 수 있는 꽃다발의 최대 가짓수는?

- <조 건> —————

 - 꽃다발을 만드는 데 5종류의 꽃(장미, 카네이션, 리시안 셔스, 수국, 작약)과 2종류의 잎(유칼립투스, 루스쿠스)을 사용한다.
 - 꽃다발은 꽃과 잎을 5종류 이상 조합하여 만든다. 단, 작약을 넣은 경우에는 작약을 포함하여 꽃과 잎을 4종류만 사용한다.
 - 잎은 반드시 1종류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 수국과 작약은 동시에 포함될 수 없다.

※ 같은 종류의 꽃과 잎이 사용된 꽃다발은 사용된 꽃과 잎의 개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꽃다발로 간주한다. 예를 들면 장미 한 송이로 만들어진 꽃다발과 장미 열 송이로 만들어진 꽃다발은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 ① 15가지
- ② 16가지
- ③ 17가지
- ④ 18가지
- ⑤ 19가지

2018 5급 (나) 10번

문 10. 다음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조 건>

○ 인공지능 컴퓨터와 매번 대결할 때마다, 甲은 A, B, C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인공지능 컴퓨터는 대결을 거듭할수록 학습을 통해 각각의 전략에 대응하므로, 동일한 전략을 사용할수록 甲이 승리할 확률은 하락한다.

○ 각각의 전략을 사용한 횟수에 따라 각 대결에서 甲이 승리할 확률은 아래와 같고, 甲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전략별 사용횟수에 따른 甲의 승률>
(단위 : %)

전략별 사용횟수 전략종류	1회	2회	3회	4회
A전략	60	50	40	0
B전략	70	30	20	0
C전략	90	40	10	0

<보 기>

ㄱ. 甲이 총 3번의 대결을 하면서 각 대결에서 승리할 확률이 가장 높은 전략부터 순서대로 선택한다면, 3가지 전략을 각각 1회씩 사용해야 한다.

ㄴ. 甲이 총 5번의 대결을 하면서 각 대결에서 승리할 확률이 가장 높은 전략부터 순서대로 선택한다면, 5번째 대결에서는 B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ㄷ. 甲이 1개의 전략만을 사용하여 총 3번의 대결을 하면서 3번 모두 승리할 확률을 가장 높이려면, A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ㄹ. 甲이 1개의 전략만을 사용하여 총 2번의 대결을 하면서 2번 모두 패배할 확률을 가장 낮추려면, A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20 5급 (나) 13번

문 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과 乙은 시계와 주사위를 이용한 게임을 하며, 규칙은 다음과 같다.

○ 1~12시까지 적힌 시계 문자판을 말판으로 삼아, 1개의 말을 12시에 놓고 게임을 시작한다.

○ 주사위를 던져 짝수가 나오면 말을 시계 방향으로 1시간 이동시키며, 홀수가 나오면 말을 반시계 방향으로 1시간 이동시킨다.

○ 甲과 乙이 번갈아 주사위를 각 12번씩 총 24번 던져 말의 최종 위치로 게임의 승자를 결정한다.

○ 말의 최종 위치가 1~5시이면 甲이 승리하고, 7~11시이면 乙이 승리한다. 6시 또는 12시이면 무승부가 된다.

<보 기>

ㄱ. 말의 최종 위치가 3시일 확률은 $\frac{1}{12}$ 이다.

ㄴ. 말의 최종 위치가 4시일 확률과 8시일 확률은 같다.

ㄷ. 乙이 마지막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가 나오는 것보다 짝수가 나오는 것이 甲에게 항상 유리하다.

ㄹ. 乙이 22번째 주사위를 던져 말을 이동시킨 결과 말의 위치가 12시라면, 甲이 승리할 확률은 무승부가 될 확률보다 낮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ㄱ, ㄴ, ㄹ

2021 5급 (가) 10번

문 1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하나의 단어를 표현하는 가장 긴 코드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대화에는 약 18,000개의 단어가 사용된다. 항공우주연구소는 화성에 보낸 우주비행사와의 통신을 위해 아래의 <원칙>에 따라 단어를 코드로 바꾸어 교신하기로 하였다.

<원칙>

- 하나의 코드는 하나의 단어만을 나타낸다.
- 26개의 영어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하여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일렬로 나열한 코드를 만든다.
- 코드 중 가장 긴 것의 길이를 최소화한다.
- 18,000개의 단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단어-코드 변환의 예>

코드	단어	코드	단어
a	우주비행사	aa	지구
b	우주정거장	ab	외계인
⋮	⋮	⋮	⋮

※ 코드의 길이는 코드에 표시된 글자의 수를 뜻한다.

- ① 1
- ② 2
- ③ 3
- ④ 4
- ⑤ 5

2023 5급 (가) 10번

1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주사위에서 나오지 않는 수는?

자연수 1~6 중 어느 하나는 전혀 나오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동일한 확률로 나오는 주사위가 있다. 이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3번 모두 같은 홀수가 나올 확률은 1.6 %이다. 또한 이 주사위를 10번 던지면 그중 소수(素數)가 나오는 횟수는 평균적으로 6번이다.

- ① 1
- ② 2
- ③ 3
- ④ 4
- ⑤ 6

2023 5급 (가) 15번

1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는 경우의 수는?

- A부서는 다음 조건에 따라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는 중이다.

– 정책자문단은 8명의 정책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여성이 2명 이상이어야 한다.

– 정책자문위원은 학계, 예술계, 법조계, 언론계 4개 분야의 전문가 중 위촉한다.

– 각 분야의 전문가를 1명 이상 위촉해야 하며, 같은 분야의 전문가를 4명 이상 위촉해서는 안 된다.
- 정책자문위원 위촉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분야				성별	
학계	예술계	법조계	언론계	남성	여성
2	3	0	1	5	1

- 다음 전문가(甲 ~ 戊) 중 정책자문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정책자문단 구성을 완료하려 한다.

전문가	분야	성별
甲	예술계	남성
乙	법조계	남성
丙	법조계	여성
丁	학계	여성
戊	언론계	남성

-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2015 민경채 (인) 24번

문 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년 8월 1일의 요일은?

○○년 7월의 첫날 甲은 자동차 수리를 맡겼다. 甲은 그 달 마지막 월요일인 네 번째 월요일에 자동차를 찾아가려 했으나, 사정이 생겨 그 달 마지막 금요일인 네 번째 금요일에 찾아갔다.

※ 날짜는 양력 기준

- ① 월요일
- ② 화요일
- ③ 수요일
- ④ 목요일
- ⑤ 금요일

2023 7급 (인) 21번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식목일의 요일은?

다음은 가원의 어느 해 일기장에서 서로 다른 요일의 일기를 일부 발췌하여 날짜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1) 4월 5일 ○요일

오늘은 식목일이다. 동생과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었다.

(2) 4월 11일 ○요일

오늘은 아빠와 뒷산에 가서 벚꽃을 봤다.

(3) 4월 □□일 수요일

나는 매주 같은 요일에만 데이트를 한다. 오늘 데이트도 즐거웠다.

(4) 4월 15일 ○요일

오늘은 친구와 미술관에 갔다. 작품들이 멋있었다.

(5) 4월 □□일 ○요일

내일은 대청소를 하는 날이어서 오늘은 휴식을 취했다.

(6) 4월 □□일 ○요일

나는 매달 마지막 일요일에만 대청소를 한다. 그래서 오늘 대청소를 했다.

- ① 월요일
- ② 화요일
- ③ 목요일
- ④ 금요일
- ⑤ 토요일

2013 5급 (인) 2번

문 2.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추론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월
· 일은 양력 기준이다)

절기(節氣)는 태양의 주기에 기초해서 1개월에 2개씩 지정되는 것으로 1년에 총 24개의 절기가 있다. 24절기는 12절기와 12중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달의 첫 번째는 절기, 두 번째는 중기라 한다. 절기를 정하는 방법으로 정기법이 있다. 정기법은 황도상의 해당 지점인 태양황경을 기준으로 태양이 동쪽으로 15도 간격으로 이동할 때마다, 즉 15도씩 증가할 때마다 절기와 중기를 매겨 나가는 방법이다. 황경은 지구에서 태양을 보았을 때, 태양이 1년 동안 하늘을 한 바퀴 도는 길인 황도를 지나가는 각도이다. 춘분은 황경의 기점이 되며, 황경이 0도일 때이다.

양력	절기	중기	양력	절기	중기
1월	소한	대한	7월	소서	대서
2월	입춘	우수	8월	입추	처서
3월	경칩	춘분	9월	백로	추분
4월	청명	곡우	10월	한로	상강
5월	입하	소만	11월	입동	소설
6월	망종	하지	12월	대설	동지

계절은 3개월마다 바뀌고, 각 계절마다 6개의 절기가 있다.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시작되는 첫날이다. 절기 사이에는 15일의 간격이 있다. 그런데 일부 절기 사이의 간격은 하루가 늘거나 줄기도 한다.

<상 황>

○ 올해는 입하, 망종, 하지, 대서, 입추, 백로, 한로가 앞 절기와 16일 간격이고, 대한과 대설은 앞 절기와 14일 간격이다.

○ 올해 춘분은 3월 21일이다.

○ 올해 2월은 28일까지 있다.

- ① 올해 여름의 첫날은 5월 5일이다.

② 절기의 양력 날짜는 매년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③ 올해 태양황경이 60도가 되는 날은 5월 중기인 소만이다.

④ 올해 7월 24일은 태양황경이 120도에서 135도 사이에 있는 날이다.

⑤ 올해 입춘부터 곡우까지의 날짜 간격은 한로부터 동지까지의 날짜 간격보다 길다.

2014 5급 (A) 18번

문 1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9월 17일(토)부터 책을 대여하기 시작한 甲이 마지막 편을 도서관에 반납할 요일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甲은 10편으로 구성된 위인전을 완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다.

책을 빌리는 첫째 날은 한 권만 빌려 다음날 반납하고, 반납한 날 두 권을 빌려 당일 포함 2박 3일이 되는 날 반납한다. 이런 식으로 도서관을 방문할 때마다 대여하는 책의 수는 한 권씩 증가하지만, 대여 일수는 빌리는 책 권수를 n 으로 했을 때 두 권 이상일 경우 $(2n - 1)$ 의 규칙으로 증가한다.

예를 들어 3월 1일(월)에 1편을 빌렸다면 3월 2일(화)에 1편을 반납하고 그날 2, 3편을 빌려 3월 4일(목)에 반납한다. 4일에 4, 5, 6편을 빌려 3월 8일(월)에 반납하고 그날 7, 8, 9, 10편을 대여한다.

도서관은 일요일만 휴관하고, 이날은 반납과 대여가 불가능하므로 다음날인 월요일에 반납과 대여를 한다. 이 경우에 한하여 일요일은 대여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① 월요일
- ② 화요일
- ③ 수요일
- ④ 목요일
- ⑤ 금요일

2016 5급 (4) 34번

문 3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15년 9월 15일이 화요일이라면 2020년 이후 A국 ○○축제가 처음으로 18일 동안 개최되는 해는? (단, 모든 날짜는 양력 기준이다)

1년의 개념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에 걸리는 시간으로, 그 시간은 정확히 365일이 아니다. 실제 그 시간은 365일보다 조금 긴 약 365.2422일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규칙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1년이 366일인 윤년을 정한다.

규칙 1: 연도가 4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는 윤년으로 한다.
(2004년, 2008년, ...)

규칙 2: ‘규칙 1’의 연도 중에서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는 평년으로 한다. (2100년, 2200년, 2300년, ...)

규칙 3: ‘규칙 2’의 연도 중에서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는 윤년으로 한다. (1600년, 2000년, 2400년, ...)

※ 평년 : 윤년이 아닌, 1년이 365일인 해

A국 ○○축제는 매년 9월 15일이 지나고 돌아오는 첫 번째 토요일에 시작하여 10월 첫 번째 일요일에 끝나는 일정으로 개최한다. 다만 10월 1일 또는 2일이 일요일인 경우, 축제를 A국 국경일인 10월 3일까지 연장한다. 따라서 축제는 최단 16일에서 최장 18일 동안 열린다.

- ① 2021년
- ② 2022년
- ③ 2023년
- ④ 2025년
- ⑤ 2026년

2019 5급 (가) 17번

문 1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백화점이 한 해 캐롤 음원이용료로 지불해야 하는 최대 금액은?

○○백화점에서는 매년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11월 네 번째 목요일) 이후 돌아오는 첫 월요일부터 크리스마스(12월 25일)까지 백화점 내에서 캐롤을 틀어 놓는다(단, 휴점일 제외). 이 기간 동안 캐롤을 틀기 위해서는 하루에 2만 원의 음원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백화점 휴점일은 매월 네 번째 수요일이지만, 크리스마스와 겹칠 경우에는 정상영업을 한다.

- ① 48만 원
- ② 52만 원
- ③ 58만 원
- ④ 60만 원
- ⑤ 66만 원

- ① 화요일
- ② 수요일
- ③ 목요일
- ④ 금요일
- ⑤ 토요일

2013 외교 (인) 30번

문 3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의 ㉠, ㉡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신라는 일반적 시간 계산 체계로 백각법(百刻法)과 12시신(時辰) 제도를 배합하여 사용했다. 백각법은 하루의 길이를 100각으로 나누는 시간 계산법이었다. 구체적으로, 매일 낮·밤의 길이와 일출·일몰의 시각을 계산하기 위해, 밤의 길이인 야각(夜刻)을 구하고 100각에서 이를 감해 낮의 길이인 주각(晝刻)을 구하였다. 또한 12시신 제도는 하루를 12시신으로 균등하게 나누는 제도였다. 그런데 100각은 12시신의 정수배가 되지 않으므로 1각을 60분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그러나 역법(曆法) 계산 시에는 각 역에서 사용되는 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분법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선명력(宣明曆)에서는 1일을 100각, 1각을 84분으로 정했다.

한편 신라에서는 야각의 계산에 있어서 밤 시간을 5경으로 나누고, 1경을 다시 5점으로 나누는 경점(更點) 제도도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신라에서는 백각법과 12시신 제도를 배합하여 일반적 시간 계산 체계와 역법의 계산 체계, 그리고 야각의 시간 계산 체계가 병행되어 사용되었다.

- <보 기> —
- 신라의 일반적 시간 계산에 따르면, 1시신은 (㉠)이다.
 - 하루 중 4시신이 밤 시간이었다면, 선명력에 따르면 1경은 (㉡)에 해당한다.

㉠	㉡
① 8각 20분	6각 56분
② 8각 20분	6각 40분
③ 7각 28분	6각 56분
④ 7각 28분	9각 20분
⑤ 6각 30분	9각 20분

2015 5급 (인) 11번

문 11.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가 지급하여야 하는 총 액은?

중세 초기 아일랜드 법체계에는 자유의 몸인 사람을 모욕할 경우 모욕한 사람이 모욕당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인 ‘명예가격’이 존재했고, 액수도 천차만별이었다. 예를 들어 영주의 명예가격은 5쿠말이었다. 이는 주교의 명예가격과 동일했다. 주교를 모욕했을 경우 젖소 10마리나 은 20온스를 지급해야 했다. 부유한 농민의 명예가격은 젖소 2.5마리에 그 사람에게 딸린 하인 한 사람 당 젖소 0.5마리를 더한 것이었다.

명예가격은 사람 목숨에 대한 배상금과 별도로 지급했다. 만일 누군가 사람을 죽였다면, 그 범죄자는 살해에 대한 배상인 10쿠말 외에 명예가격을 따로 얹어 지급해야 했다. 그를 죽임으로써 그의 존엄을 짓밟았기 때문이다. 부상에 대한 배상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종류이든 상처나 부상을 입히면 그 상해에 대한 가격에 명예가격까지 지급해야 했다. 왕이나 영주 또는 주교에게 상해를 가했을 경우 2쿠말, 부유한 농민의 경우는 젖소 2마리, 소작농이나 다른 남자의 경우는 젖소 1마리, 그리고 여성이나 아이의 경우는 은 1온스를 상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해야 했다. 이와 비슷하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 훔치거나 손해를 끼친 재산가치의 세 배의 배상액에 소유자의 명예가격을 더하여 지급해야 했다.

영주의 보호를 받는 소작농이나 영주의 아내 또는 딸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살해, 부상 또는 손해 등에 대한 영주의 명예가격도 해당 사안 각각에 따로 청구되었다.

————— <상 황> —————

A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교를 죽이고, 영주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고, 영주의 아내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각각 하인을 10명씩 거느리고 있는 부유한 농민 2명을 죽이는 큰 사고를 냈다.

- ① 은 209온스
- ② 은 219온스
- ③ 은 229온스
- ④ 은 239온스
- ⑤ 은 249온스

2016 5급 (4) 24번

문 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특정 물질의 치사량은 주로 동물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결정한다. 치사량의 단위는 주로 LD50을 사용하는데, ‘LD’는 Lethal Dose의 약어로 치사량을 의미하고, ‘50’은 물질 투여시 실험 대상 동물의 50 %가 죽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LD50을 반수(半數) 치사량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치사량이란 ‘즉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양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급성’ 반수 치사량이 사실 정확한 표현이다. LD 50 값을 표기할 때는 보통 실험 대상 동물의 몸무게 1 kg을 기준으로 하는 mg/kg 단위를 사용한다.

독성이 강하다는 보톡스의 LD50 값은 1 ng/kg으로 복어 독보다 1만 배 이상 강하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카페인의 LD50 값은 200 mg/kg이며 니코틴의 LD50 값은 1 mg/kg이다. 커피 1잔에는 평균적으로 150 mg의 카페인이 들어 있으며 담배 한 개비에는 평균적으로 0.1 mg의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다.

※ 1 ng(나노그램) = 10⁻⁶ mg = 10⁻⁹ g

- <보 기> —————

ㄱ. 복어 독의 LD50 값은 0.01 mg/kg 이상이다.

ㄴ. 일반적으로 독성이 더 강한 물질일수록 LD50 값이 더 작다.

ㄷ. 몸무게가 7 kg인 실험 대상 동물의 50 %가 즉시 치사하는 카페인 투여량은 1.4 g이다.

ㄹ. 몸무게가 60 kg인 실험 대상 동물의 50 %가 즉시 치사하는 니코틴 투여량은 1개비당 니코틴 함량이 0.1 mg인 담배 60개비에 들어 있는 니코틴의 양에 상응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20 5급 (나) 9번

문 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오늘날을 기준으로 1석(石)은 몇 승(升)인가?

옛날 도량에는 두(斗), 구(區), 부(釜), 종(鍾) 등이 있었다. 1두(斗)는 4승(升)인데, 4두(斗)가 1구(區)이고, 4구(區)가 1부(釜)이며, 10부(釜)가 1종(鍾)이었다.

오늘날 도량은 옛날과 다소 달라졌다. 지금의 1승(升)이 옛날 1승(升)에 비해 네 배가 되어 옛날의 1두(斗)와 같아졌다. 오늘날 4구(區)는 1부(釜)로 옛날과 같지만, 4승(升)이 1구(區)가 되며, 1부(釜)는 1두(豆) 6승(升), 1종(鍾)은 16두(豆)가 된다. 오늘날 1석(石)은 1종(鍾)에 비해 1두(豆)가 적다.

- ① 110승
- ② 120승
- ③ 130승
- ④ 140승
- ⑤ 150승

2021 5급 (가) 8번

문 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과 ㉡을 옳게 짝지은 것은?

동물로봇공학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동물 로봇을 개발한다. 로봇 연구자들이 가장 본뜨고 싶어 하는 곤충은 미국바퀴벌레이다. 이 바퀴벌레는 초당 150 cm의 속력으로 달린다. 이는 1초에 몸길이의 50배가 되는 거리를 간다는 뜻이다. 신장이 180 cm인 육상선수가 1초에 신장의 50배가 되는 거리를 가려면 시속 (㉠) km로 달려야 한다. 이 바퀴벌레의 걸음걸이를 관찰한 결과, 모양이 서로 다른 세 쌍의 다리를 달아주면 로봇의 보행 속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동물로봇공학에서는 수중 로봇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바닷가재나 칠성장어의 운동 능력을 본뜬 수중 로봇도 연구되고 있다. 미국에서 개발된 바닷가재 로봇은 높이 20 cm, 길이 61 cm, 무게 2.9 kg으로, 물속의 기뢰제거에 사용될 계획이다. 2005년 10월에는 세계 최초의 물고기 로봇이 영국 런던의 수족관에 출현했다. 길이 (㉡) cm, 두께 12 cm인 이 물고기 로봇은 미국바퀴벌레의 1/3 속력으로 헤엄칠 수 있다. 수중에서의 속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준이다. 이는 1분에 몸길이의 200배가 되는 거리를 간다는 뜻이다. 이 물고기 로봇은 해저탐사나 기름 유출의 탐지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
①	81	5
②	162	10
③	162	15
④	324	10
⑤	324	15

2022 5급 (나) 28번

문 2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의 ㉠과 ㉡을 옳게 짝지은 것은?

수액을 주입할 때 사용하는 단위 gtt는 방울이라는 뜻의 라틴어 gutta에서 유래한 것으로, 수액 용기에서 떨어지는 수액의 방울 수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20 gtt/ml가 ‘기준 규격’이며, 이는 용기에서 20방울이 떨어졌을 때 수액 1ml가 주입되는 것을 말한다.

- <상 황> —————
- 기준규격에 따라 수액 360 ml를 2시간 동안 모두 주입하려면, 1초당 (㉠) gtt씩 주입하여야 한다.
 - 기준규격에 따라 3초당 1 gtt로 수액을 주입하면, 24시간 동안 최대 (㉡) ml를 주입할 수 있다.

	㉠	㉡
①	0.5	720
②	1	720
③	1	1,440
④	2	1,440
⑤	2	2,880

2024 5급 (나) 8번

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과 ㉡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자동차 연비를 표시하는 단위는 나라마다 다르다. A국은 자동차 연비를 1갤런의 연료로 달릴 수 있는 거리(마일)로 계산하며, 단위는 mpg를 사용한다. B국에서는 100 km를 달릴 때 소요되는 연료량(L)으로 계산하며, 단위는 L/100 km를 사용한다. C국은 연료 1 L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km)로 계산하며 km/L를 단위로 사용한다.

※ 1갤런은 4 L, 1마일은 1.6 km로 간주한다.

————— <상 황> —————
X, Y, Z 세 대의 자동차가 있다. 각 자동차의 연비는 순서대로 15 mpg, 8 L/100 km, 18 km/L이다. 따라서 X는 120 km를 이동하는 데 연료 ㉠ L가 소요된다. 그리고 4갤런의 연료로 Z는 Y보다 ㉡ km 더 이동할 수 있다.

	㉠	㉡
①	5	72
②	5	88
③	20	72
④	20	88
⑤	32	88

2025 5급 (가) 8번

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의 (가)와 (나)에 들어갈 수를 옳게 짝지은 것은?

압력을 나타내는 단위인 mmHg는 수은 기둥을 이용해 기압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1 mmHg는 수은 기압계의 수은 기둥 높이가 1 mm일 때의 압력을 의미하고, 수은 기둥의 높이와 압력은 비례한다.

해수면에서 측정되는 대기의 압력은 760 mmHg이며, 이를 1기압이라고 한다.

————— <상 황> —————

○ 수은 기압계의 수은 기둥 높이가 1 m일 때의 압력과 1기압의 차는 (가) mmHg이다.

○ 해수면으로부터 10 m씩 깊어질 때마다 1기압에 해당하는 압력이 증가한다면, 수심 40 m에서의 압력은 (나) mmHg 이다.

	(가)	(나)
①	0	3040
②	0	3800
③	240	2280
④	240	3040
⑤	240	3800

2025 5급 (가) 27번

2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의 (가)와 (나)에 들어갈 수를 옳게 짝지은 것은?

A국에는 액체의 부피를 표기하는 다양한 단위가 있다. 1티스푼은 5 ml이고, 1테이블스푼은 3티스푼이며, 1컵은 48티스푼이다. 1컵은 8플루이드온스, 16플루이드온스는 1파인트, 128플루이드온스는 1갤런, 1갤런은 4쿼트이다.

————— <상 황> —————

처음에 甲은 1갤런의 물을 가지고 있었으며, 乙은 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후 甲은 자신의 물을 5파인트만 남기고, 나머지 전부를 乙에게 주었다. 甲은 (가) 컵의 물을 소비해 현재는 물 40플루이드온스를 가지고 있다. 乙은 甲에게 받은 물 중 1쿼트를 소비하여 현재 (나) 테이블스푼의 물만 가지고 있다.

	(가)	(나)
①	5	32
②	5	48
③	10	32
④	10	48
⑤	20	48

2012 민경채 (인) 7번

문 7. 다음 글에 근거할 때, <보기>의 암호문을 해석하여 찾아낸 원문으로 옳은 것은?

아래의 <암호표>를 이용하여 암호문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암호문은 암호화하고자 하는 원문의 알파벳과 암호 변환키의 알파벳을 조합하여 만든다. 먼저 원문 알파벳을 표의 맨 왼쪽 줄에서 찾고, 암호 변환키의 알파벳을 표의 맨 위쪽 줄에서 찾아 그 교차점에 있는 알파벳을 암호문으로 한다.

<암호표>

→ 암호 변환키

↓ 원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A	A	B	C	D	E	F	G	H	I	J	K	L	M	N
B	B	C	D	E	F	G	H	I	J	K	L	M	N	A
C	C	D	E	F	G	H	I	J	K	L	M	N	A	B
D	D	E	F	G	H	I	J	K	L	M	N	A	B	C
E	E	F	G	H	I	J	K	L	M	N	A	B	C	D
F	F	G	H	I	J	K	L	M	N	A	B	C	D	E
G	G	H	I	J	K	L	M	N	A	B	C	D	E	F
H	H	I	J	K	L	M	N	A	B	C	D	E	F	G
I	I	J	K	L	M	N	A	B	C	D	E	F	G	H
J	J	K	L	M	N	A	B	C	D	E	F	G	H	I
K	K	L	M	N	A	B	C	D	E	F	G	H	I	J
L	L	M	N	A	B	C	D	E	F	G	H	I	J	K
M	M	N	A	B	C	D	E	F	G	H	I	J	K	L
N	N	A	B	C	D	E	F	G	H	I	J	K	L	M

<예 시>

원문	F	A	C	E
암호 변환키	C	E	G	I
암호문	H	E	I	M

<보 기>

암호 변환키	BHEMGI
암호문	IBNMIE

- ① HIJACK
- ② HIDDEN
- ③ HANDLE
- ④ JINGLE
- ⑤ JACKIE

2013 민경채 (인) 21번

문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의 빈칸에 들어가는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A국에서는 1~49까지 숫자를 셀 때 다음과 같은 명칭과 규칙을 사용한다. 1~5는 아래와 같이 표현한다.

1 → tai

2 → lua

3 → tolu

4 → vari

5 → luna

6에서 9까지의 수는 위 명칭에 ‘새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o’를 앞에 붙여 쓰는데, 6은 otai(새로운 하나), 7은 olua(새로운 둘), 8은 otolu(새로운 셋), …(으)로 표현한다.

10은 5가 두 개 더해진 것이므로 ‘두 개의 다섯’이란 뜻에서 lualuna(2×5), 15는 ‘세 개의 다섯’이란 뜻에서 toluluna(3×5), 20은 variluna(4×5), …(으)로 표현한다. 즉, 5를 포함하는 두 개 숫자의 곱이다.

11부터는 ‘더하기’라는 뜻을 가진 ‘i’를 중간에 넣고, 그 다음에 1~4 사이의 숫자 하나를 순서대로 넣어서 표현한다. 따라서 11은 lualuna i tai($2 \times 5 + 1$), 12는 lualuna i lua($2 \times 5 + 2$), …, 16은 toluluna i tai($3 \times 5 + 1$), 17은 toluluna i lua($3 \times 5 + 2$), …(으)로 표현한다.

————— <보 기> —————

ㄱ. 30은 ()로 표현한다.

ㄴ. ovariluna i tolu는 숫자 ()이다.

	ㄱ	ㄴ
① otailuna		48
② otailuna		23
③ lualualuna		48
④ tolulualuna		17
⑤ tolulualuna		23

2015 민경채 (인) 15번

문 1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방정식 $x^3+4x+2=0$ 의 표현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과거에는 방정식을 현재의 표현 방식과는 다르게 표현 하였다.

카르다노는 x 를 reb^9 라고 쓰고 x^3 을 cub^9 라고 했으며 $+$ 를 $\text{p}:$ 과 같이 써서 $x^3+6x=18$ 을

$$\text{cub}^9 \text{ p} : 6\text{reb}^9 \text{ aeqlis } 18$$

이라고 했다.

스테빈은 $x^3+3=2x+6$ 을

$$1^{\textcircled{3}}+3 \text{ egales } \acute{a} 2^{\textcircled{1}}+6$$

이라고 썼다. 여기서 $\text{egales } \acute{a}$ 는 $=$ 를 나타낸다.

기랄드는 x 를 (1), x^2 을 (2), x^3 을 (3)과 같이 사용했다. 즉, $x^3+21x^2+4=0$ 을

$$1(3)+21(2)+4=0$$

이라고 쓴 것이다.

헤리웃은 $x^3+3x=0$ 을

$$xxx+3\cdot x=0$$

과 같이 표현했다.

————— <보 기> —————

ㄱ. 카르다노는 $\text{cub}^9 \text{ p} : 4\text{reb}^9 \text{ p} : 2 \text{ aeqlis } 0$ 이라고 썼을 것이다.

ㄴ. 스테빈은 $1^{\textcircled{3}}+4^{\textcircled{1}}+2 \text{ egales } \acute{a} 0$ 이라고 썼을 것이다.

ㄷ. 기랄드는 $1(2)+4(1)+2=0$ 이라고 썼을 것이다.

ㄹ. 헤리웃은 $xxx+4\cdot x+2=0$ 이라고 썼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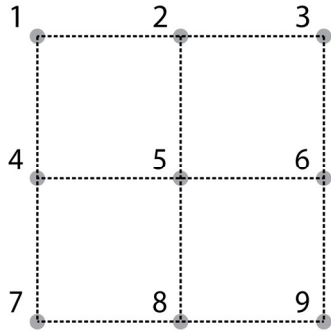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2020 민경채 (가) 9번

문 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숫자코드가 될 수 있는 것은?

숫자코드를 만드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 그림과 같이 작은 정사각형 4개로 이루어진 큰 정사각형이 있고, 작은 정사각형의 꼭짓점마다 1 ~ 9의 번호가 지정되어 있다.



- 펜을 이용해서 9개의 점 중 임의의 하나의 점에서 시작하여(이하 시작점이라 한다) 다른 점으로 직선을 그어 나간다.
- 다른 점에 도달하면 펜을 종이 위에서 떼지 않고 또 다른 점으로 계속해서 직선을 그어 나간다. 단, 한번 그은 직선 위에 또 다른 직선을 겹쳐서 그을 수 없다.
- 시작점을 포함하여 4개 이상의 점에 도달한 후 펜을 종이 위에서 뗄 수 있다. 단, 시작점과 동일한 점에서는 뗄 수 없다.
- 펜을 종이에서 뗀 후, 그어진 직선이 지나는 점의 번호를 순서대로 모두 나열한 것이 숫자코드가 된다. 예를 들어 1번 점에서 시작하여 6번, 5번, 8번 순으로 직선을 그었다면 숫자코드는 1658이다.

- ① 596
- ② 15953
- ③ 53695
- ④ 642987
- ⑤ 9874126

2021 7급 (나) 25번

문 2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괄호 안의 ㉠과 ㉡에 해당하는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 행정구역분류코드는 다섯 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 행정구역분류코드의 ‘처음 두 자리’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를 의미하는 고유한 값이다.

○ ‘그 다음 두 자리’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의미하는 고유한 값이다. 단, 광역자치단체인 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군·구이다.

○ ‘마지막 자리’에는 해당 시·군·구가 기초자치단체인 경우 0, 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0이 아닌 임의의 숫자를 부여한다.

○ 광역자치단체인 시에 속하는 구는 기초자치단체이며, 기초자치단체인 시에 속하는 구는 자치단체가 아니다.

——— <상 황> ———

○○시의 A구와 B구 중 B구의 행정구역분류코드의 첫 네 자리는 1003이며, 다섯 번째 자리는 알 수 없다.

甲은 ○○시가 광역자치단체인지 기초자치단체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A구의 행정구역분류코드는 ○○시가 광역자치단체라면 (㉠), 기초자치단체라면 (㉡)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	㉡
① 10020	10021
② 10020	10033
③ 10033	10034
④ 10050	10027
⑤ 20030	10035

2013 외교 (인) 9번

문 9. 다음 글에 따라 <정간암호문>을 해독했을 때, 지도 상의 ★에서 시작한 추적·이동이 종료되는 지점은?

정간보는 仲, 林, 無, 黃, 太의 5가지 기본을명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악보이다. 필요에 따라 기본을명에 ㄱ이나 ㄷ을 붙여 을명을 사용하기도 한다.

정간암호문은 정간보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기본
울명은 각각에 부여된 다음의 규칙에 따라 추적·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암호’가 된다.

仲: 제자리에 머무름.
林: 동쪽으로 이동함.
無: 서쪽으로 이동함.
黃: 남쪽으로 이동함.
太: 북쪽으로 이동함.

그 외의 정간암호문 해독규칙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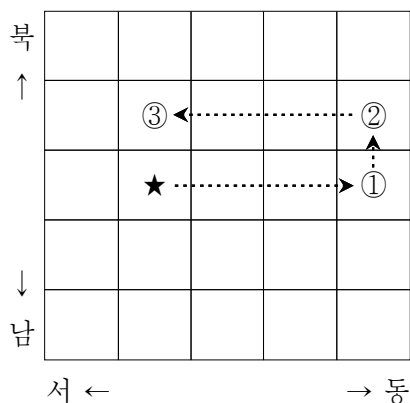
1. 정간암호문은 1번 정간(가장 왼쪽)에서 해독을 시작해 ●에서 종료된다.
2. 정간암호문에 기록된 모든 율명을 해독하여야 하며, 중복해서 해독할 수 없다.
3. 율명은 반드시 순서대로 해독할 필요는 없다.
4. 기본율명에 ㄱ이 붙으면 정간암호문에서 순방향(좌 → 우)으로 해독하고, ㅅ이 붙으면 정간암호문에서 역방향(우 → 좌)으로 해독한다.
5. 하나의 율명을 해독하고 그 다음 율명을 해독할 경우, 해독한 율명으로부터 4정간 이내에 있는 율명의 해독만 가능하다.
6. 정간암호문에서 林・無, 黃・太, 無・林, 太・黃은 연이어서 해독할 수 없다.

※ 정간보 상의 한 칸을 정간이라 하며, 정간 사이의 거리를 간이라 한다.

정간암호문 상 1칸은 지도 상의 1칸에 대응한다. 정간암호문의 예시, 해독결과 및 지도 상의 추적·이동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	3	4	5	6
淋		瀬	汰		●

- 정간암호문 해독결과 : 1 → 4 → 3 → 6
○ 지도 상의 추적경로 : 동쪽으로 3칸 이동(①) 후, 그 지점에서 북쪽으로 1칸 이동(②)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서쪽으로 3칸 이동(③) 후 추적 종료



〈정간암호문〉

1	2	3	4	5	6	7	8	9	10	11	12
淋		汰		濼	無	潢	淋	休			●

						가			
								나	다
				★	라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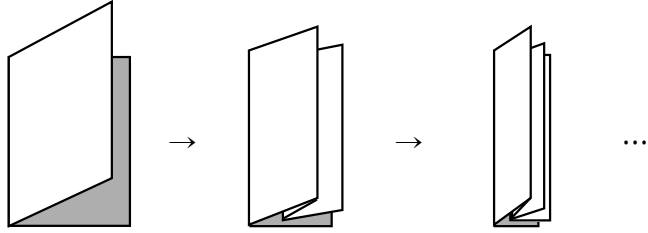
서 ← → 동

- [illegible]

2013 외교 (인) 17번

문 17. 다음 글을 읽고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먼저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서 수직방향의 정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접는 경우만을 고려하자. 접은 종이를 처음과 같이 폼 때, 접은 흔적은 위로 튀어 오른 ‘마루’와 아래로 접힌 자국의 ‘골’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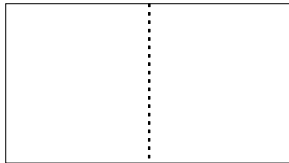


<1번 접은 경우>

<2번 접은 경우>

<3번 접은 경우>

(나) 이제 접었던 종이의 흔적에서 점선으로 표시되는 ‘골’은 0으로, 실선으로 표시되는 ‘마루’는 1로 나타내보자. 오른쪽으로 n 번 접은 종이의 흔적을 나타낸 0과 1의 배열을 ‘ C_n ’이라고 하자.



$$C_1 = 0$$

오른쪽으로 1번 접은 종이



$$C_2 = 100$$

오른쪽으로 2번 접은 종이

— <보 기> —

- ㄱ. $C_3 = 1100100$
 ㄴ. C_5 의 정가운데 숫자는 반드시 0이다.
 ㄷ. C_n 의 정가운데 숫자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되는 위치에 있는 숫자는 동일한 경우가 있다. (단, $n > 1$)
 ㄹ. C_n 을 구성하는 0의 개수가 1의 개수보다 반드시 많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14 5급 (A) 31번

문 31. 다섯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비밀번호를 다음 <숫자 → 암호문 변환 절차>에 따라 <암호표>를 사용하여 암호문으로 변환하였다. <완성된 암호문>이 의미하는 비밀번호로 옳은 것은?

<숫자 → 암호문 변환 절차>

1. 비밀번호의 숫자를 세로로 쓰고 <암호표>에서 해당하는 숫자의 오른쪽에 나열된 알파벳(6개)을 <예시>의 과정1과 같이 숫자 순서대로 나열한다.

2. 1의 과정을 통해 순서대로 나열된 알파벳을 <예시>의 과정2와 같이 왼쪽부터 한 열씩 세로로 읽어나가면 완성된 암호문이 된다.

<암호표>						
1	T	H	P	Q	B	I
2	H	C	O	X	D	V
3	N	S	P	S	S	E
4	W	H	O	W	E	C
5	A	D	I	N	K	T
6	N	R	E	M	V	J
7	F	G	X	Z	C	B
8	E	S	X	V	B	J
9	W	E	I	P	Y	K
0	H	C	J	U	U	I

<예시 : 비밀번호 ‘10675’의 암호 변환 과정>

- 과정1

1	T	H	P	Q	B	I
0	H	C	J	U	U	I
6	N	R	E	M	V	J
7	F	G	X	Z	C	B
5	A	D	I	N	K	T

- 과정2

THNFA HCRGD PJEXI QUMZN BUVCK IJBT

<완성된 암호문>

HEWHT CSECH OXIJP XVPUQ DBYUB VJKII

- ① 08401

② 08425

③ 28425

④ 28901

⑤ 28921

2015 5급 (인) 15번

문 15. 우주센터는 화성 탐사 로봇(JK3)으로부터 다음의 <수신 신호>를 왼쪽부터 순서대로 받았다.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JK3의 이동경로로 옳은 것은?

— <수신 신호> —
010111, 000001, 111001, 100000

— <조 건> —

JK3은 출발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을 격자 모양 평면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격자 모양의 경계를 넘어 한 칸 이동할 때마다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6자리 신호를 우주센터에 전송한다. 그 신호의 각 자리는 0 또는 1로 이루어진다. 전송 신호는 4개뿐이며, 각 전송 신호가 의미하는 이동 방향은 아래와 같다.

전송 신호	이동 방향
000000	북
000111	동
111000	서
111111	남

JK3이 보낸 6자리의 신호 중 한 자리는 우주잡음에 의해 오염된다. 이 경우 오염된 자리의 숫자 0은 1로, 1은 0으로 바뀐다.

※ JK3은 동서남북을 인식하고, 이 네 방향으로만 이동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2019 5급 (가) 27번

문 2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학자의 언어체계에서 표기와 그 의미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A학자는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을 자연적인 질서에 따라 나열하고 그것들의 지위와 본질을 표현하는 적절한 기호를 부여하면 보편언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A학자는 우선 세상의 모든 사물을 40개의 ‘속(屬)’으로 나누고, 속을 다시 ‘차이(差異)’로 세분했다. 예를 들어 8번째 속인 돌은 순서대로 아래와 같이 6개의 차이로 분류된다.

(1) 가치 없는 돌
(2) 중간 가치의 돌
(3) 덜 투명한 가치 있는 돌
(4) 더 투명한 가치 있는 돌
(5) 물에 녹는 지구의 응결물
(6) 물에 녹지 않는 지구의 응결물

이 차이는 다시 ‘종(種)’으로 세분화되었다. 예를 들어, ‘가치 없는 돌’은 그 크기, 용도에 따라서 8개의 종으로 분류되었다.

이렇게 사물을 전부 분류한 다음에 A학자는 속, 차이, 종에 문자를 대응시키고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7번째 속부터 10번째 속까지는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7) 원소: de
8) 돌: di
9) 금속: do
10) 앞: gw

차이를 나타내는 표기는 첫 번째 차이부터 순서대로 b, d, g, p, t, c, z, s, n을 사용했고, 종은 순서대로 w, a, e, i, o, u, y, yi, yu를 사용했다. 따라서 ‘di’는 돌을 의미하고 ‘dib’는 가치 없는 돌을 의미하며, ‘diba’는 가치 없는 돌의 두 번째 종을 의미한다.

- ① ditu - 물에 녹는 지구의 응결물의 여섯 번째 종
- ② gwpyi - 앞의 네 번째 차이의 네 번째 종
- ③ dige - 덜 투명한 가치 있는 돌의 세 번째 종
- ④ deda - 원소의 두 번째 차이의 두 번째 종
- ⑤ donw - 금속의 아홉 번째 차이의 첫 번째 종

2022 5급 (나) 12번

문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무관’을 옳게 암호화한 것은?

A암호화 방식은 단어를 <자모변환표>와 <난수표>를 이용하여 암호로 변환한다.

<자모변환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ㄷ	ㅌ	ㅍ	ㅎ	ㅊ
120342623711349035537385362479421374794734486325842248915775																
ㅈ	ㅊ	ㅋ	ㆁ	ㄷ	ㅌ	ㅍ	ㅎ	ㅊ	ㅅ	ㅇ	ㅂ	ㅅ	ㅇ	ㅂ	ㅅ	ㅇ
612118843451869917615846189137789714456198275548674716496788																

<난수표>

484496112135348641056095137458625153864418913...

○ 우선 암호화하고자 하는 단어의 자모를 초성(첫 자음자) - 중성(모음자) - 종성(받침) 순으로 나열하되, 종성이 없는 경우 초성-중성으로만 나열한다. 예를 들어 ‘행복’은 ‘ㅎㅈㅇㅂㅅㅇ’이 된다.

○ 그 다음 각각의 자모를 <자모변환표>에 따라 대응하는 세 개의 숫자로 변환한다. 예를 들어 ‘행복’은 ‘915612374385846120’으로 변환된다.

○ 변환된 숫자와 <난수표>의 숫자를 가장 앞의 숫자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대응시켜 암호 숫자로 바꾼다. 이때 암호 숫자는 그 암호 숫자와 변환된 숫자를 더했을 때 그 결과값의 일의 자리가 <난수표>의 대응 숫자와 일치하도록 하는 0~9까지의 숫자이다. 따라서 ‘행복’에 대한 암호문은 ‘579884848850502521’이다.

- ① 015721685634228562433
- ② 015721685789228562433
- ③ 905721575679228452433
- ④ 015721685789228805381472
- ⑤ 905721575679228795281472

2023 5급 (가) 31번

3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COW와 EA를 곱한 결과로 가능하지 않은 수는?

甲은 수를 영문자로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였다. 그 방법은 숫자 0~9를 다음 표와 같이 영문자로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01은 FBC 또는 FAE 등으로 표현된다.

숫자	영문자
0	A 또는 B
1	C 또는 E
2	D 또는 I
3	F 또는 O
4	G 또는 U
5	H 또는 W
6	J 또는 Y
7	AI 또는 K
8	EA 또는 M
9	N 또는 OW

- ① 120
- ② 152
- ③ 190
- ④ 1080
- ⑤ 1350

2025 5급 (가) 32번

3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기지국에서 다음의 영어 단어 6개를 송신하였다.

apple, banana, cherry, grape, orange, peach

6개의 단어를 수신해보니 서로 다른 2개의 알파벳이 잘못 수신되어 4개 단어가 송신한 단어와 달랐다.

- <보 기> —————
- ㄱ. a가 잘못 수신되었다.
 - ㄴ. c와 n이 동시에 잘못 수신되었을 수 있다.
 - ㄷ. o가 잘못 수신되었다면, p도 잘못 수신되었을 것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011 민경채 (인) 22번

문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축구대회에는 모두 32개 팀이 참가하여 한 조에 4개 팀씩 8개 조로 나누어 경기를 한다. 각 조의 4개 팀이 서로 한 번씩 경기를 하여 승점-골득실차-다득점-승자승-추첨의 순서에 의해 각 조의 1, 2위 팀이 16강에 진출한다. 각 팀은 16강에 오르기까지 총 3번의 경기를 치르게 되며, 매 경기마다 승리한 팀은 승점 3점을 얻게 되고, 무승부를 기록한 팀은 승점 1점, 패배한 팀은 0점을 획득한다.

그 중 1조에 속한 A, B, C, D팀은 현재까지 각 2경기씩 치렀으며, 그 결과는 $A:B=4:1$, $A:D=1:0$, $B:C=2:0$, $C:D=2:1$ 이었다. 아래의 표는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내일 각 팀은 16강에 오르기 위한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데, A팀은 C팀과, B팀은 D팀과 경기를 갖는다.

<마지막 경기를 남겨 놓은 각 팀의 전적>

	승	무	패	득/실점	승점
A팀	2	0	0	5/1	6
B팀	1	0	1	3/4	3
C팀	1	0	1	2/3	3
D팀	0	0	2	1/3	0

— <보 기> —

- ㄱ. A팀이 C팀과의 경기에서 이긴다면, A팀은 B팀과 D팀의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16강에 진출한다.
- ㄴ. A팀이 C팀과 1:1로 비기고 B팀이 D팀과 0:0으로 비기면 A팀과 B팀이 16강에 진출한다.
- ㄷ. C팀과 D팀이 함께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 ㄹ. D팀은 마지막 경기의 결과에 관계없이 16강에 진출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013 민경채 (인) 20번

문 20. 다음 <상황>에서 기존의 승점제와 새로운 승점제를 적용할 때, A팀의 순위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상 황>

○ 대회에 참가하는 팀은 총 13팀이다.

○ 각 팀은 다른 모든 팀과 한 번씩 경기를 한다.

○ A팀의 최종성적은 5승 7패이다.

○ A팀과의 경기를 제외한 12팀 간의 경기는 모두 무승부이다.

○ 기존의 승점제는 승리시 2점, 무승부시 1점, 패배시 0점을 부여한다.

○ 새로운 승점제는 승리시 3점, 무승부시 1점, 패배시 0점을 부여한다.

	<u>기존의 승점제</u>	<u>새로운 승점제</u>
①	8위	1위
②	8위	8위
③	13위	1위
④	13위	5위
⑤	13위	13위

805

805

2015 민경채 (인) 8번

문 8. 다음 <규칙>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규칙>

○ △△배 씨름대회는 아래와 같은 대진표에 따라 진행되며, 11명의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동일한 확률로 A부터 K까지의 자리 중에서 하나를 배정받아 대회에 참가한다.

10경기

6경기

1경기

A

2경기

C

D

9경기

7경기

3경기

E

4경기

G

H

8경기

5경기

I

J

K

○ 대회는 첫째 날에 1경기부터 시작되어 10경기까지 순서대로 매일 하루에 한 경기씩 쉬는 날 없이 진행되며, 매 경기에서는 무승부 없이 승자와 패자가 가려진다.

○ 각 경기를 거듭할 때마다 패자는 제외시키면서 승자끼리 겨루어 최후에 남은 두 참가자 간에 우승을 가리는 승자 진출전 방식으로 대회를 진행한다.

<보기>

ㄱ. 이틀 연속 경기를 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경기로 우승할 수 있는 자리는 총 5개이다.

ㄴ. 첫 번째 경기에 승리한 경우 두 번째 경기 전까지 3일 이상을 경기 없이 쉴 수 있는 자리에 배정될 확률은 50% 미만이다.

ㄷ. 총 4번의 경기를 치러야 우승할 수 있는 자리에 배정될 확률이 총 3번의 경기를 치르고 우승할 수 있는 자리에 배정될 확률보다 높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806

806

2017 5급 (가) 38번

문 38. 다음 글과 <대회 종료 후 대화>를 근거로 판단할 때, 비긴 카드 게임의 총 수는?

다섯 명의 선수(甲~戊)가 카드 게임 대회에 참가했다. 각 선수는 대회에 참가한 다른 모든 선수들과 일대일로 한 번씩 카드 게임을 했다. 각 게임의 승자는 점수 2점을 받고, 비긴 선수는 점수 1점을 받고, 패자는 점수를 받지 못한다.

이 카드 게임 대회에서 각 선수가 얻은 점수의 총합이 큰 순으로 매긴 순위는 甲, 乙, 丙, 丁, 戊 순이다. (단, 동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회 종료 후 대화>——

乙: 난 한 게임도 안 진 유일한 사람이야.

戊: 난 한 게임도 못 이긴 유일한 사람이야.

- ① 2번
- ② 3번
- ③ 4번
- ④ 5번
- ⑤ 6번

2018 5급 (나) 34번

문 3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 농구리그에는 네 팀(甲~丁)이 참여하고 있다. 이 리그의 2019 시즌 신인선수 선발은 2018 시즌 종료 후 1·2라운드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1라운드: 2018 시즌 3, 4등에게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신인선수 선발 권한 1, 2순위를 부여하는데, 2018 시즌 3, 4등은 이 추첨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2018 시즌 2등은 3순위로, 2018 시즌 1등은 마지막 순위로 선수를 선발한다.

○ 2라운드: 1라운드에서 부여된 신인선수 선발 순위의 역순으로 선수를 선발한다.

○ 각 팀은 희망 선수 선호도에 따라 선수를 라운드당 1명씩 선발해야 한다.

2018 시즌에는 팀당 60경기를 치르며, 경기에서 무승부는 없다. 승수가 많을수록 등수가 높다. 2018년 3월 10일 현재 각 팀별 성적 및 희망 선수 선호도는 다음과 같다.

현재등수	팀명	승	패	희망 선수 선호도
1	甲	50	9	A-B-C-D-E-F-G-H
2	乙	30	29	H-G-C-A-E-B-D-F
3	丙	29	29	H-A-C-D-F-E-B-G
4	丁	8	50	A-B-F-H-D-C-E-G

- ※ 희망 선수 선호도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더 높으며, 2019 시즌 신인선수 선발 종료 시점까지 변하지 않는다.
- ※ 시즌 종료시 최종 등수가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는다.

————— <보 기> —————

ㄱ. 甲팀은 2라운드에서 가장 먼저 선수를 선발할 것이다.

ㄴ. 乙팀이 2등으로 2018 시즌을 종료할 경우, H선수를 선발할 것이다.

ㄷ. 丙팀이 2등으로 2018 시즌을 종료할 경우, C선수와 F선수를 선발할 것이다.

ㄹ. 丁팀은 남은 경기의 결과에 따라 1라운드 1순위 선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추첨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12 민경채 (인) 8번

문 8. 甲과 乙이 아래 <조건>에 따라 게임을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조 건> —————

○ 甲과 乙은 다음과 같이 시각을 표시하는 하나의 시계를 가지고 게임을 한다.

0	9	:	1	5

○ 甲, 乙 각자가 일어났을 때, 시계에 표시된 4개의 숫자를 합산하여 게임의 승패를 결정한다. 숫자의 합이 더 작은 사람이 이기고, 숫자의 합이 같을 때에는 비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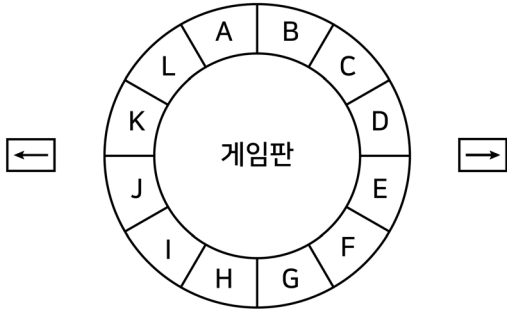
○ 甲은 반드시 오전 6시에서 오전 6시 59분 사이에 일어나고, 乙은 반드시 오전 7시에서 오전 7시 59분 사이에 일어난다.

- ① 甲이 오전 6시 정각에 일어나면, 반드시 甲이 이긴다.
- ② 乙이 오전 7시 59분에 일어나면, 반드시 乙이 진다.
- ③ 乙이 오전 7시 30분에 일어나고, 甲이 오전 6시 30분 전에 일어나면 반드시 甲이 이긴다.
- ④ 甲과 乙이 정확히 1시간 간격으로 일어나면, 반드시 甲이 이긴다.
- ⑤ 甲과 乙이 정확히 50분 간격으로 일어나면, 甲과 乙은 비긴다.

2020 민경채 (가) 17번

문 1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의 말이 최종적으로 위치하는 칸은?

○ 참가자는 그림과 같이 A~L까지 12개의 칸으로 구성된 게임판에서, A칸에 말을 놓고 시작한다.



○ 참가자는  또는  버튼을 누를 수 있다.

○ 버튼을 맨 처음 누를 때,  버튼을 누르면 말을 반시계방향으로 1칸 이동하고  버튼을 누르면 말을 시계방향으로 1칸 이동한다.

○ 그 다음부터는 매번 버튼을 누르면, 그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누른 버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말을 이동한다.

누른 버튼	직전에 누른 버튼	말의 이동
		반시계방향으로 2칸 이동
		움직이지 않음
		움직이지 않음
		시계방향으로 2칸 이동

○ 참가자는 버튼을 총 5회 누른다.

————— <상 황> —————

甲은 다음과 같이 버튼을 눌렀다.

누른 순서	1	2	3	4	5
누른 버튼					

- ① A칸
- ② C칸
- ③ H칸
- ④ J칸
- ⑤ L칸

2020 민경채 (가) 22번

문 22.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팀과 B팀은 다음과 같이 게임을 한다. A팀과 B팀은 각각 3명으로 구성되며,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양손잡이가 각 1명씩이다. 총 5라운드에 걸쳐 가위바위보를 하며 규칙은 아래와 같다.

- 모든 선수는 1개 라운드 이상 출전하여야 한다.
- 왼손잡이는 ‘가위’만 내고 오른손잡이는 ‘보’만 내며, 양손잡이는 ‘바위’만 낸다.
- 각 라운드마다 가위바위보를 이긴 선수의 팀이 획득하는 점수는 다음과 같다.
 - 이긴 선수가 왼손잡이인 경우: 2점
 - 이긴 선수가 오른손잡이인 경우: 0점
 - 이긴 선수가 양손잡이인 경우: 3점
- 두 팀은 1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각 라운드에 출전할 선수를 결정하여 명단을 제출한다.
- 5라운드를 마쳤을 때 획득한 총 점수가 더 높은 팀이 게임에서 승리한다.

————— <상 황> —————

다음은 3라운드를 마친 현재까지의 결과이다.

구분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A팀	왼손잡이	왼손잡이	양손잡이		
B팀	오른손잡이	오른손잡이	오른손잡이		

※ 각 라운드에서 가위바위보가 비긴 경우는 없다.

————— <보 기> —————

ㄱ. 3라운드까지 A팀이 획득한 점수와 B팀이 획득한 점수의 합은 4점이다.

ㄴ. A팀이 잔여 라운드에서 모두 오른손잡이를 출전시킨다면 B팀이 게임에서 승리한다.

ㄷ. B팀이 게임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있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

2020 7급 모의평가 14번

문 1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의 승패 결과는?

甲과 乙이 10회 실시한 가위바위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알려져 있다.

- 甲은 가위 6회, 바위 1회, 보 3회를 냈다.
- 乙은 가위 4회, 바위 3회, 보 3회를 냈다.
- 甲과 乙이 서로 같은 것을 낸 적은 10회 동안 한 번도 없었다.

- ① 7승 3패
- ② 6승 4패
- ③ 5승 5패
- ④ 4승 6패
- ⑤ 3승 7패

2022 7급 (가) 18번

문 1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甲과 乙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농구공 던지기 놀이를 하였다.

- 甲과 乙은 각 5회씩 도전하고, 합계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이 승리한다.

- 2점 슛과 3점 슛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도전할 수 있으며, 성공하면 해당 점수를 획득한다.

- 5회의 도전 중 4점 슛 도전이 1번 가능한데, ‘4점 도전’이라고 외친 후 뒤돌아서서 슛을 하여 성공하면 4점을 획득하고, 실패하면 1점을 잃는다.

○ 甲과 乙의 던지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성공: ○, 실패: ×)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甲	○	×	○	○	○
乙	○	○	×	×	○

————— <보 기> —————

ㄱ. 甲의 합계 점수는 8점 이상이였다.

ㄴ. 甲이 3점 슛에 2번 도전하였고 乙이 승리하였다면, 乙은 4점 슛에 도전하였을 것이다.

ㄷ. 4점 슛뿐만 아니라 2점 슛, 3점 슛에 대해서도 실패 시 1점을 차감하였다면, 甲이 승리하였을 것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2022 7급 (가) 22번

문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甲, 乙, 丙 세 사람은 25개 문제(1 ~ 25번)로 구성된 문제집을 푼다.
- 1회차에는 세 사람 모두 1번 문제를 풀고, 2회차부터는 직전 회차 풀이 결과에 따라 풀 문제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 직전 회차가 정답인 경우:
직전 회차의 문제 번호에 2를 곱한 후 1을 더한 번호의 문제
 - 직전 회차가 오답인 경우:
직전 회차의 문제 번호를 2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를 버린 후 1을 더한 번호의 문제
- 풀 문제의 번호가 25번을 넘어갈 경우, 25번 문제를 풀고 더 이상 문제를 풀지 않는다.
- 7회차까지 문제를 푼 결과, 세 사람이 맞힌 정답의 개수는 같았고 한 사람이 같은 번호의 문제를 두 번 이상 푼 경우는 없었다.
- 4, 5회차를 제외한 회차별 풀이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정답: ○, 오답: ×)

구분	1	2	3	4	5	6	7
甲	○	○	×			○	×
乙	○	○	○			×	○
丙	○	×	○			○	×

— <보 기> —

- ㄱ. 甲과 丙이 4회차에 푼 문제 번호는 같다.
- ㄴ. 4회차에 정답을 맞힌 사람은 2명이다.
- ㄷ. 5회차에 정답을 맞힌 사람은 없다.
- ㄹ. 乙은 7회차에 9번 문제를 풀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025 7급 추가 (핵) 7번

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乙이 이긴 총 횟수는?

甲과 乙은 다음과 같이 가위바위보를 변형한 게임을 하였다.

○ 가위, 바위, 보에 ‘엄지척’이 추가된다.

○ 바위는 가위를 이기고, 보는 바위를 이기며, 엄지척은 보를 이기고, 가위는 엄지척을 이긴다.

○ 동일한 손 모양을 내면 비긴다.

○ 가위와 보가 만나거나 바위와 엄지척이 만나면, 직전 회차에 이겼던 사람이 이기며, 직전 회차에 비겼거나 1회차인 경우에는 비긴다.

게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甲	가위	?	엄지척	?	?	보
乙	?	?	?	가위	?	?

○ 甲은 2회차부터는 상대방이 직전 회차에 냈던 것을 냈다.

○ 乙은 1 ~ 4회차에는 회차별로 서로 다른 것을 냈고, 5회차는 1회차와, 6회차는 2회차와 같은 것을 냈다.

- ① 1
- ② 2
- ③ 3
- ④ 4
- ⑤ 5

2011 5급 (선) 15번

문 15. 다음 <경기 규칙>에 따라 다섯 사람이 경기를 한 결과, 여섯 번째 순서인 甲이 벌칙을 받았다. 그런데 경기 기록지가 손상되어 <기록지>의 검정색으로 칠해진 곳은 알 수 없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경기 규칙>

○ 경기를 시작하면 첫 번째 사람은 손가락으로 1~5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표현하고, 동시에 입으로도 1~5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말한다. 단, 손가락으로 표현하는 숫자와 입으로 말하는 숫자는 달라야 한다.

○ 두 번째 사람부터는 바로 전의 사람이 입으로 말한 숫자를 손가락으로 표현하고, 동시에 입으로는 손가락으로 표현하지 않은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말해야 한다. 그 이후로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 위에서 말한 경기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벌칙을 받는 것으로 경기가 종료된다.

○ 경기는 甲→乙→丙→丁→戊→甲→...의 순서로 진행된다.

<기록지>

순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사람	甲	乙	丙	丁	戊	甲
입		넷			둘	둘
손가락						

<보 기>

ㄱ. 여섯 번째 순서인 甲이 한 것처럼, 바로 앞의 사람이 입으로 말한 숫자와 같은 숫자를 입으로 말하면 예외 없이 벌칙을 받는다.

ㄴ. 경기를 시작하고 甲이 처음으로 입으로 말한 숫자와 丙이 손가락으로 표현한 숫자를 합하면 6이다.

ㄷ. 丙이 입으로 말한 숫자는 ‘다섯’이다.

ㄹ. 丙이 입으로 말한 숫자가 ‘셋’이라면, 손가락으로 표현한 ‘1’은 이 경기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12 5급 (인) 10번

문 10. 다음 <조건>에 따라 A팀과 B팀이 왼손 팔씨름 시합을 한다. 첫 번째 경기 시작 전에 B팀에서는 A팀이 첫 번째 경기에 장사를 출전시킨다는 확실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조 건>

○ A팀과 B팀은 각각 장사 1명, 왼손잡이 1명, 오른손잡이 2명(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한 사람당 한 경기에만 출전할 수 있으며, 총 네 번의 경기를 치러 승점의 합이 많은 팀이 우승을 차지한다. 이때 이길 경우 3점, 비길 경우 1점, 질 경우는 0점의 승점이 주어진다.

○ 양 팀은 첫 번째 경기 시작 전에 각 경기별 출전선수 명단을 심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선수명단은 바꿀 수 없다.

○ 각 팀에 속하는 팀원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 장사: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모두에게 이긴다.

– 왼손잡이: 장사에게는 지고 오른손잡이에게는 이긴다.

– 오른손잡이: 장사, 왼손잡이 모두에게 진다.

○ 누구든 같은 특징의 상대를 만나면 비긴다.
- <보 기>

ㄱ. B팀도 첫 번째 경기에 장사를 출전시키면 최대 승점 5점을 얻을 수 있다.

ㄴ. B팀이 첫 번째 경기에 왼손잡이를 출전시키면 최대 승점 4점을 얻을 수 있다.

ㄷ. B팀이 첫 번째 경기에 오른손잡이를 출전시키면 최대 승점 7점을 얻을 수 있다.

ㄹ. A팀이 첫 번째 경기에 장사를 출전시키고 두 번째 경기에 왼손잡이를 출전시킨다는 확실한 정보를 B팀이 입수한다면, B팀은 우승할 수 있으며 이때의 승점은 7점이다.
- ① ㄱ, ㄷ

② ㄴ,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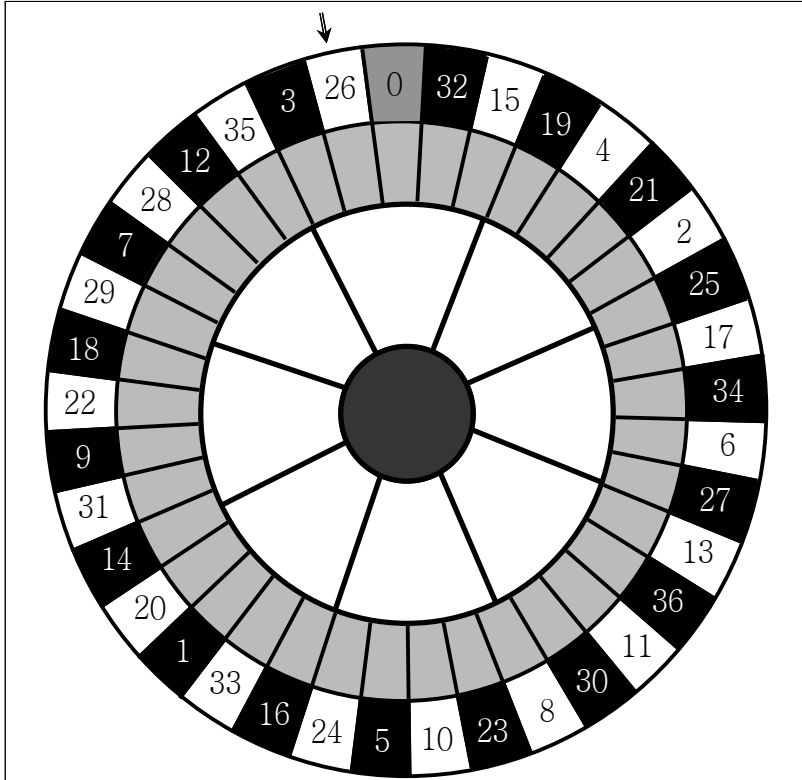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 817
- 817

2013 외교 (인) 11번

문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甲과 乙은 1에서 6까지 표시된 정육면체 주사위와 위의 그림과 같은 판을 가지고 게임을 한다. 게임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甲과 乙의 말을 숫자 26이 쓰인 곳에 각각 두고 게임을 시작한다.
2.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부터 번갈아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말을 이동시킨다.
3. 이때 이동한 말이 도착한 곳의 바탕 색깔이 흰 색이면 그 곳의 숫자만큼 점수를 획득하고, 바탕 색깔이 검은 색이면 그 곳의 숫자 두 배만큼 점수를 획득한다. 단, 숫자 0이 쓰인 곳에 말이 도착하면 획득하는 점수는 없다.
4. 처음 출발 지점에서는 두 사람 모두 0점이다.
5. 어느 한 사람이 획득한 점수의 합이 100점 이상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이 승리하고 게임은 종료된다.

— <보 기> —

- ㄱ. 숫자 0이 쓰인 곳을 제외하고, 숫자 1이 쓰인 곳에 말이 도착할 때 유일하게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하게 된다.
- ㄴ. 주사위를 3번 던져서 획득한 점수의 합이 100점 이상이 될 수 있다.
- ㄷ. 甲이 주사위를 먼저 던질 때, 甲은 매번 1이 나오고 乙은 매번 6이 나온다면 甲이 게임에서 승리한다.
- ㄹ.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것이 게임에서 유리하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014 5급 (A) 11번

문 11. 다음 <배드민턴 복식 경기방식>을 따를 때, <경기상황>에 이어질 서브 방향 및 선수 위치로 가능한 것은?

<배드민턴 복식 경기방식>

○ 점수를 획득한 팀이 서브권을 갖는다. 다만 서브권이 상대팀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팀 내에서 같은 선수가 연속해서 서브권을 갖는다.

○ 서브하는 팀은 자신의 팀 점수가 0이거나 짝수인 경우는 우측에서, 점수가 홀수인 경우는 좌측에서 서브한다.

○ 서브하는 선수로부터 코트의 대각선 위치에 선 선수가 서브를 받는다.

○ 서브를 받는 팀은 자신의 팀으로 서브권이 넘어오기 전까지는 팀 내에서 선수끼리 서로 코트 위치를 바꾸지 않는다.

※ 좌측, 우측은 각 팀이 네트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좌, 우이다.

<경기상황>

○ 甲팀(A·B)과 乙팀(C·D)간 복식 경기 진행

○ 3:3 동점 상황에서 A가 C에 서브하고 甲팀(A·B)이 1점 득점

점수	서브 방향 및 선수 위치	득점한 팀
3:3	D C A B	甲

①

C

D

A

B

②

C

D

A

B

③

C

D

B

A

④

D

C

B

A

⑤

D

C

B

A

819

819

2014 5급 (A) 12번

문 12. 甲, 乙, 丙이 다음 <조건>에 따라 게임을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조 건>——

- 게임은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각각 적힌 7장의 카드 3벌 (21장)을 섞어서 3명이 7장씩 나누어 가지고 시작한다.
- 게임은 甲부터 시작하여 甲→乙→丙→甲→乙→丙→…의 차례로 진행된다.
- 차례에 따라 손에 든 카드를 1장씩 내며, 이때 바로 전 사람이 낸 카드의 숫자와 같거나 더 큰 숫자의 카드만 낼 수 있다.
- 이미 낸 카드는 다시 가져올 수 없다.
- 자신의 차례에 낼 카드가 손에 없으면 게임에서 빠지며, 남은 사람은 계속 이어서 게임을 진행하고, 가장 늦게 까지 게임에 남아 있는 사람이 우승자가 된다.
- 甲, 乙, 丙은 우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甲이 받은 카드는 1135667이다.

——<보 기>——

- ㄱ. 누구든 7카드를 2장 갖고 있으면 반드시 우승할 수 있다.
- ㄴ. 甲이 게임 시작과 동시에 7카드를 냈을 때 우승할 확률은 약 33 %이다.
- ㄷ. 甲이 게임 시작과 동시에 6카드를 냈을 때 우승할 확률은 약 33 %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015 5급 (인) 17번

문 17. 甲과 乙은 둘이서 승경도놀이를 하고 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승경도놀이란 조선시대 양반들이 하였던 윷놀이의 일종이다. 이 놀이에서는 윷목을 굴러 나온 수대로 말을 이동시킨다. 윷목은 각 면마다 1, 2, 3, 4, 5가 하나씩 새겨진 5각 기둥 모양의 나무막대로 1은 ‘도’, 2는 ‘개’, 3은 ‘걸’, 4는 ‘윷’, 5는 ‘모’를 의미한다.

승경도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자신의 말을 선택하고,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쪽이 먼저 윷목을 굴린다. 말이 있는 자리에서 윷목을 굴러 나온 숫자에 해당하는 자리로 말을 이동시킨다. 예를 들어 말이 <우의정>에 있는데 윷목을 굴러 ‘걸’이 나왔으면 <좌의정> 자리로 이동시킨다. 한 자리에 두 개의 말이 같이 있을 수 있으며 상대방의 말을 잡는 일은 없다.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도	개	걸	윷	모	도	개	걸	윷	모	도	개	걸	윷	모
5	파	좌	영	영	4	파	영	사	사	5	파	사	봉	퇴
	직	의	의	의		직	정	쾌	쾌		직	쾌	조	임
		정	정	정			정	장	장			장	하	

<사쾌장>					<봉조하>					<파직>				
도	개	걸	윷	모	도	개	걸	윷	모	도	개	걸	윷	모
5	파	봉	퇴	퇴	5	파	퇴	퇴	퇴	사	파	파	환	환
	직	조	임	임		직	임	임	임	약	직	직	용	용
		하												

<파직> 이외의 자리에서 윷목을 굴러 ‘도’가 나오면 벌칙으로 ‘도’에 해당하는 숫자의 횃수만큼 그 자리에 머무른다. 예를 들어 <우의정>에서 ‘도’가 나오면 자신은 5회 동안 윷목을 굴리지 않고, 상대방은 연속하여 윷목을 굴러 말을 이동시킨다.

<파직>에 말이 있을 때 윷목을 굴러 ‘도’가 나오면 사약을 받게 되고, ‘개’ 또는 ‘걸’이 나오면 <파직>에 머무른다. 그러나 이곳에서 ‘윷’이나 ‘모’가 나와 환용이 되면 <파직>으로 이동하기 전의 자리로 돌아간다. 예를 들어 <좌의정>에서 <파직>으로 이동했다가 환용이 나오면 <좌의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놀이에서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자신이 먼저 퇴임하거나 상대방이 사약을 받으면 이긴다.

——<보 기>——

ㄱ. 甲의 말이 <우의정>에, 乙의 말이 <봉조하>에 있고 甲이 윷목을 굴릴 차례이다. 甲이 먼저 퇴임하기 위해서는 윷목을 최소한 2회 이상 굴려야 한다.

ㄴ. 甲의 말이 <좌의정>에, 乙의 말이 <사쾌장>에 있고 乙이 윷목을 굴릴 차례이다. 乙이 이번 차례와 다음 차례에 굴러 나온 값의 합이 3 이하라면 甲이 이기는 경우도 있다.

ㄷ. 甲의 말이 <좌의정>에, 乙의 말이 <사쾌장>에 있고 乙이 윷목을 굴릴 차례이다. 乙이 이번 차례와 다음 차례에 굴러 나온 값의 합이 6 이상이라면 乙이 이긴다.

- ① ㄱ

② ㄷ
- ③ ㄱ, ㄴ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015 5급 (인) 18번

문 18. 甲과 乙이 가위바위보 경기를 했다. 다음 <규칙>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규칙>

☐ A규칙은 일반적인 가위바위보 규칙과 같다.

☐ B규칙은 가위, 바위, 보를 숫자에 대응시켜 더 큰 숫자 쪽이 이기며, 숫자가 같으면 비긴다. 이 때 가위는 2, 바위는 0, 보는 5를 나타낸다.

☐ C규칙은 가위, 바위, 보를 숫자에 대응시켜 더 작은 숫자 쪽이 이기며, 숫자가 같으면 비긴다. 이 때 가위는 2, 바위는 0, 보는 5를 나타낸다.

<상황>

☐ 甲과 乙은 총 3번 경기를 하였고, 3번의 경기가 모두 끝날 때까지는 각 경기에 어떤 규칙이 적용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 모든 경기가 종료된 후에 각 규칙이 한 번씩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甲은 보를 3번 냈으며, 乙은 가위-바위-보를 순서대로 냈다.

<보기>

☐ ㄱ. 甲이 1승 1무 1패를 한 경우, 첫 번째 경기에 A규칙 또는 C규칙이 적용되었다.

☐ ㄴ. 甲이 2승 1무를 한 경우, 두 번째 경기에 A규칙이 적용되었다.

☐ ㄷ. 甲은 3번의 경기 중 최소한 1승은 할 수 있다.

☐ ㄹ. 만약 乙이 세 번째 경기에서 보가 아닌 가위나 바위를 낸다고 해도 甲은 3승을 할 수 없다.

-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2015 5급 (인) 38번

문 3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甲과 乙은 각각 5개의 구슬을 가지고 놀이를 시작한다.
- 매 경기마다 출제자는 자신이 가진 구슬 중 원하는 만큼을 상대방이 보지 못하게 한 손에 쥔다. 이 때 구슬은 1개 이상 줘야 한다. 답변자는 출제자가 손에 쥔 구슬의 개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말한다.
- 답변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어 이기면 출제자는 자신이 손에 쥔 개수만큼의 구슬을 답변자에게 준다. 맞추지 못하여 지면 반대로 답변자는 그만큼의 구슬을 출제자에게 준다. 다만 주어야 할 구슬이 부족하다면 가진 구슬을 모두 준다.
- 구슬놀이가 시작되면 첫 번째 경기는 甲이 출제자이고 乙이 답변자이며, 두 번째 경기부터는 번갈아 출제자와 답변자가 된다.
- 한 명의 구슬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경기를 계속하며, 구슬놀이 결과 상대방의 구슬을 모두 가져온 사람이 최종 우승자가 된다.
- 甲과 乙은 자신이 최종 우승자가 되려고 최선을 다한다.

- <보 기> ———
- ㄱ. 甲이 첫 번째 경기에서 구슬 4개 또는 5개를 줘서 이기면, 甲이 최종 우승자가 된다.
 - ㄴ. 甲이 첫 번째 경기에서 구슬 3개를 줘서 이기고 두 번째 경기에서도 이긴다면, 甲이 최종 우승자가 된다.
 - ㄷ. 甲과 乙이 매 경기마다 구슬 1개씩만 손에 쥔다면, 최종 우승자를 결정하기 위한 최소 경기 횟수는 6회이다.
 - ㄹ. 甲과 乙이 매 경기마다 구슬 2개씩만 손에 쥔다면, 최종 우승자를 결정하기 위한 최소 경기 횟수는 3회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17 5급 (가) 14번

문 1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甲과 乙은 다음 그림과 같이 번호가 매겨진 9개의 구역을 점령하는 게임을 한다.

1	2	3
4	5	6
7	8	9

○ 게임 시작 전 체비뽑기를 통해 甲은 1구역, 乙은 8구역으로 최초 점령 구역이 정해졌다.

○ 甲과 乙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길 때마다, 자신이 이미 점령한 구역에 상하좌우로 변이 접한 구역 중 점령되지 않은 구역 1개를 추가로 점령하여 자신의 구역으로 만든다.

○ 만약 가위바위보에서 이겨도 더 이상 자신이 점령할 수 있는 구역이 없으면 이후의 가위바위보는 모두 진 것으로 한다.

○ 게임은 모든 구역이 점령될 때까지 계속되며, 더 많은 구역을 점령한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한다.

○ 甲과 乙은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선택을 한다.

<보 기>

ㄱ. 乙이 첫 번째, 두 번째 가위바위보에서 모두 이기면 게임에서 승리한다.

ㄴ. 甲이 첫 번째, 두 번째 가위바위보를 이겨서 2구역과 5구역을 점령하고, 乙이 세 번째 가위바위보를 이겨서 9구역을 점령하면, 네 번째 가위바위보를 이긴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한다.

ㄷ. 甲이 첫 번째, 세 번째 가위바위보를 이겨서 2구역과 4구역을 점령하고, 乙이 두 번째 가위바위보를 이겨서 5구역을 점령하면, 게임의 승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2번 이상의 가위바위보를 해야 한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2018 5급 (나) 31번

문 3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 乙, 丙이 바둑돌을 손가락으로 튕겨서 목표지점에 넣는 게임을 한다. 게임은 총 5라운드까지 진행하며, 라운드마다 바둑돌을 목표지점에 넣을 때까지 손가락으로 튕긴 횟수를 해당 라운드의 점수로 한다. 각 라운드의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이 해당 라운드의 1위가 되며, 모든 라운드의 점수를 합산하여 그 값이 가장 작은 사람이 게임에서 우승한다.

아래의 표는 각 라운드별로 甲, 乙, 丙의 점수를 기록한 것이다. 4라운드와 5라운드의 결과는 실수로 지워졌는데, 그 중 한 라운드에서는 甲, 乙, 丙 모두 점수가 같았고, 다른 한 라운드에서는 바둑돌을 한 번 튕겨서 목표지점에 넣은 사람이 있었다.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점수 합
甲	2	4	3			16
乙	5	4	2			17
丙	5	2	6			18

———<보 기>———

ㄱ. 4라운드와 5라운드만을 합하여 바둑돌을 튕긴 횟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甲이다.

ㄴ. 바둑돌을 한 번 튕겨서 목표지점에 넣은 사람은 乙이다.

ㄷ. 丙의 점수는 라운드마다 달랐다.

ㄹ. 만약 각 라운드에서 단독으로 1위를 한 횟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우승하는 것으로 규칙을 변경한다면, 丙이 우승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18 5급 (나) 37번

문 37. 다음 글과 <라운드별 음식값>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음식값을 가장 많이 낸 사람과 그가 낸 음식값을 고르면?

- 甲, 乙, 丙이 가위바위보를 하여 음식값 내기를 하고 있다.

○ 라운드당 한 번씩 가위바위보를 하여 음식값을 낸 사람을 정하며 총 5라운드를 겨룬다.

○ 가위바위보에서 승패가 가려진 경우 패자는 해당 라운드의 음식값을 낸다.

○ 비긴 경우에는 세 사람이 모두 음식값을 낸다. 단, 직전 라운드 가위바위보의 승자는 음식값을 내지 않는다.

○ 음식값을 낸 사람이 2명 이상인 라운드에서는 음식값을 낸 사람들이 동일한 비율로 음식값을 나누어 낸다.

○ 甲은 가위 - 바위 - 보 - 가위 - 바위를 순서대로 낸다.

○ 乙은 1라운드에서 바위를 낸 후 2라운드부터는 직전 라운드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경우 가위를, 비긴 경우 바위를, 진 경우 보를 낸다. 단, 乙이 직전 라운드에서 음식값을 낸 경우에는 가위를 낸다.

○ 丙은 1라운드에서 바위를 낸 후 2라운드부터는 직전 라운드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경우 보를, 비긴 경우 바위를, 진 경우 가위를 낸다.

※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라운드별 음식값>

라운드	1	2	3	4	5
음식값(원)	12,000	15,000	18,000	25,000	30,000

	음식값을 가장 많이 낸 사람	음식값
①	甲	57,000원
②	乙	44,000원
③	乙	51,500원
④	丙	44,000원
⑤	丙	51,500원

2021 5급 (가) 11번

문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 甲과 乙은 조선시대 왕의 계보를 외우는 놀이를 한다.
 ☐ 甲과 乙은 번갈아가며 직전에 나온 왕의 다음 왕부터 순차적으로 외친다.
 ☐ 한 번에 최소 1명, 최대 3명의 왕을 외칠 수 있다.
 ☐ 甲이 제1대 왕 ‘태조’부터 외치면서 놀이가 시작되고, 누군가 마지막 왕인 ‘순종’을 외치면 놀이가 종료된다.
 ☐ ‘조’로 끝나는 왕 2명 이상을 한 번에 외칠 수 없다.
 ☐ 반정(反正)에 성공한 왕은 해당 반정으로 폐위(廢位)된 왕과 함께 외칠 수 없다.

- 중종 반정: 연산군 폐위
 - 인조 반정: 광해군 폐위

<조선시대 왕의 계보>

1	태조	10	연산군	19	숙종
2	정종	11	중종	20	경종
3	태종	12	인종	21	영조
4	세종	13	명종	22	정조
5	문종	14	선조	23	순조
6	단종	15	광해군	24	헌종
7	세조	16	인조	25	철종
8	예종	17	효종	26	고종
9	성종	18	현종	27	순종

- ① 甲이 ‘명종’까지 외쳤다면, 甲은 ‘인조’를 외칠 수 없다.
 ② 甲과 乙이 각각 6번씩 외치는 것으로 놀이가 종료될 수 있다.
 ③ 甲이 ‘인종, 명종, 선조’를 외쳤다면, ‘연산군’은 甲이 외친 것이다.
 ④ 甲이 첫 차례에 3명의 왕을 외친다면, 甲은 자신의 다음 차례에 ‘세조’를 외칠 수 있다.
 ⑤ ‘순종’을 외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라면, 甲이 ‘영조’를 외쳤을 때 乙은 甲의 선택에 관계없이 승리할 수 있다.

2022 5급 (나) 31번

문 3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5세트가 시작한 시점에 경기장에 남아 있는 관람객 수의 최댓값은?

- 총 5세트의 배구경기에서 각 세트를 이길 때마다 세트 점수 1점을 획득하여 누적 세트 점수 3점을 먼저 획득하는 팀이 승리한다.
 - 경기 시작 전, 경기장에는 홈팀을 응원하는 관람객 5,000명과 원정팀을 응원하는 관람객 3,000명이 있었다.
 - 각 세트가 끝날 때마다 누적 세트 점수가 낮은 팀을 응원하는 관람객이 경기장을 나가는데, 홈팀은 1,000명, 원정팀은 500명이 나간다.
 - 경기장을 나간 관람객은 다시 들어오지 못하며, 경기 중간에 들어온 관람객은 없다.
 - 경기는 원정팀이 승리했으나 홈팀이 두 세트를 이기며 분전했다.

- ① 6,000명
- ② 6,500명
- ③ 7,000명
- ④ 7,500명
- ⑤ 8,000명

2023 5급 (가) 29번

29.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얻을 수 있는 득점 총합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옳게 짝지은 것은?

두 선수가 겨루는 어느 스포츠 종목의 경기 규칙은 다음과 같다.

- 한 경기는 최대 3세트까지 진행되며, 한 선수가 두 세트를 이기면 그 선수가 승자가 되고 경기가 종료된다.
- 1~2세트는 15점을 먼저 득점하는 선수가 이기며, 3세트는 10점을 먼저 득점하는 선수가 이긴다.
- 단, 1~2세트는 점수가 14:14가 되면 점수가 먼저 2점 앞서거나 20점에 먼저 도달하는 선수가 이기며, 3세트는 점수가 9:9가 되면 점수가 먼저 2점 앞서거나 15점에 먼저 도달하는 선수가 이긴다.
- 경기 결과(세트 스코어)에 따른 승자와 패자의 승점은 다음과 같다.

경기 결과 (세트 스코어)	승점	
	경기 승자	경기 패자
2:0	3	0
2:1	2	1

<상 황>

甲은 두 경기를 하여 승점 4점을 얻었다.

	최댓값	최솟값
①	93	45
②	93	50
③	108	45
④	108	50
⑤	111	52

2024 5급 (나) 36번

3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음은 甲 스포츠 팀의 시즌 11번째, 12번째 경기의 결과와 직전 10개 경기 전적을 나타낸 것이다.

구분	11번째 경기	12번째 경기
결과	㉠	㉡
직전 10개 경기 전적	6승 4패	㉢

- <보 기>
- ㄱ. ㉠이 ‘패’라면, ㉢은 ‘6승 4패’가 될 수 없다.

ㄴ. ㉠이 ‘승’이고 ㉢이 ‘7승 3패’라면, ㉡은 ‘승’이다.

ㄷ. ㉠이 ‘승’이고 ㉢이 ‘6승 4패’라면, 시즌 1번째 경기의 결과는 ‘승’이다.

ㄹ. ㉠, ㉡이 모두 ‘패’이고 ㉢이 ‘5승 5패’라면, 시즌 13번째 경기의 직전 10개 경기 전적은 ‘4승 6패’이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ㄹ
- ⑤ ㄷ, ㄹ

2025 5급 (가) 35번

3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게임의 2회차와 5회차에서 탈락한 사람 수의 합은?

조커는 TV에서 방영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시청하고 있다. 이 게임은 49명이 참여하고, 탈락하지 않은 사람이 25명 미만이 되었을 때 종료된다. 조커는 회차별로 탈락한 사람의 수가 2의 배수일 때 ‘싱긋’ 소리를 내고, 2의 배수가 아닐 때 ‘짹긋’ 소리를 낸다. 또한 조커는 탈락하지 않은 사람의 수가 3의 배수일 때 웃고, 3의 배수가 아닐 때 운다.

게임은 5회차를 마치고 종료되었다. 각 회차마다 탈락한 사람은 1명 이상이었으며, 그 수는 서로 달랐다. 또한 3회차에서는 14명이 탈락했고, 3회차를 제외하고는 10명 이상이 탈락한 회차는 없었다. 각 회차별 조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소리	싱긋	짹긋	싱긋	싱긋	싱긋
표정	웃는다	웃는다	운다	운다	운다

- ① 5
- ② 7
- ③ 9
- ④ 11
- ⑤ 13

2016 민경채 (5) 21번

문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1단계에서 甲이 나눈 두 묶음의 구슬 개수로 옳은 것은?

甲은 아래 세 개의 단계를 순서대로 거쳐 16개의 구슬을 네 묶음으로 나누었다. 네 묶음의 구슬 개수는 각각 1개, 5개, 5개, 5개이다.

○ 1단계 : 16개의 구슬을 두 묶음으로 나누어, 한 묶음의 구슬 개수가 다른 묶음의 구슬 개수의 n 배(n 은 자연수)가 되도록 했다.

○ 2단계 : 5개 이상의 구슬이 있던 한 묶음에서 다른 묶음으로 5개의 구슬을 옮겼다.

○ 3단계 : 두 묶음을 각각 두 묶음씩으로 다시 나누어 총 네 묶음이 되도록 했다.

- ① 8개, 8개
- ② 11개, 5개
- ③ 12개, 4개
- ④ 14개, 2개
- ⑤ 15개, 1개

2019 민경채 (나) 18번

문 1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방에 출입한 사람의 순서는?

방에는 1부터 6까지의 번호가 각각 적힌 6개의 전구가 다음과 같이 놓여있다.

왼쪽 ←

→ 오른쪽

전구 번호	1	2	3	4	5	6
상태	켜짐	켜짐	켜짐	꺼짐	꺼짐	꺼짐

총 3명(A ~ C)이 각각 한 번씩 홀로 방에 들어가 자신이 정한 규칙에 의해서만 전구를 켜거나 끄고 나왔다.

○ A는 번호가 3의 배수인 전구가 켜진 상태라면 그 전구를 끄고, 꺼진 상태라면 그대로 둔다.

○ B는 번호가 2의 배수인 전구가 켜진 상태라면 그 전구를 끄고, 꺼진 상태라면 그 전구를 켜는다.

○ C는 3번 전구는 그대로 두고, 3번 전구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중 켜진 전구의 개수가 많은 쪽의 전구를 전부 끈다. 다만 켜진 전구의 개수가 같다면 양쪽에 켜진 전구를 모두 끈다.

마지막 사람이 방에서 나왔을 때, 방의 전구는 모두 꺼져 있었다.

- ① A - B - C
- ② A - C - B
- ③ B - A - C
- ④ B - C - A
- ⑤ C - B - A

2025 7급 추가 (핵) 24번

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첫 번째 다람쥐와 다섯 번째 다람쥐가 옮긴 도토리 개수의 합은?

볼에 도토리를 5개까지 넣을 수 있는 다람쥐 5마리가 겨울을 맞이하여 각자의 저장고에 도토리를 2개씩 남겨 놓았다. 그 뒤 다람쥐들은 각자 한 번만 다른 다람쥐 1마리의 저장고에 가서 도토리를 볼에 넣어 또 다른 다람쥐 1마리의 저장고에 옮겨 놓았다. 그러고는 겨울잠에 들었다. 5마리의 다람쥐가 1마리씩 순서대로 도토리를 옮기는 모습을 다 지켜본 곰은, 다람쥐들이 서로 다른 개수의 도토리를 옮겼는데도, 결국 각 저장고에 원래 개수대로 2개씩 남게 된 것을 신기해하며 겨울잠에 들었다.

- ① 3
- ② 4
- ③ 5
- ④ 6
- ⑤ 7

2025 5급 (가) 15번

1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문구점에 들어갈 때 휴대하였던 동전의 개수는?

- 甲은 ‘머니’라는 화폐 단위를 사용하는 A국에 살고 있다.

○ A국 화폐는 1,000머니와 500머니의 지폐, 100머니와 50머니의 동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현금만 사용하는 甲은 현금 휴대에 따르는 불편함을 수치화한 ‘불편지수’를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

불편지수 = 휴대한 지폐 개수 × 3 + 휴대한 동전 개수 × 1

○ 甲은 불편지수가 최소가 되도록 현금을 휴대한다. 이는 거스름돈을 받을 때도 적용된다.

————— <상 황> —————

甲은 문구점에서 850머니를 결제하고 거스름돈을 받았으며, 이때 불편지수는 9였다. 다음 꽃집에서 1,000머니를 결제하고 남은 현금 중 동전은 3개였다. 마지막으로 편의점에서 800머니를 결제하고 거스름돈을 받았다. 그 결과 甲에게 지폐는 남아 있지 않았다.

-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2017 민경채 (나) 24번

문 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재생된 곡의 순서로 옳은 것은?

- 찬우는 A, B, C, D 4개의 곡으로 구성된 앨범을 감상하고 있다. A는 1분 10초, B는 1분 20초, C는 1분 00초, D는 2분 10초간 재생되며, 각각의 곡 첫 30초는 전주 부분이다.

○ 재생순서는 처음에 설정하여 이후 변경되지 않으며, 찬우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곡당 1회씩 포함하여 설정하였다.

○ 한 곡의 재생이 끝나면 시차 없이 다음 곡이 자동적으로 재생된다.

○ 마지막 곡 재생이 끝나고 나면 첫 곡부터 다시 재생된다.

○ 모든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건너뛰지 않고 재생된다.

○ 찬우는 13시 20분 00초부터 첫 곡을 듣기 시작했다.

○ 13시 23분 00초에 C가 재생되고 있었다.

○ A를 듣고 있던 어느 한 시점부터 3분 00초가 되는 때에는 C가 재생되고 있었다.

○ 13시 45분 00초에 어떤 곡의 전주 부분이 재생되고 있었다.

- ① A - B - C - D

② B - A - C - D

③ C - A - D - B

④ D - C - A - B

⑤ D - C - B - A

2011 5급 (선) 37번

문 37. 甲은 어제 A, B 휴게실을 갖춘 도서관에 갔다. 다음을 근거로 판단할 때 거짓말을 한 사람은?

— <조 건> —

1. 甲은 오전 10시부터 같은 날 오후 5시까지 도서관을 이용하였다.
2. 각 휴게실은 오전 10시부터 음악리스트의 첫 번째 곡부터 순서대로 틀기 시작한다.
3. 음악리스트의 마지막 곡이 끝나면 첫 번째 곡부터 다시 시작되며 이 과정은 도서관 운영 종료 시까지 계속 반복된다.
4. 도서관 이용자는 A, B 휴게실을 둘 다 갈 수 있으며 드나드는 횟수에 제한은 없다.
5. 甲은 음악리스트의 곡들 중 베토벤의 곡만 들으며 휴게실과 열람실 사이를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6. 甲은 베토벤의 곡이 나올 때는 반드시 휴게실에서 음악을 들으며, 베토벤의 곡이 나오지 않을 때는 반드시 열람실에서 공부한다.
7. 甲은 음악리스트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으며 원하는 곡이 언제 나오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8. 모든 곡은 길이가 2분이며 곡과 곡 사이의 시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9. 甲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간 동안 A, B 휴게실 혹은 열람실에 반드시 머문다.

<A휴게실의 음악리스트>

- 전체 곡의 수는 22곡
- 베토벤의 곡은 1곡이며 음악리스트의 12번째에 위치해 있다.

<B휴게실의 음악리스트>

- 전체 곡의 수는 31곡
- 베토벤의 곡은 4곡이며 음악리스트의 1번째, 10번째, 12번째, 24번째에 위치해 있다.

- ① 수민: 전 어제 오전 11시 7분에 甲이 A휴게실에서 음악을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 ② 태연: 전 어제 오전 11시 30분에 甲이 열람실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 ③ 지영: 전 어제 오전 11시 21분에 B휴게실에서 甲과 함께 음악을 들었습니다.
- ④ 성환: 전 어제 낮 12시 30분에 甲이 열람실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 ⑤ 정혁: 전 어제 낮 12시 27분에 甲이 열람실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025 5급 (가) 13번

13.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새로 빌려온 책의
마지막 쪽을 읽는 요일은?

甲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책을 읽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책을 읽지 않는다. 또한 甲은 새로운 책을 읽기 시작할 때 요일마다 쪽수(자연수)를 정해놓고 순서대로 읽는다. 예를 들어, 甲이 월요일에 세 쪽을 읽고 수요일에 다섯 쪽을 읽기로 정했다면, 매주 월요일마다 세 쪽을 다 읽고 매주 수요일마다 다섯 쪽을 다 읽는 것이다.

——— <상 황> ———

甲은 새로 빌려온 책(1 ~ 74쪽)을 화요일에 1쪽부터 읽기 시작했다. 甲이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책을 읽고 나서 마지막으로 읽은 쪽의 쪽번호를 보니 17이었다. 이틀 뒤에 책을 읽고 나서 마지막으로 읽은 쪽의 쪽번호를 보니 23이었다. 책을 사흘 더 읽은 후 마지막으로 읽은 쪽의 쪽번호를 보니 31이었다.

- ① 월요일
- ② 화요일
- ③ 수요일
- ④ 목요일
- ⑤ 금요일

2023 7급 (인) 24번

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시계수리공 甲은 고장 난 시계 A를 수리하면서 실수로 시침과 분침을 서로 바꾸어 조립하였다. 잘못 조립한 것을 모르고 있던 甲은 A에 전지를 넣어 작동시킨 후, A를 실제 시각인 정오로 맞추고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그랬더니 A의 시침은 정상일 때의 분침처럼, 분침은 정상일 때의 시침처럼 움직였다. 그 후 A가 처음으로 실제 시각을 가리킨 때는 ㉠ 사이였다.

- ① 오후 12시 55분 0초부터 오후 1시 정각
- ② 오후 1시 정각부터 오후 1시 5분 0초
- ③ 오후 1시 5분 0초부터 오후 1시 10분 0초
- ④ 오후 1시 10분 0초부터 오후 1시 15분 0초
- ⑤ 오후 1시 15분 0초부터 오후 1시 20분 0초

2015 5급 (인) 37번

문 37. 다음 <조건>과 <예시>를 근거로 판단할 때, <문자메시지>가 의미하는 실제접선시각은?

<조 건>

○ 비밀요원 가영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나리와 접선하려 한다. 가영과 나리는 시침과 분침이 독립적으로 조작되는 모형 아날로그시계를 사용하는 위장코드를 고안했다.

○ 고안한 위장코드를 해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C_n: 시계 정가운데를 중심으로 하여 시계방향으로 시침과 분침을 각각 $\frac{360^\circ}{n}$ 만큼 회전

(2) N: 12시와 6시를 잇는 직선을 축으로 시침과 분침을 각각 좌우 대칭 이동

(3) W: 3시와 9시를 잇는 직선을 축으로 시침과 분침을 각각 상하 대칭 이동

○ 문자메시지는 위장접선시각과 위장코드로 구성된다. 해독할 때는 먼저 모형 아날로그시계의 시침과 분침을 위장접선시각에 정확히 위치시킨다. 그리고 위장코드를 왼쪽부터 해독하여 모형 아날로그시계에 적용한다. 위장코드 모두를 적용한 이후 실제접선시각의 시(時)는 시침이 의미하는 시각의 시(時)를 사용하고, 실제접선시각의 분(分)은 분침이 의미하는 분(分)을 사용한다.

○ 가영은 나리에게 위장접선시각과 위장코드가 순서대로 배열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 가영과 나리는 늘 오후에만 접선한다.

- ※ 모형 아날로그시계는 12시간 표시 방식이다.
- ※ 그 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예 시>

문자메시지 ‘7시 30분 C₄’가 의미하는 실제접선시각을 구하기 위해 먼저 모형 아날로그시계의 시침과 분침을 위장접선시각인 7시 30분에 위치시킨다. 그리고 시침을 시계방향으로 90° 회전시켜 10과 11 사이에 위치시키며, 분침을 시계방향으로 90° 회전시켜 45분에 위치시킨다. 위장코드를 적용한 이후 시침이 의미하는 시각의 시(時)는 10시이고 분침이 의미하는 분(分)은 45분이다. 따라서 실제 접선시각은 오후 10시 45분이 된다.

<문자메시지>

9시 16분 N C₆ W

- ① 오후 1시 34분
- ② 오후 1시 36분
- ③ 오후 2시 34분
- ④ 오후 2시 36분
- ⑤ 오후 3시 34분

840

840

2021 5급 (가) 13번

문 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가장 먼저 교체될 시계와 가장 나중에 교체될 시계를 옳게 짝지은 것은?

甲부서에는 1 ~ 12시 눈금표시가 된 5개의 벽걸이 시계(A ~ E)가 있다. 그런데 A는 시침과 분침이 모두 멈춰버려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다. B는 정확한 시계보다 하루에 1분씩 느려지는 시계다. C는 정확한 시계보다 하루에 1시간씩 느려지는 시계다. D는 정확한 시계보다 하루에 2시간씩 느려지는 시계다. E는 정확한 시계보다 하루에 5분씩 빨라지는 시계다.

甲부서는 5개의 시계를 순차적으로 교체하려고 한다. 앞으로 1년 동안 정확한 시계와 일치하는 횟수가 적을 시계부터 순서대로 교체한다.

※ B ~ E는 각각 일정한 속도로 작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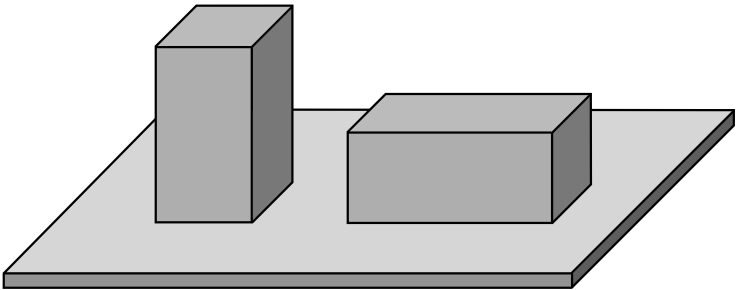
	가장 먼저 교체될 시계	가장 나중에 교체될 시계
①	A	C
②	B	A
③	B	D
④	D	A
⑤	D	E

2011 민경채 (인) 6번

문 6. 두 개의 직육면체 건물이 아래와 같다고 할 때, (나)건물을 페인트 칠 하는 작업에 필요한 페인트는 최소 몇 통인가? (단, 사용되는 페인트 통의 용량은 동일하다)

(가)건물

(나)건물



☐ (가)건물 밑면은 정사각형이며, 높이는 밑면 한 변 길이의 2배이다.

☐ (나)건물은 (가)건물을 그대로 눕혀놓은 것이다.

☐ 페인트는 각 건물의 옆면 4개와 윗면에 (가)와 (나)건물 모두 같은 방식으로 칠한다.

☐ (가)건물을 페인트칠 하는 작업에는 최소 36통의 페인트가 필요했다.

- ① 30통
- ② 32통
- ③ 36통
- ④ 42통
- ⑤ 45통

2016 민경채 (5) 18번

문 1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둘째 딸에게 물려 주려는 땅의 크기는?

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접할 때, 안쪽에서 접하는 것을 내접, 바깥쪽에서 접하는 것을 외접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한 개의 원이 다각형의 모든 변에 접할 때, 그 다각형은 원에 외접한다고 하며 원은 다각형에 내접한다고 한다. 한편 원이 한 다각형의 각 꼭짓점을 모두 지날 때 그 원은 다각형에 외접한다고 하며, 다각형은 원에 내접한다고 한다. 정다각형은 반드시 내접원과 외접원을 가지게 된다.

——— <상 황> ———

甲은 죽기 전 자신이 가진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0 m인 정사각형의 땅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주겠다는 유서를 작성하였다.

“내 전 재산인 정사각형의 땅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고, 다시 그 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린다. 그 내접하는 정사각형에 해당하는 땅을 첫째 딸에게 주고, 나머지 부분은 둘째 딸에게 물려준다.”

- ① 4,000 m²
- ② 5,000 m²
- ③ 6,000 m²
- ④ 7,000 m²
- ⑤ 8,000 m²

2022 7급 (가) 19번

문 1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군 양봉농가의 최대 수는?

- ☐ A군청은 양봉농가가 안정적으로 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양봉농가 간 거리가 12 km 이상인 경우에만 양봉을 허가하고 있다.

☐ A군은 반지름이 12 km인 원 모양의 평지이며 군 경계를 포함한다.

☐ A군의 외부에는 양봉농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 양봉농가의 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 ① 5개

② 6개

③ 7개

④ 8개

⑤ 9개

2025 7급 추가 (핵) 6번

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외부에 노출된 콘크리트 블록(A ~ H) 면의 개수는?

甲은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 콘크리트 블록 8개(A ~ H)를 다음 규칙에 따라 배치하였다.

○ 외부에 노출된 면의 개수가 최소가 되도록 콘크리트 블록을 배치해야 한다.

- ‘외부에 노출된’ 면이란 다른 콘크리트 블록과 맞대지 않은 면이다. 따라서 바닥에 닿는 면도 외부에 노출된 면이다.

- 콘크리트 블록이 다른 블록과 면을 맞댈 때에는 맞닿는 면 전체가 서로 남김없이 닿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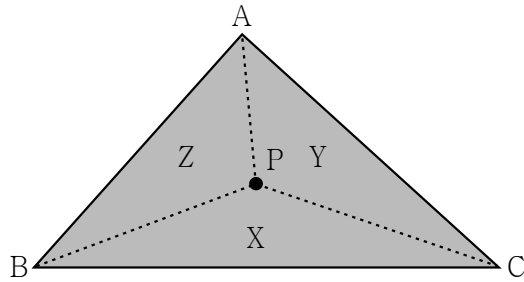
- ① 20
- ② 24
- ③ 28
- ④ 32
- ⑤ 36

2013 외교 (인) 37번

문 37. 다음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조 건> —

삼각형의 내부(각 꼭지점과 각 변 포함)의 한 점을 표시할 때, 세 개의 좌표축을 사용하는 무게중심 좌표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위 삼각형에서 내부의 한 점 P를 잡았을 때, $\triangle PBC$, $\triangle PCA$, $\triangle PAB$ 의 면적이 차례대로 X , Y , Z 인 경우, 좌표값을 $x = X/(X + Y + Z)$, $y = Y/(X + Y + Z)$, $z = Z/(X + Y + Z)$ 로 정의하여 $P(x, y, z)$ 와 같이 내부의 점을 표시한다.
2. 삼각형의 각 꼭지점은 무게중심 좌표계로 나타냈을 때, $A(1, 0, 0)$, $B(0, 1, 0)$ 그리고 $C(0, 0, 1)$ 로 표시된다.

※ 삼각형의 무게중심에서 삼각형의 꼭지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세 삼각형의 면적은 모두 같다.

— <보 기> —

- ㄱ. $\triangle ABC$ 의 세 변 AB , BC , CA 위에 존재하는 점 중에서 꼭지점 A , B , C 를 제외한 나머지 점을 무게중심 좌표계로 나타냈을 때, 좌표값 중 한 개는 반드시 0이다.
- ㄴ. 각 꼭지점과 각 변에 존재하는 점을 제외한 삼각형 내부의 점을 무게중심 좌표계로 나타냈을 때, 각 좌표값 x , y , z 는 0과 1 사이의 정수로 표시된다.
- ㄷ.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G 라 하고, 이를 무게중심 좌표계로 나타내면 $G(1/3, 1/3, 1/3)$ 로 표시된다.
- ㄹ. $\triangle ABC$ 의 내부에 변 BC 와 평행한 임의의 선분을 표시한다. 그 선분 위에 존재하는 점 P_1 , P_2 를 무게중심 좌표계로 나타내면, 각각 $P_1(x_1, y_1, z_1)$, $P_2(x_2, y_2, z_2)$ 로 표시되고, 좌표값 x_1 과 x_2 는 항상 동일하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16 5급 (4) 10번

문 1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 내전을 겪은 甲국은 2015년 1월 1일 평화협정을 통해 4개 국(A ~ D)으로 분할되었다. 평화협정으로 정한 영토분할 방식은 다음과 같다.

 - 甲국의 영토는 정삼각형이다.
 - 정삼각형의 한 꼭짓점에서 마주보는 변(이하 ‘밑변’이라 한다)까지 가상의 수직이등분선을 긋고, 그 선을 4등분 하는 3개의 구분점을 정한다.
 - 3개의 구분점을 각각 지나는 3개의 직선을 밑변과 평행하게 긋고, 이를 국경선으로 삼아 기존 甲국의 영토를 4개의 영역으로 나눈다.
 - 나누어진 4개의 영역 중 가장 작은 영역부터 가장 큰 영역까지 차례로 각각 A국, B국, C국, D국의 영토로 한다.

○ 모든 국가의 쌀 생산량은 영토의 면적에 비례하며, A국의 영토에서는 매년 10,000가마의 쌀이 생산된다.

○ 각국은 영토가 작을수록 국력이 강하고, 국력이 약한 국가는 자국보다 국력이 강한 모든 국가에게 매년 연말에 각각 10,000가마의 쌀을 공물로 보낸다.

○ 4개 국의 인구는 모두 동일하며, 변하지 않는다. 각국은 매년 10,000가마의 쌀을 소비한다.

○ 각국의 쌀 생산량은 홍수 등 자연재해가 없는 한 변하지 않으며, 2015년 1월 1일 현재 각국은 10,000가마의 쌀을 보유하고 있다.

- <보 기> ———

ㄱ. 2016년 1월 1일에 1년 전보다 쌀 보유량이 줄어든 국가는 D국뿐이다.

ㄴ. 2017년 1월 1일에 4개 국 중 가장 많은 쌀을 보유한 국가는 A국이다.

ㄷ. 만약 2015년 여름 홍수로 인해 모든 국가의 2015년도 쌀 생산량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여도, 2016년 1월 1일 기준 각 국가의 쌀 보유량은 0보다 크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ㄷ
- ⑤ ㄴ, ㄷ

2018 5급 (나) 16번

문 1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도시는?

- 甲지역에는 7개의 도시(A ~ G)가 있다.

○

E, F, G는 정남북 방향으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며, B는 C로부터 정동쪽으로 250 km 떨어져 있다.

○

C는 A로부터 정남쪽으로 150 km 떨어져 있다.

○

D는 B의 정북쪽에 있으며, B와 D 간의 거리는 A와 C 간의 거리보다 짧다.

○

E와 F 간의 거리는 C와 D 간의 직선거리와 같다.

○

G는 D로부터 정동쪽으로 350 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A의 정동쪽에 위치한 도시는 F가 유일하다.

※ 모든 도시는 동일 평면상에 있으며, 도시의 크기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B

② D

③ E

④ F

⑤ G

2012 민경채 (인) 9번

문 9. 다음 글에 근거할 때, 甲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래
작물(A ~ D)만을 재배하여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은?

甲은 각 작물별 재배 기간과 재배 가능 시기를 고려하여
작물 재배 계획을 세우고자 한다. 아래 <표>의 네 가지 작물
중 어느 작물이든 재배할 수 있으나, 동시에 두 가지 작물을
재배할 수는 없다. 또한 하나의 작물을 같은 해에 두 번
재배할 수도 없다.

<표> 작물 재배 조건

작물	1회 재배 기간	재배 가능 시기	1회 재배로 얻을 수 있는 소득
A	4개월	3월 1일 ~ 11월 30일	800만 원
B	5개월	2월 1일 ~ 11월 30일	1,000만 원
C	3개월	3월 1일 ~ 11월 30일	500만 원
D	3개월	2월 1일 ~ 12월 31일	350만 원

- ① 1,500만 원
- ② 1,650만 원
- ③ 1,800만 원
- ④ 1,850만 원
- ⑤ 2,150만 원

2014 민경채 (A) 23번

문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표>의 화장 단계 중 7개만을 선택하였을 경우 甲의 최대 매력 지수는?

- 아침마다 화장을 하고 출근하는 甲의 목표는 매력 지수의 합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다.

○

화장 단계별 매력 지수와 소요 시간은 아래의 <표>와 같다.

○

20분 만에 화장을 하면 지각하지 않고 정시에 출근할 수 있다.

○

회사에 1분 지각할 때마다 매력 지수가 4점씩 깎인다.

○

화장은 반드시 ‘로션 바르기 → 수분크림 바르기 → 썸크림 바르기 → 피부화장 하기’ 순으로 해야 하며, 이 4개 단계는 생략할 수 없다.

○

피부화장을 한 후에 눈썹 그리기, 눈화장 하기, 립스틱 바르기, 속눈썹 붙이기를 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는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다.

○

동일 화장 단계는 반복하지 않으며, 2개 이상의 화장 단계는 동시에 할 수 없다.

<표>

화장 단계	매력 지수(점)	소요 시간(분)
로션 바르기	2	1
수분크림 바르기	2	1
썸크림 바르기	6	1.5
피부화장 하기	20	7
눈썹 그리기	12	3
눈화장 하기	25	10
립스틱 바르기	10	0.5
속눈썹 붙이기	60	15

- ① 53점

② 61점

③ 76점

④ 129점

⑤ 137점

2016 민경채 (5) 22번

문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甲은 <가격표>를 참고하여 <조건>에 따라 동네 치킨 가게(A ~ D)에서 치킨을 배달시켰다.

————— <조 건> —————

조건 1. 프라이드치킨, 양념치킨, 간장치킨을 한 마리씩 주문한다.

조건 2. 동일한 가게에 세 마리를 주문하지 않는다.

조건 3. 주문금액(치킨 가격 + 배달료)의 총 합계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가격표> (단위 : 원)

동네 치킨 가게	치킨 가격 (마리당 가격)			배달료	배달가능 최소금액
	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간장 치킨		
A	7,000	8,000	9,000	0	10,000
B	7,000	7,000	10,000	2,000	5,000
C	5,000	8,000	8,000	1,000	7,000
D	8,000	8,000	8,000	1,000	5,000

- ※ 배달료는 가게당 한 번만 지불한다.
- ① A가게에는 주문하지 않았다.
 - ② 총 주문금액은 23,000원이다.
 - ③ 주문이 가능한 경우의 조합은 총 네 가지이다.
 - ④ B가게가 휴업했더라도 총 주문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 ⑤ ‘조건 2’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총 주문금액은 22,000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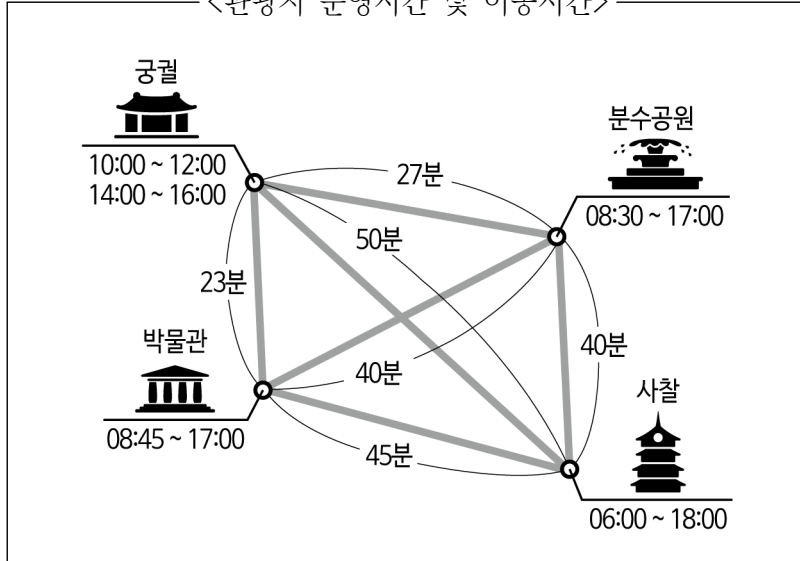
2017 민경채 (나) 25번

문 25. 다음 <조건>과 <관광지 운영시간 및 이동시간>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조 건>

- 하루에 4개 관광지를 모두 한 번씩 관광한다.
- 궁궐에서는 가이드투어만 가능하다. 가이드투어는 10시와 14시에 시작하며, 시작 시각까지 도착하지 못하면 가이드투어를 할 수 없다.
- 각 관광에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이며, 관광지 운영시간 외에는 관광할 수 없다.

<관광지 운영시간 및 이동시간>



<보 기>

- ㄱ. 사찰에서부터 관광을 시작해야 한다.
- ㄴ. 마지막 관광을 종료하는 시각은 16시 30분 이후이다.
- ㄷ. 박물관과 분수공원의 관광 순서가 바뀌어도 무방하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

2024 7급 (사) 15번

1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Q를 100리터 생산하는 데 드는 최소 비용은?

○ 화학약품 Q를 생산하려면 A와 B를 2 : 1의 비율로 혼합해야 한다. 이 혼합물을 가공하면 B와 같은 부피의 Q가 생산된다. 예를 들어, A 2리터와 B 1리터를 혼합하여 가공하면 Q 1리터가 생산된다.

○ A는 원료 X와 Y를 1 : 2의 비율로 혼합하여 만든다. 이 혼합물을 가공하면 X와 같은 부피의 A가 생산된다. 예를 들어, X 1리터와 Y 2리터를 혼합하여 가공하면 A 1리터가 생산된다.

○ B는 원료 Z와 W를 혼합하여 만들거나, Z나 W만 사용하여 만든다. Z와 W를 혼합하여 가공하면 혼합비율에 관계없이 원료 절반 부피의 B가 생산된다. 예를 들어, Z와 W를 1리터씩 혼합하여 가공하면 B 1리터가 생산된다. 두 재료를 혼합하지 않고 Z나 W만 사용하여 가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료 절반 부피의 B가 생산된다.

○ 각 원료의 리터당 가격은 다음과 같다. 원료비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원료	X	Y	Z	W
가격(만 원/리터)	1	2	4	3

- ① 1,200만 원
- ② 1,300만 원
- ③ 1,400만 원
- ④ 1,500만 원
- ⑤ 1,600만 원

2025 7급 (인) 14번

1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기업은 A, B 두 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두 공장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한다. A에서는 제품 생산을 위해 설비를 가동하는 데 1일 100만 원의 가동비용이 발생하며, 제품 1개를 생산할 때마다 1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B에서는 가동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제품 1개를 생산할 때마다 2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A, B 모두 하루에 각각 최대 150개까지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甲기업은 최소 비용으로 1일 목표 생산량 Q개를 달성하도록 생산량을 A, B에 배분한다.

- <보 기>
- ㄱ. Q가 120이라면 A에서만 생산해야 한다.
 - ㄴ. Q가 200이라면 B에서 150개를 생산해야 한다.
 - ㄷ. Q가 200일 때, A의 가동비용이 1일 50만 원으로 감소해도 A, B에 대한 배분량은 달라지지 않는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025 7급 (인) 16번

1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자격증 취득 시 지불해야 하는 최소 수강료는?

甲은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한다. 자격증 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인 A, B, C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3과목의 점수 합이 150점 이상이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지만, 어느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을 받은 경우에는 과락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甲은 학원에서 A, B, C 3과목을 모두 수강하되, 그중 2과목은 일반과정, 1과목은 속성과정으로 수강하려고 한다. 甲이 다니는 학원은 수강 과목의 취득점수에 따라 사후적으로 수강료를 부과한다. 다음은 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의 취득점수 1점당 수강료이다.

과목	취득점수 1점당 수강료(원)	
	일반과정	속성과정
A	5,000	10,000
B	3,000	7,000
C	10,000	13,000

- ① 810,000원
- ② 930,000원
- ③ 970,000원
- ④ 1,010,000원
- ⑤ 1,030,000원

2025 7급 추가 (핵) 22번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부처가 구성할 모니터링단의 인원수는?

A부처는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단속하기 위해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모니터링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 민간전문가, 관리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모니터링 업무의 수행주체별 1인당 보수와 예상 단속 건수는 다음과 같다.

수행주체	보수	예상 단속 건수
공무원	200만 원	80건
민간전문가	100만 원	50건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관리인력 1명은 최대 10명의 민간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를 받는다.

A부처는 예산범위 내에서 예상 단속 건수가 최대가 되도록 모니터링단의 인원을 구성한다.

- ① 15
- ② 17
- ③ 20
- ④ 25
- ⑤ 27

2012 5급 (인) 12번

문 12. 甲조선포는 6척(A~F)의 선박 건조를 수주하였다. 오늘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선박을 건조할 계획이며 甲조선포의 하루 최대투입가능 근로자 수는 100명이다. 다음 <공정표>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작업은 오늘부터 개시되며 각 근로자는 자신이 투입된 선박의 건조가 끝나야만 다른 선박의 건조에 투입될 수 있다)

<공정표>

상품(선박)	소요기간	1일 필요 근로자 수	수익
A	5일	20명	15억 원
B	10일	30명	20억 원
C	10일	50명	40억 원
D	15일	40명	35억 원
E	15일	60명	45억 원
F	20일	70명	85억 원

※ 1일 필요 근로자 수 이상의 근로자가 투입되더라도 선박당 건조 소요기간은 변하지 않는다.

<보 기>

- ㄱ. 甲조선포가 건조할 수 있는 선박의 수는 최대 4척이다.
 ㄴ. 甲조선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최대 160억 원이다.
 ㄷ. 계획한 기간이 15일 연장된다면 수주한 모든 선박을 건조할 수 있다.
 ㄹ. 최대투입가능 근로자 수를 120명/일로 증가시킨다면 계획한 기간 내에 모든 선박을 건조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12 5급 (인) 15번

문 15. 甲은 6층 회사건물을 각 층마다 모두 순찰한 후에 퇴근한다.
다음 <조건>에 따라 1층에서 출발하여 순찰을 완료하고 1층으로
돌아오기까지 소요되는 최소 시간은? (단, <조건>외의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 <조 건> ———

 - 층간 이동은 엘리베이터로만 해야 하며 엘리베이터가 한 개 층을 이동하는 데는 3분이 소요된다.
 - 엘리베이터는 한 번에 최대 세 개 층(예: 1층 → 4층)을 이동할 수 있다.
 - 엘리베이터는 한 번 위로 올라갔으면, 그 다음에는 아래 방향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다시 위 방향으로 올라가야 한다.
 - 하나의 층을 순찰하는 데는 5분이 소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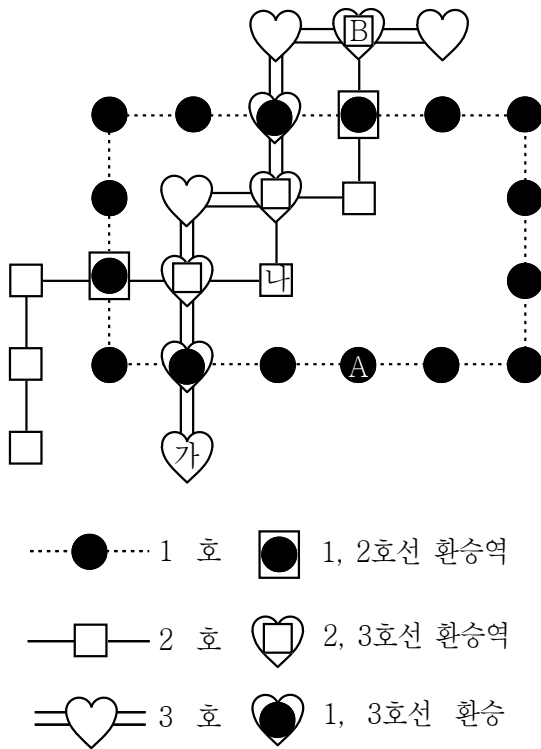
- ① 1시간
- ② 1시간 12분
- ③ 1시간 18분
- ④ 1시간 24분
- ⑤ 1시간 30분

2012 5급 (인) 19번

문 19. 현재 A역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B역 부근의 산업단지까지 지하철로 출근한다. 최근 A역과 다른 역을 잇는 셔틀버스 신설안이 제시되었다. 다음 <조건>과 <대안>에 근거할 때, A역에서 B역까지 출근 소요시간이 짧은 경우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조 건>

○ 지하철 노선도는 아래와 같다.



- A역 부근의 주민이 지하철 또는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집에서 A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 지하철이나 셔틀버스는 대기시간 없이 바로 탈 수 있다.
- 역과 역 사이의 운행 소요시간은 1호선 6분, 2호선 4분, 3호선 2분이다(정차시간은 고려하지 않음).
- 셔틀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할 때나 지하철 노선간 환승 시에는 3분이 소요된다.

<대 안>

- 대안 1 : A역에서 가역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신설하며, 이 때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은 5분이다.
- 대안 2 : A역에서 나역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신설하며, 이 때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은 8분이다.

- ① 대안 1, 대안 2, 현재 상태
- ② 대안 2, 대안 1, 현재 상태
- ③ 대안 1 = 대안 2, 현재 상태
- ④ 대안 1, 대안 2 = 현재 상태
- ⑤ 대안 2, 대안 1 = 현재 상태

2012 5급 (인) 32번

문 32. 甲은 2월 15일(일요일)부터 4일간 A도시의 관광명소를 관람하려고 한다. A도시는 주요 관광명소를 관람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인 시티 투어 패스(City Tour Pass)를 판매하고 있다. 다음 <관광 정보>와 <조건>에 근거할 때, 甲이 아래 7곳의 관광명소(a~g)를 모두 관람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은?

<관광 정보>

		관람료(€)	휴관	패스 사용 가능 여부
a	박물관	9	화요일	가능
b	미술관	8	월요일	가능
c	박물관	9	없음	불가능
d	미술관	8	없음	가능
e	타워	7	일요일	불가능
f	타워	8	없음	가능
g	본궁	13	없음	가능 (단, 정원에는 사용불가)
	정원	8		
	별궁	10		

<시티 투어 패스 가격>

구분	가격(€)/매
2일 패스	32
4일 패스	48
6일 패스	64

- <조 건>
- 하루에 2곳의 관광명소까지만 관람할 수 있다.
 - g 궁전 관람에는 1일이 소요되며 궁전의 일부만 관람하는 경우에도 소요시간은 동일하다.
 - 시티 투어 패스는 개시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g 궁전의 경우 본궁·정원·별궁 모두 관람해야 하며, 세 곳 모두 관람이 가능한 1일권을 판매하고 있다 (월~금: 21€, 토~일: 25€).

- ① 64 €
- ② 69 €
- ③ 70 €
- ④ 72 €
- ⑤ 73 €

2013 5급 (인) 11번

문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P공단에는 甲과 乙 두 개의 공장만 있으며 공장 소유주는 동일인이다. 현재 두 공장 모두 각각 60단위의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있다. 정화비용은 오염물질 단위당 甲 공장에서는 100만 원이 들고, 乙 공장에서는 200만 원이 들어간다. P공단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방식에는 다음 (가)와 (나) 두 가지가 있다.

(가) 각 공장별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최대 50단위로 설정되어 있고, 각 공장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공장은 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정화처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나) 각 공장별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고, 공단 전체가 배출할 수 있는 총 오염물질의 양이 최대 100단위로 설정되어 있다. 공단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따라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정화처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보 기> ———

ㄱ. (가)의 방식을 적용할 때, P공단이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ㄴ. 공장 소유주의 입장에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ㄷ. 공장 소유주가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면, (가)의 방식 보다 (나)의 방식이 P공단의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을 더 줄일 수 있다.

ㄹ. (나)의 방식을 적용할 때, 공장 소유주가 비용을 최소화 하고자 하면 甲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乙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보다 더 적어진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17 5급 (가) 27번

문 27. 다음 글과 <표>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수현과 혜연은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이고, 결혼까지 준비해야 할 항목이 7가지 있다.
- 결혼 당사자인 수현과 혜연은 준비해야 할 항목들에 대해 선호를 가지고 있으며, 양가 부모 또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 이 때 ‘선호도’가 높을수록 우선순위가 높다.
- ‘선호도’는 ‘투입 대비 만족도’로 산출한다.
- ‘종합 선호도’는 각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text{종합 선호도} = \frac{\{(\text{결혼 당사자의 만족도}) + (\text{양가 부모의 만족도})\}}{\{(\text{결혼 당사자의 투입}) + (\text{양가 부모의 투입})\}}$$

〈丑〉

항목	결혼 당사자		양가 부모	
	만족도	투입	만족도	투입
예물	60	40	40	40
예단	60	60	80	40
폐백	40	40	30	20
스튜디오 촬영	90	50	10	10
신혼여행	120	60	20	40
예식장	50	50	100	50
신혼집	300	100	300	100

〈보기〉

- ㄱ. 결혼 당사자와 양가 부모의 종합 선호도에 따른 우선순위 상위 3가지에는 ‘스튜디오 촬영’과 ‘신혼집’이 모두 포함된다.
- ㄴ. 결혼 당사자의 우선순위 상위 3가지와 양가 부모의 우선순위 상위 3가지 중 일치하는 항목은 ‘신혼집’이다.
- ㄷ. ‘예물’과 ‘폐백’ 모두 결혼 당사자의 선호도보다 양가 부모의 선호도가 더 높다.
- ㄹ. 양가 부모에게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스튜디오 촬영’이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2017 5급 (가) 32번

문 3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금속회사가 생산한 제품 A, B를 모두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 甲금속회사는 특수구리합금 제품 A와 B를 생산 및 판매한다.

○ 특수구리합금 제품 A, B는 10 kg 단위로만 생산된다.

○ 제품 A의 1 kg당 가격은 300원이고, 제품 B의 1 kg당 가격은 200원이다.

○ 甲금속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구리 710 kg, 철 15 kg, 주석 33 kg, 아연 155 kg, 망간 30 kg 중 일부를 활용하여 아래 표의 질량 배합 비율에 따라 제품 A를 300 kg 생산한 상태이다. (단, 개별 금속의 추가구입은 불가능하다)

○ 합금 제품별 질량 배합 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배합 비율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제품이 될 수 있다.

(단위 : %)

구분	구리	철	주석	아연	망간
A	60	5	0	25	10
B	80	0	5	15	0

※ 배합된 개별 금속 질량의 합은 생산된 합금 제품의 질량과 같다.

- ① 195,000원

② 196,000원

③ 197,000원

④ 198,000원

⑤ 199,000원

2019 5급 (가) 16번

문 1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A구와 B구로 이루어진 신도시 甲시에는 어린이집과 복지회관이 없다. 이에 甲시는 60억 원의 건축 예산을 사용하여 아래 <건축비와 만족도>와 <조건> 하에서 시민 만족도가 가장 높도록 어린이집과 복지회관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비와 만족도>

지역	시설 종류	건축비(억 원)	만족도
A구	어린이집	20	35
	복지회관	15	30
B구	어린이집	15	40
	복지회관	20	50

<조 건>

1)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을 신축한다.
2) 시민 만족도는 각 시설에 대한 만족도의 합으로 계산한다.
3) 각 구에는 최소 1개의 시설을 신축해야 한다.
4) 하나의 구에 동일 종류의 시설을 3개 이상 신축할 수 없다.
5) 하나의 구에 동일 종류의 시설을 2개 신축할 경우, 그 시설 중 한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20 % 하락한다.

- ① 예산은 모두 사용될 것이다.
- ② A구에는 어린이집이 신축될 것이다.
- ③ B구에는 2개의 시설이 신축될 것이다.
- ④ 甲시에 신축되는 시설의 수는 4개일 것이다.
- ⑤ <조건> 5)가 없더라도 신축되는 시설의 수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2019 5급 (가) 18번

문 1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윤과 이때 채굴한 원석의 개수로 옳게 짝지은 것은? (단, 원석은 정수 단위로 채굴한다)

보석 가공업자인 甲은 원석을 채굴하여 목걸이용 보석과 반지용 보석으로 1차 가공한다. 원석 1개를 1차 가공하면 목걸이용 보석 60개와 반지용 보석 40개가 생산된다.

이렇게 생산된 보석들은 1차 가공 직후 판매할 수 있지만, 2차 가공을 거쳐서 판매할 수도 있다. 목걸이용 보석 1개는 2차 가공을 통해 목걸이 1개로, 반지용 보석 1개는 2차 가공을 통해 반지 1개로 생산된다. 甲은 보석 용도별로 2차 가공 여부를 판단하는데, 2차 가공하여 판매할 때의 이윤이 2차 가공을 하지 않고 판매할 때의 이윤보다 큰 경우에만 2차 가공하여 판매한다.

<생산단계별 비용 및 판매가격>

- 원석 채굴: 최초로 원석 1개를 채굴할 때에는 300만 원의 비용이 들고, 두 번째 채굴 이후부터는 원석 1개당 채굴 비용이 100만 원씩 증가한다. 즉, 두 번째 원석의 채굴 비용은 400만 원이 되어 원석 2개의 총 채굴 비용은 700만 원이다.
- 1차 가공: 원석의 1차 가공 비용은 개당 250만 원이며, 목걸이용 보석은 개당 7만 원에, 반지용 보석은 개당 5만 원에 판매된다.
- 2차 가공: 목걸이용 보석의 2차 가공 비용은 개당 40만 원이며, 목걸이는 개당 50만 원에 판매된다. 반지용 보석의 2차 가공 비용은 개당 20만 원이며, 반지는 개당 15만 원에 판매된다.

	최대 이윤	원석의 개수
①	400만 원	2개
②	400만 원	3개
③	450만 원	3개
④	450만 원	4개
⑤	500만 원	4개

2019 5급 (가) 28번

문 2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지불할 관광비용은?

○ 甲은 경복궁에서 시작하여 서울시립미술관, 서울타워 전망대, 국립중앙박물관까지 관광하려 한다. ‘경복궁 → 서울시립미술관’은 도보로, ‘서울시립미술관 → 서울타워 전망대’ 및 ‘서울타워 전망대 → 국립중앙박물관’은 각각 지하철로 이동해야 한다.

○ 입장료 및 지하철 요금

경복궁	서울시립 미술관	서울타워 전망대	국립중앙 박물관	지하철
1,000원	5,000원	10,000원	1,000원	1,000원

※ 지하철 요금은 거리에 관계없이 탑승할 때마다 일정하게 지불하며, 도보 이동시에는 별도 비용 없음

○ 관광비용은 입장료, 지하철 요금, 상품가격의 합산액이다.

○ 甲은 관광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甲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이다.

상품	가격	혜택				
		경복궁	서울 시립 미술관	서울타워 전망대	국립중앙 박물관	지하철
스마트 교통 카드	1,000원	－	－	50 % 할인	－	당일 무료
시티 투어A	3,000원	30 % 할인	30 % 할인	30 % 할인	30 % 할인	당일 무료
시티 투어B	5,000원	무료	－	무료	무료	－

- ① 11,000원
- ② 12,000원
- ③ 13,000원
- ④ 14,900원
- ⑤ 19,000원

2020 5급 (나) 18번

문 1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태은이의 만족도 점수의 합은?

태은이는 모처럼의 휴일을 즐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예산 10만 원을 모두 사용하여 외식, 전시회 관람, 쇼핑을 한 번씩 한다. 태은이는 만족도 점수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항목별로 최대 6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지출한다. 다음은 항목별 지출에 따른 태은이의 만족도 점수이다.

구분	1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외식	3점	5점	7점	13점	15점	16점
전시회 관람	1점	3점	6점	9점	12점	13점
쇼핑	1점	2점	6점	8점	10점	13점

- ① 23점
- ② 24점
- ③ 25점
- ④ 26점
- ⑤ 27점

2020 5급 (나) 28번

문 2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서연이가 구매할 가전제품과 구매할 상점을 옳게 연결한 것은?

○ 서연이는 가전제품 A ~ E를 1대씩 구매하기 위하여 상점 甲, 乙, 丙의 가전제품 판매가격을 알아보았다.

<상점별 가전제품 판매가격>
(단위: 만 원)

구분	A	B	C	D	E
甲	150	50	50	20	20
乙	130	45	60	20	10
丙	140	40	50	25	15

○ 서연이는 각각의 가전제품을 세 상점 중 어느 곳에서도 구매할 수 있으며, 아래의 <혜택>을 이용하여 총 구매액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혜택>

- － 甲: 200만 원 이상 구매시 전품목 10 % 할인
- － 乙: A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C, D를 20 % 할인
- － 丙: C, D를 모두 구매한 고객에게는 E를 5만 원에 판매

- ① A－甲
- ② B－乙
- ③ C－丙
- ④ D－甲
- ⑤ E－乙

2020 5급 (나) 30번

문 3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공장에서 4월 1일과 4월 2일에
작업한 최소 시간의 합은?

○○공장은 작업반 A와 B로 구성되어 있고 제품 X와
제품 Y를 생산한다. 다음 표는 각 작업반이 1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각 제품의 수량을 나타낸다. 각 작업반은 X와 Y를
동시에 생산할 수 없고 작업 속도는 일정하다.

<작업반별 시간당 생산량>
(단위: 개)

구분	X	Y
작업반 A	2	3
작업반 B	1	3

○○공장은 4월 1일 오전 9시에 X 24개와 Y 18개를
주문받았으며, 4월 2일에도 같은 시간에 동일한 주문을
받았다. 당일 주문받은 물량은 당일에 모두 생산하였다.

4월 1일에는 작업 여건상 두 작업반이 같은 시간대에
동일한 종류의 제품만을 생산해야 했지만, 4월 2일에는
그러한 제약이 없었다. 두 작업반은 매일 동시에 작업을
시작하며, 작업 시간은 작업 시작 시점부터 주문받은 물량
생산 완료 시점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 ① 19시간
- ② 20시간
- ③ 21시간
- ④ 22시간
- ⑤ 23시간

2020 5급 (나) 33번

문 3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丁 4명이 모두 외출 준비를 끝내는 데 소요되는 최소 시간은?

甲~丁 4명은 화장실 1개, 세면대 1개, 샤워실 2개를 갖춘 숙소에 묵었다. 다음날 아침 이들은 화장실, 세면대, 샤워실을 이용한 후 외출을 하려고 한다.

○ 화장실, 세면대, 샤워실 이용을 마치면 외출 준비가 끝난다.

○ 화장실, 세면대, 샤워실 순서로 1번씩 이용한다.

○ 화장실, 세면대, 각 샤워실은 한 번에 한 명씩 이용한다.

<개인별 이용시간>

(단위: 분)

구분	화장실	세면대	샤워실
甲	5	3	20
乙	5	5	10
丙	10	5	5
丁	10	3	15

- ① 40분
- ② 42분
- ③ 45분
- ④ 48분
- ⑤ 50분

2021 5급 (가) 34번

문 3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甲은 상자를 운반하려고 한다. 甲은 상자를 1회 운반할 때마다 다음 규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 남아 있는 상자 중 가장 무거운 것과 가장 가벼운 것의 총 무게가 17 kg 이하이면 함께 운반한다. 가장 무거운 것과 가장 가벼운 것의 총 무게가 17 kg 초과이면 가장 무거운 것만 운반한다.

㉡ 남아 있는 상자 중 총 무게가 17 kg 이하인 상자 3개를 함께 운반한다.

㉢ 남아 있는 상자를 모두 운반한다. 단, 운반하려는 상자의 총 무게가 17 kg 이하여야 한다.

<상 황>

甲이 운반하는 상자는 10개(A ~ J)이다. 상자는 A가 20 kg으로 가장 무겁고 알파벳순으로 2 kg씩 가벼워져 J가 가장 가볍다. 甲은 첫 번째로 A를, 두 번째로 ㉠ · I · J를 운반한다.

㉠ D는 다른 상자과 같이 운반된다.

㉡ 두 번째 운반 후에 ㉠은 적용되지 않는다.

㉢ ㉠가 G라면 이후에 ㉢은 적용될 수 없다.

㉣ 두 번째 운반부터 상자를 모두 옮길 때까지 운반 횟수를 최소로 하려면 ㉠가 H여서는 안 된다.

㉤ 상자를 모두 옮길 때까지 전체 운반 횟수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운반에 ㉠을 적용해야 한다.

2024 5급 (나) 12번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은행 금고에 맡길 A의 개수는?

甲은 보석을 은행 금고에 맡기려 한다. 은행 금고에는 정확히 1kg만 맡길 수 있다. 甲은 모든 종류의 보석을 하나씩은 포함하여 최대 금액이 되도록 맡기려 한다. 다만, 보석을 쪼갤 수 없다.
甲이 가진 보석은 다음과 같다.

보석 종류	개당 가격(만 원)	개당 무게(g)	수량(개)
A	10	12	52
B	7	10	48
C	3	3	150
D	1	2	31

- ① 44
- ② 45
- ③ 46
- ④ 47
- ⑤ 48

2024 5급 (나) 29번

2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결제할 최소 금액은?

甲은 열대어를 다음 조건에 따라 구입하여 기르고자 한다.

○ 베타를 포함하여 2종류 이상의 열대어 4마리를 구입한다.

○ 열대어를 기르기 위해 필요한 어항을 함께 구입한다.

○ 베타는 다른 종류의 열대어와 한 어항에서 기를 수 없다.

○ 구입할 수 있는 열대어와 어항은 다음과 같다.

열대어 종류	가격(원/마리)	필요 어항용적(cm ³ /마리)
구피	3,000	400
물리	3,500	500
베타	4,000	300

어항 종류	용적(cm ³)	가격(원/개)
A형	900	35,000
B형	1,500	40,000

- ① 56,000원
- ② 84,000원
- ③ 84,500원
- ④ 85,000원
- ⑤ 85,500원

2021 7급 (나) 9번

문 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 패종시계가 11시 정각을 알리기 위한 마지막 종을 치는 시각은?

A 패종시계는 매시 정각을 알리기 위해 매시 정각부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해당 시의 수만큼 종을 친다. 예를 들어 7시 정각을 알리기 위해서는 7시 정각에 첫 종을 치기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총 7번의 종을 치는 것이다. 이 패종시계가 정각을 알리기 위해 2번 이상 종을 칠 때, 종을 치는 시간 간격은 몇 시 정각을 알리기 위한 것이든 동일하다. A 패종시계가 6시 정각을 알리기 위한 마지막 6번째 종을 치는 시각은 6시 6초이다.

- ① 11시 11초
- ② 11시 12초
- ③ 11시 13초
- ④ 11시 14초
- ⑤ 11시 15초

2024 7급 (사) 23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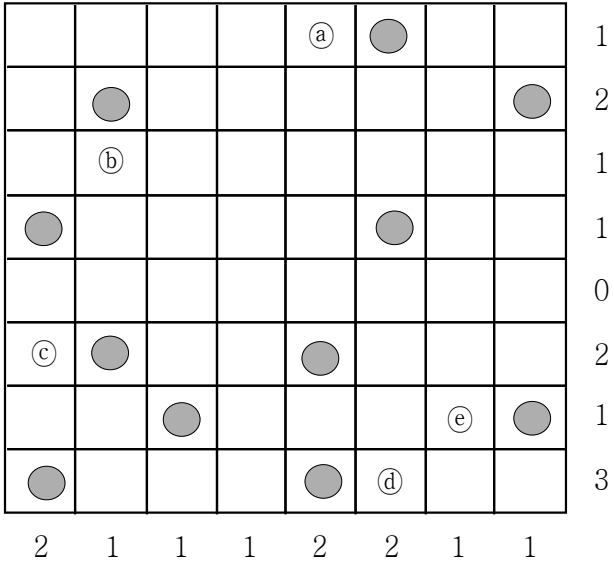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처음으로 물탱크가 가득 차는 날은?

신축 A아파트에는 용량이 10,000리터인 빈 물탱크가 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의 입주 시작일인 3월 1일 00:00부터 이 물탱크에 물을 채우려고 한다. 관리사무소는 매일 00:00부터 00:10까지 물탱크에 물을 900리터씩 채운다. 전체 입주민의 1일 물 사용량은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300리터,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00리터, 3월 11일부터는 계속 700리터이다. 3월 15일에는 아파트 외벽 청소를 위해 청소업체가 물탱크의 물 1,000리터를 추가로 사용한다. 물을 채우는 시간이라도 물탱크가 가득 차면 물 채우기를 중지하고, 물을 채우는 시간에는 물을 사용할 수 없다.

- ① 4월 4일
- ② 4월 6일
- ③ 4월 7일
- ④ 4월 9일
- ⑤ 4월 10일

2011 5급 (선) 11번

문 11. 아래 그림은 사막에 위치한 우물(●) 현황을 표시한 것이다. 마을은 바로 인접한 하나의 우물로부터 식수를 반드시 공급받아야 하고, 대각선 방향에 있는 우물은 사용할 수 없다. 우물 하나는 하나의 마을에만 식수를 공급할 수 있으며, 두 개의 마을은 인접해서 위치하지 않고 대각선으로도 놓여있지 않다. 그림 밖의 숫자가 가로, 세로 줄에 위치한 마을 수를 가리킬 때, 다음 ㉠ ~ ㉡ 중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마을이 위치할 수 없는 곳은 모두 몇 군데인가?



- ① 1
- ② 2
- ③ 3
- ④ 4
- ⑤ 5

2012 5급 (인) 34번

문 34. △△년 5월 10일 A시의 일출 시각은 A시의 시각으로 05:30이다.
다음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년 5월 12일 B시의 일출
시각은 B시의 시각으로 몇 시인가? (단, 아래 <조건> 외의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 <조 건> —————

 - 지구는 매 시간마다 15도씩 서에서 동으로 자전한다.
 - A시는 동경 125도에 위치하고, 동경 135도의 표준시*를
 사용한다(동경 125도: 지구의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125도인 선).
 - B시는 동경 115도에 위치하고, 동경 105도의 표준시를
 사용한다.
 - △△년 5월 A시와 B시의 일출 시각은 매일 2분씩 빨라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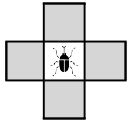
※ 표준시: 경도를 달리하는 각지 사이의 시차를 통일하려고 일정한
 지점의 시각을 그 근처에 있는 일정한 구역 안의 표준으로
 하는 시각

- ① 04:06
- ② 04:10
- ③ 05:06
- ④ 07:26
- ⑤ 07:34

2013 5급 (인) 20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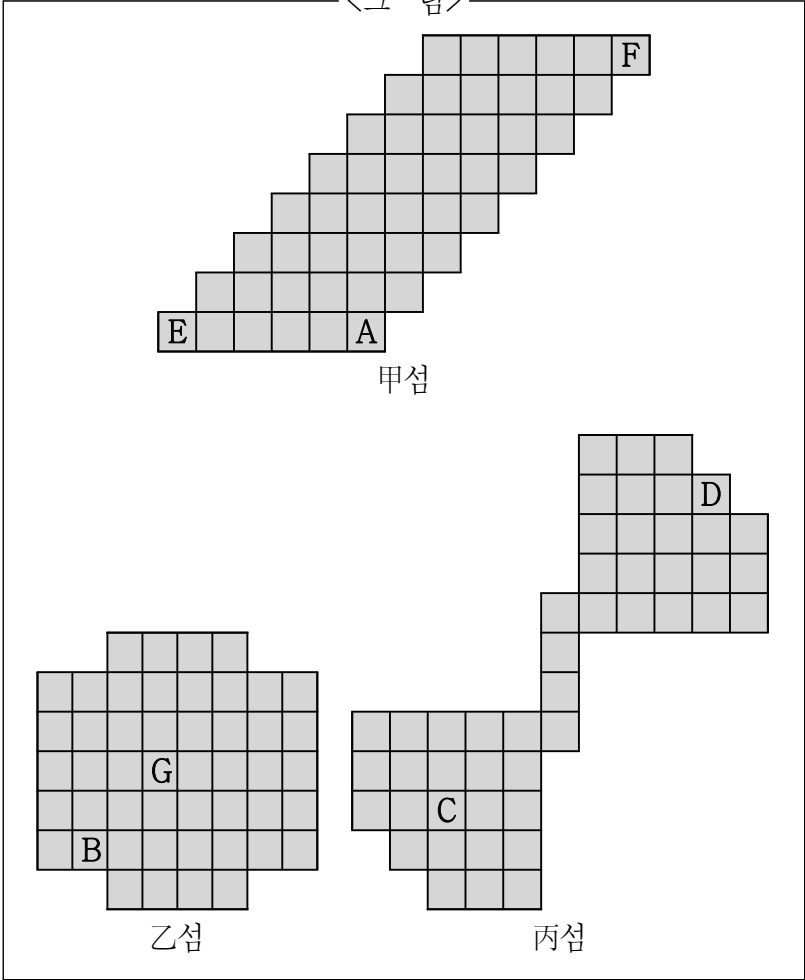
문 20. □□국은 넓이는 같지만 모양은 다른 甲, 乙, 丙 3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이다. 최근 새로운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하면서 □□국 보건총괄책임자는 각각의 섬을 면밀히 관찰하여 상황에 따라 재난경보를 발령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과 <그림>에 따라 때, 가장 먼저 재난경보를 발령해야 하는 상황은?

<조 건>



- 위의 그림 구역에서 발병자가 발생하면 하루 만에 상·하·좌·우 각각 한 구역씩 바이러스가 전염된다. 새롭게 전염된 구역에서 다시 하루 만에 상·하·좌·우 각각 한 구역씩 전염된다. 바이러스는 이러한 방식으로 섬 전역으로 확산된다.
- 바다로 인해 섬 간에는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는다.
- □□국 보건총괄책임자는 각각의 섬 내 전체 구역에 바이러스가 전염된 경우 재난경보를 발령한다.

<그 림>



섬	발병 구역	발병 날짜
① 상황 1: 甲	A	2월 13일
② 상황 2: 乙	B	2월 16일
③ 상황 3: 丙	C, D 동시 발병	2월 19일
④ 상황 4: 甲	E, F 동시 발병	2월 19일
⑤ 상황 5: 乙	G	2월 19일

2019 5급 (가) 38번

문 3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왕이 한 번에 최대금액을 갖는 가장 빠른 달과 그 금액은?

- A왕국에서는 왕과 65명의 신하들이 매달 66만 원을 나누어 가지려고 한다. 매달 왕은 66만 원을 누구에게 얼마씩 나누어 줄지 제안할 수 있으며, 매달 그 방법을 새롭게 제안할 수 있다. 나누어 갖게 되는 돈은 만 원 단위이며, 그 총합은 매달 항상 66만 원이다.
- 매달 65명의 신하들은 왕의 제안에 대해 각자 찬성, 반대, 기권할 수 있다. 신하들은 그 달 자신의 몫에만 관심이 있다. 신하들은 자신의 몫이 전월보다 늘어나는 제안에는 찬성표를 행사하지만, 줄어드는 제안에는 반대표를 행사한다. 자신의 몫이 전월과 동일하면 기권한다.
-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으면 왕이 제안한 방법은 그 달에 시행된다. 재투표는 없으며, 왕의 제안이 시행되지 않아 66명 모두가 돈을 갖지 못하는 달은 없다.
- 첫 번째 달에는 신하 33명이 각각 2만 원을 받았다.
- 두 번째 달부터 왕은 한 번에 최대금액을 가장 빨리 받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u>가장 빠른 달</u>	<u>최대금액</u>
①	7번째 달	62만 원
②	7번째 달	63만 원
③	8번째 달	62만 원
④	8번째 달	63만 원
⑤	8번째 달	64만 원

2020 5급 (나) 29번

문 2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乙이 콩을 나누기 위한 최소 측정 횟수는?

甲이 乙을 도와 총 1,760 g의 콩을 수확한 후, 甲은 400 g을 가지고 나머지는 乙이 모두 가지기로 하였다. 콩을 나눌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2개의 평형접시가 달린 양팔저울 1개, 5 g짜리 돌멩이 1개, 35 g짜리 돌멩이 1개뿐이다. 甲과 乙은 양팔저울 1개와 돌멩이 2개만을 이용하여 콩의 무게를 측정한다. 양팔저울의 평형접시 2개가 평형을 이룰 때 1회의 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① 2
- ② 3
- ③ 4
- ④ 5
- ⑤ 6

2011 민경채 (인) 1번

문 1. 다음 글에 부합하는 것은?

녹색성장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이다.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11%로 확대하려는 것은 탄소배출량 감축과 성장동력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이다.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란 수소, 연료전지, 석탄 가스화 복합발전 등의 신에너지와 태양열, 태양광, 풍력, 바이오, 수력, 지열, 폐기물 등의 재생가능에너지를 통칭해 부르는 용어이다. 2007년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폐기물이 77%, 수력이 14%, 바이오가 6.6%, 풍력이 1.4%, 기타가 1%이었으며, 이들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에 불과했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와 ‘전력 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과급효과가 큰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분야에 대한 국산화 지원과 더불어 예산 대비 보급효과가 큰 바이오 연료, 폐기물 연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정책과 함께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을 위한 다양한 규제정책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 ① 환경보전을 위해 경제성장을 제한하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 ② 신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재생가능에너지보다 크다.
- ③ 2007년을 기준으로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 ④ 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해 규제정책을 포기하고 시장친화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 ⑤ 산업과급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보다 예산 대비 보급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2011 민경채 (인) 2번

문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훈민정음이란 우리말의 표기체계인 한글의 본래 이름이다. 한글의 제자원리에 대해 훈민정음 <제자해(制字解)>에는 “정음 28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역』의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와 음양오행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중성의 기본 모음자 ‘ㆍ’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ㅡ’는 땅의 평평한 모양을, ‘ㅣ’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각각 본뜬 것이다. 하늘과 땅이 한 번 더 분화하면 사계절 모음이 나온다. 입안을 자연스레 오므리면 하늘 소리 ‘ㆍ’가,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면 겨울 소리 ‘ㅇ’가 되고, 환하게 펴면 봄소리 ‘ㅏ’가 되니, 모두 양에 해당한다. 땅소리 ‘ㅡ’를 쪽 내밀면 여름소리 ‘ㅗ’가 되고, 어둡게 하면 가을소리 ‘ㅜ’가 되니, 모두 음에 해당한다. 음양오행 상으로 봄은 목, 여름은 화, 가을은 금, 겨울은 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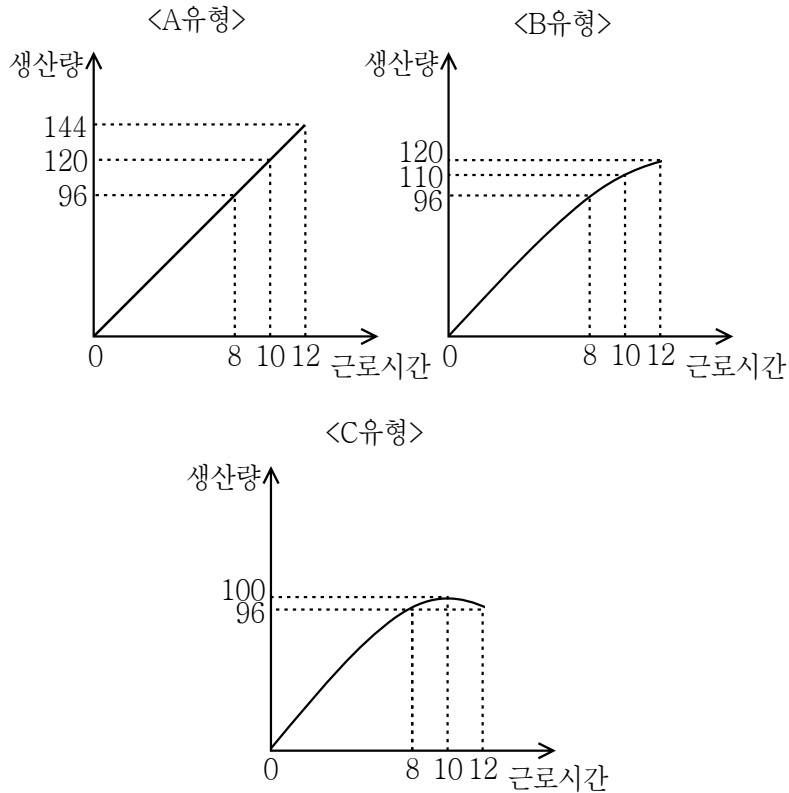
자음 역시 오행설의 원리에 따라 만든 것이다. 기본 자음을 각각 오행에 대입하였으며, 나머지 자음은 이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든 것이다. 오음(五音)은 오행의 상생순서에 따라 나온다. 축축하고 둥근 목구멍에서 물소리[水] ‘ㅇ’이 나오면 뒤이어 혀뿌리에서 힘찬 나무소리[木] ‘ㄱ’이 나오고, 이어서 헛바닥을 나불대는 불소리[火] ‘ㄴ’이 나오면, 입술이 합해져서 흙소리[土] ‘ㄷ’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빨에 부딪혀 나는 쇠소리[金] ‘ㅌ’이 된다.

- ① 기본 자음은 ㄱ, ㄴ, ㄷ, ㅌ, ㅇ이다.
- ② 중성의 기본 모음자는 삼재에 근거하여 만든 것이다.
- ③ 오행의 상생순서는 수 → 목 → 화 → 토 → 금이다.
- ④ 자음 ㅇ과 모음 ㅜ는 계절상으로 겨울에 해당한다.
- ⑤ 한글 자음은 자음의 기본자와 그 기본자에 획을 더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 민경채 (인) 7번

문 7. 다음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생산성 유형별로 일일 근로시간과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 일일 기본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일일 최대 4시간까지 초과근무할 수 있다.
○ 생산성 = 생산량 / 근로시간이다.

- ㄱ. 기본 근로시간만 근무할 때, 세 가지 유형의 일일 생산성은 같다.
ㄴ. 초과근무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B유형의 생산성은 하락하지 않으나, C유형의 생산성은 하락한다.
ㄷ. B유형 근로자가 이틀 동안 10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의 총생산량은 첫째 날 12시간, 둘째 날 8시간 근무하는 경우의 총생산량보다 많다.
ㄹ. 초과근무 시 최초 두 시간 동안의 생산성은 A유형 > B유형 > C유형 순으로 나타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1 민경채 (인) 9번

문 9. 다음 글을 읽고 <보기>에서 옳게 추론한 것을 모두 고르면?

甲: 한 사회에서 무엇이 옳은가는 그 사회의 도덕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사회에는 서로 다른 도덕률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결국 어떤 특정 사회의 규칙이 다른 사회의 규칙보다 더 좋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도덕률이라고 해서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많은 도덕률 중의 하나일 뿐임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우리 사회의 잣대로 판단하려 하는 것은 오만한 태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문화의 관습에 대해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乙: 甲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회의 관습이 우리 사회의 관습보다 도덕적으로 열등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회의 규칙을 비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규칙을 비판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어쩌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보편적 도덕과 도덕적 진보에 관한 일체의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관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보 기> —

- ㄱ. 甲은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관습을 다른 국가가 비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 ㄴ. 乙은 싱가포르 정부가 절도죄로 체포된 자에게 태형(笞刑)을 가한 일을 야만적인 행위라며 비난한 미국 정부의 행동을 정당하다고 옹호할 것이다.
- ㄷ. 甲은 다른 사회의 문화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가 자국 문화의 절대적 우월성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 ㄹ. 乙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회들 간에 도덕적 수준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11 민경채 (인) 11번

문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소나무재선충은 매개충의 몸 안에 서식하다가 새순을 갹아 먹을 때 상처부위를 통하여 나무에 침입한다. 침입한 재선충은 빠르게 증식하여 수분과 양분의 이동통로를 막아 나무를 죽게 한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나무는 치료약이 없어 잎이 붉은 색으로 변하면서 100% 고사한다. 주로 감염되는 수종은 소나무, 해송 및 잣나무 등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계속 피해가 증가하여 총 67개의 시·군·구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시행된 2007년부터 피해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피해 면적은 2000년 1,677 ha에서 2006년 최대 7,871 ha로 급증하였는데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2010년에는 3,547 ha로 감소하였다. 감염목의 수도 2000년에 2만 8천 그루에서 2005년 최대 51만 그루로 급증하였지만 2010년에는 1만 6천 그루로 감소하였다. 정부는 2009년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조직하여 능동적 예찰·방제체계를 구축하였고, 2013년 완전 방제를 목표로 선제적 완전방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관상 건강한 소나무에 아바멕틴 나무주사를 2년에 1회 실시한다. 소나무 잎의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이상 징후가 있는 나무는 대상목에서 제외한다. 나무주사 방법 외에도 지상과 항공에서 약제를 살포하는 방법을 통해 방제를 할 수 있는데, 5월에서 8월 사이에 3~5회 정도 실시해야 한다.

- ① 소나무재선충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 ② 소나무재선충은 2005년에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목을 감염시켰다.
- ③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이 수종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 ④ 나무주사를 놓기 직전에 소나무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화학실험을 해야 한다.
- ⑤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 잎이 붉은 색으로 변색된 소나무도 나무주사를 통해서 소생시킬 수가 있다.

2011 민경채 (인) 12번

문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적극적 다문화주의 정책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한 사회 내의 소수집단을 위한 정부의 정책 가운데 다문화주의 정책은 크게 소극적 다문화주의 정책과 적극적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극적 다문화주의 정책은 소수집단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철폐하는 것이다. 한편 적극적 다문화주의 정책은 이와 다른 정책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크게 다음 네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소수집단의 고유한 관습과 규칙이 일반 법체계에 수용되도록 한다. 둘째, 소수집단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특별한 지원을 제공한다. 셋째, 소수집단의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킨다. 넷째, 일정한 영역에서 소수집단에게 자치권을 부여한다.

<보 기>

- ㄱ. 교육이나 취업에서 소수집단 출신에게 불리한 차별적인 규정을 폐지한다.
- ㄴ. 국회의원 비례대표선거를 위한 각 정당명부에서 소수 집단 출신 후보자의 공천비율을 확대한다.
- ㄷ. 공무원 시험이나 공공기관 입사 시험에서 소수집단 출신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 ㄹ. 특정 지역의 다수 주민을 이루는 소수집단에게 그 지역의 치안유지를 위한 자치경찰권을 부여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2011 민경채 (인) 21번

문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게 추론한 것을 모두 고르면?

종묘는 역대 왕들의 신위를 모시는 곳이었다. 『예기』에 따르면 조선은 원칙적으로 5묘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5묘제란 건국시조와 현재왕의 직계 선왕 4대의 신위를 종묘의 정전에 모시고 그 외 신위는 없애는 것을 말한다. 처음 종묘를 건축했을 당시 태조는 자신의 4대조(목조-익조-탁조-환조)까지 왕으로 추존(追尊)하고, 서쪽을 상석으로 하여 제1실에 목조를, 제2실에 익조의 신위를 모셨다. 태조가 승하하고 그의 신위가 종묘의 정전에 모셔지면서 비로소 5묘제가 시작되었다.

세종은 제2대 정종이 승하하자 그 신위를 정전에 모시고, 5묘제로 모실 수 없는 첫 신위를 별도의 사당인 영녕전을 지어 그곳에 옮겨 모셨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왕조는 『예기』의 5묘제를 그대로 지키지 않은 셈이다. 한편 후대로 가면서 태종, 세종과 같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의 신위를 그대로 정전에 두기 위해 건물을 일렬로 잇대어 증축하였다. 그 밖의 신주는 영녕전으로 옮겨 모셨다. 그 결과 종묘의 정전에는 19위의 왕과 30위의 왕후 신주가 모셔졌으며, 영녕전에는 정전에서 옮겨진 15위의 왕과 17위의 왕후 신주가 모셔졌다.

신주의 봉안 순서는 정전의 경우 서쪽을 상석으로 하고, 제1실에 태조의 신위를 봉안한 이후, 그 신위는 옮겨지지 않았다. 영녕전에는 추존조(追尊祖)인 4왕(목조-익조-탁조-환조)을 정중앙에 모시고, 정전과 마찬가지로 서쪽을 상석으로 하여 차례대로 모셨다.

※ 조선의 왕은 태조-정종-태종-세종-문종... 순이었다.

※ 신위(神位): 신령이 의지할 자리

신주(神主): 죽은 사람의 위(位)를 베푸는 나무 패

— <보 기> —

ㄱ. 정전에는 총 49위의 신주가 모셔져 있을 것이다.
 ㄴ. 영녕전 서쪽 제1실에 익조의 신위가 모셔져 있을 것이다.
 ㄷ. 시대가 지남에 따라 정전은 동쪽으로 증축되었을 것이다.
 ㄹ. 종묘를 건축했을 당시 정전 서쪽 제3실에는 탁조의 신위를 모셨을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2012 민경채 (인) 2번

문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한복(韓服)은 한민족 고유의 옷이다. 삼국시대의 사람들은 저고리, 바지, 치마, 두루마기를 기본적으로 입었다. 저고리와 바지는 남녀 공용이었으며, 상하귀천에 관계없이 모두 저고리 위에 두루마기를 덧입었다. 삼국시대 이후인 남북국시대에는 서민과 귀족이 모두 우리 고유의 두루마기인 직령포(直領袍)를 입었다. 그런데 귀족은 직령포를 평상복으로만 입었고, 서민과 달리 의례와 같은 공식적인 행사에는 입지 않았다. 고려시대에는 복식 구조가 크게 변했다. 특히 귀족층은 중국옷을 그대로 받아들여 입었지만, 서민층은 우리 고유의 복식을 유지하여, 복식의 이중 구조가 나타났다. 조선시대에도 한복의 기본 구성은 지속되었다. 중기나 후기에 들어서면서 한복 디자인은 한층 단순해졌고, 띠 대신 고름을 매기 시작했다. 조선 후기에는 마고자와 조끼를 입기 시작했는데, 조끼는 서양 문물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한편 조선시대 관복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다. 곤룡포(袞龍袍)는 임금이 일반 집무를 볼 때 입었던 집무복[상복: 常服]으로, 그 흉배(胸背)에는 금색실로 용을 수놓았다. 문무백관의 상복도 곤룡포와 모양은 비슷했다. 그러나 무관 상복의 흉배에는 호랑이를, 문관 상복의 흉배에는 학을 수놓았다. 무관들이 주로 대례복으로 입었던 구군복(具軍服)은 무관 최고의 복식이었다. 임금이 전쟁 시에는 구군복을 입었는데, 임금이 입었던 구군복에만 흉배를 붙였다.

※ 흉배는 왕을 비롯한 문무백관이 입던 관복의 가슴과 등에 덧붙였던 사각형의 장식품이다.

- ① 남북국시대의 서민들은 직령포를 공식적인 행사에도 입었다.
- ② 고려시대에는 복식 구조가 크게 변하여 모든 계층에서 중국 옷을 그대로 받아들여 입는 현상이 나타났다.
- ③ 조선시대 중기에 들어서면서 고름을 매기 시작했고, 후기에는 서양 문물의 영향으로 인해 마고자를 입기 시작했다.
- ④ 조선시대 무관이 입던 구군복의 흉배에는 호랑이가 수놓아져 있었다.
- ⑤ 조선시대 문관의 경우 곤룡포와 비슷한 모양의 상복에 호랑이가 수놓아진 흉배를 붙였다.

2012 민경채 (인) 6번

문 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A학자는 청소년들이 폭력성이 강한 드라마를 자주 보면 폭력성향이 강해지고, 이것이 청소년 폭력행위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텔레비전에서 폭력성이 강한 드라마가 방영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B학자는 폭력성이 강한 드라마가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고, 청소년들의 폭력행위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폭력성향이 강한 청소년들은 폭력을 일삼는 드라마에 더 끌리는 경향이 있을 뿐, 이를 시청한다고 해서 청소년 폭력행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 <보 기> —

- ㄱ. A의 주장에 따르면, 텔레비전에서 폭력물을 방영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청소년 폭력행위는 줄어들 것이다.

ㄴ. A의 주장에 따르면, 남성 청소년들은 여성 청소년들보다 폭력물에서 보이는 세계가 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더 강하다.

ㄷ. B의 주장에 따르면, 폭력물을 자주 본다는 것은 강한 폭력성향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ㄹ. A와 B의 주장에 따르면, 청소년 폭력성향과 폭력물 시청은 상관관계가 있다.

-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2 민경채 (인) 12번

문 12. 다음은 신라시대의 골품제도에 관한 어느 사학자의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신라시대의 신분제도인 골품제도는 왕족을 대상으로 한 골제(骨制)와 그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두품제(頭品制)로 구성되었다. 골족(骨族)은 성골(聖骨)과 진골(眞骨)로 구분되었으며, 성골은 골족 가운데서도 왕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신분이었다. 진골 역시 왕족으로서 신라 지배계층의 핵심을 이루면서 모든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두품층은 6두품에서 1두품까지 있었는데 숫자가 클수록 신분이 높았고, 6두품에서 4두품까지는 상위 신분층이었다. 이 가운데 6두품은 진골에 비해 관직 진출 및 신분상의 제약이 강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득난(得難)으로 불릴 정도로 귀성(貴姓)이었다. 5두품과 4두품에 대한 기록은 거의 전해지지 않으나, 국가기관의 잡다한 실무는 이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골품에 따른 신분 등급은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진골의 신분이었다가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 등급 강등되어 6두품이 되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3두품 이하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아마도 율령반포 초기에 일반 평민의 신분을 삼분(三分)하였다가 현실적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되자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골품제도에서 가장 큰 특징은 신분에 따라 맡을 수 있는 관등에 상한이 있었다는 점이다. 신라 17개 관등 가운데 제1관등인 이별찬(伊伐漣)에서 제5관등인 대아찬(大阿漣)까지는 진골만이 맡을 수 있었고, 두품층은 대아찬 이상의 관등에 올라갈 수 없었다. 6두품에서 4두품까지는 제6관등인 아찬(阿漣)에서 제17관등인 조위(造位)까지의 관직을 가질 수 있었다. 두품층은 골품제의 신분에 따라 관등이 제한되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상한 관등에 몇 개의 관등을 더 세분해서 두는 중위제(重位制)가 실시되었으나, 골품제 자체의 신분제적 성격이 변화하지는 않았다.

— <보 기> —

- ㄱ. 4두품은 상위 신분층에 해당하였지만 5두품보다는 낮은 신분층이었다.
- ㄴ. 진골이 오를 수 있는 최고 관등은 이별찬이었다.
- ㄷ. 골품제도에 불만을 지닌 사람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 ㄹ. 성골·진골은 왕족이었기 때문에 신분이 강등되는 경우는 없었다.

- ① ㄱ
- ② ㄹ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ㄷ, ㄹ

2012 민경채 (인) 15번

문 15. 다음 글에 근거할 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A이론에서는 자기통제력이라는 내적 성향이 유년기의 문제행동, 청소년 비행뿐만 아니라 성인의 범죄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자기통제력은 부모의 양육에 의해 어릴 때 형성되는 것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 만족을 지연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말한다.

B이론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비행의 원인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부모의 양육 방법뿐만 아니라 비행 친구와의 접촉 여부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이 이론은 청소년 시기를 초기(11~13세), 중기(14~16세), 후기(17~19세)로 구분하고, 초기에는 부모의 양육 방법 차이가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만 중기를 거쳐 후기에 이룰수록 그 영향력은 작아진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초기 보다는 중기를 거쳐 후기에 이룰수록 커진다고 한다.

C이론 역시 부모의 양육 방법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본다. 그런데 위의 이론들과 달리 C이론은 비행청소년을 ‘초기 진입자(early-starter)’와 ‘후기 진입자(late-starter)’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전자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 등으로 인해 문제성향과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지칭한다. 반면 후자는 어려서는 문제성향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성장 과정에서 비행친구와 접촉하면서 모방 등을 통해 청소년기에 일시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비행청소년들을 말한다.

— <보 기> —

- ㄱ. A이론에서는 자기통제력이라는 내적 성향이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본다.
- ㄴ. B이론에서는 청소년 비행에 있어 청소년의 연령과 비행 친구의 영향력 간에는 반비례의 관계가 있다고 본다.
- ㄷ. C이론에서는 모범생인 청소년도 고교시절 비행친구를 사귀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2013 민경채 (인) 1번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승정원은 조선시대 왕명 출납을 관장하던 관청으로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에 해당한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관청이 왕 - 의정부 - 육조 - 일반 관청이라는 계통 속에 포함된 것과는 달리 승정원은 국왕 직속 관청이었다.

승정원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격인 도승지를 비롯하여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를 각각 1인씩 두었는데, 이를 통칭 6승지라 부른다. 이들은 모두 같은 품계인 정3품 당상관이었으며, 6승지 아래에는 각각 정7품 주서 2인이 있었다. 통상 6승지는 분방(分房)이라 하여 부서를 나누어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도승지가 이방, 좌승지가 호방, 우승지가 예방, 좌부승지가 병방, 우부승지가 형방, 동부승지가 공방 업무를 맡았다. 이는 당시 중앙부처 업무 분담이 크게 육조(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로 나누어져 있었고, 경국대전 구성이 6전 체제로 되어 있던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한편 6명의 승지가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은 아니었다. 같은 승지라 하더라도 도승지는 다른 나머지 승지들과 대우가 달랐고, 좌승지·우승지와 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의 관청 내 위계질서 역시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관청 청사에 출입할 때도 위계를 준수하여야 했고, 도승지가 4일에 한 번 숙직하는 반면 하위인 동부승지는 연속 3일을 숙직해야만 하였다.

주서는 고려 이래의 당후관(堂後官)을 개칭한 것으로 승정원을 통과한 모든 공사(公事)와 문서를 기록하는 것이 그 임무였다. 주서를 역임한 직후에는 성균관 전적이나 예문관 한림 등을 거쳐, 뒤에는 조선시대 청직(淸職)으로 불리는 홍문관·사간원·사헌부 등의 연관으로 진출하였다가 승지를 거쳐 정승의 자리에 이르는 사람이 많았다. 따라서 주서의 자격 요건은 엄격하였다. 반드시 문과 출신자여야 하였고, 인물이 용렬하거나 여론이 좋지 않은 등 개인적인 문제가 있거나 출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서에 임명될 수 없었다.

- ① 승정원 내에는 총 2명의 주서가 있었다.
- ② 승정원 도승지와 동부승지의 품계는 달랐다.
- ③ 양반자제로서 무과 출신자는 주서로 임명될 수 없었다.
- ④ 좌부승지는 병조에 소속되어 병방 업무를 담당하였다.
- ⑤ 홍문원·사간원 등의 연관이 승진한 후 승정원 주서를 역임하는 사례가 많았다.

2013 민경채 (인) 2번

문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피카레스크 소설’은 스페인만이 가진 독특한 문학 장르로 하류층의 삶을 소재로 해서 매우 현실적인 내용을 숨김없이 표현한다. 피카레스크 소설에서는 주인공을 ‘피카로’로 지칭하는데, 피카로는 장난꾸러기, 악동, 악당 등을 뜻하는 스페인어이다. 피카레스크 소설에서 주인공인 피카로는 항상 ‘나’의 시점에서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서술한다. 주인공은 뚜렷한 직업이 없는 소년으로 구걸과 도둑질을 일삼으면서 양심의 가책 없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살아 가다가 오히려 자신의 계략에 희생당하는 인물이다.

피카레스크 소설은 그 배경이 된 시대의 사회상, 특히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냄으로써 사실주의적 경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피카레스크 소설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큰 영향을 끼쳐서 18, 19세기에 사실주의 소설이 발전하는데 이바지했다.

피카레스크 소설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1554년에 쓰여진 작가 미상의 『라사리요 데 토르메스』가 있다. 이 소설은 출판되자마자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으나, 그 속에 담긴 반(反)교회, 반(反)교권주의적인 내용 때문에 종교 재판소로부터 출판을 금지당하기도 했다. 한편 이 작품은 역사적·문화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견지에서도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세계문학사상 최초의 근대 풍속소설로 꼽히고 있다.

- <보 기>

ㄱ. 피카레스크 소설을 통해 그 배경이 된 시대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다.
 ㄴ. 피카레스크 소설 속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경험을 1인칭 시점에서 이야기한다.
 ㄷ. 피카레스크 소설은 주인공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결말지어진다.
 ㄹ. 『라사리요 데 토르메스』는 종교 재판소의 금지로 인해 출판되지도 못한 채 구전으로만 전해져 내려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ㄴ, ㄷ, ㄹ

2013 민경채 (인) 3번

문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건축은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인위적인 시설인 지붕을 만들기 위한 건축술(構築術)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곳에 살고 있는 이상 지붕은 모든 건축에서 고려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이다. 건축은 바닥과 벽 그리고 지붕의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인류 최초의 건축 바닥은 지면이었고 별도의 벽은 없었다. 뿔형이나 삼각형 단면 구조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붕이 벽의 기능을 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지붕만 있는 건축으로는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없다. 천장도 낮아서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편했다. 따라서 공간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건축술이 발달하면서 건축은 점차 수직으로 선 구조체가 지붕을 받치는 구조로 발전하였다. 그로 인해 지붕의 처마는 지면에서 떨어질 수 있게 되었고, 수직의 벽도 출현하게 되었다. 수직 벽체의 출현은 건축의 발달 과정에서 획기적인 전환이었다. 이후 수직 벽체는 건축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되었고, 그것을 만드는 재료와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와 형태의 건축이 출현하였다.

흙을 사용하여 수직 벽체를 만드는 건축 방식에는 향토(夯土)건축과 토담, 전축(搏築) 등의 방식이 있다. 향토건축은 거푸집을 대고 흙 또는 흙에 강회(생석회)와 짚여물 등을 섞은 것을 넣고 다져 벽을 만든 것이다. 토담 방식은 햇볕에 말려 만든 흙벽돌을 쌓아올려 벽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전축은 흙벽돌을 고온의 불에 구워 만든 전돌을 이용해 벽을 만든 것이다.

향토건축은 기단이나 담장, 혹은 성벽을 만드는 구조로 사용되었을 뿐 대형 건축물의 구조방식으로는 사용되지 않았고, 토담 방식으로 건물을 지은 예는 많지 않았다. 한편 전축은 전담, 담장, 굴뚝 등에 많이 활용되었고 조선 후기에는 화성(華城)의 건설에 이용되었다. 여름철에 비가 많고 겨울이 유난히 추운 곳에서는 수분의 침투와 동파를 막기 위해서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전돌을 사용해야 했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대량생산을 할 수 없었다.

〈보 기〉

- ㄱ. 수직 벽체를 만들게 됨에 따라서 지붕만 있는 건축물 보다는 더 넓은 공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 ㄴ. 향토건축 방식은 대형 건축물의 수직 벽체로 활용되었을 뿐 성벽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 ㄷ. 토담 방식은 흙을 다져 전체 벽을 만든 것으로 당시 대부분의 건축물에 활용되었다.
- ㄹ. 화성의 건설에 이용된 건축은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전돌을 사용한 것이다.

- ① $\neg$, $\perp$
 ② $\neg$, $\exists$
 ③ $\perp$, $\top$
 ④ $\neg$, $\top$, $\exists$
 ⑤ $\perp$, $\top$, $\exists$

2013 민경채 (인) 6번

문 6. 다음 <근대 문물의 수용 연대>를 근거로 판단할 때, <A 사건>이 발생한 해에 볼 수 있었던 광경으로 옳게 추론한 것은?

<근대 문물의 수용 연대>

신문	한성순보(1883년 개간/1884년 폐간)
교통	철도 : 경인선(1899년), 경부선(1905년) 전차 : 서대문 ~ 청량리(1898년)
의료	광혜원(1885년), 세브란스 병원(1904년)
건축	독립문(1897년), 명동성당(1898년)
전기통신	전신(1885년), 전등(1887년 경복궁 내), 전화(1896년)

— <A 사건> —

경복궁 내에 여러 가지 기계가 설치되었다. 궁내의 큰 마루와 뜰에 등롱(燈籠) 같은 것이 설치되어 서양인이 기계를 움직이자 연못의 물이 빨아 올려져 끓는 소리와 우렛소리와 같은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가지 모양의 유리에 휘황한 불빛이 대낮 같이 점화되어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궁궐에 있는 궁인들이 이 최초의 놀라운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 내전 안으로 몰려 들었다.

- ① 광혜원에서 전화를 거는 의사

② 독립문 준공식을 보고 있는 군중

③ 서대문에서 청량리 구간의 전차를 타는 상인

④ <A 사건>을 보도한 한성순보를 읽고 있는 관리

⑤ 전신을 이용하여 어머니께 소식을 전하는 아들

2013 민경채 (인) 11번

문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목련은 연꽃처럼 생긴 꽃이 나무에 달린다고 하여 목련(木蓮)이라 한다. 우리나라 원산(原産)의 목련을 포함한 대부분의 목련은 찬바람이 채 가시지도 않은 이른 봄에 잎이 돌아나는 것을 기다릴 새도 없이 어른 주먹만한 흰 꽃을 먼저 피우는데, 성급하게 핀 꽃 치고는 그 자태가 우아하고 향기 또한 그윽하다.

주위에 흔히 보이는 목련은 대개가 중국에서 들여온 백목련이다. 우리나라 원산의 목련은 꽃잎이 좁고 얇으며 꽃잎이 뒤로 젖혀질 만큼 활짝 핀다. 또 꽃잎 안쪽에 붉은 선이 있고 꽃받침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반면 백목련은 꽃받침이 꽃잎처럼 변해 버려 구분하기 어려우며 꽃이 다 피어도 절반 정도밖에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원산의 목련과 다르다.

이외에도 일본에서 들여온 일본목련이 있다. 우리나라 원산의 목련과는 달리 잎이 핀 다음에 꽃이 피고, 잎과 꽃의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둘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일본목련을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늘푸른나무인 후박나무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본인들은 일본목련을 그들 말로 ‘호오노끼’라 부르면서 한자로는 ‘후박(厚朴)’이라고 표기한다. 그런데 일본목련을 수입해 올 때 일본어의 한자이름만 보고 그대로 ‘후박나무’로 번역해 버린 탓에 이 같은 혼란이 생긴 것이다.

- <보 기> —

ㄱ. 백목련은 중국에서, 일본목련은 일본에서 들여왔다.
 ㄴ. 백목련과 우리나라 원산의 목련은 꽃이 벌어지는 정도로 구별 가능하다.
 ㄷ. 우리나라 원산의 목련은 꽃이 핀 다음에 잎이 핀다.
 ㄹ. 우리나라의 늘푸른나무인 후박나무와 일본의 호오노끼는 같은 나무이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2013 민경채 (인) 13번

문 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간단한 과학 기술 원리를 적용하여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을 ‘적정 기술’ 혹은 ‘따뜻한 기술’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적정 기술의 기원은 작고 지역적이며 시골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했던 간디의 물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적정 기술이 반드시 첨단 기술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최첨단 나노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한 바이러스 입자까지 걸러내는 정수필터를 개발하였다. 이 정수필터를 장착한 물통은 2만 5천 리터의 물을 정수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하루에 단돈 0.5센트로 4명의 가족이 3년간 마실 수 있는 물을 확보할 수 있다. 어쩌면 이 물통의 보급이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적정 기술은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세계의 지도자들이 논의하고 있는 불균형 발전의 문제는 충분히 의제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매순간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14억 인구가 당장 오늘의 생계유지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적정 기술은 이러한 문제해결에 획기적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기여를 할 수 있다.

지금도 많은 과학자 혹은 공학자들이 연구실과 작업현장에서 수많은 적정 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적용한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온라인 상이나 보고책자 상에만 존재하고 있으며, 실용화되어 널리 쓰이고 있는 제품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제품 개발자들은 다국적 기업에 비해 사업 규모나 유통 인프라가 매우 영세하여, 제품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구매의 기회조차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 ① 적정 기술은 실제 활용의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 ② 적정 기술은 기술력이 앞선 다국적 기업에 의해 전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 ③ 첨단 기술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 기술 개발에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적정 기술은 빈곤과 불균형 문제의 해결보다는 현상과 원인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 ⑤ 적정 기술은 자선의 목적으로 소외 지역에 무상 공급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로 국한된다.

2013 민경채 (인) 18번

문 1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같이 사용하면 부작용을 일으키는 화장품의 조합만을 모두 고르면?

화장품 간에도 궁합이 있다. 같이 사용하면 각 화장품의 효과가 극대화 되거나 보완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요즘은 화장품에 포함된 모든 성분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본 원칙만 알고 있으면 제대로 짝을 맞춰 쓸 수 있다.

-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 묵은 각질을 제거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 저항력을 키우는 비타민 B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트러블과 홍조 완화에 탁월한 비타민 K 성분이 포함된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양 성분의 효과가 극대화 되어 깨끗하고 건강하게 피부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 일반적으로 세안제는 알칼리성 성분이어서 세안 후 피부는 약알칼리성이 된다. 따라서 산성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비타민 A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때는 세안 후 약산성 토너로 피부를 정리한 뒤 사용해야 한다. 한편 비타민 A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오래된 각질을 제거하는 기능도 있다. 그러므로 각질관리 제품과 같이 사용하면 과도하게 각질이 제거되어 피부에 자극을 주고 염증을 일으킨다.
- AHA 성분은 각질 결합을 느슨하게 해 묵은 각질이나 블랙헤드를 제거하고 모공을 축소시키지만, 피부의 수분을 빼앗고 탄력을 떨어뜨리며 자외선에 약한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따라서 AHA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때는 보습 및 탄력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 <보 기> ———

- ㄱ. 보습기능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와 AHA 성분이 포함된 모공축소 제품
- ㄴ. 비타민 A 성분이 포함된 주름개선 제품과 비타민 B 성분이 포함된 각질관리 제품
- ㄷ. 비타민 B 성분이 포함된 로션과 비타민 K 성분이 포함된 영양크림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2014 민경채 (A) 1번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문화의 …(중략)…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선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신적 기본권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별성·고유성·다양성으로 표현되는 문화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이들 기본권은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원리의 불가결의 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되므로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과거 국가절대주의 사상의 국가관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문화간섭정책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와 달리 오늘날에는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

문화국가원리의 이러한 특성은 문화의 개방성 내지 다원성의 표지와 연결되는데,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따라서 엘리트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보 기>———
- ㄱ. 우리나라 건국헌법에서는 문화국가원리를 채택하지 않았다.
 - ㄴ. 문화국가원리에 의하면 엘리트문화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대상이 아니다.
 - ㄷ. 다양한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정책은 문화국가원리에 부합한다.
 - ㄹ. 국가절대주의 사상의 국가관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국가가 특정 문화만을 선호하여 지원할 수 있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ㄷ, ㄹ
- ⑤ ㄱ, ㄷ, ㄹ

2014 민경채 (A) 2번

문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는 18세기 초반에 우리 실경(實景)을 많이 그렸던 겸재 정선(鄭敼)의 산수화를 대표로 하여, 이후 18세기 후반에 계속 그려진 우리 산천이 담긴 산수화를 지칭하는 말이다. 여기에서 사용된 ‘진경(眞景)’과 달리 ‘진경(眞境)’은 이전 시대의 기록에도 많이 나타나지만, 그 의미는仙境(仙境)의 뜻으로만 사용되었다. 여기에 새 의미를 부여한 사람은 실학자 이익이고, 경계 ‘경(境)’자 대신에 경치 ‘경(景)’자를 쓴 사람은 강세황이다. 실학자 이익은 실재하는 경물이라는 의미로서 진경(眞境)을 사용하였으며, 우리 산수를 실제로 마주 대하는 사실정신을 강조하여 선경의 탈속성(脫俗性)을 제거하였다. 이것이 18세기 후반 강세황에 의해 적극 수용되어 진경(眞景)이란 말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실재하는 경치를 그린 예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초·중기에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회화에서 ‘진경산수화’가 새로운 회화영역으로서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중국의 남종화(南宗畵) 양식에 바탕을 두고 우리나라에 실재하는 경관을 특유의 화풍으로 그린 겸재 정선에게서 비롯되었다. 사전적 해석으로 진경(眞景)은 ‘실재하는 풍경’이라는 뜻의 실경(實景)을 말한다. 그러나 진(眞)이라는 한자는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따르면 ‘선인이 변형해 놓고 하늘에 오른 땅’이라는 뜻을 지닌다. 이로 보아 진경(眞景)은 실경으로서의 단순한 경치뿐만 아니라 선경(仙境)의 의미, 즉 이상 세계까지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진경(眞景)이라는 말을 조선 후기의 맥락에서 이해하자면 참된 경치, 마음 속 경치를 포함하며 경치의 본질 혹은 진실까지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 따라서 진경산수화는 실경을 바탕으로 작가가 경치를 보고 느낀 감동과 환희까지 투영한 그림으로 보면 될 것이다.

- <보 기> —
- ㄱ. 진경산수화는 중국 남종화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
 - ㄴ. 진경산수화는 이익에 의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 ㄷ. 진경산수화는 작가가 현실세계와 무관한 이상세계를 상상하여 그린 그림이다.
 - ㄹ. 선경(仙境)의 탈속성을 제거한 의미인 진경(眞景)이란 단어는 18세기 초반에 이미 정착되어 있었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ㄷ, ㄹ

2014 민경채 (A) 3번

문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최초의 자전거는 1790년 시브락 백작이 발명한 ‘셀레리페르’라는 것이 정설이다. 이후 1813년 만하임의 드라이스 폰 자이에르브론 남작이 ‘드레지엔’을 선보였다. 방향 전환이 가능한 핸들이 추가된 이 자전거는 1817년 파리 티볼리 정원의 구불구불한 길을 단번에 통과한 후 인기를 끌었다. 19세기 중엽에는 ‘벨로시페드’라는 자전거가 등장했는데, 이 자전거는 앞바퀴 쪽에 달려 있는 페달을 밟아 이동이 가능했다. 이 페달은 1861년 에르네스트 미쇼가 드레지엔을 수리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어 발명한 것이었다.

자전거가 인기를 끌자, 1868년 5월 생클루드 공원에서는 처음으로 자전거 스피드 경주가 열렸다. 이 대회에 우승은 제임스 무어가 차지했다. 그는 다음 해 열린 파리-루앙 간 최초의 도로 사이클 경주에서도 우승했다.

이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흐른 후 금속제 자전거가 등장했다. 1879년에는 큰 기어와 뒷바퀴 사이에 체인이 달린 자전거가, 그리고 1885년에는 안전 커버가 부착되고 두 바퀴의 지름이 똑같은 자전거가 발명되었다. 1888년에는 스코틀랜드의 의사 던롭이 공기 타이어를 고안했으며, 이후 19세기 말 유럽의 길거리에는 자전거가 붐비기 시작했다.

- ① 18세기에 발명된 셀레리페르는 핸들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다.
- ② 벨로시페드의 페달은 드레지엔의 수리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발명되었다.
- ③ 대중적으로 자전거의 인기가 높아지자 19세기 초에 도로 사이클 경주가 개최되었다.
- ④ 최초의 자전거 스피드 경주에 사용된 자전거는 두 바퀴의 지름이 같았다.
- ⑤ 공기 타이어가 부착된 자전거가 체인을 단 자전거보다 먼저 발명되었다.

2014 민경채 (A) 4번

문 4. 다음 글을 근거로 추론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스위스에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레토로만어 등 4개 언어가 공식어로 지정되어 있다. 스위스는 ‘칸톤’이라 불리는 20개의 주(州)와 6개의 ‘할프칸톤(半州)’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사회적·경제적 격차는 그다지 심하지 않고 완벽에 가까운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연방국가인 스위스의 정치제도적 특징은 직접민주주의(국민발의와 국민투표)에 있다.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헌법이나 법률의 개정을 제안하거나 연방정부 또는 연방 의회가 이미 인준한 헌법이나 법률조항을 거부하기도 한다. 안건도 매우 다양하여 출산보험 도입, 신예전투기 도입, 외국인의 귀화절차와 난민권, 알프스 산맥의 철도터널 신설, 쥐라 주의 독립문제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더 나아가 외교정책도 다루어졌는데 1986년에는 유엔가입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쳤고, 그 결과 의회가 가결한 유엔가입안을 부결시킨 적이 있다.

연방정부는 7인의 연방장관(4대 정당 대표와 3대 언어권 대표)으로 구성되며 모든 안건은 이들이 만장일치 혹은 압도적 다수로 결정한다. 따라서 국가수반이나 행정부의 수반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제도는 타협이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급한 문제의 처리나 위급상황 발생시에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 <보 기> —

- ㄱ. 스위스 국민은 어느 주에 살더라도 사회보장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ㄴ. 스위스에서는 연방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을 것이다.
- ㄷ. 스위스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강대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수반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 ㄹ. 스위스에서는 연방정부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인해 국가의 중요 안건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ㄱ, ㄹ
- ⑤ ㄷ, ㄹ

2014 민경채 (A) 6번

문 6. 다음 글의 (가)~(라)와 <보기>의 ㄱ~ㄴ을 옳게 짝지은 것은?

법의 폐지란 법이 가진 효력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4가지 경우가 있다.

(가) 법에 시행기간(유효기간)을 두고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의 종료로 당연히 그 법은 폐지된다. 이렇게 일정기간 동안만 효력을 발생하도록 제정된 법을 ‘한시법’이라 한다.

(나) 신법에서 구법의 규정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은 당연히 폐지된다. 이러한 경우에 신법은 구법을 대신하여 효력을 갖는다.

(다) 동일 사항에 관하여 구법과 서로 모순·저촉되는 신법이 제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구법은 묵시적으로 폐지된다. 이처럼 신법은 구법을 폐지한다. 그러나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신일반법은 구특별법을 폐지하지 못한다.

(라) 처음부터 일정한 조건의 성취,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제정된 법은 그 조건의 성취, 목적의 달성이나 소멸로 인해 당연히 폐지된다.

————— <보 기> —————

ㄱ. A법에는 “공포 후 201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ㄴ. “B법의 제00조는 폐지한다”는 규정을 신법C에 두었다.

ㄷ. D법으로 규율하고자 했던 목적이 완전히 달성되었다.

ㄹ. 동일 사항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E법(일반법)에 F법(특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F법이 적용된다.

	(가)	(나)	(다)	(라)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ㄹ	ㄷ
③	ㄴ	ㄱ	ㄷ	ㄹ
④	ㄴ	ㄹ	ㄱ	ㄷ
⑤	ㄷ	ㄹ	ㄴ	ㄱ

2014 민경채 (A) 11번

문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493년 콜럼버스에 의해 에스파냐에 소개된 옥수수는 16세기 초에는 카스티야, 안달루시아, 카탈류나, 포르투갈에서 재배되었고, 그 후에 프랑스, 이탈리아, 판노니아, 발칸 지역 등으로 보급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옥수수를 휴경지에 심어 사료로 사용하거나 가끔 텃밭에서 재배하는 정도였다. 따라서 옥수수는 주곡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감자는 1539년 페루에서 처음 눈에 띄었다. 이 무렵 에스파냐를 통해 이탈리아에 전해진 감자는 ‘타르투폴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감자를 식용으로 사용한 초기 기록 중 하나는 1573년 세비야 상그레 병원의 물품 구입 목록이다. 이후 독일과 영국에서 감자를 식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간혹 있었지만,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주곡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한편 18세기 유럽에서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활기가 넘쳤다. 늘어난 인구를 부양하는 데 감자와 옥수수 보급이 기여하는 바가 컸다. 18세기 기록을 보면 파종량 대비 수확량은 호밀의 경우 1 대 6 인데 비해 옥수수는 무려 1 대 80이었다. 그렇지만 감자와 옥수수는 하층민의 음식으로 알려졌고, 더욱이 구루병, 결핵, 콜레라 등을 일으킨다는 믿음 때문에 보급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대규모 기근을 계기로 감자와 옥수수는 널리 보급되었다. 굶어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전통적인 미각을 고집할 이유가 없었으니, 감자와 옥수수 같은 고수확작물 재배의 증가는 필연적이었다.

- <보 기> —
- ㄱ. 유럽에는 감자보다 옥수수가 먼저 들어왔을 것이다.
 - ㄴ. 유럽에서 감자와 옥수수를 처음으로 재배한 곳은 이탈리아였다.
 - ㄷ. 18세기에는 옥수수의 파종량 대비 수확량이 호밀보다 10배 이상 높았을 것이다.
 - ㄹ. 감자와 옥수수는 인구증가와 기근으로 유럽 전역에 확산되어 16세기에 주곡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14 민경채 (A) 12번

문 12. 다음 글을 근거로 추론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작위 등급을 5개로 하는 오등작제(五等爵制)는 중국 주나라와 당나라의 제도를 따른 것이다. 오등작제의 작위는 높은 순부터 공(公), 후(侯), 백(伯), 자(子), 남(男)으로 불렸다. 작위를 받으면 봉건귀족으로 인정되며 나라에서 주는 식읍(食邑)을 받기도 했다.

왕족이나 공신을 작위에 봉하는 봉작제(封爵制)는 고려 때 처음 들어왔다. 왕족은 공·후·백의 삼등작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비왕족에 대해서는 오등작제를 사용하였다. 비왕족에 대한 오등작제가 제도적으로 완성된 것은 고려 문종 때로, 국공(國公)은 식읍 3,000호에 품계는 정2품으로, 군공(郡公)은 2,000호에 종2품으로, 현후(縣侯)는 식읍 1,000호, 현백(縣伯)은 700호, 개국자(開國子)는 500호에 품계는 셋 모두 정5품으로, 현남(縣男)은 300호에 종5품으로 하였다. 그러나 제도가 정한대로 식읍을 주는 것은 아니었고 실제 받는 식읍은 달랐다.

조선 개국 후인 1401년 조선 태종은 명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왕족인 공(公)을 부원대군(府院大君)으로, 공신인 후(侯)와 백(伯)을 각각 군(君)과 부원군(府院君)으로 바꾸도록 했다. 이후 1897년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격상되었지만 여전히 군(君)으로 봉했다.

- <보 기>—————

ㄱ. 조선 태종시대의 공신은 부원군 작위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ㄴ. 고려 문종 때 완성된 봉작제에 따르면 현후와 현백이 받는 품계는 달랐을 것이다.

ㄷ. 고려 문종 때 완성된 봉작제에 따라 종5품 품계와 식읍 300호로 정해진 현남 작위에 봉해진 사람은 왕족이었을 것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2014 민경채 (A) 13번

문 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사람들은 검은 후추와 흰 후추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검은 후추는 열매가 완전히 익기 전에 따서 건조시킨 것이다. 그래서 검은 후추열매의 외관은 주름져 있다. 반대로 흰 후추는 열매가 완전히 익었을 때 따서 따뜻한 물에 담가 과피와 과육을 제거한 것이다.

맛을 잘 아는 미식가는 후추를 가능하면 사용하기 직전에 갈아서 쓰곤 한다. 왜냐하면 후추는 통후추 상태로는 향미가 오랫동안 보존되지만 갈아놓으면 향미를 빨리 잃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일반 가정의 식탁에도 후추 분쇄기가 놓이게 되었다.

후추는 열매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 때문에 매운 맛이 난다. 피페린을 5~8% 함유하고 있는 검은 후추는 피페린의 함유량이 더 적은 흰 후추보다 매운 맛이 강하다. 반면 흰 후추는 매운 맛은 덜하지만 더 향기롭다.

- <보 기> ———
- ㄱ. 피페린이 4% 함유된 후추는 7% 함유된 후추보다 더 매울 것이다.
 - ㄴ. 흰 후추를 얻기 위해서는 후추열매가 완전히 익기 전에 수확해야 한다.
 - ㄷ. 더 매운 후추 맛을 원하는 사람은 흰 후추보다 검은 후추를 선택할 것이다.
 - ㄹ. 일반적으로 후추는 사용 직전에 갈아 쓰는 것이 미리 갈아놓은 것보다 향미가 더 강할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2014 민경채 (A) 14번

문 1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우리는 영국의 빅토리아시대에 보도된 불량식품에 관한 기사들을 읽을 때 경악하게 된다. 대도시의 빈곤층이 주식으로 삼았던 빵이나 그들이 마셨던 홍차도 불량식품 목록에서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는 유럽대륙이나 북아메리카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던 일로, 식품과 의약품의 성분에 관한 법률이 각국 의회에서 통과되어 이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예컨대 초콜릿의 경우 그 수요가 늘어나자 악덕 생산업자나 상인들의 좋은 표적이 되었다. 1815년 왕정복고 후 프랑스에서는 흙, 완두콩 분말, 감자 전분 등을 섞어 만든 초콜릿이 판매될 정도였다.

마침내 각국 정부는 대책을 세우게 되었다. 1850년 발간된 의학 잡지 『란세트』는 식품 분석을 위한 영국 위생위원회가 창설된다고 발표하였다. 이 위생위원회의 활동으로 그때까지 의심스러웠던 초콜릿의 첨가물이 명확히 밝혀지게 되었다. 그 결과 초콜릿 건본 70개 가운데 벽돌가루를 이용해 적갈색을 낸 초콜릿이 39개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대부분의 건본은 감자나 칩에서 뽑은 전분 등을 함유하고 있었다. 이후 영국에서는 1860년 식품의약품법이, 1872년 식품 첨가물법이 제정되었다.

- ① 북아메리카에서도 불량식품 문제는 있었다.
- ② 영국 위생위원회는 1850년 이후 창설되었다.
- ③ 영국의 빅토리아시대에 기사로 보도된 불량식품 중에는 홍차도 있었다.
- ④ 영국에서는 식품의약품법이 제정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아 식품첨가물법이 제정되었다.
- ⑤ 영국 위생위원회의 분석 대상에 오른 초콜릿 건본 중 벽돌가루가 들어간 것의 비율이 50%를 넘었다.

2015 민경채 (인) 1번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896년 『독립신문』 창간을 계기로 여러 가지의 애국가 가사가 신문에 게재되기 시작했는데, 어떤 곡조에 따라 이 가사들을 노래로 불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대한 제국이 서구식 군악대를 조직해 1902년 ‘대한제국 애국가’라는 이름의 국가(國歌)를 만들어 나라의 주요 행사에 사용했다는 기록은 남아 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의 노랫말은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던 1907년을 전후하여 조국애와 충성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1935년 해외에서 활동 중이던 안익태는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국가를 작곡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곡을 애국가로 채택해 사용했으나 이는 해외에서만 퍼져 나갔을 뿐, 국내에서는 광복 이후 정부수립 무렵까지 애국가 노랫말을 스코틀랜드 민요에 맞춰 부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현재의 노랫말과 함께 안익태가 작곡한 곡조의 애국가가 정부의 공식 행사에 사용되고 각급 학교 교과서에도 실리면서 전국적으로 애창되기 시작하였다.

애국가가 국가로 공식화되면서 1950년대에는 대한뉴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기게양 및 애국가 제창 시의 예의에 관한 지시(1966)」 등에 의해 점차 국가의례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1970년대 초에는 공연장에서 본공연 전에 애국가가 상영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주요 방송국에서 국기강하식에 맞춰 애국가를 방송하였다. 주요 방송국의 국기강하식 방송, 극장에서의 애국가 상영 등은 1980년대 후반 중지되었으며 음악회와 같은 공연 시 애국가 연주도 이때 자율화되었다.

오늘날 주요 행사 등에서 애국가를 제창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4절까지 제창하여야 한다. 애국가는 모두 함께 부르는 경우에는 전주곡을 연주한다. 다만, 약식 절차로 국민의례를 행할 때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연주만 하는 의전행사(외국에서 하는 경우 포함)나 시상식·공연 등에서는 전주곡을 연주해서는 안 된다.

- ① 1940년에 해외에서는 안익태가 만든 애국가 곡조를 들을 수 없었다.
- ② 1990년대 초반에는 국기강하식 방송과 극장에서의 애국가 상영이 의무화되었다.
- ③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의 노랫말은 1896년 『독립신문』에 게재되지 않았다.
- ④ 시상식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연주만 하는 경우에는 전주곡을 연주할 수 있다.
- ⑤ 안익태가 애국가 곡조를 작곡한 해로부터 대한민국 정부 공식 행사에 사용될 때까지 채 10년이 걸리지 않았다.

2015 민경채 (인) 2번

문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조선시대 복식은 신분과 직업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었다. 상민들은 흰색 두루마기만 입을 수 있었던 데 비해 중인들은 청색 도포를 입고 다녔다. 조선시대 백관들의 공복(公服) 규정에 따르면, 중인의 경우 정3품은 홍포(紅袍)에 복두(幘頭)를 쓰고, 협지금(荔枝金)띠를 두르고 흑피화(黑皮靴)를 신었다. 4품 이하는 청포(靑袍)에 흑각(黑角)띠를 둘렀고, 7품 이하는 녹포(綠袍)에 흑의화(黑衣靴)를 신었다.

여자들의 복장은 남편의 벼슬이나 본가의 신분에 따라 달랐다. 조선 후기로 오면서 서울의 높은 양반집 여자들은 외출할 때 남자들과 내외하기 위해 장옷을 썼는데 중인 이하의 여자들은 장옷 대신 치마를 썼다. 또 양반집 여자들은 치마를 왼쪽으로 여며 입었는데 상민이 그렇게 입으면 망신을 당하고 쫓겨났다고 한다.

조선시대 공복에는 아청(鴉靑), 초록, 목홍(木紅) 등의 색을 사용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1470년대에는 경공장에서 청색 물을 들이는 장인이 30여 명에 달할 만큼 청색 염색이 활발했다. 남색 역시 많이 사용되었다. 『임원십육지』에 따르면 6~7월에 쪽잎을 따서 만든 즙으로 남색 물을 들였다. 쪽잎으로 만든 남색 염료는 햇빛에 강해 색이 잘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 염료는 조선 초기까지는 사용이 드물었으나 조선 중기에 염료의 으뜸으로 등장했다가 합성염료의 출현으로 다시 왕좌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 <보 기>
- ㄱ. 조선 후기에 중인 여자들은 외출할 때 장옷을 썼다.
 - ㄴ. 1470년대에 청색 염색이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경국대전』에 남아 있다.
 - ㄷ. 조선시대 정3품에 해당하는 중인들은 규정에 따라 청포에 흑각띠를 두르고 흑피화를 신었다.
 - ㄹ. 조선에서는 합성염료의 출현 이후에도 초봄에 쪽잎을 따서 만든 남색 염료가 합성염료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015 민경채 (인) 3번

문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청렴은 수령의 본분으로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으면서 수령 노릇을 잘한 자는 없다. 『상산록』에 이런 말이 있다. “청렴에는 세 등급이 있다. 최상은 봉급 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먹고 남은 것은 가져가지 않으며, 낙향할 때는 한 필의 말로 조출하게 가니 이것이 ‘아주 옛날’의 청렴한 관리다. 그 다음은 봉급 외에는 명분이 바른 것만 먹고 바르지 않은 것은 먹지 않으며, 먹고 남은 것은 집으로 보내니 이것이 ‘조금 옛날’의 청렴한 관리다. 최하는 이미 규례(規例)가 된 것이라면 명분이 바르지 않아도 먹지만 규례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먹지 않으며, 향임(鄉任)의 자리를 팔지 않고, 송사(訟事)와 옥사(獄事)를 팔아 먹지 않으며, 조세를 더 부과하여 나머지를 착복하지 않으니 이것이 ‘오늘날’의 청렴한 관리다. 최상이 진실로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그 다음 것도 좋다. 최하는 옛날 같으면 형벌에 처했을 것이니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청렴하다 하여도 과격한 행동과 각박한 정사(政事)는 인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치는 바이니 군자가 따를 바가 못 된다. 북제(北齊)의 수령이었던 고적사문은 성질이 꼳꼳하고 모질어 국가의 봉급도 받지 않았다. 사소한 잘못도 용서치 않고 모두 귀양을 보내고 선처를 호소하는 친척들까지 잡아 때려 원성만 더해 갔다. 임금이 이를 듣고 고적사문의 포악함이 사나운 맹수보다 더하다며 그를 파면했다.

- ※ 규례(規例) : 일정한 규칙과 정해진 관례
 - ※ 향임(鄉任) : 좌수, 별감 등 향청의 직책
- ① 정사가 각박할지라도 청렴한 수령은 군자가 따를 만한 수령이다.
 - ② 『상산록』에 따르면 청렴에는 세 등급이 있는데 ‘조금 옛날’의 청렴한 관리가 최상이다.
 - ③ 『상산록』에 따르면 명분과 관계없이 규례가 된 것만 먹는 수령은 ‘오늘날’과 ‘아주 옛날’ 모두 청렴한 관리로 여겨졌다.
 - ④ 『상산록』은 ‘오늘날’의 청렴한 관리보다 ‘아주 옛날’의 청렴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더 청렴하다고 평가했다.
 - ⑤ 북제의 고적사문은 『상산록』의 청렴 등급으로 볼 때 ‘조금 옛날’의 청렴한 관리에 해당하므로 모범이 될 만한 수령이다.

2015 민경채 (인) 11번

문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무궁화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 동진시대의 문인 곽박이 쓴 『산해경』이라는 지리서에 있다. 이 책에는 “군자의 나라에 무궁화가 많은데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중국의 고전 『고금기』에도 “군자의 나라는 지방이 천리인데 무궁화가 많이 피었다.”는 기록이 있다. 신라시대 최치원이 중국 당나라에 보낸 국서에는 신라를 근화향(槿花鄕), 즉 무궁화 나라로 표기하였으며, 고려 예종도 고려를 근화향이라 지칭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민중은 무궁화를 왕실의 꽃이 아닌 민중의 꽃으로 인식하였다. 일제가 국권을 강탈한 후에도 무궁화에 대한 민중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일제는 이러한 민중의 정서를 잘 알고 있었기에 무궁화를 말살하려 했다. 예를 들어 무궁화를 캐 온 학생에게 상을 주고, 무궁화를 캐낸 자리에는 벚꽃을 심었다. 또한 무궁화를 가까이에서 보면 눈에 핏발이 서고 만지면 부스럼이 생긴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무궁화를 보면 침을 뱉고 멀리 돌아가라고 가르쳤다.

이러한 핏박 속에서도 일부 단체나 학교는 무궁화를 겨레의 상징물로 사용하였다. 1937년 7월 31일 종로 파고다 공원에서 개최된 시국강연회에 참석한 조선소년군은 무궁화가 새겨진 스카프를 착용했다. 일제는 이것을 저항으로 해석하여 스카프를 압수하고 조선소년군 간부를 구금했다. 또한, 서울중앙학교는 모자에 무궁화를 새겼다가 문제가 되어 무궁화를 월계수로 대체하여야 했다.

- ① 일제는 무궁화 말살을 위해 학생들이 무궁화를 캐도록 유도했다.
- ② 민중의 무궁화에 대한 사랑은 일제가 국권을 강탈한 후 자연히 시들해졌다.
- ③ 최치원의 국서는 무궁화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신라를 근화향으로 표기했다.
- ④ 일제의 무궁화 말살 정책으로 무궁화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모든 단체와 학교는 벚꽃을 겨레의 상징물로 사용했다.
- ⑤ 조선소년군은 시국강연회에 참석할 때 착용한 스카프에 무궁화가 새겨진 것이 문제가 되자 무궁화를 월계수로 대체했다.

2015 민경채 (인) 12번

문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일월오봉도>는 하늘과 땅, 다섯 개의 산봉우리로 상징되는 ‘삼라만상’과 해와 달로 표상되는 ‘음양오행’의 원리를 시각화한 것이다. 이는 각각 조선의 왕이 ‘통치하는 대상’과 ‘치세의 이데올로기’를 시각적으로 응축한 것이기도 하다. 조선 후기 대다수의 <일월오봉도>는 크기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한다. 화면(畵面)의 중앙에는 다섯 개의 봉우리 가운데 가장 큰 산봉우리가 위치하고 그 양쪽으로 각각 두 개의 작은 봉우리가 배치되어 있다. 해는 오른쪽에 위치한 두 작은 봉우리 사이의 하늘에, 달은 왼쪽의 두 작은 봉우리 사이의 하늘에 보름달의 형상으로 떠 있다. 화면의 양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바위 위에 키 큰 적갈색 소나무 네 그루가 대칭으로 서 있다. 화면의 하단을 완전히 가로질러 채워진 물은 비늘 모양으로 형식화되어 반복되는 물결 무늬로 그려져 있다.

<일월오봉도>는 왕이 정무를 보는 궁궐의 정전(正殿)뿐 아니라 왕이 참석하는 행사장에 임시로 설치된 어좌(御座)에도 배설(排設)되었으며 왕이 죽고 나면 그 시신을 모시던 빈전(殯殿)과 혼전(魂殿)에도 사용되었고 제사에 배향(配享)된 영정 초상 뒤에도 놓였다. 이는 <일월오봉도>가 살아 있는 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왕의 사후에도 왕의 존재를 표상하기 위한 곳이라면 어디든 사용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일월오봉도>는 그 자체로 왕의 존재를 지시하는 동시에 왕만이 전유(專有)할 수 있는 것이었다.

- ※ 배설(排設) : 의식에 쓰이는 도구들을 벌여 놓음
- ※ 빈전(殯殿) : 발인 때까지 왕이나 왕비의 관(棺)을 모시던 전각
- ※ 혼전(魂殿) : 임금이나 왕비의 국장 후에 위패를 모시던 전각
- ※ 배향(配享) : 종묘에 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심

————— <보 기> —————

ㄱ. 왕의 죽음과 관련된 장소에는 <일월오봉도>를 배치하지 않았다.

ㄴ. 조선 후기 대다수의 <일월오봉도>에서는 해가 달보다 오른쪽에 그려져 있다.

ㄷ. <일월오봉도>는 왕비나 세자의 존재를 표상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ㄹ. <일월오봉도>에서 다섯 개의 산봉우리는 왕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 ① ㄴ
- ② ㄹ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ㄷ, ㄹ

2015 민경채 (인) 13번

문 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우리나라에서 기단을 표시한 기호로 모두 옳은 것은?

기단(氣團)은 기온, 습도 등의 대기 상태가 거의 일정한 성질을 가진 공기 덩어리이다. 기단은 발생한 지역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대륙에서 발생하는 대륙성기단은 건조한 성질을 가지며, 해양에서 발생하는 해양성기단은 습한 성질을 갖는다. 또한 기단의 온도에 따라 한대기단, 열대기단, 적도기단, 극기단으로 나뉜다.

기단은 그 성질을 기호로 표시하기도 한다. 해양성기단은 알파벳 소문자 m을 기호 처음에 표기하고, 대륙성기단은 알파벳 소문자 c를 기호 처음에 표기한다. 이어서 한대기단은 알파벳 대문자 P로 표기하고, 열대기단은 알파벳 대문자 T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해양성한대기단은 mP가 되는 것이다. 또한 기단이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열역학적 특성에 따라 알파벳 소문자 w나 k를 마지막에 추가한다. w는 기단이 그 하층의 지표면보다 따뜻할 때 사용하며 k는 기단이 그 하층의 지표면보다 차가울 때 사용한다. 한편 적도기단은 E로, 북극기단은 A로 표시한다.

겨울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기단은 시베리아 기단으로 우리나라 지표면보다 차가운 대륙성한대기단이다. 북극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북극기단은 극기단의 일종으로 최근 우리나라 겨울철 혹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름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 열대기단은 북태평양기단이다. 북태평양기단은 해수 온도가 높은 북태평양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지표면보다 덥고 습한 성질을 가져 고온다습한 날씨를 야기한다. 또다른 여름철 기단인 오호츠크해기단은 해양성한대기단으로 우리나라 지표면보다 차갑고 습한 성질을 갖는다. 적도 지방에서 발생하여 북상하는 적도기단도 우리나라 여름철에 영향을 준다.

	시베리아기단	북태평양기단	오호츠크해기단
①	mPk	mTk	cPk
②	mPk	cTw	cPk
③	cPk	cTw	mPk
④	cPk	mTw	mTk
⑤	cPk	mTw	mPk

2015 민경채 (인) 17번

문 1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헌법 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다수의견]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별개의견] 헌법 제29조 제1항의 공무원의 책임은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그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임이 분명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행위의 개념은 법적인 일반개념으로서, 그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의미하고, 이때의 과실은 중과실과 경과실을 구별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과실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책임은 물론,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관계규정의 연혁에 비추어 그 명문에 충실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의 기본권 보장 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도 부응한다.

[반대의견] 헌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은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는 다만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내부적 책임 등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만이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공무원의 경과실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개인이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의 일치된 입장이다.
- 공무원의 경과실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의 입장이 모두 일치한다.
-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모두 경과실과 중과실을 구분하지 않는다.
- 공무원의 중과실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도 면제된다는 것이 [반대의견]의 입장이다.
-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개인이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의 입장이 모두 일치한다.

2016 민경채 (5) 1번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온돌(溫突)은 조선시대 건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바닥구조로 아궁이, 고래, 구들장, 불목, 개자리, 바람막이, 굴뚝 등으로 구성된다.

아궁이는 불을 때는 곳이고, 고래는 아궁이에서 발생한 열기와 연기가 흐르는 곳이다. 고래는 30 cm 정도의 깊이로 파인 여러 개의 골이고, 그 위에 구들장을 올려놓는다.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면 고래를 타고 흐르는 열기와 연기가 구들장을 데운다. 고래 바닥은 아궁이가 있는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가면서 높아지도록 경사를 주는데, 이는 열기와 연기가 윗목 쪽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불목은 아궁이와 고래 사이에 턱이 진 부분으로 불이 넘어가는 고개라는 뜻이다. 불목은 아궁이 바닥과 고래 바닥을 연결시켜서 고래로 가는 열기와 연기를 분산시킨다. 또한 아궁이에서 타고 남은 재가 고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고래가 끝나는 윗목 쪽에도 바람막이라는 턱이 있는데, 이 턱은 굴뚝에서 불어내리는 바람에 의해 열기와 연기가 역류되는 것을 방지한다.

바람막이 뒤에는 개자리라 부르는 깊이 파인 부분이 있다. 개자리는 굴뚝으로 빠져 나가는 열기와 연기를 잔류시켜 윗목에 열기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개자리가 깊을수록 열기와 연기를 머금은 용량이 커진다.

- ① 아궁이는 불목과 개자리 사이에 있을 것이다.
- ② 고래 바닥은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갈수록 낮아질 것이다.
- ③ 개자리가 깊을수록 윗목의 열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 ④ 불목은 아랫목 쪽에 가깝고, 바람막이는 윗목 쪽에 가까울 것이다.
- ⑤ 바람막이는 타고 남은 재가 고래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

2016 민경채 (5) 2번

문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청백리(淸白吏)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 청렴결백한 공직자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청백리를 선발하고 표창하는 제도는 중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늦었지만 이미 고려 때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 인종 14년(1136년)에 청렴하고 절개 있는 사람들을 뽑아 벼슬을 준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에 의해 선발되어 청백리 대장에 이름이 올랐던 사람을 청백리라고 하였다. 정확히 구분하면 청백리는 작고한 사람들에 대한 호칭이었고, 살아있을 때는 염근리(廉謹吏) 또는 염리(廉吏)라고 불렀다. 염근리로 선발된 사람은 청백리 대장에 수록되어 승진이나 보직에서 많은 특혜를 받았고, 죽은 후에는 그 자손들에게 벼슬이 내려지는 등 여러 혜택이 있었다. 반대로 부정부패한 관료는 탐관오리 또는 장리(贓吏)라고 불렀다. 탐관오리로 지목돼 탄핵되었거나 처벌받은 관리는 장리 대장에 수록되어 본인의 관직생활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자손들이 과거를 보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조선시대에 청백리를 선발하는 방법은 일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는 청백리를 선발하라는 임금의 지시가 있거나 신하의 건의가 있어 임금이 승낙을 하면 2품 이상의 관리나 감사가 대상자를 예조에 추천하였다. 예조에서 후보자를 뽑아 의정부에 올리면 의정부의 대신들이 심의하여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어떤 때는 사헌부, 사간원 등에서 후보자를 의정부에 추천하기도 하였다.

- <보 기> ———
- ㄱ.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 청백리를 선발하는 제도는 고려에서 처음 시작되었을 것이다.
 - ㄴ. 조선시대에 염근리로 선발된 사람은 죽은 후에 청백리라고 불렸을 것이다.
 - ㄷ. 조선시대에 관리가 장리 대장에 수록되면 본인은 물론 그 자손까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 ㄹ. 조선시대에 예조의 추천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청백리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 ① ㄱ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2016 민경채 (5) 3번

문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종래의 철도는 일정한 간격으로 된 2개의 강철레일 위를 강철바퀴 차량이 주행하는 것이다. 반면 모노레일은 높은 지주 위에 설치된 콘크리트 빔(beam) 위를 복렬(複列)의 고무타이어 바퀴 차량이 주행하는 것이다. 빔 위에 다시 레일을 고정하고, 그 위를 강철바퀴 차량이 주행하는 모노레일도 있다.

처음으로 실용화된 모노레일은 1880년경 아일랜드의 벨리뷰니온사(社)에서 건설한 것이었다. 1901년에는 현수 장치를 사용하는 모노레일이 등장하였는데, 이 모노레일은 독일 부퍼탈시(市)의 전철교식 복선으로 건설되어 본격적인 운송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그 후 여러 나라에서 각종 모노레일 개발 노력이 이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독일의 알베그사(社)를 창설한 베너그렌은 1952년 1/2.5 크기의 시제품을 만들고, 실험과 연구를 거듭하여 1957년 알베그식(式) 모노레일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1958년에는 기존의 강철레일·강철바퀴 방식에서 콘크리트 빔·고무타이어 방식으로 개량하여 최고 속력이 80 km/h에 달하는 모노레일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에서도 1950년 말엽 사페즈사(社)가 독자적으로 사페즈식(式) 모노레일을 개발하였다. 이것은 쌍레일 방식과 공기식 타이어차량 운용 경험을 살려 개발한 현수식 모노레일로, 1960년 오를레앙 교외에 시험선(線)이 건설되었다.

- ① 콘크리트 빔·고무타이어 방식은 1960년대까지 개발되지 않았다.
- ② 독일에서 모노레일이 본격적인 운송수단 역할을 수행한 것은 1950년대부터이다.
- ③ 주행에 강철바퀴가 이용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종래의 철도와 모노레일이 구분된다.
- ④ 아일랜드의 벨리뷰니온사는 오를레앙 교외에 전철교식 복선 모노레일을 건설하였다.
- ⑤ 베너그렌이 개발한 알베그식 모노레일은 오를레앙 교외에 건설된 사페즈식 모노레일 시험선보다 먼저 완성되었다.

2016 민경채 (5) 11번

문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2009년 미국의 설탕, 옥수수 시럽, 기타 천연당의 1인당 연평균 소비량은 140파운드로 독일, 프랑스보다 50 %가 많았고, 중국보다는 9배가 많았다. 그런데 설탕이 비만을 야기하고 당뇨병 환자의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카린과 같은 인공감미료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세계 최초의 인공감미료인 사카린은 1879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화학물질의 산화반응을 연구하다가 우연히 발견됐다. 당도가 설탕보다 약 500배 정도 높은 사카린은 대표적인 인공감미료로 체내에서 대사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1977년 캐나다에서 쥐를 대상으로 한 사카린 실험 이후 유해성 논란이 촉발되었다. 사카린을 섭취한 쥐가 방광암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카린의 무해성을 입증한 다양한 연구결과로 인해 2001년 미국 FDA는 사카린을 다시 안전한 식품첨가물로 공식 인정하였고, 현재도 설탕의 대체재로 사용되고 있다.

아스파탐은 1965년 위궤양 치료제를 개발하던 중 우연히 발견된 인공감미료로 당도가 설탕보다 약 200배 높다. 그러나 아스파탐도 발암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 암협회가 안전하다고 발표했지만 이탈리아의 한 과학자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아스파탐이 암을 유발한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 ① 사카린과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당도가 높고, 사카린은 아스파탐보다 당도가 높다.
- ② 사카린과 아스파탐은 모두 설탕을 대체하기 위해 거액을 투자해 개발한 인공감미료이다.
- ③ 사카린은 유해성 논란으로 현재 미국에서는 더 이상 식품첨가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 ④ 2009년 기준 중국의 설탕, 옥수수 시럽, 기타 천연당의 1인당 연평균 소비량은 20파운드 이상이었을 것이다.
- ⑤ 아스파탐은 암 유발 논란에 휩싸였지만, 2001년 미국 FDA로부터 안전한 식품첨가물로 처음 공식 인정받았다.

2016 민경채 (5) 12번

문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는 기본적으로 8도(道) 아래 부(府), 대도호부(大都護府), 목(牧), 도호부(都護府), 군(郡), 현(縣)을 두는 체제였다. 이들 지방행정기관은 6조(六曹)를 중심으로 한 중앙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았으나 중앙행정기관의 완전한 하부 기관은 아니었다. 지방행정기관도 중앙행정기관과 같이 왕에 직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과 의견이 다르거나 쟁의가 있을 때는 왕의 재결을 바로 품의(稟議)할 수 있었다.

지방행정기관의 장으로는 도에 관찰사(觀察使), 부에 부윤(府尹), 대도호부에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목에 목사(牧使), 도호부에 도호부사(都護府使), 군에 군수(郡守), 그리고 현에 현감(縣監)을 두었다. 관찰사는 도의 행정·군사·사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스리고, 관내의 지방행정기관장을 지휘·감독하는 일을 하였다. 제도 시행 초기에 관찰사는 순력(巡歷)이라 하여 일정한 사무소를 두지 않고 각 군·현을 순례하면서 지방행정을 감시하였으나, 나중에는 고정된 근무처를 가지게 되었다. 관찰사를 제외한 지방행정기관장은 수령(首領)으로 통칭되었는데, 이들 역시 행정업무와 함께 일정한 수준의 군사·사법업무를 같이 담당하였다.

중앙에서는 파견한 지방행정기관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했다. 권력남용 등의 부조리나 지방세력과 연합하여 독자세력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일례로 관찰사의 임기를 360일로 제한하여 지방토호나 지방영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 <보 기> —————
- ㄱ. 조선시대 지방행정기관은 왕의 직속기관이었을 것이다.
 - ㄴ. 지방행정기관의 우두머리라는 의미에서 관찰사를 수령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 ㄷ. 군수와 현감은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군사업무와 사법업무도 담당했을 것이다.
 - ㄹ. 관찰사의 임기를 제한한 이유 중 하나는 지방세력과 연합하여 독자세력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16 민경채 (5) 13번

문 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베일을 쓴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이 여성의 정숙함을 강조하지만, 베일로 얼굴을 감싸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겸허한 태도를 지키고 몸의 윤곽, 그것도 얼굴이 아니라 상반신을 베일로 가리라고 충고할 뿐이다. 베일로 얼굴을 감싸는 관습은 코란에 따른 의무라기보다는, 예전부터 존재했던 겸허와 존중의 표시였다.

날씨가 더운 나라의 여성들도 베일을 착용하였는데, 남성에 대한 순종의 의미보다 햇볕이나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란의 반다르 에아바스에 사는 수니파 여성들은 얼굴 보호를 위해 자수 장식이 있는 두꺼운 면직물로 된 붉은색 마스크를 썼다. 이것도 이슬람 전통이 정착되기 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베두인족 여성들은 은과 진주로 장식한 천이나 가죽 소재의 부르카로 얼굴 전체를 감쌌다. 부르카 위에 다시 커다란 검은색 베일을 쓰기도 했다.

외부 침입이 잦은 일부 지역에서 베일은 낯선 이방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북아프리카의 투아레그족 남자들이 리탐이라고 부르는 남색의 면직물로 된 큰 베일을 썼던 것이 그 예이다. 전설에 따르면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투아레그족 남자들이 수치심 때문에 머리에 감았던 터번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는데, 그 뒤로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얼굴을 감싸게 되었다고 한다.

- ① 베일은 여성만 착용하는 것으로 남성에 대한 겸허의 의미를 담고 있었을 것이다.
- ② 반다르 에아바스 지역의 수니파 여성들은 은으로 장식한 가죽으로 얼굴을 감쌌을 것이다.
- ③ 이슬람권 여성이 베일로 얼굴을 감싸는 것은 코란의 의무규정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 ④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사람들이 베일을 쓰는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 ⑤ 사우디아라비아 베두인족 여성의 부르카와 북아프리카 투아레그족의 리탐은 모두 가죽 소재로 만들었을 것이다.

2016 민경채 (5) 14번

문 1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서비스면적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전용면적은 아파트의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면적으로, 개별 세대 현관문 안쪽의 전용 생활공간을 말한다. 다만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뉜다. 주거공용면적은 세대가 거주를 위하여 공유하는 면적으로 세대가 속한 건물의 공용계단, 공용복도 등의 면적을 더한 것을 말한다.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면적을 더한 것이다.

공급면적은 통상적으로 분양에 사용되는 용어로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것이다. 계약면적은 공급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것이다. 서비스면적은 발코니 같은 공간의 면적으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에서 제외된다.

- ① 발코니 면적은 계약면적에 포함된다.
- ② 관리사무소 면적은 공급면적에 포함된다.
- ③ 계약면적은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것이다.
- ④ 공용계단과 공용복도의 면적은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 개별 세대 내 거실과 주방의 면적은 주거공용면적에 포함된다.

2017 민경채 (나) 1번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 헌법에서 처음으로 근대적인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와 도, 시·읍·면으로 한다. 둘째, 의결 기관과 집행기관을 따로 둔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 중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읍·면장은 지방의회가 선출한다. 넷째, 지방의회의원은 임기 4년의 명예직으로 한다. 다섯째, 지방의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지방의회해산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실제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선거는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실시되지 못한 채 연기되었다. 이후 대통령은 1951년 12월 31일 헌법 개정과 함께 갑작스럽게 지방선거 실시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전쟁 중인 1952년 4월 25일에 치안 불안 지역과 미수복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시·읍·면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였고, 5월 10일에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등을 제외한 7개 도에서 도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였다. 1953년 5월에는 선거를 치르지 못했던 지역에서 도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되었다.

1956년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시·읍·면장을 주민 직선을 통해 선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8월 8일 제2차 시·읍·면의회 의원선거와 동시에 최초로 주민 직선에 의한 시·읍·면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8월 13일에는 서울특별시의회 및 도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4년 뒤인 1960년 12월에는 지방자치법을 다시 개정하고,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12일에 서울특별시의회 및 도의회 의원선거, 19일에 시·읍·면의회 의원선거, 26일에 시·읍·면장 선거, 29일에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 선거가 실시되었다.

- ① 1949년 제정 당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 ② 1949년 제정 당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시·읍·면장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 ③ 1952년에는 모든 지역에서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의원이 선출되었다.
- ④ 1956년에는 지방선거를 통해 시·읍·면장이 처음으로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었다.
- ⑤ 1960년 12월에는 전국적으로 두 차례의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2017 민경채 (나) 2번

문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태어난 아기에게 처음 입히는 옷을 배냇저고리라고 하는데, 보드라운 신생아의 목에 거친 것이 닿지 않도록 깃 없이 만들어 ‘무령의(無領衣)’라고도 하였다. 배냇저고리는 대개 생후 삼칠일까지 입혔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삼저고리’, ‘이레안저고리’ 등으로도 불리었다. 보통 저고리를 여미는 고름 대신 무명실 끈을 길게 달아 장수를 기원했는데, 이는 남아, 여아 모두 공통적이었다. 남자아기의 배냇저고리는 재수가 좋다고 하여 시험이나 송사를 치르는 사람이 부적 같이 몸에 지니는 풍습이 있었다.

아기가 태어난 지 약 20일이 지나면 배냇저고리를 벗기고 돌띠저고리를 입혔다. 돌띠저고리에는 돌띠라는 긴 고름이 달려있는데 길이가 길어 한 바퀴 돌려 맬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런 돌띠저고리에는 긴 고름처럼 장수하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백일에는 아기에게 백줄을 누빈 저고리를 입히기도 하였는데, 이는 장수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첫 생일인 돌에 남자아기에게는 색동저고리를 입히고 복건(幅巾)이나 호건(虎巾)을 씌우며, 여자아기에게는 색동저고리를 입히고 굴레를 씌웠다.

- <보 기>——

ㄱ. 배냇저고리는 아기가 태어난 후 약 3주 간 입히는 옷이다.
 ㄴ.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여자아기의 배냇저고리를 몸에 지니는 풍습이 있었다.
 ㄷ. 돌띠저고리와 백줄을 누빈 저고리에 담긴 의미는 동일하다.
 ㄹ. 남자아기뿐만 아니라 여자아기에게도 첫 생일에는 색동저고리를 입혔다.

-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ㄱ, ㄹ

⑤ ㄱ, ㄷ, ㄹ

2017 민경채 (나) 3번

문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지진의 강도는 ‘리히터 규모’와 ‘진도’로 나타낼 수 있다. 리히터 규모는 미국 지질학자인 찰스 리히터가 지진의 강도를 절대적 수치로 나타내기 위해 제안한 개념이다. 리히터 규모는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과의 최대 진폭을 측정하여 수학적으로 계산한 값이며, 지진이 발생하면 각 지진마다 고유의 리히터 규모 값이 매겨진다. 리히터 규모는 지진과의 최대 진폭이 10배가 될 때마다 1씩 증가하는데, 이 때 지진에너지는 약 32배가 된다. 리히터 규모는 소수점 아래 한 자리까지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M 5.6’ 또는 ‘규모 5.6’의 지진으로 표시된다.

진도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한 지점에서 사람이 느끼는 정도와 건물의 피해 정도 등을 상대적으로 등급화한 수치로, 동일한 지진에 대해서도 각 지역에 따라 진도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발생 지점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진도는 낮게 나타난다. 또한 진도는 각 나라별 실정에 따라 다른 기준이 채택된다. 우리나라는 12단계의 ‘수정 메르칼리 진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진도를 나타내는 수치는 로마 숫자를 이용하여 ‘진도 III’과 같이 표시한다. 표시되는 로마 숫자가 클수록 지진을 느끼는 정도나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보 기>———
- ㄱ. M 5.6인 지진을 진도로 표시하면 나라별로 다르게 표시될 수 있다.
 - ㄴ. M 4.0인 지진의 지진파 최대 진폭은 M 2.0인 지진의 지진파 최대 진폭의 100배이다.
 - ㄷ. 진도 II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한 지점에서 사람이 느끼는 정도와 건물의 피해 정도는 진도 IV인 지진의 2배이다.
 - ㄹ. M 6.0인 지진의 지진에너지는 M 3.0인 지진의 1,000배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017 민경채 (나) 12번

문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파스타(pasta)는 밀가루와 물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반죽을 소금물에 넣고 삶아 만드는 이탈리아 요리를 총칭하는데, 파스타 요리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면을 의미하기도 한다.

파스타는 35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형태에 따라 크게 롱(long) 파스타와 쇼트(short) 파스타로 나눌 수 있다. 롱 파스타의 예로는 가늘고 기다란 원통형인 스파게티, 넓적하고 얇은 면 형태인 라자냐를 들 수 있고, 쇼트 파스타로는 속이 빈 원통형인 마카로니, 나선 모양인 푸실리를 예로 들 수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기원전 1세기경에 고대 로마시대의 이탈리아 지역에서 라자냐를 먹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이후 기원후 9~11세기에는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에서 아랍인들로부터 제조 방법을 전수받아 건파스타(dried pasta)의 생산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건파스타는 밀가루에 물만 섞은 반죽으로 만든 면을 말린 것인데, 이는 시칠리아에서 재배된 듀럼(durum) 밀이 곰팡이나 해충에 취약해 장기 보관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장기간을 늘리고 수송을 쉽게 하기 위함이었다.

듀럼 밀은 주로 파스타를 만들 때 사용하는 특수한 품종으로 일반 밀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일반 밀이 강수량이 많고 온화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반면, 듀럼 밀은 주로 지중해 지역과 같이 건조하고 더운 기후에서 잘 자란다. 또한 일반 밀로 만든 하얀 분말 형태의 고운 밀가루는 이스트를 넣어 발효시킨 빵과 같은 제품들에 주로 사용되고, 듀럼 밀을 거칠게 갈아 만든 황색의 세몰라 가루는 파스타를 만드는 데 적합하다.

- ① 속이 빈 원통형인 마카로니는 롱 파스타의 한 종류이다.
- ② 건파스타 제조 방법은 시칠리아인들로부터 아랍인들에게 최초로 전수되었다.
- ③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기원전부터 롱 파스타를 먹은 것으로 보인다.
- ④ 파스타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세몰라 가루는 곱게 갈아 만든 흰색의 가루이다.
- ⑤ 듀럼 밀은 곰팡이나 해충에 강해 건파스타의 주재료로 적합하다.

2017 민경채 (나) 13번

문 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인류 역사상 불공정거래 문제가 나타난 것은 먼 옛날 부터이다. 자급자족경제에서 벗어나 물물교환이 이루어지고 상업이 시작된 시점부터 불공정거래 문제가 나타났고, 법을 만들어 이를 규율하기 시작하였다. 불공정거래 문제가 법적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알려진 최초의 사건은 기원전 4세기 아테네에서 발생한 곡물 중간상 사건이다. 기원전 388년 겨울, 곡물 수입 항로가 스파르타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자 곡물 중간상들의 물량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고 입찰가격은 급등하였다. 이에 모든 곡물 중간상들이 담합 하여 동일한 가격으로 응찰함으로써 곡물 매입가격을 크게 하락시켰고, 이를 다시 높은 가격에 판매하였다. 이로 인해 그들은 아테네 법원에 형사상 소추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아테네는 곡물 중간상들이 담합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이윤을 붙일 수 없도록 성문법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해당 규정 위반 시 사형에 처해졌다.

곡물의 공정거래를 규율하는 고대 아테네의 성문법은 로마로 계승되어 더욱 발전되었다. 그리고 로마의 공정거래 관련법은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이탈리아의 우루비노와 피렌체, 독일의 뉘른베르크 등의 도시국가와 프랑스 등 중세 유럽 각국의 공정거래 관련법 제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영국에서도 로마의 공정거래 관련법의 영향을 받아 1353년에 에드워드 3세의 공정거래 관련법이 만들어졌다.

- <보 기>

 - ㄱ. 인류 역사상 불공정거래 문제는 자급자족경제 시기부터 나타났다.
 - ㄴ. 기원전 4세기 아테네의 공정거래 관련법에 규정된 최고형은 벌금형이었다.
 - ㄷ. 로마의 공정거래 관련법은 영국 에드워드 3세의 공정 거래 관련법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
 - ㄹ. 기원전 4세기 아테네 곡물 중간상 사건은 곡물 중간상들이 곡물을 1년 이상 유통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ㄹ
- ⑤ ㄷ, ㄹ

2018 민경채 (가) 1번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정책의 쟁점 관리는 정책 쟁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최소화하여 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는 정책 쟁점이 미디어 의제로 전환된 후부터 진행된다.

정책의 쟁점 관리에서는 쟁점에 대한 지식수준과 관여도에 따라 공중(公衆)의 유형을 구분하여 공중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어떤 쟁점에 대해 지식수준과 관여도가 모두 낮은 공중은 ‘비활동 공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쟁점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더라도 쟁점에 노출되어 쟁점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들은 ‘환기 공중’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환기 공중이 쟁점에 대한 지식수준까지 높아지면 지식수준과 관여도가 모두 높은 ‘활동 공중’으로 변하게 된다. 쟁점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지만 관여도가 높지 않은 공중은 ‘인지 공중’이라고 한다.

인지 공중은 사회의 다양한 쟁점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아 이른바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들의 관여도를 높여 활동 공중으로 이끄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이들이 정책 쟁점에 긍정적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만으로도 전략적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환기 공중은 지식수준은 낮지만 쟁점 관여도가 높은 편이어서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얻게 된다면 활동 공중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쟁점에 대한 미디어 노출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사람과 쟁점에 대해 토론하게 함으로써 지식수준을 높이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활동 공중은 쟁점에 대한 지식수준과 관여도가 모두 높기 때문에 조직화될 개연성이 크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할 자세가 되어 있다. 정책의 쟁점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이들이 정책을 우호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① 정책의 쟁점 관리는 정책 쟁점이 미디어 의제로 전환되기 전에 이루어진다.
- ② 어떤 쟁점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지만 관여도가 낮은 공중을 비활동 공중이라고 한다.
- ③ 비활동 공중이 어떤 쟁점에 노출되면서 관여도가 높아지면 환기 공중으로 변한다.
- ④ 공중은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의 쟁점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
- ⑤ 인지 공중의 경우, 쟁점에 대한 미디어 노출을 증가시키고 다른 사람과 쟁점에 대해 토론하게 만든다면 활동 공중으로 쉽게 변한다.

2018 민경채 (가) 3번

문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다산 정약용은 아전의 핵심적인 직책으로 향승(鄕丞)과 좌수(座首), 좌우별감(左右別監)을 들고 있다. 향승은 지방관서장인 현령의 행정보좌역이고, 좌수는 지방자치기관인 향청의 우두머리로 이방과 병방의 직무를 관장한다. 좌우별감은 좌수의 아랫자리인데, 좌별감은 호방과 예방의 직무를 관장하고, 우별감은 형방과 공방의 직무를 관장한다.

다산은 향승이 현령을 보좌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고을에서 가장 착한 사람, 즉 도덕성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그 직책을 맡겨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좌수는 그 자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진실로 마땅한 사람으로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좌수를 선발하기 위해 다산이 제시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좌수후보자들에게 모두 종사랑(從仕郎)의 품계를 주고 해마다 공적을 평가해 감사나 어사로 하여금 식년(式年)에 각각 9명씩을 추천하게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3명을 뽑아 경관(京官)에 임명하면, 자신을 갈고 닦아 명성이 있고 품행이 바른 사람이 그 속에서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좌우별감을 선발할 때에도 역시 마땅히 쓸 만한 사람을 골라 정사를 의논해야 한다고 했다.

다산은 아전을 임명할 때, 진실로 쓸 만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그저 자리를 채우기는 하되 정사는 맡기지 말라고 했다. 아울러 아첨을 잘하는 자는 충성스럽지 못하므로 이를 잘 살피도록 권고했다. 한편 다산은 문관뿐만 아니라 무관의 자질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에 따르면 무관의 반열에 서는 자는 모두 굳세고 씩씩해 적을 막아낼 만한 기색이 있는 사람으로 뽑되, 도덕성을 첫째의 자질로 삼고 채주와 슬기를 다음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식년(式年): 과거를 보는 시기로 정한 해

- ① 관직의 서열로 보면 좌우별감은 좌수의 상관이다.
- ② 다산이 주장하는 좌수 선발방법에 따르면, 향승은 식년에 3명의 좌수후보자를 추천한다.
- ③ 다산은 아전으로 쓸 만한 사람이 없을 때에는 자리를 채우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 ④ 다산은 경관 가운데 우수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종사랑의 품계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⑤ 다산은 무관의 자질로 채주와 슬기보다 도덕성이 우선한다고 보았다.

2018 민경채 (가) 13번

문 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군국기무처는 1894년 7월 27일부터 같은 해 12월 17일까지 존속한 최고 정책결정 기관이었다. 1894년 7월 흥선대원군을 추대한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자, 그 이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제도개혁을 실시하고자 합의체 형식의 초정부적 정책결정 기구인 군국기무처를 구성하였다. 이 기구의 이름은 1882년부터 1883년까지 존속하였던 기무처의 이름을 따서 흥선대원군이 명명하였다.

군국기무처가 실제로 활동한 기간은 약 3개월이었다. 이 기간 중 군국기무처는 40회의 회의를 통해 약 210건의 의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켰는데, 그 중에는 189개의 개혁 의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군국기무처가 심의하여 통과시킨 의안은 국왕의 재가를 거쳐 국법으로 시행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전제왕권의 제약이나 재정제도의 일원화뿐만 아니라, 양반·상인 등 계급의 타파, 공·사노비제의 폐지, 조혼의 금지, 과부의 재가 허용 등 조선사회의 경제·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내용도 있었다. 여기에는 1880년대 이래 개화운동에서 강조한 개혁안과 더불어 동학운동에서 요구한 개혁안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군국기무처가 추진한 이때의 개혁을 갑오개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군국기무처의 기능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최초의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1894년 9월 중순 이후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청일전쟁의 초기에는 조선의 개혁정권에 대해 회유정책을 쓰며 군국기무처의 활동에 간섭을 하지 않았던 일본이 청일전쟁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쓰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일본 정부가 새로 임명한 주한공사 이노우에는 군국기무처를 자신이 추진하려는 일본의 제도적 개입의 방해물로 간주하여 11월 20일 고종에게 요구한 20개의 안전에 군국기무처의 폐지를 포함시켰다. 고종도 그의 전제왕권을 제약한 군국기무처의 존재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터였으므로 이 기구를 12월 17일 칙령으로 폐지하였다.

- ① 흥선대원군은 군국기무처를 칙령으로 폐지하였다.
- ② 군국기무처는 기무처의 이름을 따서 고종이 명명하였다.
- ③ 일본의 청일전쟁 승리가 확실해지면서 군국기무처의 기능은 더욱 강화되었다.
- ④ 군국기무처는 실제 활동 기간 동안 월 평균 210건 이상의 개혁의안을 통과시켰다.
- ⑤ 군국기무처가 통과시킨 의안에는 동학운동에서 요구한 개혁안이 담기기도 하였다.

2018 민경채 (가) 14번

문 1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회의원 선거는 목적에 따라 총선거, 재선거, 보궐선거 등으로 나뉘어진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 총선거가 실시된다. 반면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뿐만 아니라 의원의 임기가 남아 있으나 총리(수상)에 의해 의회가 해산된 때에도 총선거가 실시된다.

대다수의 국가는 총선거로 전체 의원을 동시에 새롭게 선출하지만, 의회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전체 의석 중 일부만 교체하기도 한다. 이러한 예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상원선거에서 나타나는데, 미국은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을 매 2년마다 1/3씩, 일본은 임기 6년의 참의원을 매 3년마다 1/2씩 선출한다. 프랑스 역시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을 매 3년마다 1/2씩 선출한다.

재선거는 총선거가 실시된 이후에 당선 무효나 선거 자체의 무효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시 실시되는 선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선거 무효 판결, 당선 무효, 당선인의 임기 개시 전 사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보궐선거는 의원이 임기 중 직책을 사퇴하거나 사망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실시되는 선거이다. 다수대표제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반면, 비례대표제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필요시 의원직을 수행할 승계인을 총선거 때 함께 정해 두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 <보 기>————

ㄱ. 일본 참의원의 임기는 프랑스 상원의원의 임기와 같다.

ㄴ. 미국은 2년마다 전체 상원의원을 새로 선출한다.

ㄷ.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망한 경우 재선거가 실시된다.

ㄹ. 다수대표제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9 민경채 (나) 4번

문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조선시대 임금에게 올리는 진지상을 수라상이라 하였다. 수라는 올리는 시간 순서에 따라 각각 조(朝)수라, 주(晝)수라, 석(夕)수라로 구분되고, 조수라 전에 밥 대신 죽을 주식으로 올리는 죽(粥)수라도 있었다. 수라상은 두 개의 상, 즉 원(元)반과 협(狹)반에 차려졌다.

수라 전후에 반과(盤果)상이나 미음(米飮)상이 차려지기도 했는데, 반과상은 올리는 시간 순서에 따라 조다(早茶), 주다(晝茶), 만다(晩茶), 야다(夜茶) 등을 앞에 붙여서 달리 불렀다. 반과상은 국수를 주식으로 하고, 찬과 후식류를 자기(磁器)에 담아 한 상에 차렸다. 미음상은 미음을 주식으로 하고, 육류 음식인 고음(膏飮)과 후식류를 한 상에 차렸다.

다음은 경복궁을 출발한 행차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임금에게 올리기 위해 차린 전체 상차림이다.

첫째 날		둘째 날	
장소	상차림	장소	상차림
노량참	조다반과	화성참	죽수라
노량참	조수라	화성참	조수라
시흥참	주다반과	화성참	주다반과
시흥참	석수라	화성참	석수라
시흥참	야다반과	화성참	야다반과
종로	미음		

- ① 행차 둘째 날에 협반은 총 1회 사용되었다.

② 화성참에서는 미음이 주식인 상이 차려지지 않았다.

③ 행차 첫째 날 낮과 둘째 날 낮에는 주수라가 차려지지 않았다.

④ 행차 첫째 날 밤과 둘째 날 밤에는 후식류를 자기에 담은 상차림이 있었다.

⑤ 국수를 주식으로 한 상은 행차 첫째 날과 둘째 날을 통틀어 총 5회 차려졌다.

2020 민경채 (가) 5번

문 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이해충돌은 공직자들에게 부여된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갈등상황을 지칭한다.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은 공직부패와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공직부패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의무를 저버리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면, 이해충돌은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대립하는 객관적 상황 자체를 의미한다. 이해충돌 하에서 공직자는 공적 의무가 아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결정을 내릴 위험성이 있지만 항상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공직부패 발생의 상황요인이며 공직부패의 사전 단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공직부패가 의도적 행위의 결과인 반면, 이해충돌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다. 또한 공직부패는 드문 현상이지만 이해충돌은 일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직무수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이해충돌에 대한 전통적인 규제는 공직부패의 사전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최근에는 이해충돌에 대한 규제의 초점이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의 정당성과 공정성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그 결과가 시민의 요구와 선호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신뢰성 확보로 규제의 초점이 변화되면서 이해충돌의 개념이 확대되어, 외관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해충돌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있다.

- ① 공직부패는 권력 남용과 관계없이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대립하는 객관적 상황 자체를 의미한다.
- ②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외관상으로만 존재해도 이해충돌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있다.
- ③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공직부패는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 ④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⑤ 이해충돌에 대한 규제의 초점은 공직부패의 사전예방에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변화되고 있다.

2020 민경채 (가) 14번

문 1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최근 공직자의 재산상태와 같은 세세한 사생활 정보까지 공개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공직자의 사생활은 일반시민의 사생활만큼 보호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비슷한 맥락에서 일찍이 플라톤은 통치자는 가족과 사유재산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논의는 ‘동등한 사생활 보호의 원칙’과 ‘축소된 사생활 보호의 원칙’으로 구분된다. 동등한 사생활 보호의 원칙은 공직자의 사생활도 일반시민과 동등한 정도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원칙의 지지자들은 우선 공직자의 사생활 보호로 공적으로 활용가능한 인재가 증가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면 공직 희망자가 적어져 인재 활용이 제한되고 다양성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선정적인 사생활 폭로가 난무하여 공공정책에 대한 실질적 토론과 민주적 숙고가 사라져 버릴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반면, 공직자는 일반시민보다 우월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시민을 대표한다는 것 때문에 축소된 사생활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공직자는 일반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동등한 사생활 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원칙의 지지자들은 공직자들이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사적 목적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으며 시민이 기대하는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러한 공직자가 행사하는 권력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생활 중 관련된 내용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직자는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훌륭한 인간상으로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 ① 축소된 사생활 보호의 원칙은 공직자와 일반시민의 사생활 보장 정도가 달라야 한다고 본다.
- ② 통치자의 사생활에 대한 플라톤의 생각은 동등한 사생활 보호의 원칙보다 축소된 사생활 보호의 원칙에 더 가깝다.
- ③ 동등한 사생활 보호의 원칙을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공직자가 시민을 대표하는 훌륭한 인간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 ④ 동등한 사생활 보호의 원칙을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면 공직 희망자가 적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⑤ 축소된 사생활 보호의 원칙을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공직자가 일반시민보다 우월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20 민경채 (가) 15번

문 1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일반적인 내연기관에서는 휘발유와 공기가 엔진 내부의 실린더 속에서 압축된 후 점화 장치에 의하여 점화되어 연소된다. 이 때의 연소는 휘발유의 주성분인 탄화수소가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는 것이다. 여러 개의 실린더에서 규칙적이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공기·휘발유’ 혼합물의 연소에서 발생하는 힘으로 자동차는 달리게 된다. 그런데 간혹 실린더 내의 과도한 열이나 압력, 혹은 질 낮은 연료의 사용 등으로 인해 ‘노킹(knocking)’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노킹 현상이란 공기·휘발유 혼합물의 조기 연소 현상을 지칭한다. 공기·휘발유 혼합물이 점화되기도 전에 연소되는 노킹 현상이 지속되면 엔진의 성능은 급격히 저하된다.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에는 ‘옥탄가(octane number)’라는 값에 따른 등급이 부여된다. 옥탄가는 휘발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 중 하나로, 이 값이 높을수록 노킹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甲국에서는 보통, 중급, 고급으로 분류되는 세 가지 등급의 휘발유가 판매되고 있는데, 이 등급을 구분하는 최소 옥탄가의 기준은 각각 87, 89, 93이다. 하지만 甲국의 고산지대에 위치한 A시에서 판매되는 휘발유는 다른 지역의 휘발유보다 등급을 구분하는 최소 옥탄가의 기준이 등급별로 2씩 낮다. 이는 산소의 밀도가 낮아 노킹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낮은 고산지대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 <보 기> —

- ㄱ. A시에서 고급 휘발유로 판매되는 휘발유의 옥탄가는 91 이상이다.
- ㄴ. 실린더 내에 과도한 열이 발생하면 노킹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ㄷ. 노킹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내연기관 내부의 실린더 속에서 공기·휘발유 혼합물은 점화가 된 후에 연소된다.
- ㄹ. 내연기관 내에서의 연소는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을 생성하는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020 7급 모의평가 9번

문 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상예보는 일기예보와 기상특보로 구분할 수 있다. 일기예보는 단기예보, 중기예보, 장기예보 등 시간에 따른 것이고, 기상특보는 주의보, 경보 등 기상현상의 정도에 따른 것이다.

일기예보 중 가장 짧은 기간을 예보하는 단기예보는 3시간 예보와 일일예보로 나뉜다. 3시간 예보는 오늘과 내일의 날씨를 예보하며, 매일 0시 발표부터 시작하여 3시간 간격으로 1일 8회 발표한다. 일일예보는 오늘과 내일, 모레의 날씨를 1일 단위(0시~24시)로 예보하며 매일 5시, 11시, 17시, 23시에 발표한다. 다음으로 중기예보에는 주간예보와 1개월 예보가 있다. 주간예보는 일일예보를 포함하여 일일예보가 예보한 기간의 다음날부터 5일간의 날씨를 추가로 예보하며 매일 발표한다. 1개월 예보는 앞으로 한 달간의 기상전망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예보는 계절예보로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각 계절별 기상전망을 발표한다.

기상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뉜다. 주의보는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경보는 중대한 재해가 예상될 때 발표하는 것이다. 주의보가 발표된 후 기상현상의 경과가 악화된다면 경보로 승격 발표되기도 한다. 또한 기상특보의 기준은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다. 대설주의보의 예보 기준은 24시간 신(新)적설량이 대도시일 때 5 cm 이상, 일반지역일 때 10 cm 이상, 울릉도일 때 20 cm 이상이다. 대설경보의 예보 기준은 24시간 신적설량이 대도시일 때 20 cm 이상, 일반지역일 때 30 cm 이상, 울릉도일 때 50 cm 이상이다.

— <보 기> —

- ㄱ. 월요일에 발표되는 주간예보에는 그 다음 주 월요일의 날씨가 포함된다.
- ㄴ. 일일예보의 발표 시각과 3시간 예보의 발표 시각은 겹치지 않는다.
- ㄷ. 오늘 23시에 발표된 일일예보는 오늘 5시에 발표된 일일예보보다 18시간 더 먼 미래의 날씨까지 예보한다.
- ㄹ. 대도시 A의 대설경보 예보 기준은 울릉도의 대설주의보 예보 기준과 같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2022 7급 (가) 5번

문 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조선 시대 쌀의 종류에는 가을철 논에서 수확한 벼를 가공한 흰색 쌀 외에 밭에서 자란 곡식을 가공함으로써 얻게 되는 회색 쌀과 노란색 쌀이 있었다. 회색 쌀은 보리의 껍질을 벗긴 보리쌀이었고, 노란색 쌀은 조의 껍질을 벗긴 좁쌀이었다.

남부 지역에서는 보리가 특히 중요시되었다. 가을 곡식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는 봄철, 농민들의 희망은 들판에 넘실거리는 보리뿐이었다. 보리가 익을 때까지는 주린 배를 움켜쥐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보릿고개라 하였다. 그것은 보리를 수확하는 하지, 즉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시기까지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고개였다. 보리 수확기는 여름이었지만 파종 시기는 보리 종류에 따라 달랐다. 가을철에 파종하여 이듬해 수확하는 보리는 가을보리, 봄에 파종하여 그해 수확하는 보리는 봄보리라고 불렀다.

적지 않은 농부들은 보리를 수확하고 그 자리에 다시 콩을 심기도 했다. 이처럼 같은 밭에서 1년 동안 보리와 콩을 교대로 경작하는 방식을 그루갈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모든 콩이 그루갈이로 재배된 것은 아니었다. 콩 수확기는 가을이었으나, 어떤 콩은 봄철에 파종해야만 제대로 자랄 수 있었고 어떤 콩은 여름에 심을 수도 있었다. 한편 조는 보리, 콩과 달리 모두 봄에 심었다. 그래서 봄철 밭에서는 보리, 콩, 조가 함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① 흰색 쌀과 여름에 심는 콩은 서로 다른 계절에 수확했다.
- ② 봄보리의 재배 기간은 가을보리의 재배 기간보다 짧았다.
- ③ 흰색 쌀과 회색 쌀은 논에서 수확된 곡식을 가공한 것이었다.
- ④ 남부 지역의 보릿고개는 가을 곡식이 바닥을 보이는 하지가 지나면서 더 심해졌다.
- ⑤ 보리와 콩이 함께 자라는 것은 볼 수 있었지만, 조가 이들과 함께 자라는 것은 볼 수 없었다.

2023 7급 (인) 5번

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두부의 주재료는 대두(大豆)라는 콩이다. 50여 년 전만 해도, 모내기가 끝나는 5월쯤 대두의 씨앗을 심어 벼 베기가 끝나는 10월쯤 수확했다.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콩을 물에 불리는데, 겨울이면 하루 종일, 여름이면 반나절 정도 물에 담가줘야 한다. 콩을 적당히 불린 후 맷돌로 콩을 간다.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콩을 갈면 맷돌 가운데에서 하얀색의 콩비지가 거품처럼 새어 나온다. 이 콩비지를 솥에 넣고 약한 불로 끓인다. 맷돌에서 막 갈려 나온 콩비지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에서 나는 묘한 비린내가 나는데, 익히면 이 비린내는 없어진다. 함지박 안에 삼베나 무명으로 만든 주머니를 펼쳐 놓고, 끓인 콩비지를 주머니에 담는다. 콩비지가 다 식기 전에 주머니의 입을 양쪽으로 묶고 그 사이에 나무 막대를 꽂아 돌리면서 마치 탕약 짜듯이 콩물을 빼낸다. 이 콩물을 두유라고 한다. 콩에 함유된 단백질은 두유에 녹아 있다.

두부는 두유를 응고시킨 음식이다. 두유의 응고를 위해 응고제가 필요한데, 예전에는 응고제로 간수를 사용했다. 간수의 주성분은 염화마그네슘이다. 두유에 함유된 식물성 단백질은 염화마그네슘을 만나면 응고된다. 두유에 간수를 넣고 잠시 기다리면 응고된 하얀 덩어리와 물로 분리된다. 하얀 덩어리는 주머니에 옮겨 담는다. 응고가 아직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덩어리를 짰 주머니에서는 물이 흘러나온다. 함지박 위에 널빤지를 올리고 그 위에 입을 단단히 묶은 주머니를 올려놓는다. 또 다른 널빤지를 주머니 위에 얹고 무거운 돌을 올려놓는다. 이렇게 한참을 누르고 있으면 주머니에서 물이 빠져나오고 덩어리는 굳어져 두부의 모양을 갖추게 된다.

- ① 50여 년 전에는 5월쯤 그해 수확한 대두로 두부를 만들 수 있었다.
- ② 콩비지를 염화마그네슘으로 응고시키면 두부와 두유가 나온다.
- ③ 익힌 콩비지에서는 식물성 단백질로 인해서 비린내가 난다.
- ④ 간수는 두유에 함유된 식물성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성질이 있다.
- ⑤ 여름에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콩을 하루 종일 물에 담가줘야 한다.

2024 7급 (사) 5번

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자기조절력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념과 끈기를 발휘하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자기조절력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이기도 하며, 내가 나를 존중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자기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도달하고 싶으나 아직 구현되지 않은 나의 미래 상태를 현재 나의 상태와 구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자기조절력의 하위 요소로는 자기절제와 목표달성 등이 있다. 이러한 하위 요소들은 신경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자기절제는 충동을 통제하고, 일상적이고도 전형적인 혹은 자동적인 행동을 분명한 의도를 바탕으로 억제하는 것이다. 이처럼 특정한 의도를 갖고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을 의식적으로 억제하거나 마음먹은 대로 조절하는 능력은 복외측전전두피질과 내측전전두피질을 중심으로 한 신경망과 관련이 깊다.

한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나 자신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며 현재 나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자기참조과정이 필요하다. 자기참조과정에 주로 관여하는 것은 내측전전두피질을 중심으로 후방대상피질과 설전부를 연결하는 신경망이다. 두 번째는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다. 특정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는 데 필요한 뇌 부위는 배외측전전두피질로 알려져 있다. 배외측전전두피질은 주로 내측전전두피질과 연결되어 작동한다. 내측전전두피질과 배외측전전두피질 간의 기능적 연결성이 강할수록 목표를 위해 에너지를 집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다.

- ① 자기조절을 위해서는 현재 나의 상태와 아직 구현되지 않은 나의 미래 상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내측전전두피질과 배외측전전두피질 간의 기능적 연결성이 약할수록 목표를 위한 집중력이 높아진다.
- ③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일상적이고 전형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 ④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집중하는 과정을 자기참조과정이라 한다.
- ⑤ 자기조절력은 자기절제의 하위 요소이다.

2024 7급 (사) 13번

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이름 뒤에 성이 오는 보통의 서양식 작명법과 달리, A국에서는 별도의 성을 사용하지 않고 이름 뒤에 ‘부칭(父稱)’이 오도록 작명을 한다. 부칭은 이름을 붙이는 대상자의 아버지 이름에 접미사를 붙여서 만든다. 아들의 경우 그 아버지의 이름 뒤에 s와 손(son)을 붙이고, 딸의 경우 s와 도티르(dottir)를 붙여 ‘~의 아들’ 또는 ‘~의 딸’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부칭을 만든다. 예를 들어, 욀 스테파운손(Jon Stefansson)의 아들 피알라르(Fjalar)는 ‘피알라르 욀손(Fjalar Jonsson)’, 딸인 카트린(Katrin)은 ‘카트린 욀스도티르(Katrin Jonsdottir)’가 되는 식이다.

같은 사회적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끼리 이름과 부칭이 같으면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써서 작명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욀 토르손이라는 사람이 한 집단에 두 명 있는 경우에는 욀 토르손 아이나르소나르(Jon Thorsson Einarssonar)와 욀 토르손 스테파운소나르(Jon Thorsson Stefanssonar)와 같이 구분한다. 전자의 경우 ‘아이나르의 아들인 토르의 아들인 욀’을, 후자의 경우 ‘스테파운의 아들인 토르의 아들인 욀’을 의미한다.

한편 공식적인 자리에서 A국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거나 이름과 부칭을 함께 부르며, 부칭만으로 서로를 부르지는 않는다. 또한 A국에서는 부칭이 아닌 이름의 영어 알파벳 순서로 정렬하여 전화번호부를 발행한다.

- 피알라르 토르손 아이나르소나르(Fjalar Thorsson Einarssonar)로 불리는 사람의 할아버지의 부칭을 알 수 있다.
- 피알라르 욀손(Fjalar Jonsson)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욀손으로 불린다.
- A국의 전화번호부에는 피알라르 욀손(Fjalar Jonsson)의 아버지의 이름이 토르 아이나르손(Thor Einarsson)보다 먼저 나올 것이다.
- 스테파운(Stefan)의 아들 욀(Jon)의 부칭과 손자 피알라르(Fjalar)의 부칭은 같을 것이다.
- 욀 스테파운손(Jon Stefansson)의 아들과 욀 토르손(Jon Thorsson)의 딸은 동일한 부칭을 사용할 것이다.

2025 7급 (인) 5번

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조선시대에는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소금 생산이 활발했다. 소금의 최대 생산지는 평안도에서 전라도에 이르는 서해안의 갯벌 지대로, 대표적인 지역은 전라도 부안과 충청도 태안이었다. 이러한 소금 생산지에는 염장이라는 관청을 설치해 소금 생산을 관리하였다.

동해안의 소금 생산 방법은 서해안이나 남해안과 달랐다. 동해안에서는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들었다. 바닷물을 끓일 때 나무가 필요했기 때문에 소금 생산 지역의 주변 산은 대부분 민둥산이었다. 반면 서해안과 남해안은 조석(潮汐) 간만의 차를 이용했다. 해안가에 작은 독을 쌓아 염전을 만들어 보름에 한 번씩 바닷물을 가두고, 가둔 물을 독 안에서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얻었다. 이처럼 자연 증발을 통해 얻은 소금이 천일염이다.

소금은 나루터를 중심으로 유통되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경기도 일대 소금은 대부분 한강의 마포나루에 집결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조선시대에는 마포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염전 하나 없는 마포가 소금으로 유명해진 것은 소금 유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경강상인은 마포나루를 비롯한 한강 일대의 나루터에 창고를 지어 놓고, 소금, 젓갈, 생선 등을 거래하였다.

- ① 동해안에서는 조석 간만의 차를 이용한 소금 생산 방식을 주로 사용하였다.
- ② 조선시대에 경강상인에 의한 소금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③ 조선시대 소금의 최대 생산지는 남해안의 갯벌 지대였다.
- ④ 마포염은 마포에서 생산된 소금을 이르는 말이다.
- ⑤ 조선시대에 천일염은 염전에서 얻을 수 있었다.

2025 7급 추가 (핵) 14번

1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9세기에 저술된 아랍 문헌에서 신라에 대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신라는 물과 황금이 넘치는 땅으로, 그곳에 간 아랍인들이 좋은 환경에 매료되어 영구 정착하였다고 한다. 또한 아랍과의 무역 기록과 신라의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면, 신라와 아랍이 어떤 물건을 거래했는지 알 수 있다. 신라는 비단, 사향, 계피 등을 수출하고, 유리 그릇, 모직물 등을 수입했다.

1154년에 아랍의 한 지리학자가 만든 지도를 보면 신라는 섬나라로 그려져 있다. 서양에서는 16세기에서야 우리나라가 포함된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 이미 아랍인들은 신라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신라 원성왕의 묘인 원성왕릉에는 한 쌍의 무인상(武人像)이 서 있다. 일본 학자들은 이것이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라 했지만, 중국에 있는 무덤을 조사했을 때 이와 비슷한 조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원성왕릉의 무인상은 머리에 터번을 두르고 곱슬곱슬한 수염을 길렀으며, 눈이 깊고 코가 높은 전형적인 아랍인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는 신라와 활발하게 교류했던 아랍인을 모델로 삼아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 <보 기> ———
- ㄱ. 신라는 아랍으로부터 비단, 사향, 계피 등을 수입하고, 아랍에 유리 그릇, 모직물 등을 수출했다.
 - ㄴ. 중국의 무덤을 조사한 결과는 원성왕릉의 무인상에 대한 일본 학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 ㄷ. 신라에 왔다가 정착한 아랍인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 ㄹ. 신라가 아랍에 섬나라로 알려진 때가 있었다.

- ① ㄹ
- ② ㄱ, ㄴ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011 5급 (선) 1번

문 1. 다음 글을 읽고 옳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바이오 리파이너리(bio refinery)는 기존 산업 체계에서 원유가 담당하던 역할을 재생가능한 생물자원인 바이오매스(biomass)로 대체하려는 개념이다. 즉 지금까지 원유정제(oil refinery)를 통해 휘발유, 경유와 같은 연료와 수많은 화학제품을 생산했듯이,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 리파이너리를 통해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등과 같은 연료와 바이오플라스틱 등의 각종 화학제품을 생산하려는 시도이다. 기존의 플라스틱과 달리 바이오플라스틱은 토양 속의 세균에 의해 분해되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태양열/태양광, 풍력, 지열 등과 같은 대체 에너지원들은 단순히 발전과 열 이용 측면에서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인 점을 감안할 때 바이오 리파이너리는 훨씬 포괄적인 범위에서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국에서는 최근 ‘바이오에너지와 바이오제품 비전’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바이오연료는 연평균 15%, 바이오제품은 연평균 5.7%의 시장확대를 목표로 하는 ‘바이오 리파이너리 산업창출 장기전략’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20%를 2020년까지, 50%를 2050년까지 바이오제품으로 대체할 계획을 밝혔다.

다만 바이오매스 자원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므로 자원의 확보보다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원천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 <보 기> —

- ㄱ. 향후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태양열/태양광, 풍력 등이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 등보다 우위를 점할 것이다.
- ㄴ. 원유가 원료인 제품을 점차 바이오제품으로 대체하여 향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 ㄷ. 바이오 리파이너리의 친환경기술은 원유정제기술을 발전시켰다.
- ㄹ. 바이오매스 자원을 이용한 바이오 리파이너리 활용에 있어 새로운 자원 탐색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ㄹ
- ⑤ ㄴ, ㄷ

2011 5급 (선) 2번

문 2. 다음 글에 부합하는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통제영 귀선(龜船)은 뱃머리에 거북머리를 설치하였는데, 길이는 4자 3치, 너비는 3자이고 그 속에서 유황·염초를 태워 벌어진 입으로 연기를 안개같이 토하여 적을 혼미케 하였다. 좌우의 노는 각각 10개씩이고 좌우 방패판에는 각각 22개씩의 포구멍을 뚫었으며 12개의 문을 설치하였다. 거북머리 위에도 2개의 포구멍을 뚫었고 아래에 2개의 문을 설치했으며 그 옆에는 각각 포구멍을 1개씩 내었다. 좌우 복판(覆板)에도 또한 각각 12개의 포구멍을 뚫었으며 귀(龜)자가 쓰여진 기를 꽂았다. 좌우 포판(鋪板) 아래 방이 각각 12칸인데, 2칸은 철물을 차곡차곡 쌓았고 3칸은 화포·궁시·창검을 갈라두며 19칸은 군사들이 쉬는 곳으로 사용했다. 왼쪽 포판 위의 방 한 칸은 선장이 쓰고 오른쪽 포판 위의 방 한 칸은 장령들이 거처하였다. 군사들이 쉴 때에는 포판 아래에 있고 싸울 때에는 포판 위로 올라와 모든 포구멍에 포를 걸어 놓고 쉴 새 없이 쏘아댔다.

전라좌수영 귀선의 치수, 길이, 너비 등은 통제영 귀선과 거의 같다. 다만 거북머리 아래에 또 귀두(鬼頭)를 붙였고 복판 위에 거북무늬를 그렸으며 좌우에 각각 2개씩의 문을 두었다. 거북머리 아래에 2개의 포구멍을 내었고 현판 좌우에 각각 10개씩의 포구멍을 내었다. 복판 좌우에 각각 6개씩의 포구멍을 내었고 좌우에 노는 각각 8개씩을 두었다.

— <보 기> —

- ㄱ. 통제영 귀선의 포구멍은 총 72개이며 전라좌수영 귀선의 포구멍은 총 34개이다.
- ㄴ. 통제영 귀선은 포판 아래 총 24칸의 방을 두어 그 중 한 칸을 선장이 사용하였다.
- ㄷ. 두 귀선 모두 포판 위에는 쇠뿔을 박아두어 적군의 귀선 접근을 막았다.
- ㄹ. 포를 쏘는 용머리는 두 귀선의 공통점으로 귀선만의 자랑이다.
- ㅁ. 1인당 하나의 노를 담당할 경우 통제영 귀선은 20명, 전라좌수영 귀선은 16명의 노 담당 군사를 필요로 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ㅁ
- ③ ㄷ, ㅁ
- ④ ㄱ, ㄴ, ㅁ
- ⑤ ㄴ, ㄷ, ㄹ

2011 5급 (선) 3번

문 3. 다음 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역량기대격차는 계층별로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과 타 계층이 당해 계층에게 요구하는 역량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계층 상호간의 역량기대격차는 각 계층의 역량을 진단·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중앙부처 관료를 정책관리계층(중앙부처 4급 과장급 이상), 정책실무계층(중앙부처 5급 사무관), 실무집행계층(중앙부처 6급 주무관 이하) 등의 3계층으로 구분할 때, 이들 계층 상호간의 역량기대격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책관리계층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전략적 사고와 전문가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정책실무계층은 정책관리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을 들고 있으며, 실무집행계층은 조정통합능력을 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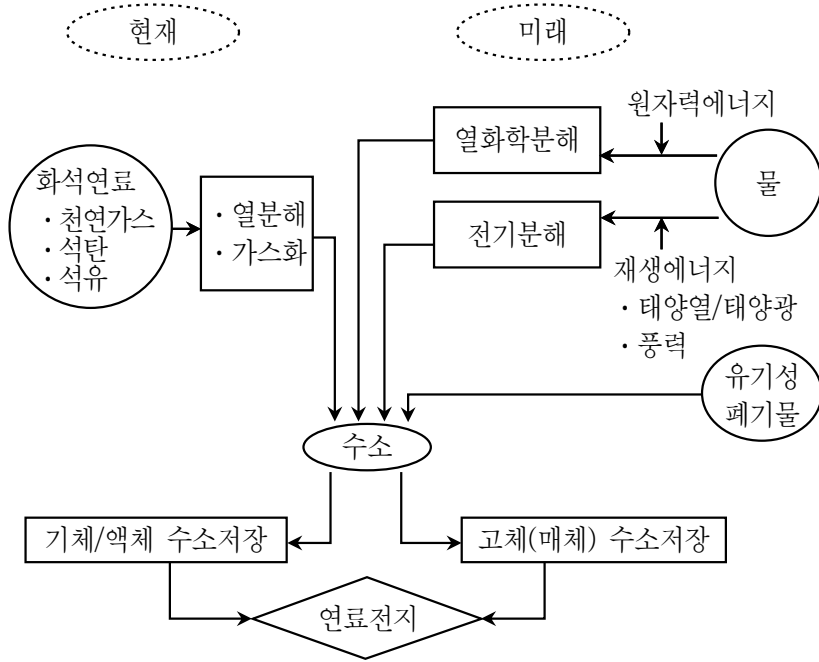
정책실무계층은 문제해결 능력과 전문가 의식을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책관리계층은 조직현신도를, 실무집행계층은 문제인식·이해 능력을 정책실무계층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본다.

실무집행계층은 정보수집처리 능력과 세밀한 일처리 능력을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정책관리계층은 실무집행계층에게 창의성을, 정책실무계층은 고객지향성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① “우리 과장님은 의사결정을 할 때 이성적 판단을 하기 보다는 기존의 관행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앙부처 A 사무관)
- ② “이번에 새로 온 우리 부처의 ○○○사무관은 어려운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사안의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 B 주무관)
- ③ “우리 부처의 8급 공무원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한다면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 C 사무관)
- ④ “사실 관리자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적 능력입니다. 일을 추진하다가 발생하는 부서 간의 갈등이나 오해 같은 것을 풀어주는 일이 그 분들의 업무죠.” (중앙부처 D 주무관)
- ⑤ “요즘 들어온 7, 9급 공무원들은 6시만 되면 퇴근을 하려고 하더군요. 조직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중앙부처 E 과장)

2011 5급 (선) 6번

문 6. 다음 그림을 보고 옳게 판단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현재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얻고 있지만, 미래에는 재생에너지나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 제조법이 사용될 것이다.
- ㄴ. 수소는 현재 제조 및 사용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에너지이며, 쉽게 구할 수 있는 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 ㄷ. 수소저장기술은 기체나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방식과 고체(매체)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 ㄹ. 수소를 제조하는 기술에는 화석연료를 전기분해하는 방법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열분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ㅁ. 수소는 물, 석유, 천연가스 및 유기성 폐기물 등에 함유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원료로부터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 ⑤ ㄴ, ㄹ, ㅁ

2011 5급 (선) 21번

문 21. 다음 글을 읽고 옳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기후변화란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기후계가 점차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IPCC*는 최근의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에 의한 지구온난화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90 %이며, 그 주요 원인은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라고 밝히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6대 온실가스로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과불화탄소(PFCs), 수불화탄소(HFCs), 육불화황(SF₆)이 있다. 이 중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는 산업혁명 전에는 약 280 ppm이었으나, 2005년에는 379 ppm으로 약 35.4 %가 증가하였다.

한편 인공위성 관측자료(1979 ~ 2005년)에 의하면, 남극해 및 남극대륙 일부를 제외하고 전 지표면에서 온난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육지의 온난화가 해양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온난화의 진행 정도는 북반구가 남반구에 비하여 훨씬 심하며, 북극지방의 평균온도 증가율은 지구 평균온도 증가율의 약 2배에 이르고 있다. 지난 43년 간 (1961 ~ 2003년) 해수면은 연평균 0.17 ± 0.05 m, 해수온은 약 0.1 °C 상승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해수면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해수 열팽창과 빙하 해빙을 들 수 있다. 강수의 경우 눈보다는 비가 많으며 폭우가 전 지역에서 증가하였고, 가뭄과 홍수 발생지역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는 1988년 설립된 UN산하 국제기구로 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 각국 3,0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모임이다.

- <보 기> —————
- ㄱ. 현재와 같은 온난화 추세가 지속되는 한, 북반구의 평균 온도변화는 남반구의 평균온도변화보다 더 클 수 있다.
 - ㄴ. 기후변화로 인한 육지의 생태계 변화는 해양의 생태계 변화보다 심하지 않을 것이다.
 - ㄷ. 산업혁명 이후 6대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율이 가장 크다.
 - ㄹ. 남극해의 평균온도 증가율은 지구 평균온도 증가율의 약 2배에 이르고 있다.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ㄱ, ㄴ, ㄹ

2011 5급 (선) 22번

문 22. 신석기 시대의 토기에 관한 다음 강연 내용을 읽고 옳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A토기

중부지방에서 출토된 이 토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동그스름한 팽이 모양의 곡선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토기를 보면 바닥이 동그스름하게 되어 있어서 혼자서는 설 수가 없습니다. 모래바닥에 묻어 바르게 세워서 사용하든가 밑에 돌을 고여서 쓰러지지 않게 해야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토기들은 해안가나 강가의 양지 바른 곳에서 주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생활 배경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는 단순히 생활용기, 즉 그릇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큼니다.

이 토기는 토기의 전면에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늬들은 한결같이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이며 상징적입니다. 심심풀이로 문양을 새긴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죠. 여기에서 추상성과 상징성이 짙은 신석기 시대 미술문화의 일면도 엿볼 수 있습니다.

㉡ B토기

신석기 시대의 고급스러우면서도 색다른 토기로 함경도 지역에서 나온 까만색의 흑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토기는 배가 볼록하고 바닥이 평평하며 주둥이가 좁은 형태입니다. 그릇 표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 부분에는 지렁이 같은 줄무늬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문양은 그릇 겉면을 긁어내어 나타낸 것입니다. 겉면을 긁어내서 문양을 살리는 이러한 기법은 15세기 분청사기에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 C토기

부산 영선동 패총에서 출토된 이 토기는 조형성이 뛰어나 눈길을 끄니다. 계란 반쪽을 잘라놓은 것 같은 아담하고 동그스름한 곡선적 기형과 거기에 직선화된 띠무늬를 대담하게 덧대어 잘 조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살포시 나온 주둥이를 통해서 기능을 100%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품으로서 기능과 아름다움을 겸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보 기> —

- ㄱ. 신석기 시대에는 사실주의적 경향의 미술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ㄴ. C토기는 A토기와 달리 지반이 단단한 산간지방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 ㄷ. B토기를 통해서 신라 시대에 사용되었던 기법이 이미 신석기 시대에도 구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 ㄹ. B토기와 C토기는 토기 표면에 문양을 넣는 방식이 달랐다.

- ① ㄱ
- ② ㄴ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ㄱ, ㄴ, ㄷ

2011 5급 (선) 23번

문 23. 다음 대화 내용을 근거로 옳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甲: 가족은 혼인제도에 의해 성립된 집단으로 두 명의 성인 남녀와 그들이 출산한 자녀 또는 입양한 자녀로 이루어져야만 해. 이러한 가족은 공동의 거주, 생식 및 경제적 협력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乙: 가족은 둘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집단을 말해. 이들은 친밀감과 자원을 서로 나누고 공동의 의사결정을 하며 가치관을 공유하는 등의 특성이 있지.

丙: 핵가족은 전통적인 성역할에 기초하여 아동양육, 사회화, 노동력 재생산 등의 기능을 가장 이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족 구조야. 그런데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출산율 저하, 이혼율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등은 전통적인 가족 기능의 위기를 가져오는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야. 그래서 핵가족 구조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

丁: 전통적인 가족 개념은 가부장적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최근에는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족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지. 게다가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가 증대하고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따라 남성 혼자서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야. 그래서 한 가정 내에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 <보 기> ———

ㄱ. 甲에 의하면 민족과 국적이 서로 다른 두 남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입양한 가정은 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ㄴ. 乙과 丙은 동성(同性) 간의 결합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지지할 것이다.

ㄷ. 丙은 아동보육시설의 확대정책보다는 아동을 돌보는 어머니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정책을 더 선호할 것이다.

ㄹ. 丁은 무급의 육아휴직 확대정책보다는 육아도우미의 가정파견을 전액 지원하는 국가정책을 더 선호할 것이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011 5급 (선) 24번

문 24. 다음 글에 대한 가장 적절한 추론은?

조선왕조는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존중하는 민본정치(民本政治)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하지만 건국 초기 조선왕조의 최우선적인 관심은 역시 왕권의 강화였다. 조선왕조는 고려 시대에 왕권을 제약하고 있던 2품 이상 재상들의 합의기관인 도평의사사를 폐지하고, 대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관리에 대한 임명동의권인 서경권을 약화시켜 5품 이하 관리의 임명에만 동의권을 갖도록 제한하였다. 이는 고려 말기 약화되었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조선의 이러한 왕권 강화 정책은 공권 강화에 집중되어 이루어졌다. 국왕은 관념적으로는 무제한의 권력을 갖지만 실제로는 인사권과 반역자를 다스리는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는 권력 분산과 권력 견제를 위한 군신공치(君臣共治)의 이념에 기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국왕은 오늘날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어전회의를 열어 국사(國事)를 논의하였다. 어전회의는 매일 국왕이 편전에 나아가 의정부, 6조 그리고 국왕을 측근에서 보필하는 시종신(侍從臣)인 홍문관, 사간원, 사헌부, 예문관, 승정원 대신들과 만나 토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상참(常參), 매일 5명 이내의 6품 이상 문관과 4품 이상 무관을 관청별로 교대로 만나 정사를 논의하는 윤대(輪對), 그리고 매달 여섯 차례 의정부 의정,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의 고급관원과 전직대신들을 만나 정책 건의를 듣는 차대(次對) 등 여러 종류가 있었다.

국왕을 제외한 최고의 권력기관은 의정부였다. 이는 중국에 없는 조선 독자의 관청으로서 여기에는 정1품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 세 정승이 있고, 그 밑에 종1품의 좌찬성과 우찬성 그리고 정2품의 좌참찬과 우참찬 등 7명의 재상이 있었다. 의정부 밑에 행정집행기관으로 정2품 관청인 6조를 소속시켜 의정부가 모든 관원과 행정을 총괄하는 형식을 취했다. 6조(이·호·예·병·형·공조)에는 장관인 판서(정2품)를 비롯하여 참판(종2품), 참의(정3품), 정랑(정5품), 좌랑(정6품) 등의 관원이 있었다. 의정부 다음으로 위상이 높은 것은 종1품 관청인 의금부였는데, 의금부는 왕명에 의해서만 반역죄인을 심문할 수 있어서 왕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권력기구였다.

- ① 조선 초기의 왕은 윤대와 차대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였다.
- ② 조선 초기의 왕은 편전에 나아가 매일 형조 정랑을 만나는 차대를 행하였다.
- ③ 조선 초기의 왕은 이조 참판으로 甲을 임명하기 위하여 의정부 관리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였다.
- ④ 조선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개혁을 했고, 의금부는 왕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권력기구였다.
- ⑤ 영의정은 품계상 의정부의 최고 직위자로서 자신보다 하위 품계인 좌의정, 우의정, 6조 판서 등을 관리하고 총괄하였다.

2012 5급 (인) 1번

문 1.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옳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수원 화성(華城)은 조선의 22대 임금 정조가 강력한 왕도 정치를 실현하고 수도 남쪽의 국방요새로 활용하기 위하여 축성한 것이었다. 규장각 문신 정약용은 동서양의 기술서를 참고하여 『성화주략』(1793년)을 만들었고, 이것은 화성 축성의 지침서가 되었다. 화성은 재상을 지낸 영중추부사 채제공의 총괄 하에 조심태의 지휘로 1794년 1월에 착공에 들어가 1796년 9월에 완공되었다. 축성과정에서 거중기, 녹로 등 새로운 장비를 특수하게 고안하여 장대한 석재 등을 옮기며 쌓는 데 이용하였다. 축성 후 1801년에 발간된 『화성성역의궤』에는 축성계획, 제도, 법식뿐 아니라 동원된 인력의 인적사항, 재료의 출처 및 용도, 예산 및 임금계산, 시공기계, 재료가공법, 공사일지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건축 기록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화성은 서쪽으로는 팔달산을 끼고 동쪽으로는 낮은 구릉의 평지를 따라 쌓은 평산성인데, 종래의 중화문명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형태였다. 성벽은 서쪽의 팔달산 정상에서 길게 이어져 내려와 산세를 살려가며 쌓았는데 크게 타원을 그리면서 도시 중심부를 감싸는 형태를 띠고 있다. 화성의 둘레는 5,744 m, 면적은 130 ha로 동쪽 지형은 평지를 이루고 서쪽은 팔달산에 걸쳐 있다. 화성의 성곽은 문루 4개, 수문 2개, 공심돈 3개, 장대 2개, 노대 2개, 포(鋪)루 5개, 포(砲)루 5개, 각루 4개, 암문 5개, 봉돈 1개, 적대 4개, 치성 9개, 은구 2개의 시설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이 중 수해와 전쟁으로 7개 시설물(수문 1개, 공심돈 1개, 암문 1개, 적대 2개, 은구 2개)이 소멸되었다. 화성은 축성 당시의 성곽이 거의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다. 북수문을 통해 흐르던 수원천이 현재에도 그대로 흐르고 있고, 팔달문과 장안문, 화성행궁과 창룡문을 잇는 가로망이 현재에도 성안 도시의 주요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창룡문·장안문·화서문·팔달문 등 4대문을 비롯한 각종 방어시설들을 돌과 벽돌을 섞어서 쌓은 점은 화성만의 특징이라 하겠다.

- <보 기>——
- ㄱ. 화성은 축성 당시 중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평산성의 형태로서 군사적 방어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 ㄴ. 화성의 성곽 시설물 중 은구는 모두 소멸되었다.
 - ㄷ. 조선의 다른 성곽들의 방어시설은 돌과 벽돌을 섞어서 쌓지 않았을 것이다.
 - ㄹ. 화성의 축조와 관련된 기술적인 세부사항들은 『성화주략』보다는 화성 축성의 지침이 된 『화성성역의궤』에 보다 잘 기술되어 있을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2012 5급 (인) 2번

문 2.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옳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클래식 음악에는 보통 ‘Op.’로 시작하는 작품번호가 붙는다. 이는 ‘작품’을 의미하는 라틴어 Opus의 약자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몇몇 작곡가들의 작품에는 다른 약자로 시작하는 작품번호가 붙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하이든의 작품에는 통상적으로 ‘Hob.’로 시작하는 작품번호가 붙는다. 이는 네덜란드의 안토니 판 호보켄이 1957년과 1971년 하이든의 음악을 정리하여 낸 두 권의 카탈로그에서 유래한 것이다.

‘RV.’는 Ryom-Verzeichnis(리움번호를 뜻하는 독일어)의 약자이다. 이는 1977년 프랑스의 피터 리움이 비발디의 방대한 작품들을 번호순으로 정리하여 출판한 목록에서 비롯되었다. 비발디의 작품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마르크 핀케를(P.)이나 안토니오 파나(F.)에 의한 번호목록이 출판되었으나, 리움의 작품번호가 가장 포괄적이며 많이 쓰인다.

바흐 역시 작품마다 고유의 작품번호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바흐의 작품을 구분하여 정리한 볼프강 슈미더에 의한 것이다. ‘BWV’는 Bach-Werke-Verzeichnis(바흐의 작품번호를 뜻하는 독일어)의 첫 글자를 따온 것으로, 정리한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가 붙어서 바흐의 작품번호가 되었다. ‘BWV’는 총 1,080개의 바흐의 작품에 붙어 있다.

모차르트의 작품에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K.’는 오스트리아의 모차르트 연구가 루드비히 폰 쾨헬의 이니셜을 딴 것이다. 그는 총 626곡의 모차르트 작품에 번호를 매겼다. ‘K.’는 종종 ‘쾨헬번호’라는 의미의 Köchel-Verzeichnis의 약자인 ‘KV.’로 표기되기도 한다.

‘D.’로 시작하는 작품번호는 슈베르트에 관한 권위자인 오토 에리히 도이치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음악 문헌학자이며 전기작가인 도이치는 연대순으로 총 998개의 슈베르트 작품에 번호를 매겼다.

— <보 기> —

- ㄱ. 작품번호만 보아도 누구의 곡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ㄴ. 비발디의 작품번호를 최초로 정리하여 출판한 사람은 피터 리움이다.
- ㄷ. 몇몇 작곡가들의 작품번호는 작품들을 정리한 사람 이름의 이니셜을 사용하기도 한다.
- ㄹ. BWV293과 D.759라는 작품이 있다면 그것은 각각 바흐와 슈베르트의 작품일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12 5급 (인) 3번

문 3. 다음 글에 근거할 때, A국에 대해 옳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미래사회는 노동력 부족을 경험할까? 바우만(Bauman)은 후기 산업사회가 “대규모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노동력과 비용을 줄이면서 이익뿐 아니라 생산물 규모를 증대시키는 방법을 익혀왔다.”고 단언하고 있다. 노동가능한 모든 사회구성원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키지 않고도, 안정적 고용을 담보하지 않고도 생산력의 증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A국도 예외가 아니다. A국 내의 전체 근로자 중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2001년 17.2 %에서 2011년 8.7 %로 불과 10년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즉,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소득 10분위별 고용증감 통계에 따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중간소득층의 일자리는 8만 7천 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저임금·비정규 일자리가 증가하였다.

- <보 기>

- ㄱ. 앞으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 ㄴ.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체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 ㄷ. 생산력의 증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용이 필수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
 - ㄹ. 저임금·비정규 일자리는 증가하였고, 중간소득층의 일자리는 감소하였다.

- ① ㄴ

② ㄹ

③ ㄱ, ㄴ

④ ㄷ, ㄹ

⑤ ㄱ, ㄷ, ㄹ

2012 5급 (인) 21번

문 21.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조선시대 사족(士族)은 그들의 위세를 과시하고 이익을 지켜나가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스스로 유향소(留鄕所)를 만들어 중앙 정부가 군현에 파견한 수령을 견제하는 한편, 향리세력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고 향촌민을 원활히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 때문에 조선 초기에 유향소의 사족이 과도하게 권익을 추구하다가 수령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태종이 유향소를 혁파하자 수령과 향리의 비리와 탐학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중앙정부는 서울에 경재소(京在所)란 통제기구를 마련한 뒤 유향소를 부활 시키고, 유향소의 폐단을 막고자 노력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향소의 사족과 수령이 결탁하여 백성들을 괴롭히자 세조는 이를 구실로 다시 유향소를 혁파하였다.

유향소는 사림파가 중앙정계에 진출하는 성종대에 다시 설치되었는데, 사족이 유향소를 통해 불효 등으로 향촌 질서를 깨트리는 자들을 규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사림파가 유향소를 통해 성리학적 질서를 확고히 하여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 집권세력인 훈구파에 대항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림파의 의도가 관철된 곳은 사림파의 세력이 강한 영남 일부 지역 뿐이었고, 그밖의 대부분 지역은 훈구파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 훈구파가 유향소의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경재소를 대부분 장악했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향촌자치는 중앙의 정치논리에 의해 쉽게 제약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자 사림들은 그들이 세력기반으로 삼으려 했던 유향소를 혁파 하자고 주장하였다. 그 대신 향약보급을 통해 향촌질서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수령권이 강화되면서 유향소의 지위가 격하되고, 그에 따라 이를 통할하던 경재소도 1603년 영구히 폐지되었다.

- <보 기> ———
- ㄱ. 사족은 유향소를 통해 향촌민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 ㄴ. 유향소는 지방 사족 자치기구였기 때문에 중앙 정치 권력과 무관하였다.
 - ㄷ. 경재소는 유향소를 혁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ㄹ. 유향소는 양반 중심의 신분질서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조선후기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① ㄱ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2012 5급 (인) 23번

문 23.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종묘(宗廟)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추존(追尊)된 왕과 왕비의 신주(神主)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는 왕실의 사당이다. 신주는 사람이 죽은 후 하늘로 돌아간 신혼(神魂)이 의지하는 것으로, 왕과 왕비의 사후에도 그 신혼이 의지할 수 있도록 신주를 제작하여 종묘에 봉안했다.

조선 왕실의 신주는 우주(虞主)와 연주(練主)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두 신주는 모양은 같지만 쓰는 방식이 달랐다. 먼저 우주는 묘호(廟號), 상시(上諡), 대왕(大王)의 순서로 붙여서 썼다. 여기에서 묘호와 상시는 임금이 승하한 후에 신위(神位)를 종묘에 봉안할 때 올리는 것으로서, 묘호는 ‘태종’, ‘세종’, ‘문종’ 등과 같은 추존 칭호이고 상시는 8글자의 시호로 조선의 신하들이 정해 올렸다.

한편 연주는 유명증시(有明贈諡), 사시(賜諡), 묘호, 상시, 대왕의 순서로 붙여서 썼다. 사시란 중국이 조선의 승하한 국왕에게 내려준 시호였고, 유명증시는 ‘명나라 왕실이 시호를 내린다’는 의미로 사시 앞에 붙여 썼던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 왕조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뀐 이후에는 연주의 표기 방식이 바뀌었는데, 종래의 표기 순서 중에서 유명증시와 사시를 빼고 표기하게 되었다. 유명증시를 뺀 것은 더 이상 시호를 내려줄 명나라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 이었고, 사시를 뺀 것은 청나라가 시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청나라를 오랑캐의 나라로 치부하여 그것을 신주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조선 왕조와 중국의 명·청 시대 구분표>

조선	태조 (太祖)	정종 (定宗)	태종 (太宗)	...	인조 (仁祖)	...	숙종 (肅宗)	...
중국	명(明)					청(淸)		

— <보 기> —

- ㄱ. 중국이 태종에게 내린 시호가 ‘공정(恭定)’이고 태종의 상시가 ‘성덕신공문무광효(聖德神功文武光孝)’라면, 태종의 연주에는 ‘유명증시공정태종성덕신공문무광효대왕(有明贈諡恭定太宗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이라고 쓰여 있을 것이다.
- ㄴ. 중국이 태종에게 내린 시호가 ‘공정(恭定)’이고 태종의 상시가 ‘성덕신공문무광효(聖德神功文武光孝)’라면, 태종의 우주에는 ‘태종성덕신공문무광효대왕(太宗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이라고 쓰여 있을 것이다.
- ㄷ. 중국이 인조에게 내린 시호가 ‘송창(松窓)’이고 인조의 상시가 ‘헌문열무명숙순효(憲文烈武明肅純孝)’라면, 인조의 연주에는 ‘송창인조헌문열무명숙순효대왕(松窓仁祖憲文烈武明肅純孝大王)’이라고 쓰여 있을 것이다.
- ㄹ. 숙종의 우주와 연주는 다르게 표기되어 있을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2012 5급 (인) 27번

문 27. 다음의 <상황>을 근거로 한 <甲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상 황> —————

A국가의 전체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숫자는 2004년 90만 명에서 2011년 85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A국가는 2004년부터 모든 중학교가 정확히 40명의 학생으로 한 반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A국가에서 2004년도에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이 응시한 국어, 수학 모의고사에서 국어과목의 평균 점수는 68점이었고, 수학과목의 평균 점수는 62점이었다. 한편 A국가는 2005년부터 중학교 학급정원을 30명으로 제한하여, 모든 중학교 학급은 정확히 30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A국가에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011년도에 치른 모의고사에서 국어과목의 평균 점수는 73점이었고, 수학 평균 점수는 62점이었다.

————— <甲의 주장> —————

A국가의 중학교 학급정원 감축이 중학교 3학년의 학력(學力)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다.

————— <보 기> —————

ㄱ. 甲은 특정과목을 중심으로 결론을 주장하였다.

ㄴ. 甲은 2004년도와 2011년도 모의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았다.

ㄷ. 甲은 A국가의 중학생의 전체 숫자가 5만 명 감소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ㄹ. 甲은 중학교 학급정원 감축 이후의 단 한 차례 모의고사 성적에만 의존하고 있다.

- ① ㄴ, ㄷ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2013 5급 (인) 1번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꿀벌은 나무 등지나 벌통에서 군집생활을 한다. 암컷인 일벌과 여왕벌은 침이 있으나 수컷인 수벌은 침이 없다. 여왕벌과 일벌은 모두 산란하지만 여왕벌의 알만이 수벌의 정자와 수정되어 암벌인 일벌과 여왕벌로 발달하고, 일벌이 낳은 알은 미수정란이므로 수벌이 된다. 여왕벌의 수정란은 3일 만에 부화하여 유충이 되는데 로열젤리를 먹는 기간의 정도에 따라서 일벌과 여왕벌로 성장한다.

꿀벌 집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태 활동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관점도 다르게 형성되었다. 꿀벌 집단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일벌을 지배하는 전지적인 여왕벌에서 비롯된다는 믿음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여왕벌이 다수의 수벌을 거느리고 결혼비행을 하며 공중에서 교미를 한 후에 산란을 하는 모습에 연원을 두고 있다. 꿀벌 집단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일 수천여 개의 알을 낳거나, 다른 여왕벌을 키우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도 이러한 믿음을 강화시켰다. 또한 새로운 여왕벌의 출현으로 여왕벌들의 싸움이 일어나서 여왕벌을 중심으로 한 곳에 있던 벌떼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새로운 사회를 이루는 과정도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꿀벌의 모든 생태 활동이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벌집의 실질적인 운영은 일벌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 일벌은 꽃가루와 꿀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로열젤리를 유충에게 먹여서 키운다. 일벌은 꽃가루를 모으고, 과수병의 역할을 하며, 벌집을 새로 만들거나 청소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벌은 또한 새로운 여왕벌의 출현을 최대한 억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여왕벌에서 ‘여왕 물질’이라는 선분비물이 나오고 여왕벌과 접촉하는 일벌은 이 물질을 더듬이에 묻혀 벌집 곳곳에 퍼뜨린다. 이 물질의 전달을 통해서 여왕벌의 건재함이 알려져서 새로운 여왕벌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집단에게 알려지는 것이다.

- ① 사람이 꿀벌에 쏘였다면 그는 일벌이나 수벌에 쏘였을 것이다.
- ② 일벌은 암컷과 수컷으로 나누어지고 성별에 따라 역할이 나누어진다.
- ③ 수벌은 꿀벌 집단을 다른 집단으로부터 보호하는 과수병 역할을 한다.
- ④ 일벌이 낳은 알에서 부화된 유충이 로열젤리를 계속해서 먹으면 여왕벌이 된다.
- ⑤ 여왕 물질이라는 선분비물을 통하여 새로운 여왕벌의 출현이 억제된다.

2013 5급 (인) 4번

문 4. 다음 글을 근거로 추론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조선시대 재이(災異)는 재난(災難)과 변이(變異)의 합성어로서 재난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재이에는 가뭄, 홍수, 질병 등 인간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는 재난과 괴이한 자연현상 뿐만 아니라 와언(訛言)이라 일컬어지는 유언비어와 같은 사회적 사건 역시 포함되었다.

조선시대 지배계층은 재이에 대한 대응을 중요한 통치수단으로 삼았다. 유학의 재이론은 한나라 때 일식, 홍수, 지진 등의 재앙을 통치자의 실정(失政)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연원했다. 예를 들면 지배계층이 실정하면 재이를 통해 국가가 패망에 이르게 될 것을 알려준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재이론은 재난을 입은 피지배계층 뿐만 아니라 지배계층에게도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었다.

기양의례(祈禳儀禮)는 재이에 대처하는 국가적 방식이었다. 기양의례에는 기우제(祈雨祭)와 여제(厲祭) 등이 있었다. 가뭄이 극심해지면 임금이 제주(祭主)가 되어 기우제를 지냈다. 이 때 임금은 하늘의 벌을 받아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여, 음식을 전폐하고 궁궐에서 초가로 거처를 옮기고 죄인을 석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고 가뭄으로 흉흉한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한편 여제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행했던 의례였다. 여제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전염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정화하기 위한 의례였다. 지배계층은 기양의례와 같은 정치적 제사를 통해 피지배계층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재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 <보 기> —

- ㄱ. 조선시대에 재난은 재이를 포괄하는 개념이었다.
- ㄴ. 조선시대 기우제는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통치수단이기도 했다.
- ㄷ. 재이론에 따르면 재이는 지배계층의 실정에 대한 경고적 의미가 있었다.
- ㄹ. 조선시대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행하는 국가적 의례는 재이론을 바탕으로 시행했을 것이다.

- ① ㄱ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13 5급 (인) 21번

문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규합총서(1809)』에는 생선을 조리하는 방법으로 고는 방법, 굽는 방법, 완자탕으로 만드는 방법 등이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통째로 모양을 유지시키면서 접시에 올리려면 굽거나 찌는 방법 밖에 없다. 보통 생선을 구우려면 긴 꼬챙이를 생선의 입부터 꼬리까지 빗겨 질러서 화로에 얹고 간접적으로 불을 쪼개 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쓰면 생선의 입이 원래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 뒤틀리고 만다.

당시에는 굽기보다는 찌기가 더욱 일반적이었다. 먼저 생선의 비늘을 벗겨내고 내장을 제거한 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는다. 여기에 소금으로 간을 하여 하루쯤 채반에 받쳐 그늘진 곳에서 말린다. 이것을 솥 위에 올린 시루 속에 넣고 약한 불로 찌면 식어도 그 맛이 일품이다. 보통 제사에 올리는 생선은 이와 같이 찌는 조리법을 이용했다. 이 시대에는 신분에 관계없이 유교식 제사가 집집마다 퍼졌기 때문에 생선을 찌는 조리법이 널리 받아들여졌다.

한편 1830년대 중반 이후 밀입국한 신부 샤를 달레가 집필한 책에 생선을 생으로 먹는 조선시대의 풍습이 소개되어 있다. 샤를 달레는 “조선에서는 하천만 있으면 낚시하는 남자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들은 생선 중 작은 것은 비늘과 내장을 정리하지 않고 통째로 먹는다.”고 했다. 아마도 하천에 인접한 고을에서는 생으로 민물고기를 먹고 간디스토마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간디스토마라는 질병의 실체를 알게 된 것은 일제시대에 들어오고 나서다. 결국 간디스토마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정적으로 낚시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생선을 생으로 먹는 풍습은 일제시대에 사시미가 소개되면서 지속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잡은 생선을 일정 기간 숙성시켜서도 먹었다.

- ① 조선의 생선 조리법과 유교식 제사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② 일제시대에 일본을 통해서 생선을 생으로 먹는 풍습이 처음 도입되었다.

③ 샤를 달레의 『규합총서』에 생선을 생으로 먹는 조선의 풍습이 소개되었다.

④ 조선시대에는 생선을 통째로 접시에 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굽기보다는 찌기를 선호하였다.

⑤ 1800년대 조선인은 간디스토마의 위험을 알면서도 민물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낚시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2013 5급 (인) 23번

문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교정(矯正)에 대한 개념은 최협의(最狹義), 협의(狹義), 광의(廣義), 최광의(最廣義)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최협의의 교정은 행형(行刑), 즉 형을 집행한다는 뜻이다. 형사절차에서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 등을 받은 자(이른바 ‘수형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의 결과대로 교정시설(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처우(處遇)를 말한다.

협의의 교정은 최협의의 교정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절차(이른바 ‘미결수용’을 말한다)를 추가한 것으로, 시설측면에서 보면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수형자에 대한 교정과 구치소와 경찰서의 유치장에서 이루어지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말한다.

광의의 교정은 협의의 교정에 구금성 보안처분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구금성 보안처분에는 소년원 수용처분과 치료감호처분 등이 있다. 소년원 수용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처우로는 학과교육, 직업훈련, 교화활동 등이 있다.

최광의의 교정은 광의의 교정에 보호관찰, 갱생보호 등 사회 내 처우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교도소나 소년원 출소 이후에 이루어지는 각종 갱생보호활동이나 사회복귀지원활동 및 재범예방활동도 여기에 해당한다.

- ① 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한 자에 대한 갱생보호활동은 최광의의 교정 개념에 포함된다.
- ②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용된 자에 대한 처우는 최협의의 교정 개념에 포함된다.
- ③ 수용된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원의 학과교육은 최광의의 교정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각종 처우는 광의의 교정 개념에 포함된다.
- ⑤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가석방된 자에 대한 보호관찰활동은 광의의 교정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3 5급 (인) 25번

문 25. 다음 글에 근거할 때, <보기>에서 옳게 추론한 것을 모두 고르면?

과거에는 질병의 ‘치료’를 중시하였으나 점차 질병의 ‘진단’을 중시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조기진단을 통해 질병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발견하고 이에 따른 명확한 치료책을 제시함으로써 뒤늦은 진단 및 오진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질병 관리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조기진단의 경제적 효과는 실로 엄청난데, 관련 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유방암 치료비는 말기진단 시 60,000 ~ 145,000 달러인데 비해 조기진단 시 10,000 ~ 15,000 달러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조기진단과 치료로 인한 생존율 역시 말기진단의 경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조기진단을 가능케 하는 진단영상기기로는 X-ray, CT, MRI 등이 널리 쓰이고 있으며, 이 중 1985년에 개발된 MRI가 가장 최신장비로 손꼽힌다. MRI는 다른 기기에 비해 연골과 근육, 척수, 혈관 속 물질, 뇌조직 등 체내 부드러운 조직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고 신체의 이상 유무를 밝히는 데 탁월하여 현존하는 진단기기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MRI는 세포 조직 내 유방암, 위암,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다발성경화증 등의 뇌신경계 질환 진단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MRI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는 매년 약 42억 ~ 45억 달러씩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시장규모는 연간 8,000만 ~ 1억 달러씩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약 800대의 MRI기기가 도입돼 있다. 이는 인구 백만 명 당 16대꼴로 일본이나 미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유럽이나 기타 OECD 국가들에 뒤지지 않는 보급률이다.

- <보 기> —————
- ㄱ. 질병의 조기진단은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 ㄴ. CT는 조기진단을 가능케 하는 진단영상기기로서, 체내 부드러운 조직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는 데 있어 다른 기기에 비해 더 탁월한 효과를 보여준다.
 - ㄷ. 한국의 MRI기기 보급률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 견줄 수 있는 정도이다.
 - ㄹ. 한국의 MRI 관련 산업 시장규모는 전 세계 시장규모의 3%를 상회하고 있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ㄱ, ㄷ, ㄹ

2013 외교 (인) 1번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추론할 때 옳은 것은?

미국인의 일상생활은 1919년 이후 꾸준히 변해왔다. 1919년 5월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은 스미스씨의 복장만 보면 1930년이라고 착각할지도 모른다. 물론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스미스씨의 바지통이 1930년보다 좁다는 것을 눈치챌 수도 있다. 이처럼 남성들의 패션은 빙하의 움직임처럼 느리게 변화한다.

이와는 달리 스미스 부인은 당시의 유행대로 발목 부분에서 오프라들고, 발목에서 10 cm 올라가 있는 치마를 입고 있다. 부인은 패션잡지에서 “부르봉 왕조 이래 여자들이 이렇게 다리를 내놓았던 적은 없다”는 놀라운 이야기와 앞으로 치마 길이가 더욱 짧아질 것임을 전망하는 기사를 보았지만, 발목에서 10 cm 위는 여전히 당시의 표준적인 치마 길이였다.

또한 스미스 부인은 지난 겨울 내내 끈으로 꼭 맞게 조인 워킹 부츠 혹은 사슴 가죽을 부착한 에나멜 구두로 복사뼈를 감싸고 있었지만, 지금은 봄이라는 계절에 맞게 단화를 신고 단화 안에는 검은색 스타킹을 신었다. 스미스 부인은 황갈색 구두를 신을 때 황갈색 스타킹을 신는다.

1919년이면 화장은 매춘부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고정 관념이 희미해지고, 세련된 소녀들은 이미 대담하게 화장을 시작했을 때이다. 하지만 스미스 부인은 분을 바르는 정도로 얼굴 화장을 마무리하고, 색조 화장품은 사용하지 않았다. 가정교육을 잘 받은 스미스 부인 같은 여성들은 아직 ‘불연지’라면 미간을 찌푸린다.

스미스 부인의 머리는 길다. 그래서 부인은 외출할 때에는 모자를 쓰고 긴머리를 머리 뒤쪽에 핀으로 단정하게 고정 시키는 베일(veil)을 착용한다. 스미스 부인에게는 긴머리를 짧게 자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왜냐 하면 당시에는 단발머리 여성이나 장발의 남성은 자유연애 주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급진적인 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 ① 1919년과 1930년 사이에 미국 남성들의 바지 모양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② 1919년의 여성들의 치마는 대체로 무릎을 드러내는 정도의 길이였다.

③ 스미스 부인은 외출을 할 때는 볼에 색조 화장을 하였을 것이다.

④ 긴 머리의 여성은 자유연애주의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

⑤ 스미스 부인이 신은 단화는 황갈색이었다.

2013 외교 (인) 2번

문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경국대전은 조선의 기본 법전으로 여러 차례의 개정 작업을 거쳐 1485년(성종16년)에 최종본이 반포되었다. 경국대전은 6조(曹)의 직능에 맞추어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6전(典)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국대전에는 임금과 신하가 만나서 정사를 논의하는 조회제도의 기본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조회에 대한 사항은 의례 관련 규정을 수록하고 있는 예전(禮典)의 조의(朝儀) 조항에 집약되어 있다. 조의는 ‘신하가 임금을 만나는 의식’을 의미한다. 아래 <표>는 경국대전 ‘조의’에 규정된 조회 의식의 분류와 관련 내용이다.

<표> 경국대전의 조회 의식

분류	종류	시행일	장소	참여대상
대조 (大朝)	정실조하 (正室朝賀)	정삭(正朔), 동지(冬至), 탄일(誕日)	근정전 (勤政殿)	왕세자, 모든 관원, 제방객사(諸方客使)
	삭망조하 (朔望朝賀)	매월 삭(朔)(1일)· 망(望)(15일)	근정전 (勤政殿)	왕세자, 모든 관원, 제방객사(諸方客使)
상조 (常朝)	조참 (朝參)	매월 5·11 ·21·25일	근정문 (勤政門)	모든 관원, 제방객사(諸方客使)
	상참 (常參)	매일	사정전 (思政殿)	상참관(常參官)

※ ‘대조’는 특별한 시점에 시행되는 조회라는 의미이고, ‘상조’는 일상적인 조회라는 의미이다.

※ ‘제방객사’는 주변국 외교사절로서, ‘삭망조하’와 ‘조참’에는 경우에 따라 참석하였다.

대조(大朝)의 범주에 해당하는 조회는 경국대전에 조하(朝賀)로 규정되어 있다. 조하는 축하를 모임의 목적으로 하는 의식이다. 정월 초하루, 해의 길이가 가장 짧아지는 동지 및 국왕의 생일 행사는 대조 중에서도 특별히 구분하여 3대 조회라고 지칭하고 의식의 규모도 가장 크다. 조하는 달의 변화에 따라 시행되기도 하였는데, 달의 변화를 기준으로 작성된 달력에 따라 매월 1일에 해당되는 삭일(朔日)과 보름달이 뜨는 망일(望日)에 시행되는 삭망조하가 그것이다.

- <보 기>
- ㄱ. 삭망조하는 달의 변화에 맞추어 시행되었다.
 ㄴ. 정실조하의 참여대상 범위는 대체로 상참보다 넓다.
 ㄷ. 한 해 동안 조회가 가장 많이 열리는 곳은 사정전이다.
 ㄹ. 조선시대 조회에 관한 사항은 공전(工典)의 의례 관련 규정에 집약되어 있다.

- ① ㄱ, ㄷ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2013 외교 (인) 5번

문 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문화바우처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화바우처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5만 원 상당의 문화예술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카드’를 발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2005년 5억 원 예산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2011년 347억 원으로 증액되는 등 대표적인 문화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의 문화카드 발급률과 사용률에 있어 양극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문화 생활에 대한 개인적 관심의 차이보다는 대상자의 거주지역, 문화예술 교육경험, 나이, 학력 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각종 통계에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문화카드 발급률 및 사용률 실태조사에서 세대적 요인에 따른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대와 30대의 발급률과 사용률은 각각 90 % 이상인 반면, 50대와 60대의 경우 각각 50 %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간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경우 발급률과 사용률 평균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70 % 이상이었으나, 농촌지역의 경우는 20 %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로 인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의 80 % 가까이를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카드의 발급률과 사용률이 저조한 것은 농촌지역 주민 대부분이 사업 시행을 모르거나 사업 자체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행정기관을 방문해 문화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고령의 농촌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꺼리는 것도 한 원인으로 손꼽힌다.

- ① 고학력자에 대한 문화예술 체험 확대 방안
- ② 사업의 불법 수혜자에 대한 적발 강화 방안
- ③ 농촌지역의 문화바우처사업 예산 확대 방안
- ④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문화 사업 다양화 방안
- ⑤ 사업의 홍보 확대 및 문화카드 발급절차 간소화 방안

2013 외교 (인) 21번

문 21. 다음 글을 근거로 추론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중세 이래의 꿈이었던 인도 항해가 바스쿠 다 가마(Vasco da Gama) 이후 가능해지자 포르투갈은 아시아 해양 세계로 진입하였다. 인도양을 중심으로 한 상업 체계는 무역품과 돈순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상당히 규칙적인 틀이 만들어져 있었다. 지중해를 잇는 아덴 - 소팔라 - 캘리컷을 연결하는 삼각형이 서쪽에 형성되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아랍권의 것이었다. 여기에 동쪽의 말라카가 연결되어 자바, 중국, 일본, 필리핀 등지에 이르는 광범위한 공간이 연결된다. 한편 서쪽의 상업권에서 홍해 루트와 페르시아만 루트가 뻗어나 가서 지중해권과도 연결된다.

포르투갈은 인도양 세계 전체를 상대로 보면 보잘것없는 세력에 불과했지만, 대포를 앞세워 아시아를 포함한 주요 거점 지역들을 무력으로 장악해 나갔다. 이런 성과를 얻기 위해 포르투갈은 엄청난 비율의 인력 유출을 감내해야 했다. 16세기 포르투갈의 해외 유출인구는 1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포르투갈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이것은 남자 인구로만 본다면 35%의 비중이었다. 외국에 나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가 사망했는데 각 세대마다 남자 인구 7~10%가 희생되었다. 이런 정도로 큰 희생을 치러가며 해외 사업을 벌인 경우는 역사상 많지 않았다.

포르투갈의 아시아 교역에서는 후추 등 향신료의 비중이 가장 컸다. 포르투갈 상인들은 후추를 얻기 위해 인도로 구리를 가져가서 거래를 했는데, 구리 무게의 2.5~4배에 해당하는 후추를 살 수 있었다. 포르투갈의 해외 교역은 사실상 후추 등 향신료 교역이었으나, 후추 산지들이 매우 넓게 분포해 있어서 독점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포르투갈 상인들이 유럽으로 들여온 후추의 양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다. 포르투갈은 모두 12만 톤의 후추를 유럽에 들여왔다. 특히 1500~1509년 기간에 매년 7~8척의 배들이 3,000톤의 후추를 들여왔는데, 이는 당시 전 세계 생산량의 1/3에 해당한다.

- ① 16세기 포르투갈의 전체 인구는 약 100만 명이었을 것이다.
- ② 16세기 초 포르투갈은 매년 10만 명이 해외에 나가 3,000톤의 후추를 유럽에 들여왔다.
- ③ 인도양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 체계의 규칙적인 틀은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항해 이전에 형성되었다.
- ④ 16세기에 포르투갈은 후추 등 향신료의 아시아 무역에서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했을 것이다.
- ⑤ 포르투갈이 12만 톤의 후추를 유럽에 들여올 때 구리를 대금으로 지급했다면, 최소 3만 톤의 구리가 필요했을 것이다.

2013 외교 (인) 22번

문 22. 다음 글을 근거로 추론할 때 옳은 것은?

성균관을 다른 말로 ‘반궁(泮宮)’이라 한다. 반궁이란 말의 유래는 중국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周)나라 때 천자(天子)의 나라에 설립한 학교를 벽옹(辟雍)이라 하고, 제후의 나라에 설립한 학교를 반궁이라 하였다. 반궁이란 말은 ‘반수(泮水)’에서 온 말이다. 물론 여기서의 ‘궁(宮)’은 궁전이란 뜻이 아니고 단순히 건물이란 뜻이다. 이런 내력으로 인해 성균관과 관련된 곳에 흔히 ‘반(泮)’자를 붙였으니, 성균관 주위의 마을을 ‘반촌(泮村)’이라 하고 그 곳의 주민은 반민(泮民), 반인(泮人)이라 불렀던 것이다.

18세기의 저명한 문인이자 학자인 서명응이 쓴 『안광수전(安光洙傳)』에 반촌의 유래와 반촌 주민에 관한 소상한 언급이 나온다. 그에 따르면 반촌은 고려 말 문성공(文成公) 안향(安珦, 1243 ~ 1306)이 자기 집안의 노비 100여 명을 회사하여 성균감(성균관의 전신)을 부흥할 것을 도운 데서 비롯된다. 조선이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성균관을 한양으로 옮기자 그 노비 자손들이 옮겨와 살면서 하나의 동리를 이루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그 곳을 반촌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반촌의 형성 유래가 이러했으므로, 반촌의 거주자 반인의 삶은 성균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성균관은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대사성 이하 관료조직과 교관 그리고 유생들이 있었다. 더욱이 성균관은 공자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과 강의동인 명륜당 이외에도 학생들의 기숙사와 식당이 있었다. 이런 건물을 관리하고 학생들의 식사를 준비하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였고, 반인들은 바로 이 성균관의 잡역을 세습적으로 맡아보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또한 반촌은 새로운 이념 서클의 온상 역할도 했다. 이승훈과 정약용 등은 당시 지방에서 새롭게 시작된 천주교 학습을 반촌에서 시도하다가, 척사(斥邪)파의 공격을 받고 지방으로 축출되기도 했다.

- ① 한양에 반촌이 형성된 것은 고려말기이다.
- ② 성균관이 쇠퇴한 시기에는 반인들의 삶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 ③ 조선시대에 천주교는 반촌을 중심으로 동심원 모양으로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성균관은 학생인 반인·유생을 비롯하여 대사성 이하 관료와 교관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 ⑤ 성균관을 반궁이라 부른 것은 조선을 천자의 나라로 본 당시의 관념을 반영한 것이다.

2014 5급 (A) 1번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북독일과 남독일의 맥주는 맛의 차이가 분명하다. 북독일 맥주는 한마디로 ‘강한 맛이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맥주를 최대한 발효시켜 진액을 거의 남기지 않고 당분을 낮춘다. 반면 홉(hop) 첨가량은 비교적 많기 때문에 ‘담백하고 씹쓸한’, 즉 강렬한 맛의 맥주가 탄생한다. 이른바 씹쓸한 맛의 맥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19세기 말까지 남독일의 고전적인 뮌헨 맥주는 원래 색이 짙고 순하며 단맛이 감도는 특징이 있었다. 이 전통을 계승하여 만들어진 뮌헨 맥주는 홉의 쓴맛보다 맥아 본래의 순한 맛에 역점을 둔 ‘강하지 않고 진한’ 맥주다.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는 맥주 축제의 대명사이다. 옥토버페스트의 기원은 1810년에 바이에른의 시골에서 열린 축제이다. 바이에른 황태자와 작센에서 온 공주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개최한 경마대회가 시초이다. 축제는 뮌헨 중앙역에서 서남서로 2 km 떨어진 곳에 있는 테레시아 초원에서 열린다. 처음 이곳은 맥주와 무관했지만, 4년 후 낫쇠 뚜껑이 달린 도기제 맥주잔에 맥주를 담아 판매하는 노점상이 들어섰고, 다시 몇 년이 지나자 테레시아 왕비의 기념 경마대회는 완전히 맥주 축제로 변신했다.

축제가 열리는 동안 세계 각국의 관광객이 독일을 찾는다. 그래서 이 기간에 뮌헨에 숙박하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저렴하고 좋은 호텔은 봄에 이미 예약이 끝난다. 축제는 2주간 열리고 10월 첫째 주 일요일이 마지막 날로 정해져 있다.

뮌헨에 있는 오래된 6대 맥주 회사만이 옥토버페스트 축제장에 텐트를 설치할 수 있다. 각 회사는 축제장에 대형 텐트로 비어홀을 내는데, 두 곳을 내는 곳도 있어 텐트의 개수는 총 9~10개 정도이다. 텐트 하나에 5천 명 정도 들어갈 수 있고, 텐트 전체로는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 축제의 통계를 살펴보면, 기간 14일, 전체 입장객 수 650만 명, 맥주 소비량 510만 리터 등이다.

- ① ○○년 10월 11일이 일요일이라면 ○○년의 옥토버페스트는 9월 28일에 시작되었을 것이다.
- ② 봄에 호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옥토버페스트 기간에 뮌헨에서 호텔에 숙박할 수 없다.
- ③ 옥토버페스트는 처음부터 맥주 축제로 시작하여 약 200년의 역사를 지니게 되었다.
- ④ 북독일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뮌헨 맥주를 ‘강한 맛이 없다’고 비판한다면, 뮌헨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맥아가 가진 본래의 맛이야말로 뮌헨 맥주의 장점이라고 말할 것이다.
- ⑤ 옥토버페스트에서 총 10개의 텐트가 설치되고 각 텐트에서의 맥주 소비량이 비슷하다면, 2개의 텐트를 설치한 맥주 회사에서 만든 맥주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약 7천 리터가 소비되었을 것이다.

2014 5급 (A) 2번

문 2. 다음 글을 근거로 추론할 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봉수대 위에서 생활하면서 근무하는 요원으로 봉군(烽軍)과 오장(伍長)이 있었다. 봉군은 주야(晝夜)로 후망(候望)을 게을리해서는 안되는 고역을 직접 담당하였고, 오장은 대상(臺上)에서 근무하면서 봉군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다.

경봉수는 전국의 모든 봉수가 집결하는 중앙봉수로서 서울에 위치하였고, 연변봉수는 해륙변경(海陸邊境)의 제1선에 설치한 것으로 그 임무수행이 가장 힘들었다. 내지봉수는 연변봉수와 경봉수를 연결하는 중간봉수로 수적으로 대다수였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연변봉수와 내지봉수의 봉군 정원은 매소(每所) 6인이었다. 오장의 정원은 연변봉수·내지봉수·경봉수 모두 매소 2인이었다. 봉군은 신량역천(身良役賤), 즉 신분상으로는 양인(良人)이나 국역담당에 있어서는 천인(賤人)이었다.

『대동지지』에 수록된 파발(擺撥)의 조직망을 보면, 서발은 의주에서 한성까지 1,050리의 직로(直路)에 기마통신(騎馬通信)인 기발로 41참(站)을 두었고, 북발은 경흥에서 한성까지 2,300리의 직로에 도보통신인 보발로 64참을 설치하였다. 남발은 동래에서 한성까지 920리의 직로에 보발로 31참을 설치하였다. 발군(撥軍)은 양인(良人)인 기보병(騎步兵)으로만 편성되었다. 파발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주야로 달렸다. 기발의 속도가 1주야(24시간)에 약 300리 정도로 중국의 400~500리보다 늦은 것은 산악이 많은 지형 때문이었다.

봉수는 경비가 덜 들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적의 동태를 오직 봉수의 개수로만 전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전달할 수 없고 또한 비와 구름·안개로 인하여 판단이 곤란하고 중도에 단절되는 결점이 있었다. 반면에 파발은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봉수보다는 전달속도가 늦은 결점이 있으나 문서로 전달되기 때문에 보안유지는 물론 적의 병력수·장비·이동상황 그리고 아군의 피해상황 등을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 <보 기>——
- ㄱ. 『경국대전』에 따를 때 연변봉수의 근무자 정원은 총 6명이었을 것이다.
 - ㄴ. 발군의 신분은 봉군의 신분보다 낮았을 것이다.
 - ㄷ. 파발을 위한 모든 직로에 설치된 참과 참 사이의 거리는 동일했을 것이다.
 - ㄹ. 의주에서 한성까지 기발로 문서를 전달하는 데 통상 2주야가 걸렸을 것이다.

- ① ㄱ
-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2014 5급 (A) 3번

문 3. 다음 글과 <정보>를 근거로 추론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외계행성은 태양계 밖의 행성으로, 태양이 아닌 다른 항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행성이다. 외계행성을 발견하면, 그 행성이 공전하고 있는 항성의 이름 바로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붙여 이름을 부여하게 되는데, 발견된 순서에 따라 알파벳 b부터 순서대로 붙인다. 예를 들어, ‘글리제 876 d’는 ‘글리제 876’ 항성 주위를 공전하는 외계행성이며, 이 행성계 내의 행성 중에서 세 번째로 발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행성은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별칭을 얻기도 한다. 행성은 질량을 기준으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구분된다. 이 기준의 경계는 다소 불분명한 편이나, 일반적으로 목성 질량의 0.9배 이상은 목성형 행성, 그 미만은 지구형 행성(지구처럼 목성보다 작은 질량을 가진 행성)으로 불린다. 목성형 행성은 다른 행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사악한 행성, 선량한 행성으로 불리기도 한다. 질량이 큰 목성형 행성이 항성 가까이에 있을 경우, 항성을 흔들고 다른 행성의 공전궤도를 교란시키거나 소행성을 날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악한 행성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다. 반면, 항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내부의 다른 지구형 행성으로 날아가는 소행성이나 혜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므로 선량한 행성으로 불린다.

또한 표면온도에 따라 뜨거운 행성과 차가운 행성으로 구분된다. 항성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표면이 지나치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 생물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표면온도를 갖는 행성을 골디락스 행성이라고 부른다.

— <정 보> —

최근 국제 공동연구팀이 고성능 망원경으로 핑크색 외계 행성을 발견했으며, 이 핑크색 외계행성은 ‘GJ 504 b’로 명명되었다. 역대 발견된 외계행성 중에서 가장 질량이 작은 이 핑크색 외계행성은 목성 질량의 4배이고, 목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보다 9배 더 먼 거리에서 항성 주위를 공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연구팀은 “행성의 표면 온도는 섭씨 약 238도이며, 약 1억 6,000만 년 전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물과 외계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① ‘GJ 504 b’는 목성형 행성이다.
- ② ‘GJ 504’ 항성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 중 발견된 것은 총 2개이다.
- ③ 역대 발견된 외계행성은 모두 지구보다 질량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④ ‘GJ 504 b’는 골디락스 행성이라 불릴 수 없다.
- ⑤ ‘GJ 504 b’가 내부의 다른 지구형 행성으로 날아가는 소행성이나 혜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선량한 행성으로 불릴 수 있다.

2014 5급 (A) 22번

문 22. 다음 (가)와 (나)의 주장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이하 ‘하층’)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지위좌절을 경험하면서 비행하위문화를 형성하고 그러한 문화의 영향으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학교라는 사회적 장에서 청소년들은 경쟁을 통해서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데, 학교에서는 하층 청소년에게는 불리하고 중산층 청소년에게는 유리한 평가기준을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한다. 오로지 학업성적 위주로만 평가하는 학교에서는 하층 청소년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하층 청소년들은 지위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중산층 청소년에게 유리한 평가기준이 적용되는 학교에 대하여 반발하게 된다. 그러면서 하층 청소년들은 지위좌절을 느끼지 않도록, 학업성적이 아닌 자신들에게 유리한 평가기준을 만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그들만의 하위문화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한 하위문화는 비행하위문화로서 중산층 문화에 반발하는 성격을 지니는 문화이다.

(나) 하층 지역에는 본래부터 비행 친화적인 가치와 문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층 지역 출신의 청소년들이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게 된다. 예컨대 하층 지역은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고, 따라서 성역할 모델인 아버지가 없어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무단히 남성성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하층 지역에서는 독자적이고 전통성을 지닌 고유한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는 중산층 문화에 적대적이거나 반발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다.

- <보 기> —————

ㄱ. (가), (나) 모두 하층 청소년들의 비행을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한다.

ㄴ. (가), (나) 모두 하층 청소년들의 비행은 중산층 문화에 대한 반발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ㄷ. 청소년들은 계층에 상관없이 모두 좋은 학업성적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한다는 조사결과는 (가)의 주장을 지지한다.

ㄹ. 계층에 따라서 비행 정도에 차이가 없다는 청소년 대상 설문 조사결과는 (나)의 주장을 지지한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ㄹ

⑤ ㄴ, ㄷ, ㄹ

2015 5급 (인) 1번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최고법이다. ‘헌법’이라는 용어는 영어의 ‘constitution’, ‘constitutional law’를 번역한 것이다. 근대 초기에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 단어를 국제(國制), 헌장(憲章), 국헌(國憲)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였는데, 오늘날에는 공동체의 최고법규범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엄격히 보면 constitution은 일정한 구성체(공동체)를 의미하고, constitutional law는 그 구성체를 규율하는 최고의 법규범을 일컫는다. 따라서 헌법학에서 헌법이라는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이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지칭하기도 하고, 둘을 같이 지칭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헌법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중국 전국시대 문헌인 『국어』 진어편(篇)의 ‘상선벌간 국지헌법야’(賞善罰姦國之憲法也)라는 문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후한서』, 『서경』, 『예기』 등 중국의 옛 문헌에도 헌법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헌법은 모든 종류의 법을 통틀어 지칭하는 법의 통칭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령을 통칭하는 ‘국제’(國制)라는 용어가 조선시대에 편찬된 『고려사』에 보이고, 헌법이라는 말은 1884년 1월 30일 한성순보에 실린 ‘구미입헌정체’(歐美立憲政體)라는 글에서 오늘날 의미로 사용되었다. 헌법이라는 단어가 실정법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1919년 9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임시헌법」이다.

한편 헌법은 시대 흐름에 따라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의 최고기관을 조직·구성하고, 이들 기관의 권한행사 방법, 국가기관의 상호관계 및 활동범위를 정한 기본법이다. 이러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한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분립에 의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말한다.

- 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헌법도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라 할 수 있다.
- ② 고려사에 기록된 국제(國制)라는 용어는 오늘날 통용되는 헌법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헌법학에서 사용하는 헌법이라는 용어는 최고의 법규범이 아닌 일정한 구성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 ④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비교할 때,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권력의 조직·구성보다는 국가권력의 제한에 그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 ⑤ 중국에서 헌법이라는 용어는 처음에는 최고법규범을 의미했지만, 현재는 다양한 종류의 법이 혼합된 형태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2015 5급 (인) 2번

문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한반도에서 연행된 곡예종목의 기원은 문헌 자료로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자생적 전통을 바탕으로 삼국시대에 서역과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산악(散樂)과 백희(百戲)가 더해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3세기에서 5세기경에 제작된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산악, 백희 등에 해당하는 여러 연희가 그려져 있다. 여기에는 나무다리걸기, 곤봉받기 등과 같은 곡예종목이 나타나지만, 중요한 곡예종목인 줄타기, 땅재주, 솟대타기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구려 이전 중국 한나라 고분에는 이런 종목이 많이 그려져 있다. 또 전문 연희집단이 산악과 백희를 함께 연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구려에서도 줄타기, 솟대타기, 땅재주 등이 연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곡예종목이 국내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시기는 고려시대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곡예종목에 대한 최고(最古)의 기록은 이규보의 시인데, 여기서 고난도의 줄타기 연행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이규보는 『동국이상국집』에서 임금의 행차를 맞이할 때 연행했던 여러 연희를 설명하고 있다.

조선시대 연희를 보고 지은 『관나희』에는 봄에 임금과 신하가 궁궐에 모여 방울받기, 줄타기, 꼭두각시놀이, 솟대타기 등을 즐겼다는 기록이 있다. 『문종실록』에는 중국 사신 영접행사를 위해 베풀 연희에 관하여 논의하는 기록도 있다. 여기에서 줄타기, 방울받기, 땅재주는 가장 중요한 국빈인 중국 사신의 영접행사에서 빠짐없이 연행되었던 조선시대의 대표적 연희종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종 19년 조선에 왔던 명나라 사신 동월의 「조선부」를 보면, 그 시절 연희의 기교가 매우 세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 ※ 연행(演行) : 연출하여 행함
 - ※ 연희(演戲) : 말과 동작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재주를 부림
- 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임금은 연희를 볼 기회가 없었다.
 - ② 한반도에서 연행된 곡예종목의 기원을 고려시대 문헌 자료를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 ③ 한나라 고분벽화에서는 줄타기, 땅재주, 솟대타기 그림을 찾을 수 없다.
 - ④ 중국 사신 동월은 고려시대 연희의 세련된 기교를 칭찬하는 기록을 남겼다.
 - ⑤ 고구려에서는 나무다리걸기, 곤봉받기 등의 곡예 외에 줄타기, 땅재주, 솟대타기 등은 연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5 5급 (인) 3번

문 3. 다음 글을 근거로 추론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유럽인이 아프리카인을 포획하여 노예화한 것은 1441년 포르투갈인들이 모리타니아 해안에서 10명의 주민을 잡아간 때부터이다. 1519~1867년 기간 중 약 950만 명의 아프리카인이 노예무역을 통해 아메리카로 강제이주되었고, 이동 중 평균 사망률이 15 %였음을 감안하면 강제로 아프리카를 떠난 노예의 수는 더 많았을 것이다. 이 기간 중 아프리카에서 노예포획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지역은 현재의 세네갈에서 카메룬에 이르는 해안 지역이고, 이렇게 포획된 노예는 브라질(21.4 %), 자메이카(11.2 %) 등으로 보내졌다.

브라질로 많은 노예가 보내진 이유는 16세기 후반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탕수수 농장이 이 지역에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 외 금광, 커피·담배·면화 재배농장에서도 아프리카 노예가 많이 활용되었다.

포획된 노예를 송출한 국가를 규모 순서로 나열하면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에스파냐, 네덜란드 순이다. 노예 무역은 영국의 왕립 아프리카 회사, 네덜란드의 서인도 회사, 프랑스의 기네아 회사 등 개인 사업자가 민간 자본을 모아서 운영하는 방식이었지만 국가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였다.

————— <보 기> —————

ㄱ. 1519~1867년 기간 동안 노예무역으로 자의에 반하여 아프리카를 떠난 노예는 1,100만 명 이상일 것이다.

ㄴ. 유럽에서 노예무역은 국가 독점 사업이었을 것이다.

ㄷ. 17세기 유럽 국가는 대부분의 노예를 자메이카로 보냈을 것이다.

ㄹ. 담배 재배 농업이 활발한 지역에서도 노예수요가 많았을 것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ㄷ, ㄹ

2015 5급 (인) 9번

문 9. 다음 글을 근거로 추론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계산을 한다는 것은 인간 고유의 능력이다. 글자도 숫자도 없던 원시시대에는 몸의 일부분, 특히 손가락이나 손을 사용하여 계산했다. 따라서 원시인은 5를 ‘손’이라고, 10을 ‘양손’ 혹은 ‘인간’이라고 이해하였다. 또한 산스크리트어로 5는 ‘pancha’라고 하는데, 이것은 페르시아어로 ‘손’을 나타내는 ‘pentcha’와 매우 유사하다.

원시인은 나뭇가지나 작은 돌멩이를 늘어놓고 계산하는 방법도 사용하였다. 라틴어의 ‘talea’는 작은 나뭇가지를 뜻하는데 이로부터 영어의 ‘tally’(계산, 총계)라는 단어가 생겼으며, 마찬가지로 ‘calculus’(조약돌)에서 영어의 ‘calculate’(계산하다)라는 단어가 생겼다.

손가락을 계산에 이용한 흔적은 현대에도 남아 있다. 시리아, 프랑스의 일부 지방에서는 지금까지도 5보다 큰 한자리 자연수 2개를 곱할 때 손가락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8×7 을 구하기 위해서는 왼손 손가락 세 개($8 - 5$)를 굽히고 오른손 손가락 두 개($7 - 5$)를 굽힌다. 이렇게 한 후에 굽힌 손가락의 수를 더하여 5를 구한 다음, 굽히지 않은 손가락의 수를 곱해 6을 구한다. 이렇게 계산한 두 수를 통해 56이란 답을 구한다.

————— <보 기> —————

- ㄱ. ‘계산’이라는 단어는 계산을 하는 데 사용한 도구와 관련된 경우가 있다.
- ㄴ. 원시인은 도구나 육체를 직접 사용하여 계산하였을 것이다.
- ㄷ. 6×6 을 계산하기 위하여 시리아, 프랑스 일부 지방의 손가락 곱셈 방법을 사용하려면 왼손 손가락 1개와 오른손 손가락 1개를 굽혀야 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015 5급 (인) 14번

문 14. 다음 글을 근거로 추론할 때, 언급된 작품 중 완성시점이 두 번째로 빠른 것은?

반 고흐가 여동생 월에게

작년 누에넬에서 완성한 「감자 먹는 사람들」이 내가 그린 그림 중 제일 낫다고 생각해. 그 후로는 알맞은 모델을 구할 수 없었어. 그 대신 색채 문제를 고민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지.

작년에는 「장미와 해바라기가 있는 정물」을 완성하면서 분홍색, 노란색, 주황색, 찬란한 빨간색에 익숙해질 수 있었단다. 그 덕에 올 여름 「아시니에르의 음식점」을 완성하면서 과거보다 더 많은 색을 볼 수 있었어.

- 1887년 여름 -

반 고흐가 베르나르에게

이제 막 다 그린 「씨 뿌리는 사람」을 보내네. 태양만큼이나 환한 그림일세. 「별이 빛나는 밤」은 언제쯤이면 완성할 수 있을까? 완벽한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서 아무리 큰 무력감을 느끼더라도 우선 노력은 해야겠다고 다짐하네.

- 1888년 6월 -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근래 아프기는 했지만 「수확하는 사람」을 드디어 완성했어. 수확하느라 피약벌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흐릿한 인물에서 나는 죽음의 이미지를 발견하곤 해.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과는 반대의 그림이라 해야겠지.

- 1889년 9월 5일 -

테오가 형 반 고흐에게

앵데팡당 전(展)이 열렸어. 올 초에 받은 형의 두 작품 「장미와 해바라기가 있는 정물」과 「별이 빛나는 밤」도 그곳에 전시되었어. 멀리서도 시선을 확 잡아끄는 아름다운 그림이야.

- 1889년 9월 12일 -

※ 단, 반 고흐의 작품은 위 글에 언급된 작품 외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 ① 감자 먹는 사람들
- ② 별이 빛나는 밤
- ③ 수확하는 사람
- ④ 씨 뿌리는 사람
- ⑤ 장미와 해바라기가 있는 정물

2015 5급 (인) 21번

문 21. 다음 글을 근거로 추론할 때 옳은 것은?

티파티(Tea Party)는 ‘증세를 통한 큰 정부’를 반대하는 보수성향 유권자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세금인하 외에도 건전한 재정 운영, 작은 정부, 국가안보 등 보수적인 가치를 내걸고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공화당 내 강경파 보수 정치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티파티 운동이 첫 흑인 대통령 정권에서 현저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지적이 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68년 공화당 후보 닉슨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이전, 민주당은 뉴딜정책의 성공으로 흑인과 빈곤층, 노동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 흑인의 60%가 거주하는 남부는 민주당의 표밭이었다. 닉슨은 1964년 민권법 제정 이후 흑인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선거에 이용했다. 닉슨은 이른바 ‘남부전략’으로 일컬어지는 선거전략을 통해, 흑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남부 백인에게 심어주었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백인의 두려움이 닉슨을 대통령에 앉힌 것이다. 이후 공화당 내 강경보수파는 증세를 통한 큰 정부 정책의 혜택이 흑인을 비롯한 소수자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치적 기초를 작은 정부로 유지하였다.

티파티가 지원하는 공화당 내 강경보수파는 2010년 미국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주요 정치세력으로 급부상하였다. 미국은 2010년 실시된 인구총조사에 기초하여 2012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재획정했다. 2000 ~ 2010년 미국 전체 유권자 중 백인 유권자 비율은 69%에서 64%로 줄었지만, 2012년 선거구 획정 시 공화당 우세지역의 백인 유권자 비율은 73%에서 75%로 증가했다. 미국 내 인종 분포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구에서는 백인 유권자의 비율이 늘어났다. 선거구 개편 이후 민주당 우세 지역은 144곳에서 136곳으로 감소한 반면 공화당 우세 지역은 175곳에서 183곳으로 증가했다.

- ① 뉴딜정책 이후 티파티의 정치적 기반은 빈곤층과 남부의 흑인들이었다.
- ② 미국 선거에서 공화당이 유리해진 이유는 미국 전체 유권자 중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③ 1960년대 공화당의 남부전략은 증세정책이 백인에게 유리하다고 남부의 백인 유권자를 설득하는 것이었다.
- ④ 티파티는 소수인종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반적인 세금인상을 지지한다.
- ⑤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2016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유리할 것이다.

2015 5급 (인) 22번

문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조선시대 궁녀가 받는 보수에는 의전, 선반, 삭료 세 가지가 있었다. 『실록』에서 “봄, 가을에 궁녀에게 포화(布貨)를 내려주니, 이를 의전이라고 한다”라고 한 것처럼 ‘의전’은 1년에 두 차례 지급하는 옷값이다. ‘선반’은 궁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를 의미한다. ‘삭료’는 매달 주는 봉급으로 곡식과 반찬거리 등의 현물이 지급되었다. 궁녀들에게 삭료 이외에 의전과 선반도 주었다는 것은 월급 이외에도 옷값과 함께 근무 중의 식사까지 제공했다는 것으로, 지금의 개념으로 본다면 일종의 복리후생비까지 지급한 셈이다.

삭료는 쌀, 콩, 북어 세 가지 모두 지급되었는데 그 항목은 공상과 방자로 나뉘어 있었다. 공상은 궁녀들에게 지급되는 월급 가운데 기본급에 해당하는 것이다. 공상은 모든 궁녀에게 지급되었으나 직급과 근무연수에 따라 온공상, 반공상, 반반공상 세 가지로 나뉘어 차등 지급되었다. 공상 중 온공상은 쌀 7두 5승, 콩 6두 5승, 북어 2태 10미였다. 반공상은 쌀 5두 5승, 콩 3두 3승, 북어 1태 5미였고, 반반공상은 쌀 4두, 콩 1두 5승, 북어 13미였다.

방자는 궁녀들의 하녀적인 무수리를 쓸 수 있는 비용이었으며, 기본급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었다. 방자는 모두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직급이나 직무에 따라 일부에게만 지급되었으므로, 일종의 직급수당 또는 직무수당인 셈이다. 방자는 온방자와 반방자 두 가지만 있었는데, 온방자는 매달 쌀 6두와 북어 1태였고 반방자는 온방자의 절반인 쌀 3두와 북어 10미였다.

- <보 기>——
- ㄱ. 조선시대 궁녀에게는 현물과 포화가 지급되었다.
 - ㄴ. 삭료로 지급되는 현물의 양은 온공상이 반공상의 2배, 반공상이 반반공상의 2배였다.
 - ㄷ. 반공상과 온방자를 삭료로 받는 궁녀가 매달 받는 북어는 45미였다.
 - ㄹ. 매달 궁녀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은 삭료는 쌀 4두, 콩 1두 5승, 북어 13미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15 5급 (인) 23번

문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게 추론한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인류가 카펫을 사용한 기간은 2,500년이 넘는다. 1949년 카자흐스탄의 파지릭 고분에서 기원전 4~5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카펫이 발굴되었다. 이 카펫은 인류가 발견한 최고(最古)의 것으로 높은 수준의 채색·직조 기술을 담고 있다.

카펫은 이슬람의 긴 역사와 삶의 애환, 무슬림의 예술성과 기술, 일상의 시간들이 축적되어 있는 종합 예술품이다. 이슬람교에서 우상숭배를 금지하면서 사람이나 동물을 형상화할 수 없게 되자 풀과 나무, 코란의 서체를 이용한 독특한 예술적 문양을 창출해냈다.

이슬람 카펫의 아름다움이 서구에 소개되어 각광을 받은 것은 베네치아 상인들 덕분이다. 베네치아는 유럽에 카펫을 소개하는 중요한 통로였다. 베네치아인들은 집안에 카펫을 깔거나 창문에 드리웠으며, 유람선을 카펫으로 치장했었다.

카펫은 디자인 예술이다. 디자인만 보고도 그것이 언제 어디에서 생산된 것인지 알 수 있을 정도다. 페르시아와 인도에서는 꽃무늬 양식의 카펫이, 카프카스 및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만 지역에서는 기하학적 무늬의 카펫이 주로 생산되었다. 터키에서는 두 가지 양식 모두 사용되었지만, 기하학적 무늬가 더 많이 애용되었다. 중국의 카펫에는 용이나 봉황, 간혹 도깨비 양식이 등장한다. 그런데 같은 디자인이라도 문화권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용은 황제를 상징하지만, 페르시아에서는 악마를, 인도에서는 죽음을 의미한다.

——<보 기>——

甲: 우상숭배를 금지한 이슬람 국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카펫의 문양은 식물과 동물, 코란의 서체 등 다양하군.

乙: 베네치아 사람들은 카펫을 여러 용도로 활용했나봐.

丙: 페르시아에서 생산된 카펫은 기하학적 무늬를 주로 사용했었구나.

丁: 용이 그려진 카펫을 중국인이 호의로 선물했더라도 이를 받은 인도의 왕은 선물한 사람의 본래 의도를 오해할 수 있겠어.

- ① 甲
- ② 乙, 丁
- ③ 丙, 丁
- ④ 甲, 丙, 丁
- ⑤ 乙, 丙, 丁

2016 5급 (4) 1번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조선시대 신문고(申聞鼓)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태종 1년인 1401년의 일이다. 태종과 신하들은 신문고가 백성들의 생각을 국왕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써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리고 신문고를 설치한 구체적인 이유로 2가지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국왕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백성들이 신문고로 국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다는 점을 수령들이 두려워하여 마음을 다해 상세히 백성들의 호소를 살피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백성들이 신문고를 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원통함과 억울함 때문이었다. 국왕이 신문고를 설치하면서 제시한 이유도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사례를 보면 자신이 소유한 노비를 위세 있는 사람에게 빼앗겼다고 신문고를 쳐서 호소하기도 하고, 노비 소유와 관련된 소송에서 관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신문고를 두드리기도 하였다.

재상 하륜(河崙)은 신문고를 운영하는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는 백성들의 호소가 ‘사실이면 들어주고, 거짓이면 벌을 내린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신문고를 치려면 일정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건너뛰어도 벌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신문고를 치기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성부에 살고 있는 자는 한성부의 주무관청에 호소하고, 지방에 살고 있는 자는 수령에게 호소하는 단계를 거쳐야 했다. 그렇게 하여도 원통하고 억울함이 있으면 사헌부(司憲府)에 고소하고, 그래도 또 원통하고 억울함이 있으면 신문고를 칠 수 있었다. 신문고를 친 사람이 호소한 내용은 의금부의 당직 관리가 잘 정리하여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역모를 피하여 장차 종묘사직(宗廟社稷)을 위태롭게 하거나 종친 등을 모해(謀害)하여 화란(禍亂)을 일으키려는 자를 고발하는 것이라면, 곧바로 신문고를 치는 것이 가능하였다.

- ① 노비 소유와 관련된 사적 분쟁 문제도 신문고를 통해 호소할 수 있었다.
- ② 한성부에 살고 있는 甲은 신문고를 치기 전까지 최소 3번의 단계를 거쳐야 했다.
- ③ 종묘사직의 안위에 대한 문제를 고발할 때에는 더욱 엄격한 단계를 거쳐야만 신문고를 칠 수 있었다.
- ④ 백성이 수령에게 억울함을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태종 때 신문고가 모든 관아에 설치되었다.
- ⑤ 하륜은 백성들이 신문고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거짓이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16 5급 (4) 2번

문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비해 재원확보능력이 취약하고 지역간 재정 불균형이 심한 편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산정해 국세로 징수한 세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재원이다. 이에 비해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특정한 행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재원으로, 국가의 정책상 필요한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고보조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고보조금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해 지급된다. 둘째, 국고보조금은 특정 용도 외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서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지방교부세와 다르다. 셋째,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행정적·재정적 감독을 받게 되어 예산운용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 넷째,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재정력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으나,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국고보조사업 신청에 소극적이다.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용도를 지정하여 지방교부세를 지급한다.
- ②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에 비해 예산운용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R&D 사업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경우, 해당 R&D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 ④ 일반적으로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국고보조사업 신청에 더 적극적이다.
- 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기능은 없다.

2016 5급 (4) 21번

문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무릇 오곡이란 백성들이 생존의 양식으로 의존하는 것이기에 군주는 식량 증산에 힘쓰지 않을 수 없고, 재물을 쓰는 데 절약하지 않을 수 없다.

오곡 가운데 한 가지 곡식이 제대로 수확되지 않으면 이것을 근(饉)이라 하고, 두 가지 곡식이 제대로 수확되지 않으면 이것을 한(旱)이라고 한다. 세 가지 곡식이 제대로 수확되지 않으면 이것을 흉(凶)이라고 한다. 또 네 가지 곡식이 제대로 수확되지 않으면 이것을 궤(饑)라고 하고, 다섯 가지 곡식 모두 제대로 수확되지 않으면 이것을 기(饑)라고 한다. 근이 든 해에는 대부(大夫) 이하 벼슬하는 사람들은 모두 봉록의 5분의 1을 감봉한다. 한이 든 해에는 5분의 2를 감봉하고, 흉이 든 해에는 5분의 3을 감봉하고, 궤가 든 해에는 5분의 4를 감봉하며, 기가 든 해에는 아예 봉록을 주지 않고 약간의 식량만을 지급할 뿐이다.

곡식이 제대로 수확되지 않으면 군주는 먹던 요리의 5분의 3을 줄이고, 대부들은 음악을 듣지 않으며, 선비들은 농사에 힘쓸 뿐 배우러 다니지 않는다. 군주는 조회할 때 입는 예복이 낡아도 고쳐 입지 않고, 사방 이웃 나라의 사신들에게도 식사만을 대접할 뿐 성대한 잔치를 베풀지 않는다. 또 군주가 행차할 때 수레를 끄는 말의 수도 반으로 줄여 두 마리만으로 수레를 끌게 한다. 길을 보수하지 않고, 말에게 곡식을 먹이지 않으며, 궁녀들은 비단옷을 입지 않는다. 이것은 식량이 부족함을 백성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함이다.

- <보 기> ———
- ㄱ. 대부 이하 벼슬하는 사람이 근(饉)이 들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봉록은 궤(饑)가 들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봉록의 4배일 것이다.
 - ㄴ. 오곡 모두 제대로 수확되지 않으면 대부 이하 벼슬하는 사람들은 봉록과 식량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을 것이다.
 - ㄷ. 곡식이 제대로 수확되지 않으면 군주가 행차할 때 탄 수레는 곡식을 먹인 말 두 마리가 끌었을 것이다.
 - ㄹ. 곡식이 제대로 수확되지 않으면 군주는 먹던 요리를 5분의 4로 줄였을 것이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ㄹ
- ⑤ ㄱ, ㄷ, ㄹ

2016 5급 (4) 22번

문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시에서 택시기사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 2만 5천 개나 되는 도로와 수천 개의 주요 장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모든 지식을 익히는 데에는 보통 3~4년의 교육 기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여러 번의 시험을 합격해야만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신경학자들은 교육을 받아 시험에 합격한 집단, 교육은 받았지만 시험에는 불합격한 집단,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을 대상으로 뇌 해마의 성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교육을 받아 시험에 합격한 집단만 해마의 회색질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연령, 학력, 지능에 있어서는 세 집단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없었다. 한편 교육을 받은 집단간 비교에서 전체 교육 기간의 차이는 거의 없으나, 주당 교육 시간에는 차이가 현격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주당 교육 시간은 평균 34.5시간이었고,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평균 16.7시간에 불과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아래의 단어 전체를 동시에 30초간 제시하였다.

던지다 - 망치 - 반짝이다 - 이순신 - 달리다 - 돌
- 생각하다 - 자동차 - 진드기 - 사랑하다 - 구름 -
마시다 - 보이다 - 책 - 불 - 뻘 - 먹다 - 유관순 -
바다 - 철

‘그룹1’은 명사와 동사를 구분하고, ‘그룹2’는 명사와 동사를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명사는 고유명사와 일반 명사로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다음날 모든 참가자에게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단어를 모두 말하도록 한 결과, 상대적으로 복잡한 과제를 수행한 집단이 더 많은 단어를 기억하였다.

※ 해마: 대뇌 변연계의 양 쪽 측두엽에 존재하며 기억을 담당

- ① 교육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 해마의 회색질이 감소할 것이다.
- ② 단어 기억 실험에서 ‘그룹2’가 더 많은 단어를 기억했을 것이다.
- ③ 개인의 교육 수준보다 연령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 ④ 선천적으로 기억력이 좋은 사람만 ○○시의 택시기사 면허 시험에 통과하였을 것이다.
- ⑤ ○○시 택시기사 면허 시험에 합격한 집단의 전체 교육 기간 평균은 시험에 불합격한 집단의 평균보다 두 배 가량 길었을 것이다.

2016 5급 (4) 23번

문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동을 한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우매한 수령은 아전을 심복으로 여겨 밤중에 몰래 불러서 여러 가지 일을 의논한다. 아전이 그 수령에게 아침하여 기쁘게 해주는 까닭은 전세(田稅)를 농간질하고 창고의 곡식을 가로채거나 송사(訟事)와 옥사(獄事)를 팔아서 그 뇌물을 빨아먹기 위한 것뿐이다.

대체적으로 참알(參謁)을 받는 수령은 조관(朝冠)을 착용하는데, 아전이 어찌 흰 옷과 베 띠를 착용하고 관정(官庭)에 들어올 수 있겠는가. 지금 경사(京司)에서 참알하는 서리(書吏)들은 모두 홍단령(紅團領)을 착용하는 것이 본연의 법도인 것이다. 다만, 상중(喪中)에 공무를 보러 나온 자는 검은 갓과 검은 띠를 착용함을 허락하되 관아에서 참알하는 것은 허락하지 말 것이며, 관아를 드나들면서 일을 품의(稟議)하도록 한다.

요즘 보면, 수령된 자가 아전들이 잔치를 열고 노는 것을 내버려 두니 아전들은 산을 오르고 물에 배를 띄우면서 노래와 춤추기를 번갈아 한다. 백성들은 이를 보고는 미워하기를 원수와 같이 한다. 즐기기는 아전이 하고 원망은 수령이 듣게 되니 또한 터무니없는 일이 아닌가. 마땅히 엄금해야 할 것이다. 혹시 한번쯤 바람 쐬고 싶은 생각이 들면 시절이 좋고 풍년이 든 때를 가려서 관아에 일도 적은 날, 흰 밥과 나물반찬을 준비해 가지고 산에 오르거나 물가에 가서 소박한 모임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전들이나 하인들이 사사로이 서로 경계하고 타이르는 것을 반드시 다 금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곤장 10대 이상을 벌주는 일은 마땅히 품의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백성으로서 관아에 직접 달려 있지 않은 자에게는 읍민(邑民)이나 촌민(村民)을 가리지 않고 매 한 대라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 ※ 참알: 조선시대 벼슬아치가 그의 책임 벼슬아치를 뵙는 일
- ※ 경사: 서울에 있던 관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 홍단령: 붉은 색 공복(公服)
- ※ 품의: 웃어른이나 상사에게 글이나 말로 여쭙어 의논함

<보 기>

ㄱ. 흰 옷과 베 띠를 착용하고 경사에서 참알한 서리

ㄴ. 흉년에 사기진작을 위해 수시로 잔치를 열어 아전들을 격려한 수령

ㄷ. 아전이 잘못된 하인을 곤장으로 벌주는 모든 행위를 품의 없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수령

ㄹ. 삼년상을 치르는 중 일을 품의하기 위해 검은 갓과 검은 띠를 착용하고 관아를 드나든 아전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ㄷ
- ⑤ ㄴ, ㄷ, ㄹ

2016 5급 (4) 28번

문 2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989년 독일 통일 직후, 체제가 다른 구동독에서 교육받아 양성되고 활동했던 판사·검사들의 자격유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판사·검사들의 자격유지에 반대하는 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논거 1: 구동독에서 전체주의 국가의 체제지도이념에 따라 소송을 수행해 온 판사·검사들은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에 부합하는 국가관이 결여되어 있고, 오히려 그들은 과거 관련한 재판의 결과로 야기된 체제 불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논거 2: 구동독과 구서독은 법체제뿐만 아니라 소송의 전 과정에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구동독에서 법학 교육을 받고 판사·검사로 양성된 자들을 구서독 질서를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통일독일의 사법 체제 내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소송수행능력 차원에서 인정되기 어렵다.

판사·검사들의 자격유지에 찬성하는 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논거 1: 구동독 출신 판사·검사들을 통일독일의 사법체제 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장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재판 정지상태가 야기될 것이다.

논거 2: 구서독 출신 판사·검사들은 구동독 지역의 생활 관계의 고유한 관점들을 고려하지 못하여 구동독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어렵고, 이러한 점은 재판에서 불복과 다툼의 원인이 될 것이다.

한편, 구동독 지역인 튀링엔 주의 경우 1990년 10월 3일 판사·검사의 자격유지 여부를 위한 적격심사를 한 결과, 전체 194명의 판사 중 101명이, 141명의 검사 중 61명이 심사를 통과하여 판사·검사로 계속 활동하게 되었다.

- <보 기>

ㄱ. 구동독 판사·검사의 자격유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들이 구동독 전체주의 체제에서 오랜 기간 교육받고 생활하면서 형성된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을 것이다.

ㄴ. 구동독 판사·검사의 자격유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기존 판사·검사들의 공백으로 인한 재판업무의 마비를 우려했을 것이다.

ㄷ. 구동독 판사·검사의 자격유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구동독 주민들의 관점에서 이들의 생활관계상 특수성을 이해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판사·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ㄹ. 튀링엔 주의 경우 1990년 10월 3일 적격심사 결과, 판사들보다 검사들 중 통일독일의 판사·검사로서 적합한 인물이 보다 많았다고 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7 5급 (가) 1번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곤충의 종류는 2,013종인데, 그 중 일부가 현재 식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곤충은 병균을 옮기는 더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깨끗한 환경에서 사육된 곤충은 식용에 문제가 없다.

식용으로 귀뚜라미를 사육할 경우 전통적인 육류 단백질 공급원보다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절감할 수 있다. 귀뚜라미가 다른 전통적인 단백질 공급원보다 뛰어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쇠고기 0.45 kg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으로 식용 귀뚜라미 11.33 kg을 생산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귀뚜라미가 냉혈동물이라 돼지나 소와 같이 체내 온도 유지를 위해 먹이를 많이 소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식용 귀뚜라미 0.45 kg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은 감자나 당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수준인 3.8ℓ이지만, 닭고기 0.45 kg을 생산하려면 1,900ℓ의 물이 필요하며, 쇠고기는 닭고기의 경우보다 4배 이상의 물이 필요하다. 셋째, 귀뚜라미를 사육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가축을 사육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의 20%에 불과하다.

현재 곤충 사육은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식용 곤충의 공급이 제한적이고 사람들에게 곤충도 식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식용 곤충 생산과 공급방법을 확충하고 곤충 섭취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식용 귀뚜라미는 주로 분말 형태로 100 g당 10달러에 판매된다. 이는 같은 양의 닭고기나 쇠고기의 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인구가 현재보다 20억 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2050년에는 귀뚜라미 등 곤충이 저렴하게 저녁식사 재료로 공급될 것이다.

- ① 쇠고기 생산보다 식용 귀뚜라미 생산에 자원이 덜 드는 이유 중 하나는 귀뚜라미가 냉혈동물이라는 점이다.
- ② 현재 곤충 사육은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식용으로 사용되는 곤충의 종류는 일부에 불과하다.
- ③ 식용 귀뚜라미와 동일한 양의 쇠고기를 생산하려면, 귀뚜라미 생산에 필요한 물보다 500배의 물이 필요하다.
- ④ 식용 귀뚜라미 생산에는 쇠고기 생산보다 자원이 적게 들지만, 현재 이 둘의 100 g당 판매 가격은 큰 차이가 없다.
- ⑤ 가축을 사육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귀뚜라미를 사육할 때의 5배이다.

2017 5급 (가) 2번

문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판옥선은 조선 수군의 주력 군선(軍船)으로 왜구를 제압하기 위해 1555년(명종 10년) 새로 개발된 것이다. 종전의 군선은 갑판이 1층뿐인 평선인 데 비하여 판옥선은 선체의 상부에 상장(上粧)을 가설하여 2층 구조로 만든 배이다. 이 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를 젓는 요원인 격군(格軍)은 1층 갑판에서 안전하게 노를 저을 수 있고, 전투 요원들은 2층 갑판에서 적을 내려다보면서 유리하게 전투를 수행할 수 있었다.

전근대 해전에서는 상대방 군선으로 건너가 마치 지상에서처럼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경우가 흔했다. 조선 수군은 기본적으로 활과 화약무기 같은 원거리 무기를 능숙하게 사용했지만, 칼과 창 같은 단병무기를 운용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서툴렀다. 이 같은 약점을 극복하고 조선 수군이 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이 승선하여 전투를 벌이는 전술을 막으면서 조선 수군의 장기인 활과 대구경(大口徑) 화약무기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체가 높은 군선이 필요했다.

선체 길이가 20~30m 정도였던 판옥선은 임진왜란 해전에 참전한 조선·명·일본의 군선 중 크기가 큰 편에 속한데다가 선체도 높았기 때문에 일본군이 그들의 장기인 승선전투전술을 활용하기 어렵게 하는 효과도 있었다. 이 때문에 임진왜란 당시 도승지였던 이항복은 “판옥선은 마치 성곽과 같다”라고 그 성능을 격찬했다. 판옥선은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에서 일본의 수군을 격파하여 조선 수군이 완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옥포해전·당포해전·한산해전 등 주요 해전에 동원된 군선 중에서 3척의 거북선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판옥선이었다.

판옥선의 승선인원은 시대와 크기에 따라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명종실록』에는 50여 명이 탑승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선조실록』에 따르면 거북선 운용에 필요한 사수(射手)와 격군을 합친 숫자가 판옥선의 125명보다 많다고 되어 있어 판옥선의 규모가 이전보다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 ① 판옥선은 갑판 구조가 단층인 군선으로, 선체의 높이가 20~30m에 달하였다.
- ② 판옥선의 구조는 적군의 승선전투전술 활용을 어렵게 하여 조선 수군이 전투를 수행하는 데 유리하였을 것이다.
- ③ 『선조실록』에 따르면 판옥선의 격군은 최소 125명 이상이었다.
- ④ 판옥선은 임진왜란 때 일본의 수군을 격파하기 위해 처음 개발되었다.
- ⑤ 판옥선은 임진왜란의 각 해전에서 주력 군선인 거북선으로 대체되었다.

2017 5급 (가) 21번

문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의 관찰 결과로 옳은 것은?

꿀벌의 통신방법은 甲의 관찰에 의해 밝혀졌다. 그에 따르면 꿀벌이 어디에선가 꿀을 발견하면 벌집에 돌아와서 다른 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데, 이때 춤을 통하여 꿀이 있는 방향과 거리 및 꿀의 품질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려준다.

꿀벌의 말에도 ‘방언’이 있어 지역에 따라 춤을 추는 방식이 다르다. 유럽 꿀벌의 경우 납힌 8자형(〇〇) 모양의 춤을 벌집의 벽을 향하여 춘다. 이때 꿀이 발견된 장소의 방향은 〇〇자 모양의 가운데 교차점에서의 꿀벌의 움직임과 관련돼 있다. 예컨대 꿀의 방향이 태양과 같은 방향이면 아래에서 위로 교차점을 통과(〇〇)하고, 태양과 반대 방향이면 위에서 아래로 교차점을 통과(〇〇)한다.

벌집에서 꿀이 발견된 장소까지의 거리는 단위 시간당 춤의 횟수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유럽 꿀벌이 약 15초 안에 열 번 돌면 100 m 가량, 여섯 번 돌면 500 m 가량, 네 번 돌면 1.5 km 정도를 나타내며, 멀게는 11 km 정도의 거리 까지 정확하게 교신할 수 있다. 또 같은 〇〇자 모양의 춤을 활기차게 출수록 꿀의 품질이 더 좋은 것임을 말해 준다.

甲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위와 같은 유럽 꿀벌의 통신방법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고 일관성 있는 것임을 알아냈다. 예를 들면 벌 한 마리에게 벌집에서 2 km 지점에 있는 설탕물을 맛보게 하고 벌집으로 돌려보낸 뒤 설탕물을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그래도 이 정보를 수신한 벌들은 원래 설탕물이 있던 지점 근방으로 날아와 설탕물을 찾으려 했다. 또 같은 방향이지만 원지점보다 가까운 1.2 km 거리에 설탕물을 옮겨 놓아도 벌들은 그곳을 그냥 지나쳐 버렸다.

- ① 유럽 꿀벌이 고품질의 꿀을 발견하면 〇〇자와 다른 모양의 춤을 춘다.
- ② 유럽 꿀벌이 춤으로 전달하는 정보는 꿀이 있는 방향과 거리 및 꿀의 양이다.
- ③ 유럽 꿀벌이 단위 시간당 춤을 추는 횟수가 적을수록 꿀이 있는 장소까지의 거리는 멀다.
- ④ 유럽 꿀벌이 〇〇자 모양의 춤을 출 때, 꿀이 있는 방향이 태양과 반대 방향이면 교차점을 아래에서 위로 통과한다.
- ⑤ 유럽 꿀벌은 동료의 춤을 통해 꿀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후 실제 꿀의 위치가 달라져도 방향만 같으면, 그 정보를 통하여 꿀이 있는 장소를 한 번에 정확히 찾을 수 있다.

2017 5급 (가) 23번

문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컴퓨터 키보드의 @ 키를 하루에 몇 번이나 누르는 지 한번 생각해 보라. 아마도 이메일 덕분에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을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달팽이’, 네덜란드에서는 ‘원숭이 꼬리’라 부르고 한국에서는 ‘골뱅이’라 불리는 이 ‘앳(at)’ 키는 한때 수동 타자기와 함께 영영 잊혀질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6세기에 @은 라틴어 전치사인 ‘ad’를 한 획에 쓰기 위한 합자(合字)였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은 베니스, 스페인, 포르투갈 상인들 사이에 측정 단위를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되었다. 베니스 상인들은 @을 부피의 단위인 암포라(amphora)를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하였으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상인들은 질량의 단위인 아로바(arroba)를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하였다. 스페인에서의 1아로바는 현재의 9.5 kg에 해당하며, 포르투갈에서의 1아로바는 현재의 12 kg에 해당한다. 이후에 @은 단가를 뜻하는 기호로 변화하였다. 예컨대 ‘복숭아 12개@1.5달러’로 표기한 경우 복숭아 12개의 가격이 18달러라는 것을 의미했다.

@ 키는 1885년 미국에서 언더우드 타자기에 등장하였고 20세기까지 자판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사용 빈도는 점차 줄어들었다. 그런데 1971년 미국의 한 프로그래머가 잊혀지다시피 하였던 @ 키를 살려낸다. 연구개발 업체에서 인터넷상의 컴퓨터 간 메시지 송신기술 개발을 담당했던 그는 @ 키를 이메일 기호로 활용했던 것이다.

※ ad: 현대 영어의 ‘at’ 또는 ‘to’에 해당하는 전치사

- ① 1960년대 말 @ 키는 타자기 자판에서 사라지면서 사용빈도가 점차 줄어들었다.
- ② @이 사용되기 시작한 지 1,000년이 넘었다.
- ③ @이 단가를 뜻하는 기호로 쓰였을 때, ‘토마토 15개@3달러’라면 토마토 15개의 가격은 45달러였을 것이다.
- ④ @은 전치사, 측정 단위, 단가, 이메일 기호 등 다양한 의미로 활용되어 왔다.
- ⑤ 스페인 상인과 포르투갈 상인이 측정 단위로 사용했던 1@는 그 질량이 동일하지 않았을 것이다.

2018 5급 (나) 1번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공공성은 서구에서 유래된 ‘퍼블릭(public)’이나 ‘오피셜(official)’과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개념인 ‘공(公)’이나 ‘공공(公共)’이 접합되어 이루어진 개념이다. 공공성 개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첫째, 어떤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관계된다는 의미이다. 둘째, 만인의 이익을 대표하여 관리하는 정통성을 지닌 기관이라는 의미가 있다. 셋째, 사사롭거나 편파적이지 않으며 바르고 정의롭다는 의미이다.

정도전의 정치사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정치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강렬한 비판의식과 아울러 정치권력을 철저하게 공공성의 영역 안에 묶어두려는 의지이다. 또 그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끊임없이 고민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정도전은 정치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근저에 ‘자기 중심성’이 있고, 고려의 정치적 경험에서 자기 중심성이 특히 ‘사욕(私慾)’의 정치로 나타났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독선적인 정치와 폭정이 야기 되었다고 보았다. 정도전은 이러한 고려의 정치를 소유 지향적 정치로 보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론’과 ‘공의’의 정치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문덕(文德)’의 정치라 불렀다.

공공성과 관련하여 고려와 조선의 국가 운영 차이를 가장 선명히 드러내는 것은 체계적인 법전의 유무이다. 고려의 경우는 각 행정부처들이 독자적인 관례나 규정에 따라서 통치를 하였을 뿐, 일관되고 체계적인 법전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그래서 조선의 건국 주체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법체계를 갖추려고 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만든 최초의 법전이 정도전에 의해 편찬된 『조선경국전』이다. 이를 통해서 건국 주체는 자신 이 세운 정치체제에 공공성을 부여하려고 하였다.

- ① 공공성에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를 대표하여 관리하는 정통성을 지닌 기관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 ② 정도전은 고려의 정치에서 자기 중심성이 ‘사욕’의 정치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 ③ 고려시대에는 각 행정부처의 관례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욕’의 정치가 나타났다.
- ④ 정도전에게 ‘문덕’의 정치란 소유 지향적 정치의 대안이었다.
- ⑤ 정도전의 정치사상에서 공공성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018 5급 (나) 6번

문 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오늘날에는 매우 다양한 모양의 바퀴가 사용되고 있는데, 통나무를 잘라 만든 원판 모양의 나무바퀴는 기원전 5000년경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나무바퀴는 세 조각의 판자를 맞춘 형태로 진화했다. 현존하는 유물로는 기원전 350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메소포타미아의 전차(戰車)용 나무바퀴가 가장 오래된 것이다.

바퀴가 처음부터 모든 문명에서 사용된 것은 아니다.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만들 때 바퀴가 아닌 썰매를 사용했다. 잉카 원주민과 아메리카 원주민은 유럽인이 전파해주기 전까지 바퀴의 존재조차 몰랐다. 유럽인이 바퀴를 전해준 다음에도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썰매를 많이 이용했다. 에스키모는 지금도 개가 끄는 썰매를 이용하고 있다.

바퀴가 수레에만 사용된 것은 아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돌림판인 물레는 바퀴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4,000년 전부터 사용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바퀴는 그릇을 빚는 물레로 쓰였다.

바퀴의 성능은 전쟁용 수레인 전차가 발달하면서 크게 개선되었다. 기원전 2000년경 히타이트족은 처음으로 바퀴살이 달린 바퀴를 전차에 사용하였다. 그 뒤 산업혁명기에 발명된 고무타이어가 바퀴에 사용되면서 바퀴의 성능은 한층 개선되었다. 1885년 다임러와 벤츠가 최초로 가솔린 자동차를 발명했다. 자동차용 공기압 타이어는 그로부터 10년 후 프랑스의 미셸린 형제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1931년 미국 듀폰사가 개발한 합성고무가 재료로 사용되면서 타이어의 성능은 더욱 발전하고 종류도 다양해졌다.

- ① 바퀴를 처음 만들고 사용한 사람은 기원전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인이다.
- ② 19세기 초반부터 이미 자동차에 공기압 타이어가 사용되었다.
- ③ 전차의 발달과 고무타이어의 발명은 바퀴의 성능 개선에 기여했다.
- ④ 바퀴가 없었던 지역에 바퀴가 전해진 이후 그 지역에서 썰매는 사용되지 않았다.
- ⑤ 바퀴가 수레를 움직이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기 이후였다.

2018 5급 (나) 7번

문 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조선왕실의 음악 일체를 담당한 장악원(掌樂院)은 왕실 의례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장악원은 승정원, 사간원, 홍문관, 예문관, 성균관, 춘추관과 같은 정3품 관청으로서, 『경국대전』에 의하면 2명의 당상관이 장악원 제조(提調)를 맡았고, 정3품의 정 1명, 종4품의 첨정 1명, 종6품의 주부 1명, 종7품의 직장 1명이 관리로 소속되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음악 전문인이 아닌 문관 출신의 행정관리로서, 음악교육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는 음악행정과 음악연주를 담당한 계층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궁중음악 연주를 담당한 장악원 소속 악공(樂工)과 악생(樂生)들은 행사에서 연주할 음악을 익히기 위해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연습하였다. 이 가운데 정기적인 연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매달 2자와 6자가 들어가는 날, 즉 2일과 6일, 12일과 16일, 22일과 26일의 여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러한 이유에서 장악원 악공과 악생들의 습악(習樂)을 이륙좌기(二六坐起), 이륙회(二六會), 이륙이악식(二六肄樂式)과 같은 이름으로 불렀다. 이는 장악원의 정규적 음악이습(音樂肄習) 과정의 하나로 조선시대의 여러 법전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시행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악공과 악생의 음악연습을 독려하기 위한 여러 장치가 있었다. 1779년(정조 3년) 당시 장악원 제조로 있던 서명응이 정한 규칙 가운데에는 악공과 악생의 실력을 겨루어서 우수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내용이 있었다. 시험을 봐서 악생 중에 가장 우수한 사람 1인에게는 2냥(兩), 1등을 한 2인에게는 각각 1냥 5전(錢), 2등을 한 3인에게는 각각 1냥, 3등을 한 9인에게 각각 5전을 상금으로 주었다. 또 악공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사람 1인에게 2냥, 1등을 한 3인에게는 각각 1냥 5전, 2등을 한 5인에게는 각각 1냥, 3등을 한 21인에게 각각 5전을 상금으로 주었다. 악공 포상자가 더 많은 이유는 악공의 수가 악생의 수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1779년 당시의 악공은 168명, 악생은 90명이었다.

※ 10전(錢) = 1냥(兩)

— <보 기> —

- ㄱ. 장악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간 최소 72회의 습악이 있었을 것이다.
- ㄴ. 서명응이 정한 규칙에 따라 장악원에서 실시한 시험에서 상금을 받는 악공의 수는 상금을 받는 악생 수의 2배였다.
- ㄷ. 『경국대전』에 따르면 장악원에서 음악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들은 4명이었다.
- ㄹ. 서명응이 정한 규칙에 따라 장악원에서 실시한 1회의 시험에서 악공과 악생들이 받은 총 상금액은 40냥 이상이었을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18 5급 (나) 26번

문 2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보름달 중에 가장 크게 보이는 보름달을 슈퍼문이라고 한다. 크게 보이는 이유는 달이 평소보다 지구에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슈퍼문이 되려면 보름달이 되는 시점과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지는 시점이 일치하여야 한다. 달의 공전 궤도가 완벽한 원이라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항상 똑같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타원 궤도여서 달이 지구에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현상이 생긴다. 유독 달만 그런 것은 아니고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궤도로 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케플러의 행성운동 제1법칙이다.

지구와 달의 평균 거리는 약 38만 km인 반면 슈퍼문일 때는 그 거리가 35만 7,000 km 정도로 가까워진다. 달의 반지름은 약 1,737 km이므로, 지구와 달의 거리가 평균 정도일 때 지구에서 보름달을 바라보는 시각도는 0.52도 정도인 반면, 슈퍼문일 때는 시각도가 0.56도로 커진다. 반대로 보름달이 가장 작게 보일 때, 다시 말해 보름달이 지구에서 제일 멀 때는 그 거리가 약 40만 km여서 보름달을 보는 시각도가 0.49도로 작아진다.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원인은 지구에 작용하는 달과 태양의 중력 때문인데, 달이 태양보다는 지구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달이 지구에 가까워지면 평소 달이 지구를 당기는 힘보다 더 강하게 지구를 당긴다. 그리고 달의 중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면, 달을 향한 쪽의 해수면은 평상시보다 더 높아진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슈퍼문일 때 제주도 등 해안가에 바닷물이 평소보다 더 높게 밀려 들어와서 일부 지역이 침수 피해를 겪기도 했다.

한편 달의 중력 때문에 높아진 해수면이 지구와 함께 자전을 하다보면 지구의 자전을 방해하게 된다. 일종의 브레이크가 걸리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그 결과 하루의 길이에 미세하게 차이가 생긴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0만 년에 17초 정도씩 길어지는 효과가 생긴다고 한다.

※ 시각도 : 물체의 양끝에서 눈의 결합점을 향하여 그은 두 선이 이루는 각을 의미한다.

- ①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1년 동안 항상 일정하다.
- ② 해수면의 높이는 지구와 달의 거리와 관계가 없다.
- ③ 달이 지구에서 멀어지면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평소보다 더 강하게 지구를 잡아당긴다.
- ④ 지구와 달의 거리가 36만 km 정도인 경우, 지구에서 보름달을 바라보는 시각도는 0.49도보다 크다.
- ⑤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2018 5급 (나) 27번

문 2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하와이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토속어는 1898년 하와이가 미국에 병합된 후 미국이 하와이 학생들에게 사용을 금지하면서 급격히 소멸되었다. 그러나 하와이 원주민들이 소멸한 토속어를 부활시키기 위해 1983년 ‘아하 푸나나 레오’라는 기구를 설립하여 취학 전 아동부터 중학생까지의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토속어를 교육한 결과 언어 복원에 성공했다.

이러한 언어의 다양성을 지키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언어의 통일성을 추구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안과의사였던 자멘호프는 유대인, 폴란드인, 독일인, 러시아인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갈등과 불화가 생긴다고 판단하고 예외와 불규칙이 없는 문법과 알기 쉬운 어휘에 기초해 국제공통어 에스페란토를 만들어 1887년 발표했다. 그의 구상은 ‘1민족 2언어주의’에 입각하여 같은 민족끼리는 모국어어를, 다른 민족과는 중립적이고 배우기 쉬운 에스페란토를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에스페란토의 문자는 영어 알파벳 26개 문자에서 Q, X, W, Y의 4개 문자를 빼고 영어 알파벳에는 없는 Ĉ, Ĝ, Ĥ, Ĵ,Ŝ, Ŭ의 6개 문자를 추가하여 만들어졌다. 문법의 경우가급적 불규칙 변화를 없애고 각 어간에 품사 고유의 어미를 붙여 명사는 -o, 형용사는 -a, 부사는 -e, 동사원형은 -i로 끝낸다. 예를 들어 ‘사랑’은 amo, ‘사랑의’는 ama, ‘사랑으로’는 ame, ‘사랑하다’는 ami이다. 시제의 경우 어간에 과거형은 -is, 현재형은 -as, 미래형은 -os를 붙여 표현한다.

또한 1자 1음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문자는 하나의 소리만을 내고, 소리 나지 않는 문자도 없으며, 단어의 강세는 항상 뒤에서 두 번째 모음에 있기 때문에 사전 없이도 쉽게 읽을 수 있다. 특정한 의미를 갖는 접두사와 접미사를 활용하여 많은 단어를 파생시켜 사용하므로 단어 암기를 위한 노력이 크게 줄어드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아버지는 patro, 어머니는 patrino, 장인은 bopatro, 장모는 bopatrino인 것이 그 예이다.

※ 에스페란토에서 모음은 A, E, I, O, U이며 반모음은 Ŭ이다.

—〈보기〉—

- ㄱ. 에스페란토의 문자는 모두 28개로 만들어졌다.
- ㄴ. 미래형인 ‘사랑할 것이다’는 에스페란토로 amios이다.
- ㄷ. ‘어머니’와 ‘장모’를 에스페란토로 말할 때 강세가 있는
모음은 같다.
- ㄹ. 자멘호프의 구상에 따르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하와이 원주민끼리도 에스페란토만을 써야 한다.

- ① $\neg, \vdash$
- ② $\neg, \equiv$
- ③ $\perp, \equiv$
- ④ $\neg, \perp, \vdash$
- ⑤ $\perp, \vdash, \equiv$

2020 5급 (나) 26번

문 2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개발도상국으로 흘러드는 외국자본은 크게 원조, 부채, 투자가 있다. 원조는 다른 나라로부터 지원받는 돈으로, 흔히 해외 원조 혹은 공적개발원조라고 한다. 부채는 은행 용자와 정부 혹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으로, 투자는 포트폴리오 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로 이루어진다. 포트폴리오 투자는 경영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투자이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회사 경영에 일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투자이다.

개발도상국에 유입되는 이러한 외국자본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해외 원조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여겨져 왔으나 최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부채는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은행 용자는 변동성이 큰 것으로 유명하다. 예컨대 1998년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이루어진 은행 용자 총액은 500억 달러였다. 하지만 1998년 러시아와 브라질, 2002년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난 일련의 금융 위기가 개발도상국을 강타하여 1999~2002년의 4개년 동안에는 은행 용자 총액이 연평균 -65억 달러가 되었다가, 2005년에는 670억 달러가 되었다. 은행 용자만큼 변동성이 큰 것은 아니지만, 채권을 통한 자본 유입 역시 변동성이 크다. 외국인은 1997년에 380억 달러의 개발도상국 채권을 매수했다. 그러나 1998~2002년에는 연평균 230억 달러로 떨어졌고, 2003~2005년에는 연평균 440억 달러로 증가했다.

한편 포트폴리오 투자는 은행 용자만큼 변동성이 크지는 않지만 채권에 비하면 변동성이 크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는 1997년의 310억 달러에서 1998~2002년에는 연평균 90억 달러로 떨어졌고, 2003~2005년에는 연평균 410억 달러에 달했다.

- ①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 수익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 ② 해외 원조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있다.
- ③ 개발도상국에 유입되는 외국자본에는 해외 원조, 은행 용자, 채권, 포트폴리오 투자, 외국인 직접투자가 있다.
- ④ 개발도상국에 대한 2005년의 은행 용자 총액은 1998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 ⑤ 1998~2002년과 2003~2005년의 연평균을 비교할 때, 개발도상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채권보다 증감액이 크다.

2022 5급 (나) 6번

문 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사람들은 관리자의 업무지시 능력이 뛰어난 작업장일수록 ‘업무실수 기록건수’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통념을 검증하기 위해 ○○공장의 8개 작업장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각 작업장의 인력 구성과 업무량 등은 모두 동일했다. 업무실수 기록건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6개월 동안 관련 자료를 꼼꼼히 조사하여 업무실수 기록건수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공장 구성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관리자의 업무지시 능력,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직장문화 등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관리자의 업무지시 능력이 우수할수록, 근로자의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업무실수 기록건수가 많았다. 또한 근로자가 상급자의 실수 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그것을 통해 학습하려는 직장문화에서는 업무실수 기록건수가 많았다. 반면 업무실수 기록건수가 적은 작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실수를 보고하면 상급자로부터 질타나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가급적 실수를 감추었다.

- <보 기> ———
- ㄱ. 업무실수 기록건수가 많은 작업장에서는 실수를 통해 학습하려는 직장문화가 약할 것이다.
 - ㄴ. 업무실수 기록건수가 많다고 해서 근로자의 직무만족도가 낮은 것은 아닐 것이다.
 - ㄷ. 관리자의 업무지시 능력이 우수한 작업장일수록 업무실수 기록건수가 적을 것이다.
 - ㄹ. 징계에 대한 우려가 약한 작업장보다 강한 작업장에서 업무실수 기록건수가 적을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022 5급 (나) 26번

문 2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석유에서 얻을 수 있는 연료를 대체하는 물질 중 하나는 식물성 기름이다. 식물성 기름의 지방산을 처리하면 자동차 연료로 쓸 수 있는 바이오디젤을 만들 수 있다. 바이오디젤은 석유에서 얻는 일반디젤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이 있다. 바이오디젤은 분진이나 일산화탄소, 불완전연소 유기물과 같은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한다. 또한 석유에서 얻는 연료와 달리 식물성 기름에는 황이 거의 들어 있지 않아 바이오디젤을 연소했을 때 이산화황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 바이오디젤은 기존 디젤 엔진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석유 연료에 비해 쉽게 생분해되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물론 바이오디젤도 단점이 있다. 우선 바이오디젤은 일반디젤보다 생산원가가 훨씬 높다. 또한 바이오디젤은 생분해되기 때문에 장기간 저장이 어렵고, 질소산화물을 더 많이 배출한다. 그뿐 아니라 엔진에 점착성 찌꺼기가 남을 수 있고, 일반디젤보다 응고점이 높다. 이 때문에 바이오디젤을 일반디젤의 첨가물로 사용하고 있다. 바이오디젤과 일반디젤은 쉽게 혼합되며, 그 혼합물은 바이오디젤보다 응고점이 낮다. 바이오디젤은 영어 약자 BD로 나타내는데, BD20은 바이오디젤 20 %와 일반디젤 80 %의 혼합연료를 뜻한다.

- <보 기> —————
- ㄱ. 같은 양이라면 BD20의 생산원가가 일반디젤보다 낮을 것이다.
 - ㄴ. 석유에서 얻은 연료에는 황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 ㄷ. 같은 온도에서 바이오디젤이 액체일 때 일반디젤은 고체일 수 있다.
 - ㄹ. 바이오디젤만 연료로 사용하면 일반디젤만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서 질소산화물 배출은 늘지만 이산화황 배출은 줄어든 것이다.

- ① ㄱ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ㄱ, ㄴ, ㄷ

2022 5급 (나) 27번

문 2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의 각성효과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커피를 한 잔만 마셔도 각성효과가 큰 사람이 있고, 몇 잔을 연거푸 마셔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 甲국 정부는 하루 카페인 섭취량으로 성인은 400mg 이하, 임신부는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를 권고하고 있다.

카페인은 식물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 화합물질로 각성 효과, 기억력, 집중력을 일시적으로 향상시킨다. 카페인의 효과는 ‘아데노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람의 몸에서 생성되는 화합물질인 아데노신은 뇌의 각성상태를 완화시켜 잠들게 하는 신경전달물질이다. 이 아데노신이 뇌 수용체와 결합하기 전에 카페인이 먼저 뇌 수용체와 결합하면 각성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즉 커피 속의 카페인은 아데노신의 역할을 방해하는 셈이다.

몸에 들어온 카페인은 간에서 분해된다. 카페인의 분해가 잘 될수록 각성효과가 빨리 사라진다. 카페인이 간에서 분해되는 과정에는 카페인 분해 효소가 필요하다. 카페인 분해 효소의 효율이 유전적·환경적 요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흡연 또는 여성의 경구 피임약 복용 등도 카페인 분해 효율에 영향을 주지만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카페인 분해 효소의 효율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15번 염색체에 있다. 이 유전자 염기서열 특정 부분의 변이가 A형인 사람을 ‘빠른 대사자’, C형인 사람을 ‘느린 대사자’로 나누기도 한다. C형인 사람은 카페인 분해가 느려서 카페인이 일으키는 각성효과를 길게 받는다. “나는 낮에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밤에 잠이 안 와!”라고 말하는 사람은 느린 대사자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커피를 마셔도 잘 자는 사람은 빠른 대사자일 가능성이 높다.

- ① 甲국 정부가 권고하는 하루 카페인 섭취량 이하를 섭취하면 각성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카페인은 각성효과를 돕는 아데노신 분비를 촉진시킨다.
- ③ 유전자 염기서열 특정 부분의 변이가 A형인 사람은 C형인 사람보다 카페인의 각성효과가 더 오래 유지된다.
- ④ 몸무게가 60kg인 성인 남성에 대해 甲국 정부가 권고하는 하루 카페인 섭취량은 최대 150mg이다.
- ⑤ 사람에 따라 커피의 각성효과가 달라지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유전적 요인이다.

2024 5급 (나) 26번

2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고대 수메르의 유적에서 맥주 제조법이 적힌 점토판이 발굴되었다. 점토판의 기록에 따르면, 수메르인은 보리를 갈아 빵과 같은 형태로 만든 후 물을 부어 저장해 두는 방식으로 맥주를 제조하였다.

현대 맥주의 기본 재료는 맥아, 홉, 효모, 물이다. 맥아는 보리를 물에 담가 싹을 틔운 것을 말하고, 맥아에 열을 가해 볶은 것을 몰트라고 한다. 홉은 삼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암꽃이 성숙하여 생기는 루폴린이라는 작은 알갱이가 맥주의 재료로 사용된다.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맥주에서 느끼는 씹싸름한 맛은 홉의 사용이 보편화된 산업혁명 이후에 갖게 된 맥주의 특성이다. 효모는 일종의 미생물로서 맥주의 발효에 중요한 요소이다. 맥주의 발효는 18 ~ 25 °C에서 이루어지는 상면 발효와 5 ~ 15 °C에서 이루어지는 하면 발효가 있는데, 전자의 방식으로 만든 맥주를 에일, 후자의 방식으로 만든 맥주를 라거라고 한다. 맥주 제조에 사용되는 물은 칼슘과 마그네슘 등이 많이 포함된 경수와 적게 포함된 연수로 구분되는데, 라거를 생산할 때는 주로 연수를 사용한다.

맥주의 색상은 몰트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80 °C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볶은 몰트는 색이 옅고 200 °C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 볶은 몰트는 색이 진하다. 산업혁명 이전의 수공업 몰트 제조 기술로는 몰트를 골고루 적당하게 볶기 어려워 검게 탄 몰트를 사용했기에 맥주가 까만색에 가까웠으나, 산업혁명 이후 기술이 발달하여 원하는 정도로 맥아를 볶을 수 있게 되었다.

- ① 맥주의 색깔은 보리의 발아 온도에 따라 결정된다.
- ② 고대 수메르인은 홉을 이용하여 맥주를 생산했다.
- ③ 에일은 5 ~ 15 °C에서 발효시켜 만든 맥주이다.
- ④ 하면 발효 맥주에는 연수가 주로 사용된다.
- ⑤ 산업혁명 이후에는 낮은 온도보다는 높은 온도로 몰트를 만들었다.

2025 5급 (가) 6번

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장’은 우리 고유의 말이다. 한자 표기인 ‘櫥(장)’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사용하는 한자이다. 櫥이라는 한자가 사용되기 이전에는 중국의 명칭을 따라 ‘豎櫃(수궤)’라고 표기하였다. 이후 우리말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장이 한자어가 된 것이다.

장은 실용성과 심미성이 커서 물건을 보관하거나 집 내부를 꾸미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주로 남성이 사용하는 사랑방에는 문방사우, 의복, 탁자 등을 둘 수 있는 책장, 의걸이장, 탁자장 등이 배치되었다. 여성이 기거하는 안방에는 용도에 따라 버선장, 실장, 솜장, 머릿장 등을 두었다. 이 중 머릿장은 사랑방에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장을 제작할 때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다. 특히 또렷하게 드러나는 나이트 모양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나이트 모양이 드러나는 판자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계절의 변화에 따라 수축과 팽창이 심하여 가구의 변형이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등 나이트가 뚜렷한 자재를 2~3mm 두께로 얇게 자르고, 변형이 적은 오동나무나 소나무와 같은 자재에 결을 엇갈리게 붙인 후 골재에 끼웠다. 이때 풀을 사용하지 않고 흙에 끼우는 축짜임기법을 이용해 변형을 최소화하였다.

- <보 기>

ㄱ. ‘豎櫃’라는 한자가 사용되기 이전에는 ‘櫥’이라는 한자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ㄴ. 소나무 자재는 물푸레나무 자재보다 변형이 적을 것이다.
 ㄷ. 머릿장은 안방에서만 사용했을 것이다.
 ㄹ. 축짜임기법은 장에 정교한 조각을 장식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ㄴ, ㄷ, ㄹ

2025 5급 (가) 26번

2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숯은 나무를 태운 후 남는 시커먼 탄소덩어리이다. 나무를 숯가마에 넣고 공기를 차단하여 완전연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수분은 날아가고 탄소덩어리로 변해 숯이 된다.

숯은 가공 방법에 따라 흑탄과 백탄으로 구분하며, 그 용도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있다. 흑탄은 숯가마의 온도가 600 ~ 700 °C인 상태에서 구운 후 공기를 막아 불을 끄고 천천히 식혀 꺼낸 숯으로 표면이 검다. 같은 무게라면 백탄보다 흡착 면적이 넓어 냄새와 습기를 빨아들이는 효과가 크다. 이에 비해 백탄은 온도가 800 ~ 1,300 °C인 숯가마에서 구운 다음, 별جل게 달아 있는 상태에서 꺼낸 뒤 흙이나 재 등을 덮어 빠른 속도로 식힌 숯이다. 표면의 빛깔이 희끗희끗해 백탄이라고 한다. 고온에서 구워진 반면 짧은 시간에 식힌 백탄은 두드리면 썩소리가 날 만큼 단단하고 오래 타기 때문에 주로 연료로 사용한다.

이외에도 숯은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숯은 불순물을 걸러내는 기능이 있어서 간장을 담글 때 숯을 간장독에 넣기도 하였다. 또한 옛날부터 민간에서는 아이를 낳은 집 문간에 금줄을 걸고 숯이나 고추를 그 사이사이에 끼우는 풍속도 있었다. 이는 숯이 부정한 것을 막는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① 백탄은 흑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구운 것이다.
- ② 숯은 민간 풍속에서 연료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 ③ 나무가 숯가마에서 완전연소가 되면 숯으로 변한다.
- ④ 연료로 사용하기에는 백탄보다 흑탄이 더 적합하다.
- ⑤ 백탄은 흑탄보다 습기제거에 더 효과적이다.

2020 7급 모의평가 23번 ~ 24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23. ~ 문 24.]

독립운동가 김우전 선생은 일제강점기 광복군으로 활약한 인물로, 광복군의 무전통신을 위한 한글 암호를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1922년 평안북도 정주 태생인 선생은 일본에서 대학에 다니던 중 재일학생 민족운동 비밀결사단체인 ‘조선민족 고유문화유지계몽단’에 가입했다. 1944년 1월 일본군에 징병돼 중국으로 파병됐지만 같은 해 5월 말 부대를 탈출해 광복군에 들어갔다.

1945년 3월 미 육군 전략정보처는 일본이 머지않아 패망할 것으로 보아 한반도 진공작전을 계획하고 중국에서 광복군과 함께 특수훈련을 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선생은 한글 암호인 W-K(우전킴) 암호를 만들었다. W-K 암호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 받침을 구분하여 만들어진 암호체계이다. 자음과 모음을 각각 두 자리 숫자로, 받침은 자음을 나타내는 두 자리 숫자의 앞에 '00'을 붙여 네 자리로 표시한다.

W-K 암호체계에서 자음은 ‘11~29’에, 모음은 ‘30~50’에 순서대로 대응된다. 받침은 자음 중 ㄱ~ㅎ을 이용하여 ‘0011’부터 ‘0024’에 순서대로 대응된다. 예를 들어 ‘김’은 W-K 암호로 변환하면 ‘ㄱ’은 11, ‘ㅣ’는 39, 받침 ‘ㅁ’은 0015이므로 ‘11390015’가 된다. 같은 방식으로 ‘1334001114390016’은 ‘독립’으로, ‘1340243000121334001114390016153000121742’는 ‘대한독립만세’로 해독된다. 모든 숫자를 붙여 쓰기 때문에 상당히 길지만 네 자리씩 끊어 읽으면 된다.

하지만 어렵사리 만든 W-K 암호는 결국 쓰이지 못했다. 작전 준비가 한창이던 1945년 8월 일본이 갑자기 항복했기 때문이다. 이 암호에 대한 기록은 비밀에 부쳐져 미국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었다가 1988년 비밀이 해제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 W-K 암호체계에서 자음의 순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이고, 모음의 순서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ㅖ, ㅙ, ㅚ, ㅜ, ㅟ, ㅞ, ㅟ, ㅠ, ㅡ, ㅢ, ㅣ, ㅤ 이다.

문 23.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 ㉠. 김우전 선생은 일본군에 징병되었을 때 무전통신을 위해 W-K 암호를 만들었다.
- ㉡. W-K 암호체계에서 한글 단어를 변환한 암호문의 자릿수는 4의 배수이다.
- ㉢. W-K 암호체계에서 '183000152400'은 한글 단어로 해독될 수 없다.
- ㉣. W-K 암호체계에서 한글 '궤'는 '11363239'로 변환된다.

- ① $\neg, \perp$
- ② $\perp, \top$
- ③ $\top, \neg$
- ④ $\neg, \perp, \neg$
- ⑤ $\neg, \top, \neg$

문 24. 윗글과 다음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3·1운동!’을 옳게 변환한 것은?

—〈조 건〉—

숫자와 기호를 표현하기 위하여 W-K 암호체계에 다음의 규칙이 추가되었다.

- 1~9의 숫자는 차례대로 '51~59', 0은 '60'으로 변환하고, 끝에 '00'을 붙여 네 자리로 표시한다.
- 온점(.)은 '70', 가운뎃점(·)은 '80', 느낌표(!)는 '66', 물음표(?)는 '77'로 변환하고, 끝에 '00'을 붙여 네 자리로 표시한다.

- ① 53008000510018360012133400186600
- ② 53008000510018360012133500186600
- ③ 53007000510018360012133400187700
- ④ 5370005118360012133400176600
- ⑤ 5380005118360012133500177700

2021 7급 (나) 23번~24번

※ [문 23. ~ 문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권·경제권,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해야 한다.
-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하고 통합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단, 주민이 건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가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은 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할 때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를 경유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접수받은 통합건의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의 건의를 참고하여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부 장관은 위원회가 마련한 시·군·구 통합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권고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군·구 통합과 관련하여 주민투표의 실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관계지방자치단체(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장은 명칭, 청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 수는 다음에 따라 산정한다. 단, 그 결과값이 자연수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수를 올림한 값을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 수로 한다.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 수 =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수) × 6 +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수) × 2 + 1] ÷ (관계지방자치단체 수)

-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는 위에 따라 산출된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 수에 관계지방자치단체 수를 곱한 값이다.

문 23.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① □□부 장관이 요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실시된 경우에는 통합권고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된다.
- ② 지방의회가 의결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통합건의서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위원회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 ③ 주민투표권자 총수가 10만 명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다른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할 때, 주민 200명의 연서가 있으면 가능하다.
- ④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부 장관과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위원회에 건의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문 24. 윗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는?

— <상 황> —

甲도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A군과 B군, 乙도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C군, 그리고 丙도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D군은 관련 절차를 거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계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한다.

- ① 42명
- ② 35명
- ③ 32명
- ④ 31명
- ⑤ 28명

2022 7급 (가) 9번 ~ 10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9. ~ 문 10.]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가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 순위 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케 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정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 틀 내에서 운영된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기존 제도인 국민제안제도와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차이점을 지닌다. 먼저 ‘국민제안제도’가 국민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가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라면,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의 제안 이후 사업심사와 우선순위 결정과정에도 국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참여예산제도에서는 3~4월에 국민사업제안과 제안 사업 적격성 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5월까지 각 부처에 예산안을 요구한다. 6월에는 예산국민참여단을 발족하여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압축한다. 7월에는 일반국민 설문조사와 더불어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통해 사업선호도 조사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호순위가 높은 후보사업은 국민참여 예산사업으로 결정되며, 8월에 재정정책자문회의의 논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정부예산안에 반영된다. 정부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12월까지 예산안을 확정한다.

예산국민참여단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참여의사를 타진하여 구성한다.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되 성·연령·지역별 대표성을 확보하는 통계적 구성방법이 사용된다. 예산국민참여단원은 예산학교를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후,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압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산국민참여단이 압축한 후보사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선호도는 통계적 대표성이 확보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예산국민참여단의 사업선호도는 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조사한다.

정부는 2017년에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하였는데, 그 결과 6개의 국민참여 예산사업이 선정되었다. 2019년도 예산에는 총 39개 국민 참여예산사업에 대해 800억 원이 반영되었다.

- 문 9.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① 국민제안제도에서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국민이 정할 수 있다.
 - ② 국민참여예산사업은 국회 심의·의결 전에 국무회의에서 정부예산안에 반영된다.
 - ③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정부의 예산편성권 범위 밖에서 운영된다.
 - ④ 참여예산 후보사업은 재정정책자문회의의 논의를 거쳐 제안된다.
 - ⑤ 예산국민참여단의 사업선호도 조사는 전화설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문 10. 윗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보고할 수치를 옳게 짚은 것은?

— <상 황> —

2019년도 국민참여예산사업 예산 가운데 688억 원이 생활밀착형사업 예산이고 나머지는 취약계층지원사업 예산이었다.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사업 예산 규모는 2019년도에 비해 25% 증가했는데, 이 중 870억 원이 생활밀착형사업 예산이고 나머지는 취약계층지원사업 예산이었다.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정부부처 담당자 甲은 2019년도와 2020년도 각각에 대해 국민참여예산사업 예산에서 취약계층지원사업 예산이 차지한 비율을 보고 하려고 한다.

	2019년도	2020년도
①	13 %	12 %
②	13 %	13 %
③	14 %	13 %
④	14 %	14 %
⑤	15 %	14 %

2023 7급 (인) 9번 ~ 10번

[9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향수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향료는 천연향료와 합성향료로 나눌 수 있다. 천연향료에는 꽃, 잎, 열매 등의 원료에서 추출한 식물성 향료와 사향, 용연향 등의 동물성 향료가 있다. 합성향료는 채취하기 어렵거나 소량 생산되는 천연향료의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이다. 오늘날 향수의 대부분은 천연향료와 합성향료를 배합하여 만들어진다.

천연향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 다음 3가지 방법이 대표적이다. 첫째,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수증기 증류법이다. 이는 향수 원료에 수증기를 통과시켜서 농축된 향의 원액인 향유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원료를 고온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열에 약한 성분이 파괴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한꺼번에 많은 양을 값싸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압착법은 과일 껍질 등과 같은 원료를 압착해서 향유를 얻는 방법이다. 열에 비교적 강하며 물에 잘 녹지 않는 향료에는 수증기 증류법이 이용되지만, 감귤류처럼 열에 약한 것에는 압착법이 이용된다. 셋째, 흡수법은 지방과 같은 비휘발성 용매를 사용하여 향유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원료가 고가이고 향유의 함유량이 적으며 열에 약하고 물에 잘 녹는 경우에는 흡수법이 이용된다.

한편, A국에서 판매되는 향수는 EDC, EDT, EDP, Parfum으로 나뉜다. 이는 부향률, 즉 향료의 함유량 정도에 따른 구분이다. 향수는 부향률이 높을수록 향이 강하고 지속시간이 길다. 먼저 EDC(Eau De Cologne)는 부향률이 2 ~ 5 %로 지속시간이 1 ~ 2시간이다. 향의 지속시간이 가장 짧고 잔향이 거의 없으며, 향이 가볍고 산뜻하다. EDT(Eau De Toilette)는 부향률이 5 ~ 15 %로 3 ~ 5시간 지속되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EDP(Eau De Parfum)는 부향률이 15 ~ 20 %로 5 ~ 8시간 지속된다. 풍부한 향을 가지고 있으며, 오랜 시간 향이 유지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알맞다. Parfum은 부향률이 20 ~ 30 %로 8 ~ 10시간 지속되며, 가장 향이 강하고 오래간다.

9. 밑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① EDP의 부향률이 EDC의 부향률보다 높다.
- ② 흡수법은 많은 양의 향유를 값싸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 ③ 오늘날 많이 사용되는 향수의 대부분은 식물성 천연향료로 만들어진다.
- ④ 고가이고 향유의 함유량이 적은 원료에서 향유를 추출하고자 할 때는 흡수법보다는 압착법이 이용된다.
- ⑤ 부향률이 높은 향수일수록 향이 오래 지속되므로, 부향률이 가장 높은 향수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10. 밑글과 <대화>를 근거로 판단할 때, 甲 ~ 戊 중 가장 늦은 시각까지 향수의 향이 남아 있는 사람은?

— <대 화> —

甲: 나는 오늘 오후 4시에 향수를 뿌렸어. 내 향수에는 EDC라고 적혀 있었어.

乙: 난 오늘 오전 9시 30분에 향수를 뿌렸는데, 우리 중 내가 뿌린 향수의 향이 가장 강해.

丙: 내 향수의 부향률은 18 %라고 적혀 있네. 나는 甲보다 5시간 전에 향수를 뿌렸어.

丁: 난 오늘 오후 2시에 戊와 함께 향수 가게에 들렸어. 난 가자마자 EDT라고 적힌 향수를 뿌렸고, 戊는 나보다 1시간 뒤에 EDP라고 적힌 걸 뿌렸어.

- ① 甲
- ② 乙
- ③ 丙
- ④ 丁
- ⑤ 戊

2024 7급 (사) 9번 ~ 10번
[9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암호 기술은 일반적인 문장(평문)을 해독 불가능한 암호문으로 변환하거나, 암호문을 해독 가능한 평문으로 변환하기 위한 원리, 수단, 방법 등을 취급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 암호 기술은 암호화와 복호화로 구성된다. 암호화는 평문을 암호문으로 변환하는 것이며, 반대로 암호문에서 평문으로 변환하는 것은 복호화라 한다.

암호 기술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즉 암호 알고리즘은 대상 메시지를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암호 알고리즘에는 메시지의 각 원소를 다른 원소에 대응시키는 ‘대체’와 메시지의 원소들을 재배열하는 ‘치환’이 있다. 예를 들어 대체는 각 문자를 다른 문자나 기호로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것이고, 치환은 단어, 어절 등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다.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키(key)를 사용하기도 한다. 키는 암호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값이다. 송신자와 수신자가 같은 키를 사용하면 대칭키 방식이라 하고, 다른 키를 사용하면 비대칭키 방식이라 한다. 대칭키 방식은 동일한 키로 상자를 열고 닫는 것이고, 비대칭키 방식은 서로 다른 키로 상자를 열고 닫는 것이다. 비대칭키 방식의 경우에는 수신자가 송신자의 키를 몰라도 자신의 키만 알면 복호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비대칭키 방식은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키의 유출 염려가 덜해 조금 더 보안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암호 알고리즘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 수 있는 키의 수는 키를 구성하는 비트(bit)의 수에 따른다. 비트는 0과 1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데, 예를 들어 8비트로 만들 수 있는 키의 수는 2^8 , 즉 256개이다. 키를 구성하는 비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모든 키를 체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보안성이 높아진다. 256개 정도의 키는 컴퓨터로 짧은 시간에 모두 체크할 수 있으나, 100비트로 구성된 키가 사용되었다면 체크해야 할 키의 수가 2^{100} 개에 달해 초당 100만 개의 키를 체크할 수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56비트로 구성된 키를 사용하여 만든 암호 알고리즘에는 DES(Data Encryption Standard)가 있다. 그런데 오늘날 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DES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DES보다는 DES를 세 번 적용한 삼중 DES(triple DES)나 그 뒤를 이은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를 사용하고 있다.

9.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 ㄱ. 복호화를 통하여 암호문을 평문으로 변환할 수 있다.
 - ㄴ. 비대칭키 방식의 경우, 수신자는 송신자의 키를 알아야 암호를 해독할 수 있다.
 - ㄷ. 대체는 단어, 어절 등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다.
 - ㄹ. 삼중 DES 알고리즘은 DES 알고리즘보다 안전성이 높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0. 윗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가)에 해당하는 수는?

- <상 황> —————
- 2^{56} 개의 키를 1초에 모두 체크할 수 있는 컴퓨터의 가격이 1,000,000원이다. 컴퓨터의 체크 속도가 2배가 될 때마다 컴퓨터는 10만 원씩 비싸진다. 60비트로 만들 수 있는 키를 1초에 모두 체크할 수 있는 컴퓨터의 최소 가격은 (가) 원이다.

- ① 1,100,000
- ② 1,200,000
- ③ 1,400,000
- ④ 1,600,000
- ⑤ 2,000,000

2025 7급 (인) 9번 ~ 10번
[9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은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의 상태를 고려한 요양 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와 차이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가 제공받을 수 있는 급여로는 재가(在家)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급여, 특별현금급여 네 가지가 있다. 재가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재가 노인을 일정 시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보호해 주는 주·야간보호로 이루어져 있다. 시설급여는 수급자를 노인요양시설에서 장기간 보호해 주는 것을 말한다. 복지용구 급여는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단, 시설급여 수급자의 경우 복지용구급여는 제공받지 못한다. 특별현금급여는 수급자가 천재지변, 신체 또는 정신 등의 사유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어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서비스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뜻하며, 수급자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급한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급여별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재가급여의 경우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100분의 20, 복지용구급여는 100분의 15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에게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9. 밑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 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특정 저소득층이다.
 - 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장기간 보호받고 있는 수급자 A는 그 기간 동안 방문목욕급여를 받을 수 없다.
 - ㄷ. 시설급여 수급자 B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인 성인용 보행기 대여에 대한 복지용구급여를 받을 수 없다.
 - ㄹ.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서비스를 받는 C는 특별현금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0. 밑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 ~ 丙을 이번 달 수급 현황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상 황>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별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급여 유형	급여 내용	급여비용
재가급여	방문요양	2만 원/시간
	방문목욕	7만 원/회
	방문간호	4만 원/시간
	주·야간보호	1만 원/시간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보호	7만 원/일
복지용구급여	복지용구 구입	복지용구 구입비
	복지용구 대여	복지용구 대여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자 甲 ~ 丙의 이번 달 수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수급자	수급 내역	비고
甲	방문목욕 10회, 복지용구(전동침대) 구입	전동침대 구입비 30만 원
乙	주·야간보호 45시간, 방문요양 28시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丙	노인요양시설 보호 11일	—

- ① 甲 > 乙 > 丙
- ② 甲 > 丙 > 乙
- ③ 乙 > 丙 > 甲
- ④ 丙 > 甲 > 乙
- ⑤ 丙 > 乙 > 甲

2025 7급 추가 (핵) 9번~10번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증후군은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징후가 함께 나타나는 병적인 증상을 말한다. 그런데 어떤 증후군은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그 시대의 사회적·문화적 현상을 반영한다. 특정 증후군이 시대별로 유행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당시에 직면한 스트레스, 두려움, 사회적 압박 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번아웃 증후군’은 21세기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탈진을 특징으로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번아웃 증후군을 사회적 압박과 기대에 대한 개인의 반응으로 이해한다. 2019년 세계 보건기구(WHO)는 번아웃 증후군을 ‘직업적 현상’으로 분류하면서 직장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임을 강조했다. 같은 해 유럽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유럽 근로자 중 번아웃 증상을 보인 비율은 약 25 %였으며, 저소득 국가보다 고소득 국가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놓치거나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Fear of Missing Out, FOMO)’은 2010년대 이후 소셜 미디어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부상한 증후군이다. FOMO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가치있는 경험을 하고 있거나 자신이 중요한 정보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을 의미한다. 이 FOMO 역시 사회적 현상에 대한 반응이다. 심리학자들은 FOMO가 본질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본능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로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의 소셜 미디어는 이 욕구를 증폭시켰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되고, 이를 자신과 비교하면서 FOMO가 강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FOMO는 소셜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 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컨대 2025년 A국의 경우, 1990년대생의 20 %, 2000년대생의 40 %가 각각 FOMO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9.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① 특정 시대에 유행한 증후군은 그 시대의 사회적 현상과 무관하다.
 - ② 2019년 WHO는 번아웃 증후군을 가정 내 개인적 현상으로 분류하였다.
 - ③ 번아웃 증후군은 주로 저소득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 ④ FOMO는 번아웃 증후군과 달리 신체적 탈진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 ⑤ 소셜 미디어 사용이 많은 집단일수록 FOMO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다.

10. 윗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25년 A국 2000년대생 중 FOMO 경험자 수는?

————— <상 황> —————

2025년 A국에서 FOMO를 경험한 남성과 여성의 비는 1990년대생의 경우 1 : 1, 2000년대생은 3 : 1이었다. 1990년대생 여성 중 FOMO 경험자 수와 2000년대생 여성 중 FOMO 경험자 수는 같았고, A국 1990년대생은 500만 명이었다.

- ① 100만 명
- ② 200만 명
- ③ 250만 명
- ④ 500만 명
- ⑤ 750만 명

2011 5급 (선) 19번 ~ 20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 ~ 문 20]

조선 시대의 상례(喪禮)에는 오복(五服)이라는 상복(喪服) 제도가 있었다. 상을 당했을 때 어떤 상복을 입고 얼마 동안의 상기(喪期)를 지키느냐는 두 가지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첫째는 망자(亡者)와의 친소(親疎) 정도였는데, 촌수 등에 따라 친소관계가 정해졌다. 상을 당했을 때 상복을 입어야 하는 범위는 친가와 외가 및 처가가 서로 달랐다. 친가의 직계는 위로 4대(부모·조부모·증조부모·고조부모), 아래로 4대(자·손·증손·현손), 친가의 방계는 8촌까지였다. 그러나 외가는 4촌까지였고, 처가는 처의 부모에 국한되었다. 한편 입양을 간 남성은 양부모와 양부모의 친족에 대하여 친자와 똑같은 상례를 지켰다.

둘째는 남존여비(男尊女卑)사상에 근거한 남녀의 차별이었다. 출가하기 전의 여성은 집안의 남성과 동등하게 상복을 입었다. 그러나 혼인한 여성은 단지 시집의 구성원으로서 남성 중심의 친족관계에 편입되었다. 부부 상호간의 상례에서 아내는 남편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보다 중(重)한 상례를 지켜야 했다.

오복은 참취·자취·대공·소공·시마 다섯 가지였다. 오복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참취는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었다. 그 다음 등급인 자취는 다시 상기에 따라 3년·1년·5개월·3개월로 나뉜다. 자취 3년은 오동나무나 버드나무 지팡이를 짚었고, 자취 1년은 지팡이를 짚는 장기(杖基)와 지팡이를 짚지 않는 부장기(不杖基)로 나뉘었다. 자취 5개월 이하 및 대공에서 시마까지는 지팡이를 쓰지 않았다. 자취의 다음 등급인 대공은 상기가 9개월 이었고, 소공은 5개월이었으며, 최하 등급인 시마는 3개월 이었다. 각 등급에 해당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참취: 아버지의 상을 당한 아들
2. 자취 3년: 어머니의 상을 당한 아들
3. 자취 1년의 장기: 시집 안 간 고모의 상을 당한 조카
4. 자취 1년의 부장기: 아내의 상을 당한 남편
5. 자취 5개월: 증조부모의 상을 당한 증손자
6. 자취 3개월: 고조부모의 상을 당한 고손자
7. 대공: 친가 4촌 형제의 상을 당한 경우
8. 소공: 외조부모의 상을 당한 외손
9. 시마: 친가 8촌 형제의 상을 당한 경우

참고로, 이상의 오복 외에 20세가 안 된 자식을 잃은 경우는 삼상(三傷)이라 하는데, 죽은 자식의 나이에 따라 16~19세의 장상(長傷), 12~15세의 중상(中傷), 8~11세의 하상(下傷)으로 구분하였다. 삼상은 상복을 입지 않고 두건만 쓰는 일이 많았지만, 장상과 하상은 각각 대공과 소공에 해당하는 상기를 지켰고, 중상의 상기는 하상보다 2개월 길었다.

- ※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상을 당한 주체가 남자라고 전제한다.
 ※ 상례에 관한 제도는 위의 경우로 한정한다.

문 19. 위 글을 근거로 옳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ㄱ. 외사촌 형의 상을 당한 경우는 대공에 해당할 것이다.
- ㄴ. 조부의 상을 당한 경우 손자의 상기는 1년 이상일 것이다.
- ㄷ. 당숙(아버지의 사촌)의 상을 당한 경우에는 지팡이를 짚지 않을 것이다.
- ㄹ. 남편의 상을 당한 아내는 상례를 치를 때 지팡이를 짚어야 할 것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ㄴ, ㄷ, ㄹ

문 20. <보기>의 甲~丙을 상기가 긴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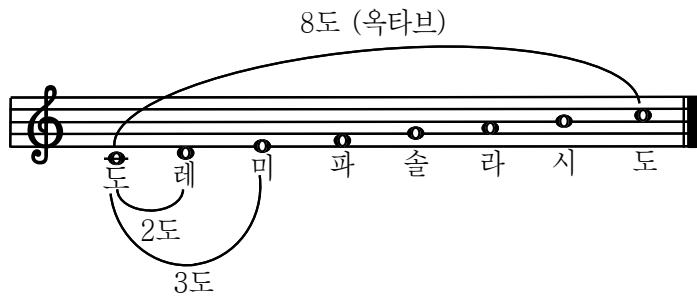
- 甲은 아직 미혼인 17세와 14세의 두 아들을 두었는데 어제 저녁 불의의 사고로 차남을 잃었다.
- 乙은 어제 이종사촌 형의 부고를 접하였는데, 작년 친가 8촌 남동생의 상을 당했을 때와 같은 상기를 지키게 되었다.
- 丙은 10살 때 양자로 가서 양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어제 양부의 조모가 돌아가셔서 초상을 치르게 되었다.

- ① 甲 - 乙 - 丙
- ② 甲 - 丙 - 乙
- ③ 乙 - 丙 - 甲
- ④ 丙 - 甲 - 乙
- ⑤ 丙 - 乙 - 甲

2011 5급 (선) 31번 ~ 32번

※ 다음 글을 읽고 답하시오. [문 31 ~ 문 32]

서양음악의 기보는 오선지 위에 음표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오선지 상에서 각 음의 이름은 아래와 같으며, 동일한 음 간의 간격을 1도, 바로 인접한 음과의 간격을 2도라 하고 8도 떨어진 음을 ‘옥타브 위의 음’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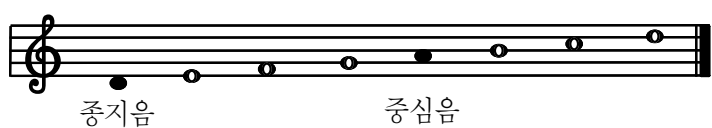
중세시대 성가들은 8개의 교회선법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그 8개의 선법은 4개의 ‘정격선법’과 이와 짝을 이루는 4개의 ‘변격선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4개의 정격선법에는 도리아, 프리지아, 리디아, 믹소리디아가 있고, 이들 선법은 서로 다른 하나의 ‘종지음’을 갖고 있다. ‘종지음’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어느 한 선법을 기초로 만들어진 성가는 반드시 그 선법의 종지음으로 끝난다는 특징에서 기인한다. 도리아 – 프리지아 – 리디아 – 믹소리디아 선법은 도리아 선법의 종지음인 ‘레’음에서 2도씩 순차적으로 높아지는 음을 종지음으로 갖는다. 각 정격선법은 그 종지음으로부터 옥타브 위까지의 8개 음으로 이루어지며, 이 8개의 음을 ‘음역’이라 한다.

정격선법과 짝을 이루는 변격선법의 이름은 정격선법 이름에 ‘히포’라는 접두어를 붙여 부른다. 예를 들면 도리아 선법의 변격선법은 히포도리아 선법이 된다. 각 변격선법은 상응하는 정격선법과 같은 종지음을 갖지만 그 음역은 종지음으로부터 아래로는 4도, 위로는 5도까지 펼쳐져 있다.

교회선법에는 종지음 외에 특별히 강조되는 음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음을 ‘중심음’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는 정격선법의 중심음은 종지음으로부터 5도 위의 음이다. 다만 프리지아 선법에서처럼 종지음으로부터 5도 위의 음이 ‘시’음이 될 때에는 그 위의 ‘도’음이 중심음이 된다. 변격 선법에서는 짝을 이루는 정격선법의 중심음으로부터 3도 아래의 음이 그 변격선법의 중심음이 되는데, 역시 이때도 3도 아래의 음이 ‘시’음일 경우는 바로 위의 ‘도’음이 중심음이 된다.

〈교회선법의 예시〉

〈도리아 선법〉



〈히포도리아 선법〉



문 31. 아래 선법의 명칭은?



- ① 리디아 ② 프리지아
③ 히포리디아 ④ 히포프리지아
⑤ 히포믹소리디아

문 32. 위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 ㄱ. 짝을 이루는 정격선법과 변격선법의 경우, 음역은 다르나 동일한 중심음을 갖는다.
- ㄴ. 어떠한 성가가 ‘술’음으로 끝났다면 이 성가는 믹소리디아 선법 또는 히포믹소리디아 선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 ㄷ. 도리아 선법과 히포믹소리디아 선법의 음역은 동일하다.
- ㄹ. 프리지아 선법과 리디아 선법의 중심음은 동일하다.

- ① $\neg$
② $\cap$
③ $\neg, \cup$
④ $\cup, \cap$
⑤ $\neg, \cap, \cup$

2011 5급 (선) 39번~40번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39 ~ 문 40]

996년 송나라는 A지역의 개간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입안하여 고시하였다.

○ A지역에서 개간을 원하는 자는 권농관(勸農官)의 심사를 받는다. 권농관은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경지와 텃밭을 함께 지급한다. 경지와 텃밭은 호주(戶主)에게 지급하며 각 호(戶)에 대한 지급 면적은 호 안의 성인 남자 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1) 경지의 지급 면적은 생산량의 비율에 따라 등급을 달리 한다. 상품(上品)의 경지는 흙이 기름지고 수해·한해의 걱정이 없는 땅이다. 중품(中品)은 흙이 기름지나 수해·한해의 걱정이 있는 땅, 혹은 흙은 기름지지 않으나 수해·한해의 걱정이 없는 땅이다. 하품(下品)은 흙이 기름지지 않고 수해·한해의 걱정이 있는 땅이다. 상품의 경지라면 성인 남자 1인당 100무(畝)*를 지급한다. 중품의 경지라면 150무, 하품의 경지라면 200무를 지급한다.

(2) 한 호에 성인 남자가 3인 이하라면 그 숫자에 비례하여 경지를 지급한다. 성인 남자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 5인까지는 3인분을, 7인까지는 5인분을, 10인까지는 7인분을 지급한다. 10인을 초과하는 호는 10인의 호와 같이 취급한다.

(3) 채소·뽕나무 등을 심기 위한 텃밭의 경우에는 한 호에 성인 남자가 2인 이하면 30무, 3인 이상이면 50무, 5인 이상이면 70무, 7인 이상이면 100무, 10인 이상이면 150무를 지급한다.

※ 무(畝)는 땅의 면적을 재는 단위이다.
※ 호주는 남자임을 전제로 한다.

문 39. 위의 정책과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같은 호 안에 성인 남자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진다.
ㄴ. 경지와 텃밭을 합해서 성인 남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면적은 230무이다.
ㄷ. 상품의 경지와 하품의 경지 간에 단위면적당 2배의 생산량 격차가 있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ㄹ. 성인 남자가 3인인 호와 비교할 때, 성인 남자가 10인인 호는 경지보다는 텃밭 지급 면적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ㄴ, ㄷ, ㄹ

문 40. 위의 정책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내와 성년이 된 세 아들과 함께 사는 甲은 최대 650무를 지급받을 수 있다.
- ② 乙의 호에는 乙의 아내와 동생 부부를 합하여 모두 4인의 성인이 있다. 乙형제는 호를 분리하여 개간을 신청하면 더 많은 땅을 지급받을 수 있다.
- ③ 丙이 개간을 신청하여 텃밭으로 100무를 받고 경지는 상품으로 받았다면 丙이 받은 땅의 총 면적은 500무를 넘을 수 없다.
- ④ 성인 남자가 12명인 丁의 호가 하품의 경지를 받았다면 丁이 받은 땅의 총 면적은 1,550무이다.
- ⑤ 戊가 개간을 신청하여 텃밭으로 30무를 지급받았다면 戊가 받은 땅의 총 면적은 최소 130무이다.

2012 5급 (인) 39번 ~ 40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39 ~ 문 40]

마야인은 시간의 최소단위를 하루라고 보았고, 시간이 형상화된 것이 신이라고 생각했다. 이 신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신에게 제례의식을 올려야 했다. 마야의 왕들은 제례의식을 자신과 신을 연결하는 기회라고 보고, 제례의식을 독점적으로 진행하였다.

마야에서는 통치자의 위엄과 달력의 권위가 운명적으로 결합해 있다고 보아 달력에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으며, 만일 달력에 실수가 있으면 백성들이 왕위계승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였다. 따라서 달력을 제작했던 역법학자나 천문관들은 선발된 특수계층으로서 자의식이 강했다. 이들은 태양계의 운행에 대한 정확한 관측자료 및 수학과 천문학에 의존하여 두 종류의 달력을 만들었다.

종교적인 ‘출킨’은 신성한 순환이라고도 불리는데 주로 종교적이고 예언적인 기능을 담당하였다. 출킨의 날짜는 1에서 13까지의 숫자와 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림문자 20개를 조합하여 만들었으며, 각각의 날은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1이믹스’ 다음 날은 ‘2이크’였다. 20개의 신의 이름의 순서는 이믹스 - 이크 - 아크발 - 칸 - 치칸 - 키미 - 마니크 - 라마트 - 물루크 - 오크 - 추웬 - 에브 - 벤 - 익스 - 멘 - 킵 - 카반 - 에즈납 - 카와크 - 아하우 이다. 1 ~ 13까지의 숫자는 목, 어깨 등 인간의 중요 신체부위 13군데를 의미하였는데, 특히 13이란 숫자는 신체에너지와 우주에너지가 통하는 교점을 상징하였다.

‘하아브’는 지구의 공전을 근거로 만든 달력이다. 하아브는 20일씩 날짜가 딱 채워진 18개의 달인 위날과 5일로 이루어진 짧은 달인 와옌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날의 이름 순서는 포프 - 우오 - 시프 - 소츠 - 세크 - 술 - 약스킨 - 몰 - 캔 - 약스 - 사크 - 케흐 - 마크 - 칸킨 - 무완 - 팍스 - 카얍 - 콤쿠 이다. 위날의 매 달은 ‘1’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날은 그 다음 달 이름에 ‘0’을 붙인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인 와옌은 아주 불운한 달이라고 생각해서 단식을 하고 많은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하아브 첫 날을 기다리며 되도록 집을 나가지 않는 등 행동을 삼갔다. 하아브 첫 날에는 성대한 축제가 열렸다.

출킨과 하아브의 주기를 조합하는 계산방식을 역법순환이라고 한다. 역법순환이 새롭게 시작하는 해가 되면 대대적인 축하행사가 열렸다. 역법순환 방식으로 날짜를 표기한다면, ‘4아하우 8콤쿠’식이 된다. 이들은 이러한 역법순환을 이용하여 만든 긴 주기의 달력을 통해 우주의 창조와 소멸을 이야기하였다.

문 39. <보기>에서 옳게 추론한 것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 ㄱ. 마야의 달력은 왕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 ㄴ. 마야의 달력은 마야인의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 ㄷ. ‘1이믹스’에서 ‘5이믹스’까지의 기간은 와옌의 기간과 같다.
- ㄹ. 마야는 수학과 천문학이 발달하였지만 하루를 매 시간 단위로 분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문 40. 마야의 달력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 ① 윤채: 출킨에서 ‘13익스’의 다음 날은 ‘1멘’이야.
- ② 형욱: 출킨의 1주기는 260일인데, ‘1이믹스’에서 시작하여 ‘13아하우’에서 끝나.
- ③ 지나: 하아브의 1주기는 365일이겠군.
- ④ 현석: 출킨의 ‘1이믹스’와 하아브의 ‘0세크’가 다시 만나는 데는 최소한 18,980일이 걸릴 거야.
- ⑤ 지윤: 하아브의 ‘1포프’가 오늘날의 양력 1월 1일이라면, ‘0세크’는 오늘날의 양력 4월 중의 하루일 거야.

2013 5급 (인) 39번 ~ 40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39 ~ 문 40]

15세기 후반 왕실의 도자기 수요량이 증가하자 국가가 도자기 제조를 직접 관리하게 되었다. 광주분원은 왕실에 필요한 도자기를 구워내기 위해 경기도 광주군에 설치한 관요(官窯)였다. 광주군 일대는 질 좋은 소나무 숲이 많았기 때문에 관요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는 시장절수처(柴場折受處)로 지정되었다.

예로부터 백자가마에서는 숯이나 재가 남지 않고 충분한 열량을 낼 수 있는 소나무를 연료로 사용했다. 불티가 남지 않는 소나무는 백자 표면에 입힌 유약을 매끄럽게 해 질 좋은 백자를 굽는 데 최상의 연료였다. 철분이 많은 참나무 종류는 불티가 많이 생겨서 백자 표면에 붙고, 그 불티가 산화철로 변하여 유약을 바른 표면에 원하지 않는 자국을 내기 때문에 예열할 때 외에는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도자기를 굽는 데는 많은 땔감이 필요하였다. 한 가마에서 백자 1,5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50짐의 소나무 장작이 필요했다. 장작 1거(車)는 5~6태(駄)를 말하며 1태는 2짐에 해당하는 분량이었다.

분원은 소나무 땔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시장절수처 내의 수목이 무성한 곳을 찾아 약 10년에 한번 꼴로 그 장소를 이동하였다. 분원이 설치되어 땔감에 필요한 소나무를 다 채취한 곳은 소나무가 무성하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그 곳에 분원을 설치하여 수목을 채취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질 좋은 소나무 확보가 중요했기 때문에 시장절수처로 지정된 곳의 소나무는 관요에 필요한 땔감으로만 사용을 하고 다른 관청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번 분원이 설치되어 소나무를 채취한 곳은 화전으로 개간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 곳에서 땔감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17세기 말경에는 분원을 교통이 편리한 곳에 고정시켜 두고 땔감을 분원으로 운반하여 사용하자는 분원고정론(分院固定論)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당시에는 실현되지 못하였고, 경종 원년(1721년) 이후에야 분원을 고정시켜 시장절수처 이외의 장소에서 땔감을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한편 17세기 후반부터는 분원에 소속된 공장(工匠)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사경영(私經營)을 허용하였고, 이것이 점차 늘어나 18세기에 들어와서는 상인 자본이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19세기에는 그 규모가 더욱 늘어 결국 고종 21년(1884년)에는 관요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문 39. 위의 글에 근거하여 추론할 때 옳은 것은?

- ① 시장절수처의 소나무는 질이 좋아서 관청의 건축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 ② 17세기에는 시장절수처의 소나무 숲 상태를 고려하여 분원이 이동되었을 것이다.
- ③ 19세기에 양반들은 광주분원의 공장에게서 도자기를 구입할 수 없었을 것이다.
- ④ 소나무 확보가 어려워지자 분원을 고정하고 땔감을 구매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17세기 말부터 분원이 고정되었을 것이다.
- ⑤ 광주군 일대는 질 좋은 소나무가 많아 19세기까지 광주분원은 정기적으로 순환하면서 시장절수처에서 땔감을 공급받았을 것이다.

문 40. 광주분원 2,000가마에서 300만 개의 백자를 생산하는데 필요했던 장작의 양은? (단, 장작 1거는 5태로 계산한다)

- ① 1,000거
- ② 1,500거
- ③ 5,000거
- ④ 7,500거
- ⑤ 10,000거

2013 외교 (인) 19번 ~ 20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 ~ 문 20]

항렬은 혈족의 방계에 대한 대수(代數) 관계를 표시하는데 항렬을 나타내는 자(字)를 항렬자 또는 돌림자라고 한다. 항렬자는 이름자 중에 한 글자를 공통으로 사용하여 같은 세대임을 나타낸다. 같은 세대에 속하면 보통 같은 항렬자를 사용하는데 형제는 형제대로, 아버지는 아버지의 형제대로, 할아버지의 형제는 그들대로 이름자 속에 같은 돌림자를 가지고 있다. 4촌, 6촌 혹은 8촌은 같은 돌림자를 써서 이들이 같은 대(代)에 속하는 형제관계임을 표시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자를 보고 그가 그 혈족 중 같은 대임을 알 수 있다.

항렬자를 정하는 방법에는 부수오행에 따라 정하는 방법, 천간을 따르는 방법, 지지를 사용하는 방법, 숫자 순서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부수오행을 따르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 방법은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金), 금생수(金生水), 수생목(水生木)의 오행상생(五行相生)의 원리를 이용한다. 부수오행에 따라 부수를 사용하는 자를 항렬자로 정하여, 목(木) → 화(火) → 토(土) → 금(金) → 수(水) → 목(木) ... 의 순서대로 순환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鐵(철), 鍾(종), 銀(은) 등의 부수는 쇠 금(金)이며, 부수의 오행은 금(金)이 되는 것이다.

천간(天干)을 사용하는 방법은 글자의 파자(破字)에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 등 십간(十干)을 포함하여 순환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周, 九, 昶, 永, 成, 紀, 庸, 宰, 重, 揆’의 순으로 십간의 상(象)을 딴 항렬자를 사용한다.

지지(地支)를 사용하는 방법은 글자의 파자에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를 포함시켜 반복한다. 십이지를 따르는 방법은 예를 들어 ‘學, 秉, 演, 卿, 振, 起, 祚 ...’의 순서로 지지의 형상을 딴 글자를 항렬자로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숫자 순서로 항렬자를 짓는 방법은 예를 들면 ‘丙, 重, 泰, 寧, 五, 赫, 純, 容, 九, 升’ 등의 순으로 항렬자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숫자가 一(일)인 丙(병), 二(이)인 重(중), 三(삼)인 泰(태), 四(사)인 寧(녕) 등의 순서대로 항렬자를 사용한 것이다.

한편 항렬자의 위치는 성을 제외한 이름의 첫째 자 또는 둘째 자에 모두 쓸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항렬자를 쓰는 위치는 대를 거치면서 이름의 첫째 자와 둘째 자의 순서대로 번갈아 사용한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대에 항렬자가 이름의 첫째 자라면 아버지 대에는 둘째 자에 쓰고, 자신의 대에는 다시 첫째 자에 쓰는 것이다.

같은 본관의 성씨라고 해도 같은 세대에 하나의 항렬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계파에 따라 다른 항렬자를 쓰기도 한다. 항렬은 나이에 우선하기도 한다. 나이에 관계 없이 항렬이 높은 사람을 윗사람으로 대접하고 항렬이 낮은 사람에게는 말을 놓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선인들이 정해 놓은 항렬자는 원칙적으로 중도에 바꿀 수 없다. 다만 조상의 이름과 글자가 같거나 소리가 같은 경우에 본인에 한해서는 항렬자의 변경이 가능하다.

※ 파자(破字) : 한자의 자획을 분합(分合)하는 것

문 19. 위의 글을 근거로 추론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① 숫자 순서로 항렬자를 사용하는 방법의 예를 따를 때, 자신의 돌림자가 寧(녕)이라면 할아버지는 重(중)을 항렬자로 썼을 것이다.
- ② 항렬자를 사용하더라도 같은 본관의 성씨에 같은 세대라고 해서 항렬자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 ③ 지지를 사용하는 예를 따를 때, 내 이름의 항렬자가 卿(경)이라면 큰아버지의 항렬자는 演(연)일 것이다.
- ④ 부수오행의 방법에 따를 때, 아버지가 화(火)의 부수를 가진 자를 항렬자로 쓰면 할아버지는 목(木)의 부수를 가진 자를 항렬자로 썼을 것이다.
- ⑤ 천간을 사용하는 예를 따를 때, 항렬자로 重(중)을 쓰는 사람의 할아버지는 紀(기)를 항렬자로 썼을 것이다.

문 20. 부수오행에 따른 항렬자를 정하고자 한다. 김○○이 화(火)를 부수로 하는 항렬자를 이름의 둘째 자에 쓰고 있다면, 자신을 1대로 했을 때 9대손 김△△의 항렬자의 부수와 항렬자의 위치는? (단, 항렬자와 그 위치를 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외적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화(火), 이름 첫째 자
- ② 화(火), 이름 둘째 자
- ③ 수(水), 이름 첫째 자
- ④ 수(水), 이름 둘째 자
- ⑤ 목(木), 이름 첫째 자

2013 외교 (인) 39번 ~ 40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39 ~ 문 40]

하회탈에서 창조된 12가지 인물은 그 자체로서 제각기 고유한 개성을 가지면서 한국적 세계관을 잘 나타내고 있다. 당시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유형을 고루 창조하고 있는데, 요즘 사회에 이를 적용하더라도 상당히 적절한 개성적인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는 셈이다. 전통사회는 반상(班常)의 신분체제였지만, 당시에 인간이 지니는 존중되었다. 따라서 하회탈을 들여다보면 탈마다 차지하는 사회적 위상이 뚜렷하게 포착된다.

신분이 높은 양반과 선비가 있는가 하면, 신분이 낮은 초랭이와 이매가 있고, 어리석은 인물로 표현되는 양반과 이매가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슬기로운 인물로 표현된 선비와 초랭이가 있다. 백정(白丁)은 조선조에 소를 잡는 천한 계급에 속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하회탈이 만들어진 고려시대의 본디 의미를 살려서 양인으로 간주할 때,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 양인 백정을 중심으로 여러 인물들이 상하우지(上下愚智)의 관계를 절묘하게 이루고 있다.

사회는 남성과 함께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미와 부네, 각시는 여성이며 노소(老少)에 따라 고루 출연한다. 여성탈은 여성의 일생을 출산력과 관계하여 세 유형으로 나누어 고루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남성들도 양반·선비, 백정, 초랭이가 각각 노년, 중년, 청년으로 대칭되어 고루 분포되어 있다.

하회탈춤에는 상하우지, 남녀, 노소뿐 아니라 관민(官民)과 성속(聖俗)의 관계도 나타났는데 환재를 바치라고 다그치는 별채는 세리(稅吏)에 해당하는 인물로서 관료적 인물의 상징이다. 따라서 하회탈춤에는 민에 해당하는 여러 인물뿐 아니라 관에 해당되는 인물도 함께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별채가 관민의 관계를 형성하였다면 중은 성속의 관계를 형성하는 긴요한 인물이다. 앞의 인물들은 모두 세속적인 삶에 입각해 살아가는 예사 사람들이다. 그러나 중은 종교적인 삶을 보여주는 인물로서 속인들에 대하여 신성한 인물 구실을 하였다. 중을 등장시켜 당시 사회구조 중 성속의 대립을 잘 보여준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회탈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성격은 상하, 우지, 남녀, 노소, 관민, 성속의 관계를 두루 포괄하고 있어서, 당시 민중들의 사회적 인식과 대립적 세계관의 기반이 얼마나 체계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녀노소’의 관계는 모든 인간사회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자연법 질서를 나타낸다면, ‘상하우지’의 관계는 인간사회의 인위적인 제도와 법 질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하회탈 놀이의 극적 갈등에서는 남녀노소의 문제보다 상대적으로 상하우지의 문제가 더 첨예하게 드러난다.

문 39. 위의 글을 근거로 추론할 때 옳은 것은?

- ① 하회탈 중 여성탈은 여성의 우지에 따라 분류되었다.
- ② 하회탈춤에서 성속의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인물은 별채이다.
- ③ 전통사회에서는 신분제로 인해 인간적 지혜가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 ④ 남성의 경우 하회탈은 노소에 따라서가 아니라 신분의 상하에 따라서만 분류되었다.
- ⑤ 하회탈놀이에서는 할미와 각시의 대립보다는 양반과 초랭이의 대립이 더 강하게 부각된다.

문 40. 위의 글을 근거로 추론할 때, 하회탈놀이에서 나타나는 인물관계를 옳게 표현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2014 5급 (A) 19번 ~ 20번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 19 ~ 문 20]

조선에서는 원나라 곽수경의 수시력(授時曆)을 그대로 계승한 명의 대통력(大統曆)을 써서 하루를 100각(刻) 또는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의 12진(辰)으로 나누었다. 각각의 12진은 전반부가 시작되는 시각을 초(初)로 하고 후반부가 시작되는 시각을 정(正)으로 하였다. 그 후 1653년에는 서양역법을 토대로 한 중국의 시헌력(時憲曆)을 채택하여 하루를 96각 또는 12진으로 하였다. 그런데 밤은 12진법과 중국 한대(漢代) 이래 쓰인 5경제(五更制)를 병행하여 썼다. 밤시간은 일몰 후 1등성인 별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까지의 혼각(昏刻)과 별이 보이지 않기 시작할 때부터 일출까지의 신각(晨刻)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초경, 이경, 삼경, 사경, 오경까지 다섯으로 나누되 각 경은 5점(點)으로 나누었다. 결국 밤시간은 수시력으로 춘분·추분에는 50각, 동지에는 62각, 하지에는 38각이 되어 계절에 따라 달라지고 위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하루는 자정(子正)부터 다음날 자정까지를 일렀다. 즉 밤의 한가운데 시점인 삼경 3점과 삼경 4점의 중간에 하루가 지나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서울에서는 도성 내 각처에 시간을 알리기 위해 신흠대종(晨昏大鐘)을 쳐서 저녁과 새벽을 알리게 하는 인정(人定)과 파루(罷漏) 제도를 두었다. 초경 3점에 종을 28번 쳐서 성문을 닫았던 인정부터 오경 3점에 종을 33번 쳐서 성문을 열었던 파루까지는 통행이 금지되었다. 한편 인정부터 파루까지의 밤시간에는 매 점마다 북과 징으로 시간을 알렸다. 초경 3점에 북을 1번 치고 징을 3번 치되 각기 5회 되풀이하고, 다음에 4점으로 바뀌면 북을 1번 치고 징을 4번 치되 각기 5회 되풀이하고, 또 5점으로 바뀌면 북을 1번 치고 징을 5번 치되 각기 5회 되풀이하는데, 이런 식으로 오경 3점에 이른다. 즉 경의 수를 북으로, 점의 수를 징으로 하여 각기 5회 반복해서 치되, 마지막 오경 3점에는 북 5번과 징 3번을 각기 5회 되풀이하지 않고, 1회만 쳐서 시간을 알리는 것이다.

문 19. 위의 글을 근거로 추론할 때 옳은 것은?

- ① 자정은 5경제의 삼경 중에 있었다.
- ② 수시력으로는 춘분·추분에 낮과 밤의 시간이 달랐다.
- ③ 혼각과 신각에 종을 쳐서 성문의 출입을 제한했다.
- ④ 수시력의 1각은 오늘날의 15분에 해당한다.
- ⑤ 5경제의 각 경과 12진의 각 진은 오늘날의 2시간을 나타낸다.

문 20. 인정부터 파루까지 북과 징을 치는 각각의 총 횟수는?

- ① 북 295번, 징 303번
- ② 북 295번, 징 315번
- ③ 북 315번, 징 303번
- ④ 북 315번, 징 375번
- ⑤ 북 330번, 징 375번

2014 5급 (A) 39번 ~ 40번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39 ~ 문 40]

제00조(설립인가기준 등) ①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교사(校舍) 및 제4항에 따른 교지(校地)를 확보할 것
- 제5항에 따른 교원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
-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② 교사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부속시설을 말하며, 교사의 확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교육기본시설 :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추어 것
-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추어 것
- 부속시설 : 학교현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것. 다만 의학·한의학 및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시설면적은 [별표 1]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 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④ 교지(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 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 2]에 의한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3]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되, 설립 당시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대학 : 100억 원
- 전문대학 : 70억 원
- 대학원 대학 : 40억 원

⑦ 제6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6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1]

교사기준면적(제00조 제3항 관련)

(단위 : m²)

계열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	12	17	20	19	20

[별표 2]

교지기준면적(제00조 제4항 관련)

학생정원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면적	교사기준면적 이상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별표 3]

교원산출기준(제00조 제5항 관련)

(단위 : 명)

계열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교원 1인당 학생 수	25	20	20	20	8

<상 황>

甲은 편제완성연도 기준 계열별 학생정원이 인문·사회 400명, 자연과학 200명, 공학 300명, 의학 100명인 A대학을 설립하고자 한다.

문 39. 위의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甲은 A대학 설립 시 부속병원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ㄴ. A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공학계열 학생을 위해 甲이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는 최소 8명이다.
 ㄷ. 甲이 동일 법인 내에 A대학뿐만 아니라 B전문대학을 함께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확보해야 할 수익용 기본 재산의 합산액은 최소 135억 원이다.

- ㄱ
-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문 40. A대학 설립을 위해 甲이 확보해야 할 최소 교지면적은?

- 16,200 m²
- 18,200 m²
- 32,400 m²
- 36,200 m²
- 38,200 m²

2015 5급 (인) 19번 ~ 20번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 ~ 문 20]

예로부터 웬만큼 글자를 아는 사람은 본명 외에 자(字)를 가지고 있었다. 자는 본명 대신 부르던 것으로 이름을 소중히 여겨 함부로 부르지 않았던 관습 때문에 생겼다. 우리나라에서 자를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로 추정되는데, 설총이 충지라는 자를 썼던 것에서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때부터 자가 보편적으로 쓰인 것은 아니며 이후에 유학자를 중심으로 많이 쓰였다.

자는 성인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예식인 관례(冠禮) 때 부모나 집안 어른이 지어주었다. 이황은 경호, 이이는 숙헌, 이순신은 여해, 정도전은 종지, 정도전의 스승인 이색은 영숙을 자로 썼다. 공자의 자는 중니(仲尼)였는데 니(尼)는 그의 부모가 이산(尼山)에 기도를 드려 낳은 아들인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예기』에 따르면 남자의 자는 흔히 본명과 의미상 관련이 있는 한 글자에 각각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나타내는 백(伯), 중(仲), 숙(叔), 계(季)의 글자를 앞에 붙여 지었다. 이때 형제가 4명을 넘게 되면 막내에게는 유(幼)를 앞에 붙여 썼다. 또한 백(伯) 대신 맹(孟)을 쓰기도 했는데 손책과 조조의 자는 백부(伯符)와 맹덕(孟德)으로 이들이 첫째 아들임을 알 수 있다.

대개 형제들의 자에는 같은 글자를 돌림자처럼 써서 형제임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리고 돌림자 앞에는 백, 중, 숙, 계, 유 등을 써서 형제의 순서를 표시했다. 사마팔달(司馬八達), 마가오상(馬家五常), 순씨팔룡(荀氏八龍) 등으로 널리 알려진 형제들도 이런 방법에 따라 자를 지었다. 사마팔달은 사마랑부터 막내인 사마민까지 8형제를 일컫는 말로, 이 가운데 자가 중달(仲達)인 사마의가 가장 유명하다. 사마의의 둘째 동생인 사마욱부터 사마민까지는 지금은 덜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는 명망이 있었다. 이들 8형제는 순서대로 백달(伯達), 중달(仲達), 숙달(叔達), 계달(季達), 현달(顯達), 혜달(惠達), 아달(雅達), 유달(幼達)을 자로 썼다. 순숙의 여덟 아들인 순씨팔룡(荀氏八龍)도 사마팔달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 자를 사용했다. 첫째 순검부터 차례로 순곤, 순정, 순도, 순황, 순상, 순숙과 막내인 순전까지 모두 자(慈)를 돌림자로 쓰고 앞에는 순서를 나타내는 백, 중 등을 사용했다. 마가오상(馬家五常)으로 알려진 마숙의 5형제도 같은 방법으로 만든 자를 사용했다. 상(常)을 돌림자처럼 썼는데 백미(白眉)로 잘 알려진 마량은 마숙의 형으로 자가 계상(季常)이었다.

자는 어떤 사이에서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일정한 사용방식이 있었다. 사람을 부를 때 같은 나이 또래나 그 아랫사람에게는 자를 썼다. 그러나 부모나 스승이 아들이나 제자를 부를 때는 본명을 사용했으며, 윗사람에게 자신을 칭할 때도 본명을 말했다.

문 19. 위의 글을 근거로 추론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자를 사용하는 방식대로라면 이색은 정도전을 종지라고 불렀을 것이다.
 - ㄴ. 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인으로 인정 받았음을 의미할 것이다.
 - ㄷ. 공자의 자가 예기에서 언급한 방식대로 지은 것이라면 공자는 둘째 아들이었을 것이다.
 - ㄹ. 자를 사용하는 방식대로라면 조카가 숙부에게 자신을 칭할 때에는 자를 쓰지 않았을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문 20. 위의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마욱, 순곤, 마숙의 자로 옳게 짝지은 것은?

<u>사마욱</u>	<u>순곤</u>	<u>마숙</u>
① 유달(幼達)	중자(仲慈)	유상(幼常)
② 계달(季達)	중자(仲慈)	중상(仲常)
③ 계달(季達)	숙자(叔慈)	숙상(叔常)
④ 계달(季達)	중자(仲慈)	유상(幼常)
⑤ 유달(幼達)	맹자(孟慈)	중상(仲常)

2015 5급 (인) 39번 ~ 40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39 ~ 문 40]

상고시대(上古時代)에는 무·오이·박·가지·부추·마늘 등으로 ‘소금절이’, ‘술지게미와 소금절이’ 등을 만들었는데, 오늘날의 김치와는 달리 오히려 장아찌류에 가까웠다. 고려시대에는 나박김치와 동치미를 담가 먹었다고 전해진다. 양념으로는 천초(川椒)·생강·굴피 등이 쓰였고, 산갯처럼 매운 맛의 채소로 국물김치를 담가 먹었다. 향신료로 천초를 넣다가 고추를 쓰게 된 것은 18세기 이후이다. 고추를 쓰기 전에는 맨드라미꽃을 넣어 붉은 색을 냈다. 젓국에 고추를 넣어 양념하는 방법은 조선시대 중엽 궁중에서 비롯되었는데, 궁중의 김치도 민간의 김치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다만 궁중에서는 젓갈로 조기젓·육젓·새우젓을 썼지만, 민간에서는 멸치젓이나 갈치젓을 주로 썼다.

18세기 중엽의 생활상을 자세히 기록한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는 여러 가지 김치를 담그는 방법이 서술되어 있다. ‘나복함저’(蘿蔔鹹菹)는 무에다 고추를 저며서 넣고 오이·호박·동아·미나리·천초·부추 등을 뿌리면서 향아리에 포개어 담아 소금물과 마늘즙을 넣고 봉한 것이다. ‘황과담저’(黃瓜淡菹)는 오이를 주재료로 하여 나복함저와 같은 방법으로 담갔다.

김치는 크게 보통김치와 김장김치로 나눌 수 있다. 보통 김치는 오래 저장하지 않고 비교적 손쉽게 먹는 것이며, 김장김치는 엄동 중에 오랫동안 저장해 두고 먹는 김치를 말한다. 또한 계절에 따라 여러 가지 김치를 담가 먹었는데, 봄에는 나박김치·봄배추김치·짬지 등을 주로 담가 먹었고, 여름에는 오이소박이·열무김치가 주류를 이루었다. 가을에는 햇배추김치와 배추통김치, 겨울에는 김장김치와 동치미가 주류를 이루었다.

김치는 원료 성분의 삼투작용과 미생물의 발효작용에 영향을 받아 익는데, 채소를 소금으로 절일 때의 소금물 농도와 저장온도가 숙성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김치의 맛과 향은 주로 김치 국물에 들어 있는 향미성분의 삼투에 영향을 받는데, 빠른 삼투작용을 위하여 채소를 소금에 절인다. 소금물 농도가 높아 삼투압이 높을수록, 또 온도가 높을수록 김치가 빨리 익는다. 따라서 김치를 담그는 계절에 따라 적절한 소금물 농도가 다르다. 겨울 김장용에는 2~3%, 봄에는 4~5%, 여름에는 7~10%가 적절한데, 너무 오래 절이거나 소금물 농도를 너무 높게 하면 배추의 단맛이 사라진다. 소금물 농도는 발효작용을 일으키는 미생물의 번식과도 관계가 깊다. 소금물 농도가 7%를 넘을 때부터 소금의 방부작용 때문에 미생물의 번식이 억제되어 김치의 숙성 속도는 느려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김치를 담그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잡균이 많이 붙게 되고, 점차 젖산균이 많아져 젖산발효가 일어난다. 따라서 생성된 젖산과 소금의 공동작용으로 채소에 대한 방부효과는 더욱 커지고 저장성이 생긴다.

- 문 39. 위의 글을 근거로 추론할 때 옳은 것은?
- ① 증보산림경제에 의하면 상고시대부터 배추를 이용하여 김치를 담갔을 것이다.
 - ② 궁중의 김치는 민간의 김치와 크게 다르지 않아 주로 갈치젓과 멸치젓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 ③ 황과담저는 주재료인 오이에 저민 생강과 소금을 뿌려 향아리에 통으로 넣어 담갔을 것이다.
 - ④ 고추가 사용되기 전에는 붉은 색을 띤 김치를 먹지 않았을 것이다.
 - ⑤ 18세기에는 천초가 쓰인 김치가 있었을 것이다.

- 문 40. 위의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김치의 숙성·저장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겨울에 담그는 김치의 적절한 소금물 농도는 여름에 담그는 김치의 적절한 소금물 농도보다 높다.
 - ②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배추의 단맛은 더 강해진다.
 - ③ 김치를 담그면 처음부터 젖산발효에 의한 항균작용으로 잡균이 붙지 않는다.
 - ④ 겨울 김장김치의 적절한 소금물 농도는 7% 이상이다.
 - 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소금물 농도 6%의 김치가 소금물 농도 2%의 김치보다 빨리 숙성된다.

2016 5급 (4) 19번 ~ 20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 ~ 문 20]

경연(經筵)이란 신하들이 임금에게 유학의 경서를 강론하는 것으로서, 경약(經幄) 또는 경유(經帷)라고도 하였다. 임금에게 경사(經史)를 가르쳐 유교의 이상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으나, 실제로는 왕권의 행사를 규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경연에서는 사서와 오경 및 역사책인 자치통감 등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고, 강의가 끝난 후에는 정치문제도 협의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경연은 고려 예종이 처음 도입하였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송유(崇儒)정책을 실시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조선시대 태조는 경연청을 설치했고, 정종과 태종도 각각 경연을 실시하였다. 세종은 즉위한 뒤 약 20년 동안 매일 경연에 참석했으며, 집현전을 정비해 경연관(經筵官)을 강화하였다. 특히 성종은 재위 25년 동안 매일 세 번씩 경연에 참석하여 여러 정치 문제를 협의하였다. 경연이 바야흐로 정치의 심장부가 된 것이다.

조선시대 경연관은 당상관(堂上官)과 낭청(郎廳)으로 구성되었다. 당상관은 영사(領事) 3인, 지사(知事) 3인, 동지사(同知事) 3인, 참찬관(參贊官) 7인이다. 영사는 삼정승이 겸하고 지사와 동지사는 정2품과 종2품에서 각각 책임자를 임명하였다. 참찬관은 여섯 승지와 홍문관 부제학이 겸직하였다. 그 밖에 성종 말년에 특진관을 두었는데, 1·2품의 대신 중에서 임명했으며, 정원은 없었다. 낭청으로는 시강관·시독관·검토회관이 있었는데 모두 홍문관원이 겸임하였다. 시강관은 직제학·전한·응교·부응교가 겸했고, 시독관은 교리·부교리가 겸했으며, 검토회관은 수찬·부수찬이 겸임하였다.

강의 방식도 세종과 성종 때에 대체로 확립되었다. 세종 때는 승지 1인, 낭청 2인, 사관(史官) 1인이 참석하였다. 성종은 어린 나이로 왕이 되었을 때부터 하루에 세 번 조강(朝講)·주강(晝講)·석강(夕講)에 참석했는데, 성년이 된 후에도 계속되었다. 조강에는 영사·지사(또는 동지사)·참찬관 각 1인, 낭청 2인, 대간(臺諫) 각 1인, 사관 1인, 특진관 2인 등 모두 10인 이상의 신하들이 참석하였다. 주강과 석강의 참석자는 세종 때와 같았다. 좌석의 배치는 왕이 북쪽에 남향해 앉고, 1품은 동편에 서향, 2품은 서편에 동향, 3품 이하는 남쪽에 북향해 부복하였다.

- ※ 승지: 조선시대 승정원의 도승지·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의 총칭
- ※ 경연관: 고려·조선시대 국왕의 학문지도와 치도강론을 위하여 설치한 관직
- ※ 대간: 사헌부의 대관과 사간원의 간관을 합칭한 말
- ※ 부복: 고개를 숙이고 엎드림

문 19. 위의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① 조선시대 성종 때 조강에 참석했던 인원은 최소 11인이었을 것이다.
- ② 삼정승 중 으뜸인 영의정은 경연관 중 동지사에 해당한다.
- ③ 지사와 동지사는 동편에 서향해 부복하였을 것이다.
- ④ 경연 시 다루어진 주제에 역사는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 ⑤ 경연은 조선시대에 처음 시작되어 유교의 이상정치 실현에 기여하였다.

문 20. 위의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조선시대 성종 대의 강의 시간과 경연 참석자의 관직으로 구성될 수 없는 것은?

	강의 시간	당상관	낭청
①	조강	우의정	부응교
②	조강	도승지	직제학
③	주강	도승지	부제학
④	주강	우승지	직제학
⑤	석강	좌승지	전한

2016 5급 (4) 39번 ~ 40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39 ~ 문 40]

다윈은 1881년에 『지렁이의 활동과 분변토의 형성』이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지렁이가 분변토(똥)로 내보내는 거름의 양을 설명하면서, 4천 평방미터의 밭에 지렁이 5만 마리가 살 수 있고 이들이 1년에 18톤의 거름을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다윈이 무엇보다 주목한 것은 토양의 성질을 바꾸는 지렁이의 능력이었다. 다윈은 “지렁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흙의 거친 입자를 체질하듯 걸러내어 더 부드럽게 하고, 식물의 작은 입자들을 흙과 섞으며, 창자 분비물로 흙을 흠뻑 적셔버리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지렁이는 토양을 소화하여 분변토를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유기물질을 완전히 분해한다. 즉, 지렁이는 토양의 화학적 상태를 변화시켜 토양의 비옥도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당대의 사람들은 다윈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생각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렁이는 주로 식물의 뿌리를 훼손하고, 잔디를 똥으로 더럽히는 하찮은 동물로 여겨졌다. 당대 사람들이 생각한 지렁이의 이로운 점은 흙에 구멍을 뚫어 배수작용을 도와주는 정도였다. 지렁이가 생명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흙을 바꾸는 일을 한다고 생각한 다윈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렁이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작고 연약하다고 인식했다.

다윈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원인이 일으키는 결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며, 그것은 흔히 과학의 발전을 막는다”라고 하였다. 비록 다윈의 주장은 당시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지만 오늘날 지렁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다윈의 연구는 일종의 시금석(試金石)이자 숙고의 대상이 되었다. 지난 100여년 동안 지렁이를 연구해 온 현대 과학자들은 지렁이가 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농업생산량 증대, 미용산업 발전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문 39. 위의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다윈은 1881년 연구 발표와 동시에 지렁이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기존 인식을 바꿀 수 있었다.
 - ㄴ. 다윈에 따르면, 지렁이는 흙을 체질하듯 걸러내고 식물의 작은 입자를 흙과 섞을 수 있다.
 - ㄷ. 현대 과학자들은 지렁이가 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밝혀냈다.
 - ㄹ. 현대에 와서야 지렁이가 흙에 구멍을 내어 배수작용을 도와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문 40. 4천 평방미터의 밭에 지렁이 5만 마리가 살고 있다고 가정할 때, 다윈의 관찰대로라면 지렁이 한 마리가 1년에 만들어 내는 거름의 양은? (단, 지렁이 한 마리가 만들어 내는 거름의 양은 동일하다)

- ① 27 g
- ② 36 g
- ③ 180 g
- ④ 270 g
- ⑤ 360 g

2017 5급 (가) 19번~20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문 20]

19세기까지 각 지역에서 시간의 기준점은 태양이 머리 위에 있는 순간, 즉 그림자가 없거나 제일 작은 순간이었다. 문제는 태양이 계속 움직인다(사실은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지만)는 사실이었다. 한국의 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구의 자전 속도는 분당 약 20km이다. 조선시대 강릉 관아에서 정오를 알리는 종을 친 후 11분이 지나서야 한양(서울)에서도 정오를 알리는 종을 쳤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줄곧 한 곳에 살았고 설사 여행을 하더라도 걸어가는 게 다반사였으며, 탈 것을 이용한다 해도 나룻배나 우마차를 타고 다니던 상황에서 이처럼 지역마다 시간이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철도의 출현은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켰다. 철도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영국에서는 표준시를 최초로 제정해 각기 다른 시간을 하나로 묶는 일이 진행되었다. 현재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외국인들이 출입하는 호텔의 안내 데스크 뒤쪽 벽면에서 뉴욕이나 런던, 도쿄, 베이징 등 도시 이름이 붙어 있는 여러 개의 시계를 볼 수 있다. 이는 표준시에 근거한 각 도시의 시각을 여행자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그리니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과거 표준시가 정착되기 이전에도 오늘날의 호텔처럼 미국의 기차역에는 여러 개의 시계가 걸려 있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시계 밑에 붙어 있는 명찰에는 서울, 홍콩, 베를린, 파리 같은 도시명 대신 ‘뉴욕 센트럴 레일웨이’와 ‘볼티모어 앤 오하이오’ 같은 미국의 철도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즉 시간의 기준은 철도회사가 정하였고, 이에 따라 철도회사의 수만큼 다양한 시간이 존재했다. 1870년대의 ‘펜실베이니아’ 철도회사는 필라델피아 시간을 기준으로 열차를 운행하면서 자신이 운행하는 노선의 역들에 이 기준시간에 따른 시간표를 배포했다. ‘뉴욕 센트럴 레일웨이’는 그랜드 센트럴 역의 ‘밴더빌트 시간’을 기준으로 열차를 운행했다. 이 두 회사는 가까운 지역에서 영업을 했는데도 통일된 열차 시간을 공유하지 못했다. 만약 여행자가 피츠버그 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야 할 경우 갈아탈 시각과 함께 어느 회사에서 운행하는 열차인지도 알아야 했다. 어느 한 회사의 시간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다른 회사의 시간표는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였다.

문 19. 위의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19세기 조선에서 같은 위도 상의 두 지역이 동서로 60 km 떨어져 있었다면 그 두 지역의 정오는 약 3분 차이가 났다.
 - ㄴ. 1870년대 미국 철도회사는 각 철도회사의 기준시간에 따라 열차를 운행하였다.
 - ㄷ. 1870년대 피츠버그 역에는 여행자를 위해 전세계의 도시별 시각을 표시한 여러 개의 시계가 걸려 있었다.
 - ㄹ. 철도가 처음 만들어진 곳은 영국이지만 표준시가 처음 제정된 곳은 미국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 20. 위의 글과 다음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도시 시간 기준으로 甲이 C도시에 도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각은?

- <상 황>—
- A도시는 B도시보다 40분 먼저 정오가 되고, C도시보다는 10분 늦게 정오가 된다.
 - ‘○○레일웨이’는 A도시의 시간을 기준으로 열차를 운행한다. A도시 발 B도시 행 ‘○○레일웨이’ 열차는 매시 정각과 30분에 출발하며 운행시간은 3시간이다.
 - ‘△△캐리어’는 C도시의 시간을 기준으로 열차를 운행한다. B도시 발 C도시 행 ‘△△캐리어’ 열차는 매시 15분과 45분에 출발하며 운행시간은 4시간 30분이다.
 - 甲은 A도시의 역에 A도시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7시 40분에 도착하여 ‘○○레일웨이’ 열차로 B도시에 가서 ‘△△캐리어’ 열차를 타고 C도시까지 간다.

※ 열차를 갈아타는 데 걸리는 이동시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15시 10분
- ② 15시 15분
- ③ 15시 25분
- ④ 15시 35분
- ⑤ 15시 55분

2017 5급 (가) 39번~40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39~문 40]

측우기는 1440년을 전후하여 발명되어 1442년(세종 24년)부터 1907년 일제의 조선통감부에 의해 근대적 기상관측이 시작될 때까지 우량(雨量) 관측기구로 사용되었다. 관측된 우량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기록되었다. 우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보고하는 제도는 측우기 도입 이전에도 있었는데, 비가 온 뒤 땅에 비가 스민 깊이를 측정하여 이를 조정에 보고하는 방식이었다. 『세종실록(世宗實錄)』의 기록에 의하면, 왕세자 이항(李瑬, 훗날의 문종 임금)은 우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그릇에 빗물을 받아 그 양을 측정하는 방식을 연구하였다. 빗물이 땅에 스민 깊이는 토양의 습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존 방법으로는 빗물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측우기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도 이때부터이다. 일반적으로 측우기는 주철(鑄鐵)로 된 원통형 그릇으로, 표준규격을 깊이 1자 5치, 지름 7치(14.7 cm)였다. 이 측우기를 돌로 만든 측우대(測雨臺) 위에 올려놓고 비가 온 뒤 그 안에 고인 빗물의 깊이를 주척(周尺: 길이를 재는 자의 한 가지)으로 읽는데, 푼(2.1 mm) 단위까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

세종대(代)에는 이상과 같은 표준에 맞게 제작된 측우기와 주척을 중앙의 천문관서인 서운관(書雲觀)과 전국 팔도의 감영(監營)에 나누어 주고, 그 이하 행정 단위의 관아에서는 자기(磁器) 또는 와기(瓦器)로 측우기를 만들어 설치하도록 하였다. 서운관의 관원과 팔도 감사 및 각 고을의 수령들에게 비가 오면 주척으로 푼 단위까지 측정한 빗물의 수심을 기록하여 조정에 보고하고 훗날에 참고하기 위해 그 기록을 남겨두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혼란을 겪으면서, 측우 관련 제도는 더 이상 지속되지 못했다. 측우 제도가 부활한 것은 1770년(영조 46년) 5월이다. 영조는 특히 세종대에 갖추어진 천문과 기상 관측 제도를 부흥시키는 데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측우 제도 복원 사업도 그 일환이었다. 영조는 『세종실록』에 기록된 측우기의 규격과 관측 및 보고 제도를 거의 그대로 따랐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전국의 모든 고을에까지 측우기를 설치했던 세종대와는 달리 영조대에는 서울의 궁궐과 서운관, 팔도 감영, 강화와 개성의 유수부(留守府)에만 설치했다는 것이다.

문 39. 위의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세종대에는 중앙의 천문관서와 지방의 감영에 표준에 맞게 제작된 측우기를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우량 관측 및 보고 체계를 갖추었다.
 - ㄴ. 측우기를 이용한 관측 및 보고 제도는 1907년 일제의 조선통감부에 의해 근대적 기상관측이 도입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 ㄷ. 세종대에 서울과 지방에서 우량을 관측했던 측우기는 모두 주철로 제작되었다.
 - ㄹ. 세종대에는 영조대보다 전국적으로 더 많은 곳에서 측우기를 통해 우량을 측정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 40. 세종대 甲지역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간당 51 mm의 비가 내렸다고 가정해보자. 측우기를 사용하여 甲지역의 감사가 보고한 우량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약 7치
- ② 약 7치 1푼
- ③ 약 7치 3푼
- ④ 약 7치 5푼
- ⑤ 약 7치 7푼

2018 5급 (나) 19번~20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 ~ 문 20.]

채종하여 파종할 때까지 종자를 보관하는 것을 ‘종자의 저장’이라고 하는데, 채종하여 1년 이내 저장하는 것을 단기저장, 2~5년은 중기저장, 그 이상은 장기저장이라 한다.

종자의 함수율(moisture content)은 종자의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 함수율은 아래와 같이 백분율로 표시한다.

$$\text{함수율(\%)} = \frac{\text{원종자 무게} - \text{건조 종자 무게}}{\text{원종자 무게}} \times 100$$

일반적으로 종자저장에 가장 적합한 함수율은 5~10%이다. 다만 참나무류 등과 같이 수분이 많은 종자들은 함수율을 약 30% 이상으로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유전자 보존을 위해서는 보통 장기저장을 하는데, 이에 가장 적합한 함수율은 4~6%이다. 일반적으로 온도와 수분은 종자의 저장기간과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종자는 저장 용이성에 따라 ‘보통저장성’ 종자와 ‘난저장성’ 종자로 구분한다. 보통저장성 종자는 종자 수분 5~10%, 온도 0℃ 부근에서 비교적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데, 전나무류, 자작나무류, 벗나무류, 소나무류 등 온대 지역의 수종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대사작용이 활발하여 산소가 많이 필요한 난저장성 종자는 0℃ 혹은 약간 더 낮은 온도에서 저장하여야 건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에 속하는 수종은 참나무류, 칠엽수류 등의 몇몇 온대수종과 모든 열대수종이다.

한편 종자의 저장 방법에는 ‘건조저장법’과 ‘보습저장법’이 있다. 건조저장법은 ‘상온저장법’과 ‘저온저장법’으로 구분한다. 상온저장법은 일정한 용기 안에 종자를 넣어 창고 또는 실내에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통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저장하며, 1년 이상 보관 시에는 건조제를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반면에 저온저장법의 경우, 보통저장성 종자는 함수율이 5~10% 정도 되도록 건조하여 주변에서 수분을 흡수할 수 없도록 밀봉 용기에 저장하여야 한다. 난저장성 종자는 -3℃ 이하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보습저장법은 ‘노천매장법’, ‘보호저장법’, ‘냉습적법’ 등이 있다. 노천매장법은 양지바르고 배수가 잘되는 곳에 50~100cm 깊이의 구덩이를 파고 종자를 넣은 뒤 땅 표면은 흙을 덮어 겨울 동안 눈이나 빗물이 그대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호저장법은 건사저장법이라고도 하는데 참나무류, 칠엽수류 등 수분이 많은 종자가 부패되지 않도록 저장하는 방법이다. 냉습적법은 용기 안에 보습제인 이끼, 모래와 종자를 섞어서 넣고 3~5℃의 냉장고에 저장하는 방법이다.

문 19.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① 저온저장법으로 저장할 때 열대수종은 -3℃ 이하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 ② 일반적으로 유전자 보존을 위해서는 종자를 함수율 5% 정도로 2~5년 저장한다.
- ③ 일부 난저장성 종자는 보호저장법으로 저장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참나무 종자저장에 적합한 함수율은 5~10%이다.
- ⑤ 일반적으로 종자보관장소의 온도를 높이면 종자의 저장기간이 길어진다.

문 20.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종자저장에 가장 적합한 함수율을 가진 원종자의 무게가 10g이면 건조 종자의 무게는?

- ① 6g~6.5g
- ② 7g~7.5g
- ③ 8g~8.5g
- ④ 9g~9.5g
- ⑤ 10g~10.5g

2018 5급 (나) 39번~40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39. ~ 문 40.]

○○국의 항공기 식별코드는 ‘(현재상태부호)(특수임무부호)(기본임무부호)(항공기종류부호) – (설계번호)(개량형부호)’와 같이 최대 6개 부분(앞부분 4개, 뒷부분 2개)으로 구성된다.

항공기종류부호는 특수 항공기에만 붙이는 부호로, G는 글라이더, H는 헬리콥터, Q는 무인항공기, S는 우주선, V는 수직단거리이착륙기에 붙인다. 항공기종류부호가 생략된 항공기는 일반 비행기이다.

모든 항공기 식별코드는 기본임무부호나 특수임무부호 중 적어도 하나를 꼭 포함하고 있다. 기본임무부호는 항공기가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임무를 나타내는 부호이다. A는 지상공격기, B는 폭격기, C는 수송기, E는 전자전기, F는 전투기, K는 공중급유기, L은 레이저탑재항공기, O는 관측기, P는 해상초계기, R은 정찰기, T는 훈련기, U는 다목적기에 붙인다.

특수임무부호는 항공기가 개량을 거쳐 기본임무와 다른 임무를 수행할 때 붙이는 부호이다. 부호에 사용되는 알파벳과 그 의미는 기본임무부호와 동일하다. 항공기가 기본임무와 특수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두 부호를 모두 표시하며, 개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기본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특수임무부호만을 표시한다.

현재상태부호는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항공기에만 붙이는 부호이다. G는 영구보존처리된 항공기, J와 N은 테스트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항공기에 붙이는 부호이다. J는 테스트 종료 후 정상적으로 사용될 항공기에 붙이는 부호이며, N은 개량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사용될 계획이 없는 항공기에 붙이는 부호이다.

설계번호는 항공기가 특정그룹 내에서 몇 번째로 설계되었는지를 나타낸다. 1~100번은 일반 비행기, 101~200번은 글라이더 및 헬리콥터, 201~250번은 무인항공기, 251~300번은 우주선 및 수직단거리이착륙기에 붙인다. 예를 들어 107번은 글라이더와 헬리콥터 중 7번째로 설계된 항공기라는 뜻이다.

개량형부호는 한 모델의 항공기가 몇 차례 개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부호이다. 개량하지 않은 최초의 모델은 항상 A를 부여받으며, 이후에는 개량될 때마다 알파벳 순서대로 부호가 붙게 된다.

문 39.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항공기 식별코드 중 앞부분 코드로 구성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KK
 - ㄴ. GBCV
 - ㄷ. CAH
 - ㄹ. R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ㄴ, ㄷ, ㄹ

문 40.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개량하지 않은 일반 비행기’의 식별코드 형식으로 옳은 것은?

- ① (기본임무부호) – (설계번호)
- ② (기본임무부호) – (개량형부호)
- ③ (기본임무부호) – (설계번호)(개량형부호)
- ④ (현재상태부호)(특수임무부호) – (설계번호)(개량형부호)
- ⑤ (현재상태부호)(특수임무부호)(항공기종류부호) – (설계번호)(개량형부호)

2019 5급 (가) 19번 ~ 20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 ~ 문 20.]

도지(賭地)란 조선 후기에 도지권을 가진 소작농이 일정한 사용료, 즉 도조(賭租)를 내고 빌려서 경작했던 논밭을 말한다. 지주는 도지를 제공하고 그 대신 도조를 받았다. 도지권을 가진 소작농은 농작물을 수확하여 도조를 치른 후 나머지를 차지하였다. 도지계약은 구두로 하는 것이 보통이고,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도조를 정하는 방법에는 수확량을 고려하지 않고 미리 일정액을 정하는 방식과 매년 농작물을 수확하기 직전에 지주가 간평인(看坪人)을 보내어 수확량을 조사하고 그 해의 도조를 결정하는 방식이 있었다. 후자의 경우에 수확량에 대한 도조의 비율은 일정하였다. 특히 논밭을 경작하기 전에 도조를 미리 지급하고 경작하는 경우의 도지를 선도지(先賭地)라고 하였다.

도지권을 가진 소작농은 그 도지를 영구히 경작할 수 있었고, 지주의 승낙이 없어도 임의로 도지권을 타인에게 매매, 양도, 임대, 저당, 상속할 수 있었다. 도지권의 매매 가격은 지주의 소유권 가격의 1/2이었으며, 도지의 전체 가격은 소작농의 도지권 가격과 지주의 소유권 가격의 합이었다. 도조는 수확량의 약 1/4에서 1/3 정도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소작지의 소작료보다 훨씬 저렴하였기 때문에, 도지권을 가진 소작농은 도지를 다른 소작농에게 빌려주고 그로부터 일반 소작료를 받아 지주에게 납부해야 할 도조를 제외한 다음 그 차액을 가지기도 하였다. 지주가 이러한 사실을 알더라도 그것은 당연한 도지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았다.

지주가 도지권을 소멸시키거나 다른 소작농에게 이작(移作)시키려고 할 때에는 도지권을 가진 소작농의 동의를 구하고 도지권의 가격만큼을 지급하여야 하였다. 다만 도지권을 가진 소작농이 도조를 납부하지 않는 상황에는 지주가 소작농의 동의를 얻은 뒤 도지권을 팔 수 있었다. 이 경우 지주는 연체된 도조를 빼고 나머지는 소작농에게 반환하여야 하였다.

도지권은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그 권리가 부정됨으로써 급격히 소멸하게 되었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부분적 소유권으로서의 소작농의 도지권은 부인되었고 대신 소작기간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소작권이 인정되었다. 이것은 원래의 도지권 성격과는 크게 다른 것이었으므로 도지권을 소유한 소작농들은 도지권 수호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일제의 무력탄압으로 모두 좌절되고 말았다.

문 19.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 ㄱ. 지주의 사전 승낙이 없어도 도지권을 매입한 소작농이 있었을 수 있다.
- ㄴ. 지주가 간평인을 보내어 도조를 결정하였다면, 해당 도지는 선도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 ㄷ. 도지권을 가진 소작농들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소작을 할 수 없게 되었다.
- ㄹ. 도지권을 가진 소작농이 도지권을 매매하려면, 그 소작농은 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ㄴ, ㄷ

문 20.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의 ㉠~㉣에 들어갈 수의 합은? (단, 쌀 1말의 가치는 5냥이며,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 <상 황> —

甲 소유의 논 A는 1년에 한 번 수확하고 수확량은 매년 쌀 20말이다. 소작농 乙은 A 전부를 대상으로 매년 수확량의 1/4을 甲에게 도조로 납부하는 도지계약을 甲과 체결한 상태이다. A의 전체 가격은 甲, 乙의 도지계약 당시부터 올해 말까지 변동 없이 900냥이다.

제작년 乙은 수확 후 甲에게 정해진 도조 액수인 (㉠) 냥을 납부하였다.

작년 초부터 큰 병을 얻은 乙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乙은 매년 (㉡) 냥을 받아 도조 납부 후 25냥을 남길 생각으로 丙에게 A를 빌려주었다.

그러나 乙은 약값에 허덕여 작년과 올해분의 도조를 甲에게 납부하지 못했다. 결국 甲은 乙의 동의를 얻어 丁에게 A에 대한 도지권을 올해 말 (㉢) 냥에 매매한 후, 乙에게 (㉣) 냥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 ① 575
- ② 600
- ③ 625
- ④ 750
- ⑤ 925

2019 5급 (가) 39번~40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39. ~ 문 40.]

제00조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이하 ‘수형자’라 한다)의 도주 위험성에 따라 계호(戒護)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경비처우급은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重)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제00조 교도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로서 교정성적, 나이, 인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수형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봉사원으로 선정하여 교도관의 사무처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00조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조 ① 수형자의 접견의 허용횟수는 개방처우급은 1일 1회, 완화경비처우급은 월 6회, 일반경비처우급은 월 5회, 중경비처우급은 월 4회로 한다.

② 접견은 1일 1회만 허용한다.

③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접견 허용횟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소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 또는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00조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교도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 사회봉사, 종교행사 참석, 연극·영화·그 밖의 문화공연 관람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00조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형기(刑期)가 3년 이상이고 범죄 횟수가 2회 이하이며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교도소 내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적절한 처우를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처우의 대상자 중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9개월 미만인 수형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제1항에 따른 처우를 할 수 있다.

제00조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소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계호(戒護): 경계하여 지킴

문 39.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소장이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처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ㄱ. 교도관의 사무처리 업무 보조
 - ㄴ. 교도소 밖 사회봉사활동 및 종교행사 참석
 - ㄷ. 교도소 내 교육실에서의 월 1회 토론회 참여
 - ㄹ.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문 40.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소장의 조치로 적법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 ㄱ. 과거 범죄 횟수가 1회이며, 7년 형을 선고받고 남은 형기가 6개월인 개방처우급 수형자 甲에게 소장은 교도소 내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 ㄴ. 과거 범죄 횟수가 1회이며, 5년 형을 선고받고 남은 형기가 10개월인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乙에게 소장은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취업지원 처우를 받도록 하였다.
 - ㄷ. 과거 범죄 횟수가 3회이며, 5년 형을 선고받고 남은 형기가 2개월인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 丙에게 소장은 교도소 밖의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 ㄹ. 초범자로서 3년 형을 선고받고 남은 형기가 8개월인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丁을 소장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로 보아 교도소 밖의 공공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게 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20 5급 (나) 19번 ~ 20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 ~ 문 20.]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명령문은 cards, input 등의 ‘중심어’로 시작하고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끝난다. 중심어에는 명령문의 지시 내용이 담겨있는데, cards는 그 다음 줄부터 input 명령문에서 이용할 일종의 자료집합인 레코드(record)가 한 줄씩 나타남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1>에서 레코드는 ‘701102’와 ‘720508’이다.

input은 레코드를 이용하여 변수에 수를 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input은 첫 번째 레코드를 이용하여 명령을 수행하고, 그 다음부터의 input은 차례대로 그 다음 레코드를 이용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1>에서 첫 번째 input 명령문의 변수 a에는 첫 번째 레코드 ‘701102’의 1~3번째 위치에 있는 수인 ‘701’을 저장하고, 변수 b에는 같은 레코드의 5~6번째 위치에 있는 수인 ‘02’에서 앞의 ‘0’을 빼고 ‘2’를 저장한다. 두 번째 input 명령문의 변수 c에는 두 번째 레코드 ‘720508’의 1~2번째 위치에 있는 수인 ‘72’를 저장한다. <프로그램 2>와 같이 만약 input 명령문이 하나이고 여러 개의 레코드가 있을 경우 모든 레코드를 차례대로 이용한다. 한편 input 명령문이 다수인 경우, 어느 한 input 명령문에 @가 있으면 바로 다음 input 명령문은 @가 있는 input 명령문과 같은 레코드를 이용한다. 이후 input 명령문부터는 차례대로 그 다음 레코드를 이용한다.

print는 input 명령문에서 변수에 저장한 수를 결과로 출력하라는 의미이다. 다음은 각 프로그램에서 변수 a, b, c에 저장한 수를 출력한 <결과>이다.

<프로그램 1>			<프로그램 2>		
cards 701102 720508 ; input a 1-3 b 5-6; input c 1-2; print;			cards 701102 720508 ; input a 1-6 b 1-2 c 2-4; print;		
<결과>			<결과>		
a	b	c	a	b	c
701	2	72	701102	70	11
			720508	72	205

문 19.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input 명령문은 레코드에서 위치를 지정하여 변수에 수를 저장할 수 있다.

ㄴ. 두 개의 input 명령문은 같은 레코드를 이용하여 변수에 수를 저장할 수 없다.

ㄷ. 하나의 input 명령문이 다수의 레코드를 이용하여 변수에 수를 저장할 수 있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

문 20.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다음 <프로그램>의 <결과>로 출력된 수를 모두 더하면?

<프로그램>

cards
020824
701102
720508
;
input a 1-6 b 3-4;
input c 5-6@;
input d 3-4;
input e 3-5;
print;

<결과>

a	b	c	d	e

- ① 20895
- ② 20911
- ③ 20917
- ④ 20965
- ⑤ 20977

2020 5급 (나) 39번~40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39. ~ 문 40.]

‘알파고’는 기존 인공지능의 수읽기 능력뿐만 아니라 정책망과 가치망이라는 두 가지 인공지능망을 통해 인간 고수 못지않은 감각적 예측 능력(정책망)과 형세판단 능력(가치망)을 구현한 바둑 인공지능이다. 인간의 지능활동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뇌 안의 시냅스로 연결된 뉴런들이 주고받는 전기신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나타난다. 인공지능망은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서 착안하여 만든 것이다.

‘학습’을 거치지 않은 인공지능망은 무작위로 설정한 다수의 가중치를 갖고 있다. 이를 갖고 입력값을 처리했을 때 옳지 않은 출력값이 나온 경우, 올바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가중치를 조절하는 것이 인공지능망의 학습과정이다. 따라서 오답에 따른 학습을 반복할수록 인공지능망의 정확도는 향상된다.

알파고의 첫 번째 인공지능망인 ‘정책망’은 “인간 고수라면 다음 수를 어디에 둘까?”를 예측한다. 입력(현 바둑판의 상황)과 출력(그 상황에서의 인간 고수의 착점) 사이의 관계를 간단한 함수로 표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알파고는 일련의 사고가 단계별로 진행되므로 인공지능망의 입력과 출력 사이에 13개의 중간층을 둔 심층신경망을 통해 다음 수를 결정한다. 이 복잡한 인공지능망은 인간의 뇌에서 뉴런들이 주고받는 전기신호의 세기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최적화해 나아간다. 이를 위해 인터넷 바둑 사이트의 6~9단 사용자의 기보 16만 건에서 추출된 약 3,000만 건의 착점을 학습했다. 3,000만 개의 예제를 학습하여 입력값을 넣었을 때 원하는 출력값이 나오게끔 하는 가중치를 각종 최적화 기법으로 찾는 방식이다.

이러한 ‘지도학습’이 끝나면 ‘강화학습’이 시작된다. 지도 학습으로 찾아낸 각 가중치를 조금씩 바꿔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도학습 결과 어떤 가중치가 0.3이었다면, 나머지 모든 조건은 동일한 상태에서 그 가중치만 0.4로 바꾼 인공지능망과 가중치가 0.3인 기존의 인공지능망을 여러 번 대국시켰을 때, 주로 이긴 인공지능망의 가중치를 선택하게 된다. 모든 가중치에 대해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최적의 가중치를 찾게 되는 것이다.

알파고의 두 번째 인공지능망인 ‘가치망’은 바둑의 대국이 끝날 때까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결과를 판단하는 대신에, 현재 장면으로부터 앞으로 몇 수만 진행시켜보고 그 상황에서 형세를 판단하는 것이다. 현대 바둑 이론으로도 형세의 유효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몇 집인지 정량적으로 환산하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정확한 평가 함수를 프로그래머가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 평가 함수의 초깃값을 임의로 설정해놓고 정책망의 강화학습 때와 같이 두 가지 버전의 인공지능망을 대국시킨다. 만약 변경된 버전이 주로 이겼다면 그 다음 실험에서는 변경된 버전을 채택하는 과정을 무수히 반복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정확한 평가 함수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다.

문 39.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① 오답을 통한 학습과정을 더 많이 거칠수록 인공지능망의 정확도는 떨어진다.
- ② 알파고는 가중치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기보 한 건당 1,000건 이상의 착점을 학습했다.
- ③ 알파고는 빠른 데이터 처리 능력 덕분에 인터넷 기보를 이용한 지도학습만으로도 정확한 형세판단 능력의 평가 함수를 찾을 수 있었다.
- ④ 알파고가 바둑의 형세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는 정확한 평가 함수를 알아야 한다.
- ⑤ 최초에는 동일한 인공지능망이라고 해도 강화학습의 유무에 따라 인공지능망의 가중치는 달라질 수 있다.

문 40. 윗글과 다음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최종적으로 선택할 알파고의 가중치 A와 B를 옳게 짝지은 것은?

<상 황>

-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가중치 A, B만을 변경한다.
- 가중치 A가 0.4이고 가중치 B가 0.3인 인공지능망이 가중치 A가 0.3이고 가중치 B가 0.3인 인공지능망을 주로 이겼다.
- 가중치 A가 0.5이고 가중치 B가 0.3인 인공지능망이 가중치 A가 0.3이고 가중치 B가 0.3인 인공지능망을 주로 이겼다.
- 가중치 A가 0.4이고 가중치 B가 0.4인 인공지능망은 가중치 A가 0.4이고 가중치 B가 0.3인 인공지능망에게 주로 졌다.
- 가중치 A가 0.5이고 가중치 B가 0.3인 인공지능망은 가중치 A가 0.4이고 가중치 B가 0.3인 인공지능망에게 주로 졌다.
- 가중치 A가 0.4이고 가중치 B가 0.3인 인공지능망이 가중치 A가 0.4이고 가중치 B가 0.2인 인공지능망을 주로 이겼다.

	가중치 A	가중치 B
①	0.3	0.3
②	0.4	0.2
③	0.4	0.3
④	0.4	0.4
⑤	0.5	0.3

2021 5급 (가) 19번~20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 ~ 문 20.]

연령규범은 특정 연령의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거나 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와 믿음이다. 연령규범은 사회적 자원 분배나 사회문화적 특성, 인간발달의 생물학적 리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제도화된다. 그 결과 결혼할 나이, 자녀를 가질 나이, 은퇴할 나이 등 사회구성원이 동의하는 기대연령이 달라진다. 즉 졸업, 취업, 결혼 등에 대한 기대연령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연령규범이 특정 나이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도 달라진다. 이러한 기대는 법적 기준에 반영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甲국의 청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의 건강을 고려하여 음주나 흡연을 제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술·담배 구입을 허용한다. 동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이지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하기 때문이다. 이때 사용되는 나이 기준을 ‘연 나이’라고 한다. ‘연 나이’는 청소년법 등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으로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값이 나이가 된다. 이와 달리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하여 1년이 지나면 한 살을 더 먹는 것으로 계산한다.

한편 법률상 甲국의 성인기준은 만 19세 이상이지만, 만 18세 이상이면 군 입대, 운전면허 취득, 취업,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도 고등학생을 제외한 만 18세 이상이면 관람할 수 있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만 20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은 만 35세 이상이지만 투표권은 만 19세 이상에게 부여된다.

최근 甲국에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에 대한 연령규범이 변화하고 노인의 연령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甲국에서 노인 연령기준은 통상 만 65세 이상이지만, 만 65세 이상 국민의 과반수가 만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甲국의 어떤 법에서도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규정하는 연령기준이 일관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법은 노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만 65세 이상에게 교통수단 이용 시 무료나 할인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 장기요양보험 혜택, 노인 일자리 제공 등도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한편 노후연금 수급연령은 만 62세부터이며,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 이용, 주택연금 가입이나 노인주택 입주자격은 만 60세부터이다.

문 19.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① 연령규범은 특정 나이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 믿음을 말한다.
- ② 같은 연도 내에서는 만 나이와 연 나이가 항상 같다.
- ③ 甲국 법률에서 제시되는 노인 연령기준은 동일하다.
- ④ 결혼에 대한 기대연령은 생물학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사회여건 변화가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 ⑤ 甲국의 연령규범에 따르면 만 19세인 사람은 운전면허 취득, 술 구매, 투표가 가능하다.

문 20.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5월생인 甲국 국민이 ‘연 나이’ 62세가 된 날 이미 누리고 있거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회의원 피선거권, 노인교실 이용, 장기요양보험 혜택
- ② 노후연금 수급, 기초연금 수급, 대통령 피선거권
- ③ 국회의원 피선거권, 기초연금 수급, 노인주택 입주자격
- ④ 노후연금 수급, 국회의원 피선거권, 노인복지관 이용
- ⑤ 노인교실 이용, 대통령 피선거권, 주택연금 가입

2021 5급 (가) 39번 ~ 40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39. ~ 문 40.]

농장동물복지는 인간 편의만 생각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습성을 고려해 적절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세계농장동물복지위원회가 규정한 ‘동물의 5대 자유’, 즉 활동의 부자유·배고픔·불편함·질병·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다. 사실 농장동물복지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공장식 축산’의 밀집사육에 따른 전염병 확산, 항생제 남용은 사람의 건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축분뇨와 악취에 따른 환경오염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甲국은 2011년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농장·도축장 등에 대한 ‘동물복지시설인증제’와 축산물에 대한 ‘동물복지축산물인증 마크’ 두 가지 동물복지인증제도를 도입했다. 동물복지시설인증제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동물을 기르는 농장이나 도축하는 시설에 동물복지시설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동물복지축산물인증 마크는 사육 과정뿐만 아니라 운송·도축 과정까지 기준을 지킨 축산물에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다. 동물복지인증제도는 2012년 산란계(알을 낳는 닭)를 시작으로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식용육으로 기르는 닭), 2015년 육우·젖소·염소로 대상을 확대했다.

동물복지시설인증을 받은 농장은 먹이는 물론 먹는 물, 사육장 내 온도·조도·공기오염도까지 세밀하게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증을 받은 농장에 대해 인증을 받은 다음해부터 매년 1회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시설인증을 받은 농가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2020년 현재 해당 인증을 받은 농장은 산란계 74곳, 육계 5곳, 돼지 9곳, 육우 2곳에 불과하다. 시설인증을 가장 많이 받은 산란계 농장도 전체 산란계 농장의 1.1%만 인증을 받았을 뿐이다.

몇몇 농가에서는 해당 제도의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동물복지시설인증을 받으려면 밀집사육을 피하기 위해 가축 개체당 공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최소 사육규모 기준 역시 시설인증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 중 하나이다. 돼지농장이라면 어미돼지를 30마리 이상 키워야 시설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A농장은 가축 개체당 공간 기준과 최소 사육규모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하여 어미돼지 수를 20% 줄여서 시설인증을 받았다. 또한 닭의 최소 사육규모 기준은 4,000마리 이상이다. 따라서 사육 수를 늘릴 여력이 없는 소규모 농장에선 공장식 축산을 하지 않아도 인증 신청조차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축산물을 판매할 때 동물복지축산물인증 마크를 붙이려면 도축도 동물복지시설인증을 받은 곳에서 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 70여개 도축장 가운데 동물복지시설인증을 받은 도축장은 2곳에 불과하다. 시설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인증 도축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물리적 거리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 소비자들의 동물복지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 역시 높지 않다. 또한 동물복지축산물인증 마크가 붙은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등은 가격이 높아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문 39.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① 농장동물복지는 동물의 5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람의 삶과는 무관하다.
- ② 동물복지시설인증을 받으려는 농장은 도축 시설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 ③ A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동물복지축산물인증 마크를 부착한 축산물로 판매된다.
- ④ 甲국의 소비자 대부분은 동물복지축산물인증 마크가 붙은 축산물을 구매한다.
- ⑤ 공장식 축산을 하지 않더라도 동물복지시설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문 40.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 ㄱ. 甲국에서 동물복지시설인증을 받은 돼지농장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을 최소 10회 받았다.
- ㄴ. 2020년 甲국 전체 농장수가 100,000개라면, 동물복지시설인증을 받은 농장 비율은 0.1% 미만이다.
- ㄷ. 2020년 甲국 전체 산란계 농장수는 6,000개 이상이다.
- ㄹ. 동물복지시설인증을 받기 전, A농장에서 사육하던 어미돼지는 35마리 이하였다.

- ① ㄱ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22 5급 (나) 19번 ~ 20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 ~ 문 20.]

‘탄소중립’이란 인간 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산림 흡수 및 제거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배출되는 탄소량과 흡수·제거되는 탄소량을 동일하게 만든다는 개념으로, 이에 탄소중립을 ‘넷제로(Net-Zero)’라 부르기도 한다. 탄소중립에 동참하기로 한 A은행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가지 사항에 주목하였다. 첫 번째는 항공 출장이고, 두 번째는 컴퓨터의 전력 낭비이다.

한 사람이 비행기로 출장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은 400 kg으로, 이는 같은 거리를 4명이 자동차 한 대로 출장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의 2배에 해당한다. 항공 출장으로 인하여 현재 A은행이 배출하는 연간 이산화탄소의 양은 A은행의 연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5에 달하는 수준이다.

항공 출장을 줄이기 위해서 A은행은 화상회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할 경우에 한 사람의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은 항공 출장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A은행에서는 매년 연인원 1,000명이 항공 출장을 가고 있는데, 항공 출장인원의 30 %에게 항공 출장 대신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은행과 같이 정보 처리가 업무의 핵심인 업계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의 전력 소비가 전체 전력 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A은행은 컴퓨터의 전력 낭비 요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컴퓨터 전력 사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컴퓨터의 전력 소비량이 밤 시간대에 놀라울 정도로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직원들이 자신의 컴퓨터를 끄지 않고 퇴근하여 많은 컴퓨터가 밤에 계속 켜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A은행은 전력차단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22,000대의 컴퓨터에 전력관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컴퓨터가 일정시간 사용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컴퓨터와 모니터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A은행은 연간 35만 kWh의 전력 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652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해당하는 양이다.

문 19.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 ㄱ. A은행이 전력차단프로젝트를 시행하더라도 주간에 전력 절감은 없을 것이다.
 - ㄴ. A은행의 전력차단프로젝트로 절감되는 컴퓨터 1대당 전력량은 연간 15 kWh 이상이다.
 - ㄷ. A은행이 화상회의시스템과 전력차단프로젝트를 도입하면 넷제로가 실현된다.
 - ㄹ. 1인당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은 4명이 자동차 한 대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같은 거리를 1명이 비행기로 출장을 가는 경우의 1/8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 20.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 해당하는 것은?

A은행은 화상회의시스템과 전력차단프로젝트의 도입 효과를 검토해 보았다. 검토 결과 둘을 도입하면, A은행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도입 전에 비해 연간 (㉠) %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① 30
- ② 32
- ③ 34
- ④ 36
- ⑤ 38

2022 5급 (나) 39번~40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39.~문 40.]

하드디스크는 플래터와 헤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플래터’는 원반 모양이고 같은 크기의 플래터가 위아래로 여러 개 나란히 정렬되어 있다. 플래터의 양면은 각각 ‘표면’이라 불리는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자기물질로 덮여 있다. ‘헤드’는 데이터를 표면에 저장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인식한다. 이를 위해 헤드는 회전하는 플래터의 중심부와 바깥 사이를 플래터 반지름 선을 따라 일정한 속도로 이동한다.

플래터의 표면은 폭이 일정한 여러 개의 ‘트랙’이 동심원을 이룬다. 플래터마다 트랙 수는 같으며, 트랙은 여러 개의 ‘섹터’로 나누어진다. 이 구분은 하드디스크상의 위치를 나타내고 파일(데이터)을 디스크 공간에 할당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데이터는 ‘표면 3, 트랙 5, 섹터 7’에 위치하게 된다. 이때 표면은 위에서부터 차례로 번호가 부여된다. 트랙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순서대로 번호가 부여되며, 섹터는 반시계방향으로 번호가 부여된다.

섹터는 하드디스크의 최소 저장 단위로 하나의 섹터에는 파일을 1개만 저장한다. 한 섹터는 512바이트까지 저장할 수 있지만, 10바이트 파일을 저장해도 섹터 한 개를 전부 차지한다. 초기 하드디스크는 모든 트랙마다 동일한 섹터 수를 가졌지만, 현재의 하드디스크에는 바깥쪽 트랙에 좀 더 많은 섹터가 있다. 섹터의 크기가 클수록 섹터의 저장 공간이 커지기 때문에 크기를 똑같이 하여 섹터당 저장 공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플래터 표면 중심에서 거리가 같은 모든 트랙을 수직으로 묶어 하나의 ‘실린더’라 한다. 표면마다 하나씩 있는 여러 개의 헤드가 동시에 이동하는데, 헤드가 한 트랙(실린더)에서 다른 트랙(실린더)으로 움직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동시에 호출되는 데이터를 동일한 실린더 안에 있게 하면, 헤드의 추가 이동이 필요 없어져서 탐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저장 방식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하드디스크의 여러 곳(트랙과 섹터)에 분산되어 파일이 저장되기도 한다.

데이터 탐색 속도는 플래터 바깥쪽에 있던 헤드가 데이터를 읽고 쓴 후 다시 플래터 바깥쪽에 정확히 정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가리킨다. 하드디스크가 성능이 좋을수록 플래터는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전속도는 5,400 rpm(분당 5,400회전) 혹은 7,200 rpm이다. 플래터 위를 이동하는 헤드의 속도는 1번 트랙의 바깥쪽 끝과 마지막 트랙의 안쪽 끝 사이를 초당 몇 번 왕복하는지를 나타내며, Hz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1 Hz는 1초에 헤드가 1번 왕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 39.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① 플래터가 5개라면 표면의 개수는 최대 5개이다.
- ② 플래터가 5개, 플래터당 트랙이 10개, 트랙당 섹터가 20개라면, 실린더의 개수는 10개이다.
- ③ 플래터 안의 모든 섹터의 크기가 같다면, 각 트랙의 섹터 수는 같다.
- ④ 10바이트 파일 10개 저장에 필요한 최소 섹터 수와 100바이트 파일 1개 저장에 필요한 최소 섹터 수는 같다.
- ⑤ 파일 크기가 트랙 1개의 저장용량보다 작다면, 해당 파일은 항상 하나의 트랙에 저장된다.

문 40.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의 ㉠과 ㉡을 옳게 짝지은 것은?

— <상 황> —

A하드디스크는 표면 10개, 표면당 트랙 20개, 트랙당 섹터 20~50개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헤드의 위치는 1번 트랙의 바깥쪽 끝이며 헤드 이동경로에 처음 위치한 섹터는 1번이다. 플래터의 회전속도는 7,200 rpm, 헤드의 이동속도는 5 Hz이다. 플래터 1회전에 걸리는 시간은 (㉠)초이고, 헤드가 트랙 하나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초이다.

	㉠	㉡
①	$\frac{1}{12}$	$\frac{1}{10}$
②	$\frac{1}{12}$	$\frac{1}{100}$
③	$\frac{1}{120}$	$\frac{1}{100}$
④	$\frac{1}{120}$	$\frac{1}{200}$
⑤	$\frac{1}{720}$	$\frac{1}{200}$

2023 5급 (가) 19번 ~ 20번

[19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석유사업의 시작은 18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甲국 ○○계곡에서 석유시추 현장책임자인 A가 오랜 노력 끝에 석유시추에 성공하였고, 그날부터 A는 매일 30배럴씩 석유를 퍼 올렸다.

A의 성공을 계기로 석유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석유시추에 성공한 이후 1860년 말에는 70여 개의 유정이 석유를 뽑아냈고 정제시설도 15개나 들어섰다. ○○계곡의 연간 산유량은 1859년의 2천 배럴에서 10년 만에 250배가 되었다. 그러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하락하였다. 급기야 석유가격은 A가 최초로 시추한 날의 평균가격에서 96%나 떨어져 배럴당 1.2달러에 판매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생산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이 시작되었다. 1880년에는 甲국의 수출량이 국내 소비량의 150%가 되었으며, 甲국에서 그해 생산된 석유의 총 가액은 3,500만 달러였다.

석유사업 확대는 연구 및 수요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원유에서는 액화석유가스(LPG), 휘발유(가솔린), 등유, 경유(디젤), 중유 등을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1859년에는 등유만을 생산하였고, 부산물은 용도가 없어 내다 버렸다. 그런데 등화용으로 사용되던 등유 소비가 한계에 달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부산물의 용도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휘발유가 석탄을 대신해서 증기기관의 동력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1886년 휘발유 자동차가 생산되면서 휘발유의 가치는 치솟았다. 1908년 자동차의 대량생산을 계기로 휘발유 사용이 극적으로 증가하였고, 1911년에는 휘발유 소비가 처음으로 등유를 앞질렀다.

1893년에는 디젤엔진의 특허가 등록되었고, 1910년경 동력 장치로 발명된 디젤엔진이 선박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경유(디젤)가 자동차 연료로 처음 사용된 것은 1927년에 소형 연료 분사장치가 발명되면서부터이다. 한편 1912년에는 원유에서 끓는점에 따라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를 차례로 생산하는 최초의 현대식 정유공장이 세워졌으며, 액화석유가스 생산 기술이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19. 밑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① 1890년이 되어서야 휘발유는 동력 기계를 움직이는 연료로 사용되었다.
- ② 1907년에는 휘발유보다 등유의 소비량이 더 많았을 것이다.
- ③ 1925년에 경유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 ④ 최초의 석유시추는 휘발유와 경유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었다.
- ⑤ 1910년에는 액화석유가스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20. 밑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 ㄱ. A가 시추 첫날 생산한 석유가 그날 평균가격으로 모두 팔렸다면 판매액은 총 900달러이다.
- ㄴ. 1869년 ○○계곡의 월 평균 산유량은 2만 배럴이다.
- ㄷ. 비축 및 수입된 석유가 없다고 가정할 때, 1880년 甲국의 국내 석유 소비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2,100만 달러이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2023 5급 (가) 39번 ~ 40번

[39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은 ○○국가의 민원인 질의에 대한 챗봇의 답변내용 중 일부이다.

Q: 산지전용은 무엇이며 허가권자는 누구인가요?

A: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본래의 용도(조림(造林), 입목의 벌채 등) 외로 사용하기 위해 그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보전산지인지 그렇지 않은 산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전산지는 산림청장이 임업생산과 공익을 위해 지정하는 산지로서 산림청장 소관입니다. 보전산지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지정하는 임업용산지와 재해방지,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지정하는 공익용산지가 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면적 200만 m^2 이상(보전산지의 경우 100만 m^2 이상): 산림청장
- 산지면적 50만 m^2 이상 200만 m^2 미만(보전산지의 경우 3만 m^2 이상 100만 m^2 미만)
 -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도지사
- 산지면적 50만 m^2 미만(보전산지의 경우 3만 m^2 미만): 시장·군수·구청장

Q: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산지전용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면으로는 지적도와 임야도를 제출하는데, 이것은 지도나 지형도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를 보면 해당 필지의 모양, 주변 필지와 경계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도와 마찬가지로 지적도와 임야도에도 축척을 사용합니다. 1/1,200의 대축척 도면은 좁은 지역을 상세하게 표시하고, 1/6,000의 소축척 도면은 넓은 지역을 간략하게 표시합니다. 지적도는 1/1,200 축척을 사용하고, 임야도는 1/6,000 축척을 사용합니다. 임야는 다른 지목의 토지보다 넓어서 1/1,200 축척의 도면에 전체 면적을 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Q: 산지면적을 표시할 때 여러 단위를 쓰지 않나요?

A: 토지의 면적은 미터법(m^2)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에서 ‘평’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1평은 3.3 m^2 입니다. 그런데 산지는 면적이 넓어 편리하게 ‘ha(헥타르)’나 ‘정보(町步)’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1 ha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0 m인 정사각형의 면적을 말하며 1정보는 3,000평입니다.

39.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 ㄱ. 임야도의 경우 넓은 지역의 전체 면적을 담기 위해 대축척을 사용한다.
- ㄴ. 보전산지의 지정권자는 면적에 관계없이 산림청장이다.
- ㄷ.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도와 지형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 ㄹ.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사유림의 소유자가 그 산지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경우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40. 윗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X임야와 Y임야의 산지전용 허가권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 <상 황> —

개발업자 甲은 X임야와 Y임야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자 한다. X임야는 산림청장이 국민보건휴양 증진을 위해 보전산지로 지정한 국유림으로서 산지면적이 100정보이며, Y임야는 甲의 소유로서 산지면적이 50 ha이다.

X임야

Y임야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② 산림청장	산림청장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④ 시·도지사	시·도지사
⑤ 산림청장	시장·군수·구청장

2024 5급 (나) 19번 ~ 20번
[19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구소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우선, 효과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효과’란 관광객이 어떤 지역에서 그 지역 관광 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출한 경비(최초 관광지출)가 그 지역에 일차적으로 발생시키는 효과로 일차효과라고도 부른다. 다시 말하면, 그 지역에서 관광객의 최초 관광지출로 인해 지역 관광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다음으로 관광객의 최초 관광지출이 지역경제에 주입되면 이에 영향을 받는 이차집단이 생기게 되는데, 이들에게 발생하는 효과를 ‘간접효과’라고 한다. 예를 들어, 관광객에게 숙박비를 받은 호텔 업주는 이 수입 중 일부를 자신에게 쌀이나 부식재료를 공급해준 농업 종사자나 중간상,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 청소 서비스를 제공한 청소업체 등에게 지출한다. 이때 농업 종사자나 중간상, 전기통신사업자, 청소업체는 관광객으로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영향을 합친 것이 간접효과이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만으로 포착되지 않는 효과도 존재한다. 관광수입 증대로 인해 해당 지역경제 내의 호텔 업주, 농업 종사자 등 지역경제 구성원의 가계부문 소득이 향상되면 지역경제에 대한 이들의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지역산업에 대한 투자 증대, 고용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효과를 ‘유발효과’라고 부른다. 간접효과와 유발효과를 합쳐 이차효과라고 부르기도 한다. 관광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유발효과를 모두 합한 값이다.

한편 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승수(乘數)를 이용하여 나타내기도 한다. 승수는 경제에 발생한 최초의 변화가 최종적으로 그 경제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배수(倍數)로 표현한 값이다. 예를 들어 최초 변화 10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20의 변화가 발생했다면 승수는 2가 된다. 관광으로 인한 지역 내의 최초 변화가 지역경제에 가져오는 총 효과를 측정하는 승수에는 비율승수와 일반승수가 있다. 비율승수는 직접효과·간접효과·유발효과의 합을 직접효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일반승수는 직접효과·간접효과·유발효과의 합을 관광객의 최초 관광지출로 나눈 값이다.

19.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관광효과에서 유발효과를 제외한 값은 직접효과이다.
ㄴ. 관광지 소재 식당이 관광객에게 직접 받은 식대는 유발효과에 해당된다.
ㄷ. 일반승수 계산 시 나누어지는 값은 일차효과와 이차효과의 합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 윗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시의 2023년 관광으로 인한 직접효과와 비율승수를 옳게 짝지은 것은?

——— <상 황> ———

A시가 2023년에 관광으로 얻은 직접효과는 관광객의 최초 관광지출의 50%이다. 간접효과는 직접효과보다 10억 원 많으며, 유발효과는 직접효과의 2배이다. A시의 일반승수는 2.5이다.

직접효과	비율승수
① 5억 원	4
② 10억 원	4
③ 10억 원	5
④ 20억 원	5
⑤ 20억 원	6

2024 5급 (나) 39번 ~ 40번

[39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설탕은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얻은 원당을 정제해 만든 천연 감미료로 자당을 주성분으로 한다. 사탕수수가 처음 재배된 곳은 기원전 8,000년경 태평양 남서부의 뉴기니섬 지역이었다. 이후 사탕수수는 기원전 6,000년경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등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로 전해졌다. 초기에 사람들은 단맛을 즐기 위해 사탕수수를 씹어 당을 빨아먹었지만 350년경 굽타왕조 시대에 인도에서 사탕수수액을 활용한 설탕 결정법을 알아냈다. 7세기 중반 당태종 때 인도의 외교사절단이 사탕수수 재배법을 가르쳐 중국에서도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이후, 1747년에 한 화학자가 콧병, 인후염, 변비 등의 치료제로 주로 사용되던 사탕무에 자당이 함유된 것을 발견하였다. 당시 사탕무는 경제성 문제로 설탕 제조에는 활용되지 못하다가, 1801년에 이르러서야 프로이센에서 사탕무를 활용한 설탕의 대량생산에 성공했다.

조선시대에 설탕은 수입에만 의존하는 귀한 식자재였다. 조선시대 요리서에 설탕을 사용하는 조리법이 없는 것은 이 시기 설탕이 널리 퍼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설탕은 개항기에 왕실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유통되었으나, 일제강점기에는 도시의 아동과 젊은이의 식생활에까지 확산되었다.

1884년 설탕 가격은 같은 무게 소고기의 2.5배로 매우 높았으나, 1890년대 설탕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하였다. 1893년에는 설탕 가격이 1884년 대비 40 % 하락했고, 1911년에는 1근(斤)에 9전까지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 음식에도 차츰 설탕을 넣기 시작했다. 1910년대 무렵부터 떡·한과 같은 병과류(餠菓類)와 음료 같은 음청류(飮淸類)에 꿀이나 엿 대신 설탕을 넣기 시작했다. 1920 ~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꿀이나 엿을 전혀 사용하지 않던 육류, 생선류, 찬류, 김치류 등에도 설탕을 넣는 신식요리법이 개발되었다.

39.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① 사탕수수를 처음 재배한 곳은 필리핀이었다.
- ② 사탕수수액을 이용한 설탕 결정법은 당태종 시기에 개발되었다.
- ③ 1910년대 이전 우리나라에서는 생선류, 김치류에 설탕 대신 꿀이나 엿을 넣었다.
- ④ 인도의 외교사절단이 사탕수수 재배법을 중국에 전파한 것은 350년경이다.
- ⑤ 19세기가 되어서야 사탕무를 이용한 설탕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

40. 윗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 해당하는 수는?

— <상 황> —

1893년에 설탕 1근의 가격이 12전이라고 가정할 때, 甲이 1884년에 52전을 모두 써서 설탕 1근과 소고기를 구입하였다면 소고기는 ㉠ 근을 구입할 수 있었다. 단, 설탕 1근과 소고기 1근의 무게는 같고, 화폐가치는 동일하다.

- ① 3
- ② 4
- ③ 5
- ④ 6
- ⑤ 7

2025 5급 (가) 19번 ~ 20번
[19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발전 방식이다. 태양광 발전 효율은 기상 요소, 지리 요소, 설비 요소 등의 영향을 받는다. 발전 효율이 가장 높아지는 태양광 패널의 최적 온도는 25 °C이며, 일사량이 많은 맑은 날에 발전 효율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도가 낮을수록 태양의 고도가 높아 태양광 발전 효율이 향상된다. 또한 해발 고도가 높을수록 발전 효율도 높은데, 그 이유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설비가 지표로부터 방출되는 복사열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패널 경사각 또한 태양광 발전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태양광 패널과 태양광선의 각도가 90 °일 때 가장 효율이 높다.

태양광 발전의 장점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 자원을 거의 무한에 가깝게 공급받을 수 있으며, 발전 과정 자체만 봤을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전기를 끌어오기 힘든 장소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을 만큼 발전 설비가 단순하고, 보수 및 유지 관리에 비용이 적게 든다. 그러나 패널 생산 과정에서의 유해물질 발생, 폐패널 처리 문제, 설치에 따른 환경 파괴와 같은 단점이 있다.

태양광 발전소의 규모를 나타내는 단위로는 kW(킬로와트), MW(메가와트) 등의 전력 단위가 사용된다. 1 MW 태양광 발전소는 시간당 1 MW(1,000 kW)의 전력을 생산하는 규모의 발전소를 말한다. 설비 효율이나 환경적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1 MW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3,000 ~ 4,000평의 면적이 필요하다. 1 MW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면, 같은 양의 전기를 화석연료 발전 방식으로 생산할 때보다 연간 50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19. 밑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 ㄱ.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 발전은 위도와 해발 고도가 높을수록 태양광 발전 효율이 높다.
 - ㄴ. 0.5 MW 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하루 발전시간이 2시간이면, 30일 동안 생산하는 전력은 30 MW이다.
 - ㄷ. 태양광 패널과 지표면의 각도가 90 °일 때 태양광 발전 효율이 가장 높다.
 - ㄹ. 태양광 발전은 설비가 단순하지만 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ㄷ, ㄹ
20. 밑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가)와 (나)에 들어갈 수를 옳게 짝지은 것은?
- 한 가구당 30일 동안 필요한 전력이 250 kW라면, 1 MW 태양광 발전소에서 하루 4시간씩 30일 동안 생산하는 전력은 (가) 가구에 30일 동안 필요한 전력과 동일하다.
 - 나무 한 그루가 감축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연간 2.5 kg 이라면, 1 MW 태양광 발전소는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는 화석연료 발전 방식에 비해, 나무 (나) 그루가 1년 동안 감축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동일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 | (가) | (나) |
|-------|---------|
| ① 120 | 100,000 |
| ② 120 | 200,000 |
| ③ 480 | 200,000 |
| ④ 480 | 400,000 |
| ⑤ 600 | 400,000 |

2025 5급 (가) 39번 ~ 40번
[39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4절기를 알면 사계절에 따른 자연의 순환을 이해할 수 있다. 24절기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주위를 도는 공전에 따라 정해졌다. 24절기를 ‘기’, ‘입’, ‘교’, ‘극’이라는 절기의 성격으로 나눠보면, 배치 원리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기’는 사계절의 기본이 되는 절기이다. 지구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근 원을 그리고, 원의 중심을 지나는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으면, 수평선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기본 절기인 춘분, 하지, 추분, 동지가 자리 잡는다. ‘입’은 계절로 들어서는 절기로, ‘기’ 절기 사이의 중앙에 위치한다. 입춘은 동지와 춘분 사이에 놓이게 되고, 입하는 춘분과 하지 사이, 입추는 하지와 추분 사이, 입동은 추분과 동지 사이에 위치한다. ‘교’는 계절이 교차하는 절기로, 각 계절의 ‘입’ 절기 바로 다음에 2개씩 위치한다. 봄에는 우수·경칩, 여름에는 소만·망종, 가을에는 처서·백로, 겨울에는 소설·대설이 순서대로 놓인다. ‘극’은 계절의 절정을 보여주는 절기로, ‘기’ 절기 바로 다음에 계절별로 2개씩 위치한다. 춘분 다음에 청명·곡우, 하지 다음에 소서·대서, 추분 다음에 한로·상강, 동지 다음에 소한·대한이 순서대로 놓인다.

농경사회에서는 24절기에 맞추어 농사를 지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 다음의 우수에는 비가 내리고 얼었던 땅이 풀리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농사가 시작되지만, 겨울 추위가 완전히 물러간 것은 아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에 이르면, 농번기가 시작되어 농사일이 많아지며, 온갖 채소와 곡식을 파종할 수 있다. 시간이 갈수록 고온다습한 기후에 작물이 힘들어하며, 병충해가 심하여 충분히 대비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입추에는 아직 가을을 느낄 수 없는 늦더위가 남아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서서히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며, 찬이슬이 내리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이 느껴진다. 입동에 들어서면 제법 찬 기운이 느껴진다. 들녘은 푸른빛을 잃고 점차 잿빛으로 물들며, 향량한 바람이 불어온다.

39.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 ㄱ. ‘기’ 절기는 절기상 ‘입’ 절기 사이의 중앙에 위치한다.
 - ㄴ. 여름의 ‘소만’과 겨울의 ‘소설’은 모두 ‘교’ 절기에 속한다.
 - ㄷ. 24절기는 농경사회에서 필요에 의해 음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 ㄹ.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에는 얼었던 땅이 풀리고 농번기가 시작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40. 윗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돈을 갚아야 하는 절기는?
- <상 황> ———

甲은 봄에 있을 자녀의 혼사를 위해 ‘우수’에 乙에게 소 한 마리 값을 빌렸다. 甲은 乙에게 빌린 돈을 ‘우수’ 뒤 열두 번째 절기에 갚기로 했다.
- ① 곡우
 - ② 망종
 - ③ 입추
 - ④ 처서
 - ⑤ 상강

※ 우측 상단 혹은 하단의 쪽수를 기준으로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쪽수	정답
1	④
2	④
3	④
4	⑤
5	⑤
6	②
7	④
8	④
9	⑤
10	②
11	②
12	②
13	①
14	⑤
15	④
16	⑤
17	⑤
18	①
19	①
20	②
21	②
22	⑤
23	④
24	③
25	②
26	③
27	④
28	⑤
29	④
30	⑤

쪽수	정답
31	③
32	④
33	②
34	③
35	①
36	②
37	⑤
38	④
39	④
40	③
41	③
42	①
43	④
44	③
45	④
46	⑤
47	④
48	④
49	⑤
50	②
51	④
52	①
53	⑤
54	⑤
55	⑤
56	③
57	①
58	⑤
59	③
60	⑤

쪽수	정답
61	①
62	④
63	⑤
64	①
65	②
66	①
67	⑤
68	①
69	⑤
70	⑤
71	①
72	②
73	③
74	⑤
75	⑤
76	①
77	②
78	⑤
79	①
80	⑤
81	①
82	⑤
83	④
84	⑤
85	⑤
86	①
87	⑤
88	⑤
89	②
90	①

쪽수	정답
91	③
92	①
93	③
94	④
95	④
96	③
97	③
98	③
99	⑤
100	④
101	②
102	①
103	④
104	②
105	①
106	①
107	④
108	⑤
109	④
110	②
111	①
112	⑤
113	①
114	⑤
115	④
116	③
117	①
118	①
119	④
120	③

※ 우측 상단 혹은 하단의 쪽수를 기준으로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쪽수	정답
121	⑤
122	②
123	②
124	⑤
125	①
126	⑤
127	②
128	①
129	③
130	③
131	③
132	②
133	②
134	②
135	④
136	①
137	①
138	④
139	③
140	②
141	④
142	⑤
143	⑤
144	⑤
145	①
146	②
147	②
148	①
149	⑤
150	③

쪽수	정답
151	④
152	③
153	①
154	④
155	⑤
156	②
157	③
158	③
159	⑤
160	②
161	④
162	①
163	②
164	①
165	②
166	②
167	⑤
168	④
169	⑤
170	①
171	⑤
172	⑤
173	⑤
174	①
175	④
176	④
177	②
178	⑤
179	③
180	⑤

쪽수	정답
181	③
182	②
183	①
184	⑤
185	③
186	①
187	②
188	④
189	⑤
190	①
191	⑤
192	⑤
193	④
194	①
195	③
196	①
197	⑤
198	⑤
199	④
200	④
201	⑤
202	②
203	③
204	②
205	⑤
206	⑤
207	⑤
208	①
209	④
210	⑤

쪽수	정답
211	②
212	①
213	⑤
214	④
215	⑤
216	③
217	⑤
218	③
219	②
220	①
221	⑤
222	⑤
223	①
224	④
225	④
226	②
227	②
228	③
229	①
230	⑤
231	④
232	①
233	⑤
234	②
235	①
236	①
237	②
238	③
239	②
240	④

※ 우측 상단 혹은 하단의 쪽수를 기준으로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쪽수	정답
241	④
242	③
243	①
244	③
245	①
246	②
247	③
248	③
249	④
250	③
251	③
252	③
253	①
254	⑤
255	⑤
256	④
257	②
258	⑤
259	③
260	①
261	①
262	①
263	③
264	①
265	④
266	⑤
267	①
268	③
269	④
270	①

쪽수	정답
271	②
272	④
273	⑤
274	①
275	②
276	④
277	⑤
278	③
279	①
280	①
281	④
282	①
283	⑤
284	③
285	②
286	⑤
287	④
288	③
289	④
290	⑤
291	⑤
292	②
293	③
294	⑤
295	⑤
296	④
297	③
298	①
299	⑤
300	④

쪽수	정답
301	④
302	①
303	⑤
304	⑤
305	⑤
306	④
307	③
308	②
309	③
310	⑤
311	③
312	①
313	④
314	②
315	②
316	⑤
317	③
318	⑤
319	①
320	④
321	④
322	④
323	①
324	③
325	⑤
326	③
327	④
328	④
329	⑤
330	①

쪽수	정답
331	①
332	③
333	⑤
334	②
335	④
336	④
337	③
338	④
339	②
340	①
341	④
342	④
343	②
344	①
345	④
346	①
347	①
348	②
349	②
350	⑤
351	①
352	①
353	③
354	③
355	④
356	④
357	④
358	③
359	④
360	①

※ 우측 상단 혹은 하단의 쪽수를 기준으로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쪽수	정답
361	④
362	③
363	③
364	③
365	②
366	③
367	②
368	④
369	③
370	⑤
371	④
372	⑤
373	②
374	④
375	③
376	①
377	②
378	⑤
379	④
380	①
381	⑤
382	⑤
383	③
384	④
385	②
386	①
387	⑤
388	①
389	①
390	⑤

쪽수	정답
391	④
392	①
393	⑤
394	③
395	①
396	①
397	③
398	③
399	③
400	⑤
401	⑤
402	⑤
403	①
404	③
405	①
406	②
407	③
408	⑤
409	⑤
410	②
411	③
412	④
413	④
414	②
415	②
416	③
417	③
418	②
419	②
420	④

쪽수	정답
421	③
422	②
423	③
424	③
425	⑤
426	⑤
427	②
428	③
429	④
430	④
431	⑤
432	②
433	①
434	③
435	⑤
436	⑤
437	④
438	③
439	④
440	⑤
441	⑤
442	③
443	④
444	⑤
445	①
446	④
447	①
448	②
449	①
450	①

쪽수	정답
451	④
452	③
453	①
454	①
455	②
456	②
457	④
458	⑤
459	⑤
460	④
461	③
462	③
463	②
464	②
465	③
466	④
467	⑤
468	②
469	④
470	③
471	④
472	⑤
473	③
474	①
475	④
476	③
477	②
478	③
479	④
480	③

※ 우측 상단 혹은 하단의 쪽수를 기준으로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쪽수	정답
481	④
482	②
483	②
484	②
485	②
486	③
487	②
488	②
489	③
490	④
491	④
492	④
493	④
494	③
495	④
496	②
497	③
498	②
499	⑤
500	④
501	③
502	②
503	⑤
504	①
505	⑤
506	①
507	④
508	③
509	②
510	③

쪽수	정답
511	⑤
512	②
513	①
514	③
515	③
516	⑤
517	②
518	⑤
519	②
520	④
521	⑤
522	④
523	③
524	②
525	②
526	④
527	③
528	②
529	⑤
530	②
531	②
532	③
533	③
534	④
535	②
536	⑤
537	②
538	④
539	④
540	②

쪽수	정답
541	①
542	⑤
543	⑤
544	①
545	②
546	④
547	③
548	⑤
549	②
550	①
551	②
552	④
553	⑤
554	②
555	①
556	④
557	③
558	①
559	③
560	①
561	③
562	④
563	⑤
564	④
565	③
566	①
567	①
568	①
569	③
570	⑤

쪽수	정답
571	①
572	④
573	②
574	⑤
575	①
576	④
577	⑤
578	①
579	⑤
580	④
581	②
582	⑤
583	④
584	③
585	④
586	④
587	⑤
588	④
589	①
590	③
591	⑤
592	③
593	③
594	①
595	③
596	③
597	⑤
598	②
599	⑤
600	③

※ 우측 상단 혹은 하단의 쪽수를 기준으로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쪽수	정답
601	①
602	④
603	⑤
604	③
605	①
606	③
607	④
608	①
609	⑤
610	②
611	④
612	②
613	③
614	①
615	①
616	①
617	③
618	④
619	③
620	③
621	②
622	②
623	①
624	③
625	①
626	④
627	⑤
628	②
629	④
630	①

쪽수	정답
631	⑤
632	②
633	⑤
634	④
635	③
636	④
637	③
638	②
639	⑤
640	④
641	③
642	③
643	②
644	④
645	③
646	④
647	③
648	②
649	④
650	④
651	③
652	③
653	②
654	③
655	①
656	②
657	③
658	③
659	③
660	①

쪽수	정답
661	③
662	③
663	②
664	⑤
665	⑤
666	③
667	③
668	⑤
669	③
670	④
671	①
672	②
673	④
674	①
675	②
676	④
677	①
678	④
679	④
680	④
681	①
682	②
683	⑤
684	①
685	①
686	②
687	③
688	④
689	④
690	②

쪽수	정답
691	①
692	⑤
693	②
694	③
695	①
696	⑤
697	①
698	⑤
699	①
700	⑤
701	①
702	③
703	④
704	⑤
705	③
706	④
707	③
708	④
709	①
710	①
711	⑤
712	④
713	②
714	②
715	③
716	③
717	①
718	⑤
719	③
720	②

※ 우측 상단 혹은 하단의 쪽수를 기준으로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쪽수	정답
721	④
722	①
723	④
724	⑤
725	④
726	⑤
727	⑤
728	④
729	③
730	⑤
731	①
732	④
733	④
734	②
735	⑤
736	②
737	④
738	③
739	②
740	④
741	④
742	①
743	⑤
744	①
745	③
746	②
747	④
748	②
749	①
750	②

쪽수	정답
751	④
752	①
753	①
754	①
755	①
756	①
757	④
758	③
759	③
760	④
761	④
762	④
763	①
764	②
765	⑤
766	②
767	④
768	②
769	②
770	②
771	③
772	③
773	①
774	④
775	⑤
776	②
777	①
778	①
779	③
780	③

쪽수	정답
781	①
782	①
783	②
784	③
785	⑤
786	⑤
787	③
788	④
789	⑤
790	①
791	①
792	①
793	④
794	⑤
795	②
796	②
797	④
798	④
799	①
800	②
801	②
802	①
803	④
804	④
805	③
806	③
807	③
808	②
809	③
810	⑤

쪽수	정답
811	④
812	④
813	②
814	④
815	③
816	②
817	⑤
818	⑤
819	⑤
820	①
821	③
822	③
823	②
824	④
825	④
826	③
827	①
828	③
829	③
830	②
831	③
832	⑤
833	③
834	①
835	①
836	⑤
837	⑤
838	③
839	③
840	②

※ 우측 상단 혹은 하단의 쪽수를 기준으로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쪽수	정답
841	②
842	②
843	②
844	③
845	②
846	④
847	③
848	③
849	④
850	③
851	③
852	④
853	⑤
854	③
855	②
856	④
857	③
858	③
859	①
860	②
861	④
862	①
863	②
864	②
865	③
866	②
867	④
868	⑤
869	③
870	①

쪽수	정답
871	④
872	①
873	②
874	②
875	②
876	②
877	①
878	⑤
879	②
880	②
881	③
882	④
883	④
884	④
885	①
886	⑤
887	⑤
888	①
889	④
890	②
891	⑤
892	③
893	①
894	②
895	⑤
896	④
897	①
898	②
899	④
900	①

쪽수	정답
901	②
902	④
903	②
904	②
905	①
906	⑤
907	④
908	③
909	②
910	④
911	①
912	①
913	⑤
914	②
915	④
916	②
917	⑤
918	①
919	④
920	④
921	③
922	④
923	⑤
924	①
925	③
926	②
927	③
928	⑤
929	⑤
930	④

쪽수	정답
931	①
932	①
933	③
934	④
935	④
936	②
937	④
938	①
939	③
940	⑤
941	③
942	②
943	②
944	⑤
945	③
946	①
947	②
948	③
949	④
950	④
951	④
952	②
953	⑤
954	①
955	④
956	⑤
957	⑤
958	①
959	③
960	①

